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lassics of Marxis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아·쓰팔린

레닌주의의
제 문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라 !



И. Сталин.

이.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외국문서적출판사
모스크바—一九五四年

출판사로부터

이·워·쓰팔턴저서 「레닌주의의
제문제」의 본조선문판은 최근 로문
제十一판(모스크바 국영정치서적출판
사一九五二年)에 의하여 간행된다。

내 용

출판사로부터	一七
태년주의 기초에 대하여 (쓰웨르들로브 대학에서 쓴출한 강의)	一一一—一四四
一、태년주의의 역사적 근거	二四
二、방법	三二
三、리론	四一
四、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	六二
五、농민문제	七七
六、민족문제	九三
七、전략과 전술	一〇四
八、당	一二三
九、사업작풍(事業作風)	一四一

十月혁명과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十月혁명에로 가는 길에서』이란

책의 서문)

一四五—一八九

一、十月혁명의 내외정세

一四五

二、十月혁명의 두가지 특수성에 대하여, 혹은 十月혁명과 트로츠키의

『영속』혁명의 이론

一四九

三、十月혁명 준비기에 있어서의 불쉐비크들의 전술의 몇가지 특수성
에 대하여

一六八

四、세계혁명의 지초 및 전제조건으로서의 十月혁명

一八四

레닌주의 제문제에 관하여

一九〇—二七二

一、레닌주의의 정의

一九〇

二、레닌주의에 있어서의 중요한것

一九三

三、『영속』혁명에 대한 문제

一九六

四、프로테타리아 혁명과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

一九八

五、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체계에 있어서의 당과 노동계급

二〇九

六、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 二四〇

七、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 二五七

농민문제에 관한 당의 세가지 기본적인 표어에 대하여 (안－쓰에게
주는 대답) 二七三—二九〇

十月혁명 준비기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독재의
표어에 대하여 (에스·보크롭스끼에게 주는 대답) 二九一—三〇四

十月혁명의 국제적 성격 (十月혁명 十주년에 제하노) 三〇五—三一六

공물전선에 있어서 (一九二八年 五月二十八일 적색교수원, 공산주의학원, 쓰웨트들로보
공산대학의 학생들과의 회담중에서) 三一七—三三三

중농과의 동맹에 관한 문제와 레닌 (에스동지에게 보낸 대답) 三三四—三四九

전련맹공산당 (몰세비크) 내 우경적 위험성에 대하여 (一九二八年
十月十九일 전련맹공산당 (몰세비크) 모스크바 위원회 및 모스크바
통제위원회의 전련회의에서)

한 연설) 三五〇—三六七

전립맹공산당(불세비크)내 우경에 대하여 (一九二九년 四월의 전립맹 공산당

(불세비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동계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속기록) 三六八—四八〇

一、로선이 하나이나 둘이나? 三七〇

二、계급적 변동과 우리의 의견상위 三七七

三、국제공산당의 로선에 있어서의 의견상위 三八七

四、내부정책의 로선에 있어서의 의견상위 三九五

一、계급투쟁에 대하여 三九六

二、계급투쟁의 첨예화에 대하여 四〇四

三、농민에 대하여 四〇九

四、신경제정책과 시장관계에 대하여 四一三

五、소위 「물물(貨物)」에 대하여 四二〇

六、공업발전의 속도와 종류의 재형태에 대하여 四二七

七、리론가로서의 부하란 四四〇

八、五개년계획이나 二개년계획이나 四五一

九、과중면적에 대한 문제 四五五

十、곡물수매에 대하여 四五八

十一、정화예비(正貨預備) 및 곡물수입에 대하여 四六五

五、당지도의 제문제..... 四六八

가. 부하린그루박의 파당성..... 四六九

나. 중의 및 단합적 지도에 대하여..... 四七一

다. 우경파의 투쟁에 대하여..... 四七六

六、결론..... 四七九

위대한 전환의 해 (十月혁명 十二月년에 제하여)..... 四八一—四九九

一、로동 생산물 영역에서..... 四八二

二、공업건설 영역에서..... 四八四

三、농업건설 영역에서..... 四八八

결론..... 四九九

쏘련에서의 농업정책 제문제에 관하여 (一九二九년 十二月 二十七日 맑스주의자

농업문제 전문가 대표회에서 진술한 연설..... 五〇〇—五三一

一、「균형」론..... 五〇二

二、사회주의건설에서의 「자연발전」론..... 五〇六

三、소농민경영의 「안정성」론..... 五〇八

四、도시와 농촌..... 五一五

五、플호즈의 본질에 대하여..... 五二〇

六、계급적 변동과 당정책상의 전환..... 五二五

七、결론..... 五三〇

계급으로서의 플라크층을 청산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해..... 五三二

성공으로 인한 현훈증 (플호즈운동의 계층제에 관하여)..... 五三八

플호즈원동자들에게 주는 대답..... 五四八

경제일꾼들의 임무에 대하여 (一九三一년 二월 四일에 사회주의적 농업일꾼들의

제一차 전원맹 대표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五七七

새환경과 경제건설의 새 과업 (一九三一년 六월二十三일에 경제일꾼들 회의에

서 진술한 연설)..... 五九二—六二一

一、로동력..... 五九三

二、로동자들의 임금..... 五九六

三、로동조직..... 六〇一

四、로동계급의 생산—기술적 인테리겐차에 대한 문제..... 六〇六

五、구(舊) 생산—기술적 인테리겐차중에서의 전환의 정후..... 六一〇

六、독립채산제에 대하여..... 六一四

七、새 방식으로 일하며 새 방식으로 지도하라..... 六一七

물새비즘 력사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프로레타리아혁명』잡지 편집부

에 보내는 서한)..... 六二二

제一차 五개년계획의 총화 (一九三三년 一월七일에 전연맹공산당(분쇄비크)중앙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의 합동정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六四〇—六九六

一、五개년계획의 국제적 의의..... 六四〇

二、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와 그 실현의 길..... 六五一

三、공업영역에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 六五八

四、농업영역에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 六六九

五、로동자들 및 농민들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시키는 명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 六七七

六、도시와 농촌사이의 상품유통명역에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 六八三

七、적대계급들의 잔재와 투쟁하는 명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 六八八

八、일반적 결론..... 六九三

농촌사업에 대하여 (一九三三年 一月十一일 전련맹 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

통제위원회의 합동전원회의에서의 연설).....

六九七

폴호즈원—들격대원들의 제一차 전련맹 대회에서의 연설 (一九三三年

二月 十九일).....

七一六—七三八

一、폴호즈의 길은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七一六

二、우리의 당면임무는 모든 폴호즈원들을 부요하게 만드는것이다..... 七二七

三、몇개의 주의사항..... 七三二

전립맹공산당(물세비크) 제十七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의 사업
 에 관한 총결보고(一九三四年 一월二十六일).....七三八—八四四

一、제제자본주의의 계속되어가는 공황과 쓰련의 대외정책.....七三八

(1)、자본주의 여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공황의 행적.....七四一

(2)、자본주의 여러나라에 있어서의 정치정세의 침예화.....七四九

(3)、쓰련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七五七

二、쓰련인민경제의 계속되어가는 향상과 국내정제.....七六四

(1)、공업의 향상.....七六八

(2)、농업의 향상.....七七七

(3)、근로자들의 물질상태 및 문화의 향상.....七九五

(4)、상품류통의 재고와 운수업.....八〇二

三、당(黨).....八〇九

(1)、사상적—정치적 지도의 재문제.....八一〇

(2)、조직 지도의 재문제.....八二七

결론대선 一九三四年 一월三十一일.....八四四

크래프트 공전에서 거행된 폭은 군대 대학 졸업식에서의 연설(一九三

五、五월四일) 八四五

제一차 소련 쓰파하노브 운동자 회의에서의 연설 (一九三五년 十一

월十七일) 八五四—八七四

一、쓰파하노브 운동의 의의 八五四

二、쓰파하노브 운동의 근원 八六〇

三、새 사람—새 기술적 정량 八六六

四、당면과업 八七〇

五、두어마디말 八七三

소페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헌법 초안에 대하여 (제八차 전련맹 소베트

비상대회에서 一九三六년 十一월二十五일에 한 보고) 八七五—九一七

一、헌법 기초 위원회의 형성과 그의 임무 八七五

二、一九二四년부터 一九三六년까지 이르는 기간에 소련의 실생활에서 생

진 변천 八七七

三、헌법초안의 기본적 특성.....	八八六
四、헌법초안에 대한 부르조아적 비판.....	八九二
五、헌법초안에 관한 수정안과 보충안.....	九〇二
六、쑸련 새 헌법의 의의.....	九一六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一九三八년 九月).....	九一八
제十八차 당대회에서 진술한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一九三九年 三月十日).....	九五七—一〇一五
一、쑸련의 국제정세.....	九五七
(1)、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세 경제공황。판대시장과 원료원천을 위한, 세계의 재분 할을 위한 투쟁의 첨예화.....	九五八
(2)、국제정치정세의 첨예화, 전후 평화조약체계의 붕괴, 제국주의전쟁의 개시.....	九六三
(3)、쑸련과 자본주의제국(諸國).....	九七一
二、쑸련의 국내정세.....	九七四
(1)、공업과 농업의 계속양양.....	九七五
(2)、인민의 물질적 형편과 문화상태의 가일층 향상.....	九九三
(3)、쑸베트제도의 계속 공고화.....	九九九

三、전련맹공산당(불쉐비크)의 가일층의 공고화.....	一〇〇三
(1)、당성분의 개선방침。조직체의 세분。하부사업에로의 지도적 기관의 접근.....	一〇〇四
(2)、간부의 선발、그들의 등용、그들의 배치.....	一〇〇七
(3)、당선전사업。당원과 당간부들의 맘스—매년주의적 교양.....	一〇一一
(4)、별가지 리론문제.....	一〇一五

출판사로부터

『레닌주의의 제문제』의 본十一판이 제十판과 다른점은 다소 간진절한 의의를 가진 새 여러 저서를 그에 가입한 그것이다. 즉

(一) 『크레블리 궁전에서 거행된 붉은군대대학 졸업식에서의 연설』(一九三五년 五月 四일)、

(二) 『제一차 쓰련 쓰따하노브 운동자 회의에서의 연설』(一九三五년 十一月 十七日)、

(三) 『쑤페트 사회주의 공화국련맹 헌법초안에 대하여』(제八차 전련맹 쑤페트비상대회에서一九三六년 十一月 二十五일에 한 보고)、

(四)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대하여』(一九三八년 九月에 『쓰련 공산당(불셰비크) 역사 간략독본』에 쓰달린 동지가 저술한 저작)、

(五) 『제十八차 당대회에서 진술한 전련맹 공산당(불쉐비크) 중앙위원회의 사업 보고』 (一九三九년三月十日)。

본서의 이전 용적을 보유했기 위하여 『레닌주의의 제문제』의 본판에는 제十판에 실렸던 『제一차 미국로동 대표단과의 담화』, 『전련맹 공산당(불쉐비크) 제十六차 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 총결 보고』와 『영국문화계·테·우엘쓰와의 회담』을 편입하지 아니하였다。

이 정정은 저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한 것이다。

국영정치서적출판사

레닌주의의 제문제

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

쓰웨트들로브 대학에서 논술한 강의

레닌기념 당원모집에 의하여
입당된 동무들에게 드린다.

이·쓰팔틴

레닌주의 기초——이것은 큰 제목이다. 이것을 론진(論盡)하려면 전권의 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보다도 여러권의 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강의가 레닌주의에 대한 충분한 론술이 될수 없는것은 자연한 일이다. 나의 강의는 잘되는 경우에 따라야 다만 레닌주의의 기초의 간략한 개요(綱要)가 될수있을 따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레닌주의를 성과있게 연구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기본적 출발점을 주기위하여 이 강요를 논술하는것이 유익하리라 하고 생각한다.

레닌주의 기초의 론술——이것은 아직 레닌의 세계관의 기본을 논술한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레닌의 세계관과 레닌주의의 기초는 그 범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레닌은 맑스주의자이다. 그러므로 그의 세계관의 기본도 물론 맑스주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레닌주의의 론술은 반드시 맑스주의 기초의 론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배닌주의의 론술——이것은 배닌이 맑스주의의 총보물고(總寶物庫)에 접어넣었고 자연히 그의 이름과 연결된 그의 저서중에 있는 특수한것, 새로운것을 론술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나는 오직 이러한 의미에서만 배닌주의의 기초에 대한 것을 나의 강의에서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 배닌주의란 무엇인가?

어떤자들은 말하기를 배닌주의는 맑스주의를 로씨야 환경의 특수한 조건에 적용한것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는 옳은 점도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진리를 론진하였다하기에는 너무도 과하다. 배닌은 실상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현실에 적용하였으며 또 그것을 숨겨 있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만일 배닌주의가 다만 로씨야의 특수 사정에 맑스주의를 적용한것뿐이라고한다면 배닌주의는 순전히 일국적, 다만 일국적 현상일것이오 순전히 로씨야적, 다만 로씨야적 현상일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닌주의가 전(全)국제적 발전에 근거를 가지고있는 국제적 현상이지 다만 로씨야적 현상만이 아님을 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 정의가 일면적(一面的)인것이라고 인정한다.

또 어떤자들은 말하기를, 배닌주의는 마치 온화적, 비혁명적으로 된듯한 十九세기 四十年대 이후의 맑스주의와는 판이(判異)한 十九세기 四十年대의 맑스주의의 혁명적 제요소를 부활시킨것이라고 한다. 만일 이렇게 맑스의 학설을 미련하고 천박하게 혁명적인것과 온화적인것 두 부분에 나누어 놓는것을 추상(抽象)하여 놓고 본다면 이와같이 전혀 불충분하고 불만족한 정의에도 옳은 점이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그 옳은 점은 배닌이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이 과몰어버틴 맑스주의의 혁명적

내용을 참으로 부활시킨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진리의 한점일 따름이다. 데인주의에 대한 전체 진리는, 데인주의는 다만 맑스주의를 부활시켰을뿐만 아니라 그는 맑스주의를 자본주의의 새 조건과 프로테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새 조건하에서 더 발전시킴으로써 더 전진시킨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데인주의란 무엇인가?

데인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시대인 맑스주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데인주의는 일반적으로는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전술이고 특수적으로는 프로테타리아 독재의 이론과 전술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아직 발전된 제국주의가 없던 혁명전기(우리는 프로테타리아 혁명을 넘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에, 프로테타리아들이 혁명에 준비되고있던 시기에, 아직 프로테타리아 혁명이 직접 실천적 불가피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던 그 시기에 활동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제자인 데인은 발전된 제국주의 시기에, 프로테타리아 혁명이 벌써 한나라에서 승리하여 부르조아민주주의를 다과하고 프로테타리아 민주주의의 기원(紀元)、쑤베트의 기원을 열어놓은때인, 프로테타리아 혁명이 전개되는 시기에 활동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데인주의는 맑스주의가 앞으로 더 발전된 그것이다.

흔히 데인주의의 특히 전투적이오 특히 혁명적인 성격을 지적한다. 이것은 참으로 옳다. 그런데 데인주의의 이 특성은 두가지 원인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첫째로, 데인주의는 프로테타리아 혁명속에서 나왔으므로 자체에 그 흔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것이오, 둘째로, 데인주의는 자본주의와 성과있게 투쟁하는때 필요한 진제조건이었

고 또한 전제조건으로 되어있는 제 2국제당의 기회주의와 투쟁하는 데서 자라났으며 현실하여진 그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를 한편으로 하고 레닌을 다른 편으로 한 그 사이에는 제 2국제당의 기회주의가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큰 시기가 놓여 있었으니 그 기회주의와의 무자비한 투쟁은 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되지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一、레닌주의의 역사적 근거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절정(絶頂)에 달한때인,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직접적 천적 문제로 된때인, 노동계급이 혁명에 준비되고있던 옛시기는 끝나고 자본주의를 직접 습격하는 새 시기에로 넘어온때인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 자라났으며 또 형성되었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죽여가는 자본주의」라고 명명(命名)하였다. 왜 그리하였는가?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그뒤에 올것은 혁명밖에는 없는 그러한 최후의 계선(界線)에까지, 극한에까지 이르게하는 까닭이다. 이 모순들중에서 제가지 모순을 가장 중요한것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이다.

첫째. 모순——이것은 노동과 자본과의 사이의 모순이다. 제국주의란 공업국들에서의 독점적 트레스트 및 쉐지카트, 은행과 금융과두(金融寡頭)의 전횡이다. 이 전횡과의 투쟁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통상적 방법들——직업동맹과 협동조합, 국회적 정당과 국회적 투쟁——은 전혀 불충분한것으로 되어졌다. 자본의 호의(好意)대로 자신(自身)을 방

임(放任)하면서 이전대로 살아가면서 병락(零落)하여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 무기를 잡든지 하라——이렇게 제국주의는 수백만 프로테타리아트 대중의 앞에 문제를 세운다. 제국주의는 로동계급을 혁명에로 고을어나간다.

둘째. 모순——이것은 원로의 산지(產地)와 남의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각이한 차별 및 제국주의 열강간에 있는 모순이다. 제국주의란 원로산지에로의 자본의 수출이며 그 원로산지의 독점을 위한 맹렬한 투쟁이며 이미 분할된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이며 「태양빛이는 곳」을 찾는 새 차별들 및 열강들의, 이미 략탈해낸것을 굳게 잡고있는 제국의 차별 및 열강들을 반대하는 특히 완강한 투쟁이다. 이 각이한 자본가 집단들간의 맹렬한 투쟁은 불피적 요소로써 제국주의 전쟁 즉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전쟁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있는 그 점에 있어서 특이(特異)한것이다. 따라서 이 사세도 그가 제국주의자들을 서로 약하게하는데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진세(陣勢)를 약하게하는데로,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시각을 가깝게 하는데로, 그 혁명을 실제적 필연(必然)적인것이 되게하는데로 이르게하는 그점에 있어서 또한 특이한것이다.

셋째. 모순——이것은 지배하는 극소수의 「문명」한 민족들과 세계의 수억만의 식민지 및 예속국 인민들과의 사이에 있는 모순이다. 제국주의란 광대한 식민지와 예속국들의 수억만 주민들의 가장 물림치한 착취이며 가장 비인간적인 압박이다. 초파리윤(超過利潤)을 짜내는것——이것이 곧 그 착취와 그 압박의 목적이다. 그런데 제국주의는 이 나라들을 착취하면서 이 나라들에 칠도, 제조소와 공장, 공업중심지 및 상업중

삼지들을 전설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프로테타리아 계급이 출현한 것, 본토(本土)인 테리겐차가 발생하는 것, 민족적 자각이 분발되는 것, 해방운동이 강화되는 것——이러한 것이 그 「정책」의 필연적 결과들이다. 레외없이 모든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혁명운동이 강화하여감은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한다. 이 사실은, 그가 식민지들과 예속국들을 제국주의의 후비(後備)로 부러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후비로 변환시키면서 자본주의의 진세를 근본적으로 허무러버리는 그 점에 있어서 프로테타리아에게 중요한 것이다.

「변형하여 가는」 이전의 자본주의를 죽여 가는 자본주의로 변환시킨 제국주의의 주되는 모순들은 대체로 이러하다.

여하한 十년전에 일어났던 제국주의 전쟁의 의의는 그것이 이 모든 모순을 한몫음에 모아서 완결에 내어놓음으로써 프로테타리아트의 혁명적 전투를 촉진시켰으며 또 그를 쉽게 하여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는 다만 혁명이 실제적 필연으로 됨에 이르러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주의의 요새(要塞)의 직접 들격에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함에까지 이르러하였다.

레닌주의를 산출한 국제적 환경은 이러하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제국주의의 전형적(典型的)나라가 아니었고 또 그것이 될 수도 없었던 로씨야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선 로씨야에서 일하였고 또 로씨야를 위하여 일한 레닌이 그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까닭에 바로 로씨야가 레닌주의의 발상지(發祥地)가 되었으며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대한 이론과 전술의 조국이 되었는가? 하고 우리에게 말들을 할 것이다.

그것은 로씨야가 제국주의 이 모든 모순의 결절점(結節點)이었던 까닭이다.

그것은 로씨야가 어떠한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혁명을 패배하였고 또한 이때문에 오직 로씨야만이 혁명적 방법으로 이 여러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짜리로씨야가 가장 비인간적, 야만적 행태를 가진 온갖 종류의——자본주의적, 식민지적, 군사적——압박의 근원지(根源地)이었던것으로부터 시작하자. 로씨야에 있어서 자본의 전능은 짜리즘의 폭정(暴政)과 합류(合流)되었고 로씨야 민족주의의 침략성은 비(非)로씨야 인민에게 대한 짜리즘의 잔인무도한 행위와 합류되었고 여러 지역——토이기, 파사, 중국——에 대한 착취는 짜리즘이 그 여러 지역을 장점하는 것과 또 장점하기 위하여 전쟁하는 것과 합류되었던것을 누가 모르랴? 메년이 짜리즘을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라고 칭한것은 정당하다. 짜리즘은 제국주의의 가장 부정적(否定的)인 모든 방면을 자승(自乘)한것의 집중이었었다.

그리고 짜리로씨야는 로씨야의 인민경제의 중요한 결정적 부문들인 연로산업이나 금속공업과 같은것을 자기의 손에 잡고있는 외국자본에 자유류입(自由流入)을 허여하였다는 의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로씨야가 서방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수백만의 군인들을 공급할 수 있었던 그 의미에 있어서도 서방 제국주의의 위대한 후비였었다. 영불 자본가들의 폭리의 보장을 위해 제국주의전쟁의 전선에서 피흘린 一천四백만의 로씨야 군대를 기억하라.

그리고 짜리즘은 다만 동부구라파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빈전(番犬)이었을뿐만 아니라 또한 파리, 런던, 베를린, 부류셀에서 짜리즘에게 내어준 차판(借款)에 대한 수익의 리자를 주민들에게서 짜내는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이었던것이다.

마지막으로 짜리듬은 토이기, 파사, 중국등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서방 제국주의의 가장 충실한 동맹자였다. 짜리듬은 연합국의 제국주의자들과 동맹하여가지고 제국주의 전쟁을 진행하였던것과 또 로씨야가 그 전쟁의 지중(至重)한 요소이었던것을 누가 모르랴?

바로 그렇기때문에 짜리듬과 서방 제국주의의 리해관계는 서로 엉키어져서 결국 제국주의적 리해관계의 한탕어리에 합류(合流)되었다.

서방 제국주의가 짜리듬의 방위 및 보전의 목적으로, 로씨야의 혁명과 결사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써보지않고 이전의 짜리듬, 부르쾆아적 로씨야와 같은 동방에서의 그렇게 강대한 지주(支柱)와 그렇게 힘과 물자(物資)가 풍부한 저장지(貯藏地)를 잃어버리는것을 참을수 있었겠는가? 물론 참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는 누구든지 짜리듬을 타도하려고 한자는 반드시 제국주의를 칠수 밖에 없었고 누구든지 짜리듬을 반대하여 봉기한자는 반드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도 봉기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결론이 생기는것이니 그것은 짜리듬을 전복하는자는 그가 만일 참으로 짜리듬을 깨트릴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지없이 소탕(掃蕩)하려고 생각하였다면 또한 제국주의도 전복하지않으면 안될것인 까닭이다. 이리하여 짜리듬을 반대하는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가까워지여 그혁명에로 전화하지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로씨야에서는 로씨야의 혁명적 농민과같은 그런 성실한 동맹자를 자기의 배하(配下)에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트가 선두에 서서 나간 가장 위대한 인민혁명인 일어나고있었다. 이러한 혁명은 중도에서 정지될수 없

있으며 또한 그 혁명이 성공되는 경우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봉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었던 것을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실로 이러한가 때문에 여러가지 모순의 특히 추악(醜惡)하고 또한 특히 참을수 없는 성질로 말미암아 실로 로찌야에서 그 모순들이 어디에서 보다도 쉽게 발로되었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로찌야가 서방의 금융자본을 동방의 식민지와 련결시키는 서방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주(支柱)이었던 까닭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제국주의의 모순들을 혁명적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실제적(實際的) 력량이 오직 로찌야에만 있었던 까닭에 로찌야는 마땅히 제국주의 모순들의 결절점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로찌야에 있어서 혁명은 프로레타리아적 혁명이 되지않을수 없다는, 혁명은 자체 발전의 첫날부터 국제적 성질을 띠지않을수 없었고 이리하여 그 혁명은 세계제국주의의 그 모든 근저(根底)를 뒤흔들어놓지 않을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로찌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사업에서 로찌야 혁명의 좁은 국적 범위에 국한될수가 있었겠는가? 물론 국한될수 없었다! 도리어 내부정세(심각한 혁명적 위기)나 외부정세(전쟁)나 모든 정세는 그들로하여금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며 투쟁을 세계적 무대에 옮겨놓으며 제국주의의 종처(腫處)를 들어나보이며, 자본주의 파멸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며 사회배외주의와 사회평화주의를 타파하며 마지막으로는, 자국내의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에게 투쟁의 새 무기,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전술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게하였으니 이것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에게

자본주의 전복사업을 쉽게 하여 주기위한 것이었다.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은 참으로 달리는 행
동할 수 없었다. 왜 그러냐하면 오직 이와 같은 방도(方途)로써만 로씨야에 부르조아적 질
서가 복구(復古)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국제정세에서의 일정한 빈경을 기대할 수
가 있었던 까닭이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로씨야가 레닌주의의 발원지가 되었고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수
령인 레닌이 레닌주의의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에 있어 로씨야와 레닌이 『당한 경우』는 지난세기 四十年대의 독일과 맑스-
엥겔스가 『당한 경우』와 근사한 것이었다. 그때의 독일은 二十세기초의 로씨야와 같이 부
르조아혁명으로 배태되어 있었다. 맑스는 그때에 『공산당 선언』에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에 대하여 그의 주요한 주의를 물리는 것은 독일이 부르조아 혁명의 전야(前夜)에
처하여 있는 까닭이며 또한 독일은 十七세기의 영국이나 十八세기의 불란서보다 훨씬 더 발달된 프로테스타
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구타와 문명의 더욱 진보된 조건하에서 이 빈혁을 수행할 것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독
일의 부르조아 혁명은 오직 프로테스타리아 혁명의 직접 서막(序幕)으로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혁명운동의 중심이 독일로 이동되었던 것이다.

상기한 인용문에 맑스가 지정한 그 정세야말로 다름아닌 독일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조국이 되었으며 독일 프로테스타리아트의 수령들인 맑스와 엥겔스가 그의 창조자들이 되
었음에 대한 그럴듯한 원인이 된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을 가한다.

二十세기초의 로씨야에 대하여서도 일층 더한 정도에서 그와 똑같은 것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로씨야는 그 시기에 부르조아 혁명의 전야(前夜)에 처하여 있었고 그는 十九세기

四十년대의 독일보다(영국과 불란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것도 없이) 더욱 발달된 프로테타리아트를 가지고서 구라파에서 더욱 진보된 조건하에서 그 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었는바 이에 있어서 모든 진상은 그 혁명이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효모(酵母)와서 막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었음을 말하여주었다.

레닌이 이미 로씨야 혁명이 겨우 태동(胎動)하고 있던때인 一九〇二년에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그의 소책자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쓴 그 사실은 우연한것이라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역사는 지금 어떠한 나라의 프로테타리아트에게나 다 당면한 일체의 임무중의 가장 혁명적인 임무가 되는 그러한 당면 임무를 우리의 앞에(즉 로씨야 맑스주의자들앞에)——이(쓰말린)내세웠으며」, 그리고: 「이 임무의 실현 즉 구라파뿐만 아니라 또한(우리가 지금에 있어 말할수있다) 아세아의 반동세력의 가장 장대한 아성(牙城)을 파괴하는것은 로씨야의 프로테타리아트로 하여금 세계 혁명적 프로테타리아트의 선봉이 되게 할것이다」(제四권 三八二페이지)*.

달리 말하면 혁명운동의 중심이 반드시 로씨야로 옮겨질것이였다.

로씨야 혁명의 행정이 레닌의 이 예언을 충분히 확증하였음은 다 아는바이다.

이런 다음에도 그와같은 혁명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프로테타리아트를 가지고있는 그 나라가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기술의 조국이 된것이 기이한 일이겠는가?

레닌이 로씨야 프로테타리아트의 수령인 동시에 그 이론과 기술의 창조자가 되었고 국제프로테타리아트의 수령이 된것이 기이한 일이겠는가?

• 본서에 인용된 레. 이. 레닌 저작집에서의 인용문은 레. 이. 레닌 저작집 제三卷에 의한것임(역자주).

二. 광범

나는 위에서 광스—엔겔스를 한편으로 하고 레닌을 다른편으로 한 그 사이에는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가 지배한 긴 시기가 놓여있었다고 말하였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의 형식상의 지배에 대하여 말함이 아니라 다만 그의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서 말한다는 것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제2인터내셔널의 전두에 「충실한」 광스주의자들인 「정통파」——카우츠키 및 기타가 서있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제2인터내셔널의 기본적 사업이 기회주의적 로선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기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순응적(順應的)、소부르조아적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르조아지에 순응하였었고 그리고 「정통파」도 역시 기회주의자들과의 「통일보전」을 위하여, 「당내의 평화」를 위하여 기회주의자들에게 순응하였다. 그 결과로 기회주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니 그것은 부르조아지의 정책과 「정통파」의 정책과의 사이에는 연쇄(連鎖)가 연결되었던 까닭이다.

그 시기는 자본주의가 비교적 평화롭게 발전되던 시기, 말하자면 전쟁전 시기였다. 즉 제국주의의 파멸(破滅)적 모순이 아직 완전히 명백하게 발로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과업과 직업동맹들이 다소간 「정상적(正常的)」으로 발전되는 그때, 선거투쟁(選舉鬭爭)과 국회대의원단이 「현훈증(眩暈症)」이 날만한 「성과를 주는 그때, 합법적 투쟁형태가 극단으로 찬양되었고 합법적 수단으로써 자본주의를 「죽인다」고 생각하던 시기, 한마더로 말하면 제2인터내셔널에 속한 당들은 너무나 비만(肥滿)하여져서 혁명에

대하여서나,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에 대하여서나, 대중의 혁명적 교양에 대하여서는 심중하게 생각하려고도 하지않던 시기였다.

완전(完全)한 혁명적 이론대신에 대중의 산혁명적 투쟁으로부터 떨어진 정설(定說)로 변환된 서로 모순되는 이론적 명제(命題)와 이론의 단편(斷片)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는채하는것을 보이기 위하여 물론 맑스의 이론을 회상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맑스의 이론으로부터 산혁명적 정신을 빼버리기 위함이었다.

혁명적 정책대신에 무기력(無氣力)한 추론(俗論)과 멀정한 권모술책(權謀術策)과 국외적 외교와 국외적 리합(離合)들이었다. 물론 그러는채하는것을 보이기 위하여 「혁명적」 결의와 포어를 채택하기는 하였지만은 그것은 그 결의와 그 포어를 과몰어두기 위함이었다.

자제 과오(過誤)의 경험에 의하여 당으로 하여금 옳은 혁명적 전술에 대한 교양을 받게하며 혼란을 받게할 대신에 초미(焦眉)의 문제들을 용의주도하게 회피하며 그 문제들을 덮어놓으며 또 호리터분하게 하는것뿐이었다. 그러는채하는것을 보이기 위하여서는 물론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부하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고무처럼 신축성 가진」 결정서로 문제를 끝마쳐버리기 위함이었다.

이러한것이야말로 제2인터내쇼날의 정체(正體)이었으며 그의 사업방법이었으며 그의 무기고(武器庫)였다.

그런데 제국주의전쟁과 프로테타리아트의 혁명적 전투의 새시기가 닥쳐오고있었다. 낡은 투쟁방법은 금융자본전능의 앞에서는 아주 불충분하고 무능력하게 되었다.

제二인터내쇼날의. 모든 사업과 그의 모든 사업방법을 제검토하고 그리하므로써 숙론, 제철성, 권모술책, 반역 행동, 사회배외주의, 사회평화주의를 몰아냄이 필요하였고 제二인터내 쇼날의 전(全) 무기고를 검열하고 모든 누(鎗)이 쓸고 닦여버린것을 내버리고 새 종류의 무기를 단련하여 내지아니하면 안될것이였다. 이와같은 준비사업이 없이는 자본주의와 전쟁에 출전할 필요조차 없었던것이다. 이와같은것이 없이는 프로테타리아트는 불충분하게 무장하였거나 또는 심지어 그냥 무기가 없이 세 혁명적 전투에 직면하게될 위험이 있었다.

제二인터내쇼날의 오지아쓰왕의 말의양편을 총검열하며 총청결하는 그 임무는 레닌주의에 담임(擔任) 되였다.

실로 이러한 환경에서 레닌주의의 방법이 생기었으며 또 단련되였다. 이 방법의 요구는 무엇에 귀결되는가?

첫째로는, 대중의 혁명적 투쟁의 불속에서, 산 실천의 불속에서 제二인터내쇼날의 이론적 정설들을 검열하는데, 다시말하면 이론과 실천사이의 파괴된 통일성을 부활시키는 데, 양자간에 괴리(乖離)를 청산하는데 귀결하는것이니 그것은 오직 그렇게함으로써만 혁명적 이론으로써 무장한 진정한 프로테타리아 당을 조직할수있는 까닭이다.

둘째로는, 제二인터내쇼날에 속한 당들의 정책들 그 당들의 표어와 결정서(그것으로서서는 믿을수 없는고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 당들의 사업과 행동에 의하여 검열하는데 귀결하는것이니 그것은 오직 그렇게함으로써만 프로테타리아 대중의 신임을 전취할수 있으며 또 그 신임을 받을수있는 까닭이다.

셋째로는, 혁명적 투쟁을 위하여 대중을 교양하며 준비하는 정신으로써 새 혁명적 기조(基調) 위에 당사업의 전체를 개조하는 데 귀결하는 것이니 그것은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대중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준비시킬 수 있는 까닭이다.

넷째로는, 프로레타리아 당의 자기비판에, 그 당들을 자체의 파오에 의하여 혼란하며 교양하는 데 귀결하는 것이니 그것은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당의 진정한 간부들과 진정한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것이 레닌주의 방법의 기본이오 본질이다.

이 방법은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었는가?

제2인더내쇼날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항상 출발점으로 하는 여러가지 이론적 정설이 있는 것이니 이제 그중에서 몇가지를 들어보자.

첫째 정설——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전취하는 조건들에 대한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만일 프로레타리아트 자체가 그 나라에 있어서 다수가 되지 못할진대 그는 주권을 잡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잡아서는 안된다고 확언한다. 그러나 이 황란무게한 논단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립증(立證)하여 별 가능성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논증도 없다.

레닌은 제2인더내쇼날의 인사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고 가정하자. 그렇지만 만일 주민중의 소수가 되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기의 주위에 대다수의 근로대중을 결속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정세(전쟁, 농업공황등)가 생기었다면 무슨 까닭에 프로레타리아트는 주권을 잡지 않아야 할 것인가? 무슨 까닭에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의 전선을 돌파하고 또 전반적 종국(終局)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리한 국제적 및 국내적 정세

를 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맑스는 벌써 지나간 세기 五十年대에 만일 말하자면 『농

민전쟁의 재발(再發)』으로써 프로테타리아 혁명을 지지할 수 있었더라면 독일에 있어서 프로테타리아의 혁명의 대업(大業)은 「홀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때의 독일 프로테타리아들의 수가 레킨대、一九一七년의 로씨야 프로테타리아들의 추보다 비교적 적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가 아닌가? 로씨야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실천은 제 二인터내셔널 영웅들의 가장 사랑하는 이 정설이 프로테타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등의 실천적 의의가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았는가? 대중의 혁명적 투쟁의 실천이 이 남아버린 정설을 취해야며 또 취해야 버릴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둘째 정설——만일 프로테타리아트에게 나라를 관리하여 갈만한 문화행정(文化行政) 방면의 이미 준비된 중견일꾼들의 충분한 수요가 현존하지 못할진대 그는 주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니——먼저 자본주의의 환경에서 그 일꾼들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오 그런 다음에 주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자고 하면서 레닌은 대답하기를, 그렇지 만 무슨 까닭에 먼저 주권을 잡아서 프로테타리아트의 발전에 대한 유리한 제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근로대중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또 노동자들 가운데서 지도일꾼 및 행정 간부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하여 장족지세(長足之勢)로써 전진하도록 해서는 왜 안 되는가? 노동자 출신의 지도간부들은 자본주의의 주권하에서 보다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하에서 백 배나 더 속하게 또한 더 견실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로씨야의 실체가 피지 않았는가? 대중의 혁명적 투쟁의 실천은 기회주의자들의 이 이론적 정설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셋째정설——정치적. 총동맹과업 방법은 프로레타리아에게 있어서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라냐하면 그것은 이론적으로 무근거한것이오(엥겔스의 비판을 보라) 실천적으로 위험한것이며(국내 경제생활의 정상적 진행을 혼란케할수 있을것이며 직업동맹의 금고(金庫)들을 말려버릴수 있을것이라고 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주되는 형태인 국회적 투쟁형태를 바꾸어 채용수없는 까닭이다. 레닌주의자들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한 다——좋다, 그러나 첫째로, 엥겔스는 어떠한 총동맹과업이든지 다 비판한것이 아니라 다만 총동맹과업의 일정한 종류,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투쟁대신에 무정부주의자들이 내세운 그들의 경제적. 총동맹과업을 비판한것인데 정치적. 총동맹과업 방법이 대체로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둘째로는, 그 누가 어디에서 국회투쟁형태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주되는 형태라는것을 증명하였는가? 혁명운동의 력사는, 국회내에서의 투쟁은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의 국회밖에서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학교이며 보조수단일 따름이라는것과, 자본주의하에서 로동운동의 기본되는 문제들은 폭력으로써,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직접 투쟁으로써, 그들의 총동맹과업으로써, 그들의 봉기로써 해결된다는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셋째로는, 국회내의 투쟁을 정치적. 총동맹과업 방법으로 바꾼다는 문제는 어디에서 고집어낸것인가? 어디에서, 언제 정치적. 총동맹과업의 주창자들이 국회내의 투쟁형태를 국회밖에서의 투쟁형태로써 바꾸려고 기도하였는가? 넷째로, 로씨야의 혁명은, 정치적. 총동맹과업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가장 위대한 학교이오 또 자본주의 아성을 습격하는 전야(前夜)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시키며 조직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은지 바꿀수없는 수단이 된다는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경제생활의 정상적 진행(進

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과 직업동맹들의 금고에 대한 속학자적 비판(俗學者의悲嘆)은 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혁명적 투쟁의 실천은 기회주의자들의 이 정설도 또한 깨트려버리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등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레닌은 『혁명적 이론은 정설이 아니오』 그는 『다만 참으로 대중적 이오 참으로 혁명적인 운동의 실천과의 밀접한 연결에서만 종국적(終局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것이다』(『소아병』)라고 말하였다. 왜 그리냐 하면 이론은 반드시 실천에 봉사(奉事)해야 할 것이며 『이론은 반드시 실천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답하여야 할 것이오』(『인민의 벗』) 이론은 반드시 실천의 결과로써 검열되어야 할 것인 까닭이다.

제2인테내쇼날에 속한 당들의 정치적 포어와 정치적 결정서에 관하여 말한다면, 찬란한 혁명적 포어나 결정서로써 자체의 반(反)혁명사업을 감추는 그 당들의 정치적 실천의 모든 거짓과 모든 부패를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에 대한 전쟁』이라는 포어의 사건을 기억만 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봉기의 온갖 재화(災禍)로써 대답하리라 하고 제국주의자들을 향하여 위협하였고 또 『전쟁에 대한 전쟁』이라는 두려운 포어를 내세웠던 제2인테내쇼날 바젤대회의 장쾌한 지위는 일반이 다 기억하는 바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바로 전쟁이 시작될 틈시에 바젤 결정서는 파문어 버리고 자본주의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서로 살육(殺戮)하라는 새 포어를 노동자들에게 내어놓은 것을 그 누가 기억하지 못하랴? 만일 혁명적 포어나 혁명적 결정서들이 사업으로써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푼어치 값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

은가? 기회주의 정치광(政治狂)들의 전(全) 비렬성과 레닌주의 방법의 전 위대성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다만 전쟁당시에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전쟁으로 변환시키라는 레닌적 정책을 제2인터내쇼날의 반역적 정책과 대조하기만 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나는 모든 당(黨)들을 그 사업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 당의 지상(紙上)표어와 문서에 의하여 판단하려고하는 제2인터내쇼날의 지도자인 칼·카우츠키의 기회주의적 지도를 엄혹하게 논박한 레닌의 「프로테타리아 혁명과 반역자 칼·카우츠키」란 저서중에서 한 구절을 이에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카우츠키는 마치 표어를 내거는 것이 사업을 변경하는 듯이 : 공상하면서 전형적인 시정인자(市井人的)·속물적 정책을 시행한다.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전(全)적 사상은 이 환상(幻想)을 폭로하여 준다——즉 인민을 속이기 위하여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은 어떠한 「표어」든지 항상 내어놓았으며 또한 항상 내어놓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정의(正義)를 검열하는데 있으며 말과 행동을 대조하는데 있으며 판별론적 혹은 사기사적 언사로서만 속할 것이 아니라 계급적 실체(實體)를 찾아내는데 있는 것이다」(제二三권 三七七페이지를 보라)。

나는 제2인터내쇼날에 속한 당들이 자기비판을 겁내는 데 대하여서와 자체의 과오를 숨기며 초기의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활기있는 의사를 무디게 하며 또 자체의 과오의 경험에 의하여 당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정체(停滯)시키는바의 모든 일들이 잘되어간다는 데 대한 사기적 허식(虛飾)으로써 자체의 부족점을 가리워버리는 그들의 상투수단, 즉 레닌이 조소하였고 또한 더러운 것이라고 판박아놓은 상투수단에 대하여서는 말하지도 않는다. 레닌은 「소아병」이라는 그의 소책자에 프로테타리아 당들의 자기비판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 『정당이 자체의 파스에 대한 태도는 그 당의 신중성 및 자기의 계급 및 근로대중에게 대한 사실에 있어서의 그의 의무 실행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기준(基準)의 하나이다. 공공연히 파스를 자백하며 그 원인을 발로하며 그것을 산출(産出)한 환경을 분석하며 파스를 고치는 수단을 주의깊게 강구하여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중성있는 당의 표징(表徵)이요 이것이야말로 그 당이 자체의 임무를 실행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계급을, 또 그 다음에는 대중을 교양하며 훈련하는 것이다』 (제二五篇 二〇〇 페이지를 보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자체의 파오를 들추어내는 것과 자기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이 프로레타리아 당을 반대하는 적들에게 리용될수 있는 것이므로 당에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 레닌은 그와같은 반박은 신중치 못한 것이요 또한 전혀 옳지 못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이미 우리 당이 아직 약하였고 또한 크지 못하였을때인 一九〇四년에 『일보전전』이란 그의 소책자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즉 맑스주의자들의 적들——이 • 쓰팔린)은 우리의 논쟁을 관찰하면서 악의(惡意)로 기뻐하며 낮을 정그린다. 그들은 물론 우리당의 결합과 부족점을 논술한 나의 소책자의 어떤 구절을 자기의 목적에 리용하기 위하여 고집어내려고 애쓸것이다. 그러나 로씨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벌써 그와같이 표집어때는데 대하여서는 저춤거리지 않을만큼 또한 그들이 그렇게함에도 불구하고 로동운동이 자라남을 따라 기어히 또한 반드시 극복되게될 그 자체의 결합을 용서없이 폭로하며 자기비판사업을 계속할만큼 전루속에서 충분히 단련되었다』 (제六篇 一六一 페이지를 보라)。

이것이 대체로 레닌주의의 방법의 특징이다。

레닌의 방법중에 있는 그것은 기본적인(基本的)으로 이미 맑스의 학설, 즉 맑스가 말한 것과 같이 『본질상으로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그 학설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데인의 방법에 일관(一貫)되었다. 그러나 데인의 방법이 맑스가 준 그것의 단순한 부활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옳지 않을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데인의 방법은 맑스의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방법 즉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辯證法)을 다만 부활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구체화이며 앞으로의 일층(一層) 발전인 것이다.

三、리론

나는 이 제목에서 세가지 문제를 들려고 한다. 즉

(1)、프로레타리아 운동에 있어서 리론의 의의에 대한 것、
(2)、자연생장성(自然生長性)의 『리론』 비판에 대한 것、

(3)、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론에 대한 것이다.

(1)、리론의 의의에 대한 것. 어떤 사람들은 데인주의에 주되는 것은 맑스주의적 명제를 실천화하는 것이요 또한 그 명제를 『실행』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데인주의의 리론에 대한 실천의 우위(優位)이요 그리고 리론, 그것에 대하여서는 데인주의의가 아주 무관심한듯이 생각한다. 리론, 특히 철학에 대하여 데인이 『무관심』하다 하여 볼테하노브가 여러번 비웃은 것은 다 아는바이다. 또한 철학의 많은 실천가—데인주의자들이 특히 환경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제적 사업이 한없이 많음으로 리론을 그다지 애중(愛重)히 여기지 않는 것도 다 아는바이다. 나는, 데인과 데인주의에 대한 너무나 피상한 이 의견은 도무지 옳지 못한 것이요 또한 조금도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리

론을 무시하려는 실천가들의 지향(志向)은 레닌주의의 전 정신(精神)에 모순되는 것이며 사업에 대한 큰 위협을 내포(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단언(斷言)하여야 하겠다.

리론이란 전세계 로동운동의 경험을 그 일반적 형태로써 취하여 놓은 것이다. 물론 리론이 만일 혁명적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근거가 없는 것이 될 것이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실천이 혁명적 리론으로써 자기의 길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리론은 만일 그것이 혁명적 실천과 분별될 수 없는 연결에서 조성된다면 로동운동의 위대한 힘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리론이, 오직 리론만이 운동에 자신(自信)과 방향을 정하는 힘과 또한 주위의 여러가지 사건의 내부적 연락에 대한 리해력을 줄 수 있는 까닭이며, 왜 그러냐 하면 리론이, 오직 리론만이 실재를 도을 주어 계급들이 현재에 있어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인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계급들이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리해하게 할 수 있는 까닭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레닌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제(命題)를 발표하였으며 몇십번이나 그것을 반복하였다.

『혁명적 리론이 없으면 혁명적 운동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4권 三八〇페이지를 보라)。

레닌은 우리 당에 부담된 역할 즉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적 투사의 역할로 말미암아, 또 우리 당을 둘러싼 복잡한 국내적 및 국제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특히

* 방점은 나의 것——이 • 스탈린。

우리당과 같은 그런 당에 있어서의 이론의 중요한 의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다. 레닌은 벌써 一九〇二년에 우리당의 이 특수한 역할을 미리 예견하고 그때에 벌써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즉 「선봉적 투사의 역할은 오직 선봉적 이론으로써 지도되는 당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제四권三八〇페이지를 보라)。

우리 당의 역할에 대한 레닌의 예언이 이미 현실화된 지금에 있어서 레닌의 이 명제가 특수한 힘과 특수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레닌이 이론에 부여한 높은 의의의 가장 명료한 표현으로는 이러한 사실 즉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레닌이 앵겔스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과학이 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유물론적 철학에 있어서 총괄(總括)하며 또 맑스주의자들 사이의 반(反)유물론적 사조(思潮)들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가장 중대한 임무를 실행한 그 사실을 들어야 할 것이다. 앵겔스는 「새 위대한 발명이 있을 때마다 유물론은 새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임무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레닌이 자기의 시기를 위해 유명한 그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실행한 것은 일반이다. 아니다. 그런데 철학에 대하여 레닌이 「무관심(無關心)」하더라도 조소하기를 즐겨한 볼레하노프는 그러한 임무의 실행에 대하여 신중하게 착수하려고도 하지 못한 것은 일반이다. 이는 바이다。

(二)、자연생장성의 「이론」에 대한 비판, 혹은 운동에 있어서의 전위의 역할에 대한 것. 자연생장성의 「이론」은 기회주의의 이론이며 로동운동의 자연생장성 앞에 굴복

하는 이론이며 로동계급의 전위인, 로동계급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사실상으로 부정(否定)하는 이론이다.

자연생장성 앞에 굴복하는 이론은 로동운동의 혁명적 성질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서는 것이다. 그는 운동이 자본주의의 기초를 반대하는 투쟁의 로선에서 진행되는것을 반대하는것이오—— 그는 운동이 오로지 자본주의에 있어 『실행될수있고』, 『용납될수있는』 요구의 로선에서만 나아가도록 하려는것이오 그는 전적으로 『최소저항선』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연생장성의 이론은 트레드 • 유니온의 이데올로기이다.

자연생장성 앞에 굴복하는 이론은 자연생장적 운동에 의식적(意識的)、계획적 성질을 부쳐주는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나서는것이다. 그 이론은 당이 로동계급의 전위에서 나가며 당이 대중을 의식적 수준에까지 올려세우며 또 당이 운동을 지도하는것을 반대한다. 그 이론은 운동의 의식적 요소들이 운동이 제멋대로 나가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것이오 그 이론은 당이 자연생장적 운동에 다만 순종하며 그 운동에 추수(追隨)할것을 주장한다. 자연생장성의 이론은 운동에 있어서의 의식적 요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이론이며 『추미주의(追尾主義)』의 사상이며 온갖 기회주의의 론리적 기본인것이다.

이미 로씨야 제1차 혁명전에 무대에 나타난 이 이론은 실제에있어서 이 이론의 추종자들인 소위 『경제주의자』들이 로씨야에서 독립적 로동당의 필요성을 부정(否定)하고, 짜리즘을 전복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반대하고 운동에 있어서의 트레드 • 유니온적 정책을 설교(說敎)하고 일반적으로 로동운동을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 밑에 내맡기는데까지 이르렀다.

구(舊)「이스크라」의 투쟁과 헤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책자에 쓴 「추미주의」리론에 대한 그 훌륭한 비판은 소위 「경제주의」를 분해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로찌야로동계급의 진정한 혁명운동의 리론적 기초를 창설한 것이다.

이 투쟁이 없이는 로찌야에 있어서 독립적 로동당의 창립에 대하여서와 혁명에 있어서의 그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하여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연생장성 앞에 굴복하는 리론은 다만 로찌야의 현상만이 아니다. 그것은 물론 약간 다른 형식을 가졌지만 제2인터내쇼날에 속한 모든 당내에 극히 넓히 보급되어있었다. 내가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은 제2인터내쇼날의 지도자들로써 저속화된 소위 「생산력」리론 즉 모든것을 변명하며 모든 사람을 다 융화시키며 또 모든 사실을 그 사실들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염증을 가지게한후에야 인정하고 설명하며 그리고 인정만하고는 거기에 안심하고있는 리론이다. 맑스는 유물론적 리론은 세계를 설명함으로써만 국한될 수 없는것이오 그는 또한 세계를 변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카우츠키와 맞 그의 동료들에게는 이것이 관계없는 일이다. 그들은 오히려 맑스의 이 공식(公式)의 첫구절에 머무르는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리론」을 적용하는 많은 실례중의 하나는 이러한것이다. 즉 바로 제국주의전쟁이 시작되기전에 제2인터내쇼날에 속한 당들은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전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위협하였다고 말한다. 개전직전(開戰直前)에 그 당들은 「전쟁에 대한 전쟁」이라는 포어는 잘아버리고 「제국주의적 조국을 위한 전쟁」이라는 정반대되는 포어를 실행하였다고 말한다. 이와같이 포어를 바꾼 결과로는 로동자들중에서 수백만

의 희생자를 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범과자(犯過者)가 있다고 하거나 어느 누가 로동계급에게 변질하였다고 하거나 혹은 반역하였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금도 그럴일은 없었다! 모든것이 다 될대로 되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인더나쇼날은 전쟁의 도구(道具)인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인 까닭이오 둘째로는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생산력의 수준」에 있어서는 다른것은 아무것도 기도(企圖)하여볼수 없었던 까닭이다. 「생산력」의 「잘못이다」。 이것은 카우즈키씨의 「생산력 이론」이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는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이론」을 믿지않는자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당의 역할은? 운동에 있어서의 당의 의의는? 그런데 당이 「생산력의 수준」과 같은 그러한 결정적 요인(要因)에 대하여서야 어떻게 하는수가 있는가? : 고한다.

맑스주의 위조(偽造)의 이와같은 실례는 무수히 들수있다.

기회주의의 락체(裸體)를 가리워줄 역할을 하는 이 위조된 「맑스주의」는 레닌이 벌써 로씨야 제1차 혁명전에 반대하여 싸우던 그 「추미주의」의 이론인데 그것이 구라파식(式)변종(變種)에 불과하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한다.

이 이론적 위조를 깨트리는것이 서방에 있어서 진정한 혁명당들을 창건하기 위한 예비적 조건이 된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한다.

(三)、프로테라리아 혁명에 대한 이론. 프로테라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의 이론은 세가지 기본적인 문제(論題)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문제. 선진자본주의제국에 있어서의 금융자본의 지배, 금융자본의 가장 중요한 업무(業務)로서의 유가증권(有價證券)의 발행, 제국주의의 기초중의 하나로써의 원료산지에

로의 자본의 수출, 금융자본의 지배의 결과로서의 금융과두의 전능——이 모든것은 독점적 자본주의의 란포한 기생적(寄生的)성질을 폭로하며 자본주의적 트레프트와 쉐지케트의 압박을 때때나 더 통렬히 느껴지게 하며 자본주의의 기초에 대한 로동계급의 분노를 더 격발시키며 대중으로 하여금 유일한 구제책인 프로레타리아 혁명에로 이르게 하는것이다(데인의 저작 「제국주의」를 참조하라)。

이로부터 첫째 결론이 나온다. 즉 자본주의 제국 내부(内部)에 혁명적 위기가 침에 화(尖銳化)되는것, 「종주국(宗主國)」의 내부적, 프로레타리아적 전선에서 폭발의 요소가 차라나는것이다。

둘째, 셋째, 식민지 및 예속국들로의 자본의 격중한 수출, 전 지구를 포괄(包括)한 예속국 이르는 「세계법위」 및 식민지령유(領有)의 확장, 지구상 인구의 압도적 대다수 에 대한 극소수의 「선진」제국의 금융적 노예화와 식민지적 압박의 전세계적 제체(體制)에로의 자본주의의 전화(轉化)——이 모든것은 한편으로는 각개의 민족경제 및 민족적 평등을 세계경제라고 칭하는 단일한 면세의 고리(環)들로 전환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지구상의 주민을 두 진영 즉 광대한 식민지 및 예속국을 착취하며 압박하는 극소수 「선진」자본주의제국(諸國)과, 제국주의 압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투쟁하자 않을수 없게된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거대한 다수애로 분별시켰다(「제국주의」를 참조하라)。

이로부터 둘째 결론이 나온다. 즉 여러식민지국에서 혁명적 위기가 침에화되는것, 외부적, 식민지적 전선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격한의 여러가지 요소가 차라나는것이다。

셋째. 문제. 『세력범위』 및 식민지의 독점적 영유, 이미 령토를 점탈한 나라들과 자기 「몫(配當)」을 받으며 고하는 나라들간에 세계 재분할을 위한 열광적 투쟁에 이르게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불균등적 발전, 파괴된 「균형(均衡)」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제국주의 전쟁——이 모든것은 반제국주의적 첫 두 전선 즉 혁명적 프로테타리아 전선과 식민지해방전선의 결합을 쉽게하고 제국주의를 약화하는 셋째 전선 즉 자본주의 제국호상간 전선을 격화시킨다(『제국주의』를 참조하라)。

이로부터 셋째 결론이 나온다. 즉 제국주의하에서 전쟁은 피하여 낼수없는것이오 구라와 프로테타리아 혁명과 동양 식민지 혁명이 제국주의의 세계 전선을 반대하는 혁명의 통일적 세계 전선으로 결합될것은 불가피적이라는것이다。

이 모든 결론을 배넌은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 라는 한 총괄적 결론에 결합시켰다(제十九권 七一페이지를 참조하라)。

이에 따라서 프로테타리아 혁명, 혁명의 성질, 그의 범위, 그의 심도(深度) 등 문제에 대한 취급방법이 변하게되고 일반적으로는 혁명에 대한 도안(圖案)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전제조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통 각국의 경제상태의 전지로부터 출발하였다. 지금에는 이 취급방법이 벌써 불충분한것이 되었다. 지금에는 모든 나라 혹은 다수의 나라들의 경제상태의 전지로부터, 세계 경제상태의 전지로부터 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각개의 나라들과 각개의 민족정체는 자급자족적 단위에서 벗어나서 세계적 경제라고 칭하는 통일된 편제의 고리(環)들로 변환된 까닭이요 소위 「문명화」 옛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성장전화(成長轉化)되었는데 제국주의는 지구상 인구의 압도적 대다수에 대한 극소수 「선진」제국의 금융적 노예화와 식민지적 압박의 전제적인 일개 체제를 이루어 있는 까닭이다.

이전에는 각개의 나라들에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발전된 이런 또는 저런 나라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객관적 조건들이 있느냐 없느냐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상례(常例)였었다. 지금에는 이 전지가 벌써 불충분한 것이 되었다. 지금에는 통일된 총체인 세계 제국주의 경제의 전체제(全體系)에 있어서 혁명의 객관적 조건의 현존여부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이 체계의 구성(構成) 가운데에 공업방면에서 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한 몇나라가 있다는 그것은 만일 전체제가 이미 혁명이 일어날만큼 성숙되었다면,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체제가 이미 혁명이 일어날만큼 성숙된 까닭에, 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극복치 못할 장애가 될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는 발전된 이런 또는 저런 나라의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대하여 말할때에 그의 상대자인 개개의 민족적 자본 전선에 대립시켜 놓은 개개의 자급자족적 단위처럼 보아 말하는 것이 상례였었다. 지금에는 이러한 전지가 벌써 불충분한 것이 되었다. 지금에는 세계적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각개의 민족적 자본전선은 제국주의의 세계적 전선이라고 칭하는 통일적 편제의 고리들에 의해 변환되었으니 그런 때에는 전세계 혁명운동의 총전선이 대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다.

이전에는 프로테타리아 혁명을 순전히 어떤 나라의 내부적 발전의 결과로써만 보았다. 지금은 이러한 전제가 벌써 불충분한 것이 되었다. 지금은 프로테타리아 혁명을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의 세계 체계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모순의 발전 결과로써, 이런 또는 저런 나라에 있어서의 세계 제국주의 전선의 변해가 더진 결과로써 보아야 할 것이다.

어디에서 혁명이 시작될가? 어디에서, 어떤 나라에서 제일 먼저 자본주의 전선이 돌파(突破)될수 있을까?

공업이 더 발전되었고, 프로테타리아트가 다수를 이루고, 문화정도가 더 높고, 민주주의가 더 보급된 데서라고——이전에는 보통 대답하였다.

아니다——혁명에 대한 해년의 이론은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공업이 더 발전되었어도 기타 조건들이 있는 곳에서만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본의 전선은 제국주의의 변해가 비교적 더 약한 데서 돌파(突破)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테타리아 혁명은 세계 제국주의 전선의 변해가 가장 약한 곳에서 더진 결과인 까닭이다. 그런데 혁명을 시작한 나라, 자본의 전선을 깨트린 나라가, 자본주의적 관계에 있어서는 더 발전되었으면서도 아직 자본주의의 불안(構內)에 그냥 남아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덜 발전된 나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一九一七년에 제국주의의 세계적 전선의 변해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도 로씨야에서 비교적 더 약하였던 것이다. 거기에서 끝그 변해가 돌파되어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출로(出路)를 주었다. 무슨 까닭에? 그것은 로씨야에서 지주들에게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수백만의

농민과 같은 그런 성실한 동맹자를 가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선두에 선 가장 위대한 인민혁명이 전개되었던 까닭이다. 그것은 토씨야에서 온갖 정신상 위선을 다 잃고 또 주민의 일반적 증오(憎惡)를 받는 짜리증과 같은 그러한 제국주의의 가증(可憎)한 대표자가 혁명을 반대하여 버리어졌던 까닭이다. 비록 토씨야가 자본주의의 판매에 있어서는 일을하면 불만이나 혹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혹은 미국보다 비교적 덜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토씨야에서 그런 해는 비교적 더 약하였던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련쇄가 어디에서 돌파될 것인가? 역시 련쇄가 비교적 약한 곳에서 돌파될 것이다. 말하자면 인도에서 그런 해가 돌파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슨 까닭에? 그것은 거기에 민족해방운동과 같은 의심할 것없이 크고 또 의심할 것없이 성실한 그런 동맹자를 가지고 있는 나어틴 전투적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있는 까닭이다. 그것은 인도에는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인도 대중의 일반적 증오를 받으며 또 도덕상 신용을 잃은 외국(外國) 제국주의와 같은 일반이 다 아는 적(敵)이 혁명의 앞에 버리어 서고 있는 까닭이다.

련쇄가 역시 독일에서 돌파될 수 있는 것도 전혀 가능한 일이다. 무슨 까닭에? 그것은 말하자면 인도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동인(動因)이 독일에서도 작용하기 시작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인도와 독일 사이에 있는 발전상 수준의 평정한 차이가 자체의 흔적을 독일혁명의 진행과 결말(結末)에 끼치지 않을 수 없으리란 것은 명백한 일이다.

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해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구타파의 자본주의 제국은 사회주의에로 그의 발전이... 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균등적 「성숙」으로써가 아니라 일부의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착취로써, 전 동양에 대한 착취와 결핵, 제국주의 전쟁망시에 패전당한 나라들중 그 첫나라에 대한 착취로써 완성한것이다. 그리고 다른편으로는 동양은 실로 이 제 1차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혁명운동에 인입되었으며 또한 종국적으로 전세계 혁명운동의 전반적 와중(渦中)으로 인입(引入)되었다」(제二十七권 四一五—四一六페이지를 참조하라)。

간단히 말하면 제국주의 전설의 편해는 통례로 편해의 고리들이 비교적 약한곳에서 반드시 돌파될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가 비교적 더 발전되고 프로테타리아가 몇 와센트, 농민이 몇 와센트라는 등등의 제조전이 구비한, 그러한 곳에서 반드시 돌파되리라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하기때문에 개개나라의 인구에 대한 프로테타리아의 와센트수의 통계학적 계산은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국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혁명을 폭사병과 같이 무시위하는 제2인터내쇼날의 독경쟁이들이 즐기어 부쳐준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의의를 상실하는것이다.

그리고 제2인터내쇼날의 영웅들은 단언하기를(또한 단언하기를 계속한다)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을 한편으로하고 프로테타리아 혁명을 다른편으로한 그 사이에는 다소간 장구한 기간으로써 전자를 후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심연(深淵)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만리장성(萬里長城)이 있는것이어서 그 시기가 지내는 동안에 있어서는 주권잡은 부르조아지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프로테타리아트는 힘을 저축하여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 시기는 보통 적어도 수십년으로 계산하게되는것이다. 이 만리

장성의 「리론」은 제국주의의 환경에 있어서는 하등의 과학적 의의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는 다만 부르조아지의 반(反)혁명적 욕망의 엄폐(掩蔽)、분식(粉飾)에 불과하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수없다함에 대하여서는 증명할 필요도 없음을 말한다. 총들과 전쟁을 때 태한 제국주의의 환경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인 정세하에 있어서 즉 「변영 하여가는」 자본주의가 「죽어가는」 자본주의로 변환되고(레닌) 세제의 모든 나라에서 혁 명운동이 자라나는 그때에, 제국주의가 짜리즘 및 농노제에 이르기까지 레의없이 모든 반 동세력과 결합되고 그리함으로써 서방의 프로테타리아운동으로부터 동양의 민족해방 운동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혁명적 력량의 연합을 필연적이 되게하는 그때에, 제국주의와의 혁명적 투쟁이 없이는 봉건적 농노제도의 잔재를 전부할수 없게되는 그때에——다소간 말전된 나 라에 있어서의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은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프로테타리아 혁명과 접근되리라하는 것과 첫째것이 둘째것으로 반드시 성장 전화 되지않을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음을 말한다. 로씨야 혁명의 력사는 이 명제가 옳은것이오 또 논쟁할 여지가 없는 것임을 명백하게 증명하였다. 레닌은 벌써 一九〇五年, 로씨야 첫째 혁명의 전야에 「두가지 전술」이라는 그의 소책자에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변혁(變革)을 한 면책의 두고리로서, 로씨야 혁명 전개의 통일적 완전한 도해로서 그런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다.

「프로테타리아트는 전제정치의 반향을 폭력으로써 분쇄하며 부르조아지의 불확호성(不確平性)을 마비시키 기 위하여 농민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할것이다. 부르조아지의 변혁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프로테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의 반향을 폭력으로써 깨트리고 농민과 소부르조아지의 불확호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주•면•중•의•반•(半)•프•로•페•라•리•아•분•자•들•을• 자•기•편•으•로• 고•으•려• 부•치•면•서• 반•도•시• 사•회•주•의•적• 변•혁•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것•들•이• 프•로•페•라•리•아•트•의• 임•무•들•인•데• 신•(新)•『이•스•크•라』•파•들은• 이•것•을• 혁•명•의• 전•개•에• 대•한• 자•기•의• 모•든• 론•의•와• 결•정•서•에•서• 그•쳐•림• 좁•게• 리•해•하•고•있•다•』(패•닌• 제•八•권• 九•六•페•지•들• 참•조•하•타•)•

나는 레닌의 혁명 이론의 주초돌(礎石) 중에서의 하나인——부르조아혁명의 프로페라리 아 혁명에로의 성장전화에 대한 사상이 「두가지 전술」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레닌의 그후의 많은 저서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어떤 동지들은 패닌이 一九一六년에야 비로소 이 사상에 이르렀다고, 그때까지는, 로씨야에서의 혁명은 부르조아적 범위안에 머물것이었으리라고 그리고 본즉 주권은 프로페라 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기관의 손으로부러 프로페라리아트의 손으로 넘어갈것이 아니라 부르 조아의 손으로 넘어갈것이라고 간주한것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심지어 우리의 공산주의적 출판물까지 숨새여들어 뒀었다고 한다. 나는 이 주장이 전혀 옳지 못한것과 그것이 실제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나는 제삼차 당대회(一九〇五)에서 프로페라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 즉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전서의」조적」으로서가 아니라 「전쟁의 조적」으로서 평가한 레닌의 유명한 연설을 인용할수있다(제七권 二六四페이지를 보라)•

나는 또한 패닌이 로씨야 혁명의 전개에 대한 전망(展望)을 그려내면서 「로씨야 혁명은 몇달동안의 운동이 될것이 아니라 여러해동안의 운동이 되도록, 그 혁명은 집권자 측으로부터 한갓 소소한 양보를 얻는 그것에로뿐만 아니라 그 집권자들을 완전히 전복하 는데 이르도록 할것을 달성할」 임무를 당의 앞에 세운 「립시 정부에 대하여」(一九〇五

면)만 그의 유명한 제론문을 인용할 수 있는바 레닌은 그 논문에서 그 전망(展望)을 더 전개하면서, 또 그 전망을 구타파에서의 혁명과 부합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썼다.

「그리하여 만일 이것이 성공된다면 그때에는 : 그때에야말로 혁명의 불은 구타파를 살울 것이요 머슴에는 부르조아적 반동에 시달린 구타파노동자들도 역시 일어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일 것이요 그때에는 구타파의 혁명적 요소(高潮)가 로씨야에 반작용(反作用)할 것이며 그리하여 몇해 동안의 혁명적 시기를 몇십년의 혁명적 시대로 만들 것이다!」(상동 一九一八제지를 보라)。

나는 一九一五년 十一월에 발표된 유명한 레닌의 논문을 더 인용할 수 있다. 그는 그 논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로테타리아트는 주권을 전취하기 위하여, 공화국전설을 위하여, 로지의 물수를 위하여 : 군사봉전적 「제국주의」(즉 짜리즘)로부터 부르조아적, 로씨야를 해방하여 내는 데에 「비(非)프로테타리아 인민대중」을 참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또한 전심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프로테타리아트는 짜리제로부터의, 지주들의 로지권력으로부터의 부르조아적 로씨야의 이 해방을, 주요한 농민들의 농촌 노동자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전자를 도와주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구타파의 프로테타리아들과 동맹하여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즉시, 리용할 것이다」(제一八권 三一八페이지를 참조하라)。

나는 마지막으로, 레닌이 「프로테타리아 혁명과 반역자 카우프키」라는 그의 소책자에서 로씨야 혁명의 전개에 관한 「두가지 전술」중에서의 우에 인용된 인용문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른 그 유명한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

● 말접은 나의 것——이 ● 쓰반틴.

「즉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혁명의 행정은 우리의 논의(論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처음에는 「전」 농민과 함께 군주정체를 반대하며 거주들을 반대하며 중세기적 유물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런것만큼 혁명은 부르주아적,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으로 남아있는 것이다)。그다음에는 빈농민들과 함께, 반(半)프로테타리아트와 함께 모든 착취받는 자들과 함께 농촌부자들, 골라크들, 투기업자들까지 포함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니 그런것만큼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되어진다. 이 두가지 혁명사이엔 인위적(人爲的)으로 만 리장성을 싸으려하며 프로테타리아트의 준비된 정도와 그의 농촌 빈농민들과의 연합정도 이외의 다른 어떤것으로써 이 두 혁명을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은 맑스주의를 가장 심하게 위곡하는 것이니 그것을 야비화(野卑化)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유주의로써 바꾸어 놓는 것이다」(제二三권 三九一페이지를 보라)。

이만하면 충분할 듯하다.

좋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찌서 레닌은 「영속(부단) 혁명」의 사상과 싸웠는가? 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레닌은 짜리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프로테타리아 혁명에로 넘어가기를 위하여 농민의 혁명적 능력을 「전부 다 사용하며」 농민의 혁명적 에베르기(精力)를 끝까지 다 리용할 것을 제창하였는데 「영속혁명」의 찬동자들은 로씨야의 혁명에 있어서 농민의 중대한 역할을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농민의 혁명적 에베르기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였으리 하며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로씨야 프로테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였고 그 리하여 농민을 부르주아지의 영향으로부터 해방하는 사업과 그들을 프로테타리아트의 주위에 결합하는 사업을 어렵게한 까닭이다.

왜 그러냐 하면 레닌은 주권이 프로테타리아트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서 혁명사업을 완성하려고 제창하였는데 「영속」혁명의 찬동자들은 바로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장악으로써

일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하므로써 그들이 농노제도의 유물(遺物)과 같은 그런 「적은 일」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로찌야 농민과 같은 그런 성실한 력량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정책은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에게로 농민을 전취하는 사업을 방해할뿐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원래 백년 그 자신이 부단적 혁명의 전지에 서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부단성에 대한 문제때문에 「영속」혁명의 찬동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위대한 후비군인 농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모년의 자상을 이해하지 못했기때문에 싸운 것이다.

「영속」혁명의 자상을 새 자상이라고 간주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 자상은 처음으로 맑스가 四十년대말에 「공산주의자 동맹」에 보낸 그의 유명한 「통고문(通告文)」(一八五〇年)에서 제창한 것이다. 우리의 「영속혁명론자들」도 부단혁명의 자상을 그 문헌에서 집어낸 것이다. 이에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영속혁명론자들」은 그 자상을 맑스에게서 얻어가지고 얼마큼 변형시켰으며 변형시킴에 있어서 실제로 쓰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더러워 노았다」. 이 오류를 바로잡고 맑스의 부단 혁명사상을 그의 순전한 형태로써 취하여 그것을 자기의 혁명론의 주춧돌(礎石)의 하나로써 맨드는데 백년의 능숙한 솜씨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맑스는 그 「통고문」에 여러가지 혁명적 민주주의적 요구를 열거하고서 공산주의자들을 향하여 그것을 전취하라고 호소한 후에 부단(영속)혁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민주주의적 소부트조아들은 우에말한 요구들을 할수있는대로 더 많이 실현시키고 혁명을 아주 속히 끝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리익과 우리의 입부는, 다스란 유산계급이라고하는 모든 그들이 지배적 지위로부터 쫓겨나게 될때까지는, 프로테타리아트가 국가주권을 전취하게될때까지는, 프로테타리아트의 연합의 발전이 한나라에서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유력한 나라에서 프로테타리아들 사이의 호상경쟁이 없어질만한 정도에까지 이르게될때까지는, 그리고 적어도 결정적 생산력이 프로테타리아들의 손에 집중될때까지는 혁명을 계속적으로 되게하는데 있다」.

달리 말하면——

(1)、맑스는 우리 로씨야의 「영속혁명론자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五十년대의 독일에 있어서 바로 프로테타리아트가 주권을 잡는것으로써 혁명을 시작하라고 제창한것은 결코 아니다.

(2)、맑스는 오직 권력의 고소(高所)로부터 부르조아지의 여러 포락치야(分派)를 없애어 제거하면서 프로테타리아트가 주권을 잡게하고 다음에는 모든 나라에서 혁명의 불을 일구기 위하여 프로테타리아 국가주권 수립으로써 혁명사업을 완성하라고 제창하였을 뿐이다. 이것은, 예년이 가르쳤으며 또 제국주의의 환경에 있어서 그의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이론에 의거하여 우리 혁명의 행정에서 실시한 그 모든것과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그런즉 우리 로씨야의 「영속혁명론자들」은 로씨야의 혁명에 있어서 농민의 역할과 프로테타리아트의 해체모니 사상의 의의를 파소평가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맑스의 「영속」혁명의 이론을 변형(가장 악하게)시켜가지고 그것을 실제에 적용할수 없는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설로 그령기때문에 해닌은 우리의 「영속혁명론자들」의 리론을 「신기한것」이오 「홀룩한것」이라고 이르면서 또 그들은 「무슨 리유로서 만 십년동안이나 실생활은 이 홀룩한 리론을 돌보지도않고 지내갔음에 대하여 생각」하려고도 하지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리론을 비웃은것이다 (「영속혁명론자들」의 리론이 로씨야에 나타난후 십년을 지나서 一九一五년에 해닌이 론문을 썼다. 제一八권 三一七페이지를 참조하라)。

설로 그러하기때문에 해닌은, 이 리론은 「볼셰비크들에게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결정적 혁명투쟁에로의,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적 주권의 전취에로의 호소를 취하였고 멘셰비크들에게서는 농민의 역할을 「부인」하는것을 취한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반(半)멘셰비크 리론으로 간주하였다 (「혁명의 두가지 로선에 대하여」라는 해닌의 론문, 상등에서 참조하라)。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성장전화되는데 대한 해닌의 사상과 부르조아 혁명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즉시」 넘어가게하기위하여 그것을 리용하는데 대한 해닌의 사상은 이렇게 되었던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부르조아지를 타승(打勝)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진국가들이나 혹은 어쨌든 다수의 그러한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들의 공동진출이 필수적(必須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한것이라고 간주하였었다. 지금에는 이러한 전지가 벌써 실지에 맞지않는것이다. 지금에는 그러한 승리가 가능하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한다. 왜 그리냐하면 제국주의의 환경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각국의 발전의 불균등적

및 비약적(飛躍的) 성결과 불피코 전쟁에로 이르게하는 제국주의 내부의 과멸적(破滅的) 모순의 발현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의 창성——이 모든것은 개개의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가 다만 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필연(必然)한 일로 되게하는 까닭이다. 로씨야 혁명의 력사는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는것이다. 이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여 둘것은 부르조아지의 전복은 오직 전연 불가결한 몇가지조건이 갖추어 있는 경우에라야만 성공적으로 실행될수 있다는것과 또 그러한 조건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는데 대하여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것이다.

테닌은 그의 소책자 「소아병」에 이 조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혁명, 특히 20세기의 로씨야의 삼차(三次)에 걸친 혁명에 의하여 확증된 혁명의 기본법칙은 이러하다——즉 혁명을 행할에는 피착취 피압박대중이 이전대로 살수 없다는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변경하기를 요구하는것만으로써는 불충분하다. 혁명을 행할에는 착취자들이 이전대로 살아갈수가 없게되고 이전대로 통치할수 없게되는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만 「하층(下層)」이 이전것을 원치 않으며 「상층(上層)」이 이전 방편으로 하여나갈수 없게되는 그때에라야——오직 그런때에라야만 혁명이 승리할수있는것이다. 관선하면 이 진리는 전국적(착취받는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에 다 관계되는) 위기가 없이는 혁명은 불가능한것이다. 라는말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혁명을 위해서는 첫째로 노동자의 대다수(또는 적어도 의식적이고, 사유(恩惟)하는, 정치적으로 능동적(能動的)인 노동자의 대다수)가 변혁의 필연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게끔 결심하도록 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심지어 가장 뒤떨어진 대중까지도 정치에 고르려녕고; 정부를 무력하게하여 혁명가들로 하여금 그것을 급속히 전복할수있게하는 그러한 정부의 위기를 통치계급이 당하도록 되어야 하는것이다」(제二五권 二二二페이지를 참조하라)。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팔린.

그러나 한나라에서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주권을 세우는 것은 아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의미하지는 않는다. 승리한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정권을 물론히 하며 농민을 지도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완성할 수 있으며 또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나라 프로레타리아트가 그리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리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가 다만 한나라의 힘으로써 사회주의를 종국적으로 공고히 하여가지고 무력간섭으로 부터, 따라서 옛제도의 복구(復舊)로 부터 나라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몇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또한 그를 지지하는 것은 승리한 혁명의 건요한 임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체를 자족적 단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조와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메닌은 승리한 혁명의 임무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여 주며 고취(鼓吹)하기 위하여. 한나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도」(제二三권 三八五페이지를 보라)를 리행하는데 있다고 말하여 두어마더말로써 이 사상을 다 표시하였다.

이러한 것이 대체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메닌적 리론의 특징이다.

四、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

나는 이 제독하에서 세가지 기본되는 문제를 들려고 한다. 즉

(1)、프로테타리아 혁명의 무기로서의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

(2)、부르조아지에 대한 프로테타리아트의 지배로서의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

(3)、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국가 형태로서의 소비에트주권이다.

(4)、프로테타리아 혁명의 무기로서의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프로테타리아트 독

재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이다。

프로테타리아 혁명、그의 운동、그의 전개력、그의 성과는 다만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거쳐서야만 생동력을 얻게 되는것이다。프로테타리아트 독재는 첫째로 전복된 착취자들의 반

항을 진압하며 자기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위하여、둘째로는 프로테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며 혁명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까지 이르게 하기위하여 생겨나온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며 그의 기관이며 그의 가장 중요한 거점(據點)이다。혁명은、부르조아지를

타승(打勝)하며 그의 주권을 전복하는 일을 프로테타리아 독재가 없이도 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혁명이 그 발전의 일정한 계단에 있어서 자기의 기본적인 지주로 프로테타

리아트 독재 형태의 특수한 기관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그 혁명은 부르조아지의 반항을

진압하며 승리를 보전하며 앞으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까지 전진할수 없는것이다。

「주권에 대한 문제는 온갖 혁명의 근본 문제인것이다」(레닌)。이것은、문제가

주권회복 및 그의 탈취에만 국한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그것을 의미하는것

이 아니다. 주권의 획득은 오직 일의 시작(始初)이다. 한나라에서 전복당한 부르조아지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아직 오랫동안 그를 전복한 프로레타리아트보다 더 강한자로 남아있게된다. 그러한 까닭에 모든 문제는 주권을 유지하며 그를 공고히하며 그물적과해탈수 없는것으로 만드는에 있는것이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할 것인가?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승리한 「그다음날」에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앞에 나서는 다음과같은 제가지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1)、혁명에 의하여 전복되고 수탈(收奪)된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온갖, 모든 시도를 청산하여야 할것이오.

(2)、프로레타리아트의 주위에 모든 근로자들을 결속시키는 정신으로 건설사업을 조직할것이며 또한 그 사업을 계급들의 청산과 절멸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할것이오.

(3)、외적(外敵)과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혁명을 무장시키고 혁명의 군대들 조직하여야 할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이 여러가지 임무를 실시하며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매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로 부터 공산주의에도 넘어가는것은 전(全) 역사적 시대이다. 아직 이 시대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착취자들에게는 피할수없이 옛(舊) 제도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남아있을것이니 이 기도는 구제모론회복하려는 기도(企圖)로 변하는것이다. 자기들이 전복될것을 예기(豫期)하지 않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 때 하여 생각하지도 못한 그 전복된 착취자들은 첫번의 큰 참패이후에 십배나 더한 에네르기(精力)와 광적 열정(狂

的熱情)과 때때나 더 커진 적개심을 가지고 때와장 『락원(樂園)』을 도로 찾기 위하여, 또한 유쾌하게 살 아왔으나 지금에는 「그 쌍놈들」로 인하여 평락과 빈궁(그렇지 않으면 『보통』로동...)에 빠지게 된 그들의 가족 을 위하여 싸움에 투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착취자—자본가들의 위에는 광범한 소부르조아 대중이 따르는 것이니 그 들이 동요(動搖)하며 주저하여 오늘날에는 프로테타리아트의 위를 따라가고 매일에는 변혁의 난관에 몰려서 동자들의 첫실패나 혹은 반(半)실패에서도 혼란에 빠지며 신경과민이 되며 어쩔줄을 모르며 비탄(悲歎)하며 한 진영으로 부딪히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모든 나라의 수십년의 역사적 경험에 증명하였다」(제二三권 三五五페이지를 참조하라)。

부르조아지는 옛제도의 회복을 기도할 자기의 로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것은 부르조 아지는 전복을 당한후에도 그를 전복한 프로테타리아트보다 아직 오랫동안 더 강한대로 남아있는 까닭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착취자들이 한나라에서만 격파되었다면——이것은 물론 전형적(典型的) 경우이니 그것은 여러 나라 에서 일시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데와의 일인 까닭이다——그들은 피착취자들보다 그냥 더 강한대로 남아있는 것이다」(상동 三五四페이지를 참조하라)。

전복된 부르조아지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국제자본의 힘에, 부르조아지의 국제적 연락이 힘과 그 연락의 존속함에 있다」(제二五권 一七三 페이지를 참조하라)。

둘째로, 「착취자들은 변혁이후에도 필연코 오랫동안 머머가지 거대한 실재적 우세(優勢)를 보전하고있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화폐(화폐를 즉시에 없애지는 못한다)와 어떠한——흔히는 상당히 많은——동산(動産)이 남아있으며 연락이 남아있으며 조직 및 관리에 대한 경험, 행정상 모든 「비밀」(판례(慣例), 방법,

수단,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으며 비교적 고등한 상식, 기술적으로 요상한(부르조아적으로 살며, 사려(思慮)하는) 사람들과 친한것, 해아릴수없이 큰 군사상 경험(이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등등이 남아있는 지기에 있다」(제二三권 三五四페이지를 보라)。

셋째로, 「관습의 힘에, 소생산의 힘에 있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소생산은 유감이지만은 아직 세상에 매우 많이 남아있으며 그 소생산은 끊임없이, 매일, 매시간마다 자연생장적으로, 대량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조아 지를 산출하는 까닭이며」 왜 그러냐하면 「계급을 없앤다는것은 지주들과 자본가들을 쫓아내는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우리는 이것을 비교적 쉽게 하였다 — 그것은 역시 소상품생산자들과까지도 없애는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소상품생산자들은 쫓아낼수 없는것이며, 암살해서는 안되는것이니 그들과는 사이 좋게 살아야 하며, 그들을 다만 오랫동안, 점진적(漸進的)인, 신중한 조직적 사업으로써만 개조하며 재교양할수있는(또한 그리하여야 할것) 까닭이다」(제二五권 一七三과 一八九페이지를 참조하라)。

실로 그러므로 해난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는 보다 더 온전적(徹)을, 즉 그가 전복을 당한후에 반항을 심배나 더 강화한 부르조아 지를 반대하는 새 계급의 가장 현실적인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요」,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는 구사회적 세력과 인습(因襲)을 반대하는 류혈(流血)적 및 비(非)류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 완전한 투쟁이다」(상동 一七三과 一九〇페이지를 참조하라)。

이 임무들을 짧은 기간에 실행한다는가 이 모든것을 몇해동안에 실시할수가 도저히 불가능함에 대하여서는 더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한다. 그러므로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를,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移行)을 여러가지 「가장 혁명적」인 행동이나 법정의 형태로서의 순간적인 시기와 같이 간주할것이 아니라 국내전쟁과 대외충돌, 꾸준한 조직사업과 경제적 건설, 진격과 퇴각, 승리와 실패로써 가득찬 역사적 전시대로서 간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력사적 시대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경제적 및 문화적 전제조건들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테타리아트에게 첫째로, 나라를 통치할 만한 힘으로써 자체를 교양하며 단련할 가능성을 주고 둘째로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소부르조아층들을 재교양하며 개조할 가능성을 주기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다.

맑스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편찬하는 여러가지 판계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경하여 스스로 정치 지배능력을 가지도록하기 위하여 十五年、二十年、五十年의 국내전쟁과 국제적 전투를 지내어야 할 것이다」 (관. 맑스 및 에프. 엥겔스 전집 제八권 五〇六페이지를 참조하라)。

레닌은 맑스의 사상을 계속시키고 더 발전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로테타리아트 독재하에서는 수백만의 농민과 소경업자, 수십만의 사무원, 판리, 부르조아적 인테리겐차들을 재교양시켜야 할 것이며 그들 전체를 프로테타리아트의 국가와 프로테타리아트의 지도에 복종시켜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있는 부르조아적 습관과 인습을 극복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자체의 소부르조아적 편견(偏見)으로부터 거적적(奇蹟的)으로서나, 성모(聖母)의 계시(啓示)로서나, 또는나 결정서나 법령의 지시로 즉시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많은 소부르조아적 영향들과 싸우는 오랫동안의 어려운 대중적 투쟁속에서만 해방되게되는 프로테타리아 자체를 장구한 투쟁과정에서,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지반(地盤)위에서 재교양함이:」 역시 필요한 것이다 (제二五권 二四六 및 二四七페이지를 참조하라)。

(二)、부르조아지에게 대한 프로테타리아트의 지배로서의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 프로테라아트의 독재는 낡은 경제적 정치적 결서를 불가침(不可侵)의 것으로 그냥 남겨두고

서 단순한 정부 각원들의 갱전(更迭)、「내각」갱전 등등이 아님은 이미 말한바서 명백하다. 독재를 불명이처럼 무서워하며 그 공포에 휩싸여서 독재의 개념을 「주권획득」의 개념으로써 출적 바꾸어버리는 모든 나라의 멘셰비크들과 기회주의자들은 「주권의 획득」을 보통 「내각」의 갱전로 보아 새 정부당국에 웨이테만과 노쓰게와 맥도날드와 헨데르손과 같은 인물들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뜻이와 유사한 내각의 갱전이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와, 참으로 프로테라리아트에 의한 진정한 주권전취와는 어떠한 공통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남은 부르조아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정권을 잡은 맥도날드 일파와 웨이테만 일파는, 소위 그들의 정부는 부르조아지의 어용기관(御用機關) 밖에는, 제국주의의 종처(腫處)를 엄폐하는 것이외에는, 피압박 피착취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는 부르조아지의 수중에있는 무기 이외에는 아무런 다름것으로 될수 없는 것이다. 그 정부들은 평풍이 없이는 대중을 압박착취하기 불원하고 불리(不利)하고 어려워때에 사용하는 평풍으로서 자본계급에게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부들이 나타나지는 것은 「그들이 있는 거기에」는 (즉 자본가들에게는) 「쉽까언덕에는」 순평치못하다.는 정조(徵兆)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정부들은 불피코아름답게 단장한 자본의 정부로 남아있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정부와 또는 웨이테만의 정부로부더 프로테라리아트가 주권을 전취하는때까지는 땅과 하늘사이의 거리만치나 먼 것이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정부가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에 주권의 새 기관들을 가진 새 국가이며 남은 국가 즉 부르조아 국가의 폐허(廢墟) 위에 생긴 프로테라리아트의 국가인 것이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부르조아 제도의 토대 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제도와
 파괴하는 행정에서, 부르조아지를 전복한 후, 지주들과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행정에서, 생산의
 기본적인 도구와 수단을 사회화하는 행정에서, 프로테라리아트의 폭력적 혁명의 행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부르조아지에게 대한 폭력에 의거하는 혁명적
 주권이다.

국가는 자기들의 계급적 적들의 반항을 진압하는데 사용하는 지배 계급의 손에 있는
 기계이다. 이 점에 있어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본질상으로 온갖 다른 계급의 독재
 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테라리아트의 국가는 부르조아지를 진압하
 기 위한 기계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에 한가지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차이는
 곧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계급적 국가는 다수인 피착취자들에게 대한 소수인 착취자들
 의 독재였지만은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소수인 착취자들에게 대한 다수인 피착취자들
 의 독재인 거기에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법률로써 제한되지 않고 폭력에 의거하는
 로·자·들·과·피·착·취·대·중·의·동·정·과·지·지·(支·持)·를·받·는·프로·테·라·리·아·트·의·부·르·조·아·지·에·대·한·지·
 배·인·것·이·다·」(레닌저서 「국가와 혁명」)。

이로부터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첫째 결론. 프로테라리아트 독재는 「완전한」 민주주의, 전체를 즉 부자나 가난한 자
 들을 다 위하여는 민주주의가 될수 없는 것이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새 방식의」 민

주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트와 일반적으로 무산자들을 위함*)가 되어야 하며 또 새방식인 독재적 국가(부르조아지를 반대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二一권 三九三페이지를 참조하라)。 전반적 평등, 「순수」한 민주주의, 「완성된」 민주주의 등등에 대하여서는 거리는 카우즈키와 그의 동료의 공당은 피착취자들과 착취자들과의 평등이 불가능하다는 의심할것없는 사실을 부르조아적으로 가리우는 것이다. 「순수」한 민주주의의 이론은 제국주의적 타락자들에게서 길들고 길리운 로동계급 상층배(上層輩)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의 종치를 가리우며 제국주의를 분식(粉飾)하며 피착취대중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제국주의에 정신상 힘을 부처주기 위하여 고안해낸 이론이다. 「자유」물리 용하는 데 필요한 공회당, 인쇄소, 지물(紙物) 창고 등이 착취자들의 특권에 속하여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본주의 하에서는 피착취자들을 위한 진정한 「자유」란 없는 것이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조건하에 있어서는 가장 민주주의적 제도일지라도 정부들은 인민으로써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로트실드와 쓰틴네르, 루크펠러와 모르간으로 수립되는 것만 보더라도 피착취대중이 국가통치에 실제로 참가하는 일은 없는 것이오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며 대다수인 피착취자들 권리의 제한에 근거하였으며 또한 그 대다수를 반대하는 소수인 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다.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하에서만 착취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들이 참으로 국가통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

제하에서의 민주주의는 프로테라리아적 민주주의이며 소수인 착취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소수를 반대하는 대다수인 피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다.

둘째 결론. 프로테라리아트 독재는 부르조아 사회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평화적 발전의 결과로서 생겨날 수 없는 것이오 그것은 오직 부르조아지의 국가기구, 그의 군대, 그의 판로적 기관, 그의 경찰의 파괴의 결과로서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의 서문에 말하기를——

「로동계급은 기성(既成)된 국가적 기구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것을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맑스는 一八七一年에 주권만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말하기를 프로테라리아 혁명은 「……지금까지 있었는바와 같이 판로—군사적 기구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대목에 있어서의 온갖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대목에만 국한하여 말한 맑스의 어구(語句)는 그것으로써 맑스가 적어도 구라파대륙안에 들지 않은 몇나라(영국, 미국)에 있어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프로테라리아 민주주의의 예로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容認)한 것이라고 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들과 멘셰비크들이 부르짖을 구실을 주었다. 참으로 맑스는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였다. 그는 지난세기 七十年代 즉 아직 독점적 자본주의가 없었고 제국주의가 없었고 영국 및 미국에 그 나라들의 발전의 특수조건으로 말미암아 아직 발전된 군벌과 판로제도가 없었던 그때의 영국과 미국에 대하여 그러한 용인을 할만한 근거를 가지었던 것이다. 발전된 제국주의가 출현되기 전까지는 사태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다음

에 三十一四十年을 지나서 그 두나라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변한때에, 제국주의가 발전되어 해외없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를 포괄한 그대에, 군벌과 관료제도가 미국과 영국에서까지 나타난 그대에, 그 두나라의 평화적 발전의 특수조건들이 소멸되어버린 그대에 있어서 그 두나라를 제외하는 일이 스스로 없어질것이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제1차 제국주의 대전의 시대인 一九一七년에 있어서는 맑스의 이 국한은 없어지는것이다. 군벌과 관료제도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앙겔로(英吉利)——사촌적 「자유」의——은세계에서의——가장 큰, 최후의 대조자본인 영국이나 미국도 모든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며 모든것을 자기가 압박하는 관료적—군벌적 기관들의 전구타파적 대타운 피구명으로 생명의 구울리 들어갔다. 지금에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은갖」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은 「거상된」(그 두나라에 있어서 一九一四—一九一七년에 「구타파적」, 일반 제국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국가기구」를 깨트리며 파괴하는것이다.」 (제二一권 三九五페이지를 참조하라)。

달리 말하면, 프로테타리아트의 폭력 혁명에 대한 법칙, 그러한 혁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부르조아 국가기구를 분해함에 관한 법칙은 세계 제국주의 제국의 혁명운동의 필연적 법칙이 되는것이다.

물론 먼 장래에 있어서 만일 프로테타리아트가 가장 중요한 여러 자본주의 나라에서 승리하고 지금의 자본주의적 포위(包圍)가 사회주의적 포위로 바꾸이게 된다면 어떤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몇나라의 자본가들이 「리듬지못한」 국제적 정세로 말미암아 「자진(自進)하여」 프로테타리아트에게 중대한 양보를 하는것이 유리(有利)하다

교 생각할진대 발전의 『평화적』 도정이 십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상은 다만 그렇게 될수있을 면 장래에 관한것이다. 이 예상은 가까운 장래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한, 전혀 아무런 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않는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옳은것이였다.

「프로테라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폭력으로써 파괴하고 그것을 재건으로써, 바꾸어놓음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다」(제二三권 三四二페이지를 참조하라)。

(三)、프.로.테.라.리.아.트. 독.재.의. 국.가.적. 형.태.로.서.의. 쏘.베.트.주.권. 프.로.테.라.리.아.트. 독.재.의. 승.리.는. 부르.조.아.지.의. 진.압, 부르.조.아. 국.가. 기.구.의. 파.괴, 프.로.테.라.리.아.트. 민.주.주의.로.써.의. 부.르.조.아.민.주.주의.의. 교.체.를.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함.에. 도.움.이. 될.수.있.는. 그런. 조.직.체.는. 어떠한.것.인가? 부르.조.아.국.회.제.도.의. 로.대.위.에서. 자.라.난. 프.로.테.라.리.아.트.의. 낯.은. 조.직.형.태.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불.충.분.하.다.는.것, 이.에. 대.해.서.는. 의.심.할.것. 없.는.바.이.다. 부르.조.아. 국.가. 기.구.를. 매.장.할. 무.덤.을. 파.는.자.의. 역.할.을. 행.할.수.있.고. 다만. 부르.조.아. 국.가. 기.구.를. 깨.트.리.며.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프.로.테.라.리.아.트. 민.주.주의.로.써. 바꾸.어.놓.을.뿐.만. 아니.라. 또한. 프.로.테.라.리.아.트.의. 국.가.적. 주.권.의. 기.초.가. 될.수.있.는. 프.로.테.라.리.아.트. 조.직.의. 그러한. 새. 형.태.란. 어떤.것.인가?

프로테라리아트조직의 그러한 새 형태로는 쏘베트가 되는것이다.

낯은 조직형태와 비하여 쏘베트의 위력은 어떠한가에 있는가?

그것은 쏘베트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포괄적(包括的)인 대중적 조직인데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쏘베트가, 오직 쏘베트만이 배의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다 망라(網羅)하는 까닭이다.

그것은 쏘베트가 모든 피압박자, 피착취자들, 노동자와 농민, 육해군 병사들을 단결하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거기에 있어서 대중의 전위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 투쟁의 정치적 지도를 가장 쉽게, 가장 완전하게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대중적 조직인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쏘베트가 대중의 혁명적 투쟁, 그의 정치적 진출, 그의 폭동의 가장 유력한 기관이요 금융자본의 만능과 그의 정치적 부속물들을 파쇄할수 있는 기관인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쏘베트가 직접 대중자신의 조직체인데 있다. 다시 말하면 새 국가의 건설 및 통치에 대중의 참가를 최고도로 쉽게 하며 남은 제도의 파괴를 위한 투쟁 및 프롤레타리아적 새 제도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대중의 혁명적 정력, 자발성, 창조적 재능(才能)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따라서 가장 권위있는 대중의 조직인데 있는 것이다.

쏘베트주권은 지방쏘베트들이 한개의 전국가적 조직으로,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대중의 선봉으로서의 또 지배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적 조직으로 연합되고 형성된것, 즉 쏘베트공화국으로 연합된것이다.

쏘베트주권의 본질은 자본가와 지주들로써 억압당하는 바로 그 계급의 가장 대중적 이요 가장 혁명적인 조직체들이 지금에는 「전국가주권, 전국가기관의 항구적(恒久的)이며

유일한 「로대」로 원리에 있으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조아 공화국에 있어서까지도」 법률상으로는 동등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수단과 간계(奸計)로 말미암아 정치생활의 참가와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의 행사로부터 제외되었던 바로 그 대중에 지금에는 국가의 민주주의적 통치에 항구적이고 확실한, 더구나 결정적인 참가에 인입되는 데 있는 것이다」* (베닌전집 제二四권 「三제지를 참조하라」).

실로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주권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또는 국회제도의 낡은 형태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조직의 새 형태인 것이요 근로대중을 착취 압박하는 임무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온갖 압박과 착취로부터 근로대중을 완전히 해방하는 임무,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임무에 적응한 국가의 새 형(型)이다.

쏘베트주권이 나라남을 따라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국회제도의 시대는 끝났었고 전제제의 력사의 새장(章), 즉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베닌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이다.

쏘베트주권의 특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쏘베트주권은 계급들이 존재하여있는 조건하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국가적 조직체중에서 가장 대중적이요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조직체인데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쏘베트주권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들과 피착취 농민들과의 연결과 협동의 무대가 되는 것이요 또 자체의 사업에 있어서 그 연결과 그 협동에 의거

하며 그리하므로써 주민의 소수에 대한 주민대다수의 주권, 그 대다수의 독재의 표현이 되는가닭이다.

그것은 쏘베트주권이 계급사회의 모든 국가조직체중에서 가장 국제주의적인데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쏘베트주권은 온갖 민족적 압박을 파쇄하며 여러 민족의 근로대중의 협동에 의거하며 그리하므로써 그 대중을 통일적 국가동맹에 연합시키는것을 쉽게하여주는가닭이다.

그것은, 쏘베트주권은 그 자체의 구성자체로 보아서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전위가 되는 즉 가장 결속되었고 가장 의식있는 쏘베트의 핵심(核心)인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그 대중의 지도사업을 쉽게하여줌에 있는것이다.

「피압박 계급들의 모든 운동 및 모든 혁명의 경험과 전제계 사회주의의 운동의 경험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분산(分散)되고 뒤떨어진 근로자 및 피착취 주민층을 단결시키며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갈수있다는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레닌은 말하였다 (제二四권 一四페이지를 참조하라)。 쏘베트주권의 구성은 이 경험이 가리키는바를 쉽게 실시하게하여준다.

그것은, 쏘베트주권이 헌법권과 집행권을 국가의 단일한 조직체에 연합하면서 지역별(地域別)의 선거구(選舉區)를 생산단위 즉 제조소와 공장으로써 바꾸어 놓으면서 노동자 및 일반적으로 근로자대중을 국가 통치기관들과 직접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국가를 통치하는것을 가르쳐주는데 있는것이다.

그것은, 오직 쏘베트주권만이 군대를 부르조아지의 통수부에 복종하는것으로부터 벗어나게할수있으며, 부르조아 제도에 있어서처럼 인민을 압박하는 무기로 되어있는 군대를 자

기나라와 다룬나라 부르조아지의 기반(羈絆)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는 무기로 변환시킬 수 있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쏘베트적 국가 조직체만이 낯은, 즉 부르조아적인 판로기관 및 법관(法官)기관을 참으로 일거(一舉)에 타파하고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상동서(上同書)에서 참조하라)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근로자 및 착취당하는 자들의 대중적 조직체들을 국가판리에 항구적 무조건적 인 참가에 끌어넣는 쏘베트적 국가 형태만이 장래의 국가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적 요소 중의 하나인 국가제도의 조락(凋落)을 준비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쏘베트공화국은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결국 발전한 정치적 형태이며, 그 형태의 범위안에서 프로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성취될 정치적 형태다.

파리ком론은 이 형태의 맹아(萌芽)이었었다. 쏘베트주권은 그의 발전이오 또한 완성이다. 실제로 그러므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동자, 병사 및 농민대의원 쏘베트공화국은 보다 높은 형의 민주제도의 형태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로의 가장 전진(健全)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것이다」(제二二권 「三一」페이지를 참조하라)。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소말련.

五、농민문제

나는 이 제목하에서 네가지 문제를 들려고 한다. 즉

(1) 문제의 제기,

(2)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시에 있어서의 농민,

(3) 프롤레타리아 혁명시에 있어서의 농민,

(4) 소비에트권이 공고히 된 이후의 농민에 대한것이다.

(1) 문제의 제기. 어떤자들은 해인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것은 농민문제이고 해인주의의 출발점은 농민, 그의 역할, 그의 비중(比重)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해인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그의 출발점은 농민문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문제이며, 그것을 전취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 그것을 토론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이다. 주권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에 있어서 그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의 농민문제는 파생적(派生的) 문제인것이다.

그러나 이 사정은 농민문제가 의심할것없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 그 중대하고도 긴절한 의의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하는것은 아니다. 로씨야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농민문제의 신중한 연구(研究)는 실제로 제1차혁명(一九〇五年)의 전야, 즉 짜리즘의 전복문제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계모니 실현문제가 전(全)적으로 당의 앞에 나섰고 또 절박한 부르조아혁명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가 긴절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때에 시작된것은 다 아는바이다. 또한 로씨야에서의 농민문제는 프롤레타

리아트(利亞特)의 독재에 대한 문제와, 그 독재의 전취와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절박한 프로테라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그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때인 프로테라리아 혁명당시에 있어서 일층 더 현실한 성질을 띠게 된 것도 역시 다 아는바이다. 그것은 명백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진된 독재로 전전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자기의 진정한 동맹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하지 않을수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민문제는 프로테라리아 독재의 전반적 문제의 일부분이오 또한 이러한 것으로서 해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2인터내셔널에 속한 당들의 농민문제에 대한 냉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부정적 인 태도는 다만 서방에서의 발전의 특수조건에 의하여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당들이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를 믿지 않으며 혁명을 겁내며 프로테라리아트를 주권으로 인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혁명을 겁내며 프로테라리아트를 주권으로 인도하기를 생각조차하지 않는 자는 혁명에 있어서의 프로테라리아트의 동맹자 문제에 관심을할 수 없는 것이니 그들에게 있어서 동맹자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관계없는 문제요 또 긴요치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제2인터내셔널 영웅들의 농민문제에 대한 조소적 태도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절박한 거동의 표준으로, 「진정」한 맑스주의의 표준으로 간주된다. 사실에 있어서 거기에는 맑스주의의 태도는 추호(秋毫)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프로테라리아 혁명의 전야에 있어서 농민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프로테라리아 독재 부정(否定)의 리면이오 또 맑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변질의 의심할것없는 표징인 까닭이다.

문제는 어떻게 서 있는 것이다. 즉 농민의 일정한 생활조건들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혁명적 가능성이 있다. 없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만일 다 없지 않았다면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위하여 그 가능성을 리용하며 서민의 부르조아 혁명시에 부르조아의 후비군으로 되었고 또 지금에도 그것으로 남아있는 농민을, 그의 착취당하는 대다수를 부르조아지 후비군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후비군, 그의 동맹자로 변화시킬 가망과 근거가 있는가?

해인주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肯定的)으로 대답한다. 즉 농민대다수의 속에 혁명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하여 그능력을 리용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대답한다.

로씨야의 三차에 걸친 혁명의 역사는 이에 대한 해인주의의 결론을 전적으로 확증한다. 이로부터 예속과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농민대중의 투쟁에서와 압박과 빈궁에서 벗어나자 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근로농민대중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실재적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프로레타리아트가 온갖 농민운동을 다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다. 이에 있어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운동을 쉽게 하여 주며 이렇게나 저렇게나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에 도움을 주며 농민이 노동계급의 후비군, 동맹자로의 전환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농민운동과 농민투쟁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二)、부르조아 민주의 혁명시에 있어서의 농민. 이 시기는 로씨야의 제1차 혁명(一九〇五년)으로부터 제2차 혁명에(一九一七년 二월)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시

가다. 이 시기의 특점은 농민이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의 영향으로 부러 빠져나오게 된 것, 농민이 까제트(立憲民主黨)로부터 물러선 것, 농민이 프로테라리아트의 편, 볼셰비크당의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시기의 역사는 까제트(자유주의적 부르조아)와 볼셰비크(프로테라리아트)와의 사이에 농민전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이 투쟁의 운명은 국회(두마) 시기가 결정하였다. 왜 그러냐하면 국회에 걸친 국회의 시기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실물(實物) 교혼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 교혼은 농민들이 립헌민주당의 손에서는 토지도, 자유도 얻지 못한다는 것과, 짜리는 전적으로 지주의 편이고 립헌민주당은 짜리를 지지한다는 것과, 그리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는 유일한 힘은 도시 노동자들 즉 프로테라리아트라는 것을 농민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준 까닭이다. 제국주의전쟁은 농민의 부르조아지로부터의 리탈과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의 고통화를 완성시키면서 다만 국회의 시기의 교혼을 확증하였을 뿐이다. 왜 그러냐하면 전쟁의 수년간은 짜리와 그 동맹자인 부르조아지에게서 평화를 얻으려는 기때는 전혀 무익한 일이오 전혀 기만이라는 것을 보여준 까닭이다. 국회의 시기의 실물적 교혼이 없었더라면 프로테라리아트의 해게모니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노동자 농민의 동맹은 성립된 것이다. 짜리즘의 전복을 위한 전반기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테라리아트의 해게모니(지도) 즉 一九一七년二月혁명에로 인도한 해게모니는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일반이 다 아는바와 같이 서방(영국, 불란서, 독일, 오해리)의 부르조아혁명은 다른 길을 밟았다. 거기에서는 혁명에 있어서의 해게모니가 자체의 힘이 약하였던 까닭에 자립적 정치적 세력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얻을수 없었던 프로테라리아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

의적 부르조아지에게 속하였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농민들은 농노제로부터의 해방을 수(數)도 적었고 조작도 되지 못하였던 프로테라리아트的手中가 아니라 부르조아지의 손에서 얻었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농민은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와 함께 남은 제도를 반대하여 싸웠다. 거기에서는, 농민은 부르조아지의 후비군이 되었었다. 이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혁명은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위세를 극히 강화시켰다. 이르렀던 것이다.

그와 반대로 로씨야에 있어서는 부르조아 혁명은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로씨야에서의 혁명은 정치적 역량으로서의 부르조아지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게 하였고 그의 정치적 후비군을 증대(增大)케 한 것이 아니라 도로혀 그의 기본적 후비군인 농민의 상실로 인도하였다. 로씨야에서의 부르조아 혁명은 수백만 농민을 혁명적 프로테라리아트의 주위에 결속시켜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가 아니라 혁명적 프로테라리아트를 혁명의 선두에 내세웠다.

로씨야에 있어서 부르조아 혁명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프로테라리아트의 혁명으로 성장 전환된 그 사실도 하여간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프로테라리아트의 해게모니는 프로테라리아트 독재의 맹아(萌芽)이며 거기로의 과도적 단계이었다.

서방의 부르조아 혁명사에는 전례가 없는 바인 로씨야 혁명에 있어서의 이러한 독(獨特)한 현상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이 독특성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그것은 로씨야에서의 부르조아 혁명은 서방에서 보다 비교적 더 발전된 계급투쟁의 조건하에서 전개되었고 로씨야의 프로테라리아트는 그 때에 벌써 자립적 정치적 역량으로 변환되었는데 프로테라리아트의 혁명성에 불랜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는 온갖 혁명

성비 비슷한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특히 一九〇五년의 교훈이 있은 후에) 혁명을 반대하여,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반대하여 짜리와 뿔 지주들과의 동맹으로 전환한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로씨야의 부르조아 혁명의 특수성을 결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혁명의 전야에 있어서의 로씨야의 산업의 미증유의 집적、레하면 다 아는 바와 같이 로씨야에서는 전로동자의 五四%가 五백명이상의 로동자수를 가진 기업소들에서 일하였는데 미국과 같은 그런 발전된 나라에 있어서도 전로동자의 겨우 三三%가 그러한 기업소들에서 일하였다. 이러한 사정하나만도 벌써 불웨이코당과 같은 그러한 혁명당의 존재하에서 로씨야의 로동계급을 나라의 정치적 생활의 위대한 힘으로 변환시킨 것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기업소들에서의 판포한 착취형태에다 짜리친위병(親衛兵)들의 잔인한 경찰제도를 가한 것이 사정은 로동자들의 매번의 중요한 과업을 거대한 정치적 행동으로 변환시켰고 철저적으로 혁명적 역량으로써 로동계급을 단련시켰다.

(3)、一九〇五년 혁명이후에 짜리즘에 대한 종북(從僕)으로와 로골적인 반혁명으로 변환되어버린 로씨야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취약성이니 이것은 다만 로씨야 부르조아지를 짜리즘의 품안에 몰아넣은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성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부르조아지가 여러가지 정부주문에 직접 의존(依存)되었던 것으로써도 설명되는 것이다.

(2) 지주들의 전권으로써 보충되는 농촌에서의 가장 관포한, 가장 잔인한 농노제도 잔재의 현존——이 사정은 「농민으로 하여금 혁명의 품속으로 들어 가게 하였다.

(口)、모든 생명있는것을 억압하고 자본가와 지주의 압박을 자기의 전횡(專橫)으로써 더욱 심하게한 짜리즘——이 사정은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투쟁을 하나의 혁명적 분류(奔流)에로 합류시켰다.

(日)、제국주의 전쟁이었으니, 이 전쟁은 로씨야의 정치적 생활의 이 모든 모순을 심각한 혁명적 위기에 융합시켜 상상할수도 없을만한 전적의 힘을 혁명에 부쳐 주었다.

이러한 조건하에 있어서 농민은 어디로 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었는가? 그는 지주의 전권을 반대하며 짜리의 전횡을 반대하며 농민의 경제를 멸망케한 파멸적 전쟁을 반대함에 있어서 누구에게서 지지를 구할 것이었는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에게서 구할 것인가? 아니다, 그는 적(敵)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四회에 걸친 국회의 다년간의 경험에 말하여 주었다. 에세르에게서 구할 것인가? 에세르들은 물론 텅 빈 민주당보다 「나온」 것이오 그들의 강령은 「편향은」 것이며 또한 거의 농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갓 농민에게만 의거하려고 생각하였고 또 그들은 적(敵)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힘을 모집하여 내는 도시에 있어서는 약하였으니 그들이 무엇을 출수 있었겠는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의 어떠한 장애했을 앞에 서든지 주저하지 않으며 짜리 및 지주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용감하게 선 두에 나서며 농민을 에속과 무토지(無土地)와 압박과 전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그

러한 새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대체로 그러한 힘이 로씨야에 있었는가? 물론 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힘, 끝까지 싸울 줄 아는 기능, 자기의 용감성, 자기의 혁명성을 벌써 一九〇五년에 보인 로씨야 프로테타리아트였다.

어쨌든 그와 같은 다른 힘은 없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민은 립헌민주당에서 떠나져서 에세르와 가까웠다가 드디어 로씨야 프로테타리아트와 같은 혁명의 용감한 수명의 지도에 따를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로씨야 부르주아 혁명의 특수성을 결정한 사정이다.

(三)、프로테타리아 혁명시에 있어서의 농민. 이 시기는 二월혁명(一九一七년)과 十월혁명(一九一七년)의 기간을 포괄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불과 八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이다. 그러나 그 八개월은 대중의 정치적 계몽(啓蒙)과 혁명적 교양의 견지로 보아서 보통 립헌적(立憲的) 발전의 수십년 동안과 대등시켜도 손색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기는 혁명의 八개월인 까닭이다. 그 시기의 특성은 농민이 일층 혁명화된 것, 농민의 에세르에 대한 환멸(幻滅)、농민의 에세르로부터의 이탈(離脫)、나라를 평화에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철저한 혁명적 역량으로서의 프로테타리아트의 주위에 직접 결합하는 방향으로 농민의 새로운 전환이다. 그 시기의 역사는 에세르(소부르조아 민주주의)와 볼셰비크(프로테타리아 민주주의) 간에 농민을 위한, 농민다수의 전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립헌내각(聯立內閣)의 시기, 케렌스끼 집권의 시기, 지주로서물수에 대한 에세르 및 멘셰비크들의 거절, 전쟁의 계속을 위한 에세르 및 멘셰비크들의 투쟁, 전선에서의

六월 진격, 병사들에게 대한 사형제, 프로닐로프와 폭동이 이 투쟁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만일 이전에는, 곧 지나간 지기에 있어서는 짜리와 지주의 주권을 전복하는것이 혁명의 기본적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미 짜리는 없어졌고 연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농민을 극도로 험락시키면서 국내의 경제를 궁경(窮境)에 빠지게한 二월혁명후 지기에 있어서는 전쟁을 종결시키는 문제가 혁명의 기본적 문제로 되었다. 문제의 중심점은 순진한 국내적 성질을 가진 여러가지 문제로부터 기본적 문제, 즉 전쟁에 대한 문제에도 분명히 옮기었다. 「전쟁을 정지하라」, 「전쟁에서 물러나오자」—— 이것은 피폐(疲敝)된 나라의, 누구보다 우선 농민들의 일반적 부르주즘이었다. 그런데 전쟁에서 물러나오려면 임시정부를,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에세르와 멘셰비크 주권을 전복하여야만 될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이, 다만 그들만이 전쟁을 소위 「최후의 승리」까지 끄으려나간 까닭이다. 사실 부르조아지를 전복하는 이외에는 전쟁에서 물러나올 다른 길이 없었던것이다.

이것은 새 혁명 즉 프로테타리아 혁명이었다. 왜 그러냐하면 그 혁명은 새 주권, 프로테타리아적 주권인 쏘베트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의 당, 혁명적 프로테타리아트의 당 즉 볼셰비크당으로 하여금 주권을 잡게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적 부르조아지의 마지막, 최좌파(最左派)인 에세르와 멘셰비크당을 주권으로부터 몰아내었던 까닭이다. 농민의 대다수는 평화와 쏘베트주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농민에게는 다른 출로가 없었다. 다른 출로는 또한 있을 수도 없었다.

이와같이 되어 계편쓰끼일과의 시기는 근로농민대중에게 위대한 실물적 교훈이 되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시기는 에셰르와 멘셰비크의 주권하에서는 로씨야는 전쟁에서 물러나올 수 없고 농민들은 토지도, 자유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멘셰비크들과 에셰르들은 다만 달콤한 말과 기만적 약속을 하는 것으로써 립헌민주당과 다름따름이오 사실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도 또한 제국주의적 립헌민주당적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과, 로씨야를 바른길에 내세울만한 유일한 주권은 다만 쏘베트주권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까닭이다. 전쟁이 더 지속된것은 이 교훈의 정확성을 확증하였고 혁명을 추진시켰으며 농민과 군인의 수백만대중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주위에 직접 결속하는 길에 추진시켰을 따름이다. 에셰르와 멘셰비크들이 고립된것은 문박할수없는 사실이 되었다. 립헌내각 시기의 실물교훈이 없었던들 프로레타리아트의 목적은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이러한것이 부르조아 혁명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의 성장전화 과정(過程)을 쉽게 하여준 사정들이다.

로씨야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목적은 이렇게 수립되었다.

(四)、쏘베트주권이 공고히 된 이후에 있어서의 농민 만일 이전에 곧 혁명의 첫

시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주로 짜리즘을 전복하는 데 있었고 또 그다음 二월혁명 이후에 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조아지를 전복하는 것을 거쳐서 제국주의 전쟁으로 부터 물 러나오는 데 있었다 면 국내전쟁이 종결되고 쏘베트주권이 공고화된 이후인 지금에 있어서는 경제적 전설사업에 대한 문제가 첫자리에 나섰다 국유화한 공업을 강화 발전시킬것 그를

위하여 국가가 조절하는 상업을 통하여 공업을 농업과 연결시킬 것, 다음에는 점차로 현물세액(現物稅額)을 낮추면서 농산물과 공업생산물과의 교환에 인도하기 위하여 여잉곡물 징주제(徵收制)를 현물세제로써 바꾸어 농을 짓, 상업을 진흥시키며 협동조합에 수백만 농민을 끌어들여 넣으면서 그것을 발전시킬 것——이렇게 배넌은 사회주의적 경제의 토대 건설의 완성으로 나가는 도정에 있어서의 경제적 건설사업에 대한 당면임무들을 그렸다.

이 임무는 로씨야와 같은 농업국가에 대하여서는 힘에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회의자(懷疑者)들은 이 임무는 단순히 공상이요 실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한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은 농민인 것이며 그들은 소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주의적 생산의 토대를 조직하는데 리용할 수 없는 까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회의자들은 오해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 사정들중에서 주되는 것을 들어보자.

첫째로, 소련의 농민을 서방의 농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번 혁명의 경험을 지내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를 선두로 하여 그와 함께 자리와 부르주아주권을 반대하여 투쟁한 농민,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토지와 평화를 얻었고 그러한 까닭에 프로레타리아트의 후비군이 된 농민——이 농민은 부르주아 혁명당시에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를 선두로 하여 투쟁하였고 그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토지를 얻었으며 그러한 까닭에 부르주아지의 후비군이 된 그 농민과 구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친선 및 정치적 협

력을 존중시함에 습관되었고 또한 그 친선과 그 협력의 덕택에 자기의 자유를 얻은 조선의 농민이 프로레타리아트와의 경제적 협력을 짓는데 있어서 특히 훌륭한 자료(資料)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가 한다.

엥겔스는 「사회주의적 당에 의한 정치주권전취는 가까운 장래의 문제로 되었다」고 또 「그것을 전취하기 위하여서는 당은 우선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가야 하며 그리하여 농촌에서 유력한 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一九二二년에 발행된 엥겔스의 『농민문제』를 참조하라)。엥겔스는 이에 대하여서 지난 세기 九十年대에 지방의 농민을 넘두에 두고서 쓴 것이다. 이 관계에 있어서 세 번 혁명을 거쳐는 동안에 굉장한 사업을 실행한로 써야 공산주의자들이 농촌에 있어서 지방의 우리동지들이 생각조차하여 볼수없는 그런 영향과 그런 지주(支柱)를 만들어내는데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사정으로써야의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사이에 경제적 협동을 조직하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쉽게하여 주지않을수 없었던것을 어떻게 부정할수 있는가?

최의론자들은, 소농민에 대하여 그들은 사회주의건설과 상용(相容)될수없는 요소(要素)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엥겔스가 지방의 소농민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를 들어 보라.

「우리는 결정적으로 소농민의 편에 서고있다. 소농민이 부속하지않게 살도록 하기위하여, 만일 그가 협동경리에도 넘어가기를 결심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그것을 쉽게하여주기 위하여 할수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만일 그가 아직 그것을 결심함에 이르지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그에게 자기의 땅피야기에서 농사하면서 협동경리로 넘어가는데 대하여, 생각하여볼 시간을 가급적(可及的) 많이 주도록 노력할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

는 것은 다만 자작(自作)하는 소농민이 우리편으로 넘어올수 있다고 간주하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직접 당의 리익을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가 되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고 농민 그대로 우리편으로 고르며 넘을수 있는 농민의 수효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개조는 더욱 속하게, 더욱 쉽게 완성될것이다. 이 개조를 자본주의적 생산이 도처에서 극도의 결과에로까지 발전되고 그리고 소수공업자와 소농민의 최후의 한사람까지 대규모적 자본주의적 생산의 회생되는때를 기다리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익한 일일것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 자금(資金)중에서 농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지출해야할 물질적 회생은 자본주의적 경제의 전지로 보아서 는 다만 내버린 돈과 같이 보일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훌륭한 투자(投資)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 물질적 회생은 전체로서의 사회적 개조를 위한 지출에 있어서 심배도 더 될수 있는 액수(額數)를 절약하게될것 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농민에게 대해서 매우 관후(寬厚)한자들이 될수 있는것이 다 (상동을 참조하라)。

앵겔스는 서방의 농민을 념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것이다. 그런데 앵겔스가 말한 그 것이 어째서든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쉽게 또한 완전하게 실현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오직 쏘베트 로씨야에 있어서만 「자작하는 소 농민이 우리의 편으로 넘어오는」것과 그것을 위하여 필요되는 「물질적 회생」과 그것을 위하여 요구되는 「농민에 대한 관대(寬大)한 태도」를 지금에 곧 완전하게 실시할수 있는것과 또한 로씨야에서는 이 여러가지 대책과 그와 유사한 대책들이 농민을 위하여 벌써 실시되고 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 사정이 버금에는 쏘베트나라의 경제적 전설사업 을 반드시 쉽게하여 줄것이며 또 추진시키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어떻게 부인할수 있는가? 둘째로, 로씨야의 농업을 서방의 농업과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방에서의 농업의 발전은 한쪽에는 대규모의 소유자와 사적—자본주의적 대농장, 다른 한쪽에는 빈궁, 적빈과 고용

노예——농민의 이러한 심각한 분화의 환경에서 자본주의의 통상적 로선을 밟아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어서는 분해 퇴폐(頹廢)가 아주 자연한 일이다. 그러나 로씨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발전은 쏘베트주권의 현존과 또 기본적인 생산도구 및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그러한 발전을 용허(容許)하지 않는 그 원인만으로도 그러한 길을 밟아나갈 수 없는 것이다. 로씨야에서 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다른 길, 즉 수백만의 중소 농민이 협동조합화하는 길, 농촌에 있어서 저리대부 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길을 밟아나가게 될 것이다. 레닌은 협동조합에 대한 제론문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새길, 즉 협동조합을 거쳐서 농민의 대다수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고으려 넣는 길, 농업에——처음에는 농산물의 판매부문에서, 그다음에는 농산물의 생산부문에서 집단주의의 원칙을 점차 부식하는 길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옳게 지적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매우 흥미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서 농촌에서 생기는 몇가지의 새 현상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전로농업협동조합동맹안에는 아마(亞麻)、감자、빠타 및 기타의 농업부문별의 큰 장래성을 가진 대규모적 새 조직들이 생겼다. 그중에서 레하면, 아마조합중앙(亞麻組合中央)은 수많은 농민—아마생산자들의 조합망 전체를 연합하였다. 아마조합중앙은 농민들에게 종자와 여러가지 생산도구를 공급하고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아마생산물 전부를 사서 그것을 다량으로 시장에 팔고 농민들이 리익배당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주며 그리하여 전로농업협동조합동맹을 거쳐서 농업을 국영공업과 연결시키고 있다. 생산조직의 이러한 형태를 무엇이냐고 부를

가? 이것은 나의 생각 같아서는 농업방면에 있어서의 대규모적 국가—사회주의적 생산의 가내(家內) 제도인 것이다. 나는 이에서, 예하면, 수공업자들이 자본가에게서 원료와 도구를 타가지고 또 자기들의 생산물 전부를 자본가에게 바치면서 실제에 있어서서는 자기집에서 일하는 반(半) 고용노동자였던 방적산업(紡績産業) 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가내제도로부터 미루어보아 국가—사회주의적 생산의 가내제도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농업발전이 어떠한 길을 밟어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指標) 중의 하나인 것이다. 나는 다른 농업부문들에 있어서의 그와같은 종류의 여러가지 다른 지표에 대하여서는 이에서 더 말하지도 않는다.

농민의 대다수가 사영(私營) 자본주의적 대농장과 고용노동제의 길, 빈곤과罄乏의 길을 내버리고 이 발전의 새 길에 즐겨 나설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해년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의 길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모든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권력, 프로테라리아트의 수중에 있는 국가의 주권, 수백만의 소농(小農)들과 몇 극소농들과의 이 프로테라리아트의 동맹, 그 동맹에 있어서 농민에게 대한 프로테라리아트의 지도를 보장하는것들——이 모든것이 우리가 이전에 상상인적이라고 경멸하였고 그리고 신경제정적하의 지극에 있어서도 어떤 전으로서는 경멸할수있는 행동조합으로부터 오직 그 행동조합하나만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완성하는데 필요한것의 전부가 아닌가? 이 모든것이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건설의 필요한 모든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다 그 건설에 필요한것이요 또한 충분한것이다」 (제二十七권 三九二페이지를 보라)。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하에서의 「주민의 조직의 새 원칙이오」 또 새 「사회제도」인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및 기타로써 지지하여야 할 필요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각개의 사회제도는 일정한 계급의 재정적 지지하에서만 발생되는 것이다. 「자유」 자본주의가 출생되는 때 소비된 그 몇몇 만원에 대하여서는 회상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보통 이상으로 지지하여야 할 사회제도는 곧 협동조합제도인 것을 우리는 지금 반드시 의식하여야 하며 이것을 실제화시켜야 한다. 그러되 그것을 이 어구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지지란 것을 임의의 협동조합적 운동(融通)의 지대로 이해한다면 불충분하다. 그 지지란 주민의 진정한 대중이 참가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적 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상동 三九三페이지를 참조하라)。

이 모든 사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회의론자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농민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후비군으로 간주하는 레닌주의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을 잡은 프로레타리아트가 공업과 농업을 결합시키며 사회주의적 건설 사업을 촉진(促進)시키며 그것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정제에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그런 필요한 토대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하에 확보(確保)하기 위하여 그 후비군을 리용할 수 있으며 또 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六、민족문제

나는 이 제목하에서 두가지 주되는 문제를 들려고 한다. 즉

(1)、문제의 제기.

(2)、파악과 제민족의 해방운동과 프로테타리아 혁명이다.

(1)、문제의 제기. 민족문제는 최근 二十년동안에 여러가지의 중대한 변경을 받았다. 제2인터내셔널 시대의 민족문제와 레닌주의 시대의 민족문제는 결코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문제들은 범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내부적 성질로 보아서도 현저하게 서로 다른 것이다.

이전에는, 민족문제는 보통 주로 「문명한」 민족들에게 관한 문제의 좁은 범위로써 국한되었다. 애란족, 항가리족, 파란족, 분란족, 세르비아족 기타 몇개의 구라과 민족들——이것이 제2인터내셔널 활동가들이 그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바 완전한 동등권을 가지지 못한 민족들의 범위였다. 가장 란포하고 악독한 형태의 민족적 압박을 받고있는 수천만 수억만의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민족들은 통례로 시야(視野) 밖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백인종과 흑인종, 「문명한 민족」과 「미개한 민족」들을 감히 한자리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식민지 해방문제를 애써 회피한 공허하고도 애매한 두세계의 결정서——이것이 제2인터내셔널 활동가들이 자만할수있는것의 전부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민족문제의 이러한 이중성과 중도반단성(中途半斷性)은 청산된것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이다. 레닌주의는 이 국단의 불합당성을 폭로하였고 백인종과 흑인종, 서양사람과 아세아사람, 제국주의의 「문

명한」노예와 「미개한」노예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깨트려버리며 이리하여 민족문제를 식민지문제와 연결시켰다. 이것으로써 민족문제는 부분적、일국적 문제로부터 일반적、국제적 문제로、곧 예속국 및 식민지의 피압박민족의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세계적 문제로 변환되게 되었다.

이전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은 흔히 민족자치권에까지 좁혀졌고 보통 옳지 못하게 해석되었다. 제2인더내쇼날의 어떤 수령들은 민족자결권을 심지어 문화자치권 즉 피압박민족이 지배민족의 손에 모든 정치적 주권을 그냥 남겨두고 자기의 문화시설만을 가질수있는 권리로 변환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사정은 민족자결의 사상이 합병을 반대한 투쟁의 무기로부터 합병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변환될 위험이 생기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 혼란은 극복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주의는 자결에 대한 개념을 예속국 및 식민지의 피압박민족의 완전한 분리의 권리로써 독립적인 국가적 존재에 대한 민족의 권리로써 해석하여 그 개념(概念)을 확장시켰다. 그리하여 자결권을 자치권으로 확대함으로써 합병을 정당화할수있는 가능성이 제거되었다. 그리하여 의심할것없이 제국주의전쟁당시에 사회배타주의자들의 손에서 대중을 기만하는 도구로 되었던 그 자결 원칙 자체는 대중을 기만하는 도구로부터 모든 또는 온갖 제국주의적 육당파 배타주의적 간계(奸計)를 폭로하는 도구로、국제주의의 정신으로써 대중을 정치적으로 계몽(啓蒙)하는 도구로 전환되었다.

이전에는 피압박민족들에 대한 문제를 보통 순전한 법률상문제로 보았었다. 「민족적 동등권」의 장엄한 선언(宣言)과 「민족의 평등」에 대한 무수한 성명、이것은 민족의 한 그루빠(소수)가 민족의 다른 그루빠를 착취함으로써 살아가는 제국주의하에서는 「민족의

평등」이란 피압박민족에 대한 조소라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제2인더내쇼날에 속한 당들이 바로 그것으로써 만족하고 있던 것이다. 지금에는 민족문제에 대한 이러한 부르조아적 법률적 견해는 폭로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메닌주의는 프로테라리아트 당들측으로부터의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에 대한 직접적 지지로써 확증되지 않는 「민족의 평등」에 대한 성명은 허망한 거짓 선언이라고 단언하여 민족문제를 과장적 선언의 허공(虛空)으로부터 지상(地上)에 끌어내려놓았다. 그리함으로써 피압박민족에 대한 문제는 그 민족들의 진정한 민족평등과 피압박민족들의 독립적 국가적 존재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한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지지하는 데 대한, 원조하는데 대한 진정한게 그리고 항구적으로 원조하는데 대한 문제로 되었다.

이전에는, 민족문제는 자본의 주권, 제국주의의 전복, 프로테라리아 혁명에 대한 일반적 문제와 분리된 개별적 독립적인 문제로써 개량주의적으로 고찰되었다. 구라파에서의 프로테라리아트의 승리는 식민지 해방운동과의 직접적 동맹이 없이도 가능하며 식민지—민족 문제의 해결은 프로테라리아 혁명의 큰걸을 피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적 투쟁이 없이도 순순히 「저절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묵묵히 믿어왔다. 지금에는 이 반혁명적 견해가 폭로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문제는 프로테라리아 혁명과의 연결에서만, 또한 그의 기초위에서만 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과 서방에서의 혁명의 승리의 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 및 애국자들의 해방운동과의 혁명적 동맹을 거쳐간다는 것을 메닌주의는 증명하였고 그리고 제국주의전쟁과 로씨야 혁명은 그것을 실증하였다. 민족문제는 프로테라리아 혁명에 대한 일반적 문제의 한부분이요 프로테라리아트 독재에 대한 문제의 한부분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는 것이다. 즉 압박받는 나라들의 혁명적 해방운동속에 있는 혁명적 가능성은 벌써 다 없어졌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만일 다없어지지 않았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하여 그 가능성을 리용하고 예속국 및 식민지들을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의 후비군으로부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후비군으로, 그의 동맹자로 변환시킬 가망과 근거가 있는가? 레닌주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즉 압박받는 나라들의 민족해방운동속에 혁명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신으로, 공통한 적을 전복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의 물 전복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리용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대답한다. 제국주의 발전의 기교(機巧)와 제국주의 전쟁과 로씨야의 혁명은 이에 대한 레닌주의의 결론을 전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이로부리는 「차주권을 가진」 민족 프롤레타리아트의 즉으로부터 피압박 및 예속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모든 개개의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어느때나 어느곳에서나 온갖 민족운동을 다 지지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제국주의를 강화하게 하며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민족운동아 아니라 그를 약하게하며 전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운동을 지지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개개의 피압박국의 민족운동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발전상 리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에 있어서는 지지에 대하여 말할 여지도 없을것은 물론이다. 민족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고립적, 자족적 문제인것이 아니라 전체에 종속된, 또한 전체적 전지로부터의 고찰을 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반적 문제의 한 부분인 것이다. 십구세기의 四十

년대에 밝스는 체호주과 남슬라반족의 민족운동은 반대하고, 파란주과 항가리족의 민족운동은 찬성하였다. 무슨 까닭이 있는가? 그것은 그때에 체호와 남슬라반족은 「반동적 민족」이었고, 구라파에 있어서의 「로씨야의 전초(前哨)」였고, 전체정체의 전초였으나, 파란주과 항가리족은 전체정체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적 민족」이었던 까닭이다. 그것은 그때에 체호주과 남슬라반족의 민족운동을 지지함은 구라파의 혁명운동의 가장 위험한 적인 짜리즘을 간접으로 지지함을 의미하였던 까닭이다.

헤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각개의 요구——민족자결까지 포함한것——는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일관(一般)민주주의적(지급에는 일반 사회주의적) 세계운동의 한부분인것이다. 각개의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부분은 전체에 모순될수있는것이니 그때에는 그 한부분을 물리쳐야 하는것이다」(제一九권 二五七—二五八페이지를 보라)。

개개의 민족운동에 대한 문제 그 운동들이 가질수있는 반동적 성질에 대한 문제는 만일 그것을 물론 형식적 견지에서, 추상적 권리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혁명운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평가한다면 이러하다.

일반적으로 민족운동의 혁명적 성질에 대하여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말하여야 할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민족운동의 실패할것없는 혁명성은 어떠한 개개의 민족운동의 있을수있는 반동성이 상대적이오 특수적인것만치 상대적이며 또 특수적인것이다. 제국주의적 압박의 점세하에 있어서의 민족운동의 혁명적 성질은 결코 그 운동속에 프로레타리아적 요소가 반드시 될존해야 한다는가, 그 운동에 혁명적 또는 공화주의적 강령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든가, 그 운동에 민주주의적 기초가 반드시 현존해야함을 전제로하는것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에미루의 투쟁은 그와 밋 그의 동료(同僚)들의 전해가 군주주의적 형태(形態)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혁명적 투쟁인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 투쟁은 제국주의를 약하게하며 분해(分解)시키며 훼손(毀傷)시키는 까닭이다. 이와 반대로 말하자면 제텐쓰끼와 체레펠라, 레노멜과 웨이데만, 제르노브와 단, 헨메르손과 클라인츠와 같은 「맹렬한」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 「혁명가들」과 공화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전쟁 당시에 있어서의 투쟁은 반동적 투쟁이었다. 왜 그러냐하면 그 투쟁은 제국주의를 미화(美化)시키고 강화시키며 제국주의에 승리를 가져오게하는 결과로된 까닭이다. 이와 동일한 리유에서 애급의 독립을 위한 애급상인들과 부르조아 인테리겐차들의 투쟁도 역시 그 애급 민족운동의 수병들이 부르조아적 출신이오 부르조아에 속하였음에 불구하고, 또 그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혁명적 투쟁인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애급의 애급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영국 「로동」정부의 투쟁은 역시 그러한 리유로 인하여 그정부 각원들이 프로테타리아트의 출신이오 프로테타리아적 칭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사회주의를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반동적 투쟁인것이다. 해방의길로 나가는 때(每) 결음이 심지어 그것이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구를 위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증기망치(蒸汽鎚)의 타격이 되는, 다시말하면 의심할것없이 혁명적 결음이 되는 인도와 중국과 같은 그러한 보다 큰 식민지와 예속국들의 민족운동에 대하여서는 나는 더말하지도 않는다.

제닌이 피압박나라의 민족운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전지로서 평가할것이 아니라 제

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관적 종결산의 실제적 결과의 결지에서, 다시 말하면 「고법적으로가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一九권 二五七페이지를 참조하라) 평가하여야 한다 고 말한 것은 옳은 것이다.

(二)、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프로레타리아 혁명. 민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레닌주의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一)、세계는 두진영 즉 금융자본을 점유하고 지구상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소주의 문명인 민족들의 진영과, 그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피압박 피착취민족의 진영으로 나누어졌다.

(二)、금융자본에 의해 압박되고 착취당하는 식민지 및 예속국들은 제국주의의 최후의 후비이며 그의 가장 중대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三)、예속국 및 식민지국 피압박민족들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은 압박과 착취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四)、가장 중요한 식민지 및 예속국들은 벌써 민족해방운동의 길에 들어섰으니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를 위기에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五)、발전된 나라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 운동과 여러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리해관계는 이 두형태의 혁명운동이 공통한 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 결합되기를 요구한다.

(六)、발전된 나라들에서의 노동계급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피압박 민족의 해방은 공동적 혁명전선의 형성 및 강화없이 불가능하다.

(人)、공동적 혁명전선의 형성은 압박하는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족으로부터 그「본국」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직접으로, 결정적으로 지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라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스러울수없는」(엥겔스) 까닭이다.

(二)、이 지지는 분립 및 독립적 국가 존재에 대한 민족의 권리라는 포어를 고수(固守)、옹호, 실행을 의미한다.

(三)、이 포어의 실행이 없이는 세계사회주의 승리의 물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단일(單一)한 세계 경제내에 있어서 여러민족의 연합과 협동을 조정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四)、이 연합은 다만 여러민족의 호상신뢰와 형제적 호상관계의 기초에서 생기는 자원적 결합으로만 될수있는 것이다.

이로부터는 민족문제에 있어서 두가지 방면, 두가지 경향(傾向)이 생기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적 압박과 식민지적 착취의 토대우에서 생긴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 및 독립적 민족국가들 형성하려는 경향과, 세계시장 및 세계경제의 형성과 관련되어 생긴 제민족의 경제적 접근의 경향이다.

페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전되어가는 자본주의는 민족문제에 있어서 두가지의 역사적 경향을 가지고있다. 첫 경향은 민족적 생활과 민족적 운동의 각성(覺醒)、온갖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 민족국가들의 창립으로 둘째 경향은 제민족간의 각종 잡다한 관계의 발전과 빈번(頻繁)화, 민족적 장력의 파괴, 자본, 일반적으로 경제생활, 정치, 과학 기타등등의 국제적 통일외의 창조이다.

이 두가지 경향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법칙이다. 첫째 경향은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에 우세를 가졌고, 둘째 경향은 사회주의 사회에의 전환에로 나가는 성숙된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것이다. (제 一七권 一三九—一四〇 페이지 참조하라)。

제국주의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경향은 호상 용납될수 없는 모순이다. 왜 그러냐하면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착취하며 또 그것을 폭력적으로 「전일체」의 틀안에 붓잡어 넣음이 없이는 생존할수없는 까닭이요, 제국주의는 명합과 식민지 점령의 방법으로써만 민족들을 점근시킬수 있는것이니 일반적으로 그 합병과 식민지 점령이 없이는 제국주의란 도무지 생각할수도없는 까닭이다.

그와 반대로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경향은 피압박민족들을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한가지 사업의 두개의 측면(側面)일 따름이다. 왜 그러냐하면 공산주의는 민족들의 통일적 세계 경제에로의 연합이 그 민족들간의 호상신임과 자원적 협정의 원칙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제민족의 자원적 연합형성의 길은 「통일적」 제국주의적 「전체」로부터의 식민지의 분리 및 이 식민지들의 독립국가로의 전환을 통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까닭이다.

이로부터는, 자기 나라의 제국주의 정부와 투쟁하기를 원치않는,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려하며 국가적으로 분리되려고하는 「자국」 식민지의 피압박민족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하고 있지않는 지배적 민족들(영국, 불란서, 미국, 이태리, 일본등)의 「사회주의자들」의 대장국적 배타주의(大強國의排他主義)에 대한 꾸준한 간단없는, 결정적 투쟁의 필요가 생기는것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진정한 국제주의의 정신, 예측국 및 식민지들의 근로자대중과 접근하는 정신,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참으로 준비하는 정신으로써 지배적 민족로 동계급을 교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만일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가 이전의 로씨야 제국에 속하였던 피압박 민족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면 로씨야의 혁명은 승리하지 못하였을 것이오 볼차크와 테니킨은 박멸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민족들의 동정과 지지를 전취하기 위하여서는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는 무엇보다도 먼저 로씨야 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그 민족들을 민족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것이었다.

이것이 없이는 소비트주권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주의를 부식(扶植)하며 장래 여러 민족들을 통일적 세계 경제에로 연합함에 대한 생생한 원형(原型)으로 되고 있는 소비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고 칭하는 그 훌륭한 민족협동의 기구를 조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로부터는, 자체의 협력한 민족적 시야(視野)의 범위를 초월하기를 원치 않으며, 또한 자기 나라의 해방운동과 지배국 프로레타리아 운동과의 연결을 리해하지 못하는 피압박 제국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적 폐쇄성(閉鎖性)、편협성(偏狹性) 및 고립성(孤立性)에 반대한 투쟁의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공동의 적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즉 제국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피압박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자적(獨立的) 정책과 지배국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피압박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연대성(連帶性)의 고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국제주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배 민족 및 피압박 민족의 근로대중을 혁명적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길이다.

국제주의의 정신으로써의 노동자들을 교양하는데 대한 공산주의의 이 양면적(兩面的) 사업에 대하여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이 교양이: 압박하는 근로 민족과 압박받는 것은 민족, 합병하는 민족과 합병당하는 민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갈을 수 있을까?』

갈지 않을 것은 집적전대 명백한 일이다. 동일한 목적으로 가는 길, 즉 모든 민족의 완전한 동등권, 그들의 긴밀한 접근, 그들의 앞으로의 융합으로 가는 길은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가지의 각각 다른 구체적 길을 밟아나갈 것이다. 그 길은 말하자면 마치 책장 복판에 있는 점에로 향하는 길이 하나인 그 원전끝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방향인 오른쪽 끝으로부터 행함과 같은 것이다. 만일 압박하며 합병하는 대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일반적으로 여러 민족의 융합을 설교(說敎)하면서 『자국의』 니콜라이二世(世), 『자국의』 일렉림, 조지, 푸앙카페 및 기타도 역시 적은 민족들과의 융합(합병의 방법으로써)을 찬성——니콜라이二世는 갈리치의 『융합』, 일렉림二世는 백의의 『융합』 및 기타를 찬성——한다는 것을 한분동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그런 종류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리론에 있어서는 가소로운 공론가가 될 것이요 실천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의 보조자가 될 것이다.

압박하는 나라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국제주의적 교양의 중심점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압박받는 나라들의 분리의 자유를 선전하며 옹호하게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국제주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전을 하지 않는 압박 민족의 온갖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제국주의자라고, 또한 무리한(無賴漢)이라고 명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실현되기 전에는 그 분리되는 경우가 비록 천(千)에 한 번이나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조건적 요구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적은 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우리의 일반적 공식(公式)의 둘째 어구 즉 민족의 『자연적 연합』을 자기 선동의 중심으로 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위반함이 없이 자기

민족의 정치적 독립도 주장하며 자기 민족의 *has been* 등의 민족국 성원회의 편입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전체와 전반적인것을 고려하여, 부분적 이익을 일반적 이익에 종속시키기 위하여, 사소한 민족적 편협성, 폐쇄성, 고립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여 보지 않은 자들은, 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분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피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연합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을 서로 「모순」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사고한다면 국제주의와 제민족의 융합에 이르는 다른 길은, 현재 정세에서 그 목적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요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제一九권 二六一—二六二페이지를 참조하라)。

七、전략과 전술

나는 이 제목하에서 여섯가지 문제를 들려고 한다. 즉

(一)、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지도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전략과 전술、

(二)、혁명의 단계들과 전략、

(三)、운동의 만조(滿潮) 및 퇴조(退潮)와 전술、

(四)、전략적 지도、

(五)、전술적 지도、

(六)、개량주의와 혁명주의이다。

(一)、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지도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전략과 전술。제二인라 내쇼날이 지배하던 시기는 다소간 평화적 발전의 정세하에서 주로 프로레타리아 정치군(軍)의 편성과 훈련의 시기였다. 이것은 계급투쟁의 중요한 형태로서의 국회주의의 시기였다. 계급들간의 대충들에 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투준비에 대한 문제, 프

로테타리아트 독재를 전취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그때에 일정(日程)에 오르지 않은 것 같이 보였다. 임무는, 프로테타리아 군(軍)의 편성과 훈련을 위하여 합법적 발전의 모든 방법을 리용하며 프로테타리아트가 반정부당의 처지에 있었으며 또한 취하여 있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던 제조건에 적응하여 국회주의를 리용함에 귀착되었다. 이러한 지기에 있어서 또는 프로테타리아트의 임무에 대한 이와 같은 리해하에 있어서 전일(全一)적인 전략이나 치밀(緻密)한 전술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가 한다. 전술과 전략에 대한 단편 및 개개의 사상은 있었으나 전략과 전술은 없었다.

제二人리내쇼날의 치명적(致命的) 죄(罪過)는 그가 그 당시에 국회적 투쟁의 제 형태를 리용하는 전술을 실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그 형태의 의의를 과대평가한 데 있는 것이요, 그리고 공개적 혁명적 전투기가 다쳐왔고 국회의(外) 투쟁형태 문제가 첫순서에 올랐을 때에 제二人리내쇼날에 속한 당들은 그 새 임무를 거부하였고 그들 접수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다.

오직 프로테타리아트의 공공연한 진출기요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시기인 다음시기, 부르조아지를 전복하는데 대한 문제나 문제가 직접 실천적 문제로 되었고 프로테타리아트의 후비군에 대한 문제(전략)가 가장 긴절한 문제들중의 하나가 되었고 투쟁과 조직의 모든 형태들——국회내의 형태나 국회의의 형태(전술)——이 아주 명백한 것으로써 등장된 때에 이르러, 바로 이 시기에 이르러 프로테타리아트 투쟁의 전일한 전략과 치밀한 전술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二人리내쇼날의 기회주의자들이 과문어버린 맑스와 엥겔스의 전술과 전략에 대한 천재적 사상은 케닌에 의하여 바로 이 시기에 세상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의 각개의 전술상 명제를 부활시키는 데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것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 지도에 있어서의 정책 및 지도적 원칙의 체계에 결합시키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었으며 새 사상과 새 명제로써 그것을 보충하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지 전술」,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반역자 카우즈키」, 「소아병」과 같은 레닌의 소책자들은 의심할것없이 귀중한 증물로써 맑스주의의 총보물고중에, 그의 혁명적 병기창에 들어갈것이다. 레닌주의의 전략과 전술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투쟁의 지도에 관한 과학인 것이다.

(二)、혁명의 단계들과 전략. 전략은 혁명의 소여(所與) 단계의 토대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주되는 공격의 방향의 규정이며, 혁명적 제력량(중동적 및 부차적 후비군) 배치에 대한 적당한 계획의 작성이며 혁명의 소여 단계의 전(全) 기간에 있어서 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혁명론 이미 두단계를 지냈고 十月변혁후에는 셋째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서 전략이 변경되었다.

첫째 단계. 一九〇三年으로부터 一九一七年 二月까지였다. 목적은 짜리즘을 전복하고 중세기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었다. 혁명의 기본적 력량은 프로레타리아트였고 가장 가까운 후비군은 농민이었다. 근본적 공격의 방향은 농민을 전취하고 또 짜리즘과의 타협·방법으로써 혁명을 청산하려고 애쓰는 자유주의적—군주주의적 부르조아들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력량배치계획은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전제정치의 반함을 폭력으로써 분쇄하고 부르조아지의 불확호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농민대중을 자기의

원에 고으러부치면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레닌전집 제八권 九六페이지를 참조하라)。

둘째. 단계. 一九一七년 三월부터 一九一七년 十月까지였다. 목적은 로씨야에서의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탈출할 것이었다. 혁명의 기본적 역량은 프로테타리아트였고 가장 가까운 후비군은 빈농민이었다. 빈국의 프로테타리아트는 예상할수있는 후비군이었고 오래 지속된 전쟁과 제국주의의 위기는 유리한 모멘트이었다. 기본적 공격 방향은 근로농민대중을 전취하고 또 제국주의와의 타협, 방법으로써 혁명을 종결시키려고 애쓰는 소부르조아적 민주주의자들(멘셰비크, 에세르)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역량배치계획은 프로테타리아트와 빈농민과의 동맹이다. 「프로테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의 반항을 폭력으로써 깨트리고 농민과 소부르조아지의 불확호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주민중 반(半)프로테타리아적 분자들의 대중을 자기의 편으로 고으러부치면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상동)。

셋째. 단계. 이 단계는 十月변혁이후에 시작되었다. 목적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제국주의 극복을 위하여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거점으로 리용하면서 그 독재를 한 나라안에서 튼튼케하는 것이다. 혁명은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났고 세계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혁명의 기본적 역량은 한나라에 있는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와 전세계 프로테타리아트의 혁명운동이다. 주되는 후비군은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반(半)프로테타리아트 및 소농민대중과 식민지 및 애국국에서는 해방운동이다. 기본적 공격의 방향은 소부르조아적 민주주의의 당을 고립시키는 것, 제국주의와의 타협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지주(支柱)로 되

고있는 제2인타내쇼날에 소속한 당들을 교립시키는 것이다. 역량 배치 계획은 프로테타리아 혁명과 식민지 및 예측국 해방운동과의 동맹이다.

전략은 혁명의 기본적 역량과 및 그의 후비군에 관계되는 문제인 것이다. 전략은 소여단계의 전(全)기간을 통하여 대체로는 변동되지 않으면서 혁명의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것이다.

(三)、운동의 만조 및 퇴조와 전술. 전술은 운동의 만조 및 퇴조, 혁명의 앙양(昂揚)과 쇠퇴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프로테타리아트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오 투쟁과 조직의 남은 형태를 새 형태로써 바꾸며, 남은 포어를 새 포어로써 바꾸는 방법과 또 그 형태를 전결시키는 방법 등으로써 그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만일 전략이 예를 들면 짜리즘, 또는 부르조아지와 전(全)에서 승리하며 짜리즘 혹은 부르조아지와 투쟁을 끝까지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면 전술은 보다 좀 덜 중요한 목적을 제우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전술은 전쟁 전체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함이 아니라 각개의 교전, 각개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혁명의 소여 앙양기 또는 쇠퇴기에 있어서의 구체적 정세에 적응되는 각개의 감싸나야, 각개의 진출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까닭이다. 전술은 전략에 종속되며 전략에 복무하는바, 전략의 일부분이다.

전술은 혁명의 만조와 퇴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혁명의 첫 단계의 기간(一九〇三—一九一七년 二월)에 있어서 전략상 계획은 변치 않았으나 전술은 그동안에 여러번 변하였다. 一九〇三—一九〇五년의 시기에 있어서는 당의 전술은 진공적이였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기가 혁명의 만조기(滿潮期)였으며 운동이 고도로 앙양되었으며 따라서 전

술은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었던 까닭이다. 그에 따라서 투쟁의 형태도 또한 혁명적 만조의 요구에 상응하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지방적 정치파업, 정치적 시위운동, 정치적 총파업, 국회에 대한 보이코트, 폭동, 혁명적 전투적 포어——이러한 것이 그 기간에 있어서 서로 교체(交替)된 투쟁형태들이었다. 투쟁의 형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당시에 조직의 제형태도 변화였다. 공장—제조소위원회, 농민혁명위원회, 파업위원회, 노동자 대의원소베트, 다소간 공개적인 노동당——이러한 것이 그 기간에 있어서 조직의 형태들이었다.

一九〇七—一九一二년의 시기에 있어서 당은 부득이 퇴각하는 전술로 넘어가게 되었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는 그때에 혁명운동의 쇠퇴와 혁명의 퇴조에 봉착하였던 까닭이오 따라서 전술은 이 사실을 타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그에 따라서 투쟁의 형태와 또 조직형태도 역시 변화였다. 국회에 대한 보이코트대신에 국회에의 참가, 국회의에서의 공개적 혁명적 진출대신에 국회내에서의 연설과 활동, 정치적 총파업대신에 부분적 경제적 파업이나 또는 단순한 정온(靜穩)상태 등등이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당은 지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대중적 혁명단체들은 문화—계몽단체, 협동조합, 보험 및 기타의 합법적 단체들로써 바꾸어지어야 할 것은 확연한 일이었다.

혁명의 둘째 단계 및 셋째 단계에 대하여서도 이와 똑같이 말하여야 할 것이니 그 전 기간(全期間)을 통하여 전략상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전술은 몇십번이나 변화였다. 전술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형태와 조직형태, 그 형태들의 교대, 그 형태들의 연결을 대상으로 한다. 전술은 혁명의 소여 단계의 기초우에서 혁명의 만조와 퇴조, 양상과 쇠퇴에 따라서 몇번이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四)、전략적 지도。혁명의 후비군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적접후비군—(一)、자기나라의 농민 또는 일반적으로 중간층들、(二)、빈국 프로테타리아트、(三)、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의 혁명운동、(四)、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가 전취한 것과 획득한 것들인바 그중에서 일부분은 프로테타리아트가 강대한 대적들을 매수하며 숨들릴 시간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우세를 확보하면서 일시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간접후비군—(一)、대적을 약하게 하며 자기의 후비군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프로테타리아트가 리용할 수 있는 자국내의 비(非)프로테타리아 계급들간의 모순 및 층들、(二)、프로테타리아트가 진공함에 있어서나 또는 부득이 퇴각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기동을 함에 있어서 리용할 수 있는 프로테타리아 국가에 적대적인 부르조아 제국가간의 모순、분쟁 및 전쟁(레하면 제국주의전쟁) 등이다。

첫째 종류의 후비군들에 대하여서는 누구에게나 다 그의 의의가 명백한 것임으로 상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그의 의의가 언제든지 다 명료한 것이 아닌 둘째 종류의 후비군에 대하여서 말한다면 그것이 혁명의 행정에 있어서 흔히 제일의적(第一義的)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필시 말하여야 할 것이다。예를들면 첫째 혁명시와 그 혁명후에 소부르조아적 민주주의자들(예제르)과 자유주의적 군주주의적 부르조아지(립헌민주당)의 사이에 있는 층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부르조아지의 영향으로부터 농민을 해방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는바 그 층들의 거대한 의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十月혁명기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간의 전쟁에 몰두되어 나어릴 조베트주권을 반대하여 힘을 집중할 가능성을 가지

자못하였으며 설로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라리아트는 전력을 다하여 자기의 세력을 조직하며 자기의 주권을 공고히 하며 팔차크와 테니건의 전멸을 준비할수있었던 그대에 제국주의자의 기본 그루빠들간에 결사적 전쟁이 진행된 그 사실의 거대한 의의를 부인할근거는 더욱 적은것이다. 여러 제국주의의 그 그루빠사이의 모순들이 더욱 심각화되고 그들간의 새전쟁이 불가피적으로 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종류의 후비군은 프로테라리아트에 게 있어서 더욱더 중대한 의의를 가지리라고 생각해야할것이다.

전략적 지도의 임무는 혁명의 발전의 조여 단계에 있어서 혁명의 기본적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이 모든 후비군을 옮겨 리용하는데있다.

후비군들을 옮겨 리용한다는것은 어떠한것인가?

그것은 몇가지의 필요한 조건들을 수행하는데 있는바 그중에 다음과 같은것을 가장 첫째로, 혁명이 벌써 성숙되었고, 진공이 전속력으로 진행되며 폭동이 박두하였고, 그

리하여 후비군을 전위대에 고으려부치는것이 성공의 결정적 조건으로된 결정적 모멘트에 있어서 적의 가장 약한곳에 혁명의 주력을 집중하는것이다. 一九一七년 四월로부터 十월까지의 당의 전략은 후비군의 이와같은 리용을 표시하는 실례로 간주할수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 적의 가장 약점은 전쟁이었던것은 의심할것없다. 당은 기본적 문제인 실로이 문제에 프로테라리아트 전위의 주위에 극히 광범한 인민대중을 집결하였던것은 의심할것없는것이다. 그 시기에 있어서 당의 전략은 전위로 하여금 지위행렬과 지위운동에 의한가두진출로써 혼란하면서 그와함께 후방에 있는 쏘베트와 전선에 있는 백사위원회를 절

처서 후비군들을 전위대에 고스려부치는 데에 귀착되었다. 혁명의 결말은 후비군 리용이 정
확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매닌은 폭동에 대한 말스와 앵겔스의 유명한 명제를 설명하면서 혁명적 력량의 전
략적 리용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一、현재는 저 폭동을 작란감가지고 놀듯이 하여서는 안된다. 일단 폭동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것을 돈독히 알아야 한다.

二、결정적 모멘트에 있어서 결정적 장소에 초월한 큰 역량을 반드시 집결시켜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우수한 준비와 조직을 가진 적은 폭동군을 전멸시킬 것인 까닭이다.

三、폭동이 시작된 이상에는 가장 위대한 결단성으로써 행동하여야 할 것이요 더 말할 것이 없이 반드시 공격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방어진은 무장폭동의 죽음(死滅)이나」.

四、아직 적의 군대가 흩어져있는데 기회를 라서 적을 본의에 승격함에 힘써야 할 것이다.

五、어떻게 하든지 「정신상 우세(優勢)」를 유지하면서 비록 작으나한 승리일지라도 매일 (만일 한 도시에 대해서 말한다면 매시간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제二一권 三一九—三二〇 페이지를 참조하라).

둘째로, 위기가 정점에 달하고, 끝까지 싸우려는 전위의 각오, 전위를 지지하려는 후비
대의 각오와 적의 대열내에서 극도의 낭패(狼狽)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타산한
결정적 타격의 모멘트, 폭동개시의 모멘트의 선택이다.

매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一、우리의 적대계급들의 전체 역량이 충분히 혼란되었고 그들이 서로 충분히 싸웠고 그 힘에 넘치는 투쟁
으로 인하여 충분히 무력하게 되었다면」, 만일 「二、동요, 부동(浮動), 불확고한 중간분자들 즉 소부르조아지, 소부

트조아적 민주주의자가 부트조아지와는 달리, 그의 정책들 인민의 앞에서 충분히 폭로하였고 그의 실제적 과감으로써 충분히 수치를 당하였다면」, 만일 「三、프로테라리아트내에 부트조아지들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이며 극히 용감한 혁명적 행동을 지지하려는 대중적 기운이 일어났고 또 힘있게 제고되었다면」 결정적 전후는 완전히 상수된것으로 간주할수있다. 「이러한때에타아 혁명은 상수된것이오 이러한때에타아 우리의 승리는, 만일 우리가 후에 지적한 모든 조건을 옮겨 타산하였고 또한 모멘트를 옮겨 선택하였다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있는것이다」(제二五권 二二九페이지를 참고하라)。

十月 폭동의 수행은 이러한 전략의 모범으로 간주할수 있는것이다。

이 조건을 위반하는것은, 당이 운동의 진행으로부터 뒤떨어지든지 또는 앞으로 너무나 감으로써 실패의 위험을 이루어놓으면서 소위 「템포의 상실」이라 칭하는 위험한 파오에 이르러하는것이다. 쏘베트안에는 아직 동요가 보였고 전선은 아직 가로(岐路)에 처했고 후비군들은 아직 전위에 인접(引接)되지 않았던 一九一七년 九월에 민주주의 혁의회에 참석했던 대표들의 체포를 발단(發端)으로하여 폭동을 시작하려고한 일부 동지들의 기도는 이와같은 「템포 상실」의 실례로, 폭동의 모멘트를 어떻게 선택하여서는 안되는가하는 데로 보아야 할것이다。

셋째로, 목적에로 나아가는 길에 놓여있는 모든 또한 온갖 난관과 분규(紛糾)를 극복하고 이미 채택한 방침을 꾸준히 실행하는것이니 이것은 전위가 투쟁의 기본적 목적을 잃어버리지않기 위해, 그리고 대중이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한 전위의 주위에 결속되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미로(迷路)에 빠지지않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이 조건을 위반하는것은 선원(船員)들이 알아는 「방향 상실(喪失)」이라고 칭하는 큰 오

유애 이르재하는것이다. 예비국회에 참가한다는 결의를 민주주의 협의회 직후에 채택한 우리당의 그릇된 행동은 이러한 「방향 상실」의 실례로 보아야 할것이다. 예비국회는 우리 나라를 쏘베트의 길로부터 부르조아 국회제도의 길로 넘어가게하려는 부르조아지의 기도가 오당이 그러한 기관에 참가하는것은 전국면울 혼란(混亂)시킬수있으며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게로!」라는 포어하에서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고있는 노동자 농민들을 미로에 빠져게할수 있다는것을 당은 이 모멘트에 있어서 이를때면 잊어버린셈이다. 이 파오는 예비국회로부러의 불췌비크들의 탈퇴로써 정정(訂正)되었다.

넷째로, 적이 강한때, 퇴각이 불피한때, 적의 조건(挑戰)에 응하는것이 불리한때, 그리고 당해(當該)세력관계하에서는 퇴각이 전위를 적의 타격으로부터 구출(救出)하고 후비군들을 그의 뒤에 보전함에 대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때에 울바론 퇴각을 타산한 후비군으로써의 기동을 진행하는것이다.

때론은 이렇게 말하였다.

「혁명당들은 더 진이 배우지않으면 아니된다. 그 당들은 진공하는것을 배웠다. 지금까지는 이 과학을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되작할가하는 과학으로써 반드시 보충하여야 할것을 리해하여야 하겠다. 쉽게 진공하며 쉽게 퇴각하는것을 배우지않고서는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혁명계급은 그의 쓸아빈 체현에서 그것을 리해하는것을 배우고있다」(제二五권 一七七페이지를 참조하라)。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시간의 여유를 얻으며 적의 대렬을 와해시키며 그다음에는 전공으로 넘어가기위해 힘을 축적함에 있다.

브래쓰트 강화조약 체결은 이러한 전략의 모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강화의 체결은 당으로 하여금 시간의 여유를 얻으며 제국주의의 전염에 있는 충들을 리용하며 적의 세력을 해이케 하며 농민을 당의 영향하에 보전하며 그리고 골차크와 테니킨에 대한 진공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축적할 가능성을 주었다.

그때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단독강화를 체결함으로써 현모멘트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제국주의적 두 적대 그루파로 분리 탈리(脫離) 되었고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의 행정을 어렵게 하는 그들사이의 적대관계와 전쟁을 리용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발휘할 일정한 시간을 얻어가지고 사회주의적 혁명을 계속하며 튼튼케 하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리용한다」(제二二권 一九八페이지를 참조하라)。

레닌은 브래쓰트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三년을 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에 있어서는 아주 심한 천치(天癘)까지도 「브래쓰트 강화」는 우리를 힘있게 하고 국제적 제국주의의 세력을 분산시킨 양보이었다는 것을」 본다(제二七권 七페이지를 참조하라)。

이러한 것이 전략적 지도의 정확성을 보장하여 주는 주되는 조건들이다.

(五)、전술적 지도. 전술적 지도는 전략적 지도의 한 부분으로서 전략적 지도의 임무와 요구에 종속되는 것이다. 전술적 지도의 임무는 소여의 세력 판계에 있어서 전략적 성공을 준비함에 필요한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테타리아트의 투쟁과 조직의 모든 형태를 숙달하며 또 그 투쟁과 조직의 모든 형태의 옳은 리용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다.

프로테타리아트의 투쟁 및 재조직 형태의 옳은 리용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몇가지 필요한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니 그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되는 조건들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운동의 소여의 만조 또는 퇴조의 조건들에 가장 적응되면서 대중을 혁명적 전진지로 접근시키며 수백만 대중을 혁명전선으로 접근시키며 그들의 혁명전선에서의 배치를 쉽게 하여 주며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투쟁 및 조직의 제형태를 선두에 내세우는 것이다.

문제는 전위가 구(舊)제도 보존의 불가능성과 구제도의 전복의 불가피성을 의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중이, 수백만 대중이 이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전위를 지지할 결심을 표시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은 다만 자체의 경험으로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수백만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옛 주권의 전복의 불가피성을 깨달을 가능성을 주며 대중이 그들의 체험(體驗)에 의하여 혁명적 포어의 정당성을 쉽게 깨달아 발명한 그러한 투쟁방법과 조직형태를 내세우는 여기에 임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당이 제때에 국회에 참가하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만일 당이 국회안에서의 활동에 힘을 집중하며 그 활동의 토대 위에서 국회가 무가치한 것과, 립헌민주당의 약속이 거짓인 것과 짜리짜리의 타협은 불가능한 것과 농민과 노동계급과의 동맹은 필연적이라면 것을 대중이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쉽게 깨달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전위는 노동계급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이고 노동계급은 대중과의 연결을 잃었을 것이다. 국회시기에 있어서의 대중의 체험이 없이는 립헌민주당의 폭로와 프로테타리아트의 해게모니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소환주의 전술의 위험성은 그 전술이 전위를 그의 수백만 후비군으로부터 분리시킬 위험이 있는 거기에 있었다.

멘셰비크들과 에세르들이 전쟁과 제국주의 지지자로서 자기정체(正體)를 미처 폭로하지 못하였고 평화, 토지, 자유에 대한 멘셰비크와 에세르들의 연사의 기만성을 대중이 아직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때인 一九一七년 四월에 폭동을 일으키라고 호소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뒤를 프로레타리아트가 따라갔더라면 당은 노동계급으로부터 떨어져졌을 것이요 노동계급은 광범한 농민 및 군인대중속에서 영향을 잃어버리었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집권 시기에 있어서의 대중의 경험은 없이는 멘셰비크와 에세르들은 고립되지 않았을 것이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부르조아 정당들의 오류를 「인내성(忍耐性) 있게 해설」하는 전술과 쇼베트안에서 공공연한 투쟁을 진행하는 전술은 유일하게 옳은 전술이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의 위험성은 그가 당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지도자로 부러 공허(空虛)한, 그리고 지반이 없는 조그마한 음모자의 무리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는 그점에 있었다.

헤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위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전계급이, 아직 광범한 대중이 혹은 지지하는 필장(立場)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전위에 대하여 호의적 중립의 필장...을 취하지 못한 때에 다만 전위하나만을 결정적 전투에 내세우는 것은 미련한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犯罪) 일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전계급이, 근로하며 자문의 압박을 받는 참으로 광범한 대중이 이러한 필장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한갖

선전, 한갓 선동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그 대중 자신의 정치적 경험에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로씨야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지금에 불발만한 힘으로 뚜렷하게 확증된 모든 대혁명적 기본적 법칙이다. 결정적으로 공산주의에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오로지 미개하고 왕왕 문맹한 로씨야 대중에게뿐만 아니라 문화정도가 높고 저마다 유식한 독일 대중에게도 제 2인타내쇼날 기사들의 정부의 모든 무능력, 모든 무정경성, 모든 무능, 부르주아지에 대한 그 모든 충성, 모든 비릴(卑劣)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유일한 대립물로서의 극단의 반동자들(로씨야에서는 코트넨로브, 독일에서는 캅 및 그의 일파)의 독재의 불가피성을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제 25권 228페이지를 참조하라)。

둘째로, 소여 각 모멘트에 있어서 파정의 전연쇄(全連鎖)중에서 그 고리를 잡아 가지고 전 연쇄를 끄으려잡을 수 있으며, 전략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고리를 얻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당앞에 서고있는 여러가지 임무중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심점이 되고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 남아지 당면 임무의 성공적 해결을 보장하는 실로 그런 당면 임무를 선택하여 내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명제의 의의는 그것을 두가지 실례로써 설명할 수 있는바 그중에서 하나는 오랜 과거(당의 형성 시기)에서, 다른 하나는 최근의 시기(신경제정책 시기)에서 취할 수 있다。 무수한 크루소크와 단체들은 아직 서로 연락이 없었고 수공업적 방법과 협소한 크루소크주의가 종횡(縱橫)으로 당을 침식(侵蝕)하였고 사상적 혼란이 당의 내부생활의 특정으로 되어있던 당의 형성기에 있어서는 전로씨야적 비합법적 신문(『이스크라』)의 창간이 그 당시에 당의 앞에 서고있는 여러가지 임무중의 기본되는 임무였으며 현세들중의 기본되는 고리였다. 무슨 까닭이었든가? 그것은 그당시 정세에 있어서는 다만 전로씨야비

합법적 신문을 통해서만 무수한 크루소크와 단체들을 한 덩어리로 결합시키고, 사상적, 전술적 통일을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고 그리함으로써 진정한 당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정어놓을 수 있는 현실한 당의 핵심을 조성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공업은 파괴되어 버미(衰微)상태에 있었고 농업은 도시 제품(製品)의 부족으로 곤난당하던 때, 국영(國營) 공업과 농업과의 결합이 성공적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 조건으로 전화되던 때인 전쟁으로부터 경제적 건설에로의 파도기에 있어서는, 즉 이 시기에 있어서는 상업의 발전이 과정의련쇄중의 기본적 고리였고 여러가지 많은 임무중에 기본적인 임무였다. 무슨 까닭이었는가? 그것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는 상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업을 농업과 연결시킬 수 없었던 까닭이오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 있어서 판로(販路)가 없는 생산은 공업의 사멸인 까닭이오 상업의 발전에 의한 판로(販路)의 확장을 통해서만이 공업을 확장할 수 있는 까닭이오 다만 상업의 영역에 있어서 튼튼하고라야만, 상업을 소유하고라야만, 그 고리를 잡아가지고라야만 공업을 농업시장과 결합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오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건설하기 위한 제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가지의 당면 임무를 성과있게 해결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때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혁명가가 되며 사회주의의 찬동자가 되며 혹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전 세계를 잡아쥐고 다음 고리에로의 이행(移行)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잡아야 할 현재의 특수한 고리를 각 모델트에 있어서 찾아낼 것을 알아야 한다」

「현 모델트에 있어서는: 정확한 국가의 조절(調節) (지도) 하에서 국내 상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이러한 고리로 되는 것이다. 상업—이것이야말로 제사전의 역사적 현상중에서, 一九二一—一九二二년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주의적 건설의 과도적 형태중의 「전력을 다하여 잡아쥐어야 할」 바루 그 「고리」인 것이다. (제二七권 八二페이지를 참조하라).

이러한 것이 전술적 지도의 정확성을 보장하여 주는 주되는 조건들이다.

(六)、개량주의와 혁명주의. 혁명적 전술과 개량주의적 전술은 무엇으로써 구별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 개량을 반대하며 타협과 협조를 반대한다고 한다. 이것은 도무지 옳지 않다. 볼셰비크들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온갖 진정(進呈)은 리득(利得)이라」는 것과 어떠한 정세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량, 특수적으로 타협 및 협조는 필요한 것이며 유의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못하지 않게 알고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와 국가사이의 보통 전쟁중의 가장 격렬한 전쟁보다 백배나 더 곤란하고 창구하고 복잡한 전쟁인 국제부르조아지 전복을 위한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임기응변적 기동과 적들간의 리해상 모순(비록 일시적이지라도)의 리용과 가능한 동맹자들(비록 일시적인 불확고한, 불안정한 조건부 동맹자일지라도)과의 협조 및 타협을 미리부터 거부하는 것——이것이야말로 한없이 가소로운 일이 아닐가? 이것은 마치 일찍 윤라가 보지 못한, 어떠한 협산(險山)으로 방금 윤라가는데 있어서 혹은 이리 저리 돌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또 이미 선택한 방향을 버리고 여러가지 방향을 취하여 보기를 미리부터 거부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 아닐가?」 (제二五권 二一〇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제는 아마 개량이나 혹은 타협 및 협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량과 협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개량주의자에게는 개량이 전부이고 혁명사업은 다만 화제(話題)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기 위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부르조아주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개량주의적 전술하에서의 개량은 불가피적으로 그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존중하는 무기, 혁명을 와해시키기 위한 무기로 변하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혁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혁명적 활동이며 개량은 아니다. 혁명자에게는 개량이 혁명의 부산물(副産物)이다. 그러므로 부르조아지의 주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혁명적 전술하에서의 개량은 자연히 그 부르조아주권을 와해(瓦解)시키는 무기, 혁명을 존중하는 무기, 혁명운동을 앞으로 데 발전시키는 지점(支點)으로 변하는 것이다. 혁명자는 개량을 합법적 활동을 비합법적 활동과 결합시키기 위한 연계물(連繼物)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르조아지의 전복으로 대중을 혁명적으로 준비시킬 목적으로 비합법적 활동을 강화시키는 엄폐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허하는 것이다.

이에 제국주의의 조건하에 있어서의 개량 및 타협의 혁명적 이용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개량주의자들은 온갖 비합법적 활동을 거부하며 대중을 혁명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파괴하며 「하사(下賜)」된 개량의 비호 밑에서 안식(安息)하기 위하여 개량을 용허하는 것이다.

이에 개량주의적 전술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조건하에 있어서 개량과 및 협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를 전복한 후,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하에 있어서는 사정은 얼마쯤 달라진다. 일정한 조건, 일정한 정세하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 주권은 현존제도를 혁명

적으로 개조하는 길로 부터 그의 점차적 개혁의 길로, 즉 레닌이 『금(金)의 의의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말한바와 같이 『개량주의적 길로』, 우회(迂迴) 운동의 길로, 비(非) 프로테타리아 계급들을 분해시키고 혁명에 충돌될 시간을 주며 혁명을 촉진하며 새로운 전공을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량파 비프로테타리아 계급들에게 양보하는 길로 임시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다. 이 길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개량주의적」 길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명심하여 둘것은 우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 한가지의 근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 특징은 개량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테타리아 주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오 그것이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오 그 주권에 필요한 충돌될 시간을 주는 것이오 그것은 혁명을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비(非) 프로테타리아 계급들을 분해시키려는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되어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개량은 그 대립물로 전화되는 것이다.

프로테타리아 주권측으로부터의 이러한 정책의 수행은 지나간 시기에 혁명의 전개력(展開力)이 극히 위대하였고 그리하여 진공 전술을 임시적 퇴각 전술로, 우회 운동의 전술로 바꾸어 어디로 퇴각할 수 있을만한 충분히 광활한 지대를 주었으므로, 오직 그러하였으므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같이 되어 만일 이전에 부르주아주권하에 있어서는 개량이 혁명의 부산물이었다면 지금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하에 있어서는 프로테타리아트의 혁명적 전취와, 그 전취로서 형성된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에 있는 축적력이 개량의 원천으로 되는 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계량의 혁명에 대한」 판계는 다만 맑스주의에 의하여서만 정확하게 규정되었다. 그런데 맑스는 이 판계를 다만 一面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한나라에서라도 얼마를 든든하고 얼마를 장구한 로베라리아트의 첫 승리가 있기전의 환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는 계량은 프로테라리아트의 혁명적 계급투쟁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그 정당한 판계의 기초였다. 비록 한나라에서라도 프로테라리아트가 승리한 후에 있어서는 혁명에 대한 계량의 판계에는 어떠한 새 것이 나타나나. 원칙적으로는 문제는 중매대로 있으나 형태로 보아서는 판정되는 것인바 그 변경은 맑스 자신이 예견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다만 맑스주의의 철학과 정책의 로베라리아트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승리의 후에 있어서는 그것(즉 계량)이 프로테라리아트의 법적 범위에 있어서는 그대로 「부산물」로 되어 있으나(은 그 외에도 그 승리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나라가 힘을 최대한도로 긴장시킨 뒤에 이터져버린 이행에 대한 혁명적 수행에 힘의 부족이 미리 보이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또한 당연한 승을림이 되는 것이다. 승리는 부득이한 퇴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견디어나아갈만한——물리적 의미로나 정신적 의미로나 다 견디어나아갈만한——「힘의 축적」을 주는 것이다」(계 27권 八四—八五페이지를 보라)。

八、당

제 2인터내쇼날에 속한 당들이 노동운동에 있어서 지배적 세력으로 되었고 국회적 투쟁형태가 투쟁의 기본적 형태로 인정되었던 혁명전 시기, 다소간 평화로운 발전시기였던 그러한 정세하에서 당은 그가 그 후에 공개적 혁명적 접전의 조건하에서 가지게 된 그러한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고 또한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카우즈키는 제 2인터내쇼날에 대한 공격을 반박하면서 제 2인터내쇼날에 속한 당들은 평화의 도구인 것이 오 전쟁의 도구가 아니며 실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들은 전쟁시기, 프로테라리아트의 혁명

적 진출시기에 있어서 아무런 중대한 대책도 취할 힘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옳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제2인내소날에 속한 당들은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적 투쟁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과, 그 당들은 노동자들을 주권자로 인도하는 전투적 프로레타리아 당들이 아니라 국회선거와 국회투쟁에 적응된 선거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2인내소날의 기회주의자들이 지배하고있던 시기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기본적 정치적 조직은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의원단이었던 사실도 실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그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당은 국회의원의원단의 부속물이었고 그에 봉사하는 한 요소이었던 것은 일반이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 또 이러한 당을 선두로하여 가지고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에로의 준비는 문제도 될수없었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가한다.

그런데 새시기가 다처음과 함께 사례는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새시기란 계급들간의 공공연한 충돌의 시기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출시기이며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시기이며 제국주의 전복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획득을 목표로하여 력량을 직접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는 모든 당사업을 혁명적 새기조(基調)에로 개조하며 주권획득을 위한 혁명적 투쟁 정신으로 노동자들을 교양하며 후비군들을 준비하며 또 그들을 접근시키며 민족국 프로레타리아들과 동맹하며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해방운동과 른른한 연락을 취하는등등에 대한 여러가지 새임무를 프로레타리아트 앞에 제기했다. 이러한 새 임무가 국회의의 평화적 환경하에서 교양된 낡은 사회민주당들의 힘으로써 해결될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하는것은 가련한 절망과 불가피적 실패에 스스로 빠지는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임무를 양어에게 결머지고서 남은 당들의 지도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테라리아트가 이러한 상태를 용인(容認)할 수 없었던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이로부러는 프로테라리아트를 주권회복 투쟁으로 인도할만큼 충분히 용감하고 혁명적 정세의 복잡한 조건을 관철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졌고 목적도상(途上)에 놓여 있는 모든 암초(暗礁)를 피하여 나갈만큼 충분한 신축성(伸縮性)을 가진 새 당, 전투적 당, 혁명적 당의 필요가 생기었다.

이러한 당이 없이는 제국주의의 전복과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 전취에 대해서는 생 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이 새 당이란 해인주의의 당이다.

이 새 당의 여러가지 특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一)、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당.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가 되어야 한다. 당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모든 우수(優秀)한 분자들과 그들의 경험, 그들의 혁명성, 프로테라리아트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헌신성을 자체에 흡수(吸收)하여야 한다. 그러한 당이 진정한 전위부대가 되려면 그는 반드시 혁명적 이론, 운동의 법칙에 대한 지식, 혁명의 법칙에 대한 지식으로써 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당은 프로테라리아트의 투쟁을 지도하여 내지 못하며 프로테라리아트를 인솔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당이 만일 로동계급의 대중이 체험하고 또 사고하는 것을 기록하는데만 국한된다면, 당이 만일 자연 생장적 운동의 공문이에 따라 간다면, 당이 만일 자연생장적 운동의 운동의 정체성(停滯性)과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줄 모른다면, 당이 만일 프로레타리아트의 일시적 리익을 초월할 줄 모른다면, 당이 만일 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익을 깨닫는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줄 모른다면 그는 진정한 당이 될수 없는 것이다. 당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선두에서야 하는 것이며 그는 반드시 로동계급보다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는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를 인솔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요 자연생장성의 공문이에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추마주의」를 절교하는 제2인더내쇼날에 속한 당들은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부르주아자의 수준에 있는 도구의 역할을 놀 운명에 빠지게 하는 부르주아 정책의 전달자들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부대의 전지에 섰고 또 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익을 깨닫는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능력을 가진 당이라야만 오직 그러한 당이라야만 로동계급을 트레두 유니온 주의의 길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자립적 정치적 역량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것이다.

당이란 로동계급의 정치적 수형이다.

나는 위에서 로동계급의 투쟁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난관, 투쟁정세의 복잡성, 전략 및 전술, 후비군들 및 가동(機動), 진공 및 퇴각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여러가지 조건은 전쟁의 여러 조건보다 더 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만 못하지 않게 복잡한 것이다. 누가 이 여러가지 조건을 판별할수 있으며 누가 프로레타리아트의 수백만대중에게 옳은 방향을 자시하여줄수 있는가? 어떤 군대든지 만일 그가 실패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형있는 참모부가 없이는 전쟁을 해나갈수 없는 것이다. 만일 프로레타리아트가 자체를 포악한 적에게 잡아먹으라고 내어맡기기를 원치 않는다면 더욱히 그러한 참모부가 없이는 해나갈수

없는것은 명로하지않은가? 그러면 그 참모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참모부는 다만 프로테라리아트의 혁명적 당만이 될수있는것이다. 혁명적 당이 없는 로동계급——이것은 참모부가 없는 군대이다.

당이란 프로테라리아트의 전투적 참모부다.

그런데 당은 다만 전위부대로만이 될수없는것이다. 당은 그와 동시에 그 존재의 모든 근저에 있어서 계급과 밀접하게 연결된 계급의 한부대, 계급의 한부분이 되어야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와 그의 대중과의 사이의, 당원들과 비당원들간의 차이는 아적 계급들이 소멸되지않는 동안까지는, 프로테라리아트가 다른 계급들의 출신으로써 보충되는 동안까지는, 로동계급의 전체가 전위부대의 수준에까지 향상되지못한 동안까지는 없어질수없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차이가 양자의 분리로 되어버리었고 만일 당이 자체에 유폐(幽閉)되어 비당원 대중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그 당은 당노릇을 하지 못할것이다. 만일 당이 비당원대중과 연락되지않았고 당과 비당원대중간의 연결이 없고 그리고 대중이 당의 지도를 용인치않고 당이 대중속에서 정신적 및 정치적 선용을 얻지못한다면 당은 계급을 지도할수 없는것이다.

얼마전에 로동자가운데서 수십만명의 새당원을 우리당에 입당시키었다. 이 사실에있어서 장래한것은 그 사람들은 자의로서 입당하였다기보다도 오히려 이여의 비당원대중들로써 당에 과송된것이니 그 비당원대중은 새 당원들을 당에 받는데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찬성이 없이는 새 당원들을 입당시키지 않았다. 이 사실은 광범한 비당원 로동대중이 우리당을 자기의 당으로, 자기에게 가깝고 근친(近親)같은 당으로 간주한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이오 그들은 우라당의 확대강화에 절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진하여 자기의 운명을 당의 지도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을 비당원 대중과 연결시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 농축이 없다면 당은 자기 계급의 결정적 역량으로 될 수 없음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당이란 분리시킬 수 없는 로동계급의 한 부분인 것이다.

태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그러므로 거의 전계급(그런데 전쟁시기, 국내전쟁시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계급)이 우리당의 지도하에서 행동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밀접하게 우리당에 접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거의 전계급이 혹은 전계급이 자기의 전위부대 즉 자기의 사회민주주의당이 가지고 있는 의식성과 적극성의 수준에까지 향상할 때가 있으리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닐로보주의이며 『주미주의』 일 것이다. 현명한 사회민주주의자는 한 사람도 자본주의 하에서는 심지어 직업동맹조직(발달되지 못한 층들의 의식에)과 리해되기 쉬운 조직, 더 초보적인 조직(까지도) 로동계급의 거의 전부나 혹은 전부를 망라할 수 없다는 데 대하여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전위부대와 그를 따라가는 전대중간의 차이를 망각하며 점점 광범해가는 층들을 전위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전위대의 일상적 의무를 잊어버리는 것은 다만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우리의 임무가 거대한을 보지 않는 것이며 또 그 임무들을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제 6권 二〇五—二〇六 페이지를 참조하라)。

(二)、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당.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뿐만 아니다. 만일 당이 계급의 투쟁을 참으로 지도하려고 한다면 당은 동시에 자기 계급의 조직된 부대가 되어야만 한다. 자본주의의 제 조건하에서 당의 모든 임무는 대단히 위대하고 또 다양하다. 당은 반드시 국내적 및 국외적 발전의 대단히 곤란한 조건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지도하여

야할 것이니 그는 반드시 정세가 진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프로레타리아트를 진공으로 인도해야 하고 정세가 퇴각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를 강한 적의 타격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것이요 또 당은 반드시 조직되지 않은 수백만의 비당원 노동대중속에 투쟁에 있어서의 규율과 계회성의 정신, 조직성과 전인성(堅忍性)의 정신을 주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은 그 자체가 규율과 조직성의 체현(體現)이 되는 경우에라야만, 당 자체가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된 부대로 되는 경우에라야만 이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여러가지 조건이 없이는 당의 수백만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진정한 지도에 대하여는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당이란 노동계급의 조직된 부대다.

조직된 전일체로서의 당에 대한 자상은 우리당규약 제一조의 유명한 데인의 정의(定義)에 의하여 고정화(固定化)되었으니 거기에는, 당은 조직의 총합체로 간주되었고 당원은 당의 한 조직의 성원(成員)으로 간주되었다. 이미 一九〇三年에 이 정의물 반대한 멘셰비크들은 이 정의대신에 자칭당원「제」 즉 어떠한 당조직에도 가입되지 않고 또한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자일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당을 지지하는 각 「대학교수」와 「중학생」, 각 「동정자」와 「파업자」에게도 당원이란 「명칭」을 주려는 「제도」를 제의하였다. 만일 이 기이한 「제도」가 우리당내에 고착되었더라면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당을 교수들과 중학생들으로써 범람케 하고 당은 「동정자들」의 대해(大海)속에 용해되어 버리며 당과 계급간의 한계(限界)는 말살되고 비조직적 대중을 전위대의 수준에까지 향상시킬 당의 임무를 위접어버리는 그러한 산만하고 불정형적(不定形的)이오 혼란된 「조직」에 로 당을 퇴화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을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주

의적 「제도」하에 있어서는 우리당이 우리혁명의 도정에 있어서 로동계급을 조직하는 핵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을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르토프동지의 견해에 의하면 당의 한계는 모두저 불확정한것으로 남아있게된다. 왜 그러냐하면 「각파 당사자」마다 「자기들 당원이라고 선언」할수 있는 까닭이다. 이 산만성에서는 어떠한 리익이 생기는가? 「명칭」은 널리 퍼지게하는것뿐이다. 그의 해독은 계급과 당과의 혼동이란 문란한 사상을 끄으려하는것이다」(제六卷 二一「페지론 참조하라」).

그러나 당은 당조직들의 총합체만이 아니다. 당은 그와 동시에 이러한 상하(上下)의 지도기관들과,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모든 당원에게 의무적인 실천적 결정을 가지고 있는 고조직들의 통일적 체계이며 통일적 전일체(全一體)에로의 정식결합이다. 이 조직들이 없이는 당은 로동계급의 투쟁에 대한 계획적, 조직적 지도를 실현할수있는 통일적 조직적 전일체가 될수없는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전에는, 우리당은 정식으로 조직된 전일체가 아니고 다만 개개 그루파들의 총합체에 지나지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루파들사이에는 사상적 영향 이외에는 다른 관계는 있을수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조직된 당이 되었으니 이것은 권력의 수렴, 사상의 권위가 권력의 권위로의 전화, 당의 하부기관들이 상부기관에 복종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제六卷 二九「페지론 참조하라」).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는 원칙과 중앙부가 당사업을 지도하는 원칙은 전설치못한분자들측으로부터 「판로주의」, 「형식주의」 등등의 비난과 공격을 흔히 초치(招致)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의 실현이 없이는 전일체로서의 당의 계획적 활동과 로동계급의 투쟁에 대한 지도가 불가능하였을것은 더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한다. 조직문제에 있어서의 레닌주의는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행하는것이다. 이 원칙을 반대하는 투쟁을 레닌은 조소하고 내던져야 할 「로찌야 허무주의」 또는 「귀족적 무정부주의」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므로 레닌은 「일보전진」이라는 그의 저서에 이러한 전설치 못한 분자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귀족적 무정부주의는 로찌야 허무주의자의 고유한 특성이다. 당 조직은 그에게는 피상한 「공상」같이 보이며, 부분이 전체에 복종하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것은 그들에게는 「노예제」와 같이 생각되며; 중앙기관의 지도하에서 하는 분업(分業)은 그로하여금 사람을 「차륜(車輪)과 나사못으로」 변환시킨다는 최비극적(最悲劇的) 비관(悲嘆)을 하게하며; 당의 조직적 규약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그들로부터 경멸적으로 상을 쟁그리게하며 그까지 규약이 없어도 넉넉히 해나갈수있다는 경멸적; 비방을 환기한다」.

「악명 높은 판로주의 운운의 자자한 비난은 단순히 중앙부의 성원에 대한 불만의 은폐이며 또 의식적(外飾的) 비호(庇護)인것이 분명하다; 너는 판로주의자이다. 왜 그러냐하면 너는 나의 동지가 없이, 아니 나의 의사에 반(反)하여 대회에서 임명된 까닭이다. 너는 형식주의자이다. 왜 그러냐하면 너는 대회의 형식적 결의에 의거하고 나의 동의에는 의거하지않는 까닭이다. 너는 심히 기계적으로 행동한다. 왜 그러냐하면 당 대회의 「기계적」 다수에 의의(依順)하고 호선(互選)되려는 나의 희망(希望)은 도라보지않는 까닭이다. 너는 전제주의자이다. 왜 그러냐하면 너는 좌목하게 지내던 이전의 동배 *에게 권력을 내어 맡기기를 원치않는 까닭이다라고」(제六권 三一〇 및 二八七페이지를 보라)。

* 제二차 대회의 모든 결의에 복종치않았고 그리고 레닌을 「판로주의」로서 비난한 악셀리로트, 마르토프, 보트레코프 및 기타의 「동배」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 이 * 쓰랄린。

(三)、프.로.레.타.리.아.트. 계.급. 조.직.의. 최.고.형.태.로.서.의. 당. 당.은.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이다. 그러나 당은 로동계급의 유일한 단체는 아니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다른 단체들이 있다. 그것은 직업동맹, 협동조합, 공장제조소내 조직들, 국회대의원단, 부녀들의 비당적 연맹, 출판기관, 문화계몽 제단체, 청년동맹, 혁명적 군사조직(공공연한 혁명적 진출기에), 국가조직형태인(만일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았.다.면.) 대의원 소베트 등등인바 그것들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과.의. 성.과.적. 투.쟁.을. 수.행.할.수.없.는.것.이다. 이. 여러가지 조직의 대다수는 비당적 단체들이오 그리고 다만 그 가운데에서 몇부분만이 당에 직접으로 연결되든지 그의 지엽적(枝葉的) 조직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단체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로동계급에게 절대로 불가결한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다양한 투쟁분야(分野)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진.지.를. 공.고.히. 할.수.없.는. 까.닭.이.오, 그것이 없이는 부르조아제도를 사회주의제도로써 바꾸어놓을 사명을 가진 역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를. 단.련.해.낼.수.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다수조직의 존재하에서 어떻게 통일적 지도를 실현할수 있는가? 여러가지 단체의 존재가 지도의 혼란을 초래치않으리란 보장은 어디 있는가? 이 여러가지 단체는 각각 그의 독특한 분야에 있어서 활동하는것임으로 서로 방해할수 없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물론 옳다. 그런데 이 모든 단체는 그것이 한계급 즉 프.로.레.타.리.아.트.계.급.을. 위.한.것.임.으로. 그. 활동.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것.도. 옳.은.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단체들이 자체의 사업을 수행할바의 그로선, 그 공동방향을 누가 규정하는가? 필요한 경험을 가진까닭에 그 공동로선을 작성(作成)할수있을뿐만 아니라 또

한 이것을 위하여 충분한 권위를 가진가답에 지도에 있어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오(齟齬)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그 모든 조직들을 격려(激勵)하여 이 로선을 실행시킬 능력을 가진 그러한 중심적 조직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조직은 프로테라리아트의 당이다.

당은 그에 대한 모든 조직을 다가지고 있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로, 당은 프로테라리아트의 비당적 단체들과 직접 연락을 가지고있으며 또 아주 빈번히 그단체를 지도하고있는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집합체인 까닭이오 둘째로, 당은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집합체로서 자기계급의 모든 형태의 조직들을 지도할수있는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이 가장 훌륭한 학교로서 자체의 경험과 권위에 의하여 프로테라리아트의 투쟁에 대한 지도를 중앙집권화(中央執權化)할만하며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온갖 또는 모든 비당적 조직을 당과 계급과의 결합을 매겨주는 보조기관 및 인전대(引傳帶)로 전환시킬수있는 유일한 조직이 되는가답이다.

당은 프로테라리아트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형태다.

이것은 물론 비당적 조직들 즉 직업동맹, 협동조합등이 형식상으로 당의 지도에 복종하여야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다만 이 조직의 성원인 당원이 의심할것없이 영향력있는 사람들로서 그 비당단체들로 하여금 자체의 사업에 있어서 프로테라리아트 당과 접근하도록 또한 자발적으로 당의 정치적 지도를 용납하도록 모든 설득방책을 취하는데 있는것이다.

설로 그리하기 때문에 레닌은 당은 「프로테타리아트의 계급적 연결의 최고 형태」이고 그의 정치적 지도는 반드시 프로테타리아트의 다른 모든 조직형태에 미치어 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제二五권 一九四페이지를 참조하라).

바로 이 까닭에 무소속 국회의원(議員)들과 당에서 떠나져 있는 출판계 활동가들과 편협한 직업동맹간부들과 소시민화된 협동조합간부들을 배양하고 있는 리론인 비당적 조직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회주의적 리론은 레닌주의의 리론 및 실천과는 전혀 상충될 수 없는 것이다.

(四)、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무기로서의 당. 당은 프로테타리아트 조직의 최고 형태이다. 당은 프로테타리아트 계급내부의 또 그 계급 제조적의 기본적, 지도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을 목적 자체로, 자족적 역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은 프로테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의 최고 형태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아직 독재를 전취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독재전취를 위한, 그리고 이미 그것이 전취된 후에 있어서는 그 독재의 강화 확대를 위한 프로테타리아트의 주중에 있는 무기이다. 만일 프로테타리아트가 주권문제에 당면하지 않았다면, 만일 제국주의의 모든 조건, 전쟁의 불가피성, 위기의 현존이 부르주아지를 전복하고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전취하기 위하여 프로테타리아트의 모든 력량을 한 곳에 집중하며 혁명운동의 모든 실마리(緒)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당은 자체의 의의를 그처럼 높일 수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프로테타리아트의 모든 다른 형태의 조직들을 자기산하에 망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권을 성과적으로 전취하는 데 필요한 전투사령부로서

프로테라리아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자기의 주위에 프로테라리아트의 대중적 제조직을 규합하고 투쟁의 행정에 있어서 모든 운동에 대한 지도를 중앙집권화할만한 당이 없이는 로제야의 프로테라리아트가 자기의 혁명적 독재를 실현할수 없었을것은 더 증명할 필요도 없을가 한다.

그러나 당은 독재를 전취하기 위하여서만 프로테라리아트에게 요구되는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독재를 유지하며 독재를 강화, 확대시키기 위하여 더욱 그에게 요구되는것이다.

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당안에 가장 엄격한, 참으로 강철같은 규율이 없었다면, 노동계급의 전대중 즉 그 계급중의 모든 사 고있고 정적하고 자기 희생적이지오 영향력있고 그리고 타우층을 자기의 뒤에 고을고 나아가거나 유인할 능력을 가진자들의 가장 완전한 헌신적 지지가 없었다면 볼셰비크들이 二개년반(半)은 고사하고 二개월반도 주권을 유지하지 못하였으 리라는것을 지금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거의 다 알고있는것이다」(제二五권 一七三페이지를 참조하라)。

그런데 독재를 「유지」하며 「확대」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것은 프로테라리아트의 수백만대중에게 규율과 조직성의 정신을 주입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오 그것은 소부르조아적 분류(奔流)와 소부르조아적 판습의 색은(腐蝕) 영향을 반대하는 방패와 방벽(防壁)을 프로테라리아 대중속에 만들어 놓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오 그것은 소부르조아층들을 제코양하며 개조함에 대한 프로테라리아트의 조직자적 활동을 튼튼케함을 의미하는것이오 그것은 계급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준비할만한

력량으로써 자체를 교양하도록 프로레타리아 대중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취하려면 자체의 결속성과 규율으로써 강력한 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해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구 사회의 세력과 인습(因襲)을 반대하는 유형적 및 비(非)유형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 완전한 투쟁이다. 수백만 수천만 대중의 관습(慣習)의 힘은 가장 무서운 힘이다. 투쟁속에서 단련된 강철같은 당, 그 계급의 모든 성실한자들의 신임을 받는 당, 대중의 기분을 살피며 그 기분에 영향을 줄줄하는 당이 없이는 이러한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제25권 190 페이지를 보라)。

당은 독재를 전취하며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당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무기이다.

그런데 이어서는, 계급의 소멸과 함께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조락과 함께 당도 반드시 조락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五) 분파의 존재와 상용될수 없는 의지(意志)의 통일체로서의 당.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전취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결속성과 그 강철같은 규율로써 강력한 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당안에서의 강철같은 규율은 전 당원의 의지의 통일이 없이는, 전 당원의 행동의 완전한 절대적 통일이 없이는 상상할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서 이것은 물론 당안에 있어서 의견투쟁의 가능성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강철같은 규율은 당안에서의 비판과 의견상 투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욱히 규율은 반드시 「맹목적」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강철같은 규률은 복종의 의식성과 자원성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의식적 규률만이 진정한 강철같은 규률이 될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냐 의견상 투쟁이 끝나고 비판이 충분히 되고 결정이 채택된후에는 모든 당원들의 의지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이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없이는 통일적 당도, 당내에 있어서의 강철같은 규률도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해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에화된 국내전쟁의 현시기에 있어서는 동산당은 그가 가장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고 당내에서는 군사규률에 가까운 그러한 강철같은 규률이 지배하고 그리고 그 당의 중앙이 광범한 전권을 가진 것으로서 당원들의 일반적 신임을 받는 권력있고 권위있는 기관이 되는 경우에 타야만 자체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것이다」。(제二五권 二八二—二八三페이지를 참조하라)。

독재전취전의 투쟁조건하에서의 당내의 규률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독재전취후의 당내규률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되 더 높은 정도에서 말해야 할 것이다.

해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프로테타리아트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는 자(특히 그의 독재시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프로테타리아트를 반대하고 부르주아지를 도와주는 것이다」。(제二五권 一九〇페이지를 보라)。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프락치야(분파)의 존재는 당의 통일과도 그의 강철같은 규률과도 서로 용납될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프락치야(분파)들의 존재는 몇개의 중앙의

존재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몇개의 중앙의 존재는 당내에 공동중앙의 결여, 통일적 의지의 분열, 규율의 약화 및 붕괴, 독재의 약화와 붕괴물의 미한다는 것은 더 증명할 필요도 없음을 말한다. 물론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프로테타리아트를 주권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는 제2인터내쇼날에 속한 당들은 분파의 자유와 같은 그러한 자유주의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는 장철같은 규율이 도무지 소용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를 전취하며 강화하는 임무를 자체의 활동의 근본으로 하는 국제공산당에 속한 당들은 「자유주의」에도, 분파의 자유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당은 당내에 있어서의 온갖 분파성과 권력의 분립을 허락할 수 없는 의지의 통일체인 것이다.

이로부터 「당의 통일에 대하여」라는 우리당 제1차 대회의 특별 결정서에 기록된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성공의 기본적 조건이 되는 당의 통일 및 프로테타리아트 전위의 의지의 통일을 실현하는 전지에서 본 분파성의 위험성」에 대한 레닌의 해설이 생겨났 것이다.

이로부터 「두말없이 즉시 출당시킨다」는 위협하에서 「온갖 분파성의 완전한 박멸」과 「이런 혹은 저러한 정당을 가지고 형성된 그루빠들을 폐지없이 즉시 해산시킬 것」이라고 한 레닌의 요구가 생겨났 것이다 (「당의 통일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참조하라).

(六)、당은 기회주의적 분자들을 자체로부터 철결하여냄으로써 튼튼하여진다. 당내

에서의 분파를 생겨게 하는 원인은 곧 당내에 있는 기회주의적 분자들이다. 프로테타리아트는 폐색(閉塞)된 계급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프로테타리아화한 농민, 소시민, 인테리겐차층의 출신들이 간단없이 이 계급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그와 동

시에 식민지의 초파리요으로써 부르조아지가 사양하여 내는 주로 적업동맹간부, 국회의원으로 되는 프로레타리아트상층부의 와해작용이 이러나는 것이다. 레닌은 말하기를 「그 생활양식(樣式), 임금액 그 모든 체계판으로 보아 전혀 소시민적, 부르조아지화한 노동자, 혹은 「로동계족들」인 이들은 제2인터내셔널의 주되는 지주(支柱)이요 그리고 현하에 있어서 는 부르조아지의 주되는 사회적(군사적) 아니라」지주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은 로동운동에 있어서의 부르조아지의 진정한 대리인이요 자본가계급의 로동자 사환꾼들이요 개량주의와 배타주의의 진정한 전담자들인 까닭이다」(제一九권 七七페이지를 참조하라)라고 하였다.

이 모든 소부르조아적 그루빠는 동요와 및 기회주의의 정신과 부패 및 불신의 정신을 당내에로 고르려들여오면서 이렇게나 또한 저렇게 당안으로 가야들어오는 것이다. 그들이 곧 주로 분파성과 분열의 원천이며 당의 문란 및 내부로부터의 폭발의 원천인 것이다. 이러한 「동맹자들」을 배후에 가지고서 제국주의와 싸우는것은 랑면으로부터 즉 정면과 배후로부터 사격을 당하는 자들의 처지에 빠지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파들과의 용서없는 투쟁과 당으로부터의 그들의 축출은 제국주의와 성과있게 투쟁함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당내에서 사상적 투쟁으로써 기회주의적 분파들을 「극복」한다는 리론, 한당의 범위안에서 그러한 분파들을 「없애지게」한다는 리론은 당으로하여금 마비(麻痺)증과 만성적 허약증의 위험에 빠지게하며 당으로하여금 기회주의에 희생될 위험에 빠지게하며 프로레타리아트로하여금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있어 혁명적 당이 없게할 위험에 빠지게하며, 프로레타리아트로하여금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있어

서의 중요한 무기를 잃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부패하고도 위험한 리론인 것이다. 만일 우리당이 자기의 대렬안에 마르토프파, 단파, 쾨트레소브파, 악셀티로드파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대로(大路)에 나서지 못하였을 것이며 주권을 잡아가지고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를 조직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국내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우리당이 내부적 통일과 자기대렬의 미증유의 결속을 조성하여 내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이 기회주의적 오물(汚物)을 제때에 청결하여 내었고 청산과와 멘셰비크들을 당으로부터 축출하여 낼 수 있었던 까닭이다. 프로테라리아 제당의 발전과 강화의 길은 기회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 사회제국주의자들과 사회배타주의자들, 사회애국주의자들과 사회평화주의자들을 당에서 확청하는 것이다.

당은 기회주의적 분자들을 자체로부터 끌어내버림으로써 튼튼하여지는 것이다. 해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의 대렬안에 개량주의자들과 멘셰비크들을 두어서는 프로테라리아 혁명에 있어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 혁명을 고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원칙적인 것이다. 이것은 로제야와 항가리의 경험에 의하여 명료하게 확증되었다 : 로제야에는 만일 멘셰비크들, 개량주의자들, 소부르조아적 민주주의자들이 우리당안에 그냥 남아있었다면 쏘베트제도가 기필코 전복되었을 그러한 어려운 형편이 여러번 있었다 : 이태리에서 일반이 승인하는바와 같이 사대는 국가주권의 재탈을 위한 프로테라리아트와 부르조아지간의 결전으로 향해 갔다. 그러한 모멘트에 있어서는 멘셰비크들, 개량주의자들, 루타리파들 당으로부터 구속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요할 수 있고 또 개량주의자들과의 「통일(統一)」에로 동요를 보이는 우수(優秀)한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구속하는 것 즉 온갖 책임적 지위로 부하 매는 것이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혁명의 전야에 있어서나 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격렬한 투쟁의 모멘트에 있어서는 당내의 최소의 동요일지라도 모든 것을 파멸시킬

키오、혁명을 좌절(挫折)시키므로、프로테타리아트의 손에서 주권을 빼앗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왜 그러냐 하면 아직 그 주권은 손에 넣지 못한 까닭이요 아직도 그 주권에 대한 공격이 너무도 강한 까닭이다。만일 이러한 때에 있어서 중요하는 수명들이 물러나고 배척되면 그것은 당이나 노동운동이나 혁명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랴 도리어 강하게 하는 것이다」(제二五권 四六二、四六三、四六四페이지를 보라)。

九、사업작풍(事業作風)

문체(스타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나는 사업에 있어서의 작풍、해년주의의 실천상에 있어서의——해년주의자인 사업자라는 특수형(特殊型)을 창조하여주는——그 특수하고 독특한 것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해년주의는 당과 국가의 일꾼의 특수형을 양성해내며 특수한 해년적 사업작풍을 지어내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학교이다。

그것의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특수성은 어떠한 것인가?

그 특수성은 두가지다。즉

(一)、로씨야식의 혁명적 전개력(展開力)이요、

(二)、아메리카식 실무성(實務性)이다。

해년주의의 사업작풍은 당과 국가의 사업에 있어서 이 두가지의 특성을 결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로씨야식의 혁명적 전개력은 준순(遵巡)、구습묵수(舊習墨守)、보수주의、사상침체、전래의 전통의 노예적 태도에 대한 해독제(解毒劑)가 된다。로씨야식 혁명적 전개력

은 사상을 격동하며 앞으로 전진시키며 과거의 것을 파괴하고 장래에 대한 전망을 주는 생생(生生)한 힘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런 전진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업에 있어서 로짜야식 혁명적 전개력을 아메리카식 실무성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천에 있어서 빈「혁명적」마닐로브주의에로 퇴화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퇴화의 실례는 얼마든지 들수있다. 모든것을 맨들어낼수있고 또 모든것을 개조할수 있으리라 하는 법명의 힘에 대한 신앙에 기인(基因)하고있는 「혁명적」창조광(創造狂)과 「혁명적」실계성의 명을 누가 모르랴? 로짜야 작가 중 한사람인 이. 에렌부르그는 「우즈폼젤」(완성된 공산주의적 인간)이라는 단편소설중에서 이 병중에 걸린 한 「볼셰비크」의 형(型)을 그려내었는데 그 볼셰비크는 리상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도식을 그려내려고 목적하였다가 그만...그「사업」에 「빠져」버렸다. 그 소설에는 다대한 과장이 있으나 그러나 그가 병을 옮겨 진단한것은 의심할것 없는바이다. 그런데 그러한 병자들에게 대하여 레닌처럼 혹독하게 또한 용서없이 조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레닌은 창작광과 포고창조에 대한 그 병적 신앙을 「공산주의적 과대망상(誇大妄想)」이라고 명지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산주의적 과대망상이라는것은 광해서 아직 제명되지않고 광내에 그날밤아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모든 임무를 공산주의적 법명의 발로로써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제二七권 五〇—五一페이지를 보라)。

「혁명적」 호언장담에 해인은 통상 단순한 일상적 활동을 대치시켰고 그것으로써 「혁명적」 창작광은 진정한 해인주의의 정신에도, 본의(本議)에도 반대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해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와려한 문구들 좀 적게 쓰고 단순한 일상적(日常的) 활동을 좀 더 하라 :」
「정치적 교련을 좀 적게 하고 공산주의적 건설사업의 가장 단순한, 그러야 산사실들에 : 좀 더 주의하라 :」
(제二四권 三四三과 三四五페이지를 참조하라)。

반대로 아메리카식 실무성은 「혁명적」 마닐로브주의나 공상적 창작광에 대한 해독제다. 아메리카식 실무성——이것은 장애틀 알지 못하며 또 그것을 시인치 않고 모든 또한 온갖 장애틀 그 실무적 현실성으로써 배제(排除)하여 버리며 비록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리행하지 아니치 못하는 그러한 억제 못할 힘이니 그것이 없는 중대한 건설사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식 실무성은 만일 그것을 로씨야적 혁명적 전개력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편협하고 또한 무원칙한 실리주의로 퇴화될 모든 가능성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볼셰비크들」을 종종 타락시키고 그들을 혁명사업으로부터 리탈시키는 편협한 실용주의(實用主義)와 무원칙한 실리주의의 병증을 누가 모를가? 이 특유한 병증은 때・멜리냐크의 「홍년」이라는 소설중에 반영(反映)되었는바 그 소설에는 의지가 넘쳐나고 실천적 결단성을 가지었고 극히 「정백적으로」 「활동」하나 그러나 전망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혁명사업의 정로를 잃어버리는 로씨야

「볼셰비크들」의 형(型)이 모사되었다. 이 실리주의의 병증에 대하여 레닌처럼 신랄하게 조소한 사람은 없다. 레닌은 그 병증을 「전혀한 실용주의」, 「두뇌없는 실리주의」라고 명시하였다. 레닌은 통상 산(生) 혁명적 활동과 우리의 일상적 제반활동에 있어서 혁명적 전망의 필요성을 그 병증에 대립시키고 그리함으로써 무원칙한 실리주의가 「혁명적」 창작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레닌주의에 반대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로씨야식 혁명적 전개력과 아메리카식 실무성과의 연결——이에 곧 당 및 국가의 사업에 있어서의 레닌주의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결만이 우리에게 레닌주의자인 일군의 완성된 형과 레닌주의의 사업작품을 주는 것이다.

十月혁명과 프싸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十月혁명에로 가는 길에서」란 책의 서문

一、十月혁명의 내외정세

외부적 성질을 가진 새가지 사정(事情)이 프싸야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제국주의의 철쇄(鐵鎖)를 끊어버리는것을 비교적으로 쉽게하였고 그리하여 부르주아지의 주권을 전복하는것을 비교적으로 용이하게하였다.

첫째로, 그것은 영국—불란서와 오지리—독일의 두 기본적 제국주의그루뵤의 격렬한 투쟁시기에 그들이 서로 결사전(決死戰)을 하노라고十月혁명에 대한 투쟁에 신중한주의를 들릴지간과 수단을 가지지 못하였을때에十月혁명이 시작된 그사정이다. 이 사정은十月혁명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것이였다. 왜 그러냐하면 그는十月혁명자체의 령량을 튼튼케 하며 조직하는데 있어서 제국주의 내부의 격렬한 충돌을 리용할수 있게하여준 까닭이다.

둘째로, 그것은 전쟁에 피로(疲勞)하였고 평화를 갈망(渴望)하는 근로대중이 사물자체의 논리(事物自體의 論理)에 의하여 전쟁으로 부터 나오는 유일한 출로로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접근하게된때 제국주의전쟁의 행정(行程)에서十月혁명이 시작된 그사정

이다. 이 사정은 十월혁명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十월혁명의 수중에 강력한 평화의 무기를 주었으며 소비에트적 변혁을 밑받쳐준 전쟁의 종결과 편결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하였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혁명으로 하여금 서방의 동자들과 사이에서나 동양의 압박받는 민족들 사이에서나 다 대중적 동정을 얻게 하여 준 까닭이다.

셋째로, 그것은 구라파의 유력한 노동운동이 현존하여 있는 것과 오래 계속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양과 서양에서 생긴 혁명적 위기(危機)가 성숙하여 간 사실이다. 이 사정은 로씨야의 혁명에 대하여 무한히 귀중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十월혁명이 세계제국주의와 투쟁하는데 있어서 로씨야의 밖에 있는 성실한 동맹자들을 그에게 보장하여 준 까닭이다.

그리고 十월혁명은 의부적 성질의 여러가지 사정 이외에도 그로 하여금 쉽게 승리하게 한 여러가지의 유리한 내부적 조건들을 가지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 조건들 중에서 주요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十월혁명은 로씨야 노동계급의 최대다수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것이다.

둘째로, 十월혁명은 평화와 토지를 갈망하는 빈농과 다수의 군인들의 의심없는 지지를 받은 것이다.

셋째로, 十월혁명은 지도력(指導力)으로서 그의 선두에——자기의 경험과 여러해 동안에 단련된 규율로써만 아니라 또한 근로대중들과의 거대한 연락으로써 강력한——볼셰비크당과 같은 시련된 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벡제르, 十月혁명은 다소간 약한 로씨야 부르주아지와 농민 「소동」으로 인하여 영영의기저상(意氣沮喪)된 지주계급과 전쟁행정에서 완전히 파산된 라협당(멘셰비크당, 에세르당)과 같은 비교적으로 쉽게 극복할수있는 적들을 상대하였던것이다.

다섯째로, 十月혁명은 자체의 활발하에 청소한 국가의 넓은 지역(地域)을 가지였는바 자유로 기동하며 정세가 요구하는때에는 퇴각하며 휴식하며 또한 힘을 집결할수 있는등의 조건을 가지였던것이다.

여섯째로, 十月혁명은 반(反)혁명과의 자기의 투쟁에 있어서 국내에 식료, 연료, 원료등의 원천이 충분하게 있는것을 라산할수 있었던것이다.

이 내외적 사정의 결합(結合)이 十月혁명의 승리의 비교적 용이한 그 특수환경을 만들어 주었던것이다.

이것은 물론 十月혁명이 내외적 환경의 의미에 있어서 불리점(不利點)을 가지지 않았었다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왜하면 十月혁명의 의거(依據)할만한, 그의 결에 또는 그를 빈접한 다른 쏘베트국가가 없은 그의 어느정도 고립상태와 같은 그런 불리점이 어찌 중대한것이 아니겠는가? 장래혁명, 레를들면 독일에서의 장래 혁명은 이 방면에 있어서 의심할것없이 비교적 유리한상태에 처하게될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 혁명은 우리 쏘련과 같은, 자체상 실력(自體上實力)으로보아 유력한 쏘베트국가를 빈접국으로 하게되겠는가닭이다. 나는 국내의 프로레타리아트가 다수가 되지 못하였던것과 같은 十月혁명의 그런 불리점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불리점은 우에 말한 그 十月혁명의 내외적 특수조건들의 거대한 의의를 더욱 강조(強調)할 따름이다.

이 특수성에 대하여서는 일분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一九二三年 가을에 있는 독일사변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十月혁명과 독일혁명을 무관하게 류사하다고 하며 독일공산당의 실제적인 또는 가상적인 오유에 대하여 그를 성급하게 공박(攻駁)하는 트로츠키가 누구보다도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역사적으로 비해서 독특한 一九一七년의 구체적 정세에서 로씨야가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하기는 용이하였으나 그러나 그 혁명을 계속하며 또는 끝까지 수행하기는 구타파의 모든 나라들에서보다 로씨야에서 더 어려움을 지니었다. 나는 이미 一九一八년에 이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였거니와 그후 二개년동안의 경험은 그러한 고찰(考察)이 옳음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특수조건은 즉 (一)、쓰베트적 변혁과, 이 변혁으로 말미암아 된, 로동자와 농민들을 형언할수없이 파괴한 제국주의전쟁의 증식과들 연결시킬수있었던것, (二)、전세계적으로 광범한 약탈자들의 제국주의적 두 그루막, 즉 쓰베트라는 적을 반대하여 연합할수있었던 그 두 그루막의 결사적 투쟁을 일파동한 리용할수있었던것, (三)、부분적으로는 나라의 광대한 영역(領域)과 민환(敏活)치 못한 교통수단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장구한 국내전쟁을 견디어나갈수 있었던것, (四)、프로테라리아트의 당이 농민당으로부터(그다수가 본래비증에 극히 적대되는 에세르당으로부터) 그의 혁명적 요구를 취하여가지고 프로테라리아트가 정치적 주권을 전취함에 의하여 그 요구를 즉시 실현하게 될만큼 그러한 심각한 부르조아민주주의적 혁명운동이 농민가운데에 있는것——이러한 특수조건들은 지금 서구타파에는 없으며 또한 이러한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들의 반복(反復)은 그리 쉬운것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중——다른 여러가지 현인 이외에도——서구타파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하기가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어렵게된다」(제二五권 二〇五페이지를 참조하라)。

레닌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二、十月혁명의 두가지 특수성에 대하여, 혹은 十月혁명과 트로츠키의 「영속」혁명의 이론

十月혁명의 두가지 특수성이 있으니, 이것을 천명(闡明)함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혁명의 내부적 의미와 역사적 의의를 리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 특수성이란 어떠한 것인가?

첫째로,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농민대중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서의 근로농민대중과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의 기초 위에서 성립된 주권으로서 발생된 그 사실이다. 둘째로, 이것은 자본주의적으로 더 발전된 다른 여러나라에 자본주의가 유지(維持)되고있는 그러한 정세하에서,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전된 한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결과로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우리나라에 확립된 사실이 다. 이것은 물론十月혁명에는 다른 특수성이 더 없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가지의 특수성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것은, 그것이十月혁명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시할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영속 혁명」론의 기회주의적 본성을 훌륭히 폭로하는 까닭이다.

간단하게 이 특수성들을 고찰하여보자.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조아지의 근로대중에대한 문제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편으로 이 대중을 전취하는데 대한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주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근로인민이 누구를, 즉 부르조아지를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지 않으면 프로테타리아트를 지지할 것인가, 또한 그가 누구의 후비군 즉 부르주아지의 후비군으로 될 것인가, 프로테타리아트의 후비군으로 될 것인가 하는 데 혁명의 운명과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공고성(鞏固性)이 달려있는 것이다. 一八四八년 및 一八七一년의 불란서 혁명은 주로 농민후비군이 부르주아지편에 가담한 까닭에 실패하였다. 十月혁명이 승리한 것은 이 혁명이 부르주아지에게서 그의 농민후비군을 빼앗아 내었고 그 후비군을 프로테타리아트의 편으로 전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혁명에 있어서 프로테타리아트가 도시 및 농촌의 수백만 근로인민의 유일한 지도적 세력이 되었던 까닭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十月혁명의 성질도,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의 본질도, 우리 프로테타리아트 주권의 국내정책의 특수성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는 「경험있는 전략가」의 용의 주도한 수완(手腕)으로써 「교묘하게」 「선택」되었고 주민의 이런 혹은 저런 층에 「평리(儉劑)하게 의거하는」 단순한 정부적 수취부가 아니다.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는 프로테타리아트가 동맹의 지도적 세력이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자본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는, 프로테타리아트와 근로농민대중과의 계급적 동맹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에 문제되는 것은 「영속 혁명」론에 대한 몇 명의 외교적 옹호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즐겨하는 바와 같이 농민운동의 혁명적 가능성을 「조금」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조금」 과대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十月혁명의 결과로 생긴 새 프로테타리아트 국가의 본질에 대한 것이요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의 성질과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 자체의 기초에 대한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는 근로자들의 전위인 프로테타리아트와 수다한 비(非) 프로테타리아적 근로자들(스부르조아지, 소경병자, 농민 및 인테리겐차 등)과의, 혹은 그들의 다수와의 계급적 동맹, 즉 자본을 반대하는 동맹, 자본의 완전한 전복과 부르조아지의 반항 및 부르조아지측으로 부타의 복구(復舊)에 대한 시도의 완전한 진압(鎮壓)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 사회주의의 종국적 확립과 공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급적 동맹의 특수한 형태인 것이다」(제二四권 三一一페이지를 참조하라)。

그리고 또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란 이 라틴어(拉丁語)의 파락상, 역사상—철학상 술어(術語)를 만일 꼭 더 동속화된 말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즉

다만 일정한 계급만이 즉 도시로동자, 일반적으로 공장—제조소의 산업로동자들만이 자본의 기반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전복의 행정에서, 승리를 유지하며 공교케 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계급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모든 투쟁에서 전근로대중과 피착취대중을 지도할수 있다함을 의미하는것이다」(제二四권 三三六페이지를 참조하라)。

이러한것이 레닌이 론정(論定)한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의 이론이다.

十月혁명의 특수성중의 하나는 이 혁명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레닌적 이론의 훌륭한 실행인 그점에 있는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이 이론이 한갓 로씨야의 현실에 대해서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순수(純粹)한 「로씨야적」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옳지 못한것이다. 이것은 도무지 옳지 못한것이다. 레닌은 프로테타리아트가 지도하는 비(非) 프로테타리아적 계급들의 근로대중에 대하여 말할때에

로씨야 농민들만이 아니라 열마전까지도 로씨야의 식민지로 있던 소련 변방의 근로분자들까지도 념두에 두고 말한것이다. 레닌은 로씨야의 프로테타리아트가 이 타민족대중과 동맹함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강경하게 반복 주장하였다. 레닌은 민족문제에 관한 그의 여러 논문에서와 여러차의 국제공산당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세계혁명의 승리는 선진 국가들의 프로테타리아트와 노예화된 식민지의 피압박민중들과의 혁명적 동맹, 혁명적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여러번 말하였다. 그런데 식민지란 피압박 근로대중, 무엇 보다는 먼저 근로농민 대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식민지해방문제는 그 본질상으로 금융자본의 압박과 착취로부터 비프로테타리아 계급의 근로대중을 해방시키는 문제인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가 아닌가?

그런데 이로부터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레닌적 리론은 순수한 『로씨야적』 리론인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타당한 리론이라는 결론이 생긴다. 볼셰비즘은 한갓 로씨야의 현상인것만이 아니다. 『볼셰비즘은』 『세계각국에 있어 전술의 표본』이 된다고 레닌은 말하였다 (제二三권三八六페이지를 참조하라)。

이러한것이 十月혁명의 첫째 특수성의 특징이다.

十月혁명의 이 특수성의 전지로 보아서 트로츠키의 『영속 혁명』의 리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트로츠키가 一九〇五년에 취한 립장, 『짜리는 없이 정부는 노동자정부』라는 표어 즉 농민들은 참가하지않는 혁명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면서 혁명적 역량으로서의 농민을 『그냥』 잊어버린 그 립장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려 하지않는다. 『영속 혁명』의

외교적(外交的) 옹호자인 라테크도 지금에 와서 一九〇五년의 「영속 혁명」은 현실로 부러 「공중애로의 비약」인것을 의미하였던것이라고 어쩔수없이 승인하게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아마 누구나 다 이 「공중애로의 비약」에 대하여는 더 말할가치도 없다는것을 승인한다.

우리는 역시 트로츠키가 전채지기, 말하자면 一九一五년에 「주권을 위한 투쟁」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에서 사는것이오」 제국주의는 「남은 제도에 부조야적 민족을 대립시키는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를 부르조아적 민족에 대립시킨다」는 논거로부터 출발하여 농민의 혁명적 역할은 반드시 축소(縮少)될것이오 토지의 물주라는 표어는 벌써 이전에 가지고있던 그러한 의의를 가지지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그때의 그의 립장에 대하여서도 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때에 레닌은 트로츠키의 이 논문을 평론하면서 「트로츠키는 사실에 있어서 농민역할의 「부인(否認)」을, 혁명으로 농민들을 이르게 세우기를 원치않는것으로 이해하던 로씨야의 자유주의적 로동정치가들을 도와 준다!」(제一八권 三二八페이지 참조)고 논란(論難)하면서 「농민의 역할」을 「부인」한 것으로 트로츠키를 비난한것은 다 아는바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최근에 써낸 트로츠키의 저서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이미 확립하게되어서 트로츠키가 실제에서 자기의 「영속 혁명」의 이론을 검열하며, 자기의 과오(過誤)를 고칠 가능성을 가지었던 그때에 써낸 그의 저서에 대하여 말하여보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그가 一九二二년에 쓴 「一九〇五년」이라는 책의 「서문」을 들어보자. 그는 이 「서문」에 「영속 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자에게 있어서는」 「영속 혁명」 이론의 칭호를 받은 로씨야 혁명 발전의 성질에 대한 그 견해가 실로 一九〇五年 一월九일과 十月과업 사이의 기간에 조성되었다. 이 기이한 명칭은 부르조아적 목적의 직접 앞에서는 프로테타리아트로 하여금 아모리하여도 그 부르조아적 목적에만 멈추고 말수 없다는 그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혁명은 프로테타리아트를 잠아편 이 프로테타리아트는 혁명에 있어서 부르조아적 임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대 자기외 프로테타리아 전위는 실로 그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그의 통치의 첫시기부터 봉진적 소유제란 아니라 또한 부르조아 소유제에도 가장 심각한 침공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있어서 그는 그 혁명적 우익의 초기에 그를 지지한 부르조아지의 전체 그루바와만 적대적 충들을 이르게 될 것이 아니라 또한 광범한 농민 대중과도 즉 그의 힘력에 의하여 프로테타리아트가 주권을 잡게된 그 대중과도 적대적 충들을 이르게 될 것이다. 농민 인구가 압도적 대다수를 이루고있는 첫머터진 나라의 노동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제도론은 다만 국제적 범위 즉 프로테타리아트의 세계혁명의 무대에서만 그 해결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자기의 「영속 혁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레닌의 이론을 「영속 혁명」에 대한 트로츠키의 이론과 갈라놓는 그 모든 심연(深淵)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트로츠키의 이 인용문을 레닌전집에서 위에 인용한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관한 그 인용문과 대조하기만 하여도 된다.

레닌은 프로테타리아트와 근로농민층과의 동맹을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트로츠키에게 있어서는 「프로테타리아 전위」와 「광범한 농민대중」과의 「적대적 충들」이라는 것이 된다.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소탈인.

레닌은 근로자들과 피착취 대중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트로츠키에게 있어서는 「농민인구가 압도적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뒤떨어진 나라의 노동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제 모순」이라는 것이 된다.

레닌에 의하면 혁명은 우선 로씨야 국내 노동자와 농민들중에서 자체의 실력을 얻지 않은 트로츠키에 의하면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적 혁명의 무대」에서만 그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만일 세계적 혁명이 늦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혁명의 전도에는 어떠한 광명이 있을 것인가? 트로츠키는 아무런 광명도 주지 않는다. 왜그러냐하면 「노동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제 모순은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적 혁명의 무대에서만 그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까닭이다. 이 계획안에 의한다면 우리 혁명에는 다만 한 가지 전망(展望)만 즉 그 자체의 모순속에서 시들어가며 또는 세계혁명을 기대(期待)함에서 뿌리채로 썩어갈 전망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레닌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란 무엇인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자본의 완전한 전복」과 「사회주의의 종국적 건설 및 공고화」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농민대중과의 동맹에 의거하는 주권이다.

트로츠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란 무엇인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광범한 농민대중」과 「적대적 층들」을 이르기며 또는 「제모순」의 해결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적 혁명의 무대」에서만 얻는 주권이다.

이 「영속 혁명의 이론」은 일반이 다 아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사상을 부정하는 멘셰비즘의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

여기에는 의심이 있을수 없다. 「영속 혁명」은 농민운동의 혁명적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과소평가인 것이 아니다. 「영속 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테닌적 이론을 부정하는 데로 나아가는바의 농민운동에 대한 그런 과소평가인 것이다.

트로츠키의 「영속 혁명」은 멘셰비즘의 이형동체(異形同體)이다.

十月혁명의 첫째 특수성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十月혁명의 둘째 특수성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테닌은 특히 전쟁기에 있어서 제국주의를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경제적 또한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과 비약성(飛躍性)에 관한 법칙에 이르렀다. 이 법칙의 본의에 의하면 모든 기업소, 트레스트들, 각 산업부문 및 각국의 발전은 불균등적으로 진행된다. 즉 한 트레스트, 한 산업부문 혹은 한 나라는 항상 앞서 전진하고 다른 트레스트나 다른 나라들은 하나씩 뒤처지거나 순차로 따라나 가도록 규정된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어떠한 나라들의 발전은 중단적(中斷的)으로,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전진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나라들이 옛진지를 유지하려는 「실분 정당한」 욕망과 비약적으로 전진한 나라들이 새진지를 탈취하려는 역시 그만치 「정당한」 욕망은 여러 제국주의적 나라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피치 못할 필연적의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레를 들면 반(半)세기전에는 불탄서와

영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로 있는 독일이 그리하였었다. 일본을 로씨야에 비교하는 때에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二十世紀 초에 벌써 독일과 일본은 훨씬 앞으로 뛰어나가 전자는 불란서를 통과하였고 또한 세계시장에서는 영국을 압도하기 시작하였으며 후자는 로씨야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일반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열마전의 제국주의의 전쟁은 이 여러가지 모순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즉

(一)、「자본주의는 극소수의 「선진」국들의 지구상 주민의 거대한 다수를 식민지적으로 압박하고 금융적으로 결식(窒息)시키는 전 세계적 체계로 변성(變成)하였다」(제一九권 七四페이지에 있는 레닌의 저서 「제국주의」의 불어판(佛語版)의 서문을 참조하라)。

(二)、「이 「획득물(獲得物)」의 분배(分配)는 발톱까지 무장한 세계적으로 위력 있는 二—三個의 랍탈국(掠奪國)(미국, 영국, 일본) 사이에 진행된다. 그들은 자·기·들·의·획득물·의 자기들의 분배를 위한 전쟁으로 전 지구를 휩쓰러 몰아넣는다」(상동)。

(三)、금융적 압박의 세계적 체계 내부에 있는 모순의 장성과 군사적 충돌의 불가피성은 혁명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의 세계적 전선이 쉽게 깨어지게 하며 그 전선의 돌파는 개별적 나라에 있어서 심분 가능한 것으로 되게 한다。

(四)、이 돌파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적 전선의 켈쇄가 비교적 약한,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가 약하게 서있고 혁명이 일층 더 쉽게 전개될수있는 그러한 지점(地點)과 그러한 나라들 안에서 생길수 있는 것이다。

(五)、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에——비록 이 나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더 발전되었을 지라도——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환경에서 심지어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일 지라도 그 한 나라 안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십분 가능한 것이며 또 개연(蓋然)적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것이 프로테라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적 이론의 기초이다.

十월혁명의 둘째 특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十월혁명의 둘째 특수성은 이 혁명이 프로테라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적 이론을 실천에 적용한 모범(模範)인 거기에 있는 것이다.

十월혁명의 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언제든지 이 혁명의 국제적 본성도, 그의 거대한 국제적 위력도, 그의 독특한 대외정책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절대 법칙이다. 여기로부터는 사회주의의 승리가 처음에는 많지 않은 몇 나라 혹은 심지어는 단독으로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라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나라의 승리한 프로테라리아르는 자본가들을 수탈(收奪)하고 자국내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여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며 그들의 나라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심지어 무력(武力)으로 쫓아내기도 착취계급들과 및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진출하면서 이여의, 자본주의적 세계를 반대하여 필기할 것이다』.

해그더나하면 『사회주의적 공화국들이 뒤따라진 여러 국가들과의 다소 간쟁구하고 또한 꾸준한 투쟁을 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여러 민족의 자유로운 연합은 불가능한 까닭이다』

(제一八권 二二二——二二三페이지를 참조하라)。

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들은 단언(斷言)하기를 프로테타리아 혁명은——만일 그들의 이론에 의하여 대체로 혁명이 어디에서든지 시작되게 된다면——다만 공업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시작될수 있는 것이요 공업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들이 더욱 발전되었을수록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가망이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나라에서의, 더욱히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전된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은 도모지 있을수 없는 것으로서 제외되는 것이다. 해넌은 벌써 전쟁당시에 제국주의나라들의 불균등적 발전의 법칙에 의거하면서 한나라에서의, 가령 그 나라가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일지라도, 그 한나라안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자기의 프로테타리아혁명의 이론을 기회주의자들에게 대립시키었다.

다아는바와같이 十月혁명은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대한 해넌적 이론의 정당성을 전적(全的)으로 실증하였다.

한나라에서의 프로테타리아 혁명승리에 대한 해넌적 이론의 전지로 보아서 트로츠키의 「영속 혁명」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우리혁명」(一九〇六년)이라는 트로츠키의 소책자를 들어보자.

트로츠키는 다음과같이 썼다.

「트로츠키의 운동계급은 구라과 프로테타리아트의 직접 국가적 지지가 없이는 주권을 유지할수 없으며 또한 그의 일시적 지배를 장구한 사회주의적 독재로 변환시킬수 없는 것이다. 이제 대하여서는 일분동한이라도 의석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이 인용문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가? 한나라에서의,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구라파 프로테라리아트의 직접 국가적 지지가 없이는」、다시 말하면 구라파의 프로테라리아트가 주권을 전취하기전에는 불가능하다함을 말하는 것이다. 트로츠키의 이 「리론」과 「단독으로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의 명제(命題)와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여기에는 아모 공통점도 없는것은 명확하다.

가령 우리혁명의 성질을 규정하기 어려웠던때인 一九〇六년에 발행된 트로츠키의 이 소책자가 뜻하지 아니하였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것이 그후기의 트로츠키의 견해와 완전히는 부합되지 않는다고하자. 트로츠키의 다룬 소책자, 즉 一九一七년 十月 혁명의 직전에 출간되었고 또한 「一九一七년」이라는 책에 지금(一九二四년) 재록된 「평화의 강령」이라는 그의 소책자를 들어보자. 이 소책자에서 트로츠키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프로테라리아혁명의 레닌적 리론을 비판하였고 그리고 구라파합중국이라는 포어를 레닌적 리론에 대립시켰다. 트로츠키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한것이며 사회주의의 승리는 다만 구라파합중국에 연합하게된 그 구라파의 몇개의 중요한 나라(영국, 로씨야, 독일)들의 승리로서만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승리는 전혀 불가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씨야에서나 혹은 영국에서의 승리적 혁명은 독일에서의 혁명이 없이는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며 또한 이와반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트로츠키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합중국이라는 표어를 반대하는 그 다소간 구체적인 유일한 역사적 요철(要察)은 서서 『쓰찌알—데 모크라트』(당시의 불셰비크의 중앙기관지—이·쓰말린)의 다음과 같은 문구에 즉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절대 필치이다」라 한데 규정되었었다. 이에서 「쓰찌알—데 모크라트」는 한나라안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냐함과 따라서 그러한 까닭에 각개의 국가에서의 프로테타리아트의 무제를 구타와 합중국 형성으로써 조건지을 리유는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각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불균등적이랄함은 실로 논쟁할 여지도없는 요철이다. 그러나 그 불균등성 그 자체가 가장 불균등적인 것이다. 영국, 오대리, 독일 혹은 불란시의 자본주의적 수준은 한결같지 않다. 그렇지만 아프리카나 아세아에 비하면 이 여러 나라는 사회혁명을 할만큼 성숙된 자본주의적 「구타파」로 되어있는 것이다. 병행(並行)적인 국제적 행동의 사상이 대기(待期)적인 국제적 수수방관(袖手傍觀)의 사상으로써 바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나라도는 그 두께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기다리」여서는 안된다는 이 초보적(初步的)인 사상을 반복하는것은 유익하며 또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주도성(主導性)이 다른 여러나라에서의 투쟁에 충동을 줄 것이라는 충분한 신념을 가지고 일국적 지반(一國的地盤)에서 투쟁을 시작하며 또한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레닌대 혁명적 로씨야가 보수적(保守的) 구타파의 앞에 대립할 수 있으리라거나 혹은 사회주의적 특일이 자본주의적 세계에서 쫓겨나서 있을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가망(可望)없는 일일 것이니 역사상 경험도 이론적 요철도 이처럼 필증(立證)하여 준다」。

모든바와같이 우리앞에는 한나라안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레닌적 혁명리론을 통칙(通則)적으로 배치하는, 즉 구타파의 주요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동시적(同時的) 승리에 대한 다름아닌 그 리론이 놓여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남은 제도의 복구(復舊)의 완전한 저지(阻止)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몇나라의 프로테타리아트의 일치협력의 필요한것은 두말할것도 없는것이다. 구타파의 프로테타리아트의 측으로부터 우리의 혁명을 지지함이 없다면 로씨야의 프로테타리아트가 그 총습격에 대하여 항거(抗拒)하여 내지 못하였을 것이오 이와 마찬가지로

로써야 혁명측으로부터 서방의 혁명운동을 지지함이 없다면 이 운동이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수립된 후에 그가 발전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속도로 발전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지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일이다. 그런데 서구라파의 프로레타리아트 측으로부터 우리 혁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혁명에 대한 구라파로동자들의 동정(同情), 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결심등——이 모든 것은 지지이며 진실한 원조(援助)인가? 물론 그렇다. 구라파로동자들측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식민지 및 예속국들측으로부터 이러한 지지와 이러한 원조가 없었다면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곤란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군대의 위력과 사회주의의 조국을 사수(死守)하려는 로씨야의 로동자와 농민들의 결단성과 합치된 그 동정 및 그 원조가 지금까지는 충분하였는가——이 모든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을 쳐물라치며 중대한 전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전취하기에 충분하였는가? 물론 충분하였다. 이 동정은 커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저거는가? 물론 커져간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오직 사회주의적 경제의 조직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쪽에서도 역시 서구라파의 로동자들이나 동방의 압박받는 민족들을 지지하여 줄 만한 유리한 여려가지 조건이 있는가? 물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七년동안의 력사가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강력한 로동의 육양이 시작되었을 부인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론중(論中)이 있는 후에 혁명적 로씨야가 보수적 구라파에 대립할 수 없으리라는 트로츠키의 단언은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주장은 다만 한가지 의의를 가결수 있을 따름이다. 즉 첫째로, 트로츠키는 우리 혁명의 내부적 위력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오, 둘째로는, 트로츠키는 서방노동자들과 동방농민들이 우리 혁명에 주는 그 정신적 지지의 무한한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오, 셋째로는, 트로츠키는 현재 제국주의를 부식(腐蝕)시키고 있는 그 내부적 무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대한 세년적 이론을 비판하기에 열중(熱中)하던 트로츠키는 一九一七년에 발행되었고 또 一九二四년에 재판된 『평화의 강령』이라는 그의 소책자에서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때려부시었다.

그런데 트로츠키의 이 소책자도 어떻게 되어 그의 현재의 견해와 맞지 않게 되었고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한나 라안에서 즉 로짜야에서 프로테타리아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 쓴 트로츠키의 최근의 저서를 들어보자. 레킨대 『평화의 강령』이라는 소책자의 새출판에 대한 一九二二년의 트로츠키의 「발문」(跋文)을 들어보자. 그는 그 「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로테타리아 혁명이 일국적 한계안에서는 승리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평화의 강령』에 여러번 반복(反復)한 그 주장은 우리 소비에트공화국의 거의 五개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미상(未詳)하면 독자에게는 분박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은 아주 부근거한 것이다. 로동국가가 한나라안에서, 더구나 위대해진 나라에서 전체계를 대립하여 유지된 그 사실은 프로테타리아트에게 거대한 위력이 있다함을 증명하였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로서의 자체를 고수하였지만 사회주의적 사회를 창건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의 근방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아직 남아 있는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 부르조아지가 주권을 잡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경제적 고립을 막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부득이 자

본주의 세계와의 타협(妥協)을 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모든 타협은 잘되는 경우에만 이런 혹은 저런 경제적 상처(傷處)를 치료하며 이리한 혹은 저리한 전진을 함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러나 트색야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의 진정한 양양은 다만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승리한 이후에만야만 가능하다. 가능하게 될 것을 확언할 수 있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명백히 현실에 어긋아지는 과오를 범하면서, 『영속 혁명』을 중국적 과한으로 부러 구원하여 내려고 애써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고 본즉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여도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아르지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혹자들에게는 『자본주의 세계와의 타협』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타협으로서도 역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구라파의 가장 중요한 여러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승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여도 『사회주의적 경제의 진정한 양양』을 얻지 못할 것인 까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에 아직 승리가 없으나 만철 로씨야 혁명은 뿌리채로 썩어버린다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르조아국가로 변질된다는가 하는 량자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남아있게 되는 셈이다。

트로츠키가 벌써二년동안이나 우리당의 『변질(變質)』에 대하여 말한 것은 뜻없이 한 말이 아니다。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스칼린。

트로츠키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절망』에 대하여 예언한것은 뜻없이 한말이다.

어떻게 이 괴상한 『러론』을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레닌의 이론과 조화(調和)시킬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괴상한 『전망』을, 신경제정책은 우리에게 「사회주의적 경제의 토대를 건설」할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한 레닌의 전망과 조화시킬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영속적』의 절망(絶望)을 레컨대, 다음과같은 레닌의 어구와 조화시킬수 있겠는가? 즉

「사회주의는 지금에 와서는 벌써 먼(遠) 장래에 대한, 혹은 어떠한 추상적(抽象的) 도안(圖案)에 대한, 혹은 어떠한 상상(聖像)에 대한 문제가 아닌것이다. 상상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아주 좋지 못한 이전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남아있는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일상 생활에 요점(要點)이 내어놓았나니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곧 당면의 임무이며, 우리시대의 임무가 되는것이다. 이 임무가 아무리 어렵고, 그것이 이전의 우리의 임무에 비하여 아무리 재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난관(難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으로, 태일은 아니나 몇해동안에는, 싸야로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임무를 수행할것이라는 확신을가지고서 말을 끊지고자한다」 (제二七권 三六六 페이지를 참조하라)。

트로츠키의 이 「영속적」 암흑(暗黒)을, 레컨대 레닌의 다음과같은 어구(語句)와 어떻게 조화시킬수 있을가? 즉

「사실상 모든 대생산수만에 대한 국가의 권력,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있는 국가의 주권, 수백만의 노동들과 및 극소노동들과의 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 그 동맹에 있어서 농민에게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를 보장하는것등——이 모든것이 우리가 이전에 소상인적(小商人的)이라고 정명하였고 그리고 신경제정책하의 저급에 있어서도 어떤면으로서는 정명할수있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오직 그 협동조합 하나만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사회의건설을 완성하는데 필요한것의 전부가 아닌가? 이 모든것이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 건설의 필요한 모든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다 그 건설에 필요한것이요 또한 충분한 것이다」(제二七권 三九二페이지를 보라)。

이에는 아무런 한 조화도 없는것이며 또한 있을수도 없는것은 명확하다. 트로츠키의 「영속혁명」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적 이론을 부정(否定)한것이오 그와반대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적 이론은 「영속혁명」의 이론을 부정하는것이다。

우리혁명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않으며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는 그것이 곧 「영속혁명」의 이론의 근거인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통으로 「영속혁명」론의 한방면 즉 농민운동의 혁명적 가능성을 믿지 않는것을 지적하여왔다. 이제는 공평케하기 위하여 이 방면에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않는 그 다른 방면을 보충하여야 할것이다。

「서구라와의 주요한 여러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제적(前提的) 승리가 없이는 한나라에서의, 더욱히 뒤떨어진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하는 불가능하다는 멘셰비즘의 보통이론과 트로츠키의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

본질상 아무것도 다른것이 없다。

여기에는 아무 의심도 있을 수 없다. 트로츠키의 「영속 혁명」의 이론은 멘셰비즘의 이형동체(異形同體)인 것이다.

최근에 와서 우리의 출판물에는 레닌주의와 상용(相容)될 수 있는 듯이 「영속 혁명」의 이론을 들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책은 외교가들이 많이 생겼다. 그들은 말하기를, 물론 一九〇五년에는 그 이론이 타당치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트로츠키의 과오는 그가 一九〇五년의 환경에는 적용(適用)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때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간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레를 들면 혁명이 이미 완전히 성숙된 때인 一九一七년 十月에 와서는 트로츠키의 이론은 완전히 타당하게 된 것이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외교가들 중에서 라비크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을 추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에 그의 론조(論調)를 들어 보자. 즉

「전쟁은 로지의 전위와 평화론을 갈망하는 농민과 소부르조아 당들과의 사이에 심연(深淵)을 파놓았다. 전쟁은 농민을 로동계급과 그의 전위인 볼셰비크당의 지도하에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재가 아니라 농민에 의거하는 로동계급의 두 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一九〇五년에 로자·록센부르크와 트로츠키가 레닌을 반대하여 제기하였던 그것(즉 「영속 혁명」——이·프한)은 사실에 있어서는 역사적 발전의 제 二 단계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말마따마다 거짓말뿐이다.

전쟁당시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재가 아니라 농민에 의거하는 로동계급의 두 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一九一七년의 二월혁명은 사실상으로 부르조아 두 재와 특수하게 엉켜 버린 프로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두 재의 실현이었다.

라테크가 추치스텝계 목과(默過)하는바의 그 「영속 혁명」의 리론을 一九〇五년에 로자·룩셈부르크와 트로츠키가 제기하였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사실상이 리론은 빠르부쓰와 트로츠키가 제창한것이다. 라테크는 十개월을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영속 혁명」때문에 빠르부쓰를 비난(非難)하여 주어야 될것으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말을 고친다. 그러나 공평하게 하자면 라테크는 빠르부쓰의 동배(同輩)인 트로츠키까지도 비난하여야 할것이다.

一九〇五년 혁명에 의하여 내버려진 「영속 혁명」이 「력사적 발전의 제二단계」 즉 十월혁명당시에 와서는 정당한것이 되었다함은 옳지 않다. 十월혁명의 모든 행정과 그의 모든 발전은 「영속 혁명」의 리론이 전혀 무능력함과 또는 레닌주의의 기초들과 전혀 상용될수없음을 보였으며 또한 립증하였다.

「영속 혁명」론과 레닌주의의 사이에 놓여있는 커다란 심연(深淵)을 감언리설과 적은 외교술(外交術)로써 엄폐할수 없는것이다.

三、十월혁명 준비기에 있어서의 볼셰비크들의 전술의 몇가지 특수성에 대하여

十월혁명 준비기에 있어서의 볼셰비크들의 전술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전술의 극히 중요한 몇가지 특수성을 반드시 리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볼셰비크들의 전술에 대한 수다한 소책자에 실로 이모든 특수성이 흔히 목과되었음으로 더욱 필요한것이다.

그 특수성이란 것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특수성. 트로츠키의 주장을 듣고 보면 十月혁명준비의 역사에는 오직 두 시기, 즉 정찰(偵察)시기와 폭동시기이었고 그 이외의 것은 도깨비작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一九一七년 四月시위행렬이란 무엇인가? 「예상이상으로」 「좌경」이었던 四月시위행렬은 대중의 기본과, 또한 대중과 소베트내의 다수파와의 사이의 호상관계를 견결하기 위한 정찰적 출동이 었다」고. 그런데 一九一七년 七月시위운동이란 무엇인가? 트로츠키의 의견에 의하면 「사실상 이 사건도 운동의 일층 높은 새 단계에서 일출 더 광범하게한 새정찰에 지내지 않는다」고. 우리당의 요구에 의하여 단행된 一九一七년 六月시위운동도 트로츠키의 관찰에 의하면 더구나 「정찰」이라고 불려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와같이 볼셰비크들에게는 이미 一九一七년 三月에 노동자와 농민들을 구성성분으로 한 기성된 정치적 군대가 있었는데 만일 볼셰비크들이 四月이나 六月 또는 七月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이 군대를 출동하지 않고 다만 「정찰」로써만 일삼았다면 그것은 오직 「정찰의 재료」가 그때에 유리한 「성적(成績)」을 주지 않았던 까닭이었다는 것이 된다.

우리당의 정치적 전술에 대한 단순화된 이 관념은 볼셰비크들의 혁명적 전술을 보통의 군사상전술과 혼동함에 지내지 않는것임은 더 말할것도 없다.

사실상 이 모든 시위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중의 자연생장적 압력의 결과이었고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의 분격(憤激)이 거리에로 터져나온 결과이었다.

사실상 이에 있어서 당의 역할은 자연생장적으로 이러한 대중의 진출을 볼셰비크들의 혁명적 표어의 로선으로 나가도록 조직함과와 또한 지도함에 있었다.

자실상 一九一七년 三월에는 불쉐비크들에게 기성된 정치적 군대가 없었고 또한 있을 수도 없었다. 불쉐비크들은 다만 一九一七년 四월로부터 그해 十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계급 간의 투쟁과 충돌의 행정에서 그러한 군대를 편성하고 있었을뿐이며 (결국 一九一七년 十월에 이르러 그들 편성하여 놓았다) 四월 지위행렬, 六월 및 七월의 지위운동, 각구역회 (各區域會) 및 총사회 (總市會)의 선거, 프로닐로프와의 투쟁, 쏘베트의 전취——이 모든것을 통하여 그러한 군대를 편성하여내고 있었을뿐이다. 정치적 군대는 보통군대와와는 다른 것이다. 만일 군사 사령부는 기성된 군대들 거느리고 출전한다면 당은 바로 투쟁의 행정에서, 계급층들의 행정에서, 대중자제자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여 당의 포어들이 옳음과 당의 정책이 옳음을 확신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의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각개의 지위운동은 동시에 눈에 보이지않는 세력관계들 일마간 보이여 주었으며 또한 얼마만한 정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정찰은 지위운동의 동인 (動因) 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의 자연한 결과이었다.

태닌은 十월폭동직전의 모든 사변을 분석하며 四월—七월의 모든 사변과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사태는 참으로 四월二十일—二十一일이나 六월九일이나 七월三日 그때의 것과는 다르다. 왜그러냐하면 그때에 있는것은 자연생장적 분기 (奮起) 였는데 당으로서의 우리가 그것들 혹은 포착치 못하였거나 (四월二十일) 혹은 그것을 제어 (制御) 하여 가지고 평화적 지위운동으로 만들었던 (六월九일과 七월三日) 까닭이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그때에 쏘베트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요 농민들이 아직도 리베르단—체르노브가 나아가는 길을 믿었고 불쉐비크들이 나아가는 길 (폭동의 길) 을 믿지 않았음으로 인민의 다수가 우리를 따라갈 수 없었고 따라서 폭동은 아직 시기상조이었던것을 잘 알고있었던 까닭이다」 (제二一권 三四五페이지를 참조하라)。

한곳 「정찰」만으로는 불충분하였던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분명히 「정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데 있는 것이다. 즉

(一)、당은 十月혁명을 준비하는 전시기(全時期)를 통하여 그의 투쟁에 있어서

대중적 혁명운동의 자연생장적 양상(昂揚)에 꾸준히 의거하였었고、

(二)、당은 자연생장적 양상에 의거하면서 운동에 대한 단독적 지도권을 자체에 보

전하였으며、

(三)、운동에 대한 이러한 지도는 당으로 하여금 十月폭동을 이르킬 대중적 정치

군대를 편성(編成)하는 사업을 활개 하였었고、

(四)、이러한 정책은 十月혁명의 모든 준비가 한 당 즉 볼셰비크당의 지도하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五)、十月혁명에 대한 이러한 준비는 따라서 十月폭동의 결과에 주권이 한 당 즉 볼

셰비크당의 주중에 장악(掌握)되게 하는데 이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十月혁명준비의 기본적 요인으로서의 한 당 즉 공산당의 단독적 지도——이리

한 것이 十月혁명의 특징이며 이러한 것이 十月혁명 준비기에 있어서 볼셰비크들의 전술의 첫

째 특수성이다.

볼셰비크들의 전술의 이러한 특수성이 없이는 제국주의의 환경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트의 특제의 승리가 불가능하였을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가 한다.

이것으로써 十月혁명은, 혁명의 지도권을 두 당이 나누어졌던(그중에서 한당도 공산당이라고 칭할수없는) 一八七一년의 불란서혁명보다 유리하게 다른 것이다.

둘째, 특수성. 이리하여 十月혁명의 준비는 한 당 즉 볼셰비크당의 지도하에서 진행되었

다. 그런데 이 지도는 당에 의하여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또는 그것이 어떠한 로선으로 진행되었는가? 이 지도는 혁명의 전개기(展開期)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그루빠들인 라협당(安協黨)들을 고립시키는 로선으로 즉 에세르 및 멘셰비크들을 고립시키는 로선으로 진행되었다.

레닌주의의 기본적 전략상 규준은 어떤데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승인하는데에 있다. 즉

(一)、다쳐오는 혁명의 전개기에 있어서 혁명의 적(敵)들의 사회적 지주(支柱)로서 가장 위험한것은 라협당들이라는 것과,

(二)、그당들을 고립시킴이 없이는 적(적라협과 혹은 부르조아지)을 전복할수 없다는 것과,

(三)、그러므로 혁명준비시기에 있어서 그당들을 고립시키며 그당들로부터 광범한 근로대중을 분리(分離)시키는것을 목표(目標)로하여 주요한 포화를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짜리즘과의 투쟁시기 즉 부르조아민주주의적 혁명의 준비시기에 있어서(一九〇五—一九一六년) 짜리즘의 사회적 지주로 가장 위험한것은 자유주의적 군주주의 정당인 립헌민주당(까제트당)이었다. 왜 그러한가? 그당은 라협당, 다시말하면 짜리즘과 인민의 다수 즉 농민전체와의 타협을 위하는 당이었던 까닭이다. 립헌민주당을 고립시킴이 없이는 짜리즘과 농민들과의 파열(破裂)을 기대(期待)할수가 없었던것이오 그 파열을 보장하지않고서는 혁명의 승리를 기대할수가 없는것임으로 그때에 당은 립헌민주당을 반대하여 주요한 타격을 돌린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볼셰비크들의 전략의 이 특

수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랩현민주당과의 투쟁은 볼셰비크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적인 짜리
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장애한다」고 단언하면서 지나친 「랩현민주당 증오병」에 걸렸다고
볼셰비크들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 비난은 아무 근거도 가지지 못한 비난으로서, 주요한
적에 대한 승리를 접근(接近)시키며 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타협당의 고립을
요구하는 볼셰비크적 전략을 전연 리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로시키었다.

이러한 전략이 없이는 부르조아 민주당의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불가능하였을것임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가한다.

十月혁명을 준비하던 시기에 있어서 투쟁력향들의 중심은 새 장면에로 옮기었다. 짜리는
없어졌고 랩현민주당은 타협적 세력으로부터 통치적 세력으로 제국주의의 지배적 세력으로
변환되었다. 투쟁은 벌써 짜리즘과 인민사이에 진행된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
리아트와의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사회적 지주(支柱)로써 가장
위험한것은 소부르조아적 민주당들인 에세르당과 멘셰비크당이였다. 왜그러한가? 그때에 그
당들은 타협당 즉 제국주의와 근로대중과의 사이의 타협을 위하는 당이었던 까닭이다.
그당들을 고립시키지않고서는 제국주의와 근로대중과의 파멸을 기대할수 없었던것이오 그 파
멸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소베트혁명의 승리를 기대할수 없었던것임으로 그때에 볼셰비크
들의 주요한 타격이 그 당들을 반대하는데로 향한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
들은 볼셰비크들이 에세르들과 및 멘셰비크들을 「너무 미워한다」함과 볼셰비크들이 주
요한 목적을 「잊어버린다」함으로써 볼셰비크들을 비난하면서 볼셰비크적 전술의 이
특수성을 리해하지못하였다. 그러나 十月혁명을 준비하던 그 전(前) 시기는 볼셰비크

들이 다만 이러한 전술로써만이 十月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옹변으로 말한다.

그 시기의 특징은 근로농민대중이 일층 더 혁명화한 것과 그들이 에세르 및 멘셰비크들에 대하여 실망(失望)한 것과 그 당들에서 그들이 물러선 것과 그리고 나라를 평화로 안도할 능력을 가진 유일하고 철저한 혁명적 역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위에 직접 결속하는 방면으로 그들이 전환한 그것이다. 그 시기의 역사는 에세르 및 멘셰비크들이 한 편이 되고 볼셰비크들이 다른 한 편이 되어서 근로농민대중을 위한 즉 그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연립내각(聯立內閣)의 시기, 케렌스키집권 시기, 지주토지몰수에 대한 에세르 및 멘셰비크들의 거절, 전쟁의 계속을 위한 에세르 및 멘셰비크들의 투쟁, 전선에서의 六月진격, 병사들에게 대한 사형제, 피르닐로브과의 반란이 그 투쟁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은 이 운명을 순전히 볼셰비크적 전략에 유리하도록 해결하였다. 왜그러냐하면 에세르들 및 멘셰비크들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정부를 전복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이오 그 정부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리탈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까닭이다. 에세르들 및 멘셰비크들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었다.

이리하여 十月혁명의 준비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적 로선으로서의 멘셰비크당 및 에세르당의 고립화——이것이 볼셰비크들의 전술의 둘째특수성이다.

볼셰비크들의 전술의 이 특수성이 없이는 노동계급과 근로농민대중과의 동맹은 허공에 매달린 것이었을 것임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불셰비크적 전술의 이 특수성에 대하여 트로츠키가 「十月혁명의 교훈」이라는 그의 저서에 아무것도 혹은 거의 아무것도 논술하지 않은것은 특징적인것이다.

셋째 특수성. 이리하여 十月혁명의 준비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는 에세르당과 멘셰비크당을 고립시키는 로선으로 즉 그들로부터 노동자 및 농민의 광범한 대중을 분리시키는 로선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당은 이 고립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와 어떠한 포어하에서 실현하였는가? 그 고립화는 쏘베트주권을 위한 대중의 혁명운동의 형태로,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게로!」라는 포어하에서 쏘베트를 대중을 동원하는 기관으로부터 폭동기관, 주권기관, 새 프로레타리아적 국가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의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어찌하여 불셰비크들은 멘셰비크들과 에세르들을 고립시키는 사업을 쉽게할수있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사업을 전진시킬 능력을 가진, 수백만근로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승리에로 인도할 사명을 띤 기본적인 조직상의 공간(槓杆)으로서 다름 아닌 쏘베트를 잡아쥐었는가?

쏘베트란 무엇인가?

레닌은 이미 一九一七년九月에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쏘베트는 첫째로, 노동자와 농민들의 무력을 주는 세력기관이다. 그런데 그 무력은 이전날 상비군(常備軍)의 무력과같이 인민과 따로 떨어져있지 아니요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밀접한것이다. 이 무력은 군사상 관계에 있어서는 재래의 그것과는 비교할수없이 더욱 위력있는것이요 이 무력은 혁명적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것으로든지 바꾸어낼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이 기관은 밀접하고 가늘수없고 용이하게

검열(檢閱)하여낼수있고 또 쉽게 정신하여낼수있는 그러한 대중과의 연락 즉 인민 대다수와의 연락을 주는 것이니 이와같은것은 과거의 국가기관 내에서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었다. 셋째로, 이 기관은 관료주의적 형식이 없이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성원(成員)이 선거되고 또한 경질(更迭)됨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기관들 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것이다. 넷째로, 이 기관은 온갖 종류의 직업들과 더불어 든든한 연락을 가지게 한다. 그리함으로써 관료제도가 없이 가장 심각한 성질을 가진 여러가지 개혁(改革)을 하는것을 쉽게하여준다. 다섯째로, 이 기관은 전위대(前衛隊), 즉 압박받는 계급들인 노동자 및 농민들의 가장 자각적이고 가장 정력(精力)있는 선진적 부분에 조직형태를 준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압박받는 계급들의 전위대가 그들 통하여 지금까지 전연 정치적 생활밖에, 역사밖(外)에 처하여있는 그 계급들의 거대한 대중전체를 끌기시키며 교양하며 훈련하며 자기의 뒤에 쓰고 나갈수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는것이다. 여섯째로, 이 기관은 국회제(制)의 장점과 직접적이요 철저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할수있는 가능성, 즉 선거를 받은 인민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입법 기능과 법의 집행을 결합할수있는 가능성을 주는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적 국회제도에 비하여 민주제도의 발전상에 있어서 전제개사적 의의를 가진 그런 진보인것이다.

만일 혁명적 계급들의 인민적 창조력(創造力)이 쏘베트를 만드는데지 않았다면 프로테타리아 혁명은 도저히 없었어서 희망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프로테타리아트가 이전의 기관으로써는 실행할것이 주권을 유지하지 못하였을것이요 그리고 새 기관은 즉시에 창조할수없는 까닭이다」(제二二권 二五八—二五九페이지를 참조하라)。

바로 이러한 까닭에 볼셰비크들은十月혁명을 조직하는것과 프로테타리아 국가제도의 유력한 새기관을 조직하는것을 쉽게할수있는 조직상 기본적인 고리(環)로서 쏘베트를 붙잡아권 것이다。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표어는 그의 내부적 발전의 전제로보아 두단계, 즉 첫째단계(볼셰비크들의 七월실패이전, 즉 이중(二重)정권의 당시)와 둘째단계(프르닐로프 반란의 실패이후)를 정과하였다。

첫째 단계에 있어서 이 포어는 멘셰비크들 및 에세르들과 립헌민주당과의 별리의
과, 멘셰비크 및 에세르들로써된 쏘베트정부의 수립(그때에 쏘베트는 에세르—멘셰비크적
이었으므로)과, 반정부당(즉 볼셰비크들)의 자유선동(煽動)권과, 쏘베트안에서의 여러당
의 자유투쟁을 의미하였던 것이니 이는 이러한 투쟁방법에 의하여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방침으로써 볼셰비크들이 쏘베트를 전취함과 쏘베트정부의 성원(成員)을 변경함에 성공
할수있음을 타산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물론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심할 것도 없이 독재를 보장함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의 준비를
엮게하였다. 그것은 이 계획이 멘셰비크들 및 에세르들을 집권자(執權者)의 자리에 세
워놓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실제(實際)에서 그 반(反)혁명적 정강을 실행하지 아니
치못하게하면서 그 당들의 정체(正體)의 폭로와 그들의 고립화와 대중으로부터의
그들의 분리를 촉진(促進)한 까닭이다. 그러나 볼셰비크들의 七月실책은 군벌적—가제르
적 반(反)혁명에 우세를 주고 그리고 에세르들 및 멘셰비크들을 그 반혁명성의 포용
(抱擁)에 내맡기면서 그 발전을 중단시키었다. 이 사정은 당으로 하여금 혁명이 새로
앙양되는 환경에서 다시 내세울 양으로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포어를 립시로
당면일정(當面日程)에서 제거하지 아니치 못하게 하였다.

프로일로보반란의 실패는 둘째 단계를 열여 놓았다.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포어
가 다시 당면일정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포어는 벌써 첫 단계에 있었던 그와 같
은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쏘베트
들은 그 대다수가 이미 볼셰비크들의 것이 되었음으로 이 포어는 제국주의와의 완전한 분렬

과 불셰비크들에게로의 주권의 이행(移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 포어는 폭동의 방법으로 혁명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포어는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조직과 및 그의 국가적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베트를 국가 주권의 기관으로 전환케한 그 전술의 극히 귀중한 의미는 그 전술이 수백만 근로대중을 제국주의로부터 분리시켰고 제국주의의 무기로서의 멘셰비크 및 세르브들의 당들의 명성을 손상시켰으며 그리고 대중을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로 말하자면 직통으로 인도한 데에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타협당들의 고립화와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승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의 소베트를 국가 주권의 기관으로 전환케하는 정책——이것이十月혁명준비시기에 있어서의 불셰비크들의 전술의 셋째 특수성이다.

셋째 특수성. 만일 우리가 어떻게 또한 무엇때문에 불셰비크들이 자기의 당의 포어들을 수백만 대중의 포어로, 혁명을 전진시키는 포어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는 것과, 어떻게 또한 무엇때문에 불셰비크들이 전위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또 노동계급의 다수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인민의 다수에 대하여서까지도 자기정책의 정당성을 확신케할 수 있었다는 문제를 해명하지 않는다면 전상이 충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만일 그 혁명이 참으로 수백만 대중을 포용하는 인민적인 혁명이라면——한갓 당의 포어들의 정당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또 한가지 필요한 조건이 요구되나니 그것은 즉 대중 그 자체가 자기들의 체현에 의하여 그 포어들의 정당성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때에야야 당의 포어들이

그 대중자신의 표어로 되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때에랴야만 혁명이 진정한 인민적 혁명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十月혁명의 준비 시기에 있어서의 볼셰비크들의 전술의 여러가지 특수성중의 그 하나는 대중을 자연적으로 당의 모든 표어까지 즉 말하자면 혁명의 문턱까지 이끌어가는 로선(路線)과 전환을 옮겨 규정하여 대중자체로 하여금 자기의 체험에서 그 표어들의 정당성을 쉽게 감각하며 경험하여보며 인식(認識)하게한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볼셰비크들의 전술의 여러가지 특수성중의 그 하나는 그 전술이 당에 대한 지도도를 대중에게 대한 지도와 혼동(混同)하지 않는것이요 첫종류의 지도와 둘째종류의 지도와의 사이에 있는 차이를 명확하게 보는것이요 그리하여 그 전술은 당에 대한 지도의 과학일뿐만 아니라 또한 수백만 근로대중에 대한 지도의 과학인것임에 있는것이다.

볼셰비크적 전술의 이 특수성을 표현하는 뚜렷한 실례는 헌법제정회의의 소집과 해산에 대한 경험이다.

볼셰비크들이 쏘베트공화국이라는 표어를 이미 一九一七년 四月에 내세운것은 다아는 바이다. 헌법제정회의가 쏘베트공화국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르쵸아적 국회의원것도 아아는바이다. 볼셰비크들이 쏘베트공화국을 목적하고 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헌법제정회의의 긴급소집을 임시정부에 요구한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볼셰비크들이 선거에 참가하였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헌법제정회의까지 소집하였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볼셰비크들이 폭동에 이르기 한달전에 낡은것으로부터 새것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쏘베트공화국과 헌법제정회의와의 일시적 결합의 가능성을 용허하였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다음과같은 이유에 의하여 「된」 일이다.

(一)、헌법제정회의의 사상은 광범한 주민대중속에서 가장 보편화된 사상중의 하나였고,

(二)、헌법제정회의의 긴급소집의 포어는 임시정부의 반혁명적 본성의 폭로를 쉽게 한 것이었고,

(三)、헌법제정회의의 사상을 인민대중의 눈앞에서 분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민중으로 하여금 로지, 평화, 쏘베트주권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그 인민대중을 헌법제정회의에 막 다다르게 하고 그리함으로써 그들을 실제적인, 목전에 있는 헌법제정회의와 상대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요,

(四)、다만 이렇게 함으로써만 헌법제정회의의 반혁명성과 그의 해산의 필요성을 대중으로 하여금 그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쉽게 깨닫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五)、이 모든 것은 헌법제정회의를 말할하는 수단중의 하나로써 쏘베트공화국과 헌법제정회의와의 일시적 결합을 용허할 가능성을 자연히 예측한 것이었고,

(六)、이러한 결합은, 만일 모든 주권이 쏘베트에 이전(移轉)된 조건하에서 실현되었다면, 그것은 즉 헌법제정회의가 쏘베트에 부속되며 쏘베트의 부속물로서의 그의 전환과 공통없는 그의 조락을 의미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

볼셰비크들의 이러한 정책이 없이는 헌법제정회의의 해산이 그렇게 순조(順調)롭게 진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후에 「모든 주권을 헌법제정회의에로!」라는 포어를 들고 나선에 세르들과 멘셰비크들의 진술이 그렇게나 요란스럽게 실패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해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一九一七년 九월—十一월에 로씨야 부르조아지의 국외인 헌법제정회의 선거에 참가하였다. 우리의 전술이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 : 一九一七년 九월—十一월에 우리 로씨야 볼셰비키들은, 국회제도가 로씨야에서 정례적으로 사멸되었다고 간주할 권리를 시방의 어떠한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가지지 않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았다. 왜 그리냐하면 원래 문제는 부르조아지의 국가가 존재한지 오래되거나 혹은 오래지 않다든가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이 쾨베르제도물 채용하려고함과 부르조아민주주의적 국회를 해산하려고함에 (혹은 그해상을 용허하려고함에) 일하나 준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되었는가 하는 데에 있는 까닭이다. 一九一七년 九월—十一월에 로씨야의 각도시의 노동계급과 군인 및 농민들이 여러가지 특수한 조건에 의하여, 쾨베르제도물 채용하며 가장 민주주의적 부르조아 국회를 해산하는데 대하여 비상히 준비되었던 그 사실은 전연 논쟁할 수 없는, 완전히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들은 헌법제정회의를 보이코트한 것이 아니라 프로테타리아트가 정치적 주권을 전취하기 전에나 또한 전취한 후에도 그의 선거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제二五권 二〇一—二〇二페이지를 보라)。

무슨 까닭에 그들은 헌법제정회의를 보이코트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해닝은 말하였다.

「심지어 쾨베르 공화국이 승리하기 몇주일 전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 승리가 있는 이후에 있어서도 부르조아민주주의적 국회에 참가하는 것은 혁명적 프로테타리아트에게 해독을 주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로혀 그로하여금 무슨 까닭으로 그러한 국회는 해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뒤따라진 대중에게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그 국회의 해산을 쉽게 성공케 하며 부르조아 국회제도의 『정치적 말살』을 쉽게 하여 주는 것이다」 (상동 참조)。

트로츠키가 쾨베르와 헌법제정회의와의 결합 (結合) 의 「리론」을 힐페르딩과의 리론이라 하고 코웃음을 하면서 볼셰비크적 전술의 이 특수성을 리해하지 못하는 것은 특징적이다.

헌법제정회의의 소집과 관련하여 폭동의 표어와 쏘베트의 승리가 유망(有望)한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결합을 용허하는 것은 힐페르딩과가 쏘베트를 헌법제정회의의 부속물로 변환하려는 전술과 아모 공동성이 없는 유일한 혁명적 전술임과 이 문제에 있어서의 몇몇동지들의 오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변합적 국가성」에 대한 해인과 당의 절대로 올은 입장을 비방할 아모 근거도 그에게 주지 않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제二一권 三三八페이지와 비교하라)。

그는 헌법제정회의와 관련하여 볼셰비크들이 취한 이 특수한 정책이 없이는 볼셰비크들은 수백만의 민중을 자기편으로 전취하지 못하였을 것이오 그 대중을 전취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十月폭동을 심각한 인민혁명으로 전취하지 못하였을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트로츠키가 심지어 볼셰비크들의 모든 문헌에 종종 보이는 「인민」, 「혁명적 민주주의」 등의 어구는 맑스주의자들에게는 타당치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코웃음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의심없는 맑스주의자인 해린이 심지어 一九一七년 九월에 즉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승리전 한달을 앞에 두고서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명도되는 혁명적 민주주의의 수중으로 모든 주권을 즉시 이전시키어야 할 필요성」(제二一권 一九八페이지를 보라)에 대하여 논술한것을 트로츠키는 아마도 잊어버린 모양이다。

의심없는 맑스주의자인 해린이 판로—군사적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은 대륙에 있어서의 온갖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맑스가 쿠겔만에게 쓴(一八七一년 四월) 유명한 편지를 인용하면서, 명백하게 쓴 다음과 같은 구절을 트로츠키는 아마도 잊어버린 모양이다。

「판로—군사적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은 「온갖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이 된다고한 맑스의 비참하게 의미심장(意味深長)한 지적은 특히 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민」혁명이란 이 개념이 맑스의 어구중에 있는 것은 이상한 듯하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자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스스로 무체의 후계자들인 토씨야의 불쾌하노브와 및 멘셰비크들은 맑스의 이 말을 아마도 「실인」이라고 성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맑스주의를 어떻게 변역한 자유주의적으로 약화하였는지 그들의 생각에는 부르조아혁명과 프로테타리아 혁명과의 대립의 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듯하였고 또한 그 대답까지도 그들에게는 극히 생기(生氣)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一八七一年에 구라파매복에서 한나타에서도 프로테타리아트가 인민의 다수가 되지 못하였다. 사실상 인민의 다수를 운동에 일으켜서 있는 「인민」혁명도 오직 프로테타리아트도, 농민도 다 망타(網羅)하고만 그만한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념이 곧 그때에 「인민」을 형성하였다. 「판로—군사적 국가기구」가 이들을 압박, 억압, 착취함으로써 인하여 이 두 개념은 결합되었다. 이 기구를 파괴하고 이것을 파괴하는 것——여기에 「인민」의, 인민 다수의 주동자 및 농민 대다수의 진정한 리해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빈농민과 프로테타리아트의 자유스러운 동맹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맹이 없이는 빈주주의는 든든치 못한 것이며 사회주의적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제二二권 三九五—三九六페이지를 참조하라)。

백년의 이 어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즉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당의 편으로 전취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그대중을 혁명적 진지애로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의 모든 포어의 정당성을 대중이 그 자체의 경험으로써 확신케하는 기능——이러한 것이 十월혁명의 준비시기에 있어서 불셰비크들의 전술의 빗췌특수성이다.

이 전술의 특수점을 명백히 알기 위하여서는 우에 말한 것으로써 아주 충분하리라 하고 나는 생각한다.

四、세계혁명의 시초 및 전제

조건으로서의 十월혁명

구라과의 주요한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동시(同時)에 승리한다는 일반적 이론과 한나라 안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은 인위적(人爲的)이오 또한 생령력 없는 이론이 된것은 의심할것도 없는것이다.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七년동안의 역사는 이 이론을 찬성하는것이 아니라 도로히 반대한다. 이 이론은 확연한 사실들에 모순되는것임으로 세계혁명발전의 도안으로서도 채용되지 못할것이다. 그는 더욱히 포어로서도 채용되지 못할것이다. 왜그러냐하면 그는 일정한 역사적 조건들에 기인(起因)하여 자본주의의 전선을 독자적으로 격파할 가능성을 얻게되는 각개의 나라들의 창발성(創發性)을 자유롭게 발전시켜주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속박(束縛)하는 까닭이오 또한 그는 각개의 나라들이 자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습격(襲擊)할것을 격려하는것이 아니라 「전세계혁명의 시초」의 모멘트를 소극적(消極的)으로 기대하게하는 까닭이오, 그는 각개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들의 사이에 혁명적 결단성의 정신을 배양(培養)하는것이 아니라 「별안간 다른 나라들이 후원하지 않으면 어쩔가」하는 하물레트적 회의(懷疑)적 정신을 배양하는 까닭이다. 레닌이 한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전형적의 경우」이오 「여러 나라에서의 동시적 혁명」은 다만 「드문례의 (例外)」라고 말한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제二三권 三五四페이지를 참고하라)。

그런데 아는바와같이 혁명에 대한 매년적 리론은 문제의 이 한방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와 동시에 세계혁명의 발전에 대한 리론인 것이다.*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자족적 과업이 아니다.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체를 자족적 단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와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하면 한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로씨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불균등적 발전과 날로 증대되는 그의 퇴폐(頹廢)의 산물일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세계혁명의 시초이며 전제조건인 까닭이다.

세계혁명의 발전의 도정은 그것이 이전에, 즉 한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게 되기전에,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로 되는 발전된 제국주의가 출현되기전에 생각하던 것과 같이 그 형제 단속한 것이 아님은 의심할 것도 없다. 왜 그러냐하면 발전된 제국주의 환경에서 작용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불균등적 발전 법칙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요인(要因)이 나타난 때문이니 이 법칙은 군사상 충돌의 불가피성과 자본의 세계 전선의 일반적 쇄락과 각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동양과 서양과의 사이에, 세계의 금융적 착취의 중심과 식민지적 압박의 무대와의 사이에 놓여 있으며 한갓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써도 전세계를 혁명화하는 거대한 소비트나라와 같은 이러한 새 요인이 나타난 때문이다.

* 이상 「매년주의 기초에 대하여」를 보라 — 이 • 스탈린.

이 모든 요인은(나는 다소간 중요성이 적은 요인들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다) 세계혁명의 발전도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참작(參酌)하지 않을수없는 그러한 요인들이다. 이전에는, 혁명은 사회주의의 모든 요소가 균등적으로 「성숙하여가는」 방도에 의하여 위전 일층 더 발달된 「진진」국들에서 발전되리라고 보통 생각하였다. 지금에와서는 이러한 관념은 본질적 변경을 요하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제관계의 체계는 지금 이렇게 조성되었다. 즉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에서 한나라가 전승(戰勝)한 국가들에게 정복되었으니 이것은 곧 독일이다. 그리고 여러국가들은 그중에서도 서방의 가장 오랜 나라들은 승리한 덕분에 그들은 그승리를 자국내의 압박당하는 계급에게 여러가지 중요치않은 양보를 하는데 이용할수있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여 있게되었는바 그양보는 어찌든지 그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을 지연(遲延)시키며 또한 「사회적 평화」 비슷한것을 지어놓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동양(東洋), 인도, 중국 및 기타 여러나라는 실로 최근의 제국주의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정상적 궤도(軌道)로 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 그들의 발전은 중국적으로 일반적 구라파 자본주의의 균준을 따라서 나가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전구라파적인 동요(動搖)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은 전세계 자본주의의 위기(危機)에 이르지않게 할수없는 그러한 발전에 고을러 들어간것은 지금 전세계에서 다 아는바이다」.

이러한 까닭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구라파의 자본주의 나라들은 사회주의에로의 그의 발전을 이진에 우리가 기대하곤바와는 다르게 완성할것이다. 이 나라들은 이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균등적 「성숙」으로써가 아니라 할부의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착취로써, 전동양에 대한 착취와 연결된, 제국주의전쟁당시에 패전당한 나라들중의 그 첫 나라에 대한 착취로써 사회주의에로의 발전을 완성하고있다. 그리고 다른편으로는 동양은 실로 이제 一차 제국주의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적으로 혁명운동에 인입되었으며 또한 중국적으로 전세계 혁명운동의 전반적 와중으로 인입되었다」 (제二七권 四一五—四一六페이지를 참조하라)。

만일 이에 전패(戰敗)한 나라들과 식민지들만이 전승국(戰勝國)들에게 착취를 당할뿐만 아니라 전승국들의 일부도 가장 강력한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의 금융적 착취의 권내에 빠져있는 사실, 이 모든 나라들 사이의 여러가지 모순이 세계 제국주의의 붕괴(崩壞)의 가장 중요한 요인(要因)으로 되고있는 사실, 이 여러가지 모순이외에도 이 나라들의 내부에서 극히 심각한 다른 여러가지 모순이 존재하며 더욱 발전되고있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모순이 이 나라들과 린접(隣接)한 위대한 쏘베트 공화국이 존재하는 사실로써 더욱 심각하여지며 날카로워지는 그 사실을 첨가(添加)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것에 주의를 돌린다면 국제정세의 특수한 전상은 다소간 원만하게 될 것이다.

필경 세계혁명의 발전은 새로 여러나라들이 제국주의 체계로부터 혁명적으로 분리(分離)되는 방법으로 실시될러인바 이 새로 분리된 나라들의 프로테타리아트를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프로테타리아트가 지지하여줌에서 진행될것이다. 처음으로 분리된 나라, 처음으로 승리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로동자 및 근로대중의 지지를 벌써 받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고있다. 그런 지지가 없이는 그나라는 지속하여갈수 없었을것이다. 이 지지가 더 강력하여질것이고 더 장성될것은 의심할 여지가없다. 그리고 세계혁명의 발전자체는, 새로 여러나라들이 제국주의로부터 분리되는 그행정(行程) 자체는, 처음 승리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더욱 전고하게 강화하여결투를, 또한 그나라가 세계혁명을 앞으로 더 전개하는 근거지로서 제국주의를 앞으로 더 붕괴시키는 공간으로 일층 더 신속하게 전환될수록 더욱 신속하고 전설하게 진행될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이다.

만일 몇나라 프로테타리아트의 일치협력 없이는 처음 해방된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종국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명제(命題)가 옳다고한다면 이여의 여러 나라들의 노동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첫 사회주의나라의 방조가 실제적일수록 세계혁명은 더 신속하고 더 절실하게 전개되리라라는 것도 역시 그만큼 옳은 것이다.

이 방조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그것은 승리한 나라가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며, 분기(奮起)시키기 위하여」 한 나라 안에서 실현할만한것을 최고한도로 실행하는」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레닌 제二三권三八五페이지를 참조하라)。

둘째로, 그것은 한나라에서 「승리한 프로테타리아트는」 「자본가들을 수탈하고 자국내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여가지고 다른나라들의 압박받는 계급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며 그들의 나라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심지어 무력으로까지도 착취계급들과 및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진출하면서 이여의, 자본주의적 세계를 반대하여 쫓아갈것」에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제一八권 二三二—二三三페이지를 참조하라)。

승리한 나라의 측으로부터 주는 이러한 방조의 특성은 그가 다른 나라들의 프로테타리아승리를 촉진(促進)하는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그 승리를 쉽게하여주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승리한 나라안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필경 세계혁명의 발전행정에서, 각개의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는 제국주의의 근원지 및 전세계를 통한 그들의 제제와 아울러 각개의 쏘베트나라안의 사회주의 근원지와 또한 전

세계를 통한 그의 체제가 생겨나올 것인바 이 두 체제사이의 투쟁이 세계혁명 전개의 역사적 내용을 채우게 될 것이다.

왜 그러하냐면 「사회주의적 공화국들이 뒤따라진 여러 국가들과의 다소간 장구하고 또한 꾸준한 투쟁을 할 것이 없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여러 민족의 자유로운 연합은 불가능한 까닭이다」(상동)고 레닌은 말하였다.

十月혁명의 세계적 의의는 그가 제국주의 체제를 돌파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나라의 위대한 시초가 되며 제국주의적 여러나라의 대양(大洋) 중에서 사회주의의 첫 근원지가 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는 세계혁명의 첫 단계이며 또 그 혁명을 앞으로 더 전개시키는 강력한 근거지가 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十月혁명의 국제적 성질을 잊어버리고 한나라안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순전히 일국적 오직 일국적 현상이라고 선언하는 자들만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한 十月혁명의 국제적 성질을 기억하면서도 이 혁명을 다만 외부의 지지를 받을 운명만 가진 그 어떤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도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 十月혁명만이 다른 여러나라 혁명의 지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의 혁명도 세계 제국주의를 전복하는 사업을 촉진하며 전진시키기 위하여 十月혁명의 지지를 요하는 것이다.

一九二四년 十二月 十七日.

레닌주의 제문제에 관하여

전련명공산당 (불셰비크) 레닌그라드 당단체에 드림

이 • 쓰딸 린

一、레닌주의의 정의

「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라는 소책자에는 레닌주의에 대한 주지의 정의(定義)가 내리워져있는바 그 정의는 일반이 다 공인하는듯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시대의 맑스주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전술이요 특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이론과 전술이다」.

이 정의가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옳음은 첫째로, 이 정의가 레닌주의는 제국주의 전쟁 후에 생기었다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약간의 레닌의 비판자들과는 반대로, 레닌주의를 제국주의시대의 맑스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그의 역사적 근거를 옳게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정의는 레닌주의를 다만 로씨야 한나라의 환경에서만 적용할수 있는것이라고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는 반대로, 레닌주의의 국제적 성질을 옳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옳은것이다. 셋째로, 이 정의는 레닌주의를 맑스주의의 계속적 발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맑스주의를 부활시킨 것이요 또 그를 로씨야의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만 인정하는 약간의 레닌주의 비판자들과는 반대로, 레닌주의를 제국주의 시대의 맑스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레닌주의와 맑스의 학설과의 유기적(有機的) 연락을 옳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해설을 요구치 않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내에는 레닌주의를 좀 다르게 정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노비예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 전쟁과 농민이 다수되는 나라에서 직접 시작된 세계혁명의 시대의 맑스주의다」.

지노비예프가 강조한 어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레닌주의의 정의에 로씨야의 라후성과 그의 농민성을 곁여 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레닌주의를 국제주의적 프롤레타리아 학설로부터 로씨야 독자성(獨自性)의 산물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으로 비교적 더 발전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레닌주의의 적응성을 부인하는 바우에르와 카우츠키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민 문제가 로씨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나라가 농업국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바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레닌주의의 기초를 규정하는데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레닌주의는 다만 로씨야의 토대 위에서만 또한 로씨야를 위하여서만 조성된 것이고, 제국주의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제국주의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서 조성된 것은 아니겠는가? 「자본주의의 최고계단인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프로테타리아혁명과 반역자 카우즈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등과 같은 레닌의 저서들은 다만 로씨야에 대하여서만 의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아무 의의도 가지지 아니하였는가? 레닌주의는 모든 나라들의 혁명운동의 경험을 종합(綜合)한 것이 아닌가? 레닌주의의 이론과 전술의 기본은 모든 나라들로테타리아트당에 적용되지 않거나 필수적이 아니겠는가? 「불웨이즘은 세계각국에 있어 전술의 포본으로서 적용된다」(제二三권 三八六페이지를 보라)라고 말한 레닌이 옳지 않다는 말인가? 「제二五권 一七一——一七二페이지를 보라」에 대하여 말한 레닌이 옳지 않다는 말인가? 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이 옳지 않다는 말인가?

「로씨야에 있어서의 프로테타리아트독재는 우리나라의 심한 낙후성(落後性)과 소부르조아적 성질로 말미암아 선진국들에 비하여 불필요 약간의 특수성으로써 반드시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역량——그리고 사회경제의 기본적인 형태도——은 로씨야에 있어서도 임의의 자본주의적 나라에서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특수성은 다만 가장 주요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만 말할 수 있다」* (제二四권 五〇八페이지를 보라)。

그런데 만일 이 모든 것이 옳다면, 여기로부터 지노비예프가 규정한 레닌주의의 정의를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겠는가?

일국적(一國的)으로 국한된 레닌주의에 대한 이 정의를 어떻게 국제주의와 상용시킬 수가 있겠는가?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판 권。

二. 레닌주의에 있어서의 주요한 것

『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라는 초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자들은 레닌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것은 농민문제이고 레닌주의의 출발점은 농민, 그의 역할, 그의 비중(比重)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연 옳지 못하다. 레닌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그의 출발점은 농민문제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한 문제이며, 그것을 전취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 그것을 토론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이다. 주권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에 있어서 그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의 농민문제는 파생적(派生的) 문제인것이다」.

이 명제(命題)가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 명제는 전체로 레닌주의에 대한 정의에서 나오는것이다. 사실상 만일 레닌주의가 프로레타리아혁명명의 이론이며 전술이요 그리고 프로레타리아혁명명의 기본적 내용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한다면 레닌주의에 있어서의 주요한것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문제에, 그 문제의 구명(究明)에, 그 문제의 론증과 구체화에 있는것임은 명백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노비예프는 아마도 이 명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듯하다. 그는 「레닌에 대한 추억」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민 역할에 대한 문제는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본래비중, 레닌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쓰한 린.

지노비에브의 이 명제는 보는바와 같이 전체로 레닌주의에 대한 지노비에브의 옳지 못한 정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주의에 대한 그의 정의가 옳지 못한 것과 같이 이 명제는 역시 옳지 못한 것이다.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가 「프로테타리아혁명」의 근본적 내용이다」(제二三권 三三七페이지를 참조)라고 한 레닌의 해제가 옳은가? 물론 옳은 것이다. 레닌주의는 프로테타리아혁명의 이론이며 전술이라고 한 해제가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로부터는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문제가 레닌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이며 그의 출발점이오 그의 기초라는 결론이 나온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 제국주의 발전의 비약성에 대한 문제,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 프로테타리아트 국가에 대한 문제, 그 국가의 쏘베트적 형태에 대한 문제,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체제에 있어서의 당의 역할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 건설방법에 대한 문제——이 모든 문제들이 실로 레닌에 의하여 구명되었다는 것이 옳지 않은가? 바로 이 문제들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사상의 기초로 되며, 토대로 된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근본문제들을 구명함이 없이는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의 전지로서의 농민 문제의 구명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 옳지 않은가?

레닌이 농민문제에 대하여 정통(精通)하였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농민문제가 프로테타리아트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로서 프로테타리아트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이고 또한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 구성부분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만일 레닌주의의 앞에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되

지않았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에 대한 파생적 문제인 농민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만일 페닌주의의 앞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전취에 대한 실체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농민과의 동맹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만일 페닌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이론과 전술의 토대에 의거하지 않고서 또한 이 토대를 제외하고 이 토대의 밖에서 농민문제를 구명하였다면 그는 위대한 프로레타리아적 사상가일 것이 아니라 (그는 의심할 것도 없이 위대한 프로레타리아적 사상가이다) 외국 수학배(俗學輩)들이 자조 그쳐대는 것과 같이 단순한 「농민철학가」이었을 것이다.

두가지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즉

혹은 페닌주의에 있어서의 주요한 것이 농민문제라면 페닌주의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 즉 농업국이 아닌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못하며 또한 필수적인 것으로 되지 못할 것이다.

혹은 페닌주의에 있어서의 주요한 것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라면 페닌주의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들도 포함하여 제외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또한 필수적인 것이 되는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학설로 되는 것이다.

이에서 그 어느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三、「영속」혁명에 대한 문제

「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라는 소책자에는 「영속 혁명의 리론」은 농민의 역할을 파소평가하는 「리론」으로 평가되어있다. 거기에는 다음과같이 말하였었다.

「원래 레닌 그 자신이 부단적 혁명의 견지에 서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부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영속」혁명의 찬동자들과 싸운것이 아니라 그들이 프로테타리아트의 가장 위대한 후비군인 농민의 역할을 파소평가하였기 때문에 싸운것이다」.

로씨야의 「영속 혁명론자」에 대한 이평가는 최근까지 공인된것이였다. 그런데 이평가가 일반적으로 옳은것이면서도 그래도 충분히 논진한것이라고는 인정될수없는것이다. 한편으로는 一九二四년의 논쟁과 또 다른편으로는 레닌의 저서에 대한 신중한 분석은 로씨야 「영속 혁명론자」의 과오가 다만 농민의 역할에 대한 파소평가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농민을 자기의 뒤에 끌고 나가는 프로테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파소평가와 프로테타리아트 세계모니의 사상에 대한 불신(不信)에 있다는것을 보이어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十月혁명과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라는 나의 소책자(一九二四년 十二月)에서 그 평가를 확대하였고 그리하여 그것을 더욱 완전하게된 다른것으로써 바꾸었다. 그 소책자에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지금까지는 보통으로 「영속 혁명」론의 한방면 즉 농민운동의 혁명적 가능성을 믿지않는것을 지적하여 왔다. 이제는 분명케하기 위하여 이방면에서 로씨야 프로테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않는 그 다른방면을 보충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이것은 헤닌주의가 十九세기의 四十년대에 맑스에 의하여 선언된 본의미대로의 영속 혁명의 사상에 대립하였었다거나 또는 대립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헤닌은 영속 혁명의 사상을 옳게 이해하여 발전시킨 유일한 맑스주의자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영속 혁명론자」와 헤닌의 차이점은, 「영속 혁명론자」는 맑스의 영속 혁명의 사상을 생명(生命) 없는 서적상의 지혜(智慧)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의곡하였음에 반(反)하여 헤닌은 그 사상을 순수한 형태로 취하여 자기의 혁명론의 기본중의 하나로 맺는데 있는것이다. 이미 一九〇五년에 헤닌이 내놓은 부르조아민주주의적 혁명의 사회주의적 혁명론으로의 성장전화의 사상은 영속 혁명에 대한 맑스의 이론을 체현하는 형태중의 하나인것임을 기억하여야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헤닌은 이미 一九〇五년에 다음과같이 썼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혁명에 따라서, 의식적 및 조직적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적 혁명으로 즉시 넘어가기 시작할것이다. 우리는 부단적 혁명의 주장자다.* 우리는 중도에서 멈추지 아니할것이다.」

도침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의 과학적 양심에 배반하지 않으면서, 값싼 혁명을 추구(追求)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만 한가지만을 말할수있으며 또한 말하는것이다.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인 우리는 새롭고 또한 고도한 임무인 사회주의혁명으로 일출할게 될수있는대로 속히 넘어가기 위하여서, 민주주의적 혁명을 수행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모든 능민에게 조력하여 줄것이다」(제八권 一八六—一八七페이지를 보라)。

헤닌은 그후 十六년을 지나서, 즉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전취한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썼다.

• 망침은 나의것——이·쓰만틴。

「카우조키파, 힐페르딩파, 마르토프파, 제르노프파, 힐쿠위트파, 롬제파, 막도날드파, 루타티파 및 기타의」
 二半(半)「삼스주의의 영웅들은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과 프로테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의 호상판계를 리해하
 여 내지 못하였다. 전자는 후자로 성장전화한다.* 후자는 그 경과중에 전자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 후자는 전자
 의 사업을 문튼케 하여 준다. 루쟁, 오직 루쟁만이 어느정도 후자가 전자를 전화케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二七권 二六페이지를 보라)。

나는 一九〇五年 九月一日에 발표된 「농민운동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태도」라는 레
 닌의 논문에서 인용한 첫째 인용문에 특별한 주의를 돌린다. 나는, 레닌이 제국주의 전쟁이
 후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적 혁명에로의 성장전화의 사상, 즉 영속 혁명의 사상에
 도달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냥 주장하고 있는 그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것을 특히 강
 조한다. 이 인용문은 그자들이 깊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한다.

四、프로테타리아 혁명과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

부르조아혁명과는 다른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특수점은 어디에 있는가?
 부르조아혁명과 프로테타리아 혁명과의 차이는 다음의 다섯가지 기본적인 조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一)、부르조아혁명은 보통 공연(公然)한 혁명이 있기전에 봉건사회의 품속에서 자랐
 고 또한 성숙된바의 다소간 거성된 자본주의적 구조의 형태가 현존한데서 시작되는 것임

에 반(反)하여 프로테타리아 혁명은 기성된 사회주의적 구조의 형태가 없다거나 혹은 거의 없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二)、부르조아 혁명의 기본적 임무는 주권을 전취하여서 그 주권을 현존하는 부르조아 경제 제에 적응(適應)시키는 데 있음에 반하여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기본적 임무는 주권을 전취하여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를 건설하여 놓는 데에 있는 것이다.

(三)、부르조아 혁명은 보통 주권을 전취하는 것으로써 완성되는 것임에 반하여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있어서는 주권을 전취하는 것은 다만 그의 기초일 따름일 것이요 그리고 그 주권은 남은 경제를 개조하고 새 경제를 조직하기 위한 공간(槓杆)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四)、부르조아 혁명은 한 착취그루파의 주권을 다른 착취그루파의 주권으로 바꾸어 놓는 데 국한(局限)하는 것이므로 남은 국가기구의 파괴를 요구하지 않음에 반하여 프로테타리아 혁명은 모든 또한 온갖 착취그루파를 주권으로 부러 배제하고 모든 근로자들과 착취받는 자들의 수평인 프로테타리아 계급을 주권에 세우는 것이므로 그는 남은 국가의 기구를 파괴하고 새 국가의 기구로써 그것을 바꾸어 놓음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五)、부르조아 혁명은 수백만의 근로자 및 착취받는 대중을, 실로 그들이 근로자이오 착취받는 자들인 까닭에 부르조아지의 주위에 다소간 장기간이라도 계속하여 낼 수 없음에 반하여 프로테타리아 혁명은 만일 그가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을 튼튼케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의 건설을 완성하는 그 근본 과업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실로 근로자이오 착취받는 자들로서의 그들을 장구한 동맹으로써 프로테타리아트와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결합시키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레닌의 약간의 기본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다.

「부르조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과의 기본적인 차이 중의 하나는 봉건제도로부터 자라나는 부르조아 혁명에 있어서는 봉건 사회의 각 방면을 점차로 변경시키는 체계적 조직이 구체도의 폭속에서 점차로 생겨나오는 것이다. 부르조아 혁명의 앞에는 다만 이전 사회의 모든 권위(權威)를 내어던지고 쓸어버리고 파괴하는 한가지의 임무만이 서있는 것이다. 이 임무를 실행함으로써 모든 부르조아 혁명은 그에게 욕구(慾求)되는 모든 것을 다 실행하는 것이다. 그 혁명은 자본주의의 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전혀 다른 상태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굴곡(屈曲)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하게 된 나라가 일층 뒤떨어진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밝은 자본주의적 관계로부터 사회주의적 관계로 넘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는 파괴의 임무에 미증유(未嘗有)의 난관을 가진 새 임무 즉 조직적 임무들이 첨부되는 것이다」(제二二권三一五페이지를 보라)。

레닌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공은 수백만명을 포함한 운동의 기성된 조직적 형태의 현존여부에 달렸던 것이므로 만일 一九〇五年의 위대한 정열을 겪어온 로씨야 혁명의 인민적 창조력(創造力)이 이미 一九一七년 二월에 쓰베트를 조직하지 않았다면 그 쓰베트는 결코 十月에 주권을 잡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기성된 형태는 즉 쓰베트이었다. 그리하였으므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그 머리가 지니는 몇몇 성공과 우리가 체험하였던 그 연속적(連續的) 개선행진이 우리를 기대하였다. 왜그러냐하면 정치적 주권의 새 형태가 기성되어있는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쓰베트 주권을 그가 혁명의 첫 몇달 동안에 처하여 있게되었던 그러한 태아적 상태에서 다만 몇개의 법령으로써 로씨야 국가에서 법적으로 승인되어 확립된 형태 즉 로씨야 쓰베트공화국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이다」(제二二권三一五페이지를 참조)。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직도 거대한 난관을 가진 두가지 임무가 남아있었다. 이 임무들의 해결은 결코 첫 몇달간에 우리의 혁명이 지내는 그러한 개선행진(凱旋的行進)으로 될수 없는 것이다」(상동三一五페이지를 보라)。

「그것은 첫째로, 어떠한 사회주의혁명의 앞에든지 계기되는 내부적 조직에 대한 임무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이 부르조아혁명과 다른것은 실로 부르조아혁명에서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기성된 형태들이 있지만은 쓰베르주권 즉 프로테타리아주권은 만일 사실상 공업의 얼마안되는 상부만을 포함하였고 아직 농업에는 극히 적게 들어간바의 자본주의의 가장 발달된 형태를 취하지않는다면 그러한 기성(既成)된 관계를 받지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통계를 조직하는 것, 대규모적 기업소를 통제하는 것, 전국가적 경제적 기구를 유일한 큰 기계로 수의한 인간들이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지도를 받게되도록 동작하는 그러한 경제적 유기체(有機體)로 전환시키는 것——이것이 우리의 의개에 지위전 거대한 조직적 임무이다. 이 임무는 현하의 로동조직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내전쟁의 임무를 해결하여낸것처럼 그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내다라 가는식의 해결은 결코 용허하지 않는 것이다」(상동三一六페이지를 보라)。

「거대한 난관중의 둘째것은: 국제적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제렌쓰개의 반도(叛徒)들을 정복하였고,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에서 주권을 수립하였고, 조그마한 곤난도없이 토지의 사회화와 및 로동자통제(統制)에 대한 법령을 실시하여내었다면, 만일 우리가 이 모든것을 그렇게 쉽게하여내었다면 그것은 다만 다행으로 당시에 잘 조성된 그 여러가지 조건이 국제적 제국주의로부러 우리를 단기간 비호(庇護)하여준 까닭이었다. 자본의 모든 위력을 가지고있으며, 국제자본의 진정한 세력이고 진정한 요색이 되는 고도로 조직된 군사상기술을 가지고있는 국제제국주의는 그 자체의 객관적 처지로 보아서나 그에 체현(體現)된 자본계급의 경제적 리해관계로 보아서나, 또한 상업적 전략과 국제적 금융적 리해관계에 의하여서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치나 또는 어떠한 조건하에 있어서나 쓰베르주권과 사이 좋게 살수없는 것이다. 이에있어서 총들은 피할수없는 것이다. 여기에 혁명의 최대의 난관과 그의 최대한 역사적 문제, 즉 국제적 임무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필요, 국제적 혁명을 반드시 환기(喚起)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제二二권三一七페이지를 보라)。

이러한것이 프로테타리아혁명의 내부적 성질이오 기본적 의의인것이다。

폭력적 혁명이 없이, 프로테타리아트독재가 없이 남은 부르조아질서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개조를 수행하여낼수 있을가?

수행하여 별 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혁명을, 부르조아지의 통치에 적합하게 하여 놓은 부르조아적 민주주의의 범위 안에서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신하여서 정상(正當)한 인간적 리해력을 잃어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우직하게 또는 로골적으로 거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적대적 자본주의적 여러 나라에 아직 포위되어 있는 한 나라에서, 국제적 자본이 그 한 나라의 부르조아지를 지지하여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나라에서 승리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있게 또한 단호하게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실로 이러한기 때문에 해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압박계급의 태방은 폭력적 혁명이 없이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치계급이 만들어 놓은 기관을 박멸함이 없어도 될 수 없는 것이다」(제二권 三七三페이지를 보라)。

「사유재산제도의 존재하에서라도 즉 자본의 주권 및 그의 압박의 존재하에서라도 주민의 다수가 우선 프로레타리아트 당을 찬성하고 하여라——다만 그때에 타야만 프로레타리아트 당은 주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요 또는 잡아야 되는 것이다」고 「사회주의자」로 자칭하면서 실상인즉 부르조아지의 총독인 소부르조아민주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다」*(제二四권 六四七페이지를 보라)。

「혁명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우선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고 자본의 압박을 타파하고 부르조아지의 국가기관을 파괴하고 하여라——그때에는 승리를 얻은 프로레타리아트는 착취자들을 회생시켜 비(非)프로레타리아 근로 대중의 다수를 만족시키면서 그들의 동정과 지지를 신속히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고 우리는 말한다.」*(상동)。

해닌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정은 나의 것——이 • 스 탈 연。

「프로테라리아트는 주된의 다수를 자기편으로 전취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고 국가 주권을 자기의 수중에 잡아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그는 반드시 낮은 국가 기구를 분쇄하고 소비트주권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므로써 그는 즉시 비(非)프로테라리아적 근로대중층의식의 부르조아지 및 소비트조아타협자들의 지배, 권위, 영향을 말살시킬 것이다. 셋째로, 그는 반드시 착취자들을 회생시켜 비(非)프로테라리아 근로대중의 다수의 경제적 요구에 관한것을 혁명적 방법으로 실현시키므로써 그들에 대한 부르조아 및 소비트조아적 타협자들의 영향을 철저하게 깨트려버려야 할 것이다」(상동 六四一페이지를 보라)。

이러한 것이 프로테라리아 혁명의 특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만일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가 프로테라리아 혁명의 기본적 내용인 것이 승인되었다면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의 기본적 특징들은 어떠한 것인가?

데인이 내린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가장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계급투쟁의 종결인 것이 아니라 재형태로서의 계급투쟁의 계속이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승리한 또는 자기의 수중에 정치적 주권을 잡은 프로테라리아트가 부르조아지를 즉 패배를 당하였으나 그러나 박멸되지 않았으며 소멸되지 않았고 반항을 정지하지 않고 그 반항을 강화하는 부르조아지를 반대하여 행하는 계급투쟁이다」(제二四권 三一—페이지를 참조하라)。

데인은 프로테라리아트 독재를 「전인민적」 및 「보통선거적」 주권, 「비계급적」 주권과 혼동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의 수중에 정치적 통치권을 잡은 그 계급은 그 주권을 단독으로 * 잡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잡았다. 이것이 프로테라리아트 독재라는 개념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은 오직 한계급이 그가 단독으로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달린。

로 자기의 주중에 정권을 잡는다는 것과, 그리고 『전인민적, 보충적, 모든 인민에게 의하여 신성화된』 주권이라는 잡담(雜談)으로써 자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그때에랴야만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
(제二六권 二八六페이지를 보라)。

그러나 이것은 한계급의 주권 즉 다른 계급들과 그것을 나누지도 않으며 또한 나누지도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주권이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들의 근로자 및 피착취 대중들의 도움을 요하지 않거나 그들과의 동맹을 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반대로 한계급의 주권인 이 주권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소부르조아 계급의 근로대중,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농민대중과의 동맹의 특수한 형태의 방법으로 전고하게 될 수 있으며 끝까지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동맹의 특수형태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데 있는가? 비(非)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다른 계급의 근로대중과의 이 동맹은 대체로 한계급의 독재란 사상에 모순되지 않는가?

그렇지는 즉 동맹의 이 특수형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동맹의 지도적 세력이 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즉 동맹의 이 특수형태는 다른 당들과 평도권을 나누지 않고 또한 나누지도 없는 한당 즉 프롤레타리아트당인 공산주의자들의 당이 국가의 지도자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체제하에 있어서의 지도자가 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에 있어서의 모순은 오직 외관상(外觀上)으로 그럴듯이 생각되는 모순일 따름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테타리아트독재는 근로자들의 전위인 프로테타리아트와 수다한 비프로테타리아적 근로자들(소부르조아지, 소정영자, 농민 및 인테리겐차 등)과의, 혹은 그들의 다수와의 계급적 동맹, 즉 자본을 반대하는 동맹, 자본의 완전한 전복과 부르조아지의 반항 및 부르조아지측으로 부터의 복구에 대한 시도의 완전한 전압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 사회주의의 종국적 확립과 공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급적 동맹의 특수한 형태인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환경에서 즉 맹렬한 국내전쟁의 환경에서 조성되는 특수 형태의 동맹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확고한 옹호자들과 동조하는 동맹자들과의, 때로는 『중립자』들(이러한 때에 있어서는 동맹은 두쟁에 대한 협정으로부터 중립에 대한 협정으로 된다)과의 동맹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동일하지 않은 계급들 사이의 동맹인 것이다』* (제二四권三一—四지를 보라)。

까메네브는 그의 훈시보고중의 어느한 보고에서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해하는것을 논박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독재는 한계급과 다른 계급과의 동맹이 아니다』*。

까메네브는 이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十月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라는 나의 소책자에 있는 한구절을 넘누에 두고 말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소책자에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는 『정렬있는 전락가』의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수완으로써 『교묘하게』 『선택』되었고 주민의 이런 혹은 저런층에 『명리하게 의거하는』 단순한 정부적 수회부가 아니다。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는 프로테타리아트가 동맹의 지도적 세력이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자본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는, 프로테타리아트와 근로농민층과의 계급적 동맹인것이다』。

* 방점은 나의것——이 스탈린。

나는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이 정의물 전적으로 지지한다. 왜 지지하는가 하면 이 정의는 우에 방금 인용한 레닌의 정의와 전혀 또한 완전하게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독재는 한계급과 다른 계급과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이와같은 오류없는 형식으로 서 내어놓은 까메네브의 설명은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레닌적 이론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결합의 사상, 즉 프로테라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의 사상과 이 동맹에 있어서의 프로테라리아트의 해제모니의 사상을 리해치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다음과 같은 레닌의 태제를 리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 것이다.

「아직 다른 나라들에 혁명이닥쳐오기전까지는 오직 농민과 협조하는것만이*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구현할수 있는것이다」(제二六권 二三八페이지를 참조하라)。

다음과같은 레닌의 명제를 리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이다.

「독재의 최고 원칙* — 이는 프로테라리아트가 지도적 역할과 국가 주권을 유지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 프로테라리아트와 농민의 동맹을 지속(持續)하여나가는것이다」(상동 四六〇페이지를 보라)。

레닌은 독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중의 하나인 착취자들을 진압할 목적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 방점은 나의것 — 이 • 스탈린。

「독재의 과학적 개념은 곧 아무것으로도 제한되지 않고 어떠한 법률에나 어떠한 규준에 절대로 구속되지 않고 직접 폭력에 의거하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제二五권 四四一페이지를 참조하라)。

「독재는 법률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거하는 무제한(無制限)한 주권을 의미하는 것임을 뫼턴킨주당의 작하를이며, 일제생 활 알아두어라. 국내전쟁당시에 있어서는 승리를 얻은 주권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두재로만 될수 있는 것이다」(제二五권 四三六페이지를 참조하라)。

비록 폭력이 없이는 독재가 없는 법이지만은 그리나 폭력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의 전부가 아닌것은 물론이다。

헤넨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독재는 비록 그가 폭력이 없이는 될수없는 것이지만은 그는 오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이전의 로동조직보다 더욱 높은 로동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제二四권 三〇五페이지를 보라)。

「프로테타리아트독재는 다만 착취자들에게 대한 폭력만이 아니며 또한 주로 폭력인것도 아니다. 이 혁명적 폭력의 경제적 기초와 그의 생활력 및 성공의 보장은 프로테타리아트가 자본주의에 비하여 사회적 로동조직의 더욱 높은 형식을 대표하며 또한 이를 실현하는 그것이다. 요점은 이에 있다. 이에 힘의 원천(源泉)과 공산주의의 원천적인 완전한 승리의 보장이 있다」(제二四권 三三五—三三六페이지를 보라)。

「그의(즉 독재의——이·쓰탈린) 주요한 본질적인것은 근로자들의 선진부대이요 그의 전위이며 그의 유일한 지도자인 프로테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규율성에 있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사회주의전선, 사회의 계급분리의 절멸, 사회의 전 성원(成員)을 근로자가 되게 하는 것, 사람에게 대한 사람의 온갖 착취의 근원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단번에는 실현할수 없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상당히 오랜과도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생산의 재조직이란 어려운 일인 까닭이요 생활의 모든 부문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까닭이며 스스로조아 및 부조조아적 경영에 대한 습관의 그 큰힘은 오직 강구하고 꾸준한 투쟁을 거쳐서야만 극복될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맑스는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시기의로서의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전(全)시기가라고까지 말하였다」(상동 三一四페이지를 참조하라)。

이러한 것이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특징들인 것이다.

이에서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세가지 기본적 방면이 생기게 된다.

(一)、착취자들의 진압과 국가의 방위와 다른 나라의 프로테타리아트들과의 연결의 공고와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의 발전 및 승리를 위하여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을 리용하는 것.

(二)、부르조아지로부터 근로자 및 피착취 대중의 종국적 분리, 그 대중과 프로테타리아트와의 동맹의 공고화,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로의 그 대중의 인입과 그 대중에 대한 프로테타리아트의 국가적 지도를 하기 위하여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을 리용하는 것.

(三)、사회주의의 조직과 계급의 질멸과 무계급적 사회, 사회주의적 사회에로의 파도를 위하여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을 리용하는 것.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는 이 세가지 방면을 다 결합(結合)한 것이다. 이 방면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유일한 특징으로써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이 세가지 특징중에서 하나이라도 빠진다면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는 자본주의 포위의 환경에 있어서의 독재로 되지 못하기에 녀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 방면중에서 한 가지만 제거되어도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개념을 의곡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오직 이 세가지 방면을 한데 합쳐놓은 것만이 우리에게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원만하고 또한 완성된 개념을 주는 것이다.

프로테타리아트독재는 그의 여러가지와 그의 특별한 형태와 사업상의 여러가지의 사업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전쟁의 시기에는 독재의 폭력적 방면이 특히 눈에 띈다. 그러나 이렇다고 국내전쟁시기에는 아무런 건설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전설사업이 없이는 국내전쟁의 진행은 불가능한것이다. 사회주의의 전설기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독재의 평화적, 조직자적, 문화적 사업과 혁명적 법령등이 특히 눈에 띈다. 그러나 이렇다고 독재의 폭력적 방면이 전설기에는 없었거나 혹은 없어질수있다고하여서는 또한 안될것이다. 전압기관, 군대 및 기타 조직체들은 국내전쟁 시기에서와같이 전설기인 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것이다. 이러한 기관이 없이는 다소간이라도 보장된 독재의 전설사업은 불가능한것이다. 혁명이 오직 한나라 안에서만 승리한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아직 자본주의적 포위가 있는 동안에는 무장간첩의 위험과 이 위험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도 있을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五、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체계에

있어서의 당과 노동계급

나는 위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역사적 불가피성의 전지에서, 그의 계급적 내용의 전지에서, 그의 국가적 본성의 전지에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로부터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라고 칭하는 전(全) 역사적 시기에 걸쳐서 실행되는 그의 파괴적 및 창조적 임무의 전지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구성의 전지에서, 그의 「기구(機構)」의 전지에서, 「인전대(引傳帶)」, 「공간」 및 「향도력」(向導力)——이들의 총체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체제」(헤닌)를 이루며 이들의 도움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일상적 사업이

실현되는바인——의 역할과 의의의 전지에서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하여 논술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체계에 있어서의 「인전대」 혹은 「공간」이란 무엇인가? 「향도력」이란 무엇인가? 무엇때문에 이들이 필요하게 되는가?

공간 혹은 인전대——이는 곧 프로테타리아트의 대중적 조직체들이니 그들의 도움이 없는 이는 독재를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향도력——이것은 프로테타리아트의 선전부대이며 이것은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기본적인 지도력이 되는 프로테타리아트의 전위이다.

이 인전대와 공간과 향도력이 프로테타리아트에게 필수적인것은 그것들이 없이는 프로테타리아트가 승리를 위한 그의 투쟁에 있어서 무장하고 조직된 자본의 앞에서 무기없는 군대와 같은 처지에 처하여 있게 될것인 때문이다. 이 조직체들이 프로테타리아트에게 필요한것은, 그것들이 없이는 프로테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기 위한 그의 투쟁에 있어서, 자체의 주권을 튼튼케하기 위한 그의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그의 투쟁에 있어서 피치못하고 실패를 당하게 될것인 때문이다. 이 조직체들의 계통적 후원과 전위의 향도력이 필요한것은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얼마간이라도 장구하고 튼튼한 프로테타리아트독재가 불가능한것인 때문이다.

이 조직체란 어떠한것인가?

첫째로, 이것은 중앙과 지방에 수다한 생산적, 문화적, 교양적 및 기타 조직체의 형태로 서된 지부(支部)단체들을 가지고있는 노동자들의 직업동맹들이다. 이 직업동맹들은

각종 직업의 노동자들을 연합한다. 이것은 비(非)당적 조직체이다. 직업동맹은 우리나라에서 통치계급인 노동계급의 총괄적(總括的) 조직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학교이다. 이것은 자체가운데에서 행정의 각 부문에 대한 지도적 사업을 위하여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여낸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성원중 선진분자들과 뒤떨어진자들과의 사이에 연락을 실현한다. 이것은 노동대중을 노동계급의 전위와 결합시킨다.

둘째로, 이것은 중앙과 지방에 행정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및 기타 국가기관의 형태로된 무수한 하급기관들을 가지고있는 소비에트아오 결합하여 이 조직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또는 그것과 주민과를 연합시키는 근로자들의 무수한 자발적 대중 단체들이다. 소비에트는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전체의 대중적 조직체이다. 이것은 비당적 조직체이다. 소비에트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직접 표현인것이다. 사회주의건설과 독재의 공고에 대한 모든 또는 온갖 방책은 소비에트를 거쳐서 실행되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측으로부터의 농민에게 대한 국가적 지도는 소비에트를 거쳐서 실현되는것이다. 소비에트는 수백만근로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와 결합시킨다.

셋째로, 이것은 모든 자부단체를 가지고있는 각종 협동조합이다. 이것은 비당적 조직체이며 근로자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로써와 또는 일정한 지기를 지나서는 그들을 생산자로서(농업협동조합)도 연합시키는 근로자들의 대중적 조직체이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가 튼튼하여진 이후의 광범한 건설기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와 농민대중과의 연결을 쉽게하여주며 농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궤도(軌道)로 끄어들일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넷째로, 이것은 청년동맹이다. 이것은 비당적 조직체이나 그러나 당에 접근하는 노동자 농민청년들의 대중적 조직체이다. 이 조직체는 사회주의적 정신으로 젊은 세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을 도와주는 임무를 가지고있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다른 모든 대중적 단체들에게 모든 행정부분에 쓸 젊은 후비군을 공급한다. 청년동맹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가 튼튼하여진 이후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광범한 문화적 및 교양적 사업기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당,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이다. 당의 령량은 그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대중적 조직체로부터 그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전부 자체에 흡수(吸收)하는데에 있다. 그의 사명(使命)은 레외없이 모든 프로레타리아트의 대중적 조직체들의 사업을 통일하며 또한 그들의 행동을 한 목적, 즉 프로레타리아트를 해방하는 목적으로 인도하게하는데에 있다. 그런데 그들을 같은 목적의 모선으로 통일시키며 인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그리함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통일 불가능한 것이오, 그리함이 없이는 주권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 대중의 투쟁에서와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대중을 지도하기 불가능한 까닭이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트의 대중적 조직체의 사업을 통일하며 또한 인도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인 그의 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당만이 즉 공산주의자들의 당만이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체계내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비당적 단체들과 직접 연락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아주 빈번히 그 단체를 지도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집합처(集合處)인 까닭이요 둘째로, 당은 노동계급의 가장 훌륭한 학교가 되는 까닭이요 셋째로, 당은 노동계급의 지도자들의 가장 훌륭한 학교로서 자체의 경험과 권위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에 대한 지도를 중앙집권화할만하며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은갖 또는 모든 비당적 조직을 당과 계급과의 연합을 맺어주는 보조기관 및 선전대(宣傳隊)로 전환시킬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되는 까닭이다」(「해년주의 기초에 대하여」를 보라)。

당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체계내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도적 역량인 것이다。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연합의 최고형태이다」(레닌)。

그런즉 직업동맹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의 면에 있어서 당과 계급과를 연결시키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대중적 조직체이요, 쏘베트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통치적 영역에 있어서 당과 근로자들과를 연결시키는 근로자들의 대중적 조직체이며, 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리의 면에 있어서와 사회주의건설에로 농민을 끄어들이는 면에 있어서 당과 농민대중과를 연결시키는 주로 농민들의 대중적 조직체이요, 청년동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가 새세대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는 것과 젊은 후비군을 양성하는 것을 쉽게 하여주는 사명을 가진 노동자 농민청년의 대중적 조직체이며, 마지막으로 당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체계내에 있어서 이 모든 대중적 조직체를 지도하는 사명을 가진 기본적인 향도력(向導力)이니 이러한 것이 대체로 독재의 「기구(機構)」의 전모(全貌)이며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체계」의 전모인 것이다。

기본적 지도력으로서의 당이 없이는 얼마간이라도 장구하고 튼튼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불가능한것이다.

이리하여 레닌의 말대로한다면 「일반적으로 또는 대체로 형식상 비공산주의적인, 신축자제(伸縮自在)하는 그리고 비교적 광범하고 매우 위력있는, 프로레타리아적 기판을 가지게 되는것이니 당은 이 기판을 거쳐서 계급 및 대중과 밀접하게 연결되는것이요, 또한 그에 의하여 당의 지도하에서 계급의 독재가 실현되는것이다」(제二五권 一九二페이지를 보라)。

이것은 물론 당이 직업동맹, 소베트 및 기타 대중적 조직체들을 대신할수있다거나 혹은 반드시 대신하여야 된다는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실현한다. 그러나 당은 그 독재를 직접 실현하는것이 아니라 직업동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소베트 및 그의 하급기관들을 거쳐서 그를 실현하는것이다. 이러한 「인전대」가 없는 다소간이라도 튼튼한 독재는 불가능한것이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전위와 선진계급의 대중사이와 또한 선진계급의 대중과 근로대중사이와를 연결시키는 여러개의 『인전대』가 없이는 독재를 실현하지 못하는것이다」(제二六권 六五페이지를 보라)。

「말하자면 당은 자체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를 흡수해들이는것이요 그리하여 그 전위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실현하는것이다. 직업동맹과 같은 그러한 지반(地盤)을 가지지않고는 독재를 실현하지 못하는것이요 국가적 기능(機能)을 리행하지 못하는것이다. 그것의 실현도 역시 어떤 재령태의 여러가지 특수한 기판을 거쳐서 즉 소베트기관을 거쳐서 하계되는것이다」(제二六권 六四페이지를 보라)。

※ 방침은 나의것——이 • 스판런。

당의 지도적 역할의 최고 표현으로서, 레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나라인 소련에 있어서는 어떠한 중요한 정치적 혹은 조직적 문제든지 당의 지도적 지시가 없이는 쏘베트 및 기타 대중적 조직체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그 본질상으로 그의 전위의 「독재」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기본적 지도력인 그의 당의 「독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해인운 이에 대하여 국제공산당 제二차 콩그레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덴벨은 자기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찬성한다고 말하나 그러나 그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우리가 리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리해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란 것을 그 본질상으로부터 *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된 또한 의식적인 소수의 독재로 리해한다고 말한다.

로동대중이 간단없이 착취를 당하며 또는 그의 인간적 능력(能力)을 개발하여 낼 수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사실상 로동자의 정당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실효로 그들이 자(自) 계급중의 소수만을 포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온갖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실상 의식적인 로동자들은 오직 로동자전체의 소수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당(政黨)은 계급의 소수만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이 의식적 소수만이 광범한 로동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대중을 인도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덴벨등자가 말하기를 그가 당에 대하여서는 적(敵)이라고 하나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조직적 이요 가장 혁명적인 소수로동자들이 전체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권을 지시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우리들 사이에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말한다」(제二五권 三四七페이지를 보라)。

그러나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당의 지도적 역할(당의 「독재」)과의 사이에 등부호(等符號)를 칠 수 있다는가 전자와 후자를 동일시할 수 있다거나 전자를 후자로 대신

* 바침은 나의 것 — 이 • 쓰말린。

할수 있다라고 리해할수 있다는것은 아니다. 레하면 쏘린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곧 우
리 당의 독재」라고 말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 명제는 「당의 독재」를 프로레타리아
트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레닌주의의 견지에 서있으면서 이러한 동일시를 옳다고 승
인할수 있는가? 아니다, 승인할수 없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즉

첫째로, 국제공산당 제2차 콩그레쓰에서한 레닌의 연설가운데에서 이상에 인정한 인
용문에는 레닌이 결코 당의 지도적 역할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지않았다.
「다만 의식적 소수(즉 당——이·쓰팔면)만이 광범한 노동대중을 지도할수 있으며 또
한 그대중을 인도하여 나갈수있다」는것과 실로 이러한 의미에있어서 「우리는 프로레타
리아트 독재관것을 본질상으로 보아서* 그의 조직된 또는 의식적인 소수의 독재로 리해한
다」는것을 레닌은 말하였을따름이다.

「본질상으로 보아서」라고 말하는것은 그것이 아직도 「전체」라고 말하는것을 의
미하는것은 아니다. 민족문제는 그 본질상으로 보아 농민문제라고 우리는 자주 말한다. 그
런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농민문제가 민족문제의 전부라거나
농민문제와 자체의 범위로 보아서 민족문제에 상등(相等)하다거나 또는 농민문제가 민
주문제와 동일하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민족문제가 그 범위에 있어서 농민문제보다 더
광범하고 또한 더 풍부(豊富)하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당의 지도적 역할
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같이 말하여야할것이다. 당이 프로레타리아

트의 독재를 실행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프로테라리아트독재는 본질상으로 보아 그의 당의 「독재」가 되는것이라면 이것은 아직 「당의 독재」(지도적 역할)가 프로테라리아트독재와 동일하다거나 또한 자체의 범위로 보아서 전자가 후자와 상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다. 프로테라리아트독재가 그 범위에 있어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보다 더 광범하고 더 풍부한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당은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를 실행한다. 그런데 당은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를 실행하는것이 어떠한 다른 독재를 실행하는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당의 지도적 역할을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한다면 그는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를 당의 「독재」로써 대신하여 버리는자이다.

둘째로, 프로테라리아트의 대중적 조직체의 어떠한 중요한 결의든지 당의 지도적 지시가 없이는 성립되지 못하는것이다. 이것은 전혀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당의 지도적 지시로써 다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그렇다면 하여서 이것은 당의 지도적 지시를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할수 있다함을 의미하는것인가? 물론 그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는 당의 지도적 지시와 프로테라리아트의 대중적 단체들이 그 지시를 실시함과 주민들이 그 지시들을 실현함을 총합한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이에 프로테라리아트독재의 자못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가지의 파도 및 중간단체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적 지시와 그의 실현과의 사이에는 지도받는자들의 의지와 행동, 계급의 의지와 행동이 존재하며, 이러한 지시들을 지시하라는 그의 결심(혹은 승인하는것)이 있는것이요 그 지시를 실현할만한 그의 능력(혹은 무능력), 실토정세가 요구하는대로 그 지시를 실행

할만한 그의 능력(혹은 무능력)이 있는 것이다. 지도권을 자기 손에 잡은 당은 지도 받는자들의 의지와 상태와 의식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기계급의 의지와 상태와 의식정도를 타산에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의 지도적 역할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한다면 그는 계급의 의지와 행동을 당의 여러가지 지시로써 대신하여 버리는 것이다.

셋째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승리한 또는 자기의 추종에 정치적 주권을 잡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이다」라고 말하였다(제二四권 三一—一페이지를 보라)。이 계급투쟁은 어떠한것으로 표현될수 있는가? 그것은 전부된 부르주아지의 역습(逆襲)과 또는 외국부르주아지의 무장간섭을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무장적 진출(進出)로써 표현될수 있는것이다. 만일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이 아직 튼튼케되지 못하였다면 그 투쟁은 국내전쟁에서 표현될수 있는것이다. 그 투쟁은 주권이 이미 튼튼케된 이후에는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광범한 조직자적 또는 건설적 사업으로써 표현될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동력(主動力)으로써는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가 되는것이다. 오직 당 혼자만 계급의 지지가 없이 단지 자력(自力)으로 이러한 모든 진출을 조직한적은 없는것이다. 보통으로 당은 오직 그 진출을 지도하는것뿐이오 또한 자체가 계급의 지지를 가지고있는것만큼 그 진출을 지도하게 되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당은 계급을 전부 대리할수없는 까닭이오 또 그를 대신할수없는 까닭이다. 당은 그의 모든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은 계급의 한부분임에 지나지않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의 지도

적 역할을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자는 계급을 당으로써 대신하여 버리는 자이다.

셋째로, 당은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실현한다. 「당은 프로테타리아트의 직접 통치하는 전위이며 지도자이다」(데인)。이러한 의미에서 당은 주권을 잡으며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국가주권의 밖에서 국가의 주권이 없이 실현한거나 쏘베트의 밖에서 쏘베트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아직 당을 쏘베트 즉 국가주권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당은 주권의 핵심(核心)인 것이다. 그러나 당은 국가의 주권이 아니며 또한 그와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다.

데인은 「통치(統治) 당으로서의 우리는 쏘베트의 「수뇌부(首腦部)」와 당의 「수뇌부」를 융합(融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융합되었고 또한 장차도 그렇게 될 것이다」(제二六권 二〇八페이지를 보라)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전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데인은 이것으로써 우리 쏘베트기관 전체가 데하면 우리의 군대, 우리의 교통기관, 우리의 경제기관 등이 우리당의 기관이라거나 당이 쏘베트 및 그의 하급기관들을 대신할 수 있다거나 당을 국가의 주권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데인은 「쏘베트 체제는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라고, 「쏘베트주권은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제二四권 一五 및 一四 페이지를 보라)라고 여러번 말하였다. 그러나 데인은 당이 국가주권이라고는, 쏘베트와 당이 동일하다고는 엄제든지 말하지 않았다. 수십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당은 추천만의 당원 또는 비당원을 포괄하고 있는 쏘베트와 그

의 중앙 및 지방의 하급기관들을 지도한다. 그러나 그는 자체로써 쏘베트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대신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레닌은 「볼셰비크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쏘베트에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가 독재를 실현한다」는 것과 「당의 모든 사업은 직업의 여하(如何)를 물론하고 근로대중을 연합하는 쏘베트를 거쳐서 * 진행된다」(제二五권 一九二 및 一九三페이지를 보라)는 것과 또한 독재는 「쏘베트기관을 거쳐서 * 실현하게 된다」(제二六권 六四페이지를 보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의 지도적 역할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동일시하는 자는 쏘베트를 즉 국가의 주권을 당으로써 대신하여 버리는 것이다.

다섯째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개념(概念)은 곧 국가적 개념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폭력(暴力)의 개념을 반드시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독재란 것을 그 어구의 정확한 의미대로 이해한다면 폭력이 없이는 독재는 없는 법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직접 폭력에 의거하는 주권」이라고 규정하였다 (제一九권 三一五페이지를 보라). 그렇다고 하여 프로레타리아제에 대한 당의 독재를 말한 다거나 또는 당의 독재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것은——당은 반드시 자기 계급에 대한 지도자, 수령, 선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계급에 대하여 폭력을 행 사하는 일종의 독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의 독재」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동일시

하는것은 당의 권위를 로동계급에 관한 폭력에 기초하여 세울수있다함에서 은연히 출발하는것이니 이것은 불합리한것이오 또한 레닌주의와는 도무지 상용될수 없는것이다. 당의 권위는 로동계급의 신임에 의하여 유지되는것이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신임은 그야말로 폭력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이 아니라——폭력은 다만 그 신임을 상실시킬 따름이다——그 신임은 당의 옳은 이론과 당의 옳은 정책과 로동계급에게 대한 당의 성실(誠實)과 로동계급대중과의 그의 연결과 대중으로 하여금 그의 표어가 옳음을 확신하게하려는 그의 결심과 수완으로써 얻어지는것이다.

이 모든것으로부터는 어떠한 결론이 생기는가?

이에서는 다음과같은 결론이 생기는것이다.

(一)、레닌은 당의 독재라는 말을 엄밀한 의미대로(「폭력에 의거하는 주권」)사용한것이 아니라 전의적(轉義的)의미 즉 당의 불가분의 지도의 의미에서 사용한것이다.
(二)、누구든지 당의 지도를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는자는 로동계급전체에 대한 폭력의 기능(機能)을 옳지못하게 당에 부쳐주어 가지고 레닌을 곡해(曲解)하려는것이다.

(三)、누구든지 당의 기능이 아닌 로동계급전체에 대한 폭력을 당에 부쳐주는자는 전위와 계급, 당과 프로테타리아트와의 사이의 옳은 호상관계의 초보적 요구를 위반하는 자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당과 계급과의 사이의, 로동계급안에서 당원과 비당원과의 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게 막다다르게 되었다.

해년은 이 호상판계를 「로동계급의 전위와 로동대중과의 사이의 호상·신·임」이라고 규정하였다(제二六권 二三五페이지를 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첫째로, 당은 대중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리어야 하며 당은 대중의 혁명적 본능에 대하여 주의깊은 태도를 취하며 당은 대중의 투쟁실천을 연구함으로써 자기정책의 정당성을 검열(檢閱)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은 다만 대중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둘째로, 당은 날마다 당에 대한 프로레타리아대중의 신임을 얻어야 하며 당은 그의 정책과 그의 사업으로써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또한 당은 대중에게 명령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대중자신으로 하여금 당의 정책의 정당성을 그들의 체험으로써 깨닫게 하여주면서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며 따라서 당은 자기계급의 지도자, 수령,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여러가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전위와 계급사이의 올바른 호상 관계를 위반하는 것이요 「호상·신·임」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며 계급적 및 당적 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당안에 가장 엄격한, 참으로 강철(鋼鉄) 같은 규율이 없었다면, 로동계급의 전(全) 대중 즉 그 계급중의 모든 사고있고 정치하고 자기희생적이요 영향력있고 그리고 탁후층을 자기의 뒤에 고을고나가거나 유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쓰 말 씀.

인할 능력을 가진자들의 가장 완전한 현신적 지지가 없었다면, 볼셰비크들이 二개년만은 고사하고 二개월만도 주권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을 지금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거의 다 알고있는 것이다* (제二五권 一七三페이지 보라)。

태년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구 사회의 세력과 인습을 반대하는 투철적 및 비투철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 완전한 투쟁이다. 수백만, 수천만 대중의 관습의 힘(力)은 가장 무서운 힘이다. 투쟁속에서 단련된 장천같은 당, 그 계급의 모든 진실한 자들의 신임을 받는 당*, 대중의 기본을 살피며 그 기본에 영향을 줄 줄 아는 당이 없이는 이러한 투쟁을 성과있게 할수없는 것이다」(제二五권 一九〇페이지를 보라)。

그러면 당은 어떻게 계급의 이러한 신임과 지지를 받을수 있는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필요한 로동계급안에서의 장천같은 규율은 어떻게 조성되며 또한 어떠한 토대에서 그 규율은 자라나는가?

태년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의 규율은 무엇으로써 유지되는가? 그것은 무엇으로써 절멸되는가? 무엇으로써 세장화되는가? 첫째로는, 프로레타리아 전위의 의식성과 혁명에 대한 그의 헌신성과 그의 인내성과 그의 자기 희생성과 영웅성으로써 되는것이다. 둘째로는, 프로레타리아 전위가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과* 위선 프로레타리아 대중과——그리고 또한 비(非)프로레타리아 근로대중과도 연결하며, 접근할줄을 아는것으로써, 만일 원한다면, 어느정도까지 융합할줄을 아는것으로써 되는것이다. 셋째로는, 가장 광범한 대중이 그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확신하게되는 조건하에서 이 전위가 실현하는 정치적 지도의 정당성과 그 전위의 정치적 전략 및 전

* 방점은 나의것——이 쓰달린。

출의 정당성으로써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부르조아지들 전복하고 전사회를 개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참으로 완전계급당으로 될수있는 혁명적 당의 규율이 실현될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 규율들을 세우려고하는 시도(試圖)는 불의코 공담(空談), 허언(虛言), 가작(假作)으로 변하고말것이다. 그런데 다른편으로는 이 조건들은 일조(一朝)에 생길수는 없는것이다. 이 조건들은 오직 오랜노력과 어려운 경험에 의해서만 조성되는것이오 이 조성은 오직 옳은 혁명적 이론에 의하여 용이하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그 리론도 교리가 아니라 오직 참으로 대중적이오 참으로 혁명적인 운동의 실천과의 밀접한 연결에서만 완전히 조성되는것이다」(제二五권 一七四페이지를 보라)。

그리고 레닌은 계속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를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적 당인 공산당과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와 대중 즉 근로자 및 피착취자들의 전체와의 옳은 호상관계가 요구되는것이다. 다만 공산당만이 만일 그가 참으로 혁명적 계급의 전위이며면, 만일 그가 그 혁명적 계급의 가장 우수한 모든 대표자들을 자체에 포괄하고있다면, 만일 그가 꾸준한 혁명적 투쟁의 경험으로써 교육받고 또한 단련되고 충분히 의식한 현실적인 공산주의자들로써 구성되었다면, 만일 그 당이 자기 계급의 모든 실생활과 자체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내었고 또는 이 계급을 거처서 피착취대중 전체와 연결하여서 이 계급 및 이 대중의 충분한 신임을 받게되었다면——다만 이러한 당만이 자본주의의 모든 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무자비하고 결정적인 최후의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들 지도할수있는것이다. 다른편으로는 다만 이러한 당의 지도하에서라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썩어빠진 로동귀족과 남은 르베도 유니온 및 협동조합의 수명동등의 열마안되는 그 소수에게 필연적으로 있는 무관심과 부분적 반항까지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면서 자체의 혁명적 공세(功勢)의 모든 위력을 발휘할수있는것이오 바로 자본주의적 사회의 경제적 구조로 인하여 그가 전 주민들에서 차지한 비례보다 해아릴수없이 더 큰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제二五권 三一五페이지를 보라)。

• 방점은 나의것 — 이 • 스 탈 린.

이 인용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一、프로테라리아트독재에 필요한 당의 권위 그리고 로동계급안에서의 강철같은 규율은 당의 위협이나 혹은 그의 「제한 없는」 권력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신임과 당에 대한 로동계급편으로부터의 지지에서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二、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신임은 일조에 또는 로동계급에 대한 폭력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속에서의 당의 장기간의 사업과 당의 옳은 정책과 대중으로부터 여금 자기의 체험에 의하여 당의 정책이 옳음을 깨닫게 하는 당의 능력과 로동계급이 당을 지지하도록 보장하며 로동계급대중을 인도하는 당의 능력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三、대중의 투쟁경험으로써 강화된 당의 옳은 정책이 없이는, 또한 로동계급의 신임이 없이는 당의 진정한 지도가 없을 것이며 또한 있을수도 없는 것이다.

四、만일 당이 계급의 신임을 받으며 또는 당의 지도가 진정한 지도라면 당과 빛 그의 지도는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에 대립될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로동계급의 신임을 받는 당의 지도(당의 「독재」)가 없이는 다 소간이라든가 이른바 프로테라리아트독재가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이 없다면 당의 권위와 로동계급안에 강철같은 규율은 공담이 되거나 혹은 과대망상(誇大妄想)과 모험인 것이다.

프로테라리아트 독재를 당의 지도(「독재」)에 대립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예를들면 파리콤문과같은 그런 완전치 못하고 이른바 독재가 아니라 다 소간이라든가 이른바 또는 완전한 독재에 대하여 말한다면 당의 지도는 프로테라리아트독

재의 주요한 것이 되는 까닭이다. 왜 대립시키지 못하는가 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당의 지도는 말하자면 사업의 같은 토선에 처하여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까닭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의 독재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급의 독재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독재(당)이나?」고 문제를 제기한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상당한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사고(思考) 착란(착란)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중이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계급들을 적어도 현대 문명국들에 있어서는 보통 또 대다수의 경위에 있어서는 각 정당들이 지도하는 것, 정당은 통째로 가장 권위 있고 세력 있고 경험 있고 가장 책임적 지위에 선 거 되는 인물들의 그 다소간 고정한 그루바에 의하여 즉 소위 수령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것은 일반이다. 이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의 독재를 수령들의 독재에 대립시키는 데까지 말하기에 이른 것은 우수준 착란한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다」(제二五권 一八七 및 一八八페이지를 보라)。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옳은 명제는 전위와 로동대중 사이에, 당과 계급과의 사이에 옳은 호상관계가 현존한다는 그 전제(前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전위와 계급과의 사이의 호상관계는, 말하자면 정상한 관계로 남아있다는, 「호상신임」의 범위안에 남아있다는 그러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전위와 계급과의 사이의 옳은 호상관계, 당과 계급과의 사이의 「호상신임」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당 자체가 계급과의 옳은 호상관계의 원칙과 「호상신임」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어떻게나 저렇게나 자체를 계급에 대립시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체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 있을수있다.

이것은 다음과같은 때에 있을수있는것이다. 즉

一、당이 대중속에 있어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사업과 대중의 신임에 의거하여서 가 아니라 자기의 「무제한」한 권력에 의거하여 세우려고하는 때、

二、당의 정책이 분명히 옳지못한데 당은 자기의 과오를 다시 검열하여 고치려고 하지않는 때、

三、당의 정책은 대체로 옳으나 그러나 대중이 그것을 해독하기에 준비되지못하였는 데 당은 대중이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당의 정책이 옳음을 확신할 기능을 주기위하여 그 시기를 기다릴줄을 모르거나 혹은 기다리려고 하지않고 당의 정책을 강제로 군중에 보급하려고 시도하는 때、

우리 당의 역사에는 이러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우리당내의 여러개의 그루뵈와 분파들은 이 세가지 조건중의 하나이나 혹은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다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몰락(沒落)되었고 분산되어 버리었다.

이로부러, 당의 「독재」(지도)에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대립시키는것은 오직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만 옳지않은것으로 인정될수있다는 결론이 내린다.

一、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독재라는것을 독재라는 어구의 본래의 의미(「폭력에 의거하는 주권」) 그대로 이해할것이 아니라 실로 레닌이 이해하는바와같이 로동계급 전체에, 혹은 그의 다수에 대한 폭력을 제외(除外)하는바의 당의 지도로 이해하는 경우、

二、당이 계급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가지는 경우, 다시 말하면 당의 정책이 옳고 또한 그 정책이 계급의 이익에 적합되는 경우,
三、계급 혹은 계급의 다수가 그 정책을 채용하여 그것을 해독하며 이 정책이 옳음을 당의 사업에 의하여 확신하며 또 당을 신임하며 당을 지지하는 경우,
이 조건들에 대한 위반은 불피코 당과 계급사이의 충돌 및 그들의 분열과 그들의 호상대립을 초래(招來)하는 것이다.

당의 지도를 계급에게 강제(強制)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쨌든지 이러한 지도는 조금이라도 장구한 지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은 만일 그가 프로레타리아트당으로 남아있고저 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또한 주로 로동계급의 지도자이며 수령이며, 전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국가와 혁명』이라는 소책자에 말한 레닌의 문구를 잊을 수 없다.

『맑스주의는 로동자당을 교양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들, 즉 주권을 잡을 능력을 가진, 전인민을 사회주의로 이끌고나갈 능력을 가진 세제들을 조직하며 인도할 능력을 가진 부르주아지가 없거나 또는 부르주아지를 반대하여 자기의 사회적 생활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 및 피착취자의 전생, 지도자 및 수령이 될 능력을 가진 전위들 교양하는 것이다』(제二一권 三八六페이지를 보라)。

만일 당의 정책이 옳지 못하며 또는 그 정책이 계급의 이익과 충돌된다면 당이 계급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리라 고 인정할 수 있는가? 물론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에 있어서 당은 만일 그가 지도자로 남아있고저한다면 그의 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그의 정책을 고쳐야 하며 그의 파오를 자백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력사에서 이러한 사실 즉 노동자 및 농민대중이 우리의 정책에 대하여 확신이 불만을 보이었고 당이 공명정대하게 그 정책을 다시 검토한 그때인 랑푸 정발제를 폐지하던 시기와 같은 사실이라도 레로 들수있는 것이다. 그때에 레닌은 제1차 대회에서 랑푸정발제의 폐지와 신경제정책의 실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농민이 우리와 그들과의 사이에 선정되어있는 그관계의 형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는 것과 또는 농민이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원치않는 것, 그러므로 앞으로 더 그대로 존재하여가지 않을 때 대하여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덮어두려고 애쓸것이 아니라 정작하게 말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논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농민의 이러한 의지는 결정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이것은 근로인민의 거대한 군중의 의지이다. 우리는 이것을 타산하여야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농민에게 대한 우리 정책은 다시 검토하여 보자고 솔직하게 말한만한 아주 근직(謹直)한 정치가들이다」(제二六卷 二三八페이지를 보라)。

당은, 설혹 계급이 레컨대, 정치적으로 뒤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당의 정책이 아직 그 계급의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혹 당이 레컨대, 아직 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계급으로 하여금 당의 정책이 옳음을 확신하도록 하여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오직 당의 정책이 대체로 옳다는 리유만을 근거로하여 대중의 결정적 진출을 조직하는 데 대한 창작성(創意性)과 지도권을 취하여야 한다고 인정할수 있는가? 아니다, 인정할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은 만일 그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할 것이요, 그의 정책이 옳음에 대하여 대중을 설복(說服)시키어야 하며 이 정책이 옳음을 대중이 그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확신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혁명적 당이 혁명적 계급의 선진부대에 있어서와 또는 국내에 있어서 다수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폭동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제二二一권 二八二페이지를 보라)。

「로동계급의 다수의 견해(見解)가 변동될 것이 없는 혁명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변동은 대중의 정치적 체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제二五二권 二二一페이지를 보라)。

「프로테라리아 전위는 사상적으로 전취되었다. 이것이 제일 주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승리에로 나가는 것들도 드디어 별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승리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먼 것이다. 전취 하나만은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전개급이, 아직 광범한 대중이, 혹은 전위를 직접으로 지지하는 필장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전위에 대하여 호의적(好意的) 중립의 필장과 전위의 적(敵)에 대하여서는 전연 지지할 능력이 없게 된 그러한 필장을 취하지 못할 때에 다만 전취하나만을 결정적 전후에 내세우는 것은 미련한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일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전개급이, 근로하며 자본의 압박을 받는 참으로 광범한 대중이 이러한 필장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갓 선전, 한갓 선동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그 대중 자신의 정치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상동 二二八페이지를 보라)。

레닌의 四월해체로부터 一九一七년 十월폭동에 이르는 그 시기에 있어서 우리당이 실로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다 아는바이다. 그리고 실로 당은 레닌의 이 지지대로 행동하였으므로 그는 폭동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대체로 전위와 계급사이의 옳은 호상관계의 조건들이다.

당의 정책이 옳고 또 전위와 계급과의 사이에 옳은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지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당의 정책이 옳음을 대중에게 설득시킬 줄 아는 것이오 대중을 당의 진지애로 끄으려들이고 또는 대중이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당의 정책이 옳음을 쉽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포어를 내세우고 또한 이것을 실행할 줄 알며 대중을 당의 의식정도에까지 올려세울 줄 알며 그리하여 결정적 투쟁에 대한 대중의 준비성과 그의 지지를 보장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득시키는 방법은 당이 로동계급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헤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씨야 및 핀란드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미증유한 두해반의 대승리가 있는 후인 지금의 로씨야에 있어서 만일 우리가 『독재의 시인(是認)』을 직업동맹의 가입조건으로 규정하였다면 우리는 우리(愚痴)한 일을 하였을 것이오 대중에게 대한 우리의 영향은 상상해하여서 멘셰비크들에게 리물게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임무는 뒤떨어진 자들을 선봉시킴을 알며 그들 가운데에서 사업할 줄 아는 것이오 결코 꾸며낸 유치(幼稚)한 『라경』적 포어로써 자기와 그들 사이에 장벽을 쌓아 놓아서 안 되기 때문이다」(제二五권 一九七페이지를 보라).

이것은 물론 당은 로동자의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다 설득시키고 그런 다음에 라야만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런 다음에 라야만 행동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리해할 것은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당은 결정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그는 꾸준한 혁명적 사업에 의하여 로동대중의 다수의 지지를 당에 보장하여

야하며 적어도 계급의 다수의 호의적 충렬을 당에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동계급의 다수를 당의 편으로 전취하는 것이 승리적 혁명의 필수조건이라고 한 레닌적 명제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일 소수가 다수의 의지에 자원적으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리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소수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가? 당이 자기의 뒤에 다수의 신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수로 하여금 다수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또는 강제하여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저도라는 것은 대중에게 당의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의 대중을 설복시키는 방법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 강제가 로동계급의 다수측으로 부러의 당에 대한 신임 및 지지를 그 지반으로 하고 있다면 또 만일 그 강제가 다수를 설복하여낸 이후에 소수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라면, 도리어 강제를 전제(前提)로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직업동맹문제의 토론당시에 있는 우리 당내의 논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때에 반대파의 파오와 운수직업동맹 중앙위원회의 파오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에 반대파가 강제의 가능성을 인정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다, 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에 반대파의 파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반대파는 자기의 견지가 옳다는 것을 다수에 설복시킬만한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다수의 신임을 상실하고서도 그래도 강제를 행사하기로 하고 다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들을 「모라내자」고 주장한 데에 있었다.

그때에 레닌은 제1차 당대회에서 직업동맹에 관한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로동계급의 전위와 로동대중과의 사이의 상호 관계와 호상신임을 지어 놓기 위하여서는 만일 운수·직업등 행 중앙위원회가 과오를 범하였다면 :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오를 옹호하기 시작하는 때에는 그것이 정서적 위험성의 장본이 되는 것이다. 만일 꾸루조프가 여기에서 표시하는 그러한 기본에서 민주주의적 으로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서적·파탄(破綻)에 이르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반드시 선포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강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어코 처음에는 선포시켜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강제할 것이다. 우리는 광범한 대중을 선포시켜 내지 못하였고 따라서 대중과 전위와의 정당한 상호관계를 파괴하였다」(제二六권 二三五페이지를 보라)。

레닌은 「직업동맹에 관하여」라는 그의 소책자에서도 또한 그와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는 강제하기전에 먼저 설득을 그 토대로 만들어 놓을 줄을 안 그때에야 용게 또는 성과있게 강제를 행사하였다」(상동 七四페이지를 참조하라)。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왜그러나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이 없이는

아무리한 지도도 있을수없는 까닭이요 또는 다만 이와같이 함으로써만 만일 당에 대하여 론급(論及)한다면 당내에서의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는것이요 만일 계급전체에 대하여 론급한다면 계급의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수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대열에 분열, 분산, 와해가 있을따름이다。

이러한것이 대체로 로동계급에대한 당의 옳은 지도의 기본적 원칙들이다。

지도에 대하여 이와 다른 리해는 신지칼리즘이나 무정부주의나 판로주의일것이오 어쨌든 불췌비즘이나 레닌주의는 아닐것이다。

* 방점은 나의 것——이·쓰말린。

만일 당과 노동계급과의 사이에, 전위와 노동대중과의 사이에 좋은 상호관계가 존재하여 있다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당의 지도(「독재」)에 대립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부터는 더구나 당과 노동계급을 동일시하지 못한다는 것과 당의 지도(「독재」)와 노동계급의 독재와를 동일시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긴다. 당의 「독재」를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에 대립시키지 못한다는 이 론거하에서 소린은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는 즉 우리당의 독재다」라는 이런 옳지 못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대립을 용허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만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대중의 독재를 수령들의 독재」에 대립하는 것도 용허할 수 없다 함에 대하여서도 말하였다. 이 론거하에서 수령들의 독재를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동일시하는 길로 나아가간다면 우리는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는 즉 우리 수령들의 독재」라고 반드시 말하여야 할 것이다. 오킨대 당의 「독재」를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정책은 그야말로 이러한 우치(愚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지노비예브에게는 이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서있는가?

지노비예브도 사실상 당의 「독재」를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소린의 그 견지에 사코있는바이나 오직 다른점은, 소린은 더 솔직하고 명백하게 발표하지만은 지노비예브는 「우물쭈물」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는 지노비예브의 「레닌주의」라는 책에서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여 보더라도 충분하다.

지노비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련의 현존제도는 그의 계급적 내용의 전제로 보아서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인 것이다. 소련의 주권의 직접 주동력은 무엇인가? 누가 노동계급의 주권을 실현하는가? 공산당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당의 독재인 것이다. 소련의 주권의 법률상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十月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제도의 제전형(典型)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즉 소비에트의 체제인 것이다. 전자와 후자는 조금도 서로 대치되지 않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가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만일 전체로서의 노동계급에 대한 당의 독재를 당의 지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물론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당의 「독재」와의 사이에 소비에트체제와 당의 「독재」와의 사이에 어떻게 등부호(等符號)를 칠수 있는가? 헤닌은 소비에트체제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시하였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소비에트 즉 우리 소비에트는 당의 지도하에서 근로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주위에 결속하는 조직체인가답이다. 그런데 지금 지노비예브가 말한 것처럼 헤닌이 어느때, 어느곳, 그의 어느저서에서 당의 「독재」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의 사이에, 당의 「독재」와 소비에트체제와의 사이에 등부호를 칠는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는 다만 당의 지도(「독재」)가 대치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령들의 지도(「독재」)도 대치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거에서 우리나라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나라, 다지 말하면 당의 독재의 나라, 다지 말하면 수령들의 독재의 나라라고 선언할수있지않을까? 지노비예브가 가만 가만이 또는 비겁하게 내세우는바의 당

• 방점은 나의것 — 이 • 쓰말린.

의 「독재」와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를 동일시하는 「원칙」은 그야말로 그러한 우치(愚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나는 레닌의 수많은 저서에서 그가 당의 독재에 대한 문제를 약간 언급한 오직 다섯가지 경우만을 지적할 수 있었다.

첫째 경우——이것은 그가 에세르와 멘셰비크들과의 논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한당의 독재라고 우리를 비난(非難)하며 당신들이 들은바와같이 통일적 사회주의 전선을 제의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즉 「옳다, 한당의 독재다!」 우리는 이에 필적하였을뿐더러 이 지반에서 떠날 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이 당은 수십년 이래로 모든 공장—제조소 및 산업 프로테라리아트의 전위의 지위를 전취한 그러한 당인 까닭이다」(제二四권 四二三페이지를 보라)。

둘째 경우——이것은 그가 「팔차크에 대한 승리에 제하여 노동자 및 농민들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멘셰비크들과 에세르들, 그들의 「라이」까지도 모두다) 「한당의 독재」 즉 볼셰비크—공산주의자당의 독재라는 무서운 말로써 농민들을 위협한다.

그러나 팔차크의 실태에서 농민들은 그 무서운것을 접할것이 없다는것을 알았다.

저주들과 자본가들의 독재(즉 철의 주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독재일것이다」(제二四권 四三六페이지를 보라)。

셋째 경우——이것은 국제공산당 제二차 총그레프에서 멘델과 론쟁한 레닌의 연설이다. 나는 이 상에서 이 연설을 인용하였다.

넷째 경우——이것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이라는 소책자에 있는 몇구절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용문들도 이상에서 이미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경우——이것은 「레닌문집」 제3권에 「한당의 독재」라는 소제목하에서 발췌된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초안의 요령(要領)이다 (「레닌문집」 제3권 四九七페이지를 보라)。

다섯가지 경우중에서 두 경우 즉 둘째 경우에서와 마지막 경우에서 레닌은 「한당의 독재」라는 말의 공식이 정확하지 못하며 또는 전의적(轉義的)인 의사를 분명히 강조(強調)하면서 그말에다 인용부(引用符)를 붙인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경우에서 레닌은 「당의 독재」란것을 「지주와 자본가들에 대한 독재(「철의 주권」)로 이해하였고 카우즈키와 및 그의 동배의 비방적 허구에 반하여 로동계급에대한 독재로는 이해하지 않았다.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에 대하여서와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의 체제에 있어서의 당의 역할에 대하여 논술하였거나 혹은 단순하게 언급한 레닌의 기본저서에서나 부차적 저서중에서나 그 어느 한곳에도 「프로테라리아트독재는 곧 우리당의 독재」라고 암시(暗示)한데도 없었던것은 특정한것이다. 도리어 이 저서들의 각페이지, 각행(行)은 그러한 공식들을 반박하였다(「국가와 혁명」, 「프로테라리아혁명과 반역자 카우즈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등을 보라)。

레닌의 직접 지도하에서 작성된, 정당의 역할에대한 국제공산당 제2차 콩그레스의 해제에서, 즉 레닌이 여러번 그의 연설에서 당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좋은 포식의

모범이라고 인정한 그 해제에서 우리는 당의 독재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함으로 한·마·디·도, 발견하지 못하는것이 또한 더 특징적인것이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이것은 다음의것을 말한다.

1. 레닌은 「당의 독재」라는 공식을 비난할점이없는 정확한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공식은 레닌의 저서에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고 또는 간혹 인용부내에 취급되었다.

2. 레닌이 반대자들과의 론쟁에서 당의 독재에 대하여 기필코 말하게 된 그 많지 못한 경우에서 있어서는 그는 보통 「한·당의 독재」 즉 우리당은 단·독·적·으로 주권을 잡고있다함과 우리당은 다른 정당들과 주권을 나누지 않는다·함에 대하여 말하였고 또는 이에 있어서 그는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독재란것은 그것을 당의 지도와 당의 지도적 역할로 이해하여야 할것이라고 해석하였다.

3. 레닌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체계내에 있어서는 당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그는 순·전·히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는 수·천·번(말하였다).

4. 실로 그러므로 레닌은 당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서에 나는 국제공산당 제2차 콩그레스의 결정서를 가지고 말하는것이다 — 「당의 독재」라는 공식을 접어넣으려고는 「추측」(推測)까지도하지않았다.

5. 당의 「독재」를, 따라서 역시 「수령의 독재」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와 동일시하며 또한 동일시하려고 시도하는 동지들은 레닌주의의 전제로보아서 옳지못한것이오 또

는 정치적 근시안자(近視眼者)들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은 이리하므로써 전위와 계급과의 사이의 옳은 호상관계의 조건을 위반하는 까닭이다.

이상에 말한 조건부(條件符)가 없이는 사용되는 「당의 독재」란 공식은 우리의 실제 사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위험성과 정치적 결함을 지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데 대하여서는 나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아무 조건부도 없이 사용된 이 공식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여준다.

1. 비.당원.대중에게는, 당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나라에는 당의 독재가 있으니까 감히 항변(抗辯)하려고 하지 말며 사비하려고 하지 말라고.

2. 당.간부.에게는, 우리 나라에는 당의 독재가 있으니 더 용감하게 행동하며 더 굳게 견제(牽制)하며 비.당원.대중의 말은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3. 당.의 수.위.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당의 독재, 「그러니까」 수령들의 독재이니 우리가 다소간 자기만족에 취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열마쯤은 거만하게 할 수도 있다고.

대중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당의 용의(用意)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대중의 요구에 대한 기민성(機敏性)이 우리당의 기본적 계명(戒銘)으로 되고 있는 이때에, 당으로 하여금 그 정책에 있어서의 특별한 주도성(周到性)과 특별한 진숙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대중을 옳게 지도함에 있어서 자부성이 당의 앞에 서 있는 가장 중대한 위험성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이때에, 대중의 정치적 열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인 실로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은 시기에 적절한 일이다.

우리당의 제十一차 대회에서 말한 메닌의 명언(銘言)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민대중 가운데서 우리는 (공산당원들은——이·쓰달린) 어쨌든 광해의 일숙(蒼海一粟)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이 의식하는바를 용케 표현하는 그때에라야만 움직일수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공산당이 프로메타리아트를 인도하지 못하게 될것이요 프로메타리아트는 자기의 뒤에 대중을 이끌고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전거지는 산산히 파쇄되고 말것이다」(제二七권 二五六페이지를 보라)。

「인민이 의식하는바를 용케 표현하는것」, 이것이 실로 프로메타리아트독재의 체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도력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당에 보장하여주는 그 필요한 조건이다。

六、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

「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一九二四년 五月, 제一판)라는 초책자에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에 관한 두가지 포식이 짜워있다. 첫째포식은 이

「이전에는, 부르조아지를 타수하기 위해서 모든 선진국가들이나 혹은 어쨌든 다수의 그러한 나라들의 프로메타리아트의 공동진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한것이라고 간주하였었다. 지금에는 이러한 견지가 벌써 실제로 맞지않는것이다. 지금에는 그러한 승리가 가능하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왜그러나하면 제국주의의 환경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각국의 발전의 불균등적 및 비약적 성질과, 불피로 전쟁으로 이르게하는 제국주의 내부의 과밀적 모순의 발전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의 각성——이 모든것은 개개의 나라에서 프로메타리아트의 승리가 다만 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필연한 일로 되게하는 까닭이다」(「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를 보라)。

이명제는 참으로 옳은 것이요 또한 그는 해설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제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혁명의 동시적 승리가 없이 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는 것을 공상이라고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론을 반대하여 쓴 것이다.

그런데 「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라는 소책자에는 또 둘째공식이 세워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부르주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주권을 세우는 것은 아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미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의 주요한 임무——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은 아직 앞에 남아있다. 여러 전진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일차적 임무가 없이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 임무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부르주아지를 전복하기 위하여서는 한 나라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혁명의 역사가 입증하여 준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을 위하여서는 한 나라의 노력, 특히 로씨야와 같은 그러한 농민국인 한 나라의 노력은 아직 불충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여러 전진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의 제 1편을 보라)。

이 둘째공식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승리가 없는 때에는 한 나라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보수적(保守的) 구라파에 대항하여 서 있을 수 없다」고 성명하는 레닌주의 비평가들의 논단을 반대하여,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쓴 것이다.

이 한도에서만——그리고 오직 이 한도에서만——이 포식은 그때에(一九二四년 五月) 있어서 충분하였었고, 또한 그것은 의심할 것 없이 현저한 효과를 준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부문에 있어서의 레닌주의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 이미 극복되었고 또는 새 문제, 즉 외부로부터의 후원이 없이 우리나라의 힘으로써 완전한 사회

주의적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당면일정에 나서게 되면 때에 이 둘째 표시는 벌써 명백히 불충분한 것으로 되어졌고 그러므로 옳지 못한 것으로 되어졌다.

이 표시의 결합은 어디에 있는가?

이 표시의 결합은 그가 한문제에 두가지 서로 다른 문제들 연결하여 놓은 데에 있는 것이다. 즉 긍정적(肯定的)으로 대답하여야 할 문제, 즉 한나라의 힘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놓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否定的)으로 대답하여야 할 문제, 즉 프로테라리아트의 두개의 나라가 다른 여러나라에서의 승리적 혁명이 없이 무장간섭으로부터, 따라서 옛제도의 복구로부터 자체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 연결하여 놓은 데 있다. 나는 이 표시가 한나라의 힘으로써는 사회주의적 사회의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옳지 못한 생각인——구실(口實)을 줄수있음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론거에서 나는 「十月혁명과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라는 소책자에서 (一九二四年十二月) 이 문제를 부르조아제도가 복구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한 보장에 대한 문제와 한나라에서의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즉 이러한 두문제로 구분하여서 이 표시를 변경(變更)하였고 또는 정정하였다. 이것은 첫째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곧 「옛제도가 복구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한 보장」은 「몇개나라의 프로테라리아트의 일치협력」으로써야만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둘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라는 레닌의 소책자에 론거하여 우리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건설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건을 다가지고있다는 이러한 론쟁할 여지가 없는 전리

(眞理)를 선언하는 방법으로써 달성된것이다 (「十月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을 보라) *.

문제의 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안정과 관련하여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였고 우리나라의 힘으로써 사회주의의 전설은 될수있는것이오 또한 반대시 하여야한다고 인정하는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셰비크)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14차 당대표회의의(一九二五년 四月) 유명한 결정서의 기초가 되었던것이다. 이 포식은 또한 제14차당 대표회의의 직후 一九二五년 五月에 출판된 「로씨야공산당(볼셰비크) 제14차 대표회의 사업의 총결산에 대하여」라는 나의 소책자의 기초가 되었다.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 관하여서 이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모순의 두가지 그루박을 가지고있다. 모순의 한그루박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적 모순이요(이에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전설에 대하여 말하는것임——이·쓰탈린)。모순의 그 다른 한그루박은 사회주의적 국가인 우리나라와 자본주의적 국가들인 다른 여러나라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외부적 모순이다(이에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말하는것임——이·쓰탈린)」。『한나라의 노력으로써 완전히 극복하여 될수있는 모순의 첫그루박을 모순의 둘째그루박과 즉 그것을 해결하기위하여서는 몇개의 나라의 프로레타리아들의 노력을 요구하게되는 모순의 그루박과 혼동하는자는 데인주의에 대하여 극히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자이요 그는 정신착란(錯亂)자이거나 그렇지않으면 고치지 못할 기회주의자인것이다』(「로씨야공산당(볼셰비크) 제14차 대표회의사업 총결산에 대하여」를 보라)。

• 『데인주의 기초에 대하여』란 소책자의 그루 모든 출판에는 문제의 이전 포식들이 이 새로운 포식으로 바꾸어 놓았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있는것이요 또는 우리는 그것을 노동계급의 지도하에서 농민들과 함께 건설하여 나갈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프로테라리아르의 독재하에서 우리에게는 온갖 국내적 난관을 극복하여 나가면서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는 까닭이요... 우리는 자기자신의 힘으로써 그어디까지 난관을 극복할수있는것이며 또 극복하지않으면 안되는 까닭이다』(우에 지적한 소책자를 보라)。

그리고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그소책자에 다음과같이
 기술되어있다。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무장간섭의 시도로부터의 완전보장이며 따라서 옛제도의 복구에 대한 시도도 불가능하게하는때에만 완전보장이니 이것은 옛제도를 복구하려는 다소간이타도 신중한 기도는 오직 의계의 유력한 지지하에서만, 국제적 자본의 지지하에서만 있을수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우리형당을 지지하는것과 더구나 이 노동자들이 비록 몇나라에서일지라도 승리하는것은 무장간섭과 옛제도복구의 기도로부터 첫번 승리한 나라를 완전히 보장하는 필요한 조건이 되는것이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필수조건이 되는것이다』(우에 지적한 소책자를 보라)。

이것으로서 아마 명백한듯하다。

이 문제는 「질문과 대답」(一九二五년 六월)이라는 나의 소책자에서와 전련맹공산당(볼셰비크) 제十四차 대회에서의(一九二五년 十二月)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에서도 그러한의
 미로 기술된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사실은 이러하다。

이 사실은 모든 동지들이 다 아는바이오 그중에서 지노비에브도 잘 아는바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내의 사상적 투쟁이 있은 이후에 거의 두해가 지나갔고 또는 제十四차 당대표회의(一九二五년 四월)에서 결정서가 채택된후인 지금에 와서 지노비에브는 그가 제十四차 당대회(一九二五년 十二월)에서 결론할때에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이미 해결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될 론거로서 이미 一九二四년 四월에 쓴 쓰팔틴의 소책자에서 전연 불충분한 낚은 공식을 고집어내었으니 지노비에브의 이 독특한 주장은 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전연 착란(錯亂)하여 있음을 말하는것일 따름이다. 당이 앞으로 나간이후에 그 당을 뒤로 고을려고 하는것과 또는 제十四차 당대표회의의 결정서가 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승인된 이후에 그 결정서를 회피하려는것——이것은 절망적으로 모순속에 빠지는것이오 사회주의의 건설사업을 믿지않는것이오 해인의 로선에서 탈선하며 그리하여 자기자체의 실패를 증명하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혁명에 승리가 있기전에 또 그 여러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동정과 지지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사이의 모순을 우리나라의 내부적 힘으로써 해결할 가능성인것이오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전취와 또한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주권을 리용할 가능성인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없이는 사회주의건설은 전망이 없는 건설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설인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여놓는다는 확신이 없이 또 우리나라의

기술적·락후성이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여 높음에 있어서의 극·복·할·수·없는 장애물(障礙物)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믿지 않는 것이며 레닌주의에서 물리서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가 없이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종국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적어도 몇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가 없이는 무장간첩, 따라서 부르주아적 제도의 복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한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할 여지가 없는 논단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주의에서와 레닌주의에서 물리서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체계 안에서 사는 것임으로 소비트공화국이 제국주의적 여러나라와 장구한 시일을 계속하여 병립하여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도 두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량자중의 어느 하나가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판가름의 때가 당면하기 전에는 소비트공화국과 부르주아 국가들 사이에 매우 험악한 여러가지 충돌들은 피치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치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는, 만일 그가 통치하려 하며 또는 통치할 것이라면 그는 또한 자기의 군사적 조직으로써도 그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제二四권 一二二페이지를 보라)。

레닌은 또 다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목전에 극히 불안정한 것이나마 그러나 의심할 여지가 없고 논쟁할 여지가 없는 일정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장구할런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알아볼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우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동안의 우리정부의 행정에서 생전 교훈, 즉 노동자 및 농민전체가 반드시

시 제득(體得)하여야 할 첫조건과, 우리정체의 첫계명(戒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극히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계급들과 정부들에 우리가 포위되어 있다 함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침공을 받을 그러한 처지에 처하여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제二十七권 一一七페이지를 보라)。

이것으로서 아마 명쾌한듯하다.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노비예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들어보라.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라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이해하여야 한다. 즉 (一)、계급이 절멸되는 것, 따라서 (二)、한계급의 독재가 폐지되는 것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지노비예브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一九二五년에 우리 쓰린에 있어서 문제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일층 정확히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사정을 구별하여야 한다. (一)、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보장된 가능성, —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은 물론 한나라의 범위에서도 완전히 상상할수 있는 것이다 — 그리고 (二)、사회주의의 종국적 건설 및 종국적 봉고,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이 그것이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의미할수 있는 것인가?

지노비예브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라는것을 무장간섭과 옛제도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의 보장으로 이해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완전한 건설의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노비예브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라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건설에로 인도할수도 없으며 또한 인도하여서는 아니될 그러한 사회주의의 건설로 이해하고 있다. 될때로 되라고 하는 건설, 전망이 없는 건설, 사회주의 사회를

완전히 건설하여 놓을 가능성이 없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러한 것이 곧 지노비예브의 립장인 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할 가능성이 없이 그것을 건설하려는 것, 건설해 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건설하려는 것——이러한 불합리에 이르기까지 지노비예브는 론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제十四차 당대회에서 말한 지노비예브의 결론중에는 또한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때를 면면 최근 폴쓰로드(道) 당 대회의에서 야코블레브등자가 어떻게까지 론술하였는가를 여타분은 어모라. 그는 자문(自問)하여 말하기를 『사면으로 부터 자본주의적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우리로서 즉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한나타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할수 있는가?』 하였다. 그리고 자답(自答)하기를 『우리는 이미 론술한 그 모든 론거에 의하여 우리가 아직 단독이요 전세계의 유일한 소비에트나라, 소비에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한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一九二五年 十二月 八일부의 『폴쓰까야 브라브다』 제二七九호를 보라). 글세 이것이 레닌적으로 세우는 문제의 선정이라는 말인가? 고, 이것이 일국적 국한성 범세물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말인가?』 고 지노비예브는 묻는다.

이와같이 지노비예브의 말대로하면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건설의 가능성을 지인하는 것은 일국적 국한성의 전제에 립각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주의의 전제에 립각함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옳다면 대체 우리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이 론술로부터는 그러한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리지 않는가?

우리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앞에 항복하는 것——이러한데로 지노비예프의 론조의 내적(內的)론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노비예프는 헤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것을 「국제주의」, 「백과센트의 헤닌주의」라고 우리에게 들어바친다!

사회주의전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지노비예프는 멘셰비크 뿌하노브의 견지에로 전락하면서 헤닌주의로부터 이탈한다고 나는 단언한다.

헤닌에게 물어보자. 헤닌은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에 대하여 일찍 十月혁명 이전 一九一五年 八月에 이렇게 말하였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절대법칙이다. 여기로부터는 사회주의의 승리가 처음에는 많지 않은 몇나라 혹은 심지어는 단독으로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라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나라의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가들을 수탈하고 자국내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여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 계급들을 자기편으로 고르며들이며 그들의 나라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심지어 무력으로 싸우까지도 착취계급들과 및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진출하면서 이들의 자본주의적 세계를 반대하여 쫓기(驅起)할 것이다」(제一八권 二三二—二三三페이지를 보라)。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떨린。

「자국내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여가지고」라고 고조한 레닌의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승리한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이후에 자국내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것이요 또는 반트지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명확하고도 확실한 레닌의 명제는 더 해석을 요구치 않음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그렇지 않다면 一九一七년十月에 프롤레타리아트를 주권을 잡는 데로 나아가게 한 레닌의 부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이 명확한 레닌의 명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건설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한나라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건설할 수 있다는 지노비예프의 착란된 또는 반(反) 레닌적 『명제』와는 천양지간(天壤之間)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는 바이다.

이것은 一九一五년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기전에 레닌이 론술한 것이다. 그런 레닌의 견지가 주권전취의 경험을 가진 이후 즉 一九一七년이후에 변동되거나 않았는가? 一九二三년에 저술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라는 레닌의 소재자를 고찰하여 보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상 모든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권력,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있는 국가의 주권, 수백만의 소농들과 몇 천 소농들과의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 그 동맹에 있어서 농민에게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를 보장하는 것 등——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전에 소상인적(小商人的)이라고 정렬하였고 그리고 신경제정책하의 지금에 있어서도 어떤 변으로서는 정렬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오직 그 협동조합 하나만으로 충분치 못하며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의 전부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여 놓는데 필요한 전부가 아닌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건설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이다」.

(제二七권 三九二페이지를 보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자기의 주중에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놓는 데 필요하고 또는 충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건설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건설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레닌의 이 모범적인 명제와 야코블레브를 반대하여 말한 지노비예프의 반(反)레닌적 답변을 비교하여 보라. 그리하면 야코블레브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의 말을 다만 반복한 것뿐이오 지노비예프는 이 명제를 반대하여 나서면서 또는 야코블레브를 논박하면서 레닌을 배반하고 멘셰비크 부하노브의 견지——우리나라의 기술적 낙후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그 견지에 립각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건설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一九一七年十月에 우리가 무엇때문에 주권을 잡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지노비예프의 논증의 내적(內的)론리는 一九一七年十月에 주권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 방점은 나의 것——이·쓰딸린。

그리고 또 지노비예브는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 공산당 집행위원회의 확대전원회의와 관련하여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불셰비크)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十四차 당대표회의의 유명한 결정서에 기록(記錄)된 우리당의 명확한 결의를 반대하여 나섰다고 나는 단언한다.

이 결정서를 고찰하여 보자. 거기에는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되었다.

「정반대되는 두개의 사회의 체계의 존재는 자본주의적 봉쇄,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압박, 무장간섭 및 옛제도의 복구의 잔존하는 위험을 야기(惹起)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유일한 보장은 즉 복구의 불가능에 대한 완전한 보장은 여러나라에서의 승리적 사회주의혁명인 것이다.」 『레닌주의는, 부르조아적 관계들의 복구로부터 완전한 보장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국제적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로씨야와 같이 랍후한 나라에서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은 기술적 및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발달된 나라들의 「국가적 후원」이 없이는 (르로즈키)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결코 이에서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결정서를 보라).

여러분이 보는바와 같이 결정서는, 「레닌주의」라는 지노비예브의 저서에 있는 논술과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무장간섭 및 옛제도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데 대한 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제군들이 보는바와같이 결정서는 지노비예브가 제十四차 당대회에서의 그의 결론에서 야코블레브를 반대하여 답변한 그의 론거와는 정반대로 로씨야와 같이 랍후된 나라에서

기술적 및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더욱 발달된 나라들의 「국가적 후원」이 없이도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을 어찌 제十四차 당대표회의의 결정서를 반대하는 지노비예브의 투쟁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을까?

물론 당의 결정서가 간혹 잘못될 수도 있다. 당의 결정서가 오류를 가지는 때도 있는 것이 다. 대체로 말하면 제十四차 당대표회의의 결정서에도 역시 약간의 오류가 있으리라 하고 추측할수 있는 것이다. 지노비예브가 이 결정서를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만일 그러면 볼셰비크답게 그렇다는것을 명확하고 공공연하게 말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지노비예브는 무슨 까닭인지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는 제十四차 당대표회의의 결정서를 묵과하며 또는 그에 대한 아무런 한 가지 공개적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서를 배면(背面)으로 공격하는 다문 길을 선택하였다. 지노비예브는 아마도 이 길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하나이다. 즉 결정서를 「개정하려는」것이오 레닌의 뜻을 「조금」 수정하려는 것이다. 지노비예브가 오산(誤算)하였음은 더 론증할 필요도 없을가 한다.

지노비예브의 오류는 어디로부터 생기는 것인가? 이 오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각같아서는 이 오류의 근원은 우리 나라의 기술적, 라후성이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에 극복할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기술적, 라후성으로 인한 여 프로테타리아트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할수 없다는데 대한 지노비예브의 확신에 있는 것이다. 지노비예브와 카메네브는 四월 당대표회의의 직전에 열렸던 중앙위원회

어느 회의에서 이 논거를 가지고 한때에 진출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문박을 당하고 할 수 없이 대립되는 견지 즉 중앙위원회 다수의 견지에 형식상으로는 복종하면서 퇴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노비예프는 형식상으로 이 견지에 복종하고서 항상 그 견지와 의 루쟁을 계속하였다. 우리당의 모스크바 위원회는 로씨야 공산당(볼셰비크) 중앙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하여 레닌 그라드주 당대표회의에서 보낸 편지에 대한 그 「회답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는, 만일 국제적 혁명이 우리들 국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술적 및 경제적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내부적 난관들을 이기어낼 수 없는 듯한 이러한 견지들 일마전에 정치국(政治局)에서 옹호하였다. 우리는 중앙위원회의 다수와 함께, 우리가 기술적으로 낙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낙후에 저슬러서 사회주의를 전설할 수 있으며 전설하고 있으며 또한 전설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전설은 세계적 승리가 있는 조건하에서 보다는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하며 또한 전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시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의 견지는 우리 로동계급과 그를 따라가는 농민대중의 내재적(內在的) 역량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견지가 레닌적 필장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회답서」를 보라)。

이 문서는 제十四차 당대회의 첫 회의가 진행될 때에 출판물에 발표되었다. 지노비예프는 물론 이 문서를 반대하여 대회에서도 진출할 가능성을 가졌던 것이다.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는 우리 당의 모스크바 위원회에서 그들을 반대하여 제기한 이 엄중한 론죄(論罪)를 반대하는 논거를 일어대지 못한 것이 또한 특징적인 것이다.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 론죄는 바로 적중(的中)된

양이다. 지노비에브와 카메레브는 이 론죄에 대하여 무엇으로써나 「반박」할 론거가 없
는리이어서 철회으로써 그 론죄에 「대답」하고 말았다.

「새 반대와」는 지노비에브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사업
을 불신하는것으로 론죄한다고 노여워한다. 그러나 만일 지노비에브가 한나라에서의 사회
주의의 승리에 대한 문제를 만 일년동안이나 토의한 후에, 그의 견지가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에서 부인된 이후에(一九二五年 四월), 또한 제十四차 당대표회의(一九二五年
四월)의 일만이 다 아는 결의에 이 문제에 대한 당의 확정적인 의견이 이미 기록된
이후에, 만일 이 모든것이 있은 이후에도 지노비에브가 「레닌주의」라는 그의 책자(一
九二五年 九월)에서 당의 견지를 반대하여 진출하기를 결정하였으며 그리고 또 그다음
에는 제十四차 대회에서 다시 그러한 진출을 반박하였으니——이 모든것을 즉 자기의 오
류를 고수하기에 이렇게 교집하고 억지 쓰는것을, 지노비에브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사업을 불신하는때 중독되었다는것으로써, 질망적으로 중독되었다는것
으로써 밖에 다른것으로 어떻게 설명할수 있으랴?

지노비에브에게는 그의 불신(不信)을 국제주의인듯이 해석하려는것이다. 그런데 레닌
주의의 근본문제에 있어서 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는것을 어느때부터 우리가 국제주의로 해
석하기 시작하였는가?

이에서는, 당이 국제주의와 국제혁명에 대하여 범피하는것이 아니라 지노비에브가 범
피한다고 말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대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나라가 세계혁명의
로대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런데 만일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농을 능력

이 없다면 그가 세계혁명의 진정한 토대가 될 수 있을까? 만일 우리 나라가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승리,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달성하여 별 능력이 없다면 그 가 지금에 의심할것없이 되어있는바의 전세계 노동자들의 이복(耳目)을 끄는 위대한 인력의 중심(中心)으로 되어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리라 고생 각한다. 그러면 이 모든것으로부터는,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불신과 이 불신의 설교(說敎)는 세계혁명의 토대인 우리나라위신을 손상케하는것인데 우리나라가 위신을 손상하는것은 세계혁명운동을 미약케하는데로 이르게 한다는 결론이 내리지 않는가? 사회민주주의자 신사들은 무엇으로써 노동자들을 우리에게서 물려가도록 위협하였는가? 『로씨야사람들은 아무 정사도 할 수 없다』는 설교로써 위협하였다. 지금 우리는 노동자 대표단들을 매우 많이 우리나라에로 이끄러들이며 또한 그리하므로써 전세계의 공산주의의 진세를 튼튼케 하면서 무엇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공격하는가?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공으로써 공격하는것이다. 이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공에 대한 불신을 설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간접으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이오 그는 국제적 혁명운동의 전개력을 미약케하는것이며 그는 불피코 국제주의로부터 물려서는 자인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여러분이 보는바와같이 지노비예프의 『국제주의』도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그의 『백파센트의 레닌주의』에 비하여 조금도 나은점이없다.

그러므로 제十四차 당대회가 『새 반대파』의 견해를 『사회주의의 건설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레닌주의의 의곡』으로 규정한것은 옳은일이다.

七、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

나는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불신이 「새 반대파」의 기본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에는 이 오류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새 반대파」의 모든 다른 오류가 이 기본적 오류로부터 생기기나 오는 까닭이다. 진경제 정책, 국가자본주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산업의 본성(本性)、프로테라리아트 독재하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 골라크와의 투쟁방법, 중농민의 역할과 비중농민의 문제에 관한 「새 반대파」의 오류——이 모든 오류들은 반대파의 기본적 오류 즉 우리 나라의 자체의 힘으로써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생기는 파생적(派生的) 오류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불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선 농민의 기본적 대중을 우리나라의 발전의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로 끄으려드려줄 수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둘째로, 인민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프로테라리아트가 농민의 기본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사업에로 끄으려드릴만한 능력이 있는 데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반대파는 우리의 발전도정에 대한 자기의 이론에 있어서 이러한 명제로부터 은근히 출발——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지간에——하는 것이다.

쏜베트 나라 농민의 기본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로 끄으려드릴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서는 두가지 기본적 명제가 「레닌주의 기초에 대하여」란 소책자에 의
여 있다.

一、「조련의 농민은 서방의 농민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세번 혁명의 경험을 지내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를 선두로하여 그와함께 자리와 부르조아 주권을 반대하여 투쟁한 농민,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로지와 켈화촌 얻었고 그러한 까닭에 프로레타리아트의 후비군이 된 농민——이 농민은 부르조아 혁명당시에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를 선두로하여 투쟁하였고 그 부르조아지의 손에서 로지를 얻었으며 그러한 까닭에 부르조아지의 후비군이 된 그 농민과 구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천천 및 정치적, 혁명을 존중시 함에 습관되었고 또한 그 천천과 그 힘력의 덕택(德澤)에 자기의 자유를 얻은 조련의 농민이 프로레타리아트와의 경제적, 협력을 짓는 데 있어서 특히 훌륭한 자료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 가한다」.

二、「로씨야의 농업을 서방의 농업과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방에서의 농업의 발전은 한편에는 대규모의 소유자와 사적—자본주의적 대농장, 다른 한편에는 빈궁, 적빈과 고용노예——농민의 이러한 심각한 문화의 환경에서 자본주의의 통상적 조건을 밟아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어서는 분해회폐가 아주 자연한 일이다. 그러나 로씨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발전은 소비트주권의 현존과 또 기본적인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그러한 발전을 용허하지 않는 그 원인만으로도 그러한 길을 밟아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로씨야에서 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다른 길, 즉 수백만의 중소(中小) 농민이 협동조합화하는 길, 농촌에 있어서 저리대부(低利貸付)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길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레닌은 협동조합에 대한 체론문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세길 즉 협동조합을 거쳐서 농민의 대다수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고르려 넣는 길, 농업에——처음에는 농산물의 판매부분에서, 그 다음에는 농산물의 생산부분에서 집단(集團)주의의 원칙을 점차 부식(扶植)하는 길을 밟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옹계 제시하였다」.

「농민의 대다수가 개인 자본주의적 대농장과 고용노예제의 길, 적빈과 명락의 길을 내버리고 발전의 이 세 길에 줄거 나설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명제들이 옳은가?

나는 이 두 명제는 신경제 정책의 조건하에서의 우리의 전 전설기에 있어서 옳은 것이며 논쟁할 여지도 없는 명제라고 생각한다.

이 명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연휴에 대한, 국내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체계에 농민정리를 고으려 넣는 데 대한, 프로레타리아트는 농민의 기본대중과 함께 사회주의에 전진하여야 하는 데 대한, 농민의 수백만 대중을 협동조합화하는 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옳은 길이 된다는 것과 또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이 장성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단순한 장성이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장성이냐 다름없다...」(제二七권 三九六페이지를 보라)는 데 대한 케닌의 유명한 해제를 표명할 따름인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농민정리의 발전은 어떠한 길로 나갈 수 있으며 또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농민정리는 자본주의적 경리가 아니다. 농민정리의 압도적(壓倒的) 다수를 취하여 본다면 그는 소상품적 경리인 것이다. 그러면 소상품적 농민정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분기점(分岐點)에 서있는 경리인 것이다. 이 경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여러 나라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 옳고 또는 우리 나라에서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는 그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과 같이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농민정리의 이러한 동요성(動搖性)과 의존성(依存性)이 생기는가? 이것을 무엇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농민정리의 분산성에 의하여, 비조직성에 의하여, 도시, 공업, 신용제도, 국가주권의 성질에 종속되고 있는것에 의하여, 마지막으로는 일반이 다 아는바와 같이 농촌은 물질적 및 문화적 관계에 있어서 도시의 뒤를 따라가며 또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 사실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농민정리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은 한편에는 대농장, 다른 한편에는 대중적 빈궁화가 있는 농민의 심혹한 계급적 분화를 거쳐서 발전하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길은 자본주의적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필연적인것이니 그것은 농촌과 농민정리가 도시, 공업, 집중된 도시 신용제도, 주권의 성질에 종속되고 있으며 도시에는 부르주아지, 자본주의적 공업, 자본주의적 신용제도, 자본주의적 국가주권이 지배하고 있는 까닭이다.

도시가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공업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있으며 운수, 신용제도, 국가주권 및 기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고 토지의 국유화가 국내의 일반적 법률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농민정리의 발전은 꼭 그러한 길로 나아갈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의 정반대이다. 실로 도시는 농촌의 지도자이오 우리의 도시에서는 자기의 수중에 인민정제의 모든 판전적 부문을 잡고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하고 있는 까닭이오 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농민정리는 그의 발전에 있어서 다른길로, 즉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것이다.

이 길이란 어떠한 길인가?

이것은 협동조합의 모든 형태를 통하여 수백만의 농가를 대중적으로 협동조합화하는 길이오, 사회주의적 공업을 중심하여 분산된 농민정리를 연합하는 길이오, 처음에는

농산물을 판매하며 도시의 공업품을 농민경리에 공급하는 방면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농업생산 방면을 통하여서 농민속에 집단주의적 원칙을 부식하는 결연적이다.

그리고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환경에서 이 길은 갈수록 더욱더 불가피의 길이 되어 결연적이다. 왜 그러냐하면 판매방면으로의 협동조합화, 공급방면으로의 협동조합화, 마지막으로는 대부(貸付) 및 생산방면으로의 협동조합화(농업공동조합)는 농촌의 복리(福利)를 향상케하는 유일한 길이요 농민의 광범한 대중을 빈궁과 파산으로부터 전져내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까닭이다.

농민은 우리 나라에 있어 그 자체상 처지로 보아서 비(非)사회주의적이요 또 그런 까닭에 그는 사회주의적 발전에로 나아갈 능력이 없다고 말할한다. 농민이 그 자체상 처지로 보아서 비사회주의적이라 함은 물론 옳다. 그러나 그것은 만일 농민이 도시의 뒤를 따라가고 도시에는 사회주의적 공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농민경리가 사회주의적 길로 발전되지 않으리라는 데 대한 논거는 못되는 것이다.十月혁명당시에도 농민은 역시 그 자체상 처지로 보아서 사회주의적이 아니었고 또한 그들은 국내에 사회주의를 수립하려고는 도무지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때에 주로 지주의 주권을 없이어 버리는 것과 전쟁을 끝맺는 것과 평화를 수립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에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뒤를 따라갔다. 왜 그리하였는가? 이것은 부르주아지를 벗어나오는 유일한 길이었고 평화를 수립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까닭이다. 그때에 이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었던 까닭이다. 그때에 우

리 당은 농민의 특수한 리익(지주의 전복과 평화)을 국내 일반적 리익(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에 연결시키고 종속(從屬)시키는 정도 즉 농민에게 적합한 또는 유리한 것이 되는 그러한 정도를 발견하여 낼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리하여 농민이 그가 비사회주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사회주의적 프로테라리아트의 뒤를 따라 나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건설에 대하여서와 그 건설의 궤도에 농민을 끄으려도 립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말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은 그 자체상 처지로 보아서 비사회주의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며 또는 반드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을 빈궁과 평락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은 프로테라리아트와 제휴하는 것, 사회주의적 공업과 제휴하는 것, 농민의 대중적 협동조합화를 거쳐 사회주의적 발전의 일반적 궤도에 농민정리를 인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까닭이다.

이제 하여서 농민의 대중적 협동조합화를 거쳐서야만 하는가?

이것은 대중적 협동조합화에서 농민에게 맞당하고 유리한, 그리고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으로 농민의 기본대중을 끄으려드릴 가능성을 프로테라리아트에게 보장하여 주는바의 「개인적 리익, 개인—상업적 리익과, 국가에 의한 그 리익의 검열 및 통제(統制)와를 연결시키는 그 정도를, 이 개인적 리익을 일반적 리익에 종속시키는 그 정도를 우리는 발견하여낸」(패넌) 까닭이다. 실로 농민에게는 협동조합을 거쳐서 그들의 상품판매를 조직하며 그들의 정리에 대한 기계공급을 조직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민은 대중적 협동조합화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 길로 꼭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공업의 주체(主體) 하에서 농민경리의 대중적 협동조합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농민의 대중적 평락을 초래(招來)하고 있는 옛 자본주의적 길로부터 소상 품적 농민경리가 물러나오는 것이오 그리고 발전의 새 길 즉 사회주의적 건설의 길로 넘어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로 그러므로 농민경리의 발전의 새 길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건설의 사업에 농민의 기본대중을 끄어드리기 위한 투쟁은 우리당의 당면임무로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전련맹공산당(불웨이크) 제十四차 대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한 것은 옳은 일이다.

「농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인 길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있는 사회주의적 국영공업, 국가의 대부기관 및 기타의 관건적 부문의 경제적 지도가 점점 커지는 조건하에서, 협동조합조직체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리용하며 극복하며 몰아내면서 농민의 기본대중을 협동조합의 조직체로 끄어드리며 이 조직체에 사회주의적 발전을 보장하여주는 데에 있는 것이다」(중앙위원회의 결산보고에 대한 대회의 결정서들 보라)。

「새 반데파」의 심각(深刻)한 오류는 그가 농민발전의 이 새 길을 믿지 않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하에서는 이 길이 전연 불가피의 것임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리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새 반데파」가 왜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믿지 않으며 사회주의의 예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농민을 자기뒤에 끌고 나아갈 수 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능력을 믿지 않는 때문인 것이다.

이로부터 신경제 정책의 이중성(二重性)을 이해하지 못하는것, 신경제 정책의 부정적 방면을 과대평가하는것, 또한 신경제 정책을 주로 퇴각이라고 보는것이 나오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것, 우리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공간(사회주의적 공업, 대부제도, 협동조합, 프롤레타리아트의 주권 및 기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것이 나오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국영공업의 사회주의적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것, 레닌의 협동조합의 계획안의 정당성을 의심하는것이 나오는것이다.

이로부터 농촌에서의 계급적 분화를 과장하는것, 쾰라크 앞에서 황겁(惶怯)하여 담비하는것, 중농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것, 중농민과의 튼튼한 동맹을 보장함에 관한 당의 정책을 과피하려고 시도하는것과 또는 일반적으로 당의 농촌정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리저리로 방황(彷徨)하는것이 나오는것이다.

이로부터 공업과 농업을 건설함에, 협동조합과 소비트를 활기있게 함에, 나라를 통치함에, 판로주의와 투쟁함에, 우리국가 기관의 개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투쟁함에 수백만의 로동자 및 농민대중을 끄으려들임에 관한 당의 거대한 사업, 즉 발전의 세 시기를 표시하는바의, 또는 그것이 없이는 아무런 사회주의적 건설도 상상할수 없는바의 그 거대한 당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이 나오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건설의 난관의 앞에서 실망 또는 당황해 하는것,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는것, 당이 변질(變質)된다고 비판적으로 짓거리는것등이 나오는것이다.

그들, 부르조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여런 잘되어 있는데 우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하여런 잘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만일 서방에서 혁명이 밋쳐 성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트러지고 만다는 것——이러한 것이 나의 생각 같아서는 청산과적 어조(語調)인 듯한데 반대파는 무엇을 위함인지(아마도 회화를 위하여 그러는 모양이다) 「국제주의」라고 사칭(詐稱)하는 것이 「새 반대파」의 일반적 어조인 것이다.

신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라고 반대파는 말한다. 신경제 정책은 주로 퇴각이라고 지도비에 보는 말한다. 물론 이것은 모두다 옳지 못한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신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투쟁을 옹호한, 또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승리를 타산한 당의 정책이다. 사실에 있어서 신경제 정책은 다만 퇴각으로써 처음에는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퇴각의 행정에서 력량을 재편성하여 진공을 개지 할것을 타산한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벌써 몇해동안을 진공하고 있다. 우리의 공업과 쓰베트 상업을 발전시키면서 또는 개인자본을 몰아내면서 성과있게 진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의 오 주로 퇴각이라고 하는 테제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이 테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이 테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자본주의의 단순한 부활, 자본주의의 단순한 「회복」이라는 그런 옳지 못한 추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오직 이 추론으로써만 반대파가 우리 공업의 사회주의적 본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 추론으로써만 반대파가 골라크의 앞에서 황급하여 덤비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 추론으로써만 반대파가 농민의 계급적 분화에 대한 옳지 못한 주장을 얻어 전 그 조급성

(躁急性)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 추론으로써만 중농민이 우리 나라의 농업에 있어서 중심체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반대파의 심한 진망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 추론으로써만 중농민의 비중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레닌의 협동조합 계획안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 추론으로써만 농촌발전의 새 길 즉 사회주의 건설에 농촌을 고요히 넣는 길에 대하여 「새 반대파」가 불신하는 것을 「립중」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자본주의가 부활(復活)되는 일면적 과정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주의 발전의 양면적 과정,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서로 투쟁하는 대립적 과정, 사회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극복하여 나가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영 공업이 사회주의적 토대로 되어 있는 도시에어나 또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결합하는 대중적 협동조합이 사회주의적 발전의 기본적인 면쇄(聯鎖)로 되어 있는 농촌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로 논쟁할 여지가 없이 그러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권이 프로테라리아트의 것이며 대규모적 산업이 프로테라리아트의 수중에 있으며 운수기관, 대부기관이 프로테라리아트의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그것만으로써 자본주의의 단순한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가 국유화 되었고 또는 그것이 매매되지 못하는 것과 우리의 상업, 대부, 조세(租稅), 협동조합의 정책은 골라크의 착취적 탐욕을 제한하며 농민의 가장 광범한 대중의 복리를 증진(增進)시키며 농촌의 양극성(兩極性)을 균일케 하는 데로 돌

런 그것만으로써도 농촌의 분화작용(分化作用)은 이전과 같은 범위로 될수 없는것이요 중농민은 농민의 기본대중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풀라크는 이전과 같은 힘을 차지할수 없는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풀라크와의 투쟁이 이전의 로선(路線)、즉 풀라크를 반대하여 빈농민을 조직하는 로선으로만 나가는것이 아니라 또한 새 로선 즉 풀라크를 반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 및 빈농민이 중농민대중과 동맹하는것을 튼튼케하는 로선으로 나가는데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반대파가 이 둘째 로선으로서의 풀라크와의 투쟁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실은 풀라크와 빈농민이 농촌에서 기본대중으로 되어있고 중농민은 「도래(淘汰)」되고 있을때에 보게된 농촌 발전의 낡은 질, 즉 농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반대파는 기울어지고 있다함을 한번 더 증명하는것이다.

반대파는 레닌의 「현물세(現物稅)론」에 근거하면서 협동조합은 국가자본주의의 이형동체(異形同體)라고 말하며 또는 그로 인하여서 반대파는 사회주의적 발전의 기본적인 계로서의 협동조합의 리용에 대한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반대파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하는것은 「현물세론」이 서술되었던때, 우리에게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이 없었던때, 레닌이 국가 자본주의를 우리의 경리 사업의 가능한 기본적인 형태로 상상하였고 협동조합을 국가자본주의와 결합하여서 관찰하였던 그때인 一九二一년에는 충분한것이었고 또는 만족한것이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그 해석은 벌써 불충분하며 또는 역사적으로 뒤떨어진것이 되었다. 왜 그러냐하면 그후로 지거는 변하였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공업은 발전되었고 국

가 자본주의는 희망하던바와 같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었는데 지금 一천만명이상의 조합원을 포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 공업과 결합하기 시작된 까닭이다.

「현물세론」이 발표된지 二년후인 一九二三年에 와서 벌써 레닌은, 「협동조합은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 사회주의와 전연 밀접하게 부합된다」(제二七권 三九六페이지를 보라)라고 간주하면서 협동조합을 탈리 고찰한 이 사실을 어찌 다르게 설명할가?

이 두태동안에 사회주의적 공업이 장성하였고 국가자본주의는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레닌은 협동조합을 이미 국가자본주의와 결합하여 관찰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공업과 결합하여 관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써 아니고 무엇으로써 이것을 설명할수 있는가?

협동조합의 발전조건들이 변하여졌으니 그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도 또한 반드시 변하여야 할 것이었다.

「협동조합론」(一九二三年)이라는 레닌의 소책자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한 유명한 구절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가자본주의하에서는 * 협동조합적 기업소들은 첫째로는 개인기업소로써, 둘째로는 집단적 기업소로써 국가자본주의적 기업소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존제도하에서는 * 협동조합적 기업소들은 집단적 기업소로써는 개인자본주의적 기업소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만일 그것이 국가에 즉 로동계급에 속한 로지와 생산수단에 기초하여 건설된 것이라면 사회주의적 기업소와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제二七권 三九六페이지를 보라)。

이 적은 인용문에서는 두가지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현존 제도」는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 문제로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결합하여 취급한 협동조합적 기업소들은 사회주의적 기업소와 「다르지 않다는」 문제이다.

이보다 더 명백하게 표시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헤닌의 그 소책자에는 또 다음과같은 한 구절이 있다.

「협동조합의 단순한 장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장성이나 다름없는 것이니 (이상에 지시한 「일마 안되는 것」을 제외하모는) 이와함께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견지의 근본적 변경을 필경 승인 하여야 될 것이다」(상동 참조)。

「협동조합론」이라는 소책자에서 우리는 분명히 협동조합에 대한 새 평가를 즉 「새 반대파」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바의, 또한 사실에, 명확한 진리에, 헤닌주의에 반하여 그 들이 극력으로 목살하고 있는바의 그 새 평가를 보고있다.

국가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취급한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적 공업과 결합하여 취급한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현물세론」과 「협동조합론」이라는 소책자의 사이에는 심연(深淵)이 가로놓여 있다는 결론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결론은 물론 옳지 못한 것이다. 협동조합을 평가하는데 대한 문제에 있어서 「현물세론」과 「협동조합론」이라는 소책자의 사이에 밀접한 연락이 있음을 즉시에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예를 들면 「현물세론」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그 구절은 이러하다.

「리권(利權)」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한 형태의 대규모적 생산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대규모적 생산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소생업자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소규모적 생산으로부터 대규모적 생산으로 이행, 다시 말하면 그 이행은 일종의 복잡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대신에 그것이 성과있게 되어가는 경우에는 일종의 광범한 주인대중을 포괄할 능력이 있으며 남은 사회주의 이전의* 관계, 심지어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 즉 온갖 「새것」을 반할하는 의미에서 가장 완강한 관계의 일종이고 일종의 생활력이 있는 뿌리를 붙여 버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이행인 것이다」(제二六권 三三七페이지를 보라)。

이 인용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직 발달된 사회주의적 공업이 없는데도, 이미 「현물세론」의 당시에 있어 레닌은 협동조합이 성과있게 되어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회주의 이전의 관계」, 즉 자본주의적 관계도 반대하여 투쟁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보인다. 나는 이 사상이야말로 결국 「협동조합론」이라는 레닌의 소책자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는 어떠한 결론이 생기는가?

이에서는 「새 반대파」는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으로 취급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새 반대파」는 협동조합을 다룬 현상과 결합하여 즉 말하자면 국가자본주의(一九二一년)와나 혹은 사회주의적 산업(一九二三年)과 결합하여 취급된 역사적 현상으로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정된 또는 영원한 「물자체(物自體)」로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에서 협동조합 문제에 관한 반대파의 오류가 생기는 것이오 이에서 협동조합을 거쳐 사회주의로 나가는 농촌의 발전에 대한 그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오 이에서 반대파가 낡은 결 즉 농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대체로 사회주의적 건설의 실제문제에 있어서의 「새 반대파」의 립장인 것이다.

결론은 하나뿐이다. 곧 반대파에게 로선이 있다면 그의 로선, 그의 동요, 방향, 난관에 당면하여서의 당황, 우리사업의 불신임——이것은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앞에 항복하는 때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만일 신경제 정책은 주로 퇴각이라면, 만일 국영 산업의 사회주의적 본성은 의심스러운 것이라면, 만일 골라크는 것이 전능한 자이오 협동조합은 희망이 적으며 중농민의 역할은 점진적(漸進的)으로 저락하여가며 농촌발전의 새길은 의심스러운 일이며 당은 거이 변질되고 있는데 서방에서의 혁명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면——모든 것이 이러하니까 대체 반대파의 병기창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는 우리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와 투쟁함에 있어서 무엇을 믿으려하는가? 다만 「시대의 철학」이라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는 싸움하러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그를 대체로 병기창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면 「새 반대파」의 병기창은 보잘것없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 병기창은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당이 그러한 병기창을 가지고 싸움에 나섰다 「즉시」에 패망하였을 것이오, 당은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앞에 그저 항복하고 말았을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제十四차 당대회는 「전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당의 기본 임무가 된다」는 것과 이 임무의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철저한 사회주의적 형(型) 「(레닌)의 기업소인 우리 기업소들을 국가자본주의적 기업소로 관찰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투쟁」이라는 것과 「이러한 사상적 조류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특수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공업건설에 대한 대중의 의식적 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경제의 사회주의적 요소의 장성을 오직 방해할 것뿐이며 또는 개인자본이 사회주의적 요소와 투쟁하는 것을 용이케 하는 것일 따름이다」라는 것과 「그러므로 대회는 레닌주의의 이러한 의목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한 교양사업을 전대 필요로 인정한다」는 것——이렇게 결정하므로써 대회는 참으로 정당하였다(전면맹 공산당(불셰비크) 제十四차(중앙위원회의 결산보고에 대한 결정서를 보라)。

전면맹 공산당(불셰비크) 제十四차 대회의 역사적 의의는 그 대회가 「새 반대파」의 오류를 그 뿌리까지 들추어낸 것이오 반대파의 자신(自信)이 없는 것과 우는 소리를 멀리 집어내던지고 명백하게 또는 정확하게 사회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투쟁의 길을 지적한 것이오 당에 승리의 전망을 주었으며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확신(確信)으로써 무장시켜준 거기에 있는 것이다。

一九二六년 一월 二十五일。

농민문제에 관한 당의 세가지 기본적인 표어에 대하여

안 — 쓰끼에게 주는 대답

당신의 편지는 물론 제때에 받았다. 조금 늦게 회답을하니 이에 용서하여 주시기 바란다.

一、태닌은 「온갖 혁명의 가장 주되는 문제는 국가주권에 대한 문제다」(태닌전집 제二권 一四二페이지를 보라)라고 말하였다. 어떤 계급 혹은 어떤 계급들이 전복되어야 하고 어떤 계급 혹은 어떤 계급들이 주권을 잡아야 하는가 — 여기에 「온갖 혁명의 가장 주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혁명의 이런 또는 저런 계단의 전(全)시기에 있어서 그 효력을 보전하고 있는바의 당의 전략상 기본적인 표어들은 만일 그것이 태닌의 이 근본적 해제에 전적으로나 또한 완전히 의거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표어들이라고 일카를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 표어들은 오직 그것이 계급적 역량들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토대하여 성립되었거나, 그것이 계급투쟁의 전선에 있어서 혁명적 역량의 배치에 대한 올바른 설계를

지정하거나, 그것이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전선에도 대중을 인도하여움을 쉽게하여주거나, 그것이 이 임무를 실행함에 필요한 광범하고 또 유력한 정치적 군대를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편성하여내는 것을 당에 용이하게 하여주는 이러한 경우에서라야만 정당한 포어가 될수있는 것이다.

혁명의 이런 또는 저런 계단을 지내는 동안에는 패배(敗北)와 퇴각, 실패와 몇 개별적 전술상 오류들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기본적 전략상 포어가 옳지않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우리 혁명의 첫 계단에 있어서의 기본적 포어——「부르조아——민주주의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부르조아지를 중립(中立)시키고 전농민과 함께 짜리와 지주들을 반대하여 싸울것」——는 一九〇五年 혁명이 실패되었음에 불구하고 전연 옳은것이였다.

그런즉 당의 기본적 포어에 대한 문제를 혁명발전의 이런 또는 저런 계단에 있어서의 그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문제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혁명의 행정에 있어서 당의 기본적 포어가 이미 낡은 계급들의 혹은 낡은 계급의 주권을 전복하는데 이르렀하였으나 그러나 이 포어에서 생기는 혁명의 본질적인 여러가지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여러가지 요구의 실현이 장구한 시간을 끌리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여러가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새 혁명이 필요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기본적 포어가 옳지않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一九一七年 二月혁명은 짜리즘과 지주들을 전복하여버렸으나 그러나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것과 기타 여러가지들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

적 혁명의 첫계단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본적 포어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十月혁명은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고 주권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넘어 가게하는 것을 실현하였으나 그러나(7)、일반적으로는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과(2)、부분적으로는 농촌에서 골라크를 고립시키는 것을 주지에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어떠한 일정한 시기까지 끌고나갔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혁명의 둘째계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 포어 곧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을 위하여 중농을 중립시키고 빈농들과 함께 도지에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싸울것」——이란 포어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즉 당의 기본적 포어에 대한 문제를 그 포어에서 생기는 이런 혹은 저런 여러가지 요구를 실현하는 기간 및 형태에 대한 문제와 혼동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당의 전략상 포어들들 이런 혹은 저런 시기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의 일시적 성공 혹은 실패의 전지로써나 더구나 그 포어에서 생기는 이런 혹은 저런 여러가지 요구가 실현되는 기간 혹은 형태의 전지로써는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의 전략상 포어들은 오직 계급적 역량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의 전지로써의 혁명의 승리와, 새 계급의 수중에로의 주권집중을 위한 투쟁의 전선에 있어서의 혁명역량의 옳은 배치(配置)의 전지로써만 평가될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오유(誤謬)는 당신이 이 가장 주요한 방법론적(方法論的)문제를 회피(迴避)하였거나 혹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다만, 十月혁명까지만 전농민과 동맹하여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단언(斷言)이 옳은가? 아니냐, 옳지 않다.」 전농민과의 동맹」이라는 포어는 농민전체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함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을 十月혁명전이나 十月혁명당시나, 또한 十月혁명이후의 첫시기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이 인용문에서는 짜리, 지주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를 수립하는 문제가 서있을때인 혁명의 첫째단(一九〇五年—一九一七년 二月)에 있어서의 당의 전략상 포어는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립하는 문제가 서있을때인 혁명의 둘째제단(一九一七년 二月—一九一七년 十月)에 있어서의 전략상 포어에 비하여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본즉 당신은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 혁명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를 부인(否認)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이 전략상 포어의 기본되는 제목은 혁명의 당해제단에 있어서의 주권에 대한 문제 즉 어떤 계급이 전복되고 어떤 계급의 주중에 주권이 넘어가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그 단순한 사태(事態)를 리해하고저 하지않는 까닭이다. 이에 있어서 당신이 근본적으로 옳지않음에 대하여서는 증명할 필요도 없을까 한다.

당신은 十月혁명당시에 있어서나 또한 十月혁명이후의 첫시기에 있어서도 전 농민이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함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치 우리는 「전 농민과의 동맹」이라는 포어를 내걸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누가 十月변혁(變革)과 十月혁명이 부

프로자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그의 기본적인 임무로 세웠거나 혹은 그것으로써 끝을 맞추었다고 당신에게 말하였는가?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취하였는가? 대체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립하는 것을 부르조아 혁명의 범위안에 용납할 수 있는가? 대체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를 전취한다는 것은 부르조아 혁명의 범위에서 벗어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콜라크들이(그들도 역시 농민들이다)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고 프로테타리아트에게 주권을 넘여가는 것을 지지하였으리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토지를 국유화(國有化)함과 토지의 사유제도를 폐지함과 토지의 매매(賣買)를 금지하는 등등에 대한 법령은 그것을 사회주의적 법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콜라크와의 동맹하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투쟁에서 실시된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콜라크들이(그 역시 농민들이다) 공장, 제조소, 철도, 은행 및 기타를 수탈하는 데에 쏜베트주권의 법령과 또는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 전쟁으로 전환하라는 데 대한 프로테타리아트의 요어를 지지하였으리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十月혁명에 있어서 기본 되는 것은 방금 말한 그러한 행동들과 또한 그와 유사한 행동들이 아니라,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고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十月혁명이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그의 주요임무중의 하나로 삼았고,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함이 없이는十月혁명 자체가 전고하게 되었을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이 十월혁명이 없이는 부르조아 혁명이 끝까지 수행되었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十월혁명이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한 것만 큼 그 十월혁명이 전 농민의 측으로 부러 동정(同情)을 받든지 받게 되었던 것은 논쟁(論爭)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논쟁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거(論據)에서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十월혁명의 행정에 있어서 파생적(派生的) 현상이 아니라 그 혁명의 본질이거나 혹은 그 의 기본적 목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十월혁명의 주되는 목적 즉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립하며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환하며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등을 당국은 어디에다 숨겨버렸는가?

그리고 만일 온갖 혁명의 기본적 문제가 즉 주권이 한계급의 손에서 다른 계급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대한 문제가 전략상 표어의 주되는 제목이라면 이에서 프로테타리아 주권으로써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문제를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고 프로테타리아 주권을 전취하는 문제 즉 혁명의 둘째계단에 있어서의 전략상 표어의 주되는 제목인 문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가장 위대한 업적(業績) 가운데서 하나는 그 독재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였으며 또한 중세기의 오물(汚物)을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린 것이다. 농촌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주요하고도 또한 참으로 결정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이것이 없이는 맑스가 이미 十九세기의 하반기에 말한바의 농민전쟁과 프로테타리아 혁명과의 결합이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프로테타리아 혁명 자체가 토론하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정을 생각하여둘 필요가 있다. 즉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은 한번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당선이 그 편지에 확인(確認)한바와 같이 一九一八년의 어떤 시기만이 아니라 또한 一九一九년(월가장 류역지방——우탈)과 一九一九—一九二〇년(우크라이나)의 한시기를 포괄(抱括)한 전시기를 망라하였다. 나는 골차크 및 테니진의 진공이 있는것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인데 그때에 농민전체의 앞에 지주의 주권이 다시 회복될 위험이 직면하였고 참으로 그 농민전체는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을 보장하여주며 이 혁명의 결과를 자기들에게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에트주권의 주위에 결속하지않을수 없었다. 당선이 레닌의 저서에서 인용한 인용문이라든가 또는 당적 토어들을 실천화하는 그 기교(機巧)를 옮겨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실생활(實生活)의 과정의 그 복잡성 및 그 다양성(多樣性)、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직접 사회주의적 임무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임무와 「기묘(奇妙)한」 교착(交錯)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할것이다.

이 교착은 혁명의 제二계단에서의 당의 토어가 옳지않았다거나 이 토어가 혁명의 제一계단에서의 토어와 다르지않다함을 말하는것이라고할수 있는가? 아니다, 할수 없다. 도리어 이 교착은 오직 혁명의 제二계단에서의 당의 토어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을 위하여 반농과 함께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부르조아를 반대하여 싸울것, 및 기타에 대한 토어가 옳은것이있음을 확증할 따름이다. 왜 그러한가? 왜 그러냐하면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위선 十月혁명에 의하여 부르조아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주권을 수립하여야 할것이있으니 그것은 오직 그러한 주권만이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까닭이요 그리고 十월혁명에 의하여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부르조아지를 전복할 능력과 프로테타리아트 주권을 수립할 능력을 가진 적·당·한 정치적 군대를 十월혁명에로 준비하며 조직하여야 할 것이었던 까닭이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정치적 군대는 다만 부르조아지를 반대하고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위하여서 빈농과 프로테타리아트의 동맹이라는 포어하에서만 준비할 수 있었고 또는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一九一七년 四월부터 一九一七년 十월까지에 실시된 이러한 전략상 포어가 없이는 우리가 그러한 정치적 군대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十월에 승리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프로테타리아트의 주권장악을 보장하는 것을 자체의 임무로 삼은 혁명의 제 二계단에서의 전략상 포어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과를 대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모든 「모순」을 회피하는 데는 오직 한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것은 즉 혁명의 제 一계단(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전략상 포어와 혁명의 제 二계단(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대한 전략상 포어와의 사이의 기본적 차이를 지인하는 것이며 우리가 혁명의 제 一계단의 시기에 있어서는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전(全) 농민과 함께 나갔었고 그리고 혁명의 제 二계단의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본의 주권을 반대하고 프로테타리아 혁명을 위하여 빈농과 함께 나갔다는 것을 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인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혁명의 제 1 및 제 2 계단에 있어서의 계급적 역량에 대한 분석(分析)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반드시 시인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一九一七년 二월까지는 프로테라리아트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의 포어필에서 활동을 하였고 一九一七년 二월후에는 이 포어를 프로테라리아트 및 빈농의 사회주의적·독재라는 포어로써 바꾸었던 그 사실을 해석하여낼 수 없는 것이다.

一九一七년 三월—四월에 이렇게 한 포어가 다른 포어로써 바꾸어진 것이 당선의 도식(圖式)으로서는 해석될 수 없음에 동의하라.

당의 두가지 전략상 포어에 대한 이 기본적인 차이를 레닌은 이미 그의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이라는 소책자에서 지적하였다. 그는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을 준비함에 있어서의 당의 포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프로테라리아트는 전제정치의 반항을 폭력으로써 무찌르고 부르조아지의 분화호성(不確平性)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농민대중을 자기에게 결합시키면서 반드시 민주주의적 민력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제八권 九六페이지를 참조하라)。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 변혁을 위하여 부르조아지의 중립하에서 모든 농민과 함께 전체 정치를 반대하여 나가라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포어에 관하여서는 레닌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프로테라리아트는 부르조아지의 반항을 폭력으로써 깨트리며 농민과 소부르조아지의 불화조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주민중의 반(半) 프로테라리아문자의 대중을 자기에게 끄덕이 오면서 만드시 사회주의적 변혁을 완성 하여야 할 것이다」(상동)。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하여 도시 및 농촌에 있어서의 소부르조아지를 중립시키고 빈농 및 대체로 주민의 반(半) 프로테라리아층과 함께 부르조아지를 반대하여 나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一九〇五년에 규정한 것이다。

레닌은 一九一七년 四월에 당시의 정치 정세를 프로테라리아트 및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가 부르조아지의 실세주권파의 교착된 것으로써 특징지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르씨야에 있어서 현모멘트의 특징은 프로테라리아트의 의식과 조직성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조아에게 넘겨준 혁명의 제一계단으로 부러 프로테라리아트와 또는 빈농층의 손에 주권을 반드시 넘겨주어야 할 혁명의 제二계단으로 넘어가는 데 있다」(레닌의「四월레제」, 제二〇편 八八페이지를 참조하라)。

레닌은 十月혁명의 준비가 전속력으로 진행되던 一九一七년 八월말에 「농민들 및 노동자들」이라는 특별한 문헌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오직 프로테라리아트 및 농민만이 군주제를 전복할 수 있다——이러한 것이 당시에 있어서 (一九〇五년에 대한 말이다——이 • 소 말 린) 우리의 계급적 정책의 기본되는 정의(定義)였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옳은 것

* 방점은 나의 것——이 • 소 말 린。

이었다。一九一七년의 二월 및 三월은 한번 더 이것을 확증하였다。다만 빈농* (우리의 강령에 말한바와 같이 반(半) 프로레타리아트)을 지도하는 프로레타리아트만이 민주주의적 평화로써 전쟁을 종결시키며 그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傷處)를 치료할수 있는 것이며 사회주의로 향하여 나아가는 데 절대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된 것을 내드릴수 있는 것이다。즉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의 계급적 정책에 대한 정의인 것이다」(제二一권 一一一페이지를 참조하라)。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마치 프로레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가 있는듯이 그렇게는 리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렇게 리해하는것은 물론 옳지 않은 것이다。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토어필에서 十月혁명에로 나갔었고 또한 그때에 우리 볼셰비크들이 다수이었음으로 사실에 있어서 우리에게 벌써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좌익(左翼)에세로들과 별력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들과 지도권을 나누어가지고 있었던 단것만치 그 토어를 十月에 형식상으로 실현하였다。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의 그 형식상 존재는 좌익에세로의 「반란」이 있었뒤에, 좌익에세로들과의 별력이 파란뒤에, 국가의 지도권을 다른 당과 나누지(分割)않고 또는 나눌수도 없는, 한당의 수중에 즉 우리 당의 수중에 그 지도권이 전적으로 완전히 넘어온 그때에 없어져버렸다。이것을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부르는 것이다。마지막으로 一九一八년 十一月에 레닌은 혁명의 지나온 과정(過程)을 회고(回顧)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쓰말린。

「그렇다, 우리가 아직 농민전제와 함께 나가는데까지는 우리의 혁명은 부르조아혁명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깨달았으며 一九〇五年부터 몇백만 몇천만이나 말하였고 현재든지 역사적 행정의 이연적 계단을 뛰어넘어가거나 별령으로써 취소하려고는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一九一七년에는 四월부터 즉 월혁명전 우리가 주권을 잡기로 해전부터 * 우리는 우리 나라가 전진하였으며 자본주의가 전진하였으며 주의에도 전진하는 것을 요구하는 (누가 이것을 원한다는가 많은다는가에 불구하고) 그 파파가 일찍 없던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혁명은 지금 이에서 멈추고말수 없다는 것을 인민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였으며 또한 해석하였다. 왜그러나하면 달리는 앞으로 나갈수가 없었으며 달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疲廢)된 나라를 구원하여 달수가 없었으며 달리는 근로자 및 피착취자들의 모를을 완화(緩和)시킬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꼭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혁명의 행정은 우리의 논의(論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처음에는 「전」 농민과 함께 군주제를 반대하며 지주들을 반대하며 중세기적 유물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것만큼 혁명은 부르조아적,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빈농과 함께, 반(半)프로레타리아트와 함께, 모든 피착취자들과 함께, 농촌부자들, 폴락, 투기업자(投機業者)를까지 합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나 * 그런것만큼 혁명은 사회주의적 혁명으로 되는 것이다」 (제二三권 三九〇—三九一페이지를 보라)。

보는바와 같이 레닌은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을 준비하던 시기에 있었던 첫째의 전략상 포어와十月혁명을 준비하던 시기에 있었던 둘째의 전략상 포어와의 사이에 있는 차이의 그 모든 심도(深度)를 여러번 강조(強調)하였다. 거기에서 (혁명의 첫째단——역자)의 포어는 전농민과 함께, 전제정체를 반대하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혁명의 둘째제단——역자)의 포어는 빈농과 함께 부르조아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부르쉴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十月혁명후의 전지기를 통하여 계속된 그 사실과 우리가 부르쉴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한 것만치 「전」 농민이 우리에게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실——이 사실은 내가 이상에 이미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빈농들과 함께 十月혁명에로 나갔으며 또한 十月혁명에서 승리하였다는 것, 골라크(그 역시 농민인 것)의 반항 및 중농층의 동요하(動搖下)에서 빈농들과 함께 부르쉴라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그의 임무중의 하나는 부르쉴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인바의)를 수립한 그 기본적인 원칙을 조금치도 흔들어 놓지 않는다.

생각컨대 명백한 듯하다.

三、당신은 그 편지에 계속하여 쓰기를,

「우리가 중농을 중립시키고 농촌 빈농과의 동맹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十月혁명에로 나갔다」고 단언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다 옳지 않다. 이상에 이미 지적한 고찰(考察)과 레닌의 저서에서 인용한 인용문에 의하면 이 토대는 다만 「농민의 내부에서 계급적 분열이 상속된」(레닌) 그 때에야 즉 「一九一八年 여름 및 가을」에 와서야 생겨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이 인용문에 의하면 당은 十月혁명을 준비하던 시기에 있어서나 또는 十月혁명의 당시에 있어서가 아니라 十月혁명 이후에 특히 一九一八年 이후에 즉 빈농위원회 지기이후에야 중농을 중립시키는 길에 나섰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도무지 옳지 않다.

그와 반대로 중농을 중립시키는 정책은 빈농위원회 지기이후에, 一九一八年 이후에 지작된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벌써 끝났었다. 중농을 중립시키는 정책은 우리의 실천에 있어

서 그야말로 一九一八년 이후에 폐지(廢止)된 것이 아니라 되었다. 바로 一九一八년이후인 一九一九년 三월에 레닌은 우리 당 제八차 대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거의 사회주의의 가장 나는 대표자들은——그들이 아직 혁명을 믿었고 리론상으로나 사상적으로 혁명에 봉사하고 있던 그때에——농민을 중립시킨다는데 대하여, 다시 말하면 중농으로 하여금 그들이 프로테타리아트 혁명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혁명을 방해하지 않는, 중립한, 우리의 적(敵)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층이 되도록 하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파업의 이러한 추상(抽象)적 리론적 설정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우리는 농촌사업의 정점에서 점열된 기본적 원칙과 지시들, 즉 우리가 중농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돈돈한 동맹의 토대 위에 서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득적 지도방침이 되어야 할 그러한 원칙과 지시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강구하여 내어야 할 그러한 사회주의적 설의 계단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제二四권 一一四페이지를 보라)。

보는바와 같이 당신이 그 편지에 말한 그것과는 어떤 정반대의 것이 된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서 중립화의 시초와 중결을 서로 혼동하면서 우리 당의 사실상의 실천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중농은 아직 부르주아지를 전복하는 그 동안까지, 아직 쇼베트주권이 린튼하여지지 않은 그때까지는 혁명과 반혁명과의 사이에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동요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을 중립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중농은 부르주아지가 「아주」 정복되었고 쇼베트주권이 린튼하여져가고 골라크가 타도되어가고 붉은군대가 국내전쟁의 전선에서 승리하기 시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팔린。

작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된 그때에야 우리편으로 도라서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전환이 있는 뒤에야 제 8차 당대회에서 레닌이 제출한, 당의 셋째 전략상 토어 즉 빈농에 의거하여 중농과 튼튼한 동맹을 지으면서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 토어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일반이 다 아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었는가?

그리고 또 당신의 편지에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로 넘어가는 때와 그 혁명이 승리한 이후 초기에 있어서 중농을 중립시키는 정책은 옳지 않은 것이며 소용없는 것이오 그러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긴다. 이것은 도무지 옳지 않다. 사례는 바로 그와 반대로 되어 있다. 바로 부르주아지의 주권을 전복하는 때에 있어서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이 튼튼하여지기 전까지의 초기에 있어서 중농이 언제보다도 더 동요하는 것이오 또는 반항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 초기에 있어서야말로 빈농과의 동맹과 중농과의 중립화가 필요한 것이다.

당신은 자기의 오류를 고집하면서 농민에 대한 문제가 다만 우리 나라에 한하여서만이 아니라 「十月혁명전」의 로씨야의 경제와 다소간 유사」한 다른 나라에 한하여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이 후자는 물론 옳은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국제 공산당 제 2차 콩그레스에서 토지문제에 관한 그의 해제에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는 초기에 있어서의 중농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당들의 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레닌은 빈농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농촌의 근로자 및 피착취대중」을 농업로 동자들과 반(半)프로레타리아트 혹은 영세농(零細農)들 및 소농들로써 구성된 개별적

그루파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농촌에 있어서의 특별한 그루파인 중농에 대한 문제도 넘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적 의미로 보아서 「중농」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냐 혹은 조작권에 의하여 토지의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쩔든 그 토지는 첫째로 자본주의하에서 일반적 통칙(通則)에 의하여 겨우 가족의 부양(扶養)과 빈궁한 생명을 유지하여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적어도 풍년에는 자본으로 전환할만한 어느 정도의 여유(餘裕)를 얻을 가능성을 주고, 또는 둘째로 자주(한농호에 두사람이나 세사람의) 감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도 소규모적 토지소유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는 적어도 가장 가까운 장래에나 또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초기에 있어서도 이 중(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자체의 임무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그 중을 중립시키는 임무로써,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중을 중립하도록 하는 임무로써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제二五권 二七一—二七二페이지를 보라)。

이 모든 것이 있은 후에 어떻게 중농을 중립시키는 정책이 우리 나라에서 『오직』 「一九一八년 여름 및 가을」에 와서야, 다시 말하면 쾰베트주권을 투튼히하는 사업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을 투튼히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 성과가 있은 후에야 「생기」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보는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는 모멘트에 있어서의 또한 프로레타리아트 주권을 투튼히하는 모멘트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당의 전략상 포어에 대한 문제와 또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스칼란.

그와 마찬가지로 중농의 중립에 대한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四、위에 말한 모든 것에서 본다면 당신이 레닌적 작업에서 인용한 인용문은 조금도 혁명의 제2계단에 있어서의 당의 기본적 포어에 대립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용문들은 (一)、十月혁명 즉전(即前)의 당의 기본적 포어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十月혁명 이후에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데 대하여 논술한 것이며、(二)、그 인용문들은 이 포어의 정당성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증한 것인 까닭이다.

나는, 혁명의 제2계단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기전의 시기에 있어서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주되는 제목으로 삼은 그 당의 전략상 포어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이후에 실시되는바의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함에 대한 임무를 대립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상에 이미 말하였으나 부득이 또한 번 더 중복하게 되었다.

五、당신은 「쁘라브다」에 기재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부르조아 혁명에 대하여」(一九二七年 三月 十二일호)라는 물로토브 동지의 일반이 다 아는 론문에 대하여 말하느냐 그 론문이야말로 당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해석을 청하게끔 「충동」해준 모양이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론문을 읽는지 알수 없다. 나도 물로토브 동지의 론문을 읽었다. 그런데 그 론문은 우리당 제十四차 대회에서 농민에 관한 당의 포어에 대하여 나의 보고에 말한 것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로토브 동지는 그 론문에 十月혁명의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기본적 포어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이 十月혁명 이후에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였던

것만치 당은 전농민의 동정을 받았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도시 및 농촌의 부르조아지를 반대하여 중농을 중립시키고 민농들과 함께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부하였고 포로케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립하였다는 것과,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상에서 이미 말하였다.

一九二七年 四月 十五일부의

『볼셰비크』잡지 제七—八호。

이 • 뱀 • 쓰달린 저작집 로문관

제九권 二〇五—二二〇페이지

十月혁명 준비기에 있어서의 프로테라리아트와 빈농의 독재의 표어에 대하여

에쓰·팩크롭쓰끼에게 주는 대답

나는 금년 五月 二일부의 당신의 편지는 자세히, 말하자면 조목마다 따라가면서 대답하여야 될 아무 리유도, 아무 근거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로 말한다면 당신의 편지는 안—쓰끼의 편지에 비하여 특별한 새것을 말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래도 당신의 편지에 대하여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편지가 一九一七년 四月—五月 당시의 까메네브 일파의 견해를 직접으로 부활시키는 약간의 요소들 포함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까메네브파의 견해를 부활시키는 요소들을 폭로하기 위하여서만 당신의 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一、당신은 그 편지에 말하기를 「사실상 우리는 二월로 부터 十月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모든 농민과 동맹하라는 표어를 가졌었고」 또한 「二월로 부터 十月에 이르는 동안에 당은 농민에게 관한 옛표어 즉 전적으로 모든 농민과의 동맹이라는 표어를 고수(固守)하였고 또한 옹호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첫째로, 불쉐비크들이 十月혁명준비지기(一九一七년 四月—十月)에 있어서 빈 농과 주요한 농민파의 사이에 한계(限界)를 지어놓는것을 그의 임무로 세우지않고 농민을 전일체로서 취급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은 둘째로, 불쉐비크들이 十月혁명준비지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라는 옛 포어를 「프로레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새 포어로써 바꾸지않고 一九〇五년에 쓴 「두가지 전술」이라는 레닌의 소책자에 지적된 옛 견지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것이 된다.

이것은 셋째로, 十月혁명준비지기(一九一七년 三月—十月)에 있어서 쏘베트의 동요(動搖) 및 타협, 쏘베트들에서와 전선(戰線)에서의 중농의 동요, 혁명과 반(反)혁명과의 사이에서의 중농의 동요, 쏘베트들이 에세르 및 멘셰비크 출신(出身)의 타협자들을 선두로 하여가지고 불쉐비크들을 고립(孤立)시키는 일에 반(反)혁명적 장군들과 발을 맞추어 나아간때인 七月 사변에 있어서 특히 날카로운 성질을 띤 그 동요 및 타협과 투쟁한 불쉐비크 정책이—즉 일정한 농민층의 그 동요 및 타협성과 싸운 불쉐비크의 두쟁이 맹목적인 일이었으며 또한 절대로 필요치 않았다는것이된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一九一七년 四月—五月에 프로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라는 옛 포어를 고수(固守)한 까메네브가 옳았으며 그리고 이 포어를 이미 밝혀진것으로 간주하고 또 프로레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새 포어를 제창(提唱)한 레닌은 옳지않았다는것이 된다.

당신의 편지가 전적으로 합당치않은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문제들을 세우기만 하여도 충분하다.

그런데 당신은 레닌의 저서에서 각개의 인용문을 인용하기를 매우 즐겨하는 사람임으로 그 인용문들을 고찰하여 보자.

레닌은 혁명의 계속 발전의 전지로 보아서 二월혁명 이후의 로씨야의 토지관계에 있어서의 새것으로는 프로테타리아와 농민전체의 이익의 공동성을 간주한 것이 아니라 빈농과 부요한 농민과의 분열을 간주한 것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전자 즉 빈농은 프로테타리아트의 편으로 쏠리었고 후자 즉 부요한 농민은 립시정부를 따라간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그리 큰힘을 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一九一七년 四월에 레닌은 까메네브 및 까메네브와의 견해를 논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에 와서 * 프로테타리아 당이 농민과의 이익의 공동성에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용허할수 없는 일이다」(一九一七년 四월 콘페렌치아에서의 레닌의 연설을 참조하라. 제二〇권 二四五페이지)。

그리고 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에 벌써 여러 농민대회의 체결의에서 토지문제의 해결을 헌법제정회의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있는것을 보게되는바 — 이것은 까제트(집현민주당) 측에 기우터지는 부요한 농민의 * 승리이다」(一九一七년 四월 페트로그라드 전시(全市) 콘페렌치아서상에서의 레닌의 연설을 참조하라. 제二〇권 一七六페이지)。

그리고 또 계속하여 말하였다.

「농민이 모든 토지와 모든 주권을 잡을수 있는것이다. 나는 이 가능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나의 시야(視野)를 한갓 오늘날만으로써 국한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새 현상 즉 고용농민 및 빈농과 부요한 농민과

• 방점은 나의것 — 이 • 쓰달린。

의 더욱 심각한 본질* 그것을 타산하여가지고 토지장명을 바로 또는 정확(正確)하게 규정한다」(『전술에 대한 편지』라는 레닌의 4월 논문 참조. 제20권 103페이지)。

레닌은 2월혁명 이후의 농촌의 새 환경에 있어서 새 것이 오. 중요. 한. 것. 을. 곧 여기에서 보았다。

레닌은 1917년 2월혁명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당의 정책을 세울때에 곧 이러한 때로 부러 출발한 것이었다。

레닌은 그가 1917년 4월에 페트로그라드 전지(全市) 콘페렌치야 석상에서 아래와 같이 말할 때에도 그러한 논거(論據)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야 이미 노동자 및 병사대의원 쇼베트와 임시정부에 주권을 내어준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 및 병사대의원 쇼베트는 프로페타리아트 및 병사들의 독재의 실현인 것이다. 그 병사들 가운데에는 다수가 농민이다. 이것이야말로 프로페타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이다. 그런데 이 「독재」는 부르주아와 타협하는 데로 들어섰다. 여기서야말로 「이전」 불평등들을 재점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제20권 176페이지를 참조하라)。

레닌은 그가 1917년 4월에 아래와 같이 쓸 때에도 또한 이 논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다만 「프로페타리아트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적 독재」에 대하여서만 말하는자는 실생활에서 뒤떨어진 자이고 그 뒤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실에 있어서 프로페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반대하고 소부르주아지의 편으로 넘어간 자이다. 그러한 자들은 혁명 이전의 「불평등적」 진기품(珍奇品)의 보관소(「이전 불평등적들」의 보관소라고 이룰 수 있는 것이다)에 기증(寄贈)하여야 할 것이다」(제20권 101페이지를 보라)。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 말 린。

프로테타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라는 옛 포어대신에 프로테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포어가 이 론지에서 생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편지에도 그것을 말한바와 같이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농민혁명을 트로츠키적으로 뒤어 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一九一七年四月에 레닌을 반대한 까메네브의 그와 흡사한 반대론이 믿을만한 것이었던 것만큼 그만큼 믿을만한 것이 될 것이다.

레닌은 그가 아래와 같이 말할 때에 그러한 반대론을 충분히 참작한 것이다.

「트로츠키주의는—」 황제없는 노동자 정부」라는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소부르조아지는 존재하여 있는 것이니 그를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부르조아지에게는 두 부분이 있는바 그의 빈한한 부분은 로동계급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제二〇권 一八二페이지를 참조하라)。

까메네브의 오류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당신의 오류인 그것은 소부르조아지의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농민의 두부분 사이에 있는 차이를 지적할 줄 모르며 또 강조할 줄을 모르는데와 총체로써의 전농민대중으로부터 빈농부분을 따로 갈려 놓으며 그리고 이 로대우에 一九一七年 혁명의 제一계단으로 부터 그의 제二계단으로 넘어가는 정세에 있어서의 당의 정책을 세출을 모르는 데와 이로부터 새 포어 즉 프로테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에 대한 당의 둘째 전략상 포어를 내세울 줄을 모르는 데에 있는 것이다.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달린。

一九一七년 四월로 부터 十月까지의 「프로페라리아트 및 민농독재」에 대한 표어의 실제적 력사를 레닌의 저서(著書)들에서 순차로 고찰하여 보자.

一九一七년 四월에 레닌은 다음과같이 썼다.

「로씨야에 있어서 프로페라리아트의 특징은 프로페라리아트의 의식 및 조직성이 불충분한 탓으로 말미암아 부르주아에게 주권을 넘겨준 혁명의 제1계단으로부터 프로페라리아트와 민농층의 * 손에 주권을 반드시 넘겨주어야 할 혁명의 제2계단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것이다.*」(레닌의 「四월 테제」를 참조하라. 제20권 八八페이지)。

一九一七년 七월에는 이렇게 썼다.

「혁명적 노동자들은 만일 민농*들이 그들을 지지한다면 오직 그 혁명적 노동자들만이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로씨야를 무상(無償)으로 획득하는 데로, 완전한 자유어로, 기근(飢饉)을 극복하는 데로, 전쟁을 종결하는 데로, 공평하고도 확실한 평화에로 인민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제21권 七七페이지를 참조하라)。

一九一七년 八월에는 이렇게 썼다.

「다만 민농*(우리의 장령에 말한바와 같이 반프로페라리아트)을 지도하는 프로페라리아트만이 민주주의적 평화로써 전쟁을 종결시키며 그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傷處)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주의로 향하여 나가는 데 절대 필요하고 또 긴급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더한 것이 지금 우리의 계급적 정책에 대한 정의인 것이다」(제21권 一一一페이지를 참조하라)。

一九一七년 九월에는 이렇게 썼다.

「오직 프로페라리아트 및 민농의* 두계단이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할 수 있으며 주권의 참으로 위대한 융합성과 결단성(決斷性)을 나타낼 수 있으며 군대속에서나 농민가운데서나 다 대중의 열정적(熱情的)이요

＊ 망점은 나의 것 — 이 • 씬 딸 린.

헌신적(獻身的)인 참으로 용감한 자들을 자체에 보장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제二一권 一四七페이지를 참조하라)。

一九一七년 九월—十월에 레닌은 「볼셰비크들이 국가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소책자에서 아래와 같이 「새 생활」이란 신문과 논쟁하였다。

「혹은 모든 주권은 부르조아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당신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응호하지 않는 것이며 또 한 四월 二十일—二十一일에 인민이 이터한 주권을 일거(一舉)에 물리쳤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세배나 더 결정적으로 더 무자비하게 그것을 물리칠 것을 부르조아지의 자체도 벌써 알고있음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감히 입도 벌리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주권은 소부르조아에게, 다시 말하면 소부르조아지와 부르조아지의 연립(聯立)(동맹라함)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혁명의 경험은 증명함과 같이 또한 자본국가에 있어서는 자본의 편에 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들의 편에 선수있는 것이나 그중간에는 선수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제과학(經濟科學)이 증명하는바와 같이 소부르조아지는 자립적(自立的)으로 또 독립적(獨立的)으로 주권잡기를 원치 않으며 또 주권을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로씨야에서의 이 연립(聯立)은 수십여가지의 방책(方策)을 반년 동안이나 시도하여보았으나 결국 실패(失敗)되고 말았다. 혹은 마지막으로 모든 주권은 부르조아지의 반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그 부르조아지를 반대하는 프로메타리아트 및 민중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새 생활」보(報)의 신사들은 부르조아 앞에서의 당신들의 자체의 공포증(恐怖症)으로 새 인민을 논쟁하면서 인민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다른 몇몇것은 더 생각하여 볼 수도 없는 것이다」(제二一권 二七五페이지를 참고하라)。

사실은 이러한 것이다。

당신은 十월혁명준비의 력사에서의 이 모든 사실과 사변들을 「출판하게」목파(默過)하며 볼셰비즘의 력사로 부러 十월혁명준비의 시기에 쏘베트에 앉아있는 「부요한 농

＊방점은 나의 것——이 쓰달린。

민들」의 동요와 타협에 대하여 싸우는 볼셰비크들의 투쟁을 「홀륭하게」 말살(抹殺)하며 프로테라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고 한 레닌의 포어를 「홀륭하게」 매장(埋葬)하여 버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와 레닌주의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또 얼마든지 더 들수 있는 이 인용문들에서 당신은 반드시 볼셰비크들은 一九一七年 二월 이후에 농민전체를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빈농 부분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과 볼셰비크들은 프로테라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라는 옛 포어필에서가 아니라 프로테라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새 포어필에서 十월혁명에로 나간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부러, 볼셰비크들은 쏘베트들의 동요 및 타협, 쏘베트에 앉아있는 농민의 일정한 부분의 동요 및 타협, 에세르와 멘셰비크라는 명칭을 가진 일반이 다야는 소부르조아—민주주의 당들의 동요 및 타협과 투쟁하는 데서 이 포어를 시행한 것은 명백하다.

이로부러, 우리는 프로테라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새 포어가 없이는 에세르와 멘셰비크들의 타협을 극복하여 내며 농민의 일정한 부분의 동요를 중립(中立)시키며,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며 그리하여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을 지어 놓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극히 유력한 정치적 군대를 창조해 내지 못하였을 것은 명백하다.

이로부러, 「우리는 팔라크(그도 역시 농민이다)들의 반항과 중농의 동요하에서 빈농과 함께 十월혁명에로 나갔으며 또한 十월혁명에 있어서 승리한 것」은 명백하다(안—쓰끼에게 보낸 나의 회답을 참조하라).

이와 같이 되어 十月혁명준비의 전(全)시기에서와 같이 一九一七년 四月에 까메네브가 올랐던것이 아니라 레닌이 올랐던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까메네브와의 견해를 부활시키는 당선은 아마도 그다지 좋지 못한 동류배(同類輩)에 참가하는듯하다.

二、이상에 말한 전부에 대치하여 당선은 一九一七년 十月에 우리가 농민전체의 지지하에서 주권을 잡았다는데 대한 레닌의 말을 인용한다. 농민전체의 일정한 지지하에서 우리가 주권을 잡았다는것은 아주 옳은것이다. 그러나 당선은 우리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였던것만치 오직 그만치 十月과 또 十月이후에 농민전체가 우리를 지지하였던 그 「사소한 일」을 첨부하여야 할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소한 일」이다. 이런 중요한 「사소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 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할(抹殺)하여버리는것은 불셰비크에게는 허락할수없는 일이다.

당신의 편지를 보면 당선은 농민전체가 지지하였다는데 대한 레닌의 말을 역시 그 레닌이 내세운 「프로테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에 대한 당의 포어에 대립시키는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레닌의 저서에서 인용한 이상의 인용문들에 레닌의 이 말을 대립시키기 위하여서나 프로테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포어에 대한 레닌의 저서에서 인용한 이상의 인용문들을 당선이 인용한 농민전체에 대한 역시 그 레닌의 말로써 론박(論駁)할 근거를 가지기 위하여서는——이것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두가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것이다. 첫째로,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이 十月혁명에 있어서 주되는 것이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할것이다. 레닌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은 그 임무를 「지나가는」에 해결한 十月혁명의 「부」산물(副産物)이라고 간주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레닌의

이 론단을 반박하여서야 할 것이며 그리고 十월혁명에 있어서 주·되·있·던·것·은 부르조아지 주권의 전복과 프로테라리아트의 수중에로의 주권의 이동(移動)이 아니라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서야 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여 내라,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一九一七년 四월부터 十월까지에 우리 나라에는 프로테라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포어가 아니라 프로테라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라는 포어가 당의 포어로 서 있었다는 것을 사인(是認) 하겠다.

당신의 편지에 의하면 당신은 보다도 더 모험적인 이 임무를 자담(自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역시 十월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중의 하나인 평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마치 모든 농민전체가 우리를 지지한 것처럼 『지나가는 길에』 증명하려고 시도(試圖)하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도무지 옳지 않은 것이다. 평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속인적 편지에 빠졌다. 사실상 평화에 대한 문제는 그때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주권에 대한 문제이었던다. 왜 그러냐하면 오직 프로테라리아트의 수중에로 주권이 넘어감에 의하여서만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올 것을 타산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당신은 「오직 주권이 다른 계급에게로 넘어감에 의하여서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한 것과 「『전쟁을 타도(打倒)하라』는 것은 총검을 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계급에게로 주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一九一七년 四월에 페드로그라드의 전지(全市) 대표자 대회에서의 케닌의 연설을 참조하라. 제二〇권 一八一 및 一七八페이지)라고 한 케닌의 말을 펴서 잊어버린 것이다.

그런즉 문제는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혹은 당신이 十월혁명에 있어서 주·되는 것은 부
로조차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었다 함을 반드시 증명하거나 혹은 당신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될 것이니——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
행하고 전체제도, 지주소유와 지주제도를 없애버린 것만치 오직 그것만·치 十월혁명에 있
어서 농민전체가 우리를 지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결론이 스스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당신은 볼셰비크들이 十월혁명의 준비의 전(全) 시기에 있어서 프로테라리아
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포어를 계통적으로 실시함이 없·이 이 포어에서 생겨나오는 바의
소부르조아 당들의 타협과 계통적으로 투쟁함이 없·이 역시 이 포어에서 생겨나오는 바의
농민의 일정한층과 쓰베트안에 있는 그들의 대표자들의 동요(動搖)를 계통적으로 폭로
함이 없·이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한 것만치 十월혁명 및 十월혁명이 후에 있어서 그
들은 농민전체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여 보라. 사실상 우리가 무엇때문에 十월혁명과 十월혁명이 후에
있어서 농민전체의 지지를 보장하여 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르조아 혁명을 끝까지 수
행할 가능성을 가지었던 까닭이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가지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그리고 그 주권을 프로테라리아트 주권 즉 오직 그것만이 부르조아 혁명을 끝
까지 수행할 능력을 가진바의 그 주권으로써 바꾸었던 까닭이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부르조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테라리아트의 주권을 수립하기에
성공하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프로테라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포어 밑에서 十월혁명을

준비하였던 까닭이며 그것은 우리가 그 포어로 부터 출발하면서 소부르쵸아지의 당들의 타협적 행위와 계통적으로 투쟁하였던 까닭이며 그것은 우리가 그 포어로 부터 출발하면 서 소베트들에서의 중농의 동요성과 계통적으로 투쟁하였던 까닭이며 그것은 우리가 오 적 이러한 포어밀에서만 중농의 동요를 극복하여 낼수 있었고 소부르쵸아 당들의 타협을 분쇄할수 있었고 또는 주권이 프로테타리아트의 수중에로 넘어가게하기 위하여 투쟁할 능력을 가진 그러한 정치적 군대를 정립할수 있었던 까닭이다.

우리가 十월혁명의 운명(運命)을 판단한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없었으면 十월혁명당 시에도, 十월혁명이후에도 부르쵸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활동에 있어서 농민전체의 지지를 얻을수 없었을것은 더 증명할 필요도 없을가한다.

프로테타리아 혁명과 농민전쟁의 연결은 이렇게 이해하여야한다.

그런가닭에 十월혁명당시와 十월혁명 이후에 부르쵸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농민전체의 지지를 프로테타리아트 및 빈농의 독재라는 포어밀에서의 十월혁명준비의 사실에 대치시키는것은 레닌주의에서 아모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당신의 근본적 오류는 당신이 十월혁명의 행정(行程)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임무들이 부르쵸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임무와 교환되고있는 사실도, 프로테타리아트 및 빈 농의 독재라는 당의 둘째 전략상 포어로부터 생겨나오는 十월혁명의 각개의 요구가 실현되는 내막까지도 전혀 이해하지못한 거기에 있는것이다.

당신의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농민으로 하여금 프로테타리아 혁명에 봉사(奉仕)하게한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와반대로 골라크까지도 포함한 「농민의 전체」가 불세비크

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봉사케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불웨비크들이 비(非) 프로페타리아 계급에 봉사하는데 그렇게 쉽게 「들어섰다면」 그들의 사업은 나쁘게 되었을 것이다.

一九一七년 四월경의 까메네브과의 견해——이것이 바로 당신의 발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三、당신은 쓰딸린이 一九〇五년의 환경과 一九一七년 二월경(頃)의 환경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이것은 물론 신중(慎重)치 못한 행위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一九〇五년에 내세운바의 프로페타리아트 및 농민의 독재에 관한 당의 포이가 一九一七년 二월혁명에서 그의 확증을 얻었다는 데 대하여서만 나의 편지에 말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옳은 것이다. 레닌은 一九一七년 八월에 「농민과 노동자」라는 그의 논문에서 바로 이렇게 진상(眞相)을 그리었다. 즉

「오직 프로페타리아와 농민만이 군주정체를 전복할 수 있다——이것이 그 당시(一九〇五년)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쓰딸린)에 있어서 우리 계급적 정체의 기본적 정의였다. 그리하여 이 정의는 옳았었다. 一九一七년 二월과 三월은 그것을 또 한번 확증하였다.*」(제二二권 「一一패지를 참조하라」).

당신은 그저 도전(挑戰)만 하려고 하는 것이다.

四、당신은 그다음에, 十월혁명전의 중농의 라형성에 대한 쓰딸린의 해제에 「레닌주의의 제문제」라는 쓰딸린의 소책자에서 프로페타리아트의 독재를 강화한 후에 중농과

• 방점은 나의 것——이·쓰딸린.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할 가능성에 대하여 말한 그 인용문을 대립시키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론증(論證)하려고 시도한다.

두가지의 다른 현상에 대하여 이와같은 동일시(同一視)의 절대적 비과학성(非科學性)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그리 큰힘을 들일것이없다. 부르조아지가 주권을 잡고있던 十月혁명이전의 중농과 부르조아지가 이미 전복되었고 수탈(收奪)되었으며 협동조합이 발전되고 그리고 기본적 생산수단이 프로테라리아트의 수중에 집중된때인 프로테라리아트의 독재가 튼튼하여진 이후의 중농——이것은 서로 다른 두개의 사태인것이다. 이 두가지 종류의 중농을 동일시(同一視)하며 또 그들을 한자리에 세우는것은 역사적 환경과의 관련이 없이 현상을 관찰하는것이오 또 모든 전망(展望)을 잃어버리는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자(日字)와 시기(時期)를 혼동하면서 인용문을 인용(引證)하는 자노비예브의 버르장머리와 같은것이다.

만일 이것을 「혁명적 변증법」이라고 한다면 펠크롭쓰끼가 「변증법적」 곡해(曲解)의 모든 레코드를 통과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五、남아지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하면 그 문제들은 안—쓰끼와의 서신(書信) 왕래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간주하는 까닭이다.

一九二七년 五月 二〇일

이·웨·쓰판민 저작집 출판
제九권 二六九—二八一페이지

十月혁명의 국제적 성격

十月혁명 十주년에 대하여

十月혁명은 다만 「일국적 범위」의 혁명만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그 혁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적, 세계적 성격을 가진 혁명인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그는 전세계적 인류사상(人類史上)에 있어서 낡은 자본주의적 세계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적 세계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이전에는, 혁명이 보통으로 국정의 추기(國政의樞機)를 잡은 한 착취자들의 그루빠가 다룬 착취자들의 그루빠로 바꾸어지는 것으로서 끝나고 말았다. 착취자들은 바꾸어졌으나 착취제도는 남아있었다. 노예해방 운동시에도 사라는 그렇게 되었고 농노폭동시기에 있어서도 사라는 그렇게 되었으며 영국, 불란서, 독일에 있어서의 유명한 「대」(大) 혁명들의 시기에 있어서도 사라는 그렇게 되었다. 나는 파리공분 즉 프로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역사를 돌려세우려고 한 영예스러운 용감한 첫 시도이었으나 그러나 결국 성공치 못한 시도이었던 그 파리공분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 않는다.

十月혁명은 이 여러 혁명보다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는, 한 착취형태를 다른 착취형태로써 바꾸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며 한 착취그루빠를 다른 착취그루빠로써 바꾸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를 근절하며 온갖 모든 착취그루뎁을 일소하고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수립, 지금까지 존재하여온 모든 피압박계급중의 가장 혁명적인 계급의 정권을 수립하며 계급없는 새 사회를 조직하려는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실로 그러므로 十月혁명에 승리는 인류력사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세계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운동에 있어서의 역사적 운명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세계적 전환을, 제국주의 투쟁방법 및 조직형태, 생활 및 인습, 문화 및 사상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것이다.

十月혁명은 국제적, 세계적 성격의 혁명이라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전세계의 피압박 계급들이, 그들의 해방에 대한 보장이 十月혁명에 있음을 보면서 十月혁명에 대하여 그 심각한 동점을 포하는 원인이 역시 여기에 있는것이다.

十月혁명이 전세계에서의 혁명운동의 발전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기본문제들을 지적할수 있는것이다.

一、十月혁명이 특이한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혁명은 세계제국주의의 전선(戰線)을 돌파(突破)하며 가장 큰 자본주의국가중의 하나에서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한 그것이다.

피고용계급, 피한대계급, 피압박, 피착취계급이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지배계급의 자위에 올라섰으며 그리하여 전세계의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자기의 모범을 본받게 하고있다.

이것은十月혁명이 새세대 즉 제국주의의 여러나라에서 프로테리아 혁명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十月혁명은 지구와 자본가들에게서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수탈하여 그것을 사회의 소유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조아적 소유제에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대립시켜 놓았다.十月혁명은 그렇게 함으로써 부르조아적 소유는 신성불가침의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자본가들의 그 거짓말을 폭로하였다.

十月혁명은 부르조아들에게서 주권을 탈취하고 부르조아들에게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부르조아국가기관을 파쇄(破碎)하여 버리고 쏘베트에 주권을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서의 부르조아 의회제도에 프로테리아 민주주의로서의 쏘베트의 사회주의적 주권을 대립시켜 놓았다. 타팔그가 이미 一八八七년에, 혁명의 그이일(翌日)에 「모든 이전의 자본가들은 선거권을 박탈 당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옳게 말한 것이다.

十月혁명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에 부르조아 의회제도를 거쳐서 사회주의에로 평화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거짓말을 폭로하였다.

그런데十月혁명은 이에 머물지도 않았거니와 또한 머물어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十月혁명은 남은 부르조아적인것을 파괴하고 새 사회주의적인것을 건설하기에 착수하였다.十月혁명의十年동안은 당, 직업동맹, 쏘베트, 협동조합, 문화기관, 운수기관, 산업, 붉은군대의 건설의十年동안이었다. 쏘련에 있어서 건설전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의심할것없는 성공은, 프로테리아트는 부르조아가 없이, 또한 부르조아지불 반대하여서, 나라를 성공적으로 다스려 갈 수 있다는 것과, 그는 부르조아가 없이, 또한 부르조아지불 반대하여서, 산업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과, 그는 부르조아지가 없이. 또한 부르조아지를 받.대.하.여.서. 전 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지도하여 나.갈.수.있다.는 것과, 그는 자본주의적 포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머리와 기타 신체의 여러부분이 위장(胃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착취자들이 없이는 사라갈 수 없으리라는 옛 「리론」은 다만 고대사(古代史)에 유명한 로마의 원로원의원(元老院議員) 메네나.아그립파의 말로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리론」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철학」에 있어서와 특수적으로는 제국주의적 부르조아지와 연합하는 사회민주당정책에 있어서 초석으로 되는 것이다. 편견(偏見)정을 면 이 「리론」은 지금 자본주의제국의 프로테라리아트를 혁명화하는 길에 놓여있는 가장 큰 장애물중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十月혁명의 가장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十月혁명이 이 거짓 「리론」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는 그 사실인 것이다.

十月혁명의 이러한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자본주의 제국에서의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을 수 없었으며 또한 주지 않고 있지 못할것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자본주의제국에서 공산주의가 전진적으로 자라는 것, 쏘련의 노동계급에 대한 전세계의 프로테라리아트의 동정이 자라는 것, 마지막 으로 쏘베트국가에로 노동자 대표단이 모여들어 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반이 다 아는 사실들은 의심할것없이 十月혁명이 뿌려놓은 종자(種子)가 벌써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데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二、十月혁명은 다만 제국주의의 지배의 중심부에서만, 다만 「중주국」에서만 제국주의를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여러 식민지에서와 폐속국에서도 제국주의의 후방, 그의 주변(周邊)에서까지 타격을 주어서 그의 지배권을 문허트려놓았다.

十月혁명은 지주들과 자본가들을 전복하고서 민족적·식민지적 압박의 철쇄를 단절하고 그의 압박에서 광대한 국가의 피압박 인민을 하나로 뭉어놓지 않고 모두다 해방하여 내었다. 프로테타리아트는 피압박인민을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해방할수없는 것이다. 十月혁명의 특징은 그가 민족적 적대와 민족사이의 충돌의 기치하에서가 아니라 소련인민의 로동자 및 농민들 호상신임과 형제적 친선의 기치하에서, 민족주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제주의를 위하여서 쏘련에서 그 민족·식민지혁명을 수행한 그 사실인 것이다.

실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식민지혁명이 프로테타리아트의 지도하에서와 국제주의의 기치하에서 진행된 것이며 실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빈천한 지위에 있던 인민들, 노예이던 인민들이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실로 자유스러운, 실로 평등한 인민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자기의 모범을 전세계의 피압박인민들에게 본받게 하고 있다.

이것은 十月혁명이 새시대 즉 세계의 피압박국가에서 프로테타리아트와의 동맹과 프로테타리아트의 지도하에서 수행되는 식민지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통례(通例)」로 생각하기를 세계는 고대로 하등인종과 고등인종으로, 혹은 종파 백인종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의 전자(前者)는 개명할 지능(智能)이 없는 것이며 또

착취의 대상(對像)이 되어야 할 운명을 가진 것이오 후자는 전자를 착취하는 사명을 가진 고 문명의 유일한 담당자라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이 전설(傳說)은 분쇄된 것으로, 파괴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十월혁명의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十월혁명이 소비트적 발전의 궤도(軌道)에 들어선 해방된 비(非)구라파민족들이 참으로 선진적 문화를, 참으로 선진적 문명을 구라파의 민족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게 취진(推進)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지에서 표시함으로써 그 전설에 치명적 타격을 준 그 사실인 것이다.

이전에는 「통례(通例)로」 생각하기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무르조아민족주의적 방법이고, 민족들이 서로 떠러져 나가는 방법이고, 그들을 분리시키는 방법이오 여러 민족의 근로자대중 사이에 민족적 적대(敵對)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라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이 전설은 분과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十월혁명의 여러가지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十월혁명이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에 대한 유일한 옳은 방법으로서의 프로페타리아적 국제주의적 방법의 가능성과 적의성(適宜性)을 실지에서 표시하였으므로 자발적(自發的) 및 국제주의적 원칙위에서 많은 여러 민족의 노동자들 및 농민들의 형제적 동맹의 가능성과 적의성(適宜性)을 사실에서 보이므로써 그 전설에 치명적 타격을 준 그 사실인 것이다. 전세계의 근로대중아 앞으로 단일한 세계 정세에 편입될 그 조직체의 원형(原型)이 되는 소비트 사회주의 공화국련맹의 존재는 그에 대한 직접 증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十月혁명의 이러한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들은 여러식민지와 예속국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을 수 없었으며 또한 주지 않고 있지 못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피압박민중의 혁명운동의 장성, 소련에 대한 이 민중들의 동정의 장성과 같은 이러한 사실들이 의심할 것도 없이 말하여 주는 것이다.

식민지들과 예속국들을 평온무사하게 착취하고 압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식민지들과 예속국들에서의 해방을 위한 혁명의 시대, 그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작성 결기시대,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해게모니 시대가 다쳐왔다.

三、제국주의의 중심부에서나 그의 후방에 혁명의 종자를 뿌려놓고, 「종주국에서」 제국주의의 힘(力)을 약화시키고, 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의 통치권을 흔들며 놓음으로써十月혁명은 전체 세계 자본주의의 그 존재를 의문에 붙여놓았다.

만일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의 자본주의의 자연생장적 발전이——그의 불균형성 때문에, 같은 불가피성과 군사적 충돌의 불가피성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미증유(未曾有)의 제국주의적 전쟁 때문에——자본주의가 부패하여가며 사멸하여가는 과정으로 전화장성하였다면十月혁명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의 세계적 체제에서 거대한 나라가 떠나져 나 온것은 대거름마다 세계제국주의의 지반자체를 허려내면서 그 과정을 촉진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十月혁명은 제국주의를 흔들며 놓은동시에 첫 프로레타리아트독재로서 세계혁명은운동의 유력한 공공연한 지반을 구축(構築)하여놓았다. 이 지반은, 그것을 세

계혁명운동이 이전에는 열.제.든.지. 가.지.지.못.하.였.던.것.이.었.던.바. 지금에 와서는 그 운동이 그 지
반에 의거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十월혁명은 세계혁명운동의 유력한, 공공연한 중심지.를
전.속.하.여. 놓.았.으니. 이. 중심지는, 그것을 세계혁명운동이 이전에는 열.제.든.지. 가.지.지.못.하.였.
던.것.이.었.던.바. 지금에 와서는 그 운동이 제.국.주.의.를. 만.대.하.는.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 및. 피.
압.박.민.족.의. 혁.명.적. 통.일.전.선.을. 조.직.하.면.서. 그의 주위에 단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十월혁명이 세계 자본주의에 대하여 결코 다지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그럼으로 자본주의는 그가 十월혁명전에 가.
고.있.던. 그.러.한. 「균형(均衡)」과 그.러.한. 「전고성」을 얻.제.든.지. 다.지.는. 더. 회.복.치.못.할.것.이.다.
자본주의는 부분적으로는 안정될 수도 있고 그는 그 생산을 합리화(合理化)시킬 수도 있
고, 국정(國政)을 파시즘에 맡길 수도 있고, 일지는 노동제급을 억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자본주의는 이전에 가지고 거들거리던 그.러.한. 「안정(安靜)」, 「신용(信用)」,
「균형」, 「전고성」을 얻.제.든.지. 다.지. 회.복.하.지.못.할.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혁명의 불길이 제국주의의 중심부에서도, 그의 주변에서도 반드시 여기 저기에서
터져 이어나서 자본주의적 립지적 미봉(彌縫)을 효과없이 하면서 날이 갈수록 자본주의의
붕괴가 립박하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발전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유명한 우어(寓語)
에 말한 「피리를 빼면 코가 절리고 코를 빼면 꼬리가 절린다」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이것은 둘째로, 十월혁명은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피압박 계급을 새로운 중대한 동인
(動因)으로 간주하게 하면서 전세계의 피압박 계급들의 역량, 비중, 융합성, 전투적 각오
를 현저한 고도(高度)에 올려세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벌써 세계의 근

로 대중을 암흑속에서 방황하는, 전망을 잃어버린 「맹인의 무리」와 같이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十月혁명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앞길을 밝혀 주며, 전망을 주는 등대(燈臺)를 세웠기 때문이다. 만일 이전에는 괴압박계급들의 지향과 기대를 사위하고 또한 형성시킬만한 곳인 전세계적인 빈듯한 무대가 없었다면 지금에는 첫 크로테라리아트독재를 대표하여 그러한 무대가 있는 것이다.

이 무대를 없애버리는 것은 오랫동안 짓잡아낼수없는 흑색반동(黑色反動)의 암흑(暗黒)이 「진진제국」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을 덮어버릴것은 의심할수도 없을까한다. 심지어 「볼셰비크적 국가」가 존재하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괴압박계급들에게 자체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철회하여 주면서 흑색반동의 령량을 구속하는것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전세계의 착취자들이 볼셰비크들에게 대하여 야수적 증오심을 가지는 그것도 말하자면 이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력사는, 비록 그것이 새 원칙위에서 되는것이지만 반복된다. 이전에, 봉건주의가 붕괴되던 시기에 「자코반파」라는 말이 전세계의 귀족들에게 공포와 증오를 야기(惹起)하였던것과 같이 지금에,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시기에 「볼셰비크」라는 말은 전세계의 부르조아들에게 공포와 증오를 야기한다. 그와 반대로 이전에는 파리가 쫓기하는 부르조아지의 혁명적 대표자들의 안전처가 되었고 학교가 되었던것과 같이 지금은 모스크바가 쫓기하는 프로테라리아트의 혁명적 대표자들의 안전처와 학교로 되어있다. 자코반파에 대한 증오는 봉건제도를 파멸에서 전제내지 못하였다. 볼셰비크들에게 대한 증오가 자본주의를 그 의 불가피적 몰락에서 전제내지 못할것을 의심할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전고」하던 시대는 부르주아 계도가 확고부동하다는 전설을 함께 끌어가지고 지나가 버렸다.

자본주의의 파멸시대가 다쳐왔다.

四、十월혁명만은 다만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관계의 영역(領域)에서만의 혁명이 아니다. 그는 동시에 로동계급의 리지(理智)에 있어서의 혁명,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혁명인 것이다. 十월혁명은 맑스주의의 가치 밑에서,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사상의 가치 밑에서, 제국주의와 프로테타리아트 혁명의 시대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의 가치 밑에서 탄생하였고 전고하여졌다. 그러므로 十월혁명은 개량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의 승리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의 승리를, 제2인러내쇼날에 대한 제3인러내쇼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十월혁명은 맑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의 사이에, 레닌주의의 정책과 사회민주주의의 정책과의 사이에 넘나드지 못할 장벽을 쌓아놓았다.

이전에는, 프로테타리아트 독재가 승리하기까지는 사회민주당은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사상을 공공연하게 부정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 사상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맑스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뽐낼 수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아무 위협도 될 것이 없었던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때, 그시기에는 사회민주당은 형식상으로 맑스주의와 합류되었거나 혹은 거의 합류되었었다.

프로테타리아트 독재가 승리한 후인 지금에는 즉 맑스주의는 어디로 인도하며 그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명백히 보게된 이때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은 벌써 자본주의에 대하여 얼마만한 위협이 없이는 맑스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뽐내지 못하게

되었고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사상을 가지고 간사를 피우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맑스주의의 정신과 인연을 끊은 까닭에 할수없이 맑스주의의 기치와도 인연을 끊게 되고 맑스주의의 산아(産兒)인 十月혁명을 반대하여, 세계에서 첫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를 반대하여 공공연하고도 명백하게 나섰다.

지금에 그들은 맑스주의와는 반드시 갈려졌이었고 또한 사실상으로 갈려지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조건하에서는 세계에서 첫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를 들어내놓고 현신적으로 지지하지 않고서는, 자국 부르조아지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하지않고서는, 자국내에서 프로테타리아트 독재의 승리에 대한 조건들을 만드려놓지않고서는 자신을 맑스주의자라고 자칭할수없게된 까닭이다.

사회민주당과 맑스주의와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가루놓여있다. 지금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유일한 지지자이오 간성(干城)이 되는것은 레닌주의이오 공산주의인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써 국한되지 않았다. 十月혁명은 사회민주당을 맑스주의로 부르길 잘라내버리고서 앞으로 더 나가서 사회민주당을 세계에서 첫 프로테타리아트 독재를 반대하며 자본주의를 직접 옹호하는 자들의 진영으로 물리쳐 버렸다. 아들레르, 바우엘, 쾰프, 레비, 롱게, 블룸등 일류 신사들이 사회제의 「민주주의」를 찬양하면서 「소베트의 정체」를 모욕하는것은, 그들이 이것으로써 저인들이 쏘련에서 자본주의 제도의 회복을 위하여, 또 「문명한」제국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노예제의 유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또한 투쟁할것이라는것을 말하고자 하는것이다.

현시의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사상적 지주인 것이다. 레닌은 현시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가들은 「로동운동내에 있는 부르조아지의 진짜주구(走狗)들이오 자본가계급의 로동자적 사환꾼들」이라고 말한 것과 그들은 「부르조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와의 국내전쟁」에 있어서 「콤포트」를 반대하여 「웰사유」파의 편에 붙어코 넘어가서리라고 말한 것은 그가 천변이나 옳은 것이다.

로동운동에서의 사회민주주의를 없애버리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죽어가는 시대는 그와 동시에 로동운동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十月혁명 의 위대한 의의는 취중 그가 세계로동운동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의 불가피적 승리를 의미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로동운동내에서 제2인터내쇼날과 사회민주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버렸다. 레닌주의 및 제3인터내쇼날이 지배하는 시대가 닥쳐왔다.

一九二七年 十一月 六—七일 부
『브라보다』지 二五五호
이 • 위 • 쓰 말 린 저작집 로문관
제一〇권 二三九—二五〇페이지

극물전선에 있어서

一九二八年 五月二十八일 적색교수원, 공산주의학원,
쓰웨르들로브 공산대학의 학생들과의 회담중에서

질문. 극물문제에 관한 우리의 난판중에 무엇을 기본적인것으로 인정하여야하겠는가? 이 난판으로부러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 난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우리공업의 발전속도에 대하여, 특수적으로는 경공업과 중공업과의 호상관계의 전지로 보아서 어떠한 결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가?

대답. 일핏보기에는 우리의 극물난판은 우연한 일로, 다만 계획을 잘못꾸민 결과로만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수치조절(收支調節)에 있어서 여러가지 오류를 범한 결과로만 생각될

그러나 이것은 일핏보기에만 그렇게 생각될수있을따름이다. 사실상 여기에서 난판의 원인은 훨씬 더 깊은데 있는것이다. 계획을 잘못꾸민것과 경리상 수치조절에 있어서 오류들을 범한것이 이에 있어서 현저한 역할을 행한데 대하여서는 아무 의심할것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을, 계획을 잘못꾸민것으로나 우연한 오류로써 설명하는것은 심한 오류를 범하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물론 계획의 역할과 그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오류일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모든것을 죄다 계획하고 조절할 가능성을 가

지게된 그런 발전계단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계획원칙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층 더 큰 오류일 것이다.

우리의 인민경제의 구성요소에는 우리의 계획의 작용에 승복(承服)하는 요소들이 외에도 또한 아직은 계획화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국가 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을 꾸미는 방법으로만은 극복될 수 없는 적대적 계급들이 남아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단순히 우연한 일, 계획을 꾸미는데 있어서 법한 오류등에 귀착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목물전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난관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목물난관의 기초는 우리나라에서 상품목물생산의 장성이 목물수요의 장성보다 더더욱 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공업이 자라나며 노동자들의 수요가 자라나며 도시들이 자라나간다. 마지막으로는, 상품목물을 요구하는 가공용작물(면화, 아마, 사탕무 기타)의 생산구역들이 자라난다. 이 모든 것은 목물의 수요, 상품목물의 수요를 빨리 자라게 한다. 그런데 상품목물의 생산은 기막히게 더딘 속도로 자라난다.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국가의 처분하에 있는 목물저장고(穀物貯藏高)가 작년이나 혹은 제작년에 비하여 적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수중에 있는 목물은 왕년(年)에 비하여 훨씬 더 많았다.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물에 관한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약간의 수작들이 있다. 一九二五—二六년도에는 우리는四月一日에 와서 四億三千

四百만루트의 목물을 준비하여 그중에서 一억二千三百만 루트는 국외로 수출하였다. 그리고 본국 국내에는 저장 목물 三億一千一百만루트가 남아있었다. 一九二六—二七년도 四월 一일에 와서 우리는 五億九千六百萬 루트의 저장목물을 가지고있었으며 그중에서 一億五千三百만루트는 국외로 수출하였다. 국내에는 저장 목물의 四億四千三百만루트가 남아있었다. 一九二七—二八년도에는 四월 一일에 와서 우리는 五億七千六百萬루트의 저장 목물을 가지고있었으며 그중에서 二千七百萬루트는 국외로 수출하였다. 국내에는 저장 목물의 五億四千九百萬루트가 남아있었다.

달라말하면 금년 四월 一일에 와서 우리는 국내의 소비를 위하여 저장 목물을 작년보다는 一억루트나 더 많이 가지고있고 재작년보다는 二億三千만루트나 더 많이 가지고있었다. 이러한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에 목물전생애에서 난관을 당하고있다.

나는 나의 보고들중의 하나에서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과 또는 우선 꼴라크들이 이 쏘베트경제정책을 과한시키기 위하여 이 난관을 리용하였다는것을 이미 말한 일이 있다. 여러분은, 꼴라크층의 반쏘베트적 진출을 청산하려는 목적을 가진 여러가지 대책을 쏘베트주권이 질서한것을 알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는 그에 대하여서는 말하지않겠다. 우금에 있어서 나는 다른 문제애 관심을 가지고있다. 나는, 상품목물의 생산이 더더게 자라는 원인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와중면적(播種面積) 및 목물의 총생산고에 있어서 벌써 전쟁전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상품목물생산의 증가가 목물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더더게 나가는때 관한 문제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결상 우리가 와중면적을 벌써 전쟁전수준에 도달시킨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 사실이다. 목물의 총생산고가 벌써 작년에 있어서 전쟁전의 생산수준과 대등(對等)

하였던것, 다시 말하면 목물이 五十억 루브에 달하였던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 사실이요. 그렇다면, 사태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전시기보다 상품곡물을 二배나 적게 생산하고 국외로 二십배나 적게 곡물을 수출하는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할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또는 주로 十월혁명에 결과에 우리의 농업의 구조가 변경되어진것, 최대량(最大量)의 상품곡물을 산출하여주던 대규모적 지주 및 대규모적 팔라크의 경영으로부터 상품곡물을 최소량(最小量)으로 산출하는 소농경영 및 중농경영에로 넘어간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전쟁전에는 우리에게 一千五百만—一千六百萬의 개인농민경영이 있었다한다면 지금에는 우리에게 二千四百萬—二千五百萬의 농민경영이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벌써 지금 우리의 농업의 기본적 토대가 상품곡물을 최소한도로 산출하는 소농민경영임을 말하는것이다.

농업에 있어서의 대규모적 경영의 힘은 그경영이 지주적이든가, 팔라크적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이든가를 막론하고 그 대규모적 경영이 기계를 사용하여 과학의 지식을 응용하며 비료를 리용하며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며 그리하여 최대량의 상품곡물을 산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는것이다. 이와반대로 소농경영의 약점은 그경영에는 이 가능성이 없든가 혹은 거의 없으므로 말미아마 그는 반(半)소비적, 소량(小量)상품적 경영으로 되어있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레컨데 팔라크들과 쏘호크들을 들어 말하여보자.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그 총생산액의 四七・二%를 상품곡물로 준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전쟁전시기의 지주의 경영보다 상품곡물을 비교적 더 많이 준다. 그런데 소농 및 중농의 경영은 얼마나 주는가?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그 총생산액의 겨우 一一・二%를 상품곡물로 준다. 보는바와같이 차이는 자못 분명하다.

여기에 여러분이 보는바의 과거 전쟁전 시기와 현재 十월혁명후 시기의 곡물생산 조건의 정경을 밝히는 약간의 숫자들이 있다. 이 숫자들은 중앙통계국 참의회 위원인 뎀치노 보동지가 제공한 것이다. 그 숫자들은, 뎀치노 보동지가 그의 간단한 편지에 쓴 것과 같이 정확 (正確)한 숫자가 아니요, 그 숫자들은 오직 개산(概算)할수있는 가능성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일반적으로는 곡물생산의 조직, 특수적으로는 상품곡물생산의 조직의 전지로 보아 전쟁전 시기와 十월혁명후 시기와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것이다.

전쟁전

총 계	三、중농 및 빈농	二、중작크	一、지주	곡물총생산고		상품곡물(농촌 밖에것)		상품량의 퍼센트
				단위백만루브	퍼센트	단위백만루브	퍼센트	
			六〇〇		一一・〇	二八一・六	二一・六	四七・〇
		一九〇〇		三八・〇		六五〇・〇	五〇・〇	三四・〇
	二五〇〇		五〇・〇			三六九・〇	二八・四	一四・七
	五〇〇〇		一〇〇			一三〇〇・六	一〇〇	二六・〇

전후 (一九二六—二七년도)

	목물총생산고		상품목물 (농촌밖매것)		상품량의 퍼센트
	단위백만부드	퍼센트	단위백만부드	퍼센트	
一、참호르 및폴호르	八〇・〇	一・七	三七・八	六・〇	四七・二
二、폴라크	六一七・〇	一三・〇	一二六・〇	二〇・〇	二〇・〇
三、중농 및 빈농	四〇五二・〇	八五・三	四六六・二	七四・〇	一一・二
총계	四七四九・〇	一〇〇	六三〇・〇	一〇〇	一三・三

이 일람표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첫째로, 이 일람표는 압도적 다량의 목물생산이 지주 및 폴라크들에게로부터 소농 및 중농에게로 넘어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소농 및 중농이 지주의 압박으로부터 아주 해방되어가지고 또 폴라크의 세력을 대체로 소탕하고 자기의 물질적 상태를 상당히 개선할 가능성을 얻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곧 十月혁명의 결과인것이다. 농민의 기본적인 대중이 十月혁명에서 받은 그 결정적 소극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물제로, 이 일람표는 우리나라에서 상품목물의 기본적 소지자(所持者)들은 소농 우선 중농임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목물총생산고의 견지로 보아서 뿐만 아니라 상품목물생산의 견지로 보아서도 소련은 十월혁명(十月革命)의 결과에 소농경영의 나라가 되었고 중농은 농업에 있어서 「중심적 존재」로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 일람표는 목물생산 영역에 있어서 다소간이라도 발달된 대규모적 공동경영(공동호즈 및 콤포즈)이 없는 조건하에서 지주의(대규모적)경영이 청산된것, 꼴라크의(대규모적)경영이 三배이상이나 추려진것, 겨우 一%의 상품목물을 내는 소농경영에로 넘어간 것등은 전쟁전에 비하여 상품목물생산을 훨씬 축소케 할것이었고 또는 사실상 축소시키었음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지금 목물생산고가 전쟁전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목물을 二배나 적게 가지고있는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곧 목물전선에서의 우리의 난판의 기본원인이 있는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목물수매방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난판을 단순한 우연한 일로 인정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상업기관들이 소중(小中)여러도시에 목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무용한 책임을 져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목물저장을 축소시키지 않을수없었던 그사정도 역시 어떠한 부정적 역할을 하였던것은 여기에서 의심할것이 없는바이다. 그러나 목물전선에서의 우리나라의 기본원인이 이 사정인것이 아니라 상품목물의 요구가 급속히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업의 상품량이 터디게 발전되는 그 사실에 있다는것은 아무 의심할여지도 없는것이다.

이 상태로부터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상태로부터의 출로는 풀라크의 경영으로 도라가며 풀라크의 경영을 발전 및 전 개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이 사람들은 지주의 경영으로 도라가자고 하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시대에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인 줄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만큼 쏘베트주권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 풀라크의 경영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를 더욱 즐겨 한다. 그 사람들은 쏘베트주권이 두 적대되는 계급, 즉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경제원칙으로 하는 풀라크계급과 온갖 착취의 절멸을 경제원칙으로 삼는 노동계급과 동시에 의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동자들이나 할 수 있는 요술이다.

이 반동적 「계획들」이 노동계급의 리익, 맑스주의의 원칙, 레닌주의의 임무들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 것은 증명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풀라크가 도시의 자본가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든가, 풀라크가 도시의 배쁘만보다 조금도 더 위험치않다든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풀라크층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등의 이런 말성들은 노동계급 및 농민의 기본대중의 경각성(警覺性)을 둔하게 하는 공허한 자유주의적 공담인 것이다. 공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공업상품량의 十 분지 九를 생산하는 대규모적 사회주의적 공업을 도시의 소자본가에게 대립시킬 수 있다면 농촌에서는 생산방면으로 보아 풀라크경영보다 八 배나 적게 목물을 생산하는, 아직 견실치 못한 골호즈들과 쏘호즈들을 풀라크의 대규모적 생산에 대립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촌에서의 대규모적 풀라크경영의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는 것과 농촌에서의 풀라크층의 비중(比重)이 도시공업에서의 소자본가들의 비중

보다 백배나 더 큰것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은—— 이것은 정신을 잃고 레닌주의와 인연을 끊으며 로동계급의 적들의 편으로 넘어감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부터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一、출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규모적, 라후되고 분산적인 농민경영으로부터 기계를 가진, 과학의 성과로써 무장한, 상품곡물을 최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진 단합적 대규모적 공동경영으로 넘어가는데 있는것이다. 출로는 농업에 있어서 개인적 농민경영으로부터 집단적 공동경영으로 넘어가는데 있는것이다.

레닌은 이미十月혁명의 첫날부터 플호즈를 조직하는데로 당을 불렀다. 그때로부터 우리당내에서 플호즈사상에 대한 선전은 꼬친때가 없었다. 그러하였지만 플호즈건설에 대한 호소는 겨우 최근에 와서야만 대중적 향응을 얻었다. 이것은 위선,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조직의 광범한 발전이 농민의 기분으로하여금 플호즈에 유리하게 전환되는것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지금에 벌써 한제사전에서 一五〇—二〇〇퍼트의 수확을 내며 三〇—四〇%의 상품곡물을 주는 여러플호즈들의 존재가 빈농층, 중농층들을하여금 플호즈로 아주 끌리게한 그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여기에는 국가가 오직 최근에 와서야만 플호즈운동에 상당한 재정을 지출할 가능성이 가지게된 그 사정도 역시 적지않은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금년에도 국가가 플호즈에 대한 보조로 작년보다 二배나 더되는 재정(六천만루블이상)을 지출한것은 일반이다. 아바이다. 제十五차 당대회가, 대중적 플호즈운동을 위한 제조건들이 이미 성숙되었으며 플호즈운동을 강화시키는것은 국내에서 상품곡물의 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된다고 인정한것은 전혀 옳은 일이었다.

一九二七년에 팔호즈의 목물생산총액은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五千五百만루프드 이하로 되지 않았고 그의 총생산상품물은 三〇%이었다. 금년초에 일어난 새 팔호즈들의 건설의 광범한 파도와 이전 팔호즈들의 확장은 금년말에 이르러 팔호즈의 목물생산을 훨씬 증가시켰것이다. 임무는 곧 팔호즈운동발전의 현재수도를 유지하며 팔호즈들을 대규모적으로 만들며 실속이 없는 팔호즈들을 내버리고 그것을 진실한 팔호즈들로써 바꾸어 놓으며 그리고 팔호즈들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목물 전체를 국가기관 및 협동조합 기관에 판매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및 대부금(貸付金)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런 절서를 확립하여 놓을때 있는것이다. 나는 이 여러가지 조건을 준수(遵守)한다면 우리가 三—四년을 지나서 팔호즈들에게서 一억 루프드의 상품목물을 받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간혹 팔호즈와 협동조합을 서로 다른것으로 간주하면서 팔호즈운동을 협동조합운동에 대립시킨다. 이것은 물론 옳지 못한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팔호즈들을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에 대립시키는때까지 이른다. 이와같이 대립시키는것이 진리와는 아무 공통점도 없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팔호즈들은 협동조합의 한형태, 즉 생산협동조합의 가장 명백한 형태인것이다. 협동조합에는 판매(販賣)조합이 있으며 공급(供給)조합이 있으며 또 생산(生産)조합도 있는것이다. 팔호즈들은 일반적으로는 협동조합 운동과 특수적으로는 레닌의 협동조합 계획과 분리할수없는 구성부분이 되는것이다.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을 실시한다는것은 농민층을 판매 및 공급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생산협동조합, 말하자면 팔호즈적 협동조합으로 향상시킴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팔호즈들은 오직

판매 및 공급의 협동조합이 발전강화된 결과로써만 발생하였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특히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二、둘째로, 출로는 이전 뽕호즈들을 확장하고 공고히하며 새로운 대규모적 뽕호즈들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一九二七년도에 현재 뽕호즈들의 목물생산총액은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四千五百만 루드 이하를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상품량은 六五% 이었다. 국가의 일정한 지지하에서 뽕호즈들이 목물생산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음은 의심할 것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임무는 이것으로써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쏘베트주권의 결정이 있으니, 이 결정에 의하여 농민의 분유지(分有地)가 없는 구역에 새 대규모적 뽕호즈들(각개 뽕호즈가 一만 내지 三만 제사전을 가진)이 조직되는바, 그 뽕호즈들은 五—六년을 지나면 반드시 一억 루드가량의 상품목물을 산출할 것이다. 이러한 뽕호즈들을 조직함에 벌써 착수하였다. 임무는 곧 쏘베트주권의 이 결정을 기어코 실시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임무들을 실행하는 때면 우리가 三—四년을 지나서 신구(新舊) 뽕호즈들에서 약 八천만 — 一억 루드의 상품목물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三、마지막으로, 출로는 소농 및 중농의 개인경영의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높이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규모적 폴라크의 개인경영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지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농 및 중농의 개인경영에 대하여서는 그의 수확고를 높이게 하면서 또는 그를 협동조합적 조직의 궤도에로 끌어들이면서 그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임무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광복정발제를 현물세(現物稅)로 바꾼 一九二

一년에 특히 강력하게 선포되었던 낡은 임무이다. 이 임무는 우리당의 제 14차 및 제 15차 대회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 임무의 중요성은 지금 곡물전선에서의 난관 때문에 강조 (強調) 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임무는 장차 꾸준히 실행될 이상의 두가지 임무, 즉 끝 호즈에 대한 임무 및 싹호즈에 대한 임무 실행과 같이 강력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재료들은 몇해 동안이면 농민경영의 수확고를 약 一五—二〇%나 높일 수 있으리라 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五백만이 못되지 않는 나무장기 (犁)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최장기로 바꾸어 놓는 그 한가지만으로도 국내의 곡물생산을 매우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농민경영에 어떤 최소한의 비료 (肥料)나, 정선한 종자나, 소형 기계나 및 기타를 공급하여 줄 것은 더 말도 하지 않는다. 여러 농촌 및 촌락에서 곡물의 상당한 수량을 꼭 받게 되는 조건하에서 그들에게 종자 및 기타를 공급하는데 대한 계약을 전 (全) 농촌들과 체결하는 방법, 매매계약 (預買契約)을 맺는 방법——이 방법은 농민경영의 수확고를 높이며 농민들을 협동조합으로 끌어들이는 훌륭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방향으로서 신중히 사업하게 되면 우리가 한三—四년을 지나서 소농 및 중농의 개인경영으로부터 一억루트 이하를 떼어지지 않는 상품곡물을 새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리하여 이 모든 임무를 실행하는 경우이면 우리는 三—四년을 지나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상당히 충분하게 식량형편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새로운 二억五千萬—三억루트의 상품곡물을 국가의 관리하에 더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대체로 곡물전선에 있어서의 난관으로부터 벗어나 오기에 필요한 대책들이다.

우리의 상업기관들을 소중(小中) 여러 도시에 대한 목물공급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이 기본적인 대책들을 농촌에 상품을 공급하는 방면에서의 계획안을 꾸미는 것을 개설했는데 관한 당면 대책과 이상에 말한 기본적인 대책들을 연결하는 것——즉 이와 같은 것이 현재의 임무인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또한 여러가지 다른 대책을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아니할가? 말하자면 우리공업의 자체가 장성함에 따라서 목물수요가 더욱 장성하는바 그 목물수요의 장성이 아직까지는 상품목물생산 장성을 앞서나가는 것이므로 우리공업의 발전속도를 더더게 하는 대책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코 그래서 안 된다! 공업발전의 속도를 더더게 하는 것은 로동계급을 약화시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발전이 있어서 전진하는 매한결음, 매개의 새 제조소, 매개의 새 공장은 레닌이 말한바에 의하면 소부르조아적 분유와 투쟁함에 있어서, 우리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과 투쟁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진지(陳地)를 굳세게 하여주는 로동계급의 「새 간성(干城)」이 되는 때문이다. 도리어 우리는 반드시 상품을 농촌에 많이 공급하고 그곳으로부터 목물을 될수있는대로 많이 빼내오기 위하여, 농업에 또는 위선 팔호즈들과 쏘호즈들에 기계를 공급하여주기 위하여, 농업을 공업화하며 그 농산물의 상품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공업발전속도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첫가능성이 생기는대로 그 속도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일층 「신중히」하기 위하여 주로 농민시장을 상대로하여 일하는 경공업을 우리공업의 토대로 맨들 목적으로 중공업의 발전을 멈추어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결코 안된다! 그렇게 하는것은 자살(自殺)하는것이 될것이며 경공업까지를 통틀어넣어서 우리의 공업전체

를 과열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업화의 표어로부터 물러서는 것이요 우리나라를 세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부속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레닌이 콤인테른 제4차 대회에서 제의하였으며 우리당 전체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레닌의 유명한 지도적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레닌은 콤인테른 제4차 대회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로씨야를 위한 구체적은 다만 농민경제에 있어서의 풍족한 수확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또는 다만 농민에게 소비품을 공급하여 주는 경공업의 증은 상태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이것만으로도 역시 부족하다——우리에게서 또한 중공업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심지어 학교에서까지도 절약한다. 이것은 반드시 그때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중공업을 구제하여 놓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부흥시켜 놓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공업도 건설하여 낼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워낙 독립국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27권 三四九페이지)。

이 레닌의 지시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에서 지적인 대책들과 관련하여서 노동자와 농민과의 동맹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 대책들은 노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일을 쉽게 하여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에 있어서 만일 플호즈들과 쏘호즈들이 일층 더 빠른 속도로 발전된다면, 만일 소농 및 중농에 대한 직접 보조의 결과로 그들 경영의 수확고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

고. 협동조합이 농민의 광범한 대중을 더욱더 망라하게 된다면, 만일 국가가 활용하기에 필요한 몇여루드의 상품곡물을 더 얻게 된다면, 또는 그러한 대책 또는 그와 유사한 대책들의 결과로 꼴라크층이 진압되어가고 그리하여 점차 정복된다면 이에 있어서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의 내부에 있는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모순들이 더욱더 사라지게 될 것이며 곡물수매에 대한 비상대책의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농민의 광범한 대중은 집단적 경영형태의 전으로 더욱더 돌아설 것이며 그리고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정복하는 투쟁도 더욱더 대중적, 조직적 성질을 띠게 될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아니한가?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의 문제는 그러한 대책으로 인하여 오직 리튬제만 될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프로테라리아트독재 조건하에서의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이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것을 넘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동맹은 로동계급과 근로농민대중과의 계급적 동맹의 특수형태인바 그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즉 (1), 로동계급의 진지들 강하게 하는 것, (2), 이 동맹내부에서의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 (3), 계급과 계급적 사회를 없애버리는 것들이다.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에 대하여 이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커다라 기회주의거나 멘셰비크주의거나 에세르주의거나 기타의 온갖 것으로는 될지언정 오직 맑스주의의는 아니며 오직 레닌주의의는 아닌 것이다.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관한 사상을, 농민은 「최후의 자본주의적 계급」이라고 할 때 년의 유명한 명제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모순은 오직 외관적인, 환혹적(幻惑的)인 모순일 따름인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여기에는 아

무려한 모순도 없는 것이다. 레닌은 콤인테른 제 3차 대회보고에서 농민을 「최후의 자본주의적 계급」이라고 특정지은 바로 그 보고에서 「독재의 최고원칙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지도적 역할 및 국가주권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성명하면서 노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의 필요를 한번 더 다시 논증하였다. 어쨌든 레닌은 여기에서 아무런 모순도 보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농민이 「최후의 자본주의적 계급」이라는 레닌의 명제를 어떻게 이해하였나? 이것은 농민이 자본가들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가? 아니다. 그것들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첫째로, 농민은 생산수단 및 생산도구에 대한 사유제의 기초위에서 경제를 건설하여가는, 또한 그로 인하여 생산수단 및 생산도구에 대한 공동적 소유제의 기초위에서 경제를 건설하여가는 프로레타리아계급과는 다른, 특별한 계급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둘째로, 개인경영농민은 자체속에서 자본가들, 풀라크들, 또는 일반적 여러가지의 착취자들을 산출하며 양육하여내는 그런 계급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을 조정에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障礙物)이 되는 것이 아닐가? 아니다, 되지 않는다.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조건하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을 농민전체와의 동맹이라고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은 노동계급과 근로농민대중과의 동맹인 것이다. 이러한 동맹은 농민의

자본주의적 분자들과 투쟁함이 없이는, 풀라크층과 투쟁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동맹은 농촌에서의 노동계급의 지주(支柱)인 빈농층을 조직함이 없이는 튼튼한 것

이 될수없는것이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현재조건하에서의 노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은 오직 빈농층에 의거하고 중농과 른른한 동맹을 맺고 골라크층과의 투쟁을 한분동안이라도 정지하지말라는 레닌의 그 유명한 포어하에서만 실현될수있는것이다. 왜 그리냐 하면 다만 이 포어를 실시함으로써만 농민의 기본 대중을 사회주의적 건설의 궤도로 끌어드리는 사업이 실현될수있기때문이다.

이리하여 너러분은 레닌의 두가지 공식간의 모순은 오직 의견상 또 환혹적(幻惑的)인 모순에 불과하다는것을 리해할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그 두가지 공식간에는 아무러한 모순도 없는것이다.

이 • 웨 • 쓰 딸린 저작집 토문관
제 一 一 권 八 一 — 九 七 페이지

중농과의 동맹에 관한 문제와 레닌.

에쓰 • 동지에게 보낸 대답

에쓰 • 동지여!

레닌이 삐찌립 • 소로진에 관하여 쓴 유명한 논문에는 「일분동안이라도 골라크와 투쟁을 거절하지 말며 다만 빈농층에만 특권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협조를 달성할출 알아야 한다」는 그의 포어가 마치 「빈농위원회 시기」의 포어인듯이, 「이른바 중농의 중립화 말기(末期)」의 포어인듯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빈농위원회들은 一九一八년 六월에 조직되었었다. 一九一八년 十月말에 와서 우리는 벌써 농촌에 있어서 골라크층에 비하여 우리의 력량의 우세를 얻게 되었고 중농의 소비트주권층으로의 전환을 보게되었었다. 이 전환의 토대위에서 소비트와 빈농위원회와의 사이의 이중주권의 폐지에 대한 면(面) 소비트와 농촌소비트의 개선에 대한, 새로 선거된 소비트들에 의한 빈농위원회들의 융합에 대한, 말하자면 빈농위원회들의 해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생기었다. 이 결정이 소비트에 의하여 정식으로 채택된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와

• 일파간 생략하여 출판한다 — 이 • 소 말 연.

같이 一九一八년 十一月九일 제六차 소비트대회에서였다. 나는 존 및 면(面) 소비트들의 개선(改選)에 대한, 또한 소비트들에로의 빈농위원회의 융합에 대한 一九一八년 十一月九일의 제六차 소비트대회의 결정을 넘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이 중농의 중립화라는 포어의 대신에 중농과의 협조라는 포어를 제창한 「베찌 림·쏘로킨의 값있는 고백(告白)」이란 그의 논문은 어느 때에 발표되었던가? 그 논문은 一九一八년 十一月二十一일, 다시 말하면 제六차 소비트대회의 이 결정이 있은 후 거의 二주일의 지나서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레닌은, 중농과의 협조정책은 곧 중농의 우리편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실시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레닌의 말은 이러하다. 즉

「농촌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지주들 박멸하며 착취자 및 무기업자—폴락크의 반항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오직 반(半) 프로레타리아들, 「빈농층」에만 의존(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농은 우리의 적(敵)이 아니다. 중농은 과거에 동요(動搖)하였고 현재에도 동요하며 또 장래에도 동요할 것이다. 때문에 동요하는 자들에게 영향(影響)을 준다는 임무는 착취자들 전복(轉覆)하며 또 적극적인 적을 승리하는 임무와는 동일하지 않다. 일분간이라도 폴락크와의 투쟁을 거절하지 말며 또 다만 빈농층에만 의존(依)하지 않으면 중농과의 협조를 달성할 수 없다——이것이 곧 현모멘트의 임무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지금에 있어서 중농의 우리편으로의 전환은 우에 말한 원인들이 인하여 피쳐 못할 일인 까닭이다」* (제二三권 二九四페이지).

이로부터 무엇을 론단할 수 있겠는가?

* 광점은 나의 것——이·쓰만턴。

그런데 이로부터는 해년의 포어가 옛 시기에 즉 빈농위원회 및 중농중립화의 시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시기 즉 중농과의 협조의 시기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 그 포어는 옛 시기의 종말(終末)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기의 시초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년의 포어에 대한 당년의 주장은 오직 형식적으로만, 말하자면 오직 년대적(年代的) 판제에 있어서만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은 본질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다. 중농과의 협조에 대한 해년의 포어가 새 포어로서 우리당의 제8차 대회(一九一九年三월)에서 전당적(全黨的)으로 선언공포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제8차 대회가 중농과의 토론한 동맹에 대한 우리정책의 기초를 세운 그런 대회인 것은 다 아는 바이다. 우리당의 장령 즉 조선공산당(불웨이크)의 강령이 역시 그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되었던 것도 다 아는 바이다. 이 강령에는 농촌에 있는 각종 그루빠에 대한 즉 빈농민, 중농민, 골라크에 대한 당의 태도에 관한 특별한 조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다 아는 바이다. 조선공산당(불웨이크) 강령의 그 조목들에는 농촌에 있는 사회적 그루빠들에 대하여 또한 그들에 대한 당의 태도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들어 보라. 즉

「토착아공산당은 자체의 모든 농촌사업에 있어서 종전대로 농촌의 프로레타리아 및 반(半) 프로레타리아 층들에 의거하며 농촌에서 당세력을, 빈농단체들, 농촌의 프로레타리아 및 반(半) 프로레타리아의 특종(特種)의 직업동맹 등등을 조직하면서, 그들을 백방으로 도시 프로레타리아트와 접근시키면서, 또한 그들을 농촌부르조아지 및 소사유자(小私有者)적 리해관계의 영향 밑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자립적 역량으로 조직한다. 골라크층 즉 농촌부르조아지에 대한 토착아공산당의 정책은 그들의 착취자적 기도(企圖)에 반대하여 정적으로 투쟁하며 소비트정책에 대한 그들의 반향을 진압하는데 있는 것이다.

중농층에 대한 로씨야 공산당의 정책은 사회주의적 진원사업에 중농을 점차로 또 계획적으로 인입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당은 결코 억압(抑壓)하는 대책으로써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책으로써 중농의 략후성과 투쟁하면서, 그의 생활상 리해관계가 접촉(接觸)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와의 실천적 협조에 노력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수행하는 방책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양보하면서 그의 요구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계하는 것으로써 그를 로동계급원으로 고르려 하며 그를 골라크와 분리시키는 것을 자체의 임무로 세우는 것이다」* (「로씨야 공산당(불셰비크) 제八차대회」속기록 三五一페이지)。

장령의 이 조목들과 해년의 포어와의 사이에서 비록 가장 적은 차이, 비록 연사(言辭)상 차이이라도 찾아내려고 하여 보라! 당신은 그 차이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차이는 본래 없는 까닭이다. 그뿐만 아니다. 해년의 포어는 중농에 대한 제八차 당대회의 결정들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결정들의 가장 정확한 또 가장 적절한 정식화(定式化)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장령은 一九一九년 三월에 특히 중농에 대한 문제를 토의(討議)한 제八차 당대회에서 접수되었고 그리고 빼찌림·쏘로겐에 반대하여 중농과의 협조에 대한 포어를 제창(提唱)한 해년의 논문은 제八차 당대회가 열리기 四개월전인 一九一八年 十一月에 발표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

제八차 당대회가 빼찌림·쏘로겐에 반대하여 쓴 해년의 논문에 선언된 그의 포어를 당이 자체의 농촌사업에 있어서 현하의 사회주의적 진원사업의 전지기를 통하여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포어로서 전적으로 또 완전히 확증한 것은 명료(明瞭)하지 않은가?

* 방점은 전부 나의 것——이·쓰탈린。

래닌의 표어의 주지(主旨)는 어디에 있는가?

래닌의 표어의 주지는 (가), 빈농층에 의거하라, (나), 중농과 협조하라, (다), 일분간이라도 골라크와 투쟁하기를 정지하지 말라는 농촌에서의 당사업의 삼위일체(三位一體)적 임무를 그가 훌륭히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한개의 간략한 표식으로 표현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표식(表式) 가운데에서 한부분을 취하여 현모멘트에 있어서의 농촌사업의 토대로 삼고 그 표식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잊어버려 보라——그러면 당산은 기필코 막다른 골목에 이를 것이다.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의 현계단의 조건에 있어서 빈농에 의거하지 않고서 또 골라크와 투쟁하지 않고서 중농과 진정한 협조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발전의 조건하에서 빈농에 의거하지 않고서 또 중농과 협조하지 않고서 골라크와 성과있는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농촌에서의 당사업의 이 삼위일체(三位一體)적 임무를 한개의 통괄적인 표어에 어떻게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래닌의 표어가 이 임무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래닌보다 더 적절하게는 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무슨 까닭에 특히 지금에 와서, 특히 농촌사업의 현조건하에 있어서 래닌의 표어가 적합(適合)하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強調)하여야 하겠는가?

왜 그러냐하면 농촌에서의 당사업의 삼위일체(三位一體)적 임무를 개개로 분리시키며 또 이것을 서로 분립(分立)시키려는 경향이 특히 지금에 와서 일부 동지들에게 생기는 까닭이다. 이것은 금년 一월—二월에 우리의 곡물수매 잡박니야의 실천에 의하여 전제적으로 확증된 것이다.

중농과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불셰비크들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어떻게 협조하여야 할가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동지들은, 풀라크츨과 투쟁하기를 거절하는 방법으로써나 혹은 그 투쟁을 약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중농과 협조하려고 생각한다——마치 풀라크츨과 투쟁하는 것은 중농층의 한부분, 그의 부요(富饒)한 부분을 놀래어 물러서게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동지들은 빈농층을 조직하는 사업을 거절하는 방법으로써 혹은 그 사업을 약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중농과 협조하려고 생각한다——마치 빈농층을 조직하는 것은 그를 별립(別立)시키는 데 이르게할 것이요 그리고 그를 별립시키는 것은 우리에게서 중농을 놀래어 물러서게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좋은 로선으로부터 이렇게 할선하는 결과에 중농은 동요하는 계급이라는 것, 중농과 협조하는 것은 오직 풀라크츨과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또 빈농층사이에서 사업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만 통탄하게 할수 있다는 것,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중농은 한개 세력으로서의 풀라크츨의 편으로 동요할수 있다는 맑스주의적 이런 원칙(原則)을 망각하는 것이 된다.

제 8차 당대회에서한 매년의 말을 기억하라. 즉

「일정하고 확고한 지위를 가지지 못한* 계급에 대한 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대 부분이 사회주의를 창동(贊助)한다. 부르주아지는 그대 부분이 사회주의를 반대한다——이 두 계급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기는 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농파와는 그런층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 때에는 그것이 동요하는 계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계급은 일면으로는 소유자이요 또 일면으로는 근로자이다. 그 계급은 다른 근로자들을 착취하지 않는다. 그 계급은 수십년을 두고 막대한 곤난을 겪으면서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였으며 그 계급은 자주들과 자본가들의 착취를 체험하였으며 그 계급은 모든 것을 다 당해보았다. 그러나 그와동시에 그는 소유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동요하는 계급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곤난한 것이다」(『로씨야공산당』(볼셰비크) 제8차 대회) 속기록 三〇〇페이지)。

그런데 **음은** 로선으로부터 탈선하는 것으로써 우에 말한것보다 못하지않게 위험한 다른 경향들도 또한 있는 것이다. 골라크충과 투쟁을 하기는 하나 너무도 그것을 졸열(拙劣)하게 또 조리없이 진행하기때문에 타격이 중농과 빈농에게 떨어지는 일이있다. 그 결과에 골라크는 전연 손상을 받지않으며 중농과 동맹하는 사업에는 틈(破隙)이 생기며 빈농층의 한부분은 쏜베르정책에 반대하여 음모적(陰謀的) 투쟁을하는 골라크의 손아귀에 람시로 켜우게된다. 현조건에 있어서 골라크를 수탈(收奪)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그리고 랑곡정발제는 중농과의 동맹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와의 투쟁을 의미하는것임을 잊어버리고 골라크충과의 투쟁을 골라크의 수탈로, 곡물주매사업을 랑곡정발제사업으로 변환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한 있는 것이다.

당의 로선으로부터 탈선하는 이 경향들은 어디로부터 생겨나오는가?

* **반점은** 나의것——이 • 스 만 린.

농촌에서의 당사업의 삼중(三重) 임무는 단일한 또 분리할 수 없는 임무임을 리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골라크층과 투쟁하는 임무를 중농과 협조하는 임무와 분리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것, 또한 이 두가지 임무를 빈농층을 농촌에서의 당의 지주(支柱)로 변환시키는 임무와 분리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 이로부터는, 혹은 로선에서 말해지는 경향들은 노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에 두가지 종류의 위험성을 조성하는 것이니 즉 말하자면 곡물수매에 대한 임시적 비상대책을 당의 정상적(經常的) 혹은 장구한 방침으로 전환시키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즉으로부터 오는 위험성과 그리고 골라크에 대한 소박을 해결하며 상업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절(調節)이 없는 상업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함에 비상대책의 폐지를 리용하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즉으로부터 오는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로선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전선에 대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서 지적하여두려는 것은 우리의 출판물은 있다금 약간의 일방적 편향성을 나타내면서 이 원칙을 늘상 준수(遵守)하여내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그 곡물수매에 대한 임시적 성질을 가지고있는 비상대책을 우리정책의 정상적(經常的) 방침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며 노동자와 농민과의 연결에 위험을 주는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일이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면으로부터 그 연결에 위험을 주는 자들에게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며 또한 그 자체를 상당히 목표로하지 않는 것, 소부르조아적 세력에 굴복하는 자들,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과의 투쟁을 약화하며 또 국가의 조절(調節) 역할이 없는 상업의 완전한 자유의 설정을 요구하므로써 다른면으로부터 연결을 파괴하는 자들을 목표로하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하며 또 옹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좋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변형된 일이다.

또한 현재단계에 있어서 농업의 로마가 되는 개인적 소, 중(小, 中) 농민경영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가능성과 적의성(適宜性)을 부인하는 자들을 목표로 하는 일도 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골로크 및 삼로크들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자들 목표로하지 않으며 개인적 소, 중(小, 中) 농민경영을 향상시키는 임무는 반드시 골로크와 삼로크의 전선사업을 향상시키는 임무로써 실제적으로 보증되어야 할 것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목표로하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하며 또 옹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변형된 일이다.

혹은 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두전선에 대한 투쟁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온갖 일방적 편향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 우리의 협회사업의 행정(行程)에 있어서 이 임무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가?

이것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한개의 일반적인 표식(表式)에 이 모든 임무들을 연합시킬만한, 따라서 이 임무들을 서로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적 표어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당의 무기고(武器庫)에는 그런 표식, 그런 표어가 있는가?

물론 있다. 「일본군이라도 풀라크와의 투쟁을 거칠지 말며 오직 빈농층에만 톤튼히 의거(依據)하면서 중농과의 협조를 달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레닌의 표어가 그런 표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표어가 가장 적절하고 또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표어라고 생각하며 그 표어를 특히 지금에 와서, 특히 농촌사업의 현조건하에 있어서 제 1 컷머리에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레닌의 이 표어를 「반대파적」 표어로 간주하며 그리하여 당신의 편지에서 「어떻게! 이 반대파적 표어가 一九二八年五月一日에 「쁘라브다」 신문에 게재될 수 있었느냐고 이 표어가 전련맹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쁘라브다」 신문의 지면에 나타나지는 않은가?」로써 설명할 수 있는나고, 이것은 오직 기술적 오식(誤植)일 따름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농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반대파와의 타협이냐?」고 질문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참으로 위협적인 언사이다! 그런데 에쓰·동지여! 그래도 「돌아서는 모퉁이에 있어서는」 일층 조심하여야 한다——당신은 급성(急性)한 남아지 레닌의 표어를 전

적으로 확인(사실이다!)하는, 대체로 태닌(결코 반대파가 아니다!)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8차 당대회에서(역시 반대파 당이 아니다!) 접수된 우리장령의 인쇄를 금지하는 데 대한 결론을 짓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삼가라고 한다. 농촌에 있는 사회적 투파들에 대한, 일반이 다 아는 우리의 장령에 있는 조목들에 대하여 좀 더 경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중농층에 대한 제8차 당대회의 결의에 대하여 좀 더 경의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농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반대파와의 타협」이라는 데 대한 당신의 어구(語句)로 말하면, 그것은 반박(反駁)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격동된 겁에 말한 것일 것이다.

태닌이 제8차 당대회 개최사에서 중농과의 이른바 동맹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의 포어에와 또 제8차 당대회에서 접수된 전련맹공산당(불쉐비크)의 장령에는 중농민과의 협조에 대하여 말하는 그 자체가 필시 당신을 초심(焦心)케 하는 듯하다. 당신은 여기에서 아마도 어떤 모순과 비슷한 것을 보고 있는 모양이다. 당신은, 중농과 협조하는 정책은 중농과 동맹하는 정책으로부터 퇴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심지어 억측(臆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에쓰·동지여,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큰 오해(誤解)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포어의 글자들은 읽을 줄이나 그 의미는 깨다를 줄 모르는 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중농과의 동맹에 대한, 협조에 대한 포어의 력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제8차 당대회에서의 그 개회사에서 중농과의 「튼튼한 동맹」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태닌이 같은 그 대회에서의 다른 연설에서와 또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접수된 당의 장령에서는 우리에게서 현

제 중농과 「협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체의 입장으로 부터 퇴보하였다고 여척할수있는 그런 자들만이 생각할수있는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레닌과 당은 제8차 대회에서 「협조」라는 개념과 「동맹」이라는 개념과의 사이에 하등의 차이.를 두지않는데 있는것이다. 문제는, 레닌이 제8차 대회에서 한 그의 모든 연설에서 어디에서든지 「동맹」이라는 개념과 「협조」라는 개념과의 사이에 동등부호(同等符號)를 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협조」라는 개념과 「동맹」이라는 개념과의 사이에 동등부호를 친 「중농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제8차 대회의 결정서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같이 말하여야할것이다. 그리하여 레닌과 당은 중농과 협조하는 정책을 우연적 또는 순간적 정책으로 간주하지않고 장구한 정책으로 간주하는 까닭에, 레닌과 당은 중농과 협조하는 정책을 중농과 튼튼히 동맹하는 정책으로 명명(命名)하며 또 반대로 중농과 튼튼히 동맹하는 정책을 중농과 협조하는 정책으로 명명할 모 든 근거를 가졌던것이며 또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제8차 당대 회의 속기록과 또 중농에 대한 그 대회의 결정서를 참고하면 될것이다.

제8차 대회에서의 레닌의 연설로부터 다음과같은것을 인용하여한다. 즉

「쓰베트 일꾼들에게 경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골라크를 치려고 예정한 타격이 중농에게 믿는일이 매우 자주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과소를 범하였다. 이 점에서 얻은 모든 경험은 이 앞으로 그러한 과소를 피하도록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이러한것이 리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의 앞에 서있는 임무이다. 이 임무가 어려운것은 여러분이 잘아는바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중농에게 줄만한 그러한 물질적 복리(福利)가 없는것이다. 그런데 그는 실리주의자(實利主義者)이며 실

제가로서 구체적, 물질적 복리를 요구하고 있는 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아마 그와 같은 물질적 복리가 없이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몇달 동안 어려운 투쟁을 반드시 더 경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정(行政)상 실천에 있어서 우리의 기관을 개선(改善)하며 모든 남용을 시정하는 등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농파의 협력, 동맹, 협조하는 데로 * 충분히 나가지 못한 우리당의 로선을 바로잡으며 요필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로씨야공산당(불레비크) 제8차 대회」 속기록 二〇페이지)。

당신은, 테닌이 「협조」와 「동맹」과의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보겠지요。

그리고 「중농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제8차 대회의 결정서의 인용문은 아래와 같다. 즉

「중농들은 풀타크증과 혼동하며 풀타크증에 대한 방책들을 어떤 정도로든지 중농들에게까지 파급(波及)시키는 것은 다만 쓰베르주권의 모든 법령과 또 그의 모든 정책만을 위반(違反)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프로메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는 시기에 있어서 프로메타리아트의 중농파의 협조를 온갖 착취를 제거하는 데로 고를이 없이 넘어가는 조건들중의 하나로써 표시하는 공산주의의 모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하여서도 후심하게 위반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교적 이른한 경제적 근원(機元)을 가지고 있는 중농은 로씨야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나와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까지도 농업기술이 농업기술보다 뒤떨어진 까닭에 그는 프로메타리아트혁명이 시작된 이후에도 매우 장구(長久)한 시일을 통하여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에 있어서의 쓰베르일꾼 또는 당일꾼들의 전술은 반드시 중농파의 장구한 시기의 협동을 타산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에 있어서의 쓰베르주권의 아주 좋은 정책은 이리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프로메타리아트와 중농파의 동맹 및 협조를 보장하며 준다。

로씨야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은 반드시 앞으로 프로메타리아트 및 민농층이 중농층과 협조하는 이 정신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로씨야공산당(불레비크) 제8차 대회」 속기록 三七〇—三七二페이지)。

* 방침은 나의 것——이·쓰말린。

** 방침은 전부 나의 것——이·쓰말린。

보는바와 같이 결정서도 역시 「협조」와 「동맹」과의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제 八 차 대화의 이 결정서에 중농과의 「튼튼한 동맹」에 대한 말이 한 마더도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공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그 결정서가 그 연합으로써 중농과의 「튼튼한 동맹」의 정책으로부터 퇴보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다, 퇴보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갓 결정서가 「협조」, 「협동」이라는 개념과 「튼튼한 동맹」이라는 개념 사이에 동등부호를 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것은 알만한 일이다 — 중농과 「협조함」이 없는 그와의 「동맹」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또 중농과의 동맹은, 만일 그와 「장구하게」 협조하며 또 협동하지 않는다면 「튼튼한」 동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하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 혹은, 레닌과 제 八 차 당대회가 중농과의 「튼튼한 동맹」에 대한 레닌적 성명(聲明)으로부터 탈선하였거나, 혹은 이 신중(慎重)치 못한 예측을 내어버리고 레닌과 제 八 차 당대회가 「협조」라는 개념과 「튼튼한 동맹」이라는 개념 사이에 하등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현학(衍學)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자는 누구든지 빈 농층을 지주(支柱)로 삼으며 중농과 협조하며 골라크층과 투쟁할 때 대한 레닌의 포어

의 본의(本意)를 탐구(探究)하려고 하는자는 중농과 협조하는 정책은 곧 그와
 튼히 동맹하는 정책인것임을 이해하지 아낄수없는것이다.

당신의 오류는, 당신이 반대파의 사기적 술책(詐欺的 術策)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악
 선동에 걸리어 적대자들이 당신을 포착하려고 맨들어놓은 술계(誘計)에 빠진 거기에 있는
 것이다. 반대파의 사기사(詐欺師)들은 자기들이 중농과의 협조에 대한 폐년의 표어를
 찬성한다고 소리높이 떠드는데, 이에 있어서 그들은 중농과의 「협조」는 협조인것이오
 그와의 「튼튼한 동맹」이라는것은 어떤 다른것이라는 조발적 암시(暗示)를 하고있다.
 그들은 이리함으로써 일거양득(一舉兩得)하려고 하는것이니 첫째로는 중농과 협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농과 부리」하려는(모쪼록마도(道)의 제十六차 당콘퍼런치야에서 내가
 이용한 일반이 다 아는 반대파 쏘미르노브의 연설을 참고하라) 그들의 중농층에 대한 실
 제적 입장을 엄폐하려고 하는것이오, 둘째로는 「협조」와 「동맹」과의 사이에 다 가상적
 (假想的) 차이를 부쳐가지고 불웨비크들중의 바보들을 포착하여 그들을 폐년으로부터
 물러서게하여 영영 그들을 혼란(混亂)에 빠지게하려는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여 일부의 우리동지들은 무엇을하고 있는가? 그들은 반대파의
 자기사들의 가면(假面)을 벗기는 대신에, 그 자기사들이 자기들의 실제적 입장에 대하
 여 당을 속이는 죄악을 잡아서 폭로하는 대신에——그대신에 그들은 낚시(釣)에 걸
 리며 술계(誘計)에 빠지며 그리하여 자기들을 폐년에게로부터 물려서게 한다. 반대파는
 폐년의 표어에 대하여 떠들며 그들은 폐년의 표어에 찬성하는 자들인체한다——이러기때
 문에 나 자신을 반대파와 혼동하지않게하기 위하여서는 나는 반드시 이 표어와 인연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반대파와 타협한다」고 비난(非難)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 동지들의 논법(論法)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파의 자기사적 방법의 유일한 실례가 아니다. 레하면 자기비판이라는 포어를 가지고 말하여 보라. 자기비판이라는 포어가 우리당의 행동의 기본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튼튼하게 하는 수단이며 인재를 교양하는 불셰비크적 방법의 정수(精髓)인것임을 불셰비크들은 알지 못할수 없는 것이다. 반대파는, 자기비판이라는 포어는 자기들이 생각하여낸것이라고, 당은 이 포어를 반대파에게서 훔쳤다고, 그리하여 당은 반대파의 앞에 항복하였다고 단언(斷言)하면서 떠돌고있다. 반대파는 이와같이 행동하면서 적어도 두가지를 얻으려고한다. 첫째로는, 그들은 당성(黨性)을 파괴하는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는 반대파적 「자기비판」과 당성을 튼튼케하는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는 불셰비크적 자기비판과의 사이에 깊은 구렁(深淵)이 가로놓여있는것을 모동계급앞에서 엄폐하며 또 그를 속이려고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바보들중에서 어떤자들을 낚지(釣)에 걸어내어 그들로하여금 자기비판에 대한 당의 포어와 인연을 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동지들은 어떻게 반응(反應)하는가? 그들은 반대파에 속한 자기사들의 가면(假面)을 벗기며 불셰비크적 자기비판의 포어를 고수(固守)하는 대신에 그들은 홀게에 빠지며 자기비판이라는 포어로부터 물러서며 반대파의 피리(笛)소리에 맞추어 춤을추며 그리하여: 반대파와 인연을 끊는듯이 그릇 상상하면서 그 반대파의 앞에 항복하고있다.

이러한 실례들은 얼마든지 들수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의 피리(笛)소리에든 맞추어 춤을 출수없는것이다. 우리는 더욱히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반대파가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는 그것을 지도로 삼을수없는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반대파의 자기사적 행위든지 또는 반대파의 악선동에 걸리는 우리의 어떤 불세비크들의 오유를 멀리 쓸어버리면서 제걸을 밟아나아가야할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이랴 말하든지 내버려두고 제걸을 밟아나아가라!」 고한 맑스의 말을 기억하라!

一九二八年 六月 十二日。

一九二八年 七月 三일부

「보타브다」지 제一五二호。

이·웨·쓰달린 저작집 출판

제一一권 一〇一一—一五페이지。

전련맹공산당(볼셰비크)내 우경적 위험성에 대하여

一九二八年 十月十九日 前련맹공산당(볼셰비크) 모스크바
위원회 및 모스크바 통제위원회의 전원회에서 한 연설

동지들, 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소한것, 개인적 문제 및 기타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내에는 우경적, 기회주의적 위험성이 있는가, 이러한 위험성이 생길만한 객관적 조건들이 존재하여있는가, 이 위험성과는 어떻게 투쟁하여야 할것인가——이와같은것이 지금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문제를 둘러싸고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방해되고 있는 그 모든 사소한것과 지저분하게 쌓인 요소들을 소청하지않을것같은면 우리는 우경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우경에 대한 문제가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들스끼는 옳지 못하다. 그는, 이에 있어서의 모든 사례는 우경에 있는것이 아니라 호상간 다름, 개인적 음모 및 기타에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온갖 투쟁에서와같이 호상간 다름 및 개인적 음모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잠시간 가정하자. 그러나 모든것을 호상간 다름으로 설명하고 그

호상간 다름뒤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옳은 맑스주의적 길에서 리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스크바 당단체와 같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속된 당단체가 몇개의 다름꾼들이나 혹은 음모자들의 힘에 의하여 하부(下部)로부터 상부(上部)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어 움직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다, 동지들, 그러한 기적(奇蹟)은 세상에 없는 법이다. 모스크바 당단체의 힘과 세력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는 나는 말치도 않겠다. 여기에서는 호상간 다름과도, 음모와도 하등의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 일층 깊은 원인들이 작용하였던 것은 명백한 일이다.

비록 우경적 위험성이 있는 것을 시인하지 마는 그러나 그 위험성은 진실한 사업자들이 그것을 심중하게 취급할만한 까치를 가진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프룬트브도 역시 옳지 못하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우경에 대한 문제는 떠버리는 사람들이나 취급할 문제이지 사업가들이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일상적 실제사업에 몰두되어서 우리발전의 전망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가 없게까지 된 프룬트브를 충분히 리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의 당일꾼들의 편협한 순수사업적 실제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전설사업의 교리(敎理)로 변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실무주의(實務主義)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업에 있어서 전망을 잃어버리고 그리하여 자체의 사업을 당의 기본적 로선에 종속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단점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우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당의 기본적 로선에 대한 문제이며 제十五차 대회에서 우리당이 내세운 그 발전의 전망이 옳은가 혹은 옳지 않은가 하는 문제라는 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우경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 우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에게 문제를 집중하는 그동지들도 역시 옹지못하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경분자들이나 또는 융화주의자들을 지적하라, 그 인물들을 지명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한다. 이것은 옹지못하게 문제를 세우는 것이다. 물론 인물들은 얼마만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경적 위험성을 당내에서 발생케 하는 그 조건들과 그 환경에 있는 것이다. 인물들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우리가 그리함으로써 우리당내의 우경적 위험성의 근거들을 없애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물들에 대한 문제는 비록 의심할 것이 흥미를 끄는 것이나 마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대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제니건과들을 몰아내고 오테짜지방에서 제니건군대의 마지막 잔당(殘黨)들을 쳐 없애던 一九一九년 말과 一九二〇년 초에 오테짜에 있었던 한 개의 에피소드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에 붉은군인의 일부는, 만일 그들이 안판파(연합파)를 붙잡을 것 같으면 전쟁이 끝나리라 하고 확신하고 성이 잔뜩 나서 오테짜에서 안판파를 찾아다녔다(만장대소). 붉은군인이 안판파측의 대표자들중에서 누구든지 오테짜에서 붙잡을 수 있었을 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함으로써 물론 안판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오테짜가 그때에 제니건파들의 마지막 지점이었지만 안판파의 근거는 그 오테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제자본주의에 있는 까닭이다.

우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우경을 발생케 하는 조건들을 잊어버리면서 우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에 문제를 집중시키는 일부의 우리동지들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배신적 로선에서 버서지는 우경과 또는 「좌경」(트로츠키적)이 발생되는 조건들에 대한 문제를 밝혀 놓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조건하에 있어서의 공산주의내의 우경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추향(趨向)、경향(傾向) 즉 실상 형성된것은 아니오 또한 아직 인식된것은 아닌것이지만 여하튼 맑스주의의 혁명적 로선으로부터 물러나서 사회민주주의의 편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의미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일부가 선거투쟁에 있어서 「계급대(對) 계급」이라는 포어의 정당성을 부인한다든가(불란서) 혹은 공산당에서 독립적으로 후보자들을 내세우는 데 반대하여 진출한다든가(영국) 혹은 「좌익」 사회민주주의자와의 투쟁에 대한 문제를 참에 화시키기를 원치않는다든가(독일) 하는등등이 있는 이것은 공산당들의 내부에 공산주의를 사회민주주의에 순응(順應)시키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 나라들의 공산당내에서의 우경의 승리는 공산당들의 사상적 파멸과 사회민주주의의 굉장한 강화를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의 굉장한 강화란 무엇인가? 이것은 자본주의의 강화 및 공고화인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민주당은 로동계급내에서의 자본주의의 주되는 지주(支柱)가 되는가닭이다.

그리고 본즉 자본주의제국(諸國)의 공산당내부에서의 우경의 승리는 자본주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의 장성에 이르게 하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이미 전복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뿌리들은 아직 근질되지 못하고있는 쏘베트적 발전조건하에서의 공산주의내의 우경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추향, 경향, 즉 실상 형성된것은 아니오 또한 아직 의식화된것은 아닌것이니까 여하튼 우리당의 총로선으로부터 물

리나서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편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공산주의자들의 일부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전격의 필요를 거부하면서 당을 제十五차 대회의 결의로부터 뒤로 끄으려 하고 시도한다든가, 혹은 우리공업의 급속한 발전의 현재 속도는 나라를 멸망케 하는 속도라고 인정하면서 그 공업의 축소를 요구한다든가, 혹은 몰호즈 및 쾰호즈에 대한 지출을 헛되히 내버리는 돈으로 인정하면서 그런지출의 적당성을 거부한다든가, 혹은 자기비판은 우리의 기판을 동요시킨다고 간주하면서 자기비판의 토대에서의 판로주의자와의 투쟁의 적당성을 거부한다든가, 혹은 대외무역에 대한 독점의 완화(緩化)를 요구한다든가 하는등등이 있는 이것은 우리당의 대별안에, 우리의 사회주의적 건설 사업을 「쾰베르적」 부르조아지의 입맛과 요구에 순응시키려고 —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되는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당내에서의 우경의 승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굉장한 강화들을 의미하는것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강화란 무엇설의 의미하는것인가? 이것은 프로테타리아독재의 약화와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기회의 증장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리고본즉 우리당내에서의 우경의 승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의 복구에 필요한 조건들의 장성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쾰베르나라에는 자본주의의 복구(재흥)를 가능하게 만드려주는 조건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상하게 보일수있을것이다. 그러나 동지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였고 프로테타리아독재를 수립하였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을 농민경제와 연결시키면서 그 사회주의적 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뿌리들을 때버리지 못하였다. 그것들은 즉 그 뿌리들은 어디에 박혀 있어 있는가? 그것들은 상품생산에, 도시와 특히 농촌의 소규모적 생산에 박혀 있다.

자본주의의 힘은 해인이 말한바와 같이 「소규모적 생산의 힘에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적 생산은 유감이지만 아직도 제상에 비삼히 많기 남아있으며 그 소규모적 생산은 항구적으로, 매일, 매시로, 자연생장적으로 자본주의 및 부르조아지를 대중적 범위로 산출하고 있는 까닭이다」 (제二五권 一七三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소규모적 생산이 대중적 또는 심지어 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또한 그 소규모적 생산이 특히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부단적으로 또는 대중적 범위로 자본주의 및 부르조아지를 산출하는 것만큼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의 복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조건들이 있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소비에트 나라에는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며 청산하기에 필요한 수단 및력량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소비에트에서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여 놓을 가능성이 대한 해인의 폐제의 정당성은 실로 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튼튼케 할 것, 노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 나라를 공업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주요 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킬 것, 공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것, 나라를 전기화할 것, 전인민경제를 새로운 기술적 토대 위에 이행시킬 것, 농민을 대중적으로 협동조합화시키며 그 경영의 수확고를 향상시킬 것, 개인적 농민경영들을

공동집단경영으로 점차 연합시킬것, 쏘호즈들을 발전시킬것,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며 또 극복할것등등이 필요한것이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가 아직 소농적 나라에 사는동안에는 로씨야에서는 공산주의를 위하여서보다 자본주의를 위하여서의 경제적 토대가 일층 더 튼튼한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농촌의 생활을 도시의 생활과 주의깊게 비교하여 관찰한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자본주의의 뿌리들을 아주 때버리지 못하였고 또한 내적(內敵)의 토대와 기반을 깨트려버리지 못한것을 알것이다. 국내의 적은 소규모적 경영에 의거하여있다. 그리하여 그 적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한가지 방법이 있나니, 그것은 곧 농업까지 포함한 전국가경제를 재기술적 토대위에, 현대식 대규모적 생산의 기술적 토대위에 넘겨세우는 그것이다. 그러한 토대로는 다만 전기관이 되는것이다. 공산주의는 곧 쏘베트주권에 전국의 전기화를 가해놓은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소농적 나라로 그냥 남아있게 될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범위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본주의보다 일층 약하다. 이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제적 토대가 소농적 토대로부터 대규모적 공업적 토대로 넘어가기까지 사업을 진행할것이다. 나랏가 전기화되고 공업, 농업, 운수업이 현대식 대규모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위에 세워지는 그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될것이다」(제二六권 四六—四七페이지)。

그런즉 첫째로는, 우리가 소농적 나라에 사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아직 자본주의의 뿌리들을 때버리지 못한 동안까지는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적 토대가 일층 더 튼튼한것이다. 나루는 적어버렸으나 뿌리는 완전히 때버리지 못하는수가 있다——힘이 부족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곧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가능성이 생겨나는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가능성이 외에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우리가 나라의 전기화에 있어 힘있게 사업할 것 같으면, 만일 공업, 농업, 운수업을 현대식 대규모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위에 세우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 버릴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뿌리들을 완전히 빼 버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로 부터 곧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농촌이 도시의 뒤를 「스스로 따라오리라」는 데서 출발하여 농업을 자연생장적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고 다만 공업에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시에 사회주의적 공업이 있는 것은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 기본적인 요인(要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요인이 아주 충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사회주의적 도지가 농민의 농촌을 능히 자기의 뒤에 끌고 나가 기 위하여서는,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농업까지 포함한 전국의 경제를 새 기술적 토대 위에, 현대식 대규모적 생산의 기술적 토대 위에 넘겨 세워야」 할 것이다.

레닌의 이 구절은,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경제의 기초를 건설하는데 대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하여 준다」는 그의 다른 구절에 모순되지 않는가? 아니다, 모순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구절들은 호상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이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쓰 말 린.

완성된 사회주의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는 전연 말하지 않았다. 레닌은 오직 신경제정체
이 사회주의적 경제의 기초를 건설하는 데 대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말하
였을 뿐이다.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한 가능성과 그의 현실적 건설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
가 있는 것이다. 가능성을 현실과 혼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실로 이것을 위하여 레닌은 나라를 전기화시키는 것과 공업, 농업, 운수
업을 현대적 대규모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을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서 제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한 이 조건을 ———— 二년간에 실현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
다. ———— 二년간에 나라를 공업화하며 유력한 공업을 건설하며 수백만 농민대중을 협동조합화
하며, 농업을 새 기술적 토대 위에 세우며 개인적 농민경영들을 대규모적 공동경영으로 전
합하며 쏘호즈들을 발전시키며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며 또 극복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여러 행동안의 완강한 전
설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동안까지는 ———— 二년간에 이것은 대
변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 우리는 아직도 소규모적 생산이 무단적으로 또 대중적 범
위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산출하는,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 있
게 되는 소농민적 나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프롤레타리아트는 진공중(眞空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각양으
로 된 가장 실제적인 또는 현실적인 생활에서 살고 있는 까닭에 소규모적 생산의 토대 위에
서 생겨나는 부르주아적 요소들은 「각방면으로 소부르주아적 분류로써 프롤레타리아트

를 포위하고 있으며 그것으로써 프로테타리아트를 침식(浸蝕)하고 있으며 그것으로써 프로테타리아트를 부패케하며 프로테타리아트의 내부에서 소부르조아적 유약성(柔弱性)、분산성、개인주의、열중(熱中)으로부터 의기상설에로 넘어가는 등등의 재발성을 항상 환기하고 있으며」(제二五권 一八九페이지) 그리하여 프로테타리아트 및 그의 당내로 어느 정도의 중요와 방황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곧 우리당내에 있는바의 해년적 로선으로부터 물러나가는 온갖 종류의 동요 및 경향들의 뿌리와 기초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당내의 우경 또는 「좌경」에 대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당내에서의 우경적、공공연한 기회주의적 경향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경향은 우리의 적(敵)들의 역량、자본주의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위험성을 보지 못하는、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조건하에서의 계급투쟁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또한 그러므로 우리공업발전의 속도를 낮추기를 요구하면서、농촌 및 도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하여 완화(緩化)를 요구하면서、팔호즈 및 싹호즈에 대한 문제를 뒤로 미루기를 요구하면서、대의무역에 대한 독점의 약화(弱化) 등등을 요구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그처럼 쉽게 양보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당내에서의 우경의 승리는 물론 자본주의의 세력을 자유롭게 할 것이며 프로테타리아트의 혁명적 진지를 파괴하였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기회를 지어주었을 것은 의심없는 일이다.

우리당내에서의 「좌경」(트로츠키적)의 위협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좌경」은 우리의 적들의 역량, 자본주의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가능성만은 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량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여놓을 가능성은 보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서 어쩔수없이 우리당의 레프미도르주원에 관한 잡담으로써 자기를 위안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우리가 아직 소농적 국가에 사는 동안에는 로씨야에서는 공산주의를 위하여서보다 자본주의를 위하여서의 경제적 토대가 일층 더 튼튼한것이다」라는 레닌의 어구에서 — 레닌의 이 어구에서 「좌경」은, 소련에서는 대체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없으며 농민과는 아무것도 안될것이며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에 대한 사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며 만일 서구에서 승리한 혁명의 보조가 될지못할것같으면 소련에서 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반드시 붕괴(崩壞)되든가 혹은 변질(變質)될것이며 비록 농민과의 분열이 생기게되더라도 실시하려는 초(超)공업화에 대한 공상적 계산(空想的計案)을 채용하지 않을것같으면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사업은 패망된것으로 인정하여야 된다는 그 옳지 못한 결론을 내리운다.

이로부터 「좌경」의 정책에 있어서의 모험주의가 생기는것이다. 이로부터 정책상에 있어서의 「초인적(超人的)」도약(跳躍)이 생기는것이다.

우리당내에서의 「좌경」의 승리는 로동계급을 그의 농민적 지반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로동계급의 전위대를 일반 로동대중과 분리시키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를 패배케하고 자본주의의 복구를 위한 조건들을 헛히 생기게하였을것은 의심없는일이다.

보는바와같이 「좌경적」이든 또는 우경적이든 이 두위험성, 우경이든 또는 「좌경」이든 레닌적 로선에서 물러나가는 이 두경향은 비록 서로 다른 점(點)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한가지 결과에 이르게하는것이다.

이 두위험성중에서 어느것이 더 나쁜가? 나는 둘이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 경향들과 성과있게 투쟁하는 결지로 보아서 이 경향들사이의 차이점은, 당에 있어서 「좌경」적 위험성이 현모멘트에 있어서 우경적 위험성보다 일층 더 명료하다는데 있다. 우리당내에서 「좌경」과의 격렬한 투쟁이 벌써 몇해동안 진행되고있는 그 사정 즉 그 사정은 물론 당에 있어서 무익하게 지나갈수는 없었다. 당은 「좌경」, 트로츠키적 경향과 투쟁하는 여러해동안에 많은것을 배웠으며 또한 이제는 당을 「좌경적」 연사로서 속이기는 용이(容易)치못하다는것이 명백하게되었다.

이전에도 있었으며 또한 지금에 와서는 작년도의 곡물수매상 위기와 관련하여 소부르조아적 분류가 강화하여짐으로 인하여 일층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는 우경적 위험성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 위험성은 우리당의 일부층에게 있어 그렇게 명백하지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임무는, 「좌경적」인 트로츠키적 위험성과의 투쟁을 추호라도 약화시키지말면서 우경과의 투쟁에 힘을 더 강화하며 이 우경의 위험성으로하여금 트로츠키적 위험성이 명백한것과같이 것처럼 명백한것이 되도록 모든 대책을 쓰는데 있는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경에 대한 문제는 만일 그것이 우리의 발전상 난관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것이라면 그것이 지금 것처럼 날카롭게는 나서지않았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사례는 우경이 현존하여있는것이 우리의 발전상 난관들을 복잡하게하며 그

리하여 이 난관들을 극복하는 사업을 저해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로 우경적 위험성이 난관들을 극복하는데 대한 투쟁을 곤란케하는 까닭에, 실로 그런 까닭에 우경적 위험성을 극복하는데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난관들의 성격에 대하여 두어마더 말코저한다. 우리의 난관들은 켈체(沈滯)나 혹은 쇠퇴(衰頹)의 난관들이 아닌것임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경제가 쇠퇴되는때서나 또는 그것이 켈체되는때서 난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때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켈체를 덜 피로운것으로 또는 그 쇠퇴를 덜 심각한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것이다. 우리의 난관들은 그러한 난관들과는 하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않다. 우리의 난관들의 특징은 그 난관들이 항상, 난관들이며 장성의 난관들인 거기에 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난관들에 대하여 말하는때에는 보통 공업을 몇파센트나 향상시킬것인가, 파종면적을 몇파센트나 확장시킬것인가, 수확고를 몇부드나 높일것인가 하는등등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그러하여 실로 우리의 난관들은 쇠퇴나 혹은 켈체의 난관들이 아니라 항상의 난관들인 까닭에, 실로 그런까닭에 그 난관들은 당에 대하여 어떤 특별히 위험한것으로는 되지않는것이다. 그러나 난관들은 여하튼 난관들인것이다. 그러므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모든 력량의 긴장이 필요하며 건설성 및 건인성(堅忍性)이 필요하겠만 아마도 피곤하고 쇠약한 탓인지 혹은 투쟁과 근심걱정이 없이 일층 안전하게 사는것을 낮게 생각하는 탓인지 그 건설성과 그 건인성은 각자에게 다 충분하지 못하니, 여기에 바로 중요 및 방향, 최소 저항선(抵抗線)의 편으로 돌아서는일, 공업발전의 속도를 나추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에게 대하여 완화하라는, 끌호즈 및 쫘호즈를 거부하며 또 일반적으로는 일상 사

업의 보통적이고 안전한 환경의 범위를 벗어나가는 모든것을 거부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앞에 서있는 난관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전진할수없는 것이다. 그런데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경적 위험성을 처없애야 할것이요, 무엇보다도 먼저 난관들과 투쟁하는 사업을 저해하는 또는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를 꺾으려는 우경을 극복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말로나 또는 글로하는 우경과의 투쟁에 대한것이 아니요 실제적 투쟁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우리당내에는 향심의 가책이나 면할량으로 승려들이 때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이듯이 우경적 위험성과의 투쟁을 외이는것은 싫어하지않으나 그러나 그투쟁을 마땅하게 수행하며 그 우경자체를 사실에 있어서 극복하기에는 하등의, 참말 하등의 실제적 대책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조류를 우리당 내에서는 우경에 대한, 공공연한 기회주의적 경향에 대한 융화적(融化的)조류라고 칭한다. 이러한 종류의 융화주의와의 투쟁이 우경과의, 우경적 위험성과의 일반적 투쟁의 구성부분이 되는것임은 리해하기 어렵지않은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의 날개죽지밀에 기회주의자들을 감추어주는 그 융화주의적 행위와 계통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경적, 기회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기 불가능한 까닭이다.

우경적 경향을 가진자들에 대한 문제는 비록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아니로되 의심할것없이 흥미있는 문제인것이다. 우리는 작년의 곡물수매상의 위기당시에 여러면(面) 및 촌에서 여러 공산당원들이 풀라크분자들과 연락하면서 당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선 그

때에 우리당의 하부단체들에서 우경적 위험성을 띠고 있는자들을 적절하게 퇴적이 있었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분자들을 금년 봄에 우리당에서 내몬것을 알고있는바, 그에 대하여는 일반이 다아는바의 금년二월의 우리당중앙위원회 문건에 특히 서술(敘述)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들이 우리당내에 남지않았다고 말하는것은 옳지못한것이다. 만일 그 이상으로 군뿔도 당단체에 올라가서 모른가 또는 쏘베트기관 및 협동조합기관에서 잘 들춰볼것같은 여러분은 여기에서 힘을 드리지않고 우경적 위험성을 가진자와 그에 대한 융화주의적 태도를 취하고있는자들을 찾아낼수있을것이다. 우리의 당기관 및 쏘베트기관 여러일꾼들이 쓴 우경제로 끝된것이 아주 명백히 나타난 그러한 「편지」, 「성명서」 및 기타의 문건들이 있는것은 일반이 다아는바이다. 여러분은, 중앙위원회 七월전원회의 속기록에 이 편지들과 문건에 대한것이 지적된것은 아는바이다.

만일 그이상으로 올라가서 중앙위원회위원회에 대하여 문제를 세운다고하면 중앙위원회의 성원중에도, 참으로 일파되지는 않으나 우경적 위험성에 대한 융화주의적 태도를 가진 어떤 분자들이 있는것을 시인하여야할것이다. 중앙위원회 七월전원회의 속기록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는것이다.

그러면 정치국에는 어떠한가? 정치국에는 어떠한 경향들이든지 있는가? 정치국내에는 우경도, 좌경도, 그들과의 융화주의자들도 없다. 이것을 이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여야할것이다. 당에 대하여 악의를 가진자들과 또는 온갖 종류의 반대파들이 우리중앙위원회 정치국내에 우경이나 혹은 그에 대한 융화적 태도가 있다고 전파하고있는 그 악담들을 내버려야할때가 도라왔다.

모스크바 당단체에나 또는 그의 상부인 모스크바 위원회에 동요 및 방황이 있었는가? 사실 있었다. 거기에 동요 및 방황이 없었다고 지금에 와서 단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것이다. 멘쇼브의 솔직한 연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것이다. 멘쇼브는 모스크바 당단체와 모스크바 위원회내의 말석(末席) 일꾼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가 우리당의 정책의 여러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 자기가 범한 오류들을 솔직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자백한것을 들은것이다. 이것은 물론 모스크바 위원회가 전체로 동요에 빠졌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니,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금년 10월에 모스크바 당단체의 당원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위원회 격문과 같은 이러한 문건은, 모스크바 위원회가 자체의 일부 당원들의 동요를 극복하여내었다는것을 의심할것없이 말하여주는것이다. 나는 모스크바위원회의 지도적 핵심(核心)이 사태를 철저히 바로잡아 놓으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동지들은, 구역당단체들이 모스크바당단체의 이런 혹은 저런 지도자들의 오류 및 동요를 청산할 문제를 세움으로써 이 사건에 간섭하였던것을 불만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써 이와같은 불만을 정당화할수 있을가를 나는 알지못한다. 모스크바당단체의 구역일성자들이 오류 및 동요의 청산을 요구하여 wreath 것이 무엇이 나쁘겠는가? 과연 우리의 사업은 하부로부터의 자기 비판의 기치하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닌가? 자기비판이 당의 하부와 일반적으로 프로레타리아의 하부의 적극성을 높이는것이 과연 사실이 아닌가? 만일 구역일성자들이 마땅히 해야할일을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쁜것이냐 혹은 위험한것이 있는가? 중앙위원회가 이 사건에 간섭한것이 옳게 처리한 일인가? 나는 옳게 처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베르진은, 구역 당단체의 반대를 당하는 구역지도자들중의 한사람을 정결

하는데 대한 문제를 중앙위원회가 세운것은 파격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연 옳지 않다. 나는 一九一九년인가 一九二〇년에 있던 몇가지 에피소드를 들어 배르진에게 말하여줄수있다. 그때에 당로선에 대하여 나의 생각각에서는 그렇게 중요치않은 어떤 오류들을 범하였던 일부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모범될만한 책벌(責罰)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중 한사람은 두르게쓰판으로 파송되었고, 다른 한사람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성원에서 하말으면 제명될변하였다.

이와같이 처리한 레닌은 옳았던가? 나는 그가 전혀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때에 중앙위원회내의 형제는 지금과같이 없었다. 그때에 중앙위원회의 절반은 트로츠키를 따라갔고 그리고 중앙위원회 자체내의 형제가 안정되지 않았다. 지금에는 중앙위원회가 비할수없이 판대(寬大)하게 처리하고있다. 왜? 아마도 우리가 레닌보다 일층 더 착한 사람들이 되려는것이 아닐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형제가 그때보다 지금은 일층 확고하며 그리하여 지금에는 중앙위원회가 일층 판대하게 처리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중앙위원회가 늦게 간섭하였다고 단언하는 짜하로브도 옳지못하다. 그가 옳지못하다는것은 중앙위원회의 간섭이 사실 금년 二월부터 시작되었던것을 그가 알지못하는것이 확연하기때문이다. 짜하로브가 만일 원한다면 이점에 대한 확신을 얻을수있는것이다. 중앙위원회와의 간섭이 대번에 확연한 결과를 내지못하였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가답에 중앙위원회를 비난하는것은 이상한 일일것이다.

결론—

(一)、우정적 위험성은 우리당내에서 중대한 위험성이다. 그것은 그 위험성이 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근거되어 있는 까닭이다.

(二)、우정의 위험성은, 우경 및 그에 대한 옹화주의적 행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극복할수없는 그런 난관들이 있음으로써 배가(倍加)되는 것이다.

(三)、모스크바당단체에는 동요 및 망황들이 있었던것이오 불견실한 분자들이 있었던것이다.

(四)、모스크바위원회의 핵심은 중앙위원회와 구역열성자들의 도움으로써 동요가 청산되도록 모든 대책들을 취하였다.

(五)、모스크바위원회가 이전에 범하였던 그 오류들을 극복하여벌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六)、임무는 내부적 투쟁을 청산할것, 모스크바당단체를 한탕어리되게 결속시킬것, 그리하여 전개될 자기비판의 토대우에서 당세포들의 개선(改選)을 성과있게 실시할것등에 있는 것이다. (빅수)。

전련맹공산당(볼셰비크)내 우경에 대하여 *

一九二九년 四월의 전련맹 공산당(볼셰비크) 중앙

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 전련회에서 한 연설(속기록)

동지들! 비록 부하들과의 어떤 동지들의 연설에는 개인적 사정이 자못 큰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개인적 사정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다. 개인적 사정은 사소한 것이요 사소한 것이란 논란할 가치가 없으므로 말하지 않겠다. 부하들은 나와서 개인적 서신왕복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는 편지 몇장을 랑독하였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 우리가 작일에는 인간적으로 칭우였지만 지금에는 정치상에 있어서 그와 갈라지고 있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우쿨라노브와 톱쓰끼의 연설에도 역시 그러한 론조가 일관되어 있다. 우리는 오랜 볼셰비크들인데 서로 존경할 줄 모르고 우리사이에서 불시에 분열이 생기다니, 그럴리가 있을가 한다.

나는 이 모든 비판과 체음(涕泣)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족적 회합이나 개인 칭우들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계급 정당에 속한 사람

* 연설가운데 당시 신문지상에 발표되지 아니하였던

三〇여 페이지의

원고가

여기에

수록되었음——편집부.

들이다. 개인친선의 이해를 사업의 이해보다 더 높이 내세우는 것은 옹호할 수 없는 것이다.

동지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높았다 하여 높은 불쉐비크로 자칭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업은 그릇될 것이다. 높은 불쉐비크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높은 까닭이 아니라 그들이 높았으면서도 로외하지 아니하는, 영구히 새로운 혁명가들이기 때문이다. 높은 불쉐비크가 만일 혁명으로선에서 탈선한다면 거나 타락되어 정치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면 그가 비록 백세에 달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높은 불쉐비크로 자처할 권리가 없는 것이오 그는 자기를 존경하라고 당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친선은 친선이오 직무는 직무라는 말과 같이 개인친선문제를 정치문제와 동등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로동계급에 봉사하는 것이니 만일 개인친선의 이해가 혁명의 이해와 상치된다면 개인친선은 반드시 뒤로 밀어놓아야 할 것이다. 불쉐비크인 우리는 문제를 달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부하팀측 반대파 동지들의 연설 가운데 있는 그 개인적인 은근한 비난과 암시에 대하여도 역시 말하지 않겠다. 이 동지들은 필연 암시와 애매한 언사로 우리의 의견상위의 정치적인 근거를 은폐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책을 술책으로써 채택하려 한다. 이 판계에 있어서는 뽕쓰개의 연설이 가장 투정적인데 그 연설은 정치문제를 술책으로써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트레드·유니온 정치관들의 전형적 연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요술은 성공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의 요점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一、로선이 하나이나 둘이나?

동지들! 우리에게 공통적인 총로선 하나가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로선들이 있는가 하는 이것이 기본문제이다.

여기에서 띄어표는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총로선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사이에 약간의 「사소한」 의견상위가 있게 될은 이것이 총로선을 이해함에 사소한 「차위(差違)」가 있는 까닭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옳은가? 유감이지만 옳지 않다. 또한 옳지 아닐뿐만 아니라 진리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사실로 만일 우리에게 로선이 하나가 있고 우리 사이에 사소한 차위뿐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부하틴은 왜 까메네브를 선두로한 작업의 트로츠키파의 측에 넘어가서 그들로 더부러 중앙위원회 및 그의 정치국에 반대하여 과적 불력을 조직하려고 시도하였는가? 부하틴이 거기에서, 중앙위원회 로선의 「파멸성」, 부하틴, 톰쓰끼, 띄이표브를 한편으로하고 당중앙위원회를 다른 편으로한 그 두사이의 원칙적 의견상위,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부의 근본적 변경의 필요등을 말한것이 사실이 아닌가?

만일 로선이 하나라면 왜 부하틴은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작업의 트로츠키파로 더부러 밀모하고있으며 띄이표브와 톰쓰끼는 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를 지지하고 있었는가?

만일 총로선이 하나이라면 정치국내에서 공통한 하나의 총로선을 지지하는 한부분이 역시 그 총로선을 지지하는 다른 한부분을 반대하여 간계를 꾸미고있는것을 어떻게 용허할수 있을가?

과연 **한 개의 공통한 총로선**이 있다면 이러한 탈주정책(脫走政策)을 용허할 수 있을까?
 만일 **로선이 하나이라면 중앙위원회 및 그 총로선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一월三十일부
 부하련의 선언서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만일 **로선이 하나이라면** (一)、농민에 대한 군사봉전적 착취의 정책、(二)、판로
 주의 부식정책、(三)、국제공산당 와해정책을 실시한다하면서 당을 물염치하게, 란포하
 계층상적으로 비난한 二월九일부 **삼인조**(부하련, 퇴이코브, 톰쓰끼)의 선언서는 어디에서 생
 겨났는가?

혹시 이 선언서들이 인제는 세상에 더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혹시 지금에는 그 선언
 서들이 오착된 것으로나 인정되지 않는지? 혹시 퇴이코브, 부하련 및 톰쓰끼가 절대로 그
 린되고 반당적인 이 선언서들을 취소하기에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게로물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때에는 우리에게 **로선이 하나가 있고**
우리사이에, 사소한 차이뿐이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하
 련, 퇴이코브 및 톰쓰끼의 연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렇게하기를 원치 아니한 것이
 다. 또한 그렇게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선언서들에 른술되어 있는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단언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자기들의 선언을 취소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어디에 공통한 총로선 하나가 있단 말인가?

만일 **로선이 하나인데 부하련과의 의견대로 당로선은** 농민에게 대한 군사봉전적 착
 취정책을 실시함에 있다 할진대 부하련, 퇴이코브 및 톰쓰끼는 과연 이 파벌정책과 투쟁하

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인가? 이야말로 일종의 망동(忘動)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로선이 하나인데 부하된 측 반대파의 의견대로 당로선은 판로주의를 부식함에 있다 할진대 퇴이표브, 부하된 및 품쓰끼는 과연 판로주의와 투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당내에 부식하려는 것인가? 이야말로 일종의 무의미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로선이 하나인데 부하된 측 반대파의 의견대로 당로선은 국제공산당을 와해시키는데 있다 할진대 퇴이표브, 부하된 및 품쓰끼는 과연 국제공산당 와해정책과 투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국제공산당을 와해시키려 하는가? 어떻게 이러한 망란지설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다. 동지들! 우리에게 공통한 로선 하나가 있다 하는 퇴이표브의 성명에는 어떠한 상소롭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 선언서 범위내에서 방금 론술한 여러 사실과 부하된파의 행동에 류의한다면 공통적 로선하나란 것은 아무리하여도 말도 되지 않는 문제이다.

만일 로선이 하나라 할진대 부하된, 퇴이표브 및 품쓰끼측의 사직정책(辭職政策)은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정치국의 일부분이 반년동안이나 계속하여 당내에서 사업을 짜보타 주하면서 계통적으로 당중앙위원회의 주치의 결정을 실행하기를 거절하였으니 공통한 총로선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만일 우리에게 사실상 공통한 총로선 하나가 있다면 정치국의 일부분이 엄밀히 실시하고 있는 와해자적(瓦解者的)인 이 사직정책은 어디서 생겼는가?

우리당의 역사에는 사직정책의 실례들이 있었던 것이다. 폐하면 십월혁명 의일에 가메 네브 및 지노위예브를 선두로한 일부의 동지들이 당의 정책을 변할것을 요구하면서 자

기들에게 맡긴 직위를 사절하였던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때에 그들은 순볼셰비크적 정부를 조직하려는 정책을 실시한 우리당 중앙위원회에 반하여 멘셰비크 및 에세르들과 함께 연립정부를 조직할 것이라는 요구를 사적정책의 근거로 삼았던 것도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적정책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니, 이것은 그 정책이 상위된 두개의 로선의 존재, 즉 순볼셰비크적 정부를 조직하려는 로선 하나와 멘셰비크 및 에세르들과 함께 연립정부를 조직하려는 다른 로선의 존재를 그 근거로 삼았던 까닭이다. 그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부하틴류의 반대파가 한방면으로는 총로선의 통일성을 제창하고 다른 방면으로는 심월변혁시기의 지노위에브 및 까메네브에게서 취하여온 사적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는 하등의, 전혀 하등의, 논리가 없는 것이다.

로선 하나가 있다든지, 우리에게 두개의 로선이 있다든지 들충의 하나일 것이다. 첫 경우에는 부하틴 및 그 동료들의 사적정책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일 것이요 둘째 경우에는 사적정책은 심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만일 로선이 하나이라면 정치국내의 퇴이크브, 부하틴 및 톰쓰끼의 삼인조가 정치국에서五개년계획과 농민문제에 관한二个 기본대제를 체결하는 때에 자기들이 기권(棄權)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사실은 어디로부터 발생된 것인가? 그들에게 총로선이 하나이었는 데 기본적인 경제정책문제를 체결함에 있어서 일부의 동무들이 기권하는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가? 아니다, 동지들! 그러한 기적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로선이 하나이오 우리에게 사소한 차위만이 있다할진대 왜 부하틴류 반대파 동지들——부하틴, 퇴이크브 및 톰쓰끼가 정치국 위원회에서 금년 二월七일에 그

들에게 제의하였던 타협안을 채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타협안이 부하된 1과에
게, 그들이 스스로 자체를 밀어넣었던 그 함정속에서 벗어나올수 있는 십분 상당한 출
로를 주었음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중앙위원회 다수가 금년 二월七일에 제의하였던 그 타협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한 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다.

一、 부하된은 카메레보와의 교섭이 정치적 실차임을 시인함.

二、 부하된은 그 一九二九년 一월三十일부 「성명서」에 단언하였던, 즉 중앙위원회는 사실 「농민에 대한 군사용전적 착취」정죄를 실시한다느니 중앙위원회는 국제공산당을 화해시키며 당내에 판로주의를 부식한다느니 하는 이 모든 단언은 그가 적양(激昂)되어 논전의 열정으로 말한것이라는것, 그는 이 단언을 더 지지하지 아니한다는것, 그에게는 이 문제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와의 의견상위가 없다는것을 시인함.

三、 부하된은 이에 기초하여 정치국내에서의 일치협동적 사업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것을 시인함.

四、 부하된은 「브라브다」 신문사에서든지 국제공산당에서든지 사직함을 거절함.

五、 부하된은 이러한 까닭에 자기의 一월三十일부 성명을 취소함.

위원회는 상술한바에 의하여, 부하된의 실적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그 결의 초안을 정치국 및 중앙공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제출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체 기성문전(연설속기록등등)을 취소할것을 정치국 및 중앙공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제의함.

위원회는 부하된이 「브라브다」 책임주필 및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비서의 직에 있어서 순조롭게 사업할수 있을 조건을 그에게 줄것을 정치국 및 중앙공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의함」.

만일 우리에게 로선이 사실 하나가 있고 우리들사이에 사소한 차위뿐이 있다할진대 왜 부하된 및 그 동료들은 이 타협안을 거부하였는가? 부하된과 그 동료들은 당내 부정제의 혐의성을 근절하고 정치국내에서 일치협력하여 사업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국에서 그들에게 제의한 이 타협안을 모든 힘을 다하여 틀어쥐어야 할 것이었음을 과연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당의 통일에 대하여 말하며 정치국내에서의 협의적 사업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사실로 통일을 원하고 사업의 협의성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면 반드시 이 타협안을 수납해야 할 것은 과연 명백하지 아니한가? 왜 부하틴과 그 동료들은 이 타협안을 기각하였는가? 만일 우리에게 로선이 하나가 있었다면 세상에 삼인조의 二월九일부 선언서도 없었을 것이요 부하틴과 그 동료들이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그들에게 제의한 타협안을 기각한 일도 없었을 것은 과연 명백하지 아니한가?

아니다, 동지들! 이상에 론술한 여러가지 사실을 참작한다면 그때들의 소위 한 공통로선이란 것은 말도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본즉 사실상 우리에게서는 한 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로선이 있는 것이니, 그 중 한 로선은 중앙위원회의 로선이요 다른 로선은 부하틴 그루빠의 로선인 것이다.

의이코브가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총로선 하나가 있다고 성명한 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는 당로선에 반대하여 은근히 간계를 꾸미기 위하여 당로선보다 관이한 자기 자체의 로선을 은폐하려 하였던 것이다. 기회주의의 정책은 실로 의결상위들은 은폐하며 당내부의 실정을 은폐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은회하여 당으로 하여금 완전명백하게 관별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기회주의에는 이러한 정책이 요구되는가? 소위 로선통일이라는 공담으로써 은폐하여 가지고 사실상 당의 로선보다 관이한 그 자체의 로선을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것이다. 띄이표보는 금번 중앙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기가 진술한 연설을 통하여 이 기회주의적 입장에 나선것이다.

레닌동지가 그 어느 한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기회주의에 나탄 특정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아니할가? 그것이, 그 특정설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함은 그의 일반적 의의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띄이표보에게 심본적합한 까닭이다.

레닌은 기회주의 및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회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 때에는 온갖 방면에 있어서의 일체 현대식 기회주의의 특징, 즉 그 애매성, 모호성, 막연성을 신계든지 잊지말아야 한다. 기회주의자들은 그 본성에 의하며 문제를 확정적으로 루친하게 제기함을 항상 회피하며 대등력(對等力)을 구하며 상용(相容)될수없는 두 입장의 중간에 서서 애정하면서 두 입장을 다 『화합』하려고 노력하며 자기의 이의(異意)는 마치 교정, 의문 또는 순양하고 무사기한 회망처럼 발표하려한다』(제六권 三二〇페이지)。

명백한것과 정확한것을 두려워하고 사물의 실정을 은폐하려하며 당내의 실제의 의견 상위를 은회하려하는 기회주의의 특성은 즉 이러하다.

그렇다, 동지들! 현실이 아무리 불쾌하다할지라도 이 현실을 바로 불출알아야 하는것이다. 참말이지, 우리는 진리공포증(眞理恐怖症)에 감염되어서는 결코 아니될것이다. 불세비크들이 다른 모든 정당보다 관이한것은 하여간 그들이 진리가 아무리 신랄(辛辣)하다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정면으로 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사실상 공통한 로선 하나가 아니라는 거

기에 전리가 있는 것이다. 당의 로선, 혁명적인 레닌적 로선인 한 로선이 있는 것이오 이와 함께 다른 로선, 즉 반당적 선언의 방법과 사적 방법과 당을 손상시키는 방법과 은밀한 반당적 간계의 방법과 반당적 핏터를 조직할 문제로 작업의 트로츠키파로 더부러 비밀교섭을 행하는 방법으로 당로선과 투쟁하는 부하된 그루빠의 로선이 있다. 이제 二로선은 기회주의적 로선이다. 사실은 이러하니 이 사실은 외교적인 어떠한 현실로서나 유일로선이 있다는 어떠한 교활한 성명 등등으로는 은폐할 수 없는 것이다.

二. 계급적 변동과 우리의 의견상위

우리의 의견상위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었는가?

그 의견상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와 또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적 변동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었다. 어떤 동지들은 우리당안에 있는 의견상위가 우연한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당내에 있는 의견상위는 최근에 와서 진행되고 있는, 또한 발전에 있어서 전환(轉換)을 가져오고 있는 그 계급적 변동의 기초에서, 그 계급투쟁의 첨예화의 기초에서 발생하였다.

부하된 그루빠의 주요한 오류는 그 그루빠가 이 변동과 이 전환을 보지 못하며 그것들을 보려고도 원치 않는 거기에 있다. 당과 국공공산당의 새 임무들에 대한 물리해(沒理解)는, 말하자면 이것으로써 설명된 것인데, 그 물리해는 부하된 반대파의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동지들, 여러분은, 부하된 반대파의 지도자들이 중앙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자기들의 연설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계급적 변동에 대한 문제들 전혀 묵과(默過) 하였으며, 계급투쟁의 철회화와 철회화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치 않았으며 우리의 의견상위가 실로 이 계급투쟁의 철회화와 판권된데 대하여 심지어 회기한 암시까지도 하지 않은것을 주의하였는가? 그들은 모든것에 대하여서, 철학(哲學)에 대하여서도, 이론에 대하여서도 말하였으나 그러나 현모멘트에 있어서 우리당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을 규정하여주는 그 계급적 변동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 기이(奇異)한 일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혹은 당각성(黨怯性)으로써인가? 물론 아니다! 정치가들은 주되는것을 잊을수가 없는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금 진행되고있는 새 혁명적 과정(過程)들을 보지 못하며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으로써 설명된다. 이것은 그들이 주되는것을 간과(看過)한것으로써, 정치가가 못보고지내서는 아니될 그 계급적 변동들을 간과한것으로써 설명된다. 우리당의 새 임무들에 당면하여 부하된 반대파의 랑패(狼狽)와 무방비(無防備)는 말하자면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우리당안에 있는 최근의 사변들을 회상(回想)하여 보라. 우리나라에 있는 새로운 계급적 변동들과 판권하여 당이 최근에 내세운 그 포어들들을 회상하여 보라. 나는 이러한 포어를 즉 자기비판에 대한 포어, 판로주의와의 투쟁을 날카롭게하며 또 쏘베트기관을 청결하는데 대한 포어, 새 경제일꾼들과 붉은 전문기술자들을 육성배치하는데 대한 포어, 팔호 및 쏘베트운동을 강화하는데 대한 포어, 골라크들을 공격하는데 대한 포어, 생산물

원가(原價)를 인(入)하(下)며 또 직(直)업(業)동(動)맹(盲)사(事)업(業)의 실(實)천(天)을 근본적으로 개(改)선(善)하는 데 대한 포(포)어(爾)당(堂)을 청(淸)결(決)하는 데 대한 포(포)어(爾) 등(等)등(等)에 대하여 말(말)하는 것이다. 어떤 동(動)지(止)들에 계(在)는 포(포)어(爾)들이 의(意)외(外)의 것으로 또는 현(現)훈(勳)중(中)이 날(날)만(만)한 것으로 뵈(뵈)이어(여)졌다. 그런데 이 포(포)어(爾)들이 현(現)모(模)멘(門)트에 있어서 당(堂)의 가장 필(必)요(要)하고 또한 긴(緊)절(切)한 포(포)어(爾)들인 것은 명(明)확(確)한 일(一)이다.

문제는 우리가 와(瓦)호(呼)트(트)사(事)건(件)과 판(判)련(連)하여 세 정(正)제(制)일(一)꾼(꾼)들에 대한 문제, 낱(낱)은 전문(專)가(家)들을 교(交)제(制)하여 로(路)동(動)계(界)급(級)의 출(出)신(身)으로써 불(不)은 전(專)문(文)기(技)술(術)자(者)들을 양성(養)성(成)하는 데 대한 문제(問題)를 새로 세(세)운 거(거)기(基)로부터 시작(始)되(되)었다.

와(瓦)호(呼)트(트)사(事)건(件)과 판(判)련(連)하여서는 무엇이 해(解)명(明)되었(되)었(었)는가? 부(부)르(르)조(조)아(아)지(지)가 아(아)직(직)도 영(營)영(營) 박(박)멸(滅)되(되)지(지)않(않)았(았)다는 것(것), 그는 우리(우리)의 정(正)제(制)건(建)설(設)에 있어서 해(解)독(毒)사(事)업(業)을 조(調)직(直)하고 있(있)으며 또한 앞(앞)으로도 조(調)직(直)하(하)리(리)라는 것(것), 우리(우리)의 정(正)제(制)기(基)판(板), 직(直)업(業)동(動)맹(盲)기(基)판(板), 부(부)문(文)적(積)으로는 당(堂)기(基)판(板)들이 우리(우리)의 계(界)급(級)적(積)적(積)의 과(過)피(疲)적(積)음(音)모(模)를 못(못)보(보)고 지(知)냈(냈)다는 것(것), 그리고 본(本)즉(즉) 우리(우리)기(基)판(板)들의 계(界)급(級)적(積)적(積)을 발(發)견(見)시(示)키(키)며 또는 공(公)고(告)하(하)면(면)서 모(모)든 힘(力)과 모(모)든 수(手)단(段)을 다(다)하여 그 기(基)판(板)들을 튼(튼)튼(튼)케 만(만)들(들)며 또 개(改)선(善)하(하)야 되(되)겠다(다)는 것(것) 등이 명(明)백(白)하(하)여(여)졌다.

이와 판(判)련(連)하여는 자(自)기(基)비(比)판(板)에 대한 포(포)어(爾)에 관한 문제(問題)가 날(날)카(카)로 위(위)졌다. 왜(왜)? 그것은 비(比)판(板) 및 자(自)기(基)비(比)판(板)을 대(對)대(代)적(積)으로 발(發)견(見)시키지(키)않(않)고(고)서(서)는, 우리(우리)기(基)판(板)들의 사(事)업(業)을 대(對)중(中)의 감(監)독(毒)하(하)에 두(두)지(지)않(않)고(고)서(서)는 우리(우리)의 정(正)제(制)기(基)판(板), 직(直)업(業)동(動)맹(盲)기(基)판(板), 당(堂)기(基)판(板)들을 개(改)선(善)할 수(수)없(없)으며 부(부)르(르)조(조)아(아)지(지)의 해(解)독(毒)행(行)위를 제(制)지(止)(制止)하는 사(事)업(業)과 사(社)회(會)주의(義)를 건(建)설(設)하는 사(事)업(業)을 앞(앞)으로 전(專)진(進)시키(키)지(지)않(않)는 까(까)닭(닭)이다. 그런(런)데 해(解)독(毒)행(行)위는 적(積)란(亂)산(散)자(者)뿐(뿐)만(만) 아(아)니(니)라 그(그)것(것)은 급(急)속(速)생(生)산(産)부(부)문(文)에(에)서(서)도, 군(軍)수(需)(軍需)공(公)

업부문에서도, 교통인민위원회에도, 금(金) 및 백금(白金) 산업에서도, 또한 기타 여러 곳에서 있었으며 또한 계속하여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로부터 자기비판에 대한 표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목물수매상 곤난들과 관련하여, 골라크층이 가격에 대한 쏘베트정책에 반대하여 진출함과 관련하여 우리는 골호즈 및 쏘호즈들을 배방으로 발전시키며 골라크에 대한 진격, 골라크적 부요분자들을 억압하는 방법으로써 목물수매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내세웠다.

목물수매상 곤난들은 무엇을 명백하게 하여 놓았는가? 그 곤난들은 골라크가 줄고있지않는다는 것, 골라크가 자라난다는 것, 그가 쏘베트주권의 정책에 반대하여 파괴적 음모를 조직하진만 우리의 당기관, 쏘베트기관, 협동조합기관들은——어쨌든 그 기관들의 일부분은——혹은 적을 보지못하는가 혹은 그 적과 투쟁할대신에 그 적에게 순응(順應)한다는 것을 밝혀 놓았다.

이로부터 자기비판에 대한 표어와 우리의 당기관, 협동조합기관 및 일반으로 목물수매기관들을 검별하며 또 개선하는데 대한 표어가 새로히 날카로워지게 된 것이다.

또 다음으로는,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공업 및 농업을 재건하는 새 임무들과 관련하여서는 생산물원가(原價)의 계통적 인하(引下), 노동규율의 강화, 사회주의 경쟁의 전개에 대한 표어가 발생하였다. 이 임무들은, 직업동맹과 쏘베트기관의 모든 실천을 다지침으로써 그 기관들을 근본적으로 활기있게하며 그 기관들로부터 관료주의적 요소들을 소청하여내는 등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직업동맹 및 쏘베트기관에 있는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대한 표어가 날카로워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당을 청결하는 포어에 대한 문제이다. 당 자체를 날카롭게 만들어 놓지 않고서 우리의 쏘베트기관, 정치기관, 직업동맹기관, 협동조합기관들을 튼튼케 할 수 있다는가 또 그 기관들에서 판로주의의 오염물(汚穢物)을 청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수운 일일것이다. 판로주의적 분자들이 정리기관 및 협동조합기관이나 직업동맹 및 쏘베트 기관안에뿐만 아니라 또한 당 자체의 조직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의심없는 일이다. 만일 당이 이 모든 기관들을 지도하는 힘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청결은 노동제급의 모든 기라 단체들을 끝까지 활기있게 하고 또 개선하는데 불가결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은 명요한 일이다. 이로부터 당청결에 대한 포어가 생기는 것이다.

이 포어들은 우연한것인가? 아니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몸소 그 포어들이 우연한것이 아님을 보는바이다. 이 포어들은 자본주의의 요소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진격이라고 청하는 한개의 끈을 수 없는 연쇄중의 필수적 고리들이 되는 것이다.

이 포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공업과 우리의 농업을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재건하는 시기와 연결되었다. 그런데 국민경제를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회주의가 인민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반대하여 모든 전선에서 진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제급의 사회주의 건설에로의 매우 중대한 전진인 것이다. 이 재건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건설의 인재들 즉 경제-쏘베트 및 직업동맹의 인재들이나 당-협동조합의 인재들을 개선하며 또 강화하여야 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조직들을 날카롭게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요 그 조직들에서 오염물을 청결해내어야 할 것이요 노동제급 및 농민의 백만대중의 열성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포어들은 인민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사회주의의 전격에 대항하는 사실과 관련되었다. 소위 화호트사건이라는 것을 우연한 일로 인정할수없는것이다. 「화호트분자」들은 지금도 우리공업의 모든 부문에 앉아있다. 그들을 많이 잡아내었으나 그러나 다 잡아내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부르조아적 인테리겐차의 해독행위는 발전하여나가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대항의 가장 위험한 형태중의 하나이다. 해독행위는 그것이 국제자본과 결탁되었으므로 일층 더 위험한것이다. 부르조아적 해독행위는, 자본주의적 분자들이 무기를 버리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것, 그들은 쏘베트주권에 반대하여 새로 진출하기 위하여 힘을 저축하고있다는것을 의심없이 표시하여주는것이다.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로 말하면 가격에 대한 쏘베트정책에 반대하여 벌써 두해째 계속하는 골라크종의 진출을 더구나 우연한 일로 인정할수없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골라크가 一九二七년까지는 자연의 추세에 따라서 제철로 목물을 내놓았으나 一九二七年 이후에는 자연추세에 방임하여서 저절로 목물제공을 그만둔 그사실을 지금까지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례에는 아무런 한 기이(奇異)한것이 없다. 만일 이전에는 골라크가 아직도 비교적 약하였고 자기의 경제를 보완하지 못하였 정비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기의 경제를 튼튼히 할만한 자본을 넉넉히 가지지 못하였고 그때문에 그가 할수없이 자기의 목물생산의 모든 여유나 혹은 거의 모든 여유를 시장으로 내여가지않을수없었다면 여러해동안 풍년이 있은후에 그가 경제적으로 자리잡았고 필요한 자본을 저축한 지금에 와서는 그는 시장에서 술책할만한 가능성을 얻었으며 그는 고기(肉)、귀밀、보리 및 기타의 그리 중요하지않은 농작물들을 시장에로 내심는것을 차라리 낮게 너기면서 화폐(貨

幣) 중에도 가장 주요한 화폐인 목물을 자기들 위해 적치(積置)할 가능성을 얻었다. 지금 해와서 꼴라크에게서 그의 자원(自願)에 의하여 목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고 희망하는 것은 우수는 일일것이다.

이에 곧 지금에 와서 꼴라크가 소매트주권의 정책에 항거(抗拒)하는 그 대항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전격에 대한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의 대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프로테타리아트의 계급적 적들이 새것에 반대하고 옛것을 고수(固守)하며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역량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이 정세(情勢)들이 계급적들의 투쟁을 첨예하게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알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급적들의 대항을 물리쳐버리고 사회주의가 앞으로 나갈 길을 닦아놓기 위하여서는 다룬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의 모든 단체를 날카롭게 하며 그 단체들에서 판로주의를 청소(淸掃)해내며 그의 인제들을 개선하며 또한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반대하여로 동계급의 백만대중과 농촌의 근로자층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계급적 변동의 기초우에서 우리당의 현재포여들이 발생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나라는에서의 계급적 변동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같은 것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안정이 변치않고 그냥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수는 일일것이다. 그 안정이 공고해지며 튼튼하여진다고 단언한다면 그것은 더구나 우수는 일일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안정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허무러져가며 또한 흔들리워진다. 국외 시장 및 원료를 위한 투쟁이 첨예화하는것, 군비를 확장하는것, 미국과 영국사이의 적대관

계가 장성하는것,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장성하는것,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의 좌익화하는것, 구라파나라들에서 동맹파업 및 계급투쟁들이 일어나는것, 인도까지 포함한 식민지들에서 혁명운동이 장성하는것,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장성하는것——이 모든것은 자본주의의 나라들에서 세혁명적 양양(昂揚)의 요소들이 자라나고있다는것을 의심없이 말하여주는 그러한 사실들이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의 사회적 지주(支柱)가 되는 사회민주당에 반대하는, 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좌」익에 반대하는 투쟁을 날카롭게하는 임무가 생기는것이다.

이로부터 공산당안에서 사회민주당적 영향의 앞자비가 되는 우경적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날카롭게하는 임무가 생기는것이다.

이로부터 공산당안에서 기회주의의 피신처(避身處)가 되는 우경과의 융화에 대한 투쟁을 날카롭게하는 임무가 생기는것이다.

이로부터 공산당들에서 사회민주당적 전통(傳統)들을 소칭해대라는 표어가 생기는것이다.

이로부터 직업동맹안에서의 공산주의의 이론바 세 전술이 생기는것이다.

일부 동지들은 이 표어들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는 이 표어들을 실천함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대중을 세 계급적 전투에로 준비시킬수 없다는것, 사회민주당을 승리할수 없다는것,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노동계급을 인도할 능력이 있는 그런 진정한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을 선발(選拔)하여낼수 없다는것을 언제든지 알고있을것이다.

동지들, 이것이 곧 우리나라와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는 계급적 변동이며 이 변동의 토대 위에서 우리당의 대내정책의 로선 또는 국제공산당의 로선에 관한 우리당의 현재표어들인 생겨난 것이다.

우리당은 이 계급적 변동들을 보고 있다. 그는 새 임무들의 의의를 리해하며 또 그 임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려량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당은 완전히 무장하고서 사변들을 따지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앞에 서있는 난관들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것은 그가 그 난관들을 극복하기에 준비하고 있는 까닭이다.

부하된 그루빠의 불행은 그 그루빠가 이 계급적 변동을 보지 못하며 당의 새 임무들을 리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로 그 그루빠가 그 임무들을 리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는 전적 당황(當慌)의 상태를 체험하고 있으며 그는 난관으로 부러도 망 하려고 하며 난관들의 앞에서 퇴각하려고 하며 진지를 양도(讓渡)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니세이와 같은 큰강(江)에서 폭풍우(暴風雨)를 당한 어부(漁夫)들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들을 본 적이 한두번만이 아니다. 폭풍우를 당하여 어부들의 어떤 그루빠는 자기들의 모든 힘을 동원하며 자기동지들로부터 금 활기를 내게하고 그리하여 폭풍우를 따지하여 용감하게 배를 저어가면서, 「자, 정신차려라, 키(舵)를 튼튼히 잡아라, 과도를 횡단(橫斷)하라, 우리가 이기어별 것이다!」한다.

그러나 폭풍우가 있을 것을 보고 걱정하며 흘려거리(涕泣)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자체의 대렬을 문란하게 하면서 「어허, 큰일났다, 폭풍우가 닥쳐온다. 다들, 뱃밀장에 누어라,

눈을 감아라, 아마 어찌하면 강변으로 밀어 내어갈 것이다」하는(일.박.이.대.소.)(大笑)한다.) 다른 종류의 어부들도 있는 것이다.

부하된 그루박의 견해 밀 행동은 난판의 앞에서 황급하여 퇴각하는 들쭉 그루박의 어부들의 견해 및 행동과, 마치 두 개의 물방울처럼 서로 상사(相似)한 것임은 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구라파에서 새 혁명적 양상에 대한 조건들이 성숙하여간다는 것, 이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공산당들 안에 있는 우경파의 투쟁을 강화하며 당으로부터 우경분자들을 축출하며 우경을 가리워주는 융화파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공산당들 안에 있는 사회민주주의 전통(傳統)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등등에 대한 새 임무들을 세우게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부하된 이 모든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서는 하등의 그러한 새 임무들이 없다고, 사실에 있어서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다수가 그를 즉 부하된을 「검토하라는 데」 있는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대답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계급적 변동은 우리로 하여금 생산물원가들 계통적으로 인하여 또 기업소들에서 노동규율들 틈틈이 하는 것을 요구하는 새 임무들을 세우게 한다고, 이 임무들의 실지는 직업동맹의 사업에서의 모든 실천을 근본적으로 변경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뚝스끼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우리에게서는 하등의 그러한 새 임무들이 없다고, 사실에 있어서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다수가 그를 즉 뚝스끼를 「검토하라는 데」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한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건은 우리로 하여금 쏘베트—경제기관에 있는 판로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이 기관에서 부패한 분자, 이색 분자, 해독 분자들을 소탕해내는 등등에 대한 새

임무들을 새우게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뵈이코브는, 이 모든것은 아무것도 아닌것이라고, 우리에게서 하등의 그러한 새 임무들이 없다고, 사실에 있어서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다수가 그를 즉 뵈이코브를 「검토하러는데」 있는것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한다.

동지들, 대체 이것이 우수운 일이나니고 무엇인가? 부하턴, 뵈이코브, 톱스끼는 자기의 때쯤 이외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것이 과연 명확하지 않은가?

부하턴 그루빠의 불행은 그 그루빠가 새 계급적 변동들 보지 못하며 당의 새 임무들을 리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실로 그 그루빠가 그 새 임무들을 리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은 할수없이 사변들의 뒤흔리를 따라가게되며 또한 난관앞에서 굴복하게 되는것이다.

이에 곧 우리의 의견상위의 근원이 있는것이다.

三、국제공산당의 토선에 있어서의 의견상위

나는 이미 말하기를, 부하턴은 새혁명적 양양(昂揚)의 조건들로 인하여 생기는 새 임무 즉 공산당으로부터 우경분자들을 내쫓으며 융화파들을 제지(制止)하며 또한 공산당들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전통(傳統)을 소청(掃清)해내는 데 대한 국제공산당의 그 새 임무들을 보지 못하며 또한 리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론단(論斷)은 국제공산당의 문제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의견상위에 의하여 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방면에 있어서의 의견상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던가?

문제는, 제六차 콩그레쓰에서의 국제정세에 대한 부하린의 테제로부터 시작되었다. 테제는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에서 미리 토구(討究)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조건이 준수(遵守)되지 못하였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하린의 서명(署名)으로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에 보낸 테제는 동시에 제六차 콩그레쓰의 외국대표들에게도 발송되었다. 그런데 테제는 여러 조합에 있어서 불충분하게 되었다.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은 테제에 큰二十종의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이 사정은 부하린의 입장을 약간 거북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는 누가 잘못하였는가? 무엇때문에 부하린은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이 그 테제를 토구(討究)하기도 전에 그것을 외국대표들에게 발송하게 되었는가? 만일 테제가 불충분하게 되었다면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은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 리하여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에 의하여 사실상 국제정세에 대한 새 테제가 제출되었는데 외국대표들은 그것을 부하린이 서명한 이전 테제에 대치시키게 되었다. 만일 부하린이 외국대표들에게 자기의 테제를 발송하기에 조급(躁急)하지 않았더라면 그 불쾌한 일은 없었을 것이 명백하다.

나는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이 부하린의 테제에 가한 四개의 기본적인 수정을 지적하려고 한다. 나는 그 기본적인 수정을 지적함으로써 국제공산당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상위의 성질을 일층 명확히 보이려고 한다.

첫째문제——이것은 자본주의 안정의 성질에 대한 문제이다. 부하린의 테제에 의하면 현모멘트에 있어서 자본주의 안정을 동요시키는 하등의 세 현상도 발생되지 않으며 도

리여 그와반대로 자본주의는 개조(改造)되고 있으며 대체로는 다소간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은 소위 제3기에 대한 즉 우리가 지금에 지내고있는 이 시기에 대한 이와같은 평가에 동의할수없었던것은 명확한일이다. 대표단은 그런 평가에 동의할수없었다. 왜 그러냐하면 제3기에 대한 이와같은 평가를 보유했다는것은 소위 자본주의가 「진실(健實)하여진다」는 견지에 즉 힐월당의 견지에, 우리공산주의자들은 설수없는 견지에 우리가 립각(立脚)한다고 말할 자료를 우리의 비판자들에게 줄수있었던 까닭이다. 이렇기때문에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은 수정을 가하게되었는데, 그 수정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안정은 튼튼치못하며 또한 튼튼하게 될수 없는것이오 세계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첨예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변의 행정에 의하여 그 안정은 동요되고있으며 또한 앞으로 동요되리라라는것이 보이는것이다.

동지들, 이 문제는 국제공산당의 각지부들에 대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것이다. 자본주의적 안정이 동요되느냐 혹은 튼튼케되느냐 하는 여기에 공산당들의 일상적 정치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방침이 달려있다. 우리가 혁명운동의 쇄락시기, 단순한 력량집결시기에 있느냐, 그렇지않으면 새 혁명적 양상에 대한 조건들이 장성하는 시기, 로동계급을 다쳐오는 계급적 전투에로 준비하는 시기를 당하고있느냐하는때 공산당들의 전술적 방침이 달려있는것이다. 그후에 대회에서 접수된바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의 수정은 그것이 이 둘째전망(展望), 즉 새 혁명적 양상을 위한 조건들이 장성하는 전망에 대하여 명확한 지지를 주는까닭에 참으로 좋은것이였다.

둘째문제——이것은 사회민주당과의 투쟁에 대한 문제이다. 부하틴의 테제에는 사회

민주당과 투쟁하는것은 국제공산당 각 지부의 기본적 임무의 하나가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言及)되어있다. 이것은 물론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민주당과의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민주당의 소위 「좌」익 즉 「좌경적」인사를 쓰면서 또한 그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교묘하게 기만하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에서 떠나거나오는 일에 지장(支障)을 주는 그 「좌」익과 투쟁하는데 대하여 문제를 반드시 날카롭게 세워야할것이다. 「좌익적」 사회민주당의자들을 분쇄함이 없이는 대체로 사회민주당을 극복할수없는것은 명백한일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틴의 테제에는 「좌경적」 사회민주당에 대한 문제가 전혀 묵과(默過)되었다. 이것은 물론 큰 부족점이다. 그러므로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은 부하틴의 테제에 그후에 콩그레쓰에서 접수된바의 적당한 수정을 가하게 되었던것이다.

셋째문제——이것은 국제공산당 각지부에있는 융화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부하틴의 테제에는 우경과 투쟁할 필요에 대하여서는 언급되었으나 그러나 우경에 대한 융화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할때 대하여는 거기에 한마디도 말하지않았다. 이것은 물론 큰 부족점이다. 문제는, 우경에 대하여 선전(宣戰)이 포고되는때에 우경분자들은 보통으로 융화과로 변장(變裝)하며 그리하여 당으로하여금 곤난한 형편에 처(處)하게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우경분자들의 이 기만(欺瞞)책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융화과와 결정적으로 투쟁할 문제를 세워야할것이다. 그러므로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의 대표단은 부하틴의 테제에 그후에 콩그레쓰에서 접수된바의 적당한 수정을 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넷째문제——이것은 당규률에 대한 문제이다. 부하틴의 테제에는 공산당내에서의 강철 같은 규률을 보전할 필요에 대하여 말한 것이 없었다. 이것도 역시 못하지 않게 중요한 부족점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우경파의 투쟁을 강화하는 시기, 공산당에서 기회주의적 분자들을 소청(掃淸)한다는 포어를 실시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경분자들은 보통 프락치야(分派)를 조직하며 자기 자체의 프락치야적 규률을 지어내고 당의 규률은 파괴하며 또한 문란시키는 까닭이다. 당을 우경분자들의 프락치야적 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의 강철같은 규률에 대한 문제와 당원들이 이 규률에 절대로 복종하는 데 대한 문제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경파의 진접한 투쟁이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연맹공산당(볼셰비크) 대표단은 부하틴의 테제에 그 후 제六차 콩그레쓰에서 접수된 적당한 수정을 가한 것이다.

우리가 부하틴의 테제에 그 수정들을 가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확연한 일이다. 옛적에 철학가 볼라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우리는 볼라톤을 존경한다. 그러나 진리(眞理)를 더 존경한다고 하였다. 부하틴에게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부하틴을 존경한다. 그러나 진리를, 당을, 국제공산당을 우리는 더 존경한다. 그러므로 전연맹공산당(볼셰비크)의 대표단은 부하틴의 테제에 그 수정들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국제공산당 문제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의견상의 차이점이다. 우리의 의견상의 차이점. 단은 소위 윗도르프와 덴만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윗도르프는 합부르그당기판의 이전 비서인데 당의 재전(財錢)을 낭비(浪費)하였다는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자이다. 그는 이때문에 공산당에서 출당(黜黨)되었다. 독일공산당의 중앙위원회내의
 융화파들은 비록 텔만동지가 뢰트르프의 범죄에 아무관계도 없었지만은 뢰트르프가 텔만동
 지와 가깝다는 것을 리용하여가지고 뢰트르프사건을 텔만사건으로 변환하였고 그리하여 독일공산
 당의 지도부를 엎칠(顛倒)려고 하였다. 융화파인 에쾨르트와 헤르하르트가 그때에 텔만동지에
 반대하여 독일공산당의 중앙위원회의 다수를 일시 자기들편으로 기울게되었던것을 여러분은
 아마도 출판물보도에서 이미 알고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어찌되었는가? 그들은 국제공산당 집
 행위원회가 알지도못하게 또는 그의 승락(承諾)도 없이 텔만동지를 지도층에서 제거(除去)
 하였으며 그가 퇴물(賂物)을 먹었다고 비난하였으며 그리고 「해당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이와같이하여 융화파와의 투쟁에 대한 국제공산당 제六차 콩그레스의 지시를 리행할 때
 신에, 우경 및 융화파와 투쟁할 대신에 사실에 있어서는 그 지시를 극히 험하게 위반
 하는 일이 있게되었으며 독일 공산당의 혁명적 지도부와 투쟁하며 텔만동지와 투쟁하며
 독일공산주의자들의 대렬안에 있는 우경을 감추며 융화파를 전고케하는것을 자기의 목
 적으로 삼는 그런 투쟁의 결과물 가져온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부하린은 키(舵)를 돌리어 정세를 바로 잡을 대신에, 제六차 콩그레
 쓰의 지시가 위반된것을 바로 제위놓을 대신에, 융화파들의 옳지않은 행동을 정지할 대신에 그
 는 일반이 아는 자기의 편지에 융화파들의 번혁을 승인할것과 독일공산당을 융화파들에
 게 양도하고 텔만동지의 명예손상에 대한 성명(聲明)을 한번 더 출판물을 통하여 비
 난(非難)할것을 또다시 제의하였다. 이것이 소위 국제공산당의 「지도자」의 행사라고 한
 다! 글세 세상에 이런 「지도자」들도 있을가?

중앙위원회는 부하틴의 제의를 토의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각각 (棄却) 하였다. 이것은 물론 부하틴에게 불쾌하였다. 그러나 이에야말로 누가 잘못하였는가? 제六차 콩그레스의 결정은 그것을 위반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다. 제六차 콩그레스는 벨만동지를 수위로한 독일공산당의 지도권을 기본적 핵심 (核心)의 수중에 보전 (保全)케 하고 우경과 옹화파에 대하여 투쟁을 선포할 것을 결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옹화파인 에워르트와 헤르하르트가 이 결정을 뒤집어 놓으려고 감히 심산 (心算)했다면 부하틴의 의도는 옹화파들의 옹지않은 행동을 정지하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오 그들에게 독일공산당의 지도권을 주지 않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제六차 콩그레스의 결의를 「잊어버린」 부하틴이 그릇되게 행사한 것이다.

우리의 의결상위의 셋째계단은 독일공산당에 있는 우경파의 투쟁에 대한 문제, 브란들레르와 딸헤이메르의 프락치야를 깨트리며 그 프락치야의 두목들을 독일공산당으로부터 출당시킬 때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하틴과 그의 친구들의 「립장」은,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가하기를 항상 회피한 거기에 있었다. 사례의 본질상으로부터 독일공산당의 운명 (運命)에 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하틴과 그의 친구들은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담당할 기관들의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계속 회피하면서 어느때나 일에 지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潔白)한 자들로서 남아있으려는 때문이었다. 「이것은 부하틴과인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즉 중앙위원회의 다수가 공산당으로부터 브란들레르와 딸헤이메르의 출당을 시행하

었다」고 다음에 가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까닭이었겠다. 이것이 우경적 위협과의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결상위의 넷째 계단이다. 이 계단은 내이만을 독일로부터 소환(召還)하려는 것과 텔만동지가 자기의 어느 한 연설에서 제 6차 콩그레쓰에서 한 부하틴의 보고를 마치 비평하여 연설하였다고 해서 그의 비행(非行)을 정지시킬것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와 11월전원회의에 제출한 부하틴의 요구와 판턴된 것이다. 우리는 부하틴의 요구를 확증하는 문헌을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물론 부하틴에게 동의할 수 없었다. 부하틴은 내이만과 텔만을 반대하는 문헌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 문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문헌대신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정치비서부에서 한 일반이 다 아는 엠베르—드로의 연설 즉 그후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기회주의적 연설로 판정(判定)된 그 연설을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대표단의 위원들에게 보내었다. 부하틴은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대표단의 위원들에게 엠베르—드로의 연설을 보내어 그것을 텔만을 반대하는 책으로 소개하면서, 내이만을 소환하려는 것과 텔만동지로 하여금 그의 비행을 정지시킬것에 대한 자기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그는 이것으로써 자기 자신이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가 기회주의적 립장에 선자로 간주하는 그 엠베르—드로와 공동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동지들, 이것이 국제공산당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의결상위의 주되는 조항들이다. 부하틴은, 우리가 국제공산당의 각지부에 있는 우경 및 우경에 대한 융화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며 독일공산당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서 사회민주주의적 분자들 및 그 전

통(傳統)을 소칭해내며 공산당으로부터 브란들레프와 딸헤이메르일과를 출당시킴으로써 국제공산당을 「와해(瓦解)」시키며 또한 국제공산당을 「멸망(滅亡)」시킨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와반대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며 우경 및 우경에 대한 옹화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문제를 날카롭게 세움으로써 우리는 국제공산당을 튼튼케하며 국제공산당으로서도 더 기회주의자들을 소칭해내며 그의 각지부를 불쇄비크화시키며 공산당들이 앞으로 타쳐오는 혁명적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준비시키는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하면 당은 그자체로부터 부패한것을 소탕하여버림으로써 전진하여지기때문이다.

여러분이 보는바, 이것은 전련맹공산당(분쇄비크)중앙위원회의 대렬에있는 여러가지의 단순한 누안스인것이 아니라 국제공산당의 정책의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의 매우 신중한 의전상위들인것이다.

四、내부정책의 로선에 있어서의 의전상위

나는 방금 위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계급적 변동 및 계급투쟁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부하된 그루빠가 맹목증(盲目症)에 전연되어서 이 변동을 보지 못하며 당의 새임부들을 리해치 못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로 말미암아 부하된 반대파가 당황하여하며 난관을 두며워하며 그 난관앞에 굴복하라는 용의(用意)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부하된파의 오류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는 말할수 없는것이다. 그와반대로 그 오류들은 이미 저내간 시기, 즉 인민경제의 회복기라고 칭하는 그 발전의 시기와 관련되었다. 이

시기는 전설사업이 평화방법으로, 말하자면 자연생장적 형태로서 행하여진 때이며 지금과 같은 그런 계급적 변동이 아직 없었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계급투쟁의 첨예화도 아직 없던 때이다.

그러나 지금에 우리나라라는 이전시기 즉 부흥기와는 다른 새 발전시기에 들어섰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 전설시기 즉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인민경제를 재건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이 시기는 새 계급적 변동과 계급투쟁의 첨예화를 환기한다. 이 시기는 새 투쟁방법과 우리의 력량을 재편성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조직을 개선하며 또 튼튼케 하기를 요구한다.

부하틴 그루빠의 불행은 바로 그 그루빠가 과거에서 살며 이 새 시기의 특수성들을 보지 못하며 새 투쟁방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 그루빠의 맹목증, 당황성과 난판의 앞에서의 황급성 등이 생긴 것이다.

1. 계급투쟁에 대하여

부하틴의 그루빠의 이 맹목증과 이 당황성의 이론적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문제를 부하틴이 옳지 못하게 비(非) 맑스주의적으로 취급하는 데 그 맹목증과 그 당황성의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 나는, 골라코츠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부하틴의 비 맑스주의적 이론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환경에서의 계급투쟁의 진상에 대한 불리해를 넘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부하틴의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골라크층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데 대한 일반이 다 아는 구절을 여기에서 여러번 인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빼어놓고 인용하였다. 나는 그 전문을 인용하려한다. 동지들, 이것은 계급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에서 부하틴이 얼마나 멀리 물러선것을 들어내 보이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들어보라.

「우리 협동조합적 농민조직의 기본망(綱)은 골라크적 형(型)인것이 아니라 「로력적」인 협동조합세포들이며 우리의 전(全) 국가적 기관의 체계에도 자타들이오며 그리됨으로써 사회주의적 경제의 유일(唯一)한 연쇄(連鎖)의 고리(環)들로 되어지는 세포들으로써 구성될것이다. 다른면으로는 골라크의 협동조합적 골들(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 및 기타를 거쳐서 곧 이 체계에 자타들이오게될것이다. 그러나 그 소골들은 레하면 리권(利權) 기업소들과 흡사하게 어느 한도(限度)까지는 이류체(異類體)가 될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부하틴의 소책자로부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무슨 까닭인지 리권에 대한 마지막 문구를 빼어놓았다. 보전대 로지트는 이것을 리용하여가지고 부하틴을 도으려고하면서 부하틴을 의곡(歪曲)한다고 이 회석에서 소리를 쳤다. 그런데 전인용문의 진수는 실로 리권소유자에 대한 마지막 문구에 있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만일 리권소유자들이 골라크와 한 지위에 서게되고 골라크들은 사회주의에로 변생된다고하면 이로부터는 어떤일이 생기게되겠는가? 이로부터는 리권소유자들도 역시 사회주의에로 변생된다는것, 골라크들뿐만

• 방점은 나의것——이 • 쓰달면.

아니라 또한 리권소유자들까지도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그 한가지 일밖에 생길 것이 없는 것이다. (만장대소).

바로 이것이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이다.

로·지·트. 부하틴의 책에는 「이류체(異類體)」라고 써여있다.

쓰·담·현. 부하틴은 「이류체(異類體)」라고 쓴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의 이류체」라고 썼다. 그리고 본즉 풀라크들과 리권소유자들은 사회주의의 체계에 있어서 「어느 한도까지」의 이류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 풀라크들과 리권소유자들이 「어느 한도까지」의 이류체이면서도 그래도 사회주의에로 자라들어온다는 거기에 곧 부하틴의 오유가 있는 것이다.

부하틴의 리론은 이런 망담(妄談)에까지 이르게한다.

도시 및 농촌의 자본가들, 풀라크들 및 리권소유자들은 사회주의로 변생된다고—— 부하틴은 이런 망담(妄談)에까지 이르게한다.

동지들, 이러한 「사회주의」는 우리에게 사실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사회주의는 부하틴 자신이나 가지라고 하라.

지금까지 맑스주의——레닌주의자들인 우리는 한편으로는 도시 및 농촌의 자본가들과 다른편으로는 로동계급과의 사이에는 리해관계상 서로 융화될수없는 적대성(敵對性)이 존재하여있다고 생각하였다. 계급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리론은 실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에로 평화롭게 변생한다는데 대한 부하틴의 리론에 의하면 이 모든것이 께꾸로 뒤집히지며 착취하는 자들과 착취받는 자들간의 융화 못할 계급적 리해의 적대성은 없어지며 착취자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하는 것이다.

로.지.트. 그것은 그런것이 아니다.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를 전제(前提)로 하는것이다.

프.탈.린. 그러나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는 계급투쟁의 가장 날카로운 형태이다.

로.지.트. 사실, 문제는 곧 거기에 있는것이다.

프.탈.린. 그런데 부하틴에게 있어서는 자본가들이 그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에로 변생

한다는것이 된다. 로.지.트.여, 어찌되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만일 도시와 농촌의 자본가들이 프로테타리아트독재의 체제에로 변생된다고하면, 누구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이며 누구를 반대하여 가장 날카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을 시행할것인가?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는 자본주의적 분자들과 융화할수없는 투쟁을 하기위하여 필요 한것이오 부르조아지들을 진압하며 자본주의를 뿌리까지 빼어버리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그런 데 만일 도시 및 농촌의 자본가들, 만일 골라크와 리권소유자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고 하면 그래도 대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가 필요할가? 또한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계급을 진압하기위하여 필요할가?

로.지.트. 그렇기에 말이다. 부하틴에게 있어서 변생한다는 그것은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프.탈.린. 나는 로.지.트가 부하틴에게 봉사(奉仕)하려고 맹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봉사는 곰(熊)의 봉사와 같은 결과로 되는것이니, 그것은 그가 부하틴을 구원하려고 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그를 어지없이 망쳐놓는 까닭이다. 「충실한 곰이 원쑤보다 더 위험하다」는것이 쓸데없이 한말이 아니다. (일.반이.양.찬.대.소.)

둘중에 하나일것이다. 혹은 주권을 잡았고 자체의 독재를 조직한 로동계급과 자본계

급과의 사이에 리해관계상 서로 융화되지 못할 적대성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리해관계상 이 적대성이 없다든가, 없다면 그때에는 계급적 리해의 조화(調和)를 성명할것뿐일 것이다.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혹은 계급투쟁에 대한 맑스의 이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리론일 것이다.

혹은 계급적 리해관계상 서로 융화될수없는 적대성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급적 리해의 조화에 대한 리론일 것이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로 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것을 설교하는 브렌 파노나 혹은 쾨르네이·웨브형의 「사회주의자」라면 차라리 리해할수가있다. 왜 그러냐하면 이「사회주의자」들은 사실에 있어서 반(反)사회주의자들이며 부르조아적 자유주의자들인 까닭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와 동시에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리론을 설교하는 사람은 리해할수가 없는것이다.

부하틴은 자기의 연설에 있어서 레닌에게서 일반이 다 아는 인용문을 인용하여 풀타크증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리론을 보강(補強)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있어서 부하틴은 그가 말한것과 마찬가지로 말하였다고 단언한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못하다. 이것은 레닌에 대한 험하고도 옹서 못할 비방(誹謗)이다. 레닌에게서 인용한 그 원문은 이러하다. 즉

「물론 우리소베트공화국에 있어서 사회제도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두계급이 협동하는데 기초되었는바 지금에 서는 「베르만」 즉 부르조아지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협동에 용허(容許)되어있다」(제二十七권 四〇五페이지)。

여러분은 여기에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데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을 보는바이다. 여기에는 다만 우리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협동에 네쁘만 즉 부르조아지도 「용허하였다」는 데 대하여만 언급(言及) 되었을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리함으로써 네쁘만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할 가능성에 용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물렘치한 사람들만이 태년의 인용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부르조아지를 지금 박멸하지 않으며 그들의 재산을 지금 몰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법률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조건하에서, 다시 말하면 자본가들을 인민경제의 생활에서 점차적으로 몰아내고 그들을 꾸준히 제한하는 데로 인도하는 조건하에서 부르조아지의 존재(存在)를 용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따름이다.

가혹한 계급투쟁이 없이 자본가들을 몰아내며 자본주의의 뿌리를 없애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니, 그리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이론 및 실천하에서 계급을 없앨 수 있을까? 아니, 그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은 다만 계급들을 배양(培養)하며 영원화(永遠化)시킬 수만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즉 이 이론은 계급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에 모순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레닌에게서 인용한 구절은 전적으로 또한 완전히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환경하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다.

풀라크가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데 대한 부하린의 이론과 가혹한 계급투쟁으로서

의 독재란 레닌의 리론과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수 있는가? 거기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또한 있을수도 없는것은 확연한 일이다.

부하린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에서는 계급들이 없어지게하기위하여 계급투쟁이 반드시 사라져야하며 또한 청산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와반대로 레닌은 계급들은 다만 프로레타리아트독재가 있기전보다도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조건하에서 더욱더 가혹하게되는 완강한 계급투쟁의 방법으로써만 없어질수있다고 가르치었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계급을 없애는것은 장구하고 어렵고 완강한 계급투쟁의 사업인바, 그 투쟁은 자본의 주권이 전복된후, 부르조아지의 국가가 파괴된후,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수립된후에(남은 사회주의 및 사회민주당의 비열한자들이 상상하는것과같이)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그 투쟁은 자체의 형태를 변하며 많은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가혹하게될 뿐이다」(제二四권 三一五페이지)。

이것이 곧 계급절멸(絶滅)에 관하여 레닌이 말한것이다.

계급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가혹한 계급투쟁의 방법으로써 없어진다——이와같은것이 곧 레닌의 공식이다.

계급들은 계급투쟁이 소멸되며 또한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하는 방법으로써 없어진다——이와같은것이 곧 부하린의 공식이다.

이 두공식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수 있는가?

결과코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부하린의 리론은 이와같이되어 계급투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이론에서 물러서는 것이 된다. 그 이론은 강단(講壇) 사회주의의 이론에 접근하는 것이다.

부하린과 및 그의 친구들의 모든 오류의 기본은 이에 있는 것이다.

풀라크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부하린의 이론은 그 이론 자체가 부하린을 반대하여 말하는——말할뿐만 아니라 고향(高喊)치는——까닭에 그에 대하여 오래 번설(煩說)할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을지못하다! 이 이론이 파문치어있는 동안에는 이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많은 동지들의 저술에 별별 망측한 것이 적지 않은 터이니까! 우리는 최근에까지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최근에와서는 정세가 변동되었다. 최근 몇해 동안에와서 활기(活氣)를 띠게 된 소부르조아적 분류는 이 반(反) 맑스주의적 이론에 현실성을 부치어주면서 그 이론을 고무격려하여준다. 지금에는 벌써 그 이론이 파문치어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에 와서는 그 부하린의 괴이한 이론은, 우리당내의 우경의 가치 즉 기회주의의 가치가 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이 이론을 묵과(默過)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당원동지들이 우경과 투쟁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을지못하고 또 해독하는 그 이론을 분쇄하여야 되는 것이다.

Ⅱ.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대하여

부하린의 첫째 오류로부터 나오는 그의 둘째 오류는,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대한 문제, 쏘베트주권의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반항의 강화(強化)에 관한 문제를 옳지 못하게 비맑스주의적으로 취급하는데 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적 부분보다 더 추하게 장성한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하여 그들은 사회주의적 건설을 파괴하면서 자체의 반항을 강화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더구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사회주의적 부분보다 마치 더 속히 장성한 듯이 말하는 그것도 옳지 않다. 만일 그것이 옳은 말이었으려면 사회주의적 건설은 벌써 멸망의 위경에 처하였을 것이다.

이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곧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비하여 성과있게 진격하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요소들보다 더 속하게 장성하며 그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비중(比重)이 저락(低落)되며 또는 실로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비중이 저락되는 까닭에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치명적(致命的) 위험을 감촉하며 또한 자체의 반항을 강화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자체의 반항을 강화할만한 가능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자본주의가 그들을 지지(支持)하는 까닭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들의 비중이 저락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장성에 비하여 그들의 상대적 장성이 저하

(低下)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절대적 장성이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의 장성에 반항하기 위한 힘을 저축할만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는 까닭이다. 즉 이에 기초하여 발전의 현재 단계에 있어서, 역량의 호상관계의 현조진하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첨예화와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반항의 강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하턴과 및 그의 친구들의 오류는, 그들이 이 간단명요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의 오류는, 그들이 계급투쟁의 첨예화를 각종의 우연한 원인으로써, 즉 소베트기판의 「부적당성」, 지방동지들의 「부주의한」 정책, 음통성의 「결핍」, 「과오(過誤)」 등등으로써 설명하려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범속적(凡俗的)으로 취급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하턴의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이라는 소책자에서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대한 문제를 전혀 비맑스주의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들어 내보이는 인용문을 들 수 있다. 즉

「농촌에서는 여기저기서 계급투쟁이 이전과 같은 발전방법으로서 타지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데다가 이 첨예화는 때때로 쿨라크분자들로써 환기된다. 메하면 쿨라크들이나 혹은 남을 희생하여 부요하여진 자 또한 소베트주권의 기관으로 잠입(潛入)한 자들이 농촌통신원(通信員)들을 암살하기를 시작한다 이것은 가장 날카로운 형태의 테로서의 계급투쟁의 표현인 것이다(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투쟁의 가장 날카로운 형태는 폭동인 까닭이다. 이 소베트(소말인)은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들은 대개 아직 지방의 소베트기판이 약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관이 개선(改善)됨에 따라서, 소베트주권의 모든 하급세포들이 든든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농촌

당 및 조정조직원들이 개선(改善)되며 또 힘있게 권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현상들은 더욱더 드물게 될 것이며 결국에 있어서는 자외도없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전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같이 계급투쟁의 철폐화는 우리의 하급기관들이 적당하거나 혹은 적당치 못한가, 약한가 혹은 힘있는가 하는 기관의 소절에 관한 원인으로써 설명되는 듯하다.

레하면 쏘베트주권에 대한 부르조아분자들의 반항의 형태이오 계급투쟁의 철폐화의 형태인 좌호트사건적 부르조아 인테리겐차의 해독행위는 계급적力量的 호상관계, 사회주의의 장성으로써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기관의 부적당성으로써 설명되는 듯하다. 좌호트구역에서 대법위의 해독행위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관이 좋았던 것이 그후 대법위의 해독행위가 발현되는 모멘트와와서는 그 기관이 무슨 까닭인지 불의에 전부 못쓸 것으로 된 셈이다.

목물주배가 제절로 진행되었고 또한 계급투쟁의 특별한 철폐화가 우리나라에 없던 작년까지는 지방에 있는 우리의 기관들이 좋은 것이었으며 혹은 심지어 이상적이었던 것이 풀라크층의 반항이 특히 날카로운 형태를 띠게 된 작년부터는 우리의 기관들이 감짜기 좋지 못하게 되고 또한 아무데도 쓸수 없는 것으로 된 셈이다.

아것은 설명인 것이 아니라 설명에 대한 조롱(嘲弄)인 것이다. 이것은 과학인 것이 아니라 요술(妖術)인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이 철폐화는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두가지 원인으로써 설명된다.

• 광경은 나의 것이 • 쓰담뎐.

첫째로는, 우리들의 전진, 우리들의 진격, 공업이나 농업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장성 즉 도시 및 농촌의 자본가들의 일부부대들을 상당하게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장성등으로써 설명된다. 사태(事態)는 이렇게 되어있다. 즉 우리는 「누가 누구를」하는 레닌의 공식에 의하여 생활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 즉 자본가들을 물러메치고 레닌이 말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 최후의 판가리 싸움을 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물러메치든가 할 것이다.

둘째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무대(舞臺)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 가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니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으며 또한 대항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 생존의 마지막 날이 닥쳐오는 것을 보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더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그들의 비중(比重)이 저락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절대적으로 장성하는 까닭이다——다시 말하면 도시 및 농촌의 소부르조아지는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자기들 중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자본가들과 소자본가들을 내놓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즉 그 자본주의적 분자들은 자체의 생존을 고수(固守)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까닭이다.

죽어가는 계급이 자발적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간 그러한 경우(境遇)는 아직도 력사에 있는 적이 없다. 죽어가는 부르조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체의 모든 남아지 힘을 다 써보지 않은 그러한 경우는 아직도 력사에 있는 적이 없다. 우리의 쏘베트하 급기관이 좋은지 나쁜지 시간에 우리의 전진과 우리의 진격은 자본주의적 분자들을 축소시킬 것이며 또한 그들을 몰아낼 것이요, 그들 즉 죽어가는 계급들은 어쨌든 시간에 반항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침예화의 토대가 곧 이에 있는 것이다.

부하틴과 그의 친구들의 오류는 그들이 자본가들의 반항이 장성하는 것을 자본가들의 비중이 장성하는 것과 동일시(同一視)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동일시는 자체에 아무런 근저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만일 그들 즉 자본가들이 대항한다면 이것은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힘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까닭에 아무 근저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사태(事態)는 바로 이와 정반대로 되어 있다. 죽어가는 계급들은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힘있게 되었음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그들보다 더 속하게 장성하며 그들이 우리보다 약하게 되는 까닭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설로 그들이 더 약하게 되어지는 까닭에 그들은 자기생존의 마지막 날을 감촉(感觸)하고 할 수 없이 모든 힘과 모든 수단을 다하여 반항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에 현력자적 모멘트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침예화와 자본가들의 대항의 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세에 있어서 당의 정책은 반드시 어떠한 야할 것인가?

그 정책은 반드시 로동계급과 농촌의 피착취대중을 각성(覺醒)시키며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또는 반항하는 계급적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동원준비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계급간의 투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이 훌륭한 것은 취중 그 리론이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의 적들에 대하여 로동계급을 동원하는 것을 쉽게 하여주는 데 있다.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에로 변생한다는 부하틴의 리론과 계급투쟁의 침예화에 대한 문제에서 있어서의 부하틴의 견해(見解)의 해독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해독은, 그 이론이 노동계급을 최면(催眠)시키며 우리나라의 혁명적力量的 동원 준비력을 파탄시키며 노동계급의 동원을 해체시키며 그리하여 쏘베트주권을 반대하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진격을 쉽게 하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2. 농민에 대하여

부하틴의 셋째 오류는 농민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민문제가 우리의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일반이 아는바이다. 농민은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 각종의 사회적 그루빠 즉 빈농, 중농, 골라크들로써 구성되어있다. 이 각 그루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동일한것이 될수없는것은 명요한일이다. 노동계급의 지주(支柱)로서의 빈농, 동맹자들로서의 중농, 계급적 적(敵)으로서의 골라크——이와같은것이 이 사회적 그루빠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이 모든것은 명요한것이며 또 일반이 다아는바이다. 그러나 부하틴은 이 문제를 다소간 다르게 보고있다. 농민을 특정지음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농민분화(分化)라는 사실이 루락(漏落)되고 사회적 그루빠들의 존재가 어디로인저 없어질 오직 소위 농촌이라고하는 한개의 회색(灰色)의 반점하나만이 남아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골라크도 골라크가 아니오 중농도 중농이 아니오 농촌에는 어떤 전반적 빈궁만이 있는것이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도 이처럼 말하였다. 즉 우리의 골라크를 골라크라고 할수있는가? 그들이야말로 가난뱅이가 아니냐——고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중농은 그가 중농에 비슷이나하냐?——고 부하틴은 이 자리에서 말하였다. 그들이야말로

절반 굶어사는 지지가 아니냐——고 하였다. 농민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이며 해년주의와 상충되지 못할 견해인 것은 명오하다.

해년은 개인농민을 최후 자본주의의 계급이라고 말하였다. 이 문단은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절대로 옳은 것이다. 어찌하여서 개인농민은 최후자본주의의 계급으로 규정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두 기본적 계급중에서 농민은 그의 경영이 사적소유(私的所有)와 소상품적 생산에 근거되어있는 그런 계급인가 때문이다. 그것은 농민이 아직도 소상품적 생산을 경영(經營)하는 개인농민으로 남아있을때까지는 그는 자기들중으로부터 항상 또한 무단적으로 자본가들을 산출할 것이며 또한 산출하지 않을수없는 때문이다. 이 사정은 로농동맹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맑스주의적 태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농민파의 온갖 동맹이 다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자본주의적 분자들과의 농민의 투쟁에 근거되어있는 그런 동맹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는바와같이 최후자본주의의 계급으로서의 농민에 대한 해년의 해제는 로농동맹의 사상에 모순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동맹에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반대하는 데로, 특수적으로는 농촌에 있는 농민이 자본주의적 요소에 반대하는 데로 향한다. 로동계급과 다수 농민파의 동맹으로서의 기초를 주는 것이다.

해년은, 로농동맹은 다만 농민이 자체중에서 산출하는 그 자본주의적 분자들과의 투쟁에 근거하는 그런 경우에야만 그가 튼튼한 것으로 될수있다는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해제를 내어놓았다.

부하틴의 오류는, 그가 이 단순한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 용인(容認)하지 않으며 그가 농촌에 있는 사회적 그루빠들을 망각(忘却)하며 그에게 있어서는 폴라크들과 빈농민이 안계(眼界)에서 사라지고 다만 한개의 전반적 중농대중만이 남아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사정은 의심할바없는 부하틴의 우경으로의 정향인 것이니, 그것은 농촌에 있어서 빈농과 폴라크들밖에는 다른 사회적 그루빠들을 보지 못하며 그리하여 중농이 안계에서 사라져버리는 트로츠키적 「좌경」과는 반대로 되는 것이다.

농민과의 동맹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트로츠키주의와 부하틴 그루빠의 사이에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트로츠키주의는 중농대중과의 튼튼한 동맹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여 말하며 부하틴 그루빠는 일반적으로 농민과의 온갖 동맹을 찬성하는 거기에 있다. 이 두 견해가 다 옳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것들이 다 매한가지인 것은 증명할 것도 없는 것이다.

레닌주의는 물론 농민의 기본대중과의 튼튼한 동맹, 중농과의 동맹을 찬성한다. 그러나 온갖 동맹을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튼튼하게 하며 계급의 절멸(絶滅)을 쉽게 하는 그와같은 중농과의 동맹을 찬성하는 것이다. 레닌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즉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사이의 협조라는 것은 제멋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협조가 오직 로동계급의 독재를 지지하며 또한 계급들을 없애는 데로 향한 대책중의 하나로 되는 그 때에 라야만 유효될 수 있는 것이며 온은 것이요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고려(考慮)하지 않는다면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협

조의 공식은 물론 소비트주권의 모든 적(敵)들과 독재의 모든 적들이 그들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그런 공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제二六권 三八七페이지)。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즉

「지금에 프로테타리아트는 자기의 수중에 잡고있으며 또 그것을 지도한다。 그는 농민을 지도한다。 농민을 지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소생산자를 목표로한 토선을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계급들을 없애는것을 목표로(目標)로한 토선을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근본적인 아르트의 가장 폭악한 적이되는 소부르조아들의 진영, 에세르와 멘셰비크들의 진영에 들어서게 될것이다」(제二六권 三九九—四〇〇페이지)。

이것이 농민의 기본적 대중과의 동맹, 중농과의 동맹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레닌의 전지이다。

중농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부하된 그루빠의 오류는 그 그루빠가 로동계급과 자본가들의 사이에있는 중농의 이중(二重)적 본성, 이중적 지위를 보지못하는데 있다。 「중농은 동요하는 계급」이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중농은 한편으로는 근로자이니 그것은 그를 로동계급과 가깝게하는것이오 다른편으로는 소유자(所有者)이니 그것은 그를 골라크와 가깝게하는 까닭이다。 이에서 중농의 동요가 생기는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리론적으로만 옳은것이 아니다。 이 동요는 역시 실천에 있어서도 날마다 시간마다 표명된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근로자로서의 농민은 부로코아지의 독재보다 노동자들의 독재가 낫다고 여기면서 사회주의에로 끌린다. 곡물을 파는 자로서의 농민은 부로코아지, 자유산업, 즉「습관된」, 옛, 「지나간」 시절의」 자본주의에로 끌림을 하여 끌린다」(제二四권 三一四페이지)。

그러므로 중농과의 동맹은, 그것이 자본주의 분자들에 반대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데로 향하며 그것이 이 동맹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그것이 계급을 없애는 사업을 쉽게 하여주는 오직 그런 경우에라야만 튼튼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부하턴 그루빠가 이 단순하고도 명백한것을 망각한다.

2. 신경제정책과 시장관계에 대하여

부하턴의 넷째 오류는 신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에 있어서의 부하턴의 오류는, 그가 신경제정책의 양면성(兩面性)을 보지 못하고 그는 다만 신경제정책의 일면만을 보는 거기에 있다. 一九二一年에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실시할 때에 우리는 전지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어떠한 개인 상업의 자유든지 제외(除外)하는 그러한 제도와 질서(秩序)에 반대하여, 그 신경제정책의 예봉(銳鋒)을 돌리었다. 우리는 신경제정책이 개인 상업에 관한 열마만 한 정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간주하고 있다. 문제의 이 방면은 부하턴이 기억하여 두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부하틸은 문제의 이 방면이 신경제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부하틸은 신경제정책이 또한 다른 방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 신경제정책은 개인사업의 완전한 자유와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유통(弄絡)을 의미하는 것은 위낙 아니다. 신경제정책은 시장에서의 국가의 조절적 역할의 보장하에 일정한 한계(限界)、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개인사업의 자유이다. 이에 곧 신경제정책의 둘째방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경제정책의 이 방면은 우리에게 있어 그의 첫방면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 나라들에 보통 있는 것과 같이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유통이 없다. 우리는 곡물에 대한 가격을 대체로 규정한다. 우리는 공업상품에 대한 가격을 규정한다. 우리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보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산품의 원가를 내리우며 공업상품가격을 내리우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도모한다. 자본주의 나라들에는 시장에 이러한 특별한고 또 특수한 질서가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로부터 아직 신경제정책이 있는 때까지는 그의 두방면 즉 전지공산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데로 향하였으며 또한 개인사업에 대한 열대만 한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한 첫째방면과 개인사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반대하는 데로 향하였으며 또한 시장에 있어서의 국가의 조절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한 둘째방면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두방면중에서 하나를 없애보라, 그렇다면 당신들 앞에는 신경제정책이 없어질 것이다.

부하틸은 상업에 대한 온갖 자유를 청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편으로부터의 위험성 즉 「좌편으로」부터의 위험성만이 신경제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극히 심한 오류이다. 더구나 이러한 위험성은 지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현

실과 먼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업에 대한 열.마.만.한. 한.도의. 자유를 보전할 모든 필요성과 적의성(適宜性)을 리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에 우리들의 지방기관 및 중앙기관에 없거나 혹은 거의 없는 까닭이다.

시장에서의 국가의 조절적 역할을 청산하려고 하며 시장을 「해방」하고 그리하여 상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 기원(紀元)을 열(開)어 놓으려는 사람들 편으로부터의 위험성 즉 우편으로부터의 위험성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다. 우편으로부터 신경제 정책을 파란지킬 그 위험성이 지금에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소부르조아적 분류는 실제로 이 방향으로——우편으로부터 신경제 정책을 파란시키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이 가끔 그 수단에 떨어지는 골라크들 및 부요한 분자들의 음소(誼訴)、투기업자들과 매점(買占)꾼들의 음소는 실제로 이전으로부터 신경제 정책을 포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역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부하련이 신경제 정책의 파란에 대한 사실상 현실적인 이 둘째 위험성을 보지 못하는 그 사실 즉 이 사실은 그가 소부르조아적 분류의 중앙에 저버렸다는 것을 의심없이 말하여 준다. 부하련은 시장의 「정상화(正常化)」와 구역에 따라 목물의 수매가격을 「조종(操縱)」할 것 즉 목물의 가격을 통일 것을 제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가 시장에 대한 쏘베트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시장에서의 국가의 조절적 역할을 제지(沮止)시키기를 원하며 우편으로부터 신경제 정책을 파란시키는 소부르조아적 분류에 양보할 것을 제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하린의 권고를 들었다고 잠시 가정(假定)하자. 이어서는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우리가 가령 가울에 즉 곡물수매의 초기에 곡물의 가격을 올린다 하자. 그러면 시장에는 곡물값을 세공이나 더 주고 살수 있는 온갖 투기업자들과 매점꾼들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오 또 그들은 전체로 수천만루드름 수매할 것이나 우리는 수억루드름 수매하여야 할 것임으로 투기업자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까닭에 곡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격의 앞으로 더 오를 것을 기다리면서 어쩔이나 곡물을 보유(保留)하여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즉 주로 곡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수요(需要)가 시작되는 때인 봄에 가서 우리는 또 다시 곡물의 가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봄에 곡물의 가격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가울에 일층 희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팔았던 그 곡물을 일부(一部)는 종자로, 일부는 양식을 위하여 봄에 가서 할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게 되는 농촌의 빈농층과 또한 농촌의 녀녀지 못한 농민층들을 죽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방책의 결과로 우리는 충분한 수량의 곡물을 얻는데 있어 진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동일한 곡물에 대하여 두배나 세배를 더 높이 줄수 있는 투기업자들과 매점꾼들이 언제나 든지 있는 까닭에 이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본즉 우리는 투기업자들과 되파리꾼들을 막아내려고 공연히 애쓰면서 곡물에 대한 새 가격인상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즉 이로부터 우리는 곡물의 가격(價格)을 올리기 시작하였으니 충분한 수량의 곡물을 얻을 보장도 가지 못하면서 비탈에서 굴러떨러지듯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것째로, 곡물의 수매(收買) 가격을 높이면서 우리는 농산물의 가격에 일정한 균형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에 반드시 농촌에서 생산하는 원료의 가격을 높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곡물의 수매가격을 높이면서 우리는 도시에서 빵의 낮은 값을 보전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에 우리는 빵의 판매가격도 높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응당 신속한 속도로 임금을 높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업상품까지도 가격을 높이는 데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화의 리익에 반하여 자금이 도시로 부터 농촌에로 이동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 결과에 우리는 반드시 나저지는 가격,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안정(安定)된 가격의 토대 위에서 아니라 곡물이나 공업상품의 높아지는 가격의 토대 위에서 공업상품 및 농산물의 가격을 균형케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업상품과 농산물의 물가등귀(物價騰貴)에로 방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가격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소비트정책을 완전히 청산하며 국가가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청산하며 소부르조아적 분류가 탐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과물 줄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되겠는가?

다만 도시 및 농촌의 부요한 층에만 유리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가(高價)의 공업상품과 농산물은 로동계급이나 농촌의 빈농층 및 녀녀지못한 농민층에게는 및

(及) 저 못할 물건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골라크들과 부요한 자들과 배뽀만들 및 다른 녀석히 사는 제급들이 리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도 역시 련휴이지만 그러나 그는 독특한 련휴, 주노시 및 농촌의 부요한 층과의 련휴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과 농촌의 녀석지 못한 농민층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주권은 누구의 주권인가? 노동자—농민의 주권인가? 그렇지 않으면 골라크—배뽀만의 주권인가? 고 당당히 절문할 것이다.

시장 「정상화(正常化)」와 각 구역별로 곡물 「가격조종」에 대한 부하틴의 론단은 노동계급과 농촌의 경제력이 약한 농민층과의 분렬을 이르기며 도시와 농촌의 부요한 층과의 련휴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당은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은 확연한 일이다.

부하틴에게 있어서 신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개념(概念)이 얼마나 혼잡되었으며 또한 그가 얼마나 소부르조아적 분류에 단단히 포로(捕虜)되었는가 함은——특히 그가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 국가와 및 농민과의 사이의 상품류통(商品流通)의 새 형태에 대한 문제 에 있어서 표현하는 그의 부정(否定) 이상의 반대태도에서 보여진다. 그는 국가가 농민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로 되었고 농민은 국가에 곡물을 공급하는 자로 되는 데 반대하여 격분하며 또한 합성(賊聲)을 친다. 그는 이것을 신경제정책의 모든 법칙의 위반으로, 신경제정책의 거의 파탄으로 간주한다. 물론, 무슨 까닭으로,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

국가와, 국영공업이 중개자가 없이 농민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로 되며 농민이 역시 중개자가 없이 공업에와 국가에 곡물을 공급하는 자로 되는 거기에 무엇이 좋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합스주의의 견지 및 합스주의적 정책의 견지로 보아서 농민은 벌써 국영공업의 주요를 위하여 면화, 사탕무, 아마(亞麻) 등의 공급자로 변환(變換) 되었으며 국영공업은 농업의 그 부분들을 위하여 도시상품, 종자, 생산기구 등의 공급자로 변환된 거기에 무엇이 좋지 못한 것이 있는가?

예약구입제(預約購入制)의 방법 이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사이의 상품류등의 그 형태를 확립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약구입제의 방법은 사실 신경제정책의 요구에 모순되는가?

농민이 역시 그 예약구입제의 방법에 의하여 면화, 사탕무, 아마뿐만 아니라 곡물의 방면에서까지도 국가의 공급자로 되어가는 거기에 무엇이 좋지 못한 것이 있는가?

어찌하여 적은 거래를하는 상업, 소상공업은 상품류통이라고 할 수 있고 상품의 가격과 품질(品質)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는 계약(예약구입제)에 의하여 큰 거래를하는 상업은 상품류통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가?

도시와 농촌사이에 예약구입제방법에 의한 대량적 상품류등의 새 형태는 실로 신경제정책의 토대우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형태들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힘있게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기관들의 대활보(大濶歩)의 전진인것임을 그렇게 리해하기 어려운것인가?

부하된은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것을 리해하지 못한다.

Ⅱ. 소위「공물(貢物)」에 대하여

부하된의 다섯째 오유(나는 그의 주요한 오유에 대하여서만 말함)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협상가격차(缺狀價格差)」에 대한 문제와 소위 「공물(貢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당의 로선을 기회주의적으로 의곡함에 있다.

정치국 및 중앙통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편석회의(一九二九년 二월)의 「협상가격차」문제에 관한 주지하는 결정서에는 무엇보다에 대하여 언급하였는가? 거기에는, 농민은 국가에 납부하는 직접 및 간접의 보통세 랍이외에 그가 공업상품을 살때에 좀 더 지불하며 농산물 팔때에는 좀 적게 받으므로써 일종의 초과세 랍을 납부한다는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농민이 지불하게되는 이 초과세 랍이 실제로 있다는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사실이 다. 우리가 그것을 달리는 어떻게 칭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달리는 「협상가격차」라 칭하며 우리의 대공업을 신속히 발전시키려는 목적하에서의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의 물자의 「이입(移入)」이라 칭한다.

이것이, 이 「이입」이 필요한가? 만일 우리가 사실로 공업의 높은 발전속도를 유지하려고 원한다면 립시적 방책으로의 이 「이입」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서는 우리들 사이에 의결상위가 있을수없다. 그런데 대공업의 급속발전은 공업자체에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트랙트르, 농업기계, 비료를 요구하고있는 우선 농업에, 농민에게 필요한것이므로 우리는 대공업의 급속발전을 기어히 지속하여야할것이다.

우리가 지금 꿈 이 초과세 랍을 폐지할수있는가? 유감이지만 폐지할수없다. 우리는

가까운 수년간에 가급적으로 그것을 받드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곧 폐지할 수는 없다.

즉 「협상가격차」의 결과에 생기게 된 이 초과세율은 「공물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물은 아니오 「공물 비슷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라후로 인하여 있게 된 「공물 비슷한 것」이다. 이 초과세율은 대공업발전을 추진시키며 우리의 라후성을 창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부가세(附加稅)를 받으므로써 농민을 착취한다는 것을 의미함이 아닌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함이 아니다. 소비트주권 본질이 벌써 국가측으로부터의 농민에 대한 어떠한 착취든지 용허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七월전원회의에서 우리 동지들의 연설에는 근로농민의 복리의 부단적 증진은 소비트사회의 발전법칙인바 이것은 농민에 대한 착취의 일체 가능성이 배제하는 것이므로 소비트제도의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측으로부터의 농민에 대한 착취는 이미 배제된 것이라고 직접 논술되어 있다.

이 부가세를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가? 물론 감당할 수 있다. 왜?

첫째로, 이 부가세의 정수는 농민의 물질적 형편이 부단적으로 개선되는 조건하에서 있게 되는 까닭이다.

둘째로, 농민에게는 자기의 개인경영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그로하여금 부가세를 지불할 수 있게 하여주는 까닭인데 로동자에게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그에게는 개인경영이 없는 것이오 그는 그러한에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전부 공업화사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로, 부가세액이 매년히 감소되는 까닭이다.

우리가 이 부가세를 「공물 비속한것」이라는 말로써 명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절대로 옳은 것이다. 이 말이 우리 동지들로 하여금 부가세를 꺼리고 원치 않으며 또는 그것을 오랫동안 설치함을 용허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가지게 한다. 농민에게 부과하는 부가세를 이렇게 명명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징수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징수한다는 것과 또 우리 불세비크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 신속히 이 부가세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방침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 한다.

「협상가격차」에 대한, 「이입」에 대한, 「초파세람」에 대한, 이상에 지적한 세 문건에 「공물 비속한것」이라고 규정되었음에 대한 문제의 요점은 이러하다.

부하된, 외이표브 및 뚝쓰끼는 「공물」이라는 말에 대하여 말성을 이르기려고 시도하면서 농민에 대한 군사봉진적 착취의 정책이라 하여 당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부하된과가 우리당을 가장 험악하게 비난하며던 배진적 시도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소경들까지도 보고있는 것이다. 지금에는 그들 자신까지도 자기들의 군사봉진적 착취라고 운운하던 공당이 전혀 실패되었음을 묵묵히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즉

혹은 부하된과가 「협상가격차」 또는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의 물자의 「이입」이 현보멘트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니——그리하는 때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비난이 비방적 성질을 가졌음과 당이 원만히 정당함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오, 혹은 그들이 「협상가격차」와 「이입」이 현보멘트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수있는것이니, 그러하는때에는 그들은 그렇다는것을 로물적으로 말하여 당으로하여금 그들을 우리나라의 대공업화의 반대자의 류에 편입할수 있게하여야할것이다.

하여튼 나는 부하틴, 피이코프 및 톱쓰끼의 수차의 연설을 의빙할수있는것인데 그연설에 그들은 현모멘트에 있어서는 「협상가격차」가 불가피라는것과 농업으로부터 공업에의 물자의 「이입」이 불가피라는것을 무조건적으로 시인하였던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물비슷한것」이라는 표식(表式)의 시인인것이다.

그때, 그들은 「이입」이라는 립장, 현모멘트에 있어서의 「협상가격차」의 유지라는 립장에 그대로 서있을터인가, 서있지않을터인가? 그들은 이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여야할것이다.

부하틴이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물」이란것은 상당치못한 말이다. (만장대소). 쓰팔틴이그런즉 문제의 요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의견상위가 없는것이며, 그런즉 농업으로부터 공업에의 물자의 「이입」, 소위 「협상가격차」, 부가세, 「공물 비슷한것」등은 현모멘트에 있어서 국내 공업화에 필요한, 그러나 립시적인 수단인것이다.

매우 좋다. 그렇다면 어쩐 까닭이며 무엇때문에 떠드는가? 그들은 「공물」이나 「공물 비슷한것」이란 말이 맑스주의서적에 쓰이지않는다고 인정하므로 이런 말이 맘에 들지않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공물」이라는 말에 대하여 말하여보자.

동지들! 나는 이 말이 예전부터 벌써 우리의 맑스주의서적, 레하면 레닌동지의 여러 문헌에 통용되었던것이라고 단언한다. 동지들! 이것이 혹시 레닌의 작품들을 읽지않는 몇몇 사람을 놀라게할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런 말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부하틴

은 마치 맑스주의서적에서는 마치 「공물」이란 말을 용인할수없다는듯이 말하면서 「성」을 내었다. 그는 당중앙위원회 또는 일반적으로 맑스주의자들이 기탄없이 「공물」이란 말을 사용하였다하여 분개하였고 경악하였다. 그러나 이 말이 벌써 오래전부터 테닌동지와 같은 맑스주의자의 제론문에서 통용된것이 증명된 이상 거기에 대하여 놀랄것이 무엇인가? 그렇지않다면 부하틴의 전지에는 레닌이 맑스주의자의 자격에 적합하지못하다는듯하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경애하는 동지들! 바로 말하여야 할것이다.

실례로 레닌과 같은 맑스주의자의 논문 즉 「『작의적』」 소아행동과 소부르조아성(性)에 대하여」를 취하여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어보라.

「수천원을 저축한 소부르조아는 국가자본주의의 적이요 그는 빈천자에 반하여, 진국가적 각종 통제에 반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 수천원을 활용하기를 지망하는것이요 수천원의 금액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파탄시키는 수십억의 투기업의 지반을 조성하여주는것이다. 가령 로동자 약간명이 수개일간에 총액의 숫자 一〇〇〇으로 표시되는 유가물을 생산하였다 가정하고 답에 이 총액내에서 二〇〇은 우리나타에서 소규모적 투기업, 각종의 락탈 또는 소사유적(小私有的)으로 쓰베트법망(法망) 및 쓰베트질서망을 「회피하는것」때문에 손실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의식있는 로동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말할것이다. 즉 만일 내가 一〇〇〇원중에서 더 좋은 질서와 조직체의 창설비로 三〇〇원을 제공할수만있다면 나는 二백원대신에 꽤히 三百원을 제공하겠다. 그는 쓰베트주권하에서는 질서와 조직이 정돈될것이요 국가의 각종 투점의 소사유적인 과한이 영영 근원될것이므로 이 「공물」이 답에는 말하자면 百원이나 五十원에까지 감소될것이요 과제가 전혀 경이하게될 까닭이다」라고(제二十二권 五一五페이지)。

아마 명백한듯하다. 이것을 리유로하여 레닌동지를 로동계급에 대한 군사봉건적 착취정책의 완성자라고 성토할수있을까? 경애하는 동지들은 어더 시험해보라!

청중에서 ॥ 그렇지만 중농민에 대하여서는 「공물」이란 개념이 언제든지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쫄쫄린 ॥ 그대는 로동계급보다 중농민이 당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갖자 말스주의자일 것이다. (만장대소)。 만일 로동계급에 대하여 「공물」이란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로동계급의 당인 우리가 로동계급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의 동맹자인 중농민에게 대하여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할가?

말성꾼들중에서 어떤자들은 「「좌익적」 소아행동에 대하여」란 문문중에 있는 「공물」이란 말은 레닌동지의 실언(失言)、우연한 실언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열의 결과는 말성꾼들의 의혹이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여 준다. 레닌동지의 다른 문,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소책자 「현물제에 대하여」(一九二一年 四月)를 취하여 거기에서 제三二四페이지(제二六三 三二四페이지)를 읽어보라. 당신들은 방금 인용한 「공물」에 관한 문구를 레닌동지가 거기에 그대로 반복하였음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닌동지의 「쑤베트주권의 당면임무」라는 논문(제二二권 四四八페이지, 一九一八년 三月—四月)을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레닌이 여기에 있어서도 「전인민적 통계와 하층으로부터의 검열을 조직하는 사업에 우리가 우리의 라후로 말미암아 지출하게 되는 공물(벌써 인용호가 없이 쓰이었음)」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볼 것이다.

그런즉 레닌의 여러 논문에서 「공물」이란 말은 결코 우연한 어구(語句)가 아니었던 것이다. 레닌동지는 「공물」의 필시적인 성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또는 볼셰비크들 사이에서 정열을 환기하여 로동계급이 우리의 라후와 우리의 「결합」으로 인하여 지불하

게 되는 바로 이 「공물」을 가급적 신속히 청산하는 데로 이 정열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런즉 나는 「공물 비슷한 것」이란 문구를 사용하므로써 자못 훌륭한 맑스주의 자측에, 레닌동지의 동료들편에 서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부하틴은 말하되 맑스주의자들은 자기의 서적에서 「공물」이란 말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이것을 어떠한 맑스주의자에 대하여 말한 것인가? 만일 그가, 맑스주의자라 하기보다 차라리 자유주의자에 더 가까운 쉴레쾰프, 마레치끼, 페드롭스끼, 로지트 등등과 같은 맑스주의자들을 가지고 말한 것이었다면 부하틴의 분로는 심분 리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가 실례를 들어 레닌동지와 같은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을 두고 말한 것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공물」이란 말이 벌써 오래전부터 통용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니 레닌의 작품을 적게 읽어본 부하틴은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공물」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부하틴과 그의 동료들이 「공물」이란 말을 가지고 집탈하고 농민에 대한 군사봉건적 착취의 정책이라 하여 말성을 이르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군사봉건적 착취라는 현화를 이르게 하고 우리의 조직들이 실현하고 있는 정책, 즉 골라크츄에 대한 우리당의 정책에 대한 자기들의 극도의 불만을 표현하려고 지망하였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농민을 지도함에 있어서의 레닌적 당정책에 대한 불만, 우리의 목물수매정책에 대한 불만, 패방으로 골호츠와 쾰호츠들을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정책에 대한 불만, 마치

막으로는 시장을 「해방」하고 개인상업에 원만한 자유를 주려는 지방——이러한 것이 농민에 대한 군사봉전적 착취의 정책을 운운하는 부하틴의 호읍(號泣)속에 표현되어있다.

나는 군사봉전적 착취정책을 실시한다는 말로 당을 비난한 그러한 다룬 실례가 우리당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일이 없다. 이 반당적 무기는 맑스주의자들의 무기고에서 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가? 립현민주당 주령 밀류표브의 무기고에서 가져온 것이다. 립현민주당원들이 노동계급과 농민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려하는때면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였다. 즉 불웨이크 각하들! 그대들은 농민들의 뼈무더기위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라고. 부하틴은 「공물」에 대한 말성을 이르게 가지고 밀류표브류의 각하들의 노래의 후념을 부르면서 인민의 적의 공문이를 따라가는 것이다.

Б. 공업발전의 속도와 련휴의 새 형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는, 공업발전의 속도에 대한 또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련휴의 새 형태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의전상위의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실천적 의전상위의 모든 실마리(緒)가 이 문제에 집중된 거기에 있는것이다.

련휴의 새 형태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경제정책의 결지로보아서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이 주로 농민의 개인적 주요(主要)·포복, 신, 일반적조물 및 기타)를 만족시키는때에 있던 도시와 농촌사이의 련휴의 옛 형태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또한 공업이 농민경제의 생산적 수요(농업기계, 트랙토르, 개량종자, 비료 및 기타)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있을 현후의 새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이전에는 우리가 농업의 생산적 수요에 대하여 적게 적정하면서 주로 농민의 개인적 수요를 만족시켰다면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농민의 개인적 수요를 만족시키기를 계속하면서 새 기술적 토대 위에서 농업생산을 재건설하는데 직접관계를 가진 농업기계, 트랙토르, 비료 및 기타의 공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농업을 회복하며 농민들이 이전의 지주 및 골라크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문제이던 때에는 우리가 현후의 옛형태로써 만족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을 재건하는 것이 문제인 지금에는 그것으로는 벌써 만족하지 못하다. 지금에는 새 기술과 단합적 노동의 토대 위에서 농업생산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농민을 도와주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 공업을 재장비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농업도 신중(慎重)하게 재장비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업을 새 기술적 토대 위에 세우면서, 그에게 개량된 새 기계와 잘 훈련된 새 인재들을 공급하면서 그것을 재장비하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벌써 재장비하여 놓았다. 우리는 새 제조소들과 공장들을 건축하며 우리는 낡은 제조소들과 공장들을 개조하며 또 확장하며 우리는 야금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조업을 발전시킨다. 이 기초위에서 도시들이 장성하며 새공업지점들이 증가하며 새공업지점들이 확장된다. 이 토대위에서 식료품에 대한 수요와 공업의 원료에 대한 수요가 자라난다. 그런데 농업은 구식기구를 가진대로, 옛적에 선조들이 땅을 경작(耕作)

하던 방법대로, 지금에는 벌써 쓸수 없든가 혹은 거의 쓸수 없게된 옛적 원시적 기술을 가진대로, 소규모적 농민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며 로동하던 그 옛 형태로 그냥 남아있다.

데하면 우리나라에 혁명전에는 근 一千六百萬 농가호수가 있던것이 지금에와서는 二千五百萬 이상의 농가호수가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이랄까? 이것은 농업이 더욱 더 분산적 및 영세적(零細的) 성격을 띠게된데 대하여 말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것인가? 그런데 분산된 소규모적 경영의 특징은 그 경영이 기술, 기계, 트랙토르, 농학법칙들을 상당한 한도로 리용하여낼수 없으며 그 경영은 상품을 적게주는 경영인 거기에 있다.

이로 말미아마 상품으로 나오는 농산물이 부족하게 되는것이다.

이로 말미아마 도시와 농촌사이, 공업과 농업사이에 단절의 위험성이 생기는것이다.

이로부터 농업을 우리공업발전의 속도로 끌어들여 그에 따라서 계획할 필요가 생기는것이다.

이 단절의 위험성이 없게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을 새 기술의 토대위에서 신중하게 재장비하기를 시작하여야한다. 그런데 농업을 재장비하기 위하여서는 세분된 개인농민경영들을 점차로 대규모적 경영, 플호즈에로 결합시켜야하며 농업을 단합적 로동의 토대위에 건설하여야하며 단합체들을 더 크게하여야하며 이전 플호즈와 새 플호즈들을 발전시켜야하며 농업의 모든 기본적 부문에 대하여 대법위로 예약구입의 형태를 계통적으로 적용하여야하며 농민의 새 기술을 습득하며 또 로동을 집단화하는데 도와주는 농기—트랙토르정류소 제도를 발전시켜야할것이다 —한마디로하면 소규모적 농민경영들을 점차로 대규모의 집단적 생산의 토대위에 옮겨세워야 할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다만 공동형태의 대규모적 생산만이 과학(科學)과 새 기술의 성과를 완전히 리용하며 그리하여 우리농업의 발전을 급속도로 전진시킬 능력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빈농—중농의 개인적 경영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빈농—중농의 개인적 경영은 식료품과 원료를 공업에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유력한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도 유력한 역할을 더 행하게 될 것이다. 실로 그러므로 반드시 아적 물호즈에 단합되지 않은 빈농—중농의 개인적 경영을 지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개인적 농민경영 하나만으로는 벌써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의 목물수매상 곤난이 말하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농—중농의 개인적 경영의 발전을 집단적 형태의 경영과 물호즈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으로 하여금 자작의 소규모적 개인경영을 집단적 노동의 계도에 쉽게 넘겨주게 하기 위하여서는 대범회社의 약구입형식, 농기—트랙토르정류소의 형식, 협동조합의 계통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으로 빈농—중농의 개인적 경영과 집단적 공동형태의 경영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농업의 진정한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목물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녀녀지못한 농민층들과 산과 궁핍에서 구원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농업생산을 제전하는 토지에 있어서 그 농업생산에 영양을 공급 (營養供給)하는 기본적 원천이 되는 우리의 공업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요 야금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조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트랙토르공장, 농업기계공장 및 기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본적 농민대중을 대범위적 제약구입제를 거쳐서 집단적 형태의 경영에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많은 수량의 트랙토르와 농업기계 및 기타를 농업에 공급하지 않고서는 팔호즈들을 발전시키기 불가능하며 농기—트랙토르정류소들을 발전시키기 불가능한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의 공업을 급속한 속도로써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기계와 트랙토르를 농촌에 공급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이로부터 농업을 집단화의 토대우에서 재건하는데 열쇠가 되는 우리공업 발전의 급속한 속도가 필요한 것이다.

련휴의 새 형태의 의미와 의의는 곧 이러하다.

부하련 그루빠는 련휴의 새 형태의 필요를 말로써는 지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련휴의 새 형태를 말로써만 지인하는 채하면서 정반대되는 어떤 무엇을 고집하여 내리는 것을 타산한 말로써만 하는 지인인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부하련은 련휴의 새 형태에 반대한다. 부하련에게 있어서는 농업생산을 재건하는 데 공간(槓杆)이 되는 공업발전의 급속한 속도가 아니라 개인적 농민경영의 발전이 그의 출발점으로 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시장의 「정상화(正常化)」와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의 자유 통락을 용허하는 것, 즉 개인사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용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부터, 중앙위원회의 七월전원회의에서 한 그의 연설에서와 중앙위원회의 七월전원회의 직전에 내어놓은 그의 해제에서 나란바의 팔호즈에 대한 그의 불신임적 태도가 생긴 것이다. 이로부터, 목물을 수매하는데 있어서의 골라크에 반대하는 온갖 형태의 비상대책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가 생긴 것이다.

부하된은 마치 도깨비 향(香) 내를 싫어하듯 비상대책을 회피하는 것은 일반이 아니다.

현재 조건하에서 골라크가 충분한 수량의 물물을 자원적으로 제정으로 내어놓지않을것을 부하된이 아직까지도 이해하지못하는것은 일반이 아는바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곡물수매사업의 二년동안의 경험으로 증명되었다.

그런데 만일 그래도 상품곡물이 부족하게된다면 어찌할터인가? 부하된은 이에 대답하기를, 비상대책으로써 골라크를 놀래우지말고 외국으로부터 물물을 수입하라고 한다. 그는 이미 얼마전에 외국으로부터 五千萬圓의 곡물 즉 正貨(正貨)로 一억루블어치의 물물을 수입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만일 농업용 설비품을 수입하기에 정화가 필요하다면 어찌할터인가? 부하된은 이에 대답하기를, 농업용 설비품을 수입하는것을 필연코 뒤로 밀어놓고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것을 차라리 나은것으로 알아야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되여, 곡물문제를 해결하며 농업의 전개문제를 해결하는때 기초가 되는것은 농업발전의 급속한 촉진인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또는 시장에서 가격을 자유로 통락하는 토대위에서 골라크경영까지 포함한 개인적 농민경영을 발전시키는것이라고 하는것으로 된다.

이와같이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두개의 상이(相異)한 계획을 보게된다.
당의 계획은 아래와 같다.

- (一)、우리는 농업을 재장비(재건)한다.
- (二)、우리는 농업을 신중하게 재장비(재건)하기를 시작한다.

(三)、이것을 위하여서는 플호즈 및 싹호즈의 전설을 확장하여야 하며 공업과 농업 사이에 생산적·련·휴를 맺는 수단으로서 예약구입제 및 농기—트락포르점류소들의 대법위적적 용을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四)、현모멘트에 있어서의 곡물수매상 곤난에 관하여 말한다면 골라크층의 대항을 격파 하며 또는 곡물을 수입하지 않고 견디며 또 공업발전을 위하여 정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골라크에게서 곡물의 여유(餘裕)를 최고한도로 거두는 한수단으로서 중농 및 빈농대중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임시비상대책을 용허할 수 있음을 반드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五)、빈농 및 중농의 개인적 경영은 나라에 식료와 원료를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유려한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 더 행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는 벌써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업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몰아내는 것을 쉽게 하여 주며 개인적 농민경영들을 대규모의 집단적 경영의 궤도로, 집단적 노동의 궤도로 점차 넘기는 것을 쉽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는 빈농 및 중농의 개인적 경영의 발전을 플호즈 및 싹호즈의 발전, 대법위적 예약구입제, 농기—트락포르점류소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써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六)、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 즉 야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조업, 트락포르공장, 농업기계공장 및 기타를 반드시 급속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곡물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한 것이요 농업의 재전도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결론——우리의 공업발전의 급속한 속도는 농업을 재건하는 열쇠가 된다.
 부하턴의 계획은 아래와 같다.

(一)、시장의 「정상화(正常化)」, 시장에서 가격을 자유로 통락하는것을 용허할것,
 곡물의 가격을 높이는것이 공업상품, 원료, 곡물의 값을 등귀시킬수 있는것도 해아리지않
 고 그 가격을 높이자는것.

(二)、플호즈 및 쏘호즈의 발전속도를 얼마만큼 저하하면서 개인적 농민경영을 백
 방으로 발전시키자는것(七월에 쓴 부하턴의 테제, 七월전원회의에서 한 부하턴의 연설)。

(三)、콜라크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은 가령 중농 및 빈농대중이 심지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대책을 얻지못한지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든지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하지말고 제
 절로 되어가는대로 곡물을 구매하자는것.

(四)、곡물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억루불어치즘」 곡물을 수입하자는것.

(五)、그리고 만일 곡물을 수입하며 공업용 설비품을 수입하는때 지출할 정화가 부
 족하게 된다면 설비품수입을 축소할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공업발전의 속도를 축소할것
 이다——그렇지않을것일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한자리에 서서」 답보하게」되든지 그
 지않으면 「급전직하(急轉直下)」로 떨어질것」이라는것이다.

결론——개인적 농민경영의 발전이 농업을 재건하는 열쇠가 된다.

동지들, 문제는 이처럼 되어지는것이다.

부하턴의 계획은, 공업발전의 속도를 낮추며, 연휴의 새 형태를 파괴하는 계획이다.
 이러한것이 곧 우리의 의견상위이다.

우리는 현후의 새 형태를 발전시키며 팔호즈 및 쏘호즈를 발전시키는 등등에 있어 늦지(遲晩) 않았는가? 고 간혹 질문하였다.

어떤자들은 당이 이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두해나 늦었다고 주장한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소련의 경제에 대하여 아무 개념도 가지지 못한 「좌경적」 떠버리들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에 있어서 늦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일 팔호즈 및 쏘호즈의 필요성을 미리 내다본다는데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벌써 十月 변혁(變革) 당시에 일을 시작하였다. 당이 팔호즈 및 쏘호즈의 필요성을 벌써 그 당시 즉 十月 변혁기에 있어서 미리 내다보았다는데 대하여서는 아무 의심할 것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제8차 당대회에서 (一九一九년 三月) 채택된 우리의 강령을 예로 참고할수 있다. 팔호즈 및 쏘호즈의 필요성은 그 강령에 극히 명료하게 고려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당의 지도적 상부가 팔호즈 및 쏘호즈의 필요성을 미리 내다보는 그 하나만으로는 팔호즈 및 쏘호즈를 위한 대중운동을 조직하며 또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본즉 문제는 예견하는 데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호즈—쏘호즈 건설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바 그 조건들은 최근에까지 우리나라에 없었고 다만 지금에 와서야 그 조건들이 생겼다. 동지들, 문제는 이에 있는 것이다.

팔호즈 및 쏘호즈를 위한 대중운동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 자체의 대중이 이 일에 있어서 당의 상부를 반드시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는바와

같이 우리당은 수백만명의 당원을 가지고있는 당이다. 그러즉 당의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지도적 상부의 정책이 옳은것을 확신하게할 필요가 있었던것이다. 이것이 곧 첫째이다. 다음으로, 이것을 위하여서는 농민속에서 팔호즈를 위한 대중적 운동이 반드시 생기어야 하며 농민은 팔호즈를 두려워하지말고 개인적 경영에 비하여 팔호즈가 우월하다는것을 경험에 의하여 확신하면서 스스로 팔호즈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것이다. 그런때 이것은 일정한 사실을 요구하는 신중한 사업이다. 이것이 곧 둘째이다.

다음으로, 이것을 위하여서는 팔호즈건설에 자금을 지불하며 팔호즈와 쏘호즈에 또한 자금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료가 반드시 국가에 있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친애하는 동지들, 이일에 있어서는 수억만루블의 재정이 요구된다. 이것이 곧 셋째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하여서는 농업에 기계, 트랙토르, 비료 및 기타를 공급하기에 필요한 다소간 충분한 한도로 공업이 반드시 발달되어서야 할것이다. 이것이 곧 넷째이다. 이 모든 조건들이 二—三년전에 벌써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단언할수있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단언할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지배하는 당이오, 재야당(在野黨)이 아니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야당은 그당이 정권을 장악한뒤에 실현하려는 목적으로써 포어들들——나는 운동의 근본적, 실천적 포어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내어놓을수있다. 누구든지 재야당이 자체의 근본적 포어들들, 박금 실현하지 않는다고 그 당을 비난할수는 없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가 즉 재야당이 키(舵)를 잡은것이 아니라 다른 당들이 키를 잡고 있는것을 일방이 이해하는까닭이다.

우리의 볼셰비크당과같은 지배하는 당에 있어서는 사태가 전혀 달라되어있다. 이러한

당의 포어들은 단순한 선동적 포어들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필책도 큰 것인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포어들은 지금 당장에 실시하여야 할 실천적 결정의 효력,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당은 실천적 포어를 내어 놓고 다음에 그의 실시를 연기할 수는 없다. 이것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수백만 농민대중으로 하여금 집단제의 궤도에로 넘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 특히 그와 같은 실천적 신중한 포어를 내어 놓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직접 실천할 조건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결국에는 이 조건들을 조성 및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의 상부가 팔호즈 및 썬호즈에 대한 필요성을 미리 내다보는 그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포어들 즉 사실·현하기·위하여·실생활에·실시하기·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이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당은 그 다·부분이 말하자면 약二년전이나 혹은 三년전에 팔호즈 및 썬호즈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는데 준비되었던가? 아니다, 그는 아직 이에 준비되지 못하였었다. 당대중이련후의 새 형태의 편으로 신중하게 전환되기는, 다만 처음으로 목물수매상 난판이 심하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난판들은 당원 대중으로 하여금 련후의 새 형태를 무엇보다도 먼저 팔호즈 및 썬호즈를 적극적(積極的)으로 발전시킬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업에서 자기들의 중앙위원회를 결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었지만 지금은 현존하여 있는 한가지의 조건이다.

약 二년전이나 혹은 三년전에 팔호즈나 혹은 썬호즈를 위한 수백만 농민대중의 신중한 운동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아니다, 없었던 것이다. 二년전이나 三년전의 농민들은 썬호즈에 대하여서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고, 팔호즈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아무태도 필요치 않은

「공산(共産)」이라고 행대(冷待)하였던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바이다. 그런데 지금에는 어찌되었는가? 지금에는 사태가 달라져버렸다. 지금에는 벌써 쏘호즈와 팔호즈를 볼때에 종자, 개량가축(家畜), 기계, 트랙토르 등으로써 농민경영을 보조하여주는 원천으로 보는 광범한 농민층이 우리나라에 있는것이다. 지금에는 오직 기계와 트랙토르만을 주게 되면 팔호즈사업은 급격한 속도로써 앞으로 나아가게 될것이다.

상당히 많은 일정한 농민층 가운데서의 이와같은 전환은 어디에서 생기었는가? 무엇이 이 전환에 좋은 기회를 지어주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적 운동의 발전이 그렇게하여주었다. 협동조합, 특히 농민가운데서 팔호즈에 유리한 심리적(心理的) 토대를 조성한 농업협동조합의 유력한 발전이 없었다면, 팔호즈에 대하여 지금 많은 농민층이 발휘하고있는 그러한 팔호즈에 대한 열망이 없었을것은 의심할것도 없는일이다.

여기에서는 또한 소규모적 농민경영을 대규모적 집단적 경영으로 연합시킴으로써 농업을 어떻게 개선할수있다는데 대하여 좋은 모범을 농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잘 조직된 팔호즈들의 존재가 역시 큰 역할을 놀았다. 여기에서는 또한 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을 도와준, 훌륭하게 조직된 쏘호즈들의 존재도 역시 자체의 역할을 행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다 잘알고있는 다른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곧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었고 지금에야 우리에게 있는 또 한가지 조건이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약 二년 혹은 三년전에 팔호즈 및 쏘호즈에 수억 만루블을 지출하면서 이 사업에 건설하게 자금을 대어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아니다,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바와같이 최소한도의 산업발전에 즉 그것이 없이는, 농업개조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 않고라도, 대체로 아무 공업화도 불가능한 그와같은 최소한도의 산업발전에 도 자금이 우리에게 부족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국내공업화의 토대가 되는 그 산업에서 자금을 떼어내어 그를 팔호즈 및 싹호즈에 넘겨줄수 있었는가? 그리할 수 없었던것은 확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에는 우리에게 팔호즈 및 싹호즈의 발전에 쓸만한 자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 二년전이나 혹은 三년전에 벌써 기계, 트랙토르 및 기타를 농업에 일층 더 공급할 원만한 토대가 공업에 있었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아니다, 이것을 단언치 못할 것이다. 그때에 임무는 장래에 있어서 기계, 트랙토르등을 농업에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공업적 토대를 조성하려는 거기에 있었었던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의 근소(僅少)한 자금이 이 토대를 조성하는데 지출되었다. 그런데 지금에는 어찌되어있는가? 지금에는 농업을 위한 그 공업적 토대가 우리에게 있다. 하여튼 그 토대는 우리나라에 서 급격한 속도로 조성되어간다.

그런즉 팔호즈 및 싹호즈의 대범위적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은 우리에게 다만 최근에 와서야 조성된 것이다.

동지들, 사태는 곧 이와같이 되어있다.

그러므로 권후의 새 형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늦었다고 말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 리론가로서의 부하턴

이러한 것이 대체로 우리정책의 기본적 문제들에 있어서 우경적 반대파의 리론가인 부하턴이 범한 주되는 오류들이다.

부하턴은 우리당의 리론가중의 한사람이라고 말들한다. 이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리론이 모두다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당의 리론과 정책문제에 있어서 내가 방금 설명한 여러가지 덧쌓인 오류를 범하였던 그것을 보아도 알수있는 것이다. 이 오류를 즉 국제공산당의 로선에 있어서의 오류들과 제 급투쟁, 제급투쟁의 첨예화, 농민, 신경제정책,련휴의 새형태 등 문제들에 대한 오류들——이 모든 오류들은 그에게 있어서 우연히 나타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아니다. 이 오류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부하턴의 이 오류들은 그의 옳지 못한 리론적 견해와 그의 리론적 결합에서 생긴 것이다. 그렇다, 부하턴은 리론가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맑스주의적 리론가가 못되며 맑스주의적 리론가가 되려면 그는 아직 더 배워야 할 리론가이다.

리론가로서의 부하턴에 대한 일반이 아는 케닌동지의 서한을 인용들한다. 그러면 그 서한을 읽어보자.

「중앙위원회, 젊은 위원들중에서——하고 케닌은 말하였다——부하턴과 바바코브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고자한다. 나의 생각에는 그들은 가장 탁월(卓越)한 인물들이다(가장 젊은 인물들중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관하여서는 다음 의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부하턴은 당의 매우 귀중하고도 큰 리론가일뿐만 아니라 그는 역시 전(全)당의 당연한 용애자(寵愛者)로 인정되는 자이다. 그러나 그의 리론적 견해들은 매우 큰 의아(疑訝)를 가지고서야만이 완전

한. 삼스주의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그에게는 어떤 반대학(檀檀學)적 무익이 있는가. 타이
다(생각하면). 그는 언제든지 변증법(辯證法)을 배우지 않았으며. 또는 언제든지 그것을 완전히 리해하지 못하였
다). (一九二六년 七月 全월 회의 속기록, 제 四卷 六六 페이지).

이처럼 그는 변증법이 없는 리론가이다. 반대철학자적 리론가이다. 그의 「리론적 견해들은 매우 큰 의아를 가지고서야만이 완전한 삼스주의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리론가이다. 이러한 것이 레닌이 부하린의 리론적 면모에 대하여 준 평가이다.

동지들, 이와 같은 리론가는 아직 데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리해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부하린이 자기가 아직 완성된 리론가가 못되며 데배울 필요가 있으며 변증법은 삼스주의의 정수(精髓)인데 그는 변증법을 아직도 습득하지 못한 리론가인 것을 리해하였을 것 같으면 — 만일 그가 이것을 리해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좀 더 겸손하였을 것이니, 이로 말미아마 당도하지 다만 리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은 부하린이 겸손치 못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불행은 그가 겸손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선생인 레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부하린의 불행은 곧 이에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一九一六년에 레닌과 부하린의 사이에 일어났던 국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일반이 다 아는 리론적 논쟁을 인증하고자 한다. 이것은 레닌을 가르치려는 부하린의 과도한 참박을 폭로시키는 동시에 프로레타리아 독재, 계급투쟁 및 기타에 대한 문제들과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쓰판된.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의 이론적 약점의 뿌리를 폭로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다 아는바와같이 一九一六년에 실상은 레닌동지를 반대하여 쓴 부하틴의 논문이 노타 베네 (Nota Bene)의 서명으로 『청년 인더내쇼날』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었다. 이 논문에 부하틴은 다음과같이 썼다. 즉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과의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찾을때에 전자들은 국가찬성자들이요 후자들은 국가반대자들과는 거기에서 찾은 것은 전혀 잘못이다. 사실에 있어서 차이점은 비중앙집권적인 무정부주의적 생산은 오직 낡은 기술, 낡은 형태의 기업소들에만 퇴보하는것임을 의미하나 혁명적 사회민주당은 중앙집권적인 즉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새로운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려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대중의 교양자로 되어있든가 그렇지않으면 적어도 대중의 교양자로 반드시 되어야 할 사회민주당은 지금에 어느때보다도 더 국가에 대한 자체의 원칙적 적대(敵對)적 태도를 강조(強調)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현재의 전쟁은 국가관념의 뿌리가 로동자들의 정신에 얼마나 깊이 관철(貫徹)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부하틴의 이 견해를 비판하면서 레닌은 一九一六년에 발표된 일방이 다아는 논문에 아래와같이 썼다. 즉

『이것은 옳지않다. 필자는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의 태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냐 하는 문제를 세우고는 대답은 이에 대하여 하지않고 장래사회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냐 하는 다른 문제에 대하여 대답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의 태도의 차이에 있어서의 주되는것을 잊어버릴수 있는 결론은 나오지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현대 국가와 및 그의 기관들을 리용하는것을 주장하며 또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독특한 과도적 형태를 위하여 국

가을 리용할 필요를 주장한다. 역시 국가인 이러한 과도적 형태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노타·베네 등자가 어떤 장소에서 말한바와같이 국가를 「폐지」하며 그것을 「파멸」(«strengha»)시키기를 원하기를, 그는 (Nota Bene) 그릇되게 이 견해를 사회주의자들의 견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유감(遺憾)이지만은 필자는 이에 관계되는 잉겔스의 말을 너무 원만치 못하게 인용하였다——부르조아지가 수탈(收奪)된 후에 국가가 「조락(凋落)」된다는 것, 점차로 「사라진다」는 것을 시인한다」:

「국가에 대한 「원칙적 적대태도」를 「강조(強調)」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사실상으로 「명화하게」 리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는 바로 그 명화성이 없다. 「국가관념의 뿌리」에 대한 문구야말로 벌써 전혀 혼잡(混雜)된 것이며 비합스주의적인 것이며 비사회주의적인 것이다. 「국가관념」이 국가관념의 부인(否定)과 충돌(衝突)된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정책이(즉 국가에 대한 기회주의적, 개방주의적, 부르조아적 태도가)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적 정책과(즉 부르조아 국가에 대한 또는 부르조아지를 전복하기 위하여 그에 반대하여 국가를 리용하는데 대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적 태도와) 충돌된 것이다. 이것은 전연 그야말로 전연 서로 다른 것이다」(메닌전집 제一九권 二九六페이지)。

여기에서 문제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떠한 반(半)무정부주의적 진구령에 부하린이 빠졌다는 것은 명확한 듯하다!

쓰멘! 그대에 메닌은 국가의 「파멸」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전개(展開)된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부하린은 무정부주의적 소유를 범하면서라도 이 문제를 규정하는데 절근한 것이다。

쓰팔! 아니다, 지금 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부하린의 의견에 의하면 로동계급은 로동계급의 국가까지도 합쳐서 어떤 국가에 대하여서든지 원칙적으로 적대태도를 가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쓰멘! 그대에 메닌은 부하린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파멸」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다만 국가를 리용하는데 대하여서만 말하였다。

쓰. 말. 11 당신이 오해하는 것이다. 국가의 「파렬」이라는 공식은 맑스주의적 공식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적 공식이다. 부하림의 (또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로동자들은 반드시 어떤 국가에 대하여서든지, 그리고 본즉 파도기의 국가, 즉 로동계급의 국가에 대하여서도 그 원칙적 적대태도를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서는 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임을 나는 감히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역시 국가인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하여 로동계급은 반드시 원칙적 적대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의 로동자들에게 설명하여 보라.

「청년 인더내쇼날」지(誌)에 발표된 부하림의 논문에 전술된 그의 립장(立場)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파도기의 국가를 부인하는 립장이다.

부하림은 이에서 「사소한 것」을 못하고 지내었다. 즉 만일 로동계급이 부르조아지를 전압하며 또 사회주의를 전설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그는 자기 자체의 국가가 없이는 처치하여낼 수 없는 자기인 전(全) 파도기를 못하고 지내었다. 이것이 곧 첫째 것이다.

둘째로는, 그 때에 레닌이 자기의 비판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파렬」, 「폐지」의 이론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인용한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닌은 이 이론에 관하여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부르조아지를 전복한 후 새 국가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를 수립하고 리용하는 데 대한 이론을 그 국가의 「파렬」, 「폐지」의 이론에 대치(對峙)시키면서 그것을 무정부주의적 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파렬」, 「폐지」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이론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조락」과 혹은 부르조아적 국가 기관의 「파괴」, 「타파(打破)」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어떠한자들은 이 두가지의 각각 다른 개념들이

같은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개념을 혼동하려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레닌은 그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파벌」, 「폐지」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리론을 비판할 때에 실로 부르조아적 국가기관의 「파괴」와 프롤레타리아의 국가 「조락」에 대한 맑스주의적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만일 내가, 더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필시 一九一六년말이 아니면 一九一七년초에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 전) 국가에 대하여 쓴 레닌동지의 원고중에서 하나를 이에서 인용한다면 아마도 쓸데없는 일이 아니 될 것이다. 이 원고에서 용이하게 찾아볼수 있는 것은 즉

(1),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부하련의 반(半) 무정부주의적 오류를 비판하면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조락」과 부르조아적 국가기관의 「파괴」에 대한 맑스주의적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요,

(2), 레닌의 말에 의하면 부하련은 비록 「카우츠키 보다는 진리에 가까우나」 그러나 그는 그래도 「카우츠키파들을 폭로시키는 대신에 자기의 오류로써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 원고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즉

「一八七五년 三月十八—二十八일부터 배반에게 보내 영결서의 서한은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비상히 중요한 가치요 있다.

아래와 같은 것이 가장 주요한 전문이다. 즉

「자유인민국가는 자유국가로 변환되었다. 이 말의 문법상의 의미에 의하면 자유국가란 것은 그 나라 안에서 국가가 자기의 동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 즉 전제적 (專制的) 정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이다. 특히 **공담**(空談)을 **고유**(固有)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가 아니었던 **파리** **공론**이 모든 **공담**(空談)을 내버리는 것이었다. 이미 **푸루돈**을 반대하는 **담스의** 저서와 다음으로 **「중산당선」**은, 사회주의적 사회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국가는 스스로 해체(sich auflöst)되므로 소멸된다고 **바루** **만** 하였지만은 **무정부주의**자들은 **「인민국가」**란 것으로써 몹시도 우리를 비난하였다. 국가는 다만 **투쟁**에 있어서, 혁명에 있어서 자기의 적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리용하게 되는 임시적 기관인가 함에 자유인민국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순전히 무의미한 일이다. 즉 **프로테라리아트**에게 아직도 국가가 필요하다는 (엔겔스의 방침) 그에게는 자유를 위하여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적들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자유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때에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국가란 그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국가라는 (엔겔스의 방침) 말대신에 **불란서** 말인 **「공론」**에 해당하는 훌륭한 것일 말인 **「겔메인」**(Gemeinwesen)란 말을 쓰라고 제의하려고 한다。

이것은 **담스**와 **엔겔스**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국가에 반대」**하는 데 아마 가장 훌륭하고도 또한 가장 격렬한 구절일 것이다。

(一)、「국가에 대한 모든 **공담**(空談)을 내버려야 할 것이다」。

(二)、「**공론**은 벌써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가 아니 되었다」(그러면 무엇이든가? 국가로부터 비 국가에도 넘어가는 과도적 형태이던 것이 분명하다)。

(三)、「**무정부주의**자들은 **「인민국가」**라는 것으로서 잘못 우리를 **「비난**하였다」(in die Zaine geworfen—적 해하면—면상을 찢었다)(그런즉 **담스**와 **엔겔스**는 독일의 자기동지들의 범한 그 **화연한** **고유**를 부끄러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유**를 **무정부주의**자들의 **고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덜 중요한 **고유**로 간주하였으니 물론 그때의 형편에 의하여 **옳게** 간주한 것이다. 이것은 **NB11**)。

(四)、「**사회주의적** **사회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국가는 **「스스로** **화해**되며」(**「해체**되며」)(Nota Bene) 소멸된다」(이후 저서에는 **「조락**(凋落)된다」고 한 것과 대조하라)

(五)、「국가는 **「투쟁**에 있어서, 혁명에 있어서」, 필요한 **「임시적** **기관」**이다」(물론 **프로테라리아트**에게 필요하다)

(六)、「국가는 **자유**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 아니요 **프로테라리아트**의 적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Niederhaltung** 말하자면 **진압**인 것이 아니라 **복구**(復舊)를 방지(防止)하는 것, **복종**하게 두는 것이다)。

(七)、자유가 있게되는 때에는 국가가 없을것이다。
 (八)、『우리는』(즉 잉겔스와 맑스는)『여디에서든지』(강령에서)『국가』란 말대신에 『읍짜나』(Ge-meinwesen) 『콤포』이란 말을 쓰라고 제의하려고한다!!!

이에서는 기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카우츠키도 맑스와 잉겔스를 읽거나 야비화시켰으며 더럽혀있다는 것이 보인다.

기회주의자들은 내용이 매우 풍부한 이 여덟가지의 사상중에서 한가지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만 현재의 실천적 필요만, 즉 프로테타리아트를 혼란하며 교양하기 위하여 또한 『양보를 빼앗아내기』 위하여 정치적 투쟁을 리용하며 현대적 국가를 리용한다는것만 취하였다. 이것은 옳은것이다(무정부주의자들을 반대하여)。그러나 그것은, 만일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할수있다면, 아직 맑스주의의 百분지一밖에 되지 않는것이다。

카우츠키는 선전가로 또는 대체로 정론가(政論家)로서의 자기의 작품에 맑스의 一、二、五、六、七、八항들과 및 Zerschneidung(타파—打破)을 아주 말소(抹消)하였다。(혹은 잊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지못하였는가?)。(一九一二년이든가 혹은 一九一三년에)아래의 四五—四七항들을 참조하라(한네부르크와의 논쟁에서 카우츠키는 벌써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기회주의에 빠졌다)。

무정부주의자들과 우리와의 서로 다른 점은 (一)、현재에 있어서 국가를 리용하는것과 (二)、프로테타리아트의 혁명(「프로테타리아트의 두재」)당시에 국가를 리용하는데 있는것이니——이 두점은 당장에 실천상 가장 중요한것이다(부하린은 이것을 마침 잊어버리었다!)。

기회주의자들과 우리와의 서로 다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인종 심각하고 『인종 영원한』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데 있는것이니 이것은 즉 (一)、국가의 『임시적』정권에 대하여, (二)、지금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공담』(空談)『이 해로운데 대하여, (三)、프로테타리아트독재가 완전한 국가적 성질을 가지지는 않았다는데 대하여, (四)、국가와 자유와의 모순에 대하여, (五)、국가탄발 대신에 읍짜나』란 말이 더 정당한 사상(판넌, 강령상술어)에 대한것, (六)、판도주의적 군사기계의 『타파』(Zerschneiden)에 대한것등이다。

또 있어서는 안될것은 독일의 공공연한 기회주의자(베른스테인, 톨보트)들은 프로테타리아트의 두재들 직접으로 부인하고있으면서도 정식 강령과 카우츠키는 일상적 선동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또는 클로스의 반역적 행동을 용인하면서 그것을 간접으로 부인하는 그것이다。

一九一六年 八月에 부하린에게 쓰기틀——「국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완성시키지 않고 Notes Bene 로서 출판물에 나서서 카우츠키파를 폭로하는 대신에 자기의 오유로써 그들을 도와주게 그렇게 동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부하린은 카우츠키파라는 진리에 머가깝다」.

이러한 것이 국가문제에 대한 리론적 논쟁의 간단한 역사이다.

문제는 명료하다고 한다. 즉 부하린은 반(半) 무정부주의적 오유를 범하였으니 지금은 이 오유를 고치고 레닌의 뒤를 따라서 앞으로 떠나야 할 때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오직 레닌주의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부하린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다. 도리어 그는 확언하기를 그가 오유를 범한 것이 아니라 레닌이 범하였으며 그가 레닌의 뒤를 따라갔거나 혹은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레닌이 할 수 없이 부하린의 뒤를 따라가게 된 것이라고 한다.

동지들, 여러분은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더들어 보라.

一九一六년에 있는 그 논쟁 이후 九년을 지나는 동안에 부하린은 침묵을 지켜오다가 레닌의 서거 후 一年을 지난 즉 一九二五년에 와서 부하린은 일찌기 「쏘치알—데모크라트론문집」의 편집부(즉 레닌이 편집하던)에서 출판거절을 당한 「제국주의 국가론에 대하여」라는 문헌을 「법권(法權)의 혁명」이라는 문헌집에 출판하고 그 문헌의 주에 그는 직접 설명하기를, 이 논쟁에 있어서는 레닌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즉 부하린이 옳았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믿지 못할 일 같지만은, 그러나 동지들, 사실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 주의 원문을 들어 보라. 즉

『잡지 「정년 인내(忍耐)」에 실린 문헌을 반대하며 웨.이.(즉 레닌)가 단평(短評)을 발표하였다. 내가 범하였다고 하는 그 오유가 나에게 없었던 것을 독자들은 용이하게 볼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나는 프로레

타리아 두재의 필연성을 명료하게 보았던 까닭이며 다른 원으로는 그때에 일리이스트가 「파탈」에 대한 문제를 프르페타리아 두재의 조락에 대한 문제와 혼동시키면서 그 명제(命題)를 옳지 못하게 취급하였던 것이 그의 단정에서 보이는 까닭이다. 그때에 내가 두재에 대한 문제들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변명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부르조아적 국가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찬송(讚頌)이 어찌도 무행적이었든지 그런 정세에서 자연히 모든 주의(注意)를 그 기관의 파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페리카로부터 로직아에 돌아와서 나제스다·폰스판저노브나를 만나보았을 때에 (이것은 비밀리에 열린 우리의 제6차 대회에서 있는 일이며 또한 그때에 웨이·이·는 피신하여 있었다) 그의 첫말이 다음과 같았다. 「웨이·이·는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에는 당신과의 견상위가 없다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문제를 연구하면서 「파탈」에 관하여서 일리이스트 역시 그러한 결론에 귀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와 다음으로는 두재에 대한 학설을 이 방향으로의 이론적 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완전한 한시기를 이룰만치 발전시켰던 것이다」.

부하틴은 레닌이 서거한후 一년을 지나서 레닌에 대하여 이처럼 썼다.

이것은 곧 여러분이 보는바의 미숙한 이론가의 극히 과도한 참망(僥望)의 전본인 것이다! 나제스다·폰스판저노브나가 부하틴이 여기에 쓴 것과 같은 것을 그에게 말하였을 수도 실상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는 어떤 결론이 생기는가? 이어서 생기는 결론은 부하틴이 자기가 범한 오류를 거부하였다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한다고 생각할만한 어떤 근거가 레닌에게 있었다는 오직 그 한가지뿐일 것이다. 다만 그뿐일 것이다. 그러나 부하틴은 달리 타산하였다. 이제 부하틴은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의 창설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고위자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은 레닌이 아니라 자기 즉 부하틴이라고 그는 결심하였다.

● 방침은 나의 것——이·쓰판틴.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레닌주의자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간주하기를 계속한다. 그런데 지금에는 레닌이나 그의 제자들인 우리가 다 부하린주의자가 되어버렸다. 동지들,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나 부하린이 과도한 참망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데야 어찌할수 없는 일이다.

부하린이 위에 말한 본문에 대한 자기의 주(註)에서 선언하였다는가 또한 그가 쓸데없는 말을 하여 놓고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보전대 부하린은 매우 신중하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주에서 부하린이 레닌의 오유와 부하린의 정당성에 대한 그 명성(明聲)을 얼마전에 즉 一九二七년에, 다시 말하면 레닌을 반대한 부하린의 첫번 도전이 있은후 二년을 지나서 마테쾅끼가 쓴 부하린의 약전(略傳)에 또 다시 발표되었지만 부하린은 마테쾅끼의 이와같은: 감행(敢行)에 대하여 항의하려고는 생각조차 하지않은 거기에서만도 보이는것이다. 레닌을 반대한 부하린의 행동을 우연한것으로 간주하지 못할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와같이 되여, 레닌이 아니라 부하린이 옳았다고,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의 고취자는 레닌인것이 아니라 부하린인셈으로 된다.

동지들, 이와같은것이 곧 부하린의 이론적 탈선(脫線)과 이론적 참망의 진상인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것이 있은후에도 이곳에서한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당의 이론적 견해에는 「무엇인가 부패하였다」고, 우리당의 이론적 견해에 트로츠키주의에로의 경향이 있다고 감히 말할 용기를 가지고있다!

또 여러가지 막심한 이론적 또한 실천적 오유를 범하고있는(또한 과거에도 범한), 얼마전까지도 트로츠키의 제자로 있었으며 어젯날까지도 레닌주의자들에 반대하여 트로츠키

거주의자들과의 불력을 도모하였으며 그리하여 뒷문으로부터 그들에게로 달력(走)다니던 그 부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동지들, 이것이야말로 과연 우수한 일이 아닌가?

○, 五개년계획이나 二개년계획이나

이제는 퇴이코브의 연설에 대하여 말하기로 하자. 만일 부하원은 우경의 이론적 중을 주려고 기도하였다면 퇴이코브는 이일에 대하여 자기의 연설에서 농업방면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형식에 있는 『무서운 일들』로써 우리를 놀래이면서 실천적 제의의 토대를 지으려고 애쓰고있다. 이것은 퇴이코브가 이론적 문제들에 대하여는 말하지않았다 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그는 이론적 문제들에 대하여도 말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적어도 두가지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퇴이코브는, 정치국의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된 그의 五개년계획에 대한 결정서의 초안에 말하기를, 「五개년계획의 중심되는 사항은 인민로동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 절대로 옳지 못한 견해를 정치국의 전문위원회가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이코브는 이곳에서한 자기의 연설에서 그 견해를 옹호하였다.

쉴레트나·라·에서 五개년계획안의 중심되는 사항은 로동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옳은가? 아니, 옳지못하다. 우리에게는 인민로동의 생산능률의 어떤 장성이든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민로동의 생산능률의 일정한 장성 즉 자본주의적 부분에 대

한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부분(부분)의 계통적 우세(優勢)를 보장하여주는 그런 장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 중심되는 사상을 잊어버리는 五개년계획은 五개년계획인 것이 아니라 五개년망담(忘談)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생산능력의 장성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회든지, 자본주의적 사회든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든지 다 리해관계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쏘베트사회가 온갖 다른 사회와 다른 점은 실로 그 사회가 노동생산능력의 어떤 장성에든지 다 리해관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제, 무엇보다도 먼저 자본주의적 형태의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우세를 보장하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형태의 경제를 극복하며 또 구축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장성에 리해관계들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때 외이코브는 쏘베트사회발전에 대한 五개년계획의 참된 이 중심적 사상을 잊어버리었다. 이에 그의 첫째 리론적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의 둘째 오류는 그가 상품류들의 전지에서 말하자면 플호즈와, 자본주의적 개인경제까지 포함한 온갖 개인경제와의 사이에 차이를 두지않든지 그렇지않으면 그 차이를 리해하려고 하지않는 데 있는 것이다. 외이코브는 곡물시장에서의 상품류들의 전지로 보아서, 곡물취득의 전지로 보아서 그는 플호즈와 개인적 곡물소유자와의 사이의 차이를 보지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본즉 우리가 곡물을 플호즈에서 사든지 개인소유자에게서 사든지 그렇지않으면 어떤 아르젠전의 곡물매점인에게서 사든지 그에게는 마찬가지로 말하는 말이다.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이것은 곡물을 어디서 사든지 또는 누구에게서 사든지, 개인에게서 사든지 혹은 플호즈에서 사든지 마찬가지로, 한때 단언하던 일반이 다 아는 프룸진의 성명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곡물시장에서의 골라크층의 간계를 옹호하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변명하는 위장 형태(偽裝形態)인 것이다. 이 옹호를 상품류동전지에서 한다면 그 사실——즉 이 사실은 그것이 어쨌든 곡물시장에서의 골라크층의 간계에 대한 변명인 그 사태를 변케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상품류동상 전지로 보아서 집단적 형태의 경제와 비집단적 형태의 경제사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골라크층을 발전시킬것은 무엇이며 그 골라크층에 특전(特典)을 줄것은 무엇이며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분자들을 극복하려는 어려운 임무에 몰두(沒頭)할것은 무엇인가? 퇴이코브가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진것은 명확한 일이다. 이에 그의 둘째 리론적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난감에 하는 말이다. 퇴이코브의 연설에서 제기된 실천적 문제를 돌로 넘어가보자.

퇴이코브는 5개년계획안 이외에 그에 병행되는 다른 계획안 즉 농업발전에 대한 2개년계획안이 더 있어야 한다는것을 여기에서 단언하였다. 그는 병행적 2개년계획안에 대한 그 제의를 농업에 있는 곤란으로써 론증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5개년계획은 좋은 일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찬성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동시에 농업에 대한 2개년계획안을 작성할것같은데 더 훌륭히 될것이오 그렇게하지않는 경우에는 농업이 침체(沈滯)될 것이라고하였다.

의형상으로 보아서 이 제의에는 조금도 나쁜것이 없는듯하다. 그러나 만일 사태를 자세히 관찰한다면 농업에대한 2개년계획안은 5개년계획안의 비현실적, 지상적(紙上的)성질을 고조(高調)하기 위하여 생각하여낸것이 된다. 우리가 이에 동의할수 있었는가?

아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퇴이교보에게 말하였다 — 만일 당신이 농업에 관한 점에 있어서五개년계획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가? 만일 당신이 농업발전을 위하여五개년 계획안에 지정한 지출액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것 같은다면 당신의 보충적 제의들과 당신의 보충적 투자(投資)들에 대하여 명확히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농업에 대한 그보충적 투자를五개년계획안에 가입(加入)하기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되었는가? 퇴이교보에게는 농업을 위한 보충적 투자에 대하여 하등의 보충적 제의가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 물론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병행적二개년계획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그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즉五개년계획안 이외에五개년계획안의 부분이 되는 매년도(毎年度) 계획안이 더 있으니 농업을 향상시키는 로선에 있어서 당신에게 보충적, 구체적 제의가 — 만일 대체로 그런 것이 있다면 — 있다면 그것을 첫두해의 매년도 계획안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찌되었는가? 퇴이교보에게는 보충적 지출에 대하여 제의할 그런 구체적 계획안이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때에 우리는,二개년계획안에 대한 퇴이교보의 제의는 농업의 향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五개년계획의 비현실적, 지상공문적 성질을 고조하려는 회망,五개년 계획안을 왜손(毀損)시키려는 소원이 문제되고 있다는것임을 리해하게 되었다. 「마음」을 위하고 의견(外見)을 위하여서는五개년계획안(案)이오, 일을 위하고 실천적 사업을 위하여서는二개년계획안(案)이라는 그런 전략(戰略)이 퇴이교보에게 생긴 것이다. 퇴이교보에게 있어서二개년계획은, 다음에五개년계획을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에서二

개년계획을 五개년계획에 대치시키며 공업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고 팔려내어 五개년계획을 다시 작성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二개년계획에 맞게 하기 위하여 무대에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사고(思考)에 의하여 우리는 병행적 二개년계획안에 대한 퇴이코브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2. 과종지면적에 대한 문제

퇴이코브는 전소련을 통하여 과종지면적은 계통적으로 축소되는 추향(趨向)을 가졌다고 단언하면서 이곳에서 당을 위협하였다. 이에 있어서 그는 과종지면적이 축소되는 것은 당의 정책의 허물이라고 암시(暗示)하면서 당을 지적하여 말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농촌정리의 퇴화(退化)가 진행된다고는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 퇴화비슷한 무엇이 목하(目下)에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

과종지면적이 계통적으로 축소되는 추향을 가졌다는 것이 옳은가? 아니다, 옳지 못하다. 퇴이코브는 여기에서 전국내의 과종지면적에 대하여 평균수짜를 들고서 논단하였다. 그러나 지방별 재료에 의하여 정정되지 않은 평균수짜를 사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다.

아마도 퇴이코브는 일찍 레닌의 「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책을 읽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읽었다면 그는 과종지면적의 확장에 대하여 평균수짜의 방법을 리용하며 지방별 재료를 무시하는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을 어떻게 레닌이 거기에서 공박한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퇴이코브가 지금에 와서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의 오류를 증복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만약 각 구역에 대한 과종지면적의 빈동을 관찰한다면 즉 만일 과학적으로 문제를 취급한다면 일부구역에서는 과종지면적이 계통적으로 확장되고 다른 구역에는 주로 기상학(氣象學)적 조건에 따라서 과종지면적이 간혹 줄어드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구나 우리의 중요한 목물산지중에서는 비록 어느 한 구역에서라도 과종지면적이 계통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료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상해(霜害)나 혹은 한재를 당한 구역들에서는, 레하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주(州)들에서는 과종지면적이 최근에 와서 축소되는 것을 보이어 준다:

청중에서 우크라이나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슬리호테르 우크라이나에서는 과종지면적이 二・七%가 확장되었다.

쓰팔린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초원지대(草原地帶)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구역들에서는, 말하자면 시비리, 쾰월지예, 까사흐스탄, 바스끼리 등 기후상(氣候上) 불리한 조건에 걸리지 않은 구역들에서는 과종지면적이 계통적으로 확장된다.

일부 구역에서는 과종지면적이 계통적으로 확장되고 다른 구역에서는 간혹 축소되는 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사실에 있어서 당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서 다르고 쓰팔린의 동방이나 혹은 중앙에서 다르다고는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망명된 말일 것이다. 기후상 조건이 이에서 적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료한 일이다.

기후상 조건에 불판하고 폴라크들이 과종지면적을 축소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아마 폴라크층에 반대하여, 빈농—중농대중을 지원하는 당의 정책에 「히물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서는 어떤 결론이 생기는가? 우리가 폴라크까지도 포함한

농촌의 모든 사회적 그루빠들을 만족케할 그런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때가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대체로 만일 우리가 맑스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기를 원한다면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을 다 만족케할 그런 정책을 우리가 실시할수 있겠는가? 만일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분자들을 제한하며 또 극복하는것을 타산한 우리의 레닌적 정책의 결과에 골라크들이 자기들의 파종지면적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기를 시작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야말로 무엇이 특별한것이 있는가? 그때 과연 달리될수 있다는 말인가?

혹은 이 정책이 옳지않다는 말인가——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바른대로 말하라고 하라. 자기들 맑스주의자라고 일컫르는 사람들이, 골라크들이 파종지면적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것을 보고 겁이 나서 파종지면적이 일반적으로 축소된다고 말하려고 애쓰며 또 한 골라크들 이외에도 빈농들과 중농들이 더 있는바 그들의 파종지면적은 확장되며 또 골호즈 및 쏘호즈가 있는바 그들의 파종지면적은 급격한 속도로 확장된다는것을 잊어버리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파종지면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퇴이코브의 연설에 또 한가지 옳지못한것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즉 골호즈가 가장 많이 발전되는 곳들에서는 빈농—중농의 개인경작지가 축소되기 시작한다고 퇴이코브는 여기에서 호소하였다. 사실 그렇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에 무슨 좋지못한것이 있단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달리될수있는가? 만일 빈농—중농의 경영들이 개인경작지를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단경영으로 넘어간다면 골호즈의 확장 및 증가가 반드시 빈농—중농의 개인경작지를 축소시킬것이 명오하지 않은가?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플로즈에는 二百萬여 헥타르의 토지가 있다. 五개년 계획말에 가서 플로즈들에는 二千五百萬여 헥타르의 토지가 있게 될 것이다. 누구의 토지를 축소하여 가지고 플로즈의 경작지가 증가하게 될 것인가? 빈농—중농의 개인경지를 축소함으로써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달리 빈농—중농의 개인경지를 집단경지의 궤도에 넘겨 세울 수 있는가? 플로즈의 경지는 여러 구역에 있어서 개인적 경지를 축소하여 가지고 증가하게 될 것이 명확하지 않은가? 이 단순한 사리(事理)를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츠, 곡물수매에 대하여

우리의 곡물상 난판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허황(虛荒)한 말들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곡물에 대한 시국(時局)적 난판의 주되는 모멘트들은 빼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금년에 라맥과 소맥을 작년보다 약 五—六억 루드나—나는 농작의 총수확에 대하여 말한다—적게 수확한 것을 잊어버리었다. 이것이 우리의 곡물수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는가? 물론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앙위원회의 정책이 옳지 못하였던 때문인가? 아니다, 중앙위원회의 정책은 거기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초원지대에 있는 심한 흉작(상해 및 한재)과 북캅카즈와 중앙흑토주(中央黑土州)와 서—북주(州) 등에 있는 부분적 흉작으로써 설명된다.

작년에는 四月一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곡물(라맥, 소맥) 二억 루드를 수매하

있던데 금년에는 모두 二千六百萬 내지 二千七百萬루드밖에 구매하지 못한것도 주로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라텍, 소맥의 구매고(收買高)가 중앙흑토주에 있어서 거의 八배나 줄어졌고 북잡카즈에 있어서는 四배나 줄어진것도 역시 이것으로써 설명하여야 할것이다.

동방의 어떤 구역들에서는 곡물구매가 금년에 거의 二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구역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북잡카즈, 중앙흑토주등에서 채 지지 못한 곡물을 보충할수 없었으며 또한 보충하지 못하였다.

수확이 정상적(正常的)으로 되는때에 우크라이나와 북잡카즈가 전조선에서 구매되는 곡물의 근 절반이나 주는것을 잊어서는 아니되는것이다.

되이표보가 이 사정을 잊어버린것은 이상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곡물구매상 지국적인 성격을 가진 난판의 주되는 모멘트로되는 들짜 사정이다. 나는 농촌의 골라크분자들의 곡물구매에 관한 쏘베트주권의 정책에 대항하는것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되이표보는 이 사정을 묵과(默過)하였다. 그런데 이 모멘트를 묵과하는것은 곡물구매사업에 있어서 주되는것을 묵과하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곡물구매에 대한 최근 二년동안의 경험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경험은 자기의 주중에 많은 곡물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곡물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농촌의 부요한 농민층들은 필요한 수량의 곡물을 쏘베트주권이 규정한 가격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유리하게 주기를 원치 아니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도시, 농업구역, 붉은군대, 공예(工藝)농작물 구역들의 식량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해마다 큰 五억루드의 곡물이 요구된다.

자연발생적인 방식에 의하여서는 우리가 약 三億—三億五千萬루브의 곡물을 수매하게 된다. 남아지 一億五千萬루브는 농촌의 골라크와 부요한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충압을 가하는 방식에 의하여 겨우겨워 된다. 최근 二년동안의 곡물수매의 경험은 곧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준다.

이 두해동안에는 무엇이 변동되었으며 이런 변동들은 어디에서 생겼으며 어찌하여 이전에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도음을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되었는가? 골라크들과 부요한 분자들은 이 몇해동안에 창성하였다. 여러해동안의 풍작(豐作)은 그들에게 있어서 첫 것이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되었으며 자본(資本)을 저축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높은 가격을 기대하여 곡물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 다른 농산물들로 돌려마추면서 시장에서 마음대로 조종(操縱)할 수 있게 되었다.

곡물은 보통상품이 아니다. 곡물은 먹을 수 없는 또는 아모에게나 팔 수 없는 그러한 면화(棉花)가 아니다. 곡물은 면화와 달라서 우리의 현재 형편에 있어서 누구든지 사며 또한 그것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품이다. 골라크는 이것을 참작(參酌)한다. 그러므로 곡물을 보류(保留)하고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대체로 곡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전염시키고 있다. 골라크는 곡물이 화폐중에도 가장 귀한 화폐인 것임을 안다. 골라크는 곡물의 여유가 자기치부(致富)의 수단일뿐만 아니라 빈농민들을 계속시키는 수단인 것을 안다. 골라크의 손에 있는 곡물의 여유는 현재의 조건에 있어서 골라크분자들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라크들에게서 그 여유를 길어냄으로써 도시와 붉은 군대에 대한 곡물의 공급을 월하게 할뿐만 아니라 또한 골라크층이 경제적으로와 정치적으로 강하게 하는 수단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곡물의 여유를 수취(受取)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롭고 또 위험한 것인바의 저절로 된다는 심리를 청산하여야 한다. 곡물수매를 조직하여야 한다. 폴라크층에 반대하여 빈농—중농대중을 동원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곡물수매를 힘있게 하는데 관한 쏘베트주권의 대책에 대한 그 대중의 사회적 지지를 조직하여야 한다. 곡물수매를 자유과세(自由課稅)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우랄—시비리의 곡물수매방법의 의의는 즉 그것이 폴라크층에 반대하여 곡물수매를 힘있게 하는 데로 농촌의 근로자층을 동원하는 가능성에 주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 긍정적(肯定的) 결과를 주는 것은 경험이 보이어주였다. 경험은 그 긍정적 결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방향으로써 표현된다는 것을 보이어주었다. 첫째로, 우리는 농촌의 부요한 층에게서 곡물여유를 징수하여 그것으로써 국내의 공급을 쉽게 하며 둘째로, 우리는 이 사업에서 폴라크층에 반대하여 빈농—중농대중을 동원하며 이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양(敎養)하며 그들으로써 우리의 힘있는 주배만대중의 정치적 군대를 농촌에서 조직한다. 어떤 동지들은 이 둘째 사정을 참작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정은 우랄—시비리아의 곡물수매방법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더라도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되는 것이다.

참으로 이 방법은 있다. 폴라크층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의 적용과 결합되는바, 그것은 부하된, 퇴이코브에게서 희극적(喜劇的) 통곡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좋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어찌하여 때때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우리의 계급적 적(敵)인 폴라크에 반대하여 비상대책을 적용하지 못할 것인가? 어찌하여 도시에서는 투기업자들을 수백명씩 체포하여 그들을 투르한스크변강으로 유형을 보낼수는 있는데, 쏘베트주권의 목을 틀어쥐며

또한 빈농층을 자기에게 계속시키려고 시도하고 곡물을 가지고 투기업하는 폴라크들에게서는 사회적 강제와 방식에 의하여 곡물의 여유를 빈농들과 중농들이 우리 곡물수매가판에 곡물을 주는 그 가격으로써 빼앗을 수 없을 것인가? 그럴수 없다는것은 어디로부러 생기는 결론인가? 과연 우리당은 원척상으로 폴라크층과 투기업자에 비상대책을 쓰는데 반대하여 언제나 말한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투기업자들을 반대하는 법률이 없는가?

필연 퇴이크브와 부하틴은 원척상으로 폴라크층에 대하여 비상대책을 취하는것을 반대하는 법장에 서고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정책이오 맑스주의적 정책은 아니다. 여터분은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심지어 빈농위원회의 정책으로 — 물론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서 — 돌아가려고까지 말하였던것을 물을수없는것이다.

그런데 폴라크에 반대하여 비상대책을 부분적으로 쓴다는것은 참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빈농위원회의 정책에 비하면 대양(大洋)에 한방울의 물만지도 못되는것이다.

그들 즉 부하틴 그루빠의 찬성자들은 계급적 적들이 차원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포기(拋棄)하고 자원적으로 우리에게 자기곡물의 여유를 주도록 그들을 설유할것을 바란다. 그들은, 그동안 잠성하였고 투기업하며 다른 농산물들을 가지고 몰락할만한 가능성에 있고 또한 자기곡물의 여유를 감추는 바로 그 폴라크들이 우리의 곡물수매가격에 의하여 자기곡물의 여유를 자원적으로 우리에게 주리라고 바란다. 그들은 정신이 빠지지않았는가? 그들은 계급투쟁의 내막을 이해하지 못하며 계급이란것이 무엇임을 아지 못하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런데 곡물수매를 힘있게 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농촌회의에서 폴라크들이 우리의 일

꾼들과 쏘베트주권을 어떻게 조롱(嘲弄)하는것을 그들은 알고있는가? 이러한 실례를 그들은 알고있는가? 레하면 카사흐스탄에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목물을 주어야 한다고 우리의 선전원이 무시감동안이나 목물소지자들에게 설유하였는데, 그때에 골라크가 입에 담배대를 물고 나서서 그 선전원에게 대답하기를, 「여보게 자네 춤이나 춰보게, 그러면 내가 목물두어뿌드를 주자」라고 대답한 그것을 아는가?

청중에서 ॥ 죽일놈들!

쓰팔린 ॥ 그런 인간들에게 설유하여보라.

동지들이여, 그렇다, 계급은 계급인것이다. 이 천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우랄-시비리아의 방법이, 말하자면 좋다는것은 곧 그 방법이 골라크들에 반대하여 빈농-중농층을 이르는 가능성을 쉽게하여주며 골라크들의 대항을 박멸하는 가능성을 쉽게하여주며 그들이 로마여금 목물의 여유를 쏘베트주권의 기판에 팔지 않을수 없게한다.

지금에 부하된 그루빠의 대렬에서 유행어가 되는것은 목물수매에 있어서의 「지나친다」라는 말이다. 이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격있는 상품이 되는것이니, 그것은 이말이 그 기회주의적 로선을 가리우는데 그들을 도와주는까닭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로선을 가리우려고 할때에 그들은 보통 말하기를 — 우리는 물론 골라크들을 내려누르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면에 있어가지고 중농에게 해를 끼치는 그 파오를 범하여 지나치는 데 반대한다고 한다. 다음에는, 이 지나친것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농민들의 편지들을 랑투하며 마르코프와 비슷한 황금한 동지들의 편지들을 랑투하며 그리하여 골라크를 내려누르는 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정는다.

보라, 옳은 정책을 실시하는 데 지나친 것이 있음으로 아마도 그 옳은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라 한다. 옳은 로선을 실시하는 데서 생긴 지나친 것에 기초하여가지고 그 로선을 기회주의적 로선으로써 바꾸고 그 옳은 로선을 폐지하는 것——즉 이와 같은 것이 기회주의자들의 보통 방법이다. 이에 있어서 부하틴의 그루빠 지지자들은 보다 더 위험하고 보다 더 해독스러운 다른 종류의 지나친 것 즉 골라크층과 융합(融合)하는 방향으로, 농촌 부요층에게 순응(順應)하는 방향으로, 당의 혁명적 정책을 우경분자들의 기회주의적 정책과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지나친 것이 또 있는데 대하여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물론 우리는 모두 그 지나친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모두 골라크들을 반대한 그 공격이 중농에게 믿는 데 반대한다. 이것은 명요한 일이오 또 이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하틴 그루빠가 열렬하게 실용하는 그 지나친 것에 대한 공담으로써 우리당의 혁명적 정책을 훼손시키며 또 그 정책을 부하틴 그루빠의 기회주의적 정책으로써 바꾸려는 데 결정적으로 반대한다. 안된다, 그들의 그 수작은 암만 해도 안된다.

이런 혹은 저런 지나친 것이 없이 실행된 당의 정치적 대책을 하나라도 지명하라. 이로 부러는, 지나친 것을 뺀다는 것과 투쟁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생긴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가지고 유일하게 옳은 로선인 그 로선을 비난할 수 있는가?

七시간로 동제의 실시와 같은 그런 대책을 들어보자. 이 대책은 최근에 우리당이 실시하는 가장 혁명적 대책중의 하나인 것은 아무 의심할 것도 없는 것이다. 본질상으로 깊이 혁명적인 이 대책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조 여타가지의 지나친 것과 동반하게 되는 것, 때로는

가장 못되게 지나친것과 동반하게되는것을 누가 알지 못하는가?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七시간로동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부하반대파의 지지자들은 곡물수매사업에 있어서 지나친것을 들어가지고 웃줄거리면서 그들이 어떠한 친구령에 빠지게 되는가를 리해하는가?

3. 정화예비 (正貨預備) 및 곡물수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곡물수입 및 정화예비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한다. 퇴이표브 및 그의 가까운 벗들이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문제를 수차 제기하였다는것을 나는 이미 말하였다. 퇴이표브가 처음에는 곡물 八천만루드 내지 一억루드를 수입할 필요에 대하여 말하였으니 이것은 정화로 약 二억루블이 되는것이다. 그가 다음에는 五천만루드 즉 정화 一억루블의 곡물을 수입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공업용 설비품을 수입하기위하여 적립하여둔 정화를 소비하기보다 곡물을 적지않게 가지고있는 골라크층을 나리둘러 그 여유 곡물을 정수하는것이 낫겠다고 결정한후 이 문제를 기각하였다.

지금은 퇴이표브가 전선을 바꾸고있다. 지금 그는,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곡물을 대부하여 주나 우리가 마치 그것을 받기를 싫여한다는듯이 단언하고 있다. 그는, 전보 몇장을 받았는데 그 전보에는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곡물을 대부하여주려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있어서 그는, 마치 우리사이에 경망성(輕妄性)이나 혹은 리해할수없는 어떠한 다른 리유로 곡물대부를 받지아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듯이 문제들 표시하였던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다 공답이다. 서방 자본가들이 졸지에 선실을 먹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곡물 수천만부트를 거의 무료로 주거나 장기대부로 주려한다는 것은 생각만 하여도 우수운 일이다. 동지들! 이것은 공답이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여러가지 자본가 그루빠들이 벌써 반년동안이나 우리를 전매하고 있으며 우리의 재정능력, 우리의 신용대능력, 우리의 견고성을 전매하고 있음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三개월 혹은 六개월이라는 극히 짧은 시일을 기한으로 하여 우리에게 곡물을 신용대(信用貸)로 매도하려 하여 과리, 채코슬로와키아, 미국,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상업대포들과 교섭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곡물을 신용대로 매도하려 하는 것보다 우리의 형편이 사실로 곤난한가, 우리나라에서 사실로 재정능력이 갈진되었는가, 우리의 재정상태가 견고한가, 그들이 우리에게 집어던지는 낚시를 우리가 삼키지 아니하는가를 알아보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재정능력문제로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혹자들은 우리가 벌써 파산자가 되었고 쏘베트주권의 몰락은 一주일이 아니면 수개월의 문제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옮지 못한 말이며 쏘베트주권은 공고한 상태에 있고 그에게 재정능력이 있고 그에게 곡물이 충족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상당한 견인성과 인쇄심을 발휘하여 야하며 곡물을 대부하여 준다는 거짓약속에 속지 말며 우리는 곡물을 수입하지 않고도 능히 유지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본주의 세계에 보여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나 一개인의 의견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국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러한 리유하에서 우리는 난센같은 여러 자선가들의 百萬달라가치의 貨物을 朝鮮에 對부하려는 策의를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실로 이러한 리유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많지 아니한 貨物을 對부하려고 策의하던 파리, 미국, 暹羅와 爪哇의 이 모든 자본주의 세계 諸國들에게 부정적으로 對答하였다.

실로 이러한 리유하에서 우리는, 對대한도로 貨物을 賣却하고 貨物수매사업에 있어서 對대의 組織성을 발휘하기로 決定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두가지 目的이 있는것이니, 즉 한 點으로는 貨物수입을 減少하고 貨物수입을 수입하기 위하여 正化를 促進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點으로는 우리가 튼튼히 서있다는 것과 富強을 주려는 약속에 背지않을것을 우리의 모든 元帥들에게 囑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政策이 對대한 政策이였는가? 그는 유일하게 對대한 政策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政策이 對當하였음은 우리가 貨物을 구득할 새로운 可能性을 여기에서, 自國內에서 發見하게되었던 까닭뿐이 아니다. 그 政策이 對當하였음은 또한 貨物수입을 減少하고 資本주의 世界의 諸國들을 물리치는 한편 우리가 自國의 國體政體를 공고케하였고 우리가 自國의 生産力을 提高하였고 朝鮮민주권의 「적면한 冕」을 運은하던 答답을 分배시킨 까닭이었다.

근일 우리는 독일자본가들의 對勞者들과 契約의 條件적 敎養을 行하게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五億의 生産對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事實인즉 그들은 事實상 自國의 公營을 위하여 朝鮮민주권을 받아야하겠으므로 이 生産對부를 우리에게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근일 영국보수파 對勞단인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이 對勞단도 역시 自國들이 朝鮮

트의 공업품주문을 받기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신용대부를 주는 것이 적절하리라는 것과 쇼베트 주권의 공공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만일 우리가 이상에 내가 말한 그 전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우선 독일 인측으로부터, 다음에는 영국의 일부 자본가측으로부터 신용대부를 받을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으리라 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즉 문제는 우리가 마치 경망성(輕妄性)으로 인하여 가상적 곡물을 가상적 기한으로 신용대부하여주는 것을 받지 아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적의 기색을 알아 보며 그의 본지를 알아 보며 우리의 대외정세를 공공히 함에 필요한 인내성을 발휘함에 있는 것이다. 동지들! 우리는 이러한 까닭에 곡물수입을 거절한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곡물수입문제는 그것을 피이표브가 여기에서 묘사함과 같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곡물수입문제는 우리의 대외정세문제이다.

五、당지도의 제문제

이와같이 우리는 리론의 영역에 있어서나 국제공산당정책 및 우리당의 내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의결상위에 관한 일체 추요문제들을 일일히 고찰하였다. 이상에 론술한바에 의하면 우리사이에 유일로선이 있다는 피이표브의 성명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 론술한바에 의하면 우리사이에 는 사실상 두가지 로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로선은 당의 총로선 즉 우리당의 혁명적인 패닉적 로선이요 다른 로선은

부하틴 그루빠의 로선이다. 이 둘째 로선은 아직 원만히 구성되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부하틴 그루빠의 대렬내에 상상하기 어려울만치 견해상 착란이 있는 까닭이오, 부분적으로는 이 둘째 로선이 당내에 있어서 그의 비중이 약하므로 이렇게나 저렇게나 가장하려고 시도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보는바와 같이 이것은, 이 로선은 어쨌든 존재하여 있는 것이오, 또한 이것은 당로선과는 판이한 로선으로서, 우리의 정책의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당의 총로선에 대립되는 로선으로서 존재하여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로선은 우익 편향의 로선이다.

이제 당지도의 제문제에 넘어가자.

7. 부하틴 그루빠의 과당성

부하틴은 말하기를 우리 당 안에는 반대파가 없다 하며 그 부하틴 그루빠는 반대파가 아니라 한다. 동지들! 이는 옳지 못한 말이다. 우리가 부하틴 그루빠라는 새로운 반대파를 보게 된 것은 전원회의에서의 토론중에서 원만히 명백하게 판명되었다. 이 그루빠의 반대적인 활동은, 이 그루빠가 당로선을 수정하려고 시도함과 이 그루빠가 당로선을 개정하려고 시도함과 그로선 즉 당로선을 다른 로선, 즉 우익 편향의 로선 밖에는 될수 없는 반대파로선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토대를 준비함에 있는 것이다.

부하틴은, 삼인조가 과당적 그루빠로 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동지들! 이는 옳지 못한 말이다. 부하틴 그루빠는 과당성의 일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당도 있고 거기에는 과적 봉당(朋黨)도 있고 거기에는 사적정책도 있고 거기에는 중앙위원회를 반대

하는 조직적 투쟁도 있다. 그밖에 무엇이 더 요구되었는가? 부하된 그루빠의 과당성은 사실상 명백한 것이니 왜 이 사실을 은위하겠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의견상위에 대한 사실전부를 말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중앙동계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부하된 그루빠가 과당적 그루빠임은 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과당적 그루빠인 것이 아니라 우리당내에 과거에 있는 모든 과당적 그루빠중에서 가장 미웁고 가장 지저분한 그루빠라고 나는 말하려 한다.

이 그루빠가 지금 아자리야 소동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까지 자기들의 과당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것을 볼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이 소위 아자리야 「폭동」을 크론스마트 폭동과 같은 그러한 폭동에 비교하여 본다면 어떠한 것인가? 그 폭동과 비교하여 본다면 이 소위 아자리야 「폭동」은 창해일 수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트로츠키와 나 지노비예프가 중앙위원회를 반대하고 당을 반대함에 이 위험한 크론스마트 폭동을 이용하려고 시도한 경우가 있었던가? 동지들! 그러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겠다. 이 위험한 폭동의 시기에 우리당내에 있었던 반대적 그루빠들은 그것을 반당 목적에 이용하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동을 진압함에 있어서 당을 방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하된 그루빠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때 당신들은 이 그루빠가 당을 반대함에 아자리야의 이 미세(微細)한 「폭동」을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무례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함을 확실할만한 기록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것이 극도의 과당적 현혹(眩惑)이나 과당적 타락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아마 자본주의 국가들과 민절되어 있는 우리나라 변방에서 소동의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을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듯하다. 필연 우리 사회의 모든 계급——부자와 가난한 사람,

로동자와 자본가——들을 만족케 할 그러한 정책을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듯하다. 필연 우리 나라 안에서 불평분자들을 없게 할 것을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듯하다. 부하틴 그루바의 출신인 이 등지들은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가?

우리 나라에 불평분자가 없게 하라고, 우리와 적대되는 국가들과 직접하여 있는 일부 변장예사 간혹이라도 소동하는 경우가 없게 하라고 어떻게 우리에게서 요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나라의 내부나 외부에서 자본주의 세계와 투쟁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실시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자본주의적 포위가 존재한 것은 국제자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국경지대에서 우리나라 불평분자들의 쏘베트주권반대진출을 조직함에 모든 힘을 경주하게 함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함인가? 헛된 자유주의자들 이외에는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제출하겠는가? 과당적 협량(狹量)이 왕왕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주의적 맹목증과 협애증에 걸리게 하는 것이 과연 명백치 아니한가?

Ⅱ. 충의 및 단합적 자도에 대하여

부하틴은 우리당중앙위원회에 대하여 가장 「충직」하고 「허물없는」 당원중 하나이라고 띄이코브가 여기에서 단언하였다.

나는 거기에 대하여 의심할 품재된다. 우리는 띄이코브의 빈말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사실을 들어 말하기를 요구한다. 그럴테 띄이코브에게는 사실을 들어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실례로 트로즈끼스와 관계있는 카메네브 그루바와 부하틴과의 사이에 있는 비밀교섭, 즉 과당

적 별력을 조직할 때 대한 교섭, 중앙위원회의 정책을 변할 때 대한 교섭, 정치국 성원을 변경할 때 대한 교섭,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출연함에 폭발수매의 위기를 리용할 때 대한 교섭을 취하여 보자. 물론 노니, 중앙위원회에 대한 부하련의 「충의」, 「허물없는 점」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정치국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중앙위원회, 자기의 당에 대한 일체, 충의의 위반이 아닌가? 이것을 만일 중앙위원회에 대한 충의라 할진대 무엇을 자기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반역이라 할가?

부하련은 충의, 정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 자기가 자기의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트로츠키파로 더브러 비밀 교섭을 행하고 또 그리하므로써 자기의 중앙위원회에 변질하는 것이 자기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충의의 초보적 요구조건을 가장 부정적하게 위반함이 아닌가 — 자신에 향하여 반문하려고 시험하지 않는가?

부하련은 여기에서, 당중앙위원회에 합의적 지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합의적 지도의 요구조건을 중앙위원회 정치국내 다수가 위반한다고 우리앞에서 단언하였다.

물론 우리의 전원회의는 모든것을 참고있다. 전원회의는 부하련의 이 과염치하고 위선적인 성명도 아마 참을것이다. 그러나 전원회의적상에서 중앙위원회의 다수를 반대하여 이와같이 설설할 용기를 가지게되자면 사실로 넘치를 잃어버리지않고서는 안될 것이다.

중앙위원회의 다수가 국가수레를 고을고 자기의 모든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가면서 부하련그루빠에 향하여 이 곤난한 사업에 있어서 자기들을 방조하여달라고 요청하는 때에 부하련그루빠는 그 중앙위원회를 방조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백방으로

방해하며 수레바퀴가 구울지 못하게 몽둥이로 받치며 사직한다고 위협하며 당의 원수인 트로츠키파로 더브러 우리당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밀모하고 있으니 사실상 여기에서 어떠한 합의적 지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트로츠키파로 더브러 반당적 썰력을 결성하고 자기의 중앙위원회를 배반하는 부하틴은 우리당 중앙위원회의 합의적 지도를 원치 아니하며 또한 그것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은 위선자들 이외에야 누가 부인하랴?

만일 부하틴이 중앙위원회의 다수에게 허물을 씌우면서 의연히 중앙위원회의 합의적 지도에 대하여 지껄리고 있다면 이것은 그가 그리하므로써 자기의 반역적 입장을 엄폐하려는 것임은 소경이외에야 누가 보지 못하랴?

부하틴이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충의와 합의적 지도의 초보적 요구조건을 위반함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우리당의 역사에는, 레닌이 재실때인 브레즈트강화 시기에 부하틴이 강화문제에 관하여 소수의 편역을 들면서 우리당의 원수인 좌익에세르츠크에 넘어가서 그들과 더브러 비밀교섭을 행하였고 그들과 함께 레닌과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썰력을 결성하려고 시도하였던 실례가 있는 것이다. 그가 그때에 좌익에세르츠크와 함께 무엇을 밀모하였는지 우리는 유감이지만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좌익에세르츠크들이 레닌을 체포하려 하였고 반조베트적 변혁을 일으키려 하였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좌익에세르츠크에 넘어가서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그들과 더브러 음모를 획책하면서 부하틴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합의적 지도의 필요에 대하여 계속하여 떠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더 괴이한 일이다.

우리 당의 역사에는 이 밖에도, 레닌이 제실때에 부하린이 우리 당 포스크바주 상무국 내에서 다수를 점유하고 「좌익」 공산주의자 그루빠를 인솔하여가지고 당 중앙위원회의 불신임을 발포하라, 그에 부응함을 거절하라, 우리 당의 분열문제를 제기하라고 일반당원들에게 호소하였던 실례도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브레스트강화시기에,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브레스트강화의 조건을 용인함이 필요하다는 그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부하린의 충의이며 합리적 지도이다.

외이코브는 여기에서 합의적 사업의 필요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에 있어서 그는, 그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합의적 사업을 지지하는 때 정치국의 다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국 다수에게 허물을 찌우려하였다. 이에 있어서 외이코브는 자기의 생명을 확증하는 사실을 한가지도 들지 아니하였다.

이 외이코브식 허언을 폭로시키기 위하여 외이코브가 어떻게 합의적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회여주는 몇가지 사실, 몇가지 실례를 들려한다.

첫째 실례. 여러분은 미국에 금을 수출하던 역사를 아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다수는 미국으로 금을 수출한 것이 인민위원회의 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중앙위원회의 동의하에서나 혹은 중앙위원회의 승인하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지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이 사건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금을 수출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위반하였던 것이다. 누가 그 수출을 허가하였는가? 사실 금의 수출은 외이코브의 어느 한 대리가 외이코브의 승인과 동의하에서 허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무슨 협의적 사업인가?

둘째 실례. 문제는 十月革命 후에 소유물산이 국유화 되었으므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한 개인영 대은행과의 교섭에 대한 것이다. 우리 국립은행 대표가 이 은행으로 더브러 그 손해배상 조건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위원회에서 알게 되었다.

개인 손해배상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외 정책에 직접 관계가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혹시 이 교섭이 인민위원회의나 중앙위원회의 허가로 진행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지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이 사건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이 교섭이 있을 후후에 알고 교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섭을 누가 허가하였는가? 함에 있다. 사실 이 교섭은 피이프브의 한 대리가 피이프브의 승인 및 동의하에서 허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무슨 협의적 사업인가?

셋째 실례. 골라크층과 중농민층에 농업기계를 공급함에 대한 문제이다. 피이프브의 로련(露聯) 문제에 관한 대리한 사람을 의장으로 한 로련 경제회의에서 중농민층에 대한 농업기계공급물을 축소시키고 농촌의 상층부분 즉 골라크층에 대한 기계공급물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음에 대한 문제다. 로련 경제회의의 그 반당적 이오 반쏘베트적인 결의원문은 이러하다.

「카자흐자치공화국, 마스키트자치공화국, 켈비리아변강, 니스비—월가변강, 스테드네—월가주 및 본항(本項)에 저지른 농업기계 및 농업기구 판매를 농촌상층부분에 대하여서는 二〇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농민층에 대하여서는 三〇퍼센트까지 인상할 것」.

우랄주에서는
인상하고 중

당이 골라크에 대하여 심하게 진격하였고 골라크층에 대처하여 빈농중농군중을 조직하던 시기에 로런경제회의는 중농민층에 대한 기계공급물을 인·하하고 농촌상층부분에 대한 공급물을 인·상할 결정을 채택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배년적、공산주의적 정책이라 칭하였다!

그후 중앙위원회는 이 사건을 알고 경제회의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누가 이 반쏘베트적 결정을 승인하였는가? 그것은 퇴이코브의 대리한사람이 퇴이코브의 허가와 동의로 받아가지고 승인하였다.

이것이 무슨 협의적 사업인가?

퇴이코브와 그 대리들이 협의적 사업을 어떻게 실현함을 퇴임에는 이러한 실례뿐이라 도 녀겨한듯하다.

ㄷ, 우경파의 투쟁에 대하여

부하린은, 그의 말에 의하면 우리 당 단체들에게 「검토(檢討)를 당하는」 정치국 위원 세 사람이 「사회적 매장(社會的埋葬)」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당은 정치국 세위원 즉 부하린, 퇴이코브, 톰즈끼 등이 「할수없이」 입을 다물고 있게 된 그때에 그들의 오류를 출판물과 회의에서 비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하였다고 하였다.

동지들, 이 모든것은 아무 까치없는 말이다. 이것은 당이 우경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당을 해이(解弛)케하려고 시도하는 자유주의적 행동을 가진 공산주의자의 거짓말이다.

부하틴의 생각에 의하면 그와 밋 그의 친구들이 우정적 오유에 빠진이상 당은 이 오유를 폭로시킬 권리가 없는것이오 당은 반듯이 우경과의 투쟁을 그만두어야 할것이오 그리하여 부하틴과의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오유를 포기(拋棄)하고 싶게될 그 모멘트를 기다리어야 할것이다.

부하틴은 우리에게서 너무도 많은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닌가? 그는 그가 당을 위하여 있는것이 아니라 당이 그를 위하여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지않는가? 그런데 당전체가 우경에 반대하여 동원되었으며 또 난관에 대하여 결정적 돌격을 하는 이때에 누가 그로하여금 입을 다물게하며 안정(安靜)한 상태에 있도록 강요하는가? 어찌하여서 부하틴 밋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지금에 있어서 우경과 그 융화과에 반대하여 진출하지 않으며 또 한 결정적 투쟁을 아니하는가? 만일 그들이 그렇게 어렵지않은 그행동을 단행하였을것 같으면 당이 부하틴 밋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환영하였을것은 과연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서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의무적인 그행동을 단행하지못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그루빠의 리익을 당과 밋 당의 총로선의 리익보다 더 중하게 내세우는까닭이 아닐가? 우경과 투쟁하는데 있어서 부하틴, 퇴이크브, 뎀쓰께가 거기에 참가하지않게 되었다는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정치국위원 세사람에게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한다는 이야기는 당으로하여금 우경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있게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그만두게하려는 정치국위원 세사람의 번번치못하게 가장한 지도인것이 명확하지않는가?

우경과 투쟁하는것을 우리당의 제2차적 임무로 간주할수없는것이다. 우경과 투쟁하는것은 우리당의 결정적 임무중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자기자체가운데서, 자기의 당사체 안에서, 운동을 지도하며 또 프롤레타리아트를 앞으로 인도하는 그의 정치적 참모부안에

서——만일 우리가 이 참모부의 자체안에서 당을 문란케하며 노동계급을 와해시키며 우 리정책을 「쏘메트적」 부르조아지의 입맛(口味)에 맞게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난관앞에서 굴복하려고 시도하는 우경분자들의 자유존재와 자유활동을 용허한다면——만일 우리가 이 모든것을 용허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혁명을 저지(沮止)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을 와해(瓦解)시키며 난관을 피하여 달아나며 자본주의적 분자들에게 진지를 양도(讓渡)하려는데 준비되고있음을 의미하는것이 되지않을까?

부하된 그루빠가 우경과 투쟁함을 거절하는것은 노동계급에 반역함이오 혁명에 반역함임을 의미하는것인줄을 이해하는가?

부하된 그루빠는, 우경 및 그와의 융화파를 극복함이 없이는 우리의 앞에 나서고 있는 난관들을 극복할수 없으며 이 난관들을 극복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의 결정적 성과를 달성할수 없는것을 이해하는가?

모든것이 이러한 다음에야 정치국위원三인의 「사회적 매장」을 운운하는 가련한 말공부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니다. 동지들! 부하된과는 「사회적 매장」이라는 자유주의적 공담으로써 당을 놀래우지 못할것이다. 당은, 그들이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과 함께 한 대별에 서서 우경 및 우경파의 융화와 결정적으로 투쟁할것을 그들에게서 요구한다. 당은, 노동계급의 동원을 체계하며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타파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상 난관의 결정적 극복을 조직하기위하여 부하된그루빠에게서 그것을 요구한다.

만일 부하팀과가 당의 이 요구를 실행한다면 그때에는 당은 그들을 환영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그들은 자신을 결책하여야 할 것이다.

六、결론

결론을 하려한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一、우선 부하팀 그루빠의 견해를 성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그루빠의 선언서 또는 이 그루빠의 대표자들의 연설중에 논술되어 있는 그 견해는 당의 로선과 상충될 수 없고 그것이 전적으로 우정의 팀장과 부합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 견해를 성토하여야 할 것이다.

二、부하팀과 까메네브 그루빠와의 비밀교섭은 그것을 부하팀 그루빠의 불충의 및 파당성의 명백한 표현으로 간주하여 성토하여야 할 것이다.

三、부하팀 및 돔쓰끼가 수행한 사적 정책은 당규률의 기초적인 요구조건의 판포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성토하여야 할 것이다.

四、부하팀과 돔쓰끼를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직위에서 해임시키고,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조급이라도 시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는 부득이 그들을 정치국위원성분에서 제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의시켜야 할 것이다.

五、정치국의 각개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회의에서 출연하는 때에 당로선, 중앙위원회 및 그 각 기관의 결정을 조급이라도 거부하지 않게 할 방침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六、당기판지나 쏘베트기판지인 신문잡지에서 당의 로선 및 그 지도기관의 결정이 주
도정신(主導精神)으로 되게 할 방침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七、당, 중앙위원회, 그 정치국의 결정의 기밀(機密)을 알로시키려고 시도하는자들
에게 대하여서는 중앙위원회와 당에서 축출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비상방침을 취해야 할 것
이다.

八、중앙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 연합전원회의의 당내부문제에 관한 결정은 아직 출판
물에 발표하지 말고 그것을 지방 각 당단체 및 제十六차 당대표회의 대표들에게 분급할
것이다.

나의 생각같아서는 이러한 것이 즉 현시상태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출구인 듯하다.

어떠한 동지들은 부하된 및 뚝쓰끼를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즉시 축출하라고 제의
한다. 나는 이 동지들에게 동의하지 아니한다. 나의 생각같아서는 현시에 있어서 그러한 극
도의 방침을 회피할 수 있는 듯하다.

이 • 웨 • 쓰 말 권 저작집 로문판
제一二권 一一〇七페이지.

위대한 전환의 해

十月혁명 十二주년에 제하여

지난해는 사회주의 전설의 모든 전설에서의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이 전환은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결정적 공세의 기치(旗幟) 밑에서 진행되었고 또한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전격의 특성(特性)은, 그 공세가 벌써 우리의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改造) (재건설)의 여러 기본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결정적 성공을 거두게한 점에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당은 신경제정책의 첫계단들에 있어서 우리의 퇴각을 적당하게 리용하여 그 다음, 신경제정책의 그 후 계단들에 있어서 전환을 조직하며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하여 성과있는 전격을 수행하였다는 결론이 생기는것이다.

때닌은 신경제정책을 실시할때에 아래와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는 지금 퇴각한다. 뒤로 퇴각하는셈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것은 처음에 퇴각하였다가 그다음에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일층 더 힘있게 내 뛰려는것이다. 오직 이 한가지 조건 밑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신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뒤로 퇴각하였다: 그것은 퇴각하였다가 앞으로 향하여 가장 완강한 전격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제二十七권 三六一—三六二페이지)。

지난 一년의 총결은 당이 그의 사업에 있어서 레닌의 이 결정적 지시를 성과있게 실행하고 있다는것을 의심없이 말하여준다.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 의의가 있는 경제적 건설 분야에서의 지난 一년간 총결을 해본다면 이 건설에서의 우리의 진격의 성공 즉 지난 一년동안의 우리의 성과는 세 가지 기본적인 모멘트에 귀속시킬수 있다.

一、로동생산물 영역에서

로동생산물 영역에서 결정적 전환을 달성하여낸 이 사실은 지난 一년동안의 우리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중의 하나가 되는것임은 의심할바가 없을가한다. 이 전환은 사회주의적 건설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수백만대중의 창조적 창발성 및 강력한 로동의 양양이 전개되는데서 나타났다. 이점에 지나간 一년동안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성과가 있는것이다.

대중의 창조적 창발성 및 로동의 양양이 전개된것은 세가지 기본적인 토대를 밝아서 격려(激勵)되었다. 즉

(1)、자기비판을 거쳐서 — 대중의 로동의 창발성 및 로동의 적극성을 수박하여놓는 판로주의와 투쟁하는 로선을 밝아서、

(一)、사회주의 경쟁을 거쳐서——프로레타리아적 노동규율을 파괴하는자들 및 결근자(缺勤者)들과 투쟁하는 로선을 밝아서、
(二)、협약조업주간의 조직을 거쳐서——생산에 있는 수구성(守舊性) 및 완고성과 투쟁하는 로선을 밝아서 적대되었다.

그결과에 우리는 노동전선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것은 광대한 우리나라 방방 곡곡에서 노동계급의 추백만대중의 노동의 열성에, 노동의 호소(呼召)와 호응(呼應)에서 나타났다. 이 성과의 의의는 참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것이다. 왜그리냐하면 다만 추백만대중의 노동의 양양 및 노동의 열중만이 노동 생산물의 무진적 장성을 보장할수 있는것인바, 이 장성이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상상할수 없는가닭이다.

태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즉

「로동생산물——이것은 결국 새 사회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이요 가장 주되는, 농노제도하에서 볼수없었던 노동생산물을 조직하며 놓았다. 사회주의는 훨씬 더 높은 새 노동생산물을 조직하여 놓는 그것으로써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도할수 있으며 또한 종국적으로 타도하게 될것이다」
(제二四권 三四二페이지)。

이로부러 출발하면서 태닌은 이렇게 인정하였다. 즉

「우리는, 노동에 대한 열중, 노동에 대한 의지, 완강성으로써 일관되어야 할것이다. 지금 노동자 및 농민들의 가장 급속한 구제와 인민경제의 구제책은 이에 달려있다.」(제二五권 四七七페이지)。

이러한 것이 곧 해년이 당앞에 내세운 임무인 것이다.

지난 一년은 당이 이길로 나가는 도정에 있는 난관들을 결정적으로 극복하면서 그 임무를 성과있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어 주었다.

지나간 一년 동안에 당이 거둔 첫째의 중요한 성과로 말하면 이러하다.

二、공업건설 영역에서

당이 거둔 이 첫째 성과와 밀접히 관련되는 그의 둘째 성과가 있는 것이다. 당이 거둔 둘째 성과 그것은 우리가 지나간 一년 동안에 중공업의 근본적 건설을 위한 추적문제를 대체로 유리하게 해결하였고, 생산수단의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일층 빠른 속도를 취하였고,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야금공업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전제조건들을 만드려 놓은 데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나간 一년 동안에 우리가 거둔 둘째 성과이오 또는 기본적인 성과가 있다. 중공업에 대한 문제에는 특별한 난관이 없다. 우리는 벌써 그 문제를 몇해전에 해결하였다. 일층 어렵고 또 일층 중요한 것은 중공업에 대한 문제이다.

일층 곤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액의 투자를 요구하는 까닭이며, 이 위에 공업관계에 있어서 뒤떨어진 나라들의 력사가 보이며, 주는바와 같이 중공업은 거액의 장기차관(長期借款)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이다.

일층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공업도 건설할 수 없으며, 아무런 공업화도 실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차관

도, 얼마만한 장기 신용대부(信用貸付)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문제가 날카로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명백하게 되어진다.

모든 나라들의 자본가들은, 우리가 자력(自力)으로써 축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리라고, 우리가 중공업의 재건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리라고, 우리가 할수없이 그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되리라하고, 그들에게 예측되리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차관 및 신용대부물 거절한것은 실로 여기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지나간 일년의 총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지나간 일년의 총결의 의의는, 그총결이 자본가 신사들의 타산을 산산히 분쇄하여 버린데에 있는것이다.

지나간 일년은, 소련에 대하여 공공연히 또는 은연히 재정상 봉쇄(封鎖)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가들에게 예측되는대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또는 우리는 자력으로써 축적문제를 성과있게 해결하여 가지고 중공업의 기초를 세워놓았다는것을 보이어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심지어 노동계급의 가장 흉악한 적들까지도 이것을 부인할수 없게 되었다.

사실에 있어서 첫째로 작년에 대규모적 공업에 대한 투자액이 十六억 루블 이상이었는바 그중에서 근 十三억 루블이 중공업에 지출되었었고, 금년에 와서는 대규모적 공업에 대한 투자액이 三十四억 루블 이상에 달하는바 그중에서 二十五억 루블 이상이 중공업에 지출되었으며, 둘째로 작년에는 대규모적 공업의 총생산액이 二三%나 증가되었던바 그중에서 중공업이 三〇%나 증가되었었고, 금년에 와서는 대규모적 공업의 총생산액이

판드시 三二%나 증가될것인바 그중에서 중공업이 판드시 四六%나 증가될것이니까, 중공업의 전설을 위한 축적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극복하여낼수없는 난관이 되지않는것은 참말 명백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전의 속도를 초월하여 가면서 또한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락후성을 뒤에 남겨두고 우리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로선에 있어서 일층 빠른 거름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어떻게 의심할수있을까?

이상의 모든것을 말한뒤에야, 五개년계획의 예정안이 지난 一年에 더 넘쳐 실현되어졌고, 부르조아적 판필가(亂筆家)들이 「달성해낼수없는 환상(幻想)」으로 인정하던것이오 또 우리나라의 우경기회주의자들(부하틴의 그루빠)에게는 공포증을 일으키던 五개년계획의 최대예산안이 사실에 있어서는 五개년계획의 최소예산안으로 전환되어진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을까?

해넌은 다음과같이 같이 말하였다. 즉

「로씨야를 위한 구체적인 것은 다만 농민경영에 있어서의 좋은 수확을 거두는것만으로는 될수없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또는 다만 농민에게 소비품을 공급하여주는 경공업의 좋은 상태만으로도 될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역시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역시 중공업이 필요한것이다. 중공업을 구체하여놓지 않고서는, 그것을 부흥시켜 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공업도 전설하여낼수없는것이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대체 우리는 독립국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중공업은 국가의 보조금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그 보조금을 구하여 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문명한 국가로서——나는 더구나 사회주의적 국가로서라고는 말하지도 않는다——존재하지 못하게 될것이다.」(제二十七권 三四九페이지)。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양있는 인재」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경제건설을 위한, 특수적으로는 공업건설 및 그의 판리를 위한 인재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중공업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축적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큰 성과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중공업의 건설문제는 아직 인재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부터 생기는 당의 임무는 인재문제에 전적으로 착수할 것이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 요새(要塞)를 점령하는데 있다.

지나간 一년동안에 당이 거둔 들쭉성과는 이러하다.

三、농업건설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지나간 一년동안에 거둔 이상의 두가지 성과와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된 당의 세번째 성과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이것은, 우리 농업발전에 있어서 소규모적락후된 개인, 경영으로부터 대규모적이오 선진적인 집단적, 농업으로, 토지의 공동경작으로, 농기—트랙토르정류소으로, 새 기술에 의거하는 아르젤리, 팔호즈으로, 마지막으로는 수백대의 트랙토르와 품바인으로써 무장한 거대한 콤포즈으로의 근본적 전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당의 성과는, 우리가 여러 구역에서 농민의 기본 대중으로 하여금 한갓 소수의 부자—자본가들만이 이익을 얻고 대다수의 농민은 부르기 파산되고 빈궁속에서

근근히 사라지게 되던 이전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부터, 부자—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중농 및 빈농을 실직으로 재무장시키는, 새 기구로써 무장시키는, 프락또르와 농업기계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빈궁과 폴락크의 예속에서 해방되어 공동적으로, 집단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넓은 길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로 방향전환을 성공하게 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당의 성과는, 우리가 막대한 난관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또는 폴락크들과 승려들로부터 속학배 및 우경교회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또는 온갖 암흑(暗黒) 세력의 맹렬한 반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 전환을 농민 자체 속에서 조직하였고 그리하여 빈농 및 중농의 광범한 대중을 자기 뒤에 이끌고 나아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에 몇가지 숫자를 들어보자.

一九二八년에는 쌀호조들의 파종지면적이 一萬四千二百五十萬 헥타르이오 그의 상품곡물생산액은 六百萬 쟈트네르(三千六百萬여루트) 이상이였으며 쌀호조들의 파종지면적은 一萬三千九萬 헥타르이오 그의 상품곡물생산액은 약 三百五十萬 쟈트네르(二千萬여루트) 이었다.

一九二九년에는 쌀호조들의 파종지면적이 一萬八十一萬六千헥타르이오 그의 상품곡물생산액은 八百萬 쟈트네르(근 四千萬七百萬루트) 이었으며 쌀호조들의 파종지면적은 四百二十六萬二千 헥타르이오 그의 상품곡물생산액은 一千三百萬 쟈트네르(근 七千八百萬루트) 이었다.

다쳐오는 一九三〇년에 있어서는 쌀호조들의 파종지 면적이 예정숫자에 의하여 三百二十八萬헥타르가 될것이오 그의 상품곡물생산액은 一千八百萬 쟈트네르(근 一억一千萬루트)가

될 것이며, 플호즈들의 파종지면적은 一千五百萬 헥타르가 될 것이요 그의 상품곡물생산액은 四千九百萬 쉐트베르(근 三억 루드)가 될 것이다.

환언하면 타쳐오는 一九三〇년에 있어서는 플호즈 및 플호즈들에서의 상품곡물생산액은 四억 루드 이상 즉 전 농업에서 상품곡물생산액의 五〇%(농촌밖에서의 류통)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폭풍파같은 발전속도는, 대체로 그 발전속도에서 거대한 전개력으로써 특이한 지어 우리의 사회주의화된 대규모적 공업에서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어떤 대규모적 사회주의적 농업(플호즈적 및 플호즈적)이 위대한 장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가 기적적 장성을 보일것은 참말 명백하다.

플호즈건설의 영역에 있어서의 전이 없었던 이 성공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설명되는 것인바, 그 원인중에서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를 특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공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이 협동조합적 사회성을 배양함으로써 농민대중을 꾸준히 하계 플호즈에로 인도하면서 대중을 교양하는데 대한 태نین적 정책을 실시한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그 성공은 당이, 플호즈운동보다 앞서 내뒤편고하며 법령을 내리는 방법으로써 플호즈를 발전시키려고 시도한 자들(「좌경적」 호언장담하는 자들)과 또는 당을 뒤으로 끌어 당기려고 하며 운동의 꼬리에 떠러져 있게하려고 시도한 자들(우경적 교집불 통자들)과 다 성파있는 투쟁을 전개한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없이는 당은 플호즈운동을 농민자체의 진정한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태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팩트로그라드의 프로페라리아와 팩트로그라드의 수비대 병사들이 주권을 잡을때일 그들은 농촌에서의 전설사업을 위하여 온 곤난을 당하게된것을, 여기에 있어서는 일종 전략적으로 나가야할것을, 농촌에 있어서 저의 공동경작을 지명으로나 법률로써 실시하기를 시도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것을, 이러한 공동경작에 대하여서는 극 소수의 의식있는 농민이나 동의할것이요 농민의 대다수는 이 임무를 세우지 않고있을을 잘 알고있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것 즉 결코 대중의 발점보다 앞서내되지 말아야할것이며 이 대중 자체의 경험으로부터, 이 대중 자체의 두경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자택나을때까지 거다려야하는 그것으로써 국한하였던 것이다」(제二三권 二五二페이지)。

당시 폴호즈전설의 전설에서 막대한 승리를 거둔 이것으로 말하면 당시 레닌의 이 전설상 지지를 정확하게 실행하였던 까닭이다。

둘째로는, 농업 전설사업에 있어서 거둔 이런 미증유의 성공은 조베트주권이 농민들의 새 농구에 대한 요구, 새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자라나는것을 옮겨 참작하였으며 남은 방식으로 토지를 정작하는 조건하에서는 농민의 나날결이 없게되는 형편을 옮겨 참작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모든것을 참작하여서 제때에 농구임대소(賃貸所), 트랙토르대(隊), 농기—트락토르 정류소등을 설치하는것으로, 토지의 공동경작을 조직하는것으로, 폴호즈들을 설치하는것으로, 마지막으로는 폴호즈들의 힘으로써 농민경영에 각방면으로 원조를 주는것으로, 농민에게 대한 원조를 제때에 조직하는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원류력사에서 근로농민대중에게 계동적이며 잠구한 생산상 원조를 주는데 대한 자기의 준비성과 자기의 능력을 사실에 있어서 증명하여준 이러한 주권 즉 조베트주권은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이다。

옛날부터 농구결핍(農具缺乏)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근로농민대중이 팔호즈운동의 길에 나서가지고 이 원조를 짓잡아줘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과연 명백한 일이 아닌가? 그리하여 지금부터는 「농촌에로 주의를 돌리라」는 로동자들의 이전 포어가 아마도 「도시로 주의를 돌리라」는 농민—팔호즈원들의 새포어로써 보충되게될것을 어찌 이상한 일이라 할수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팔호즈 건설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미증유의 성공은 우리나라 선진로동자들이 이 사업을 자기수중에 장악하고 나간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주요지방들에 수백개씩, 수백개씩 널려있는 로동자 작업반들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팔호즈운동에 대한 현존한 또는 앞으로 될수있는 모든 선전원들중에 로동자 선전원들이 농민대중속에서 가장 탁월한 선전원들임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로동자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개인적 소규모 경영보다 대규모적 집단경영이 우월하다는것을 깨닫도록 설득하여낸것이야말로 — 터군나나 현존하여있는 팔호즈들 및 쏘호즈들이 이 우월성을 들어내보이는 명확한 실증이 있는 이상 — 무슨 이상한 일이겠는가?

팔호즈건설의 형식에있어서 우리의 달성, 나의 생각으로는 최근 몇해동안에 얻은 모든 달성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또 결정적인 그 달성은, 실로 이러한 토대위에서 자라난것이다. 四萬—五萬 헥타르를 가진 대규모적 목물공장들을 조직할 가능성 및 적합성(適合性)에 반대하여 진출하던 「과학」의 론거들은 문히지었고 티끌같이 사라져 버리었다. 실천은, 다만 실천만이 「과학」에서 배워야 할것이 아니라 「과학」도 실천에서 배우는것이 해를지 않으리라는것을 한번 더 증명하여 놓고 그 「과학」의 론거들을 배격하여버리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대규모적 거대한 목물공장들이 발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나라인 것이다. 이 「조그마한」 차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저곳에서는, 즉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면적의 토지를 사들이지 않거나 또는 절대지대(絶對地代)를 지불치 않고서는 대규모적 화목공장을 조직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생산에 거대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는 토지 사유제가 존재하여 있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로 절대지대도, 토지매매도 없는 것이니, 이것은 대규모적 목물농장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놓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토지 사유제가 없는 까닭이다.

저곳에서는, 즉 자본가들에게는 대규모적 목물생산은, 최대한도의 리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어쩔든지 소위 평균리윤율에 적응하는 그러한 리윤을 얻으려는 것이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니 그러한 리윤을 얻는 것이 없이는 자본은 대체로 목물생산의 조직사업에 착수할 리해판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로 대규모적 목물생산은 동시에 국가의 경영이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최대한도의 리윤도, 평균리윤율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리윤으로써 국한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때에는 하등의 리윤이 없어도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도 역시 대규모적 목물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규모적 목물생산에 대하여 특전(特典)적 대부도, 특전적 세라도 존재하여 있지 않지만, 사회주의적 부분의 지지를 타산한 쾰베르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특전들이 존재하여 있으며 또는 앞으로는 존재하여 있을 것이다.

존경받는 「과학」은 이 모든것을 잊어버렸다.

우정기회주의자들(부하림의 그루빠)의 단언 즉,

(1)、농민들은 팔호즈로 드러오지 않으리라던,

(2)、팔호즈발전의 급격한 속도는 오직 대중적 불평,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분열단

을 이르기리라던,

(3)、농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대로(大路)」는 팔호즈인것이 아니라. 곧

협동조합이라던,

(4)、팔호즈의 발전 또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진격은 우리나라에 꼭두 없게만들 수 있으리라던 단언들은 문히지었고 티끌같이 사라져버리었다.

이 모든것은 남은 부르조아-자유주의적 폐물과 같이 문히지었고 티끌같이 사라져 버리었다. 첫째로, 농민들은 전천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구역적으로 팔호즈로 들어왔다.

둘째로, 대중적 팔호즈운동은 현후를 약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후에 새

로대, 즉 생산적 토대를 지어주면서 그것을 튼튼케 하여놓는것이다. 지금에는 농민의 기본

적 대중에게 어떤 그뻘뻘한 불평이 만일 있다고하면 그불평은 쏘베트주권의 팔호즈정책

에 대한것이 아니라 쏘베트주권이 농민들에게 기계와 트랙토르를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팔호즈 운동의 장성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대한것임은 심지어 장남이라도 보고있는것이다.

셋째로, 농촌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대로」에 대한 논쟁은 아이헨왈드와 슬렙코브

형(型)의 년소한 소부르조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나 상당한 민해학(煩瑣學)적 논쟁인것이

다. 아직 대중적 팔호즈운동이 없었던 그 때에는 협동조합의 저급형태인 공급 및 판매의

협동조합들이 「대로」가 되었던 것이요, 협동조합의 고급형태인 팔호즈형태가 무대에 나선 그때야 이 팔호즈 형태가 발전의 「대로」가 된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인용호 없이 말한다면 저급(공급—판매의) 형태로부터 고급(생산—팔호즈의)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농업 협동조합의 모든 형태를 통틀어 놓은 레닌의 협동조합안이 농촌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대로가 되는 것이다. 팔호즈를 협동조합에 대립시키는 것은 레닌주의를 모욕하는 것이요 자기 자체의 무지(無智)를 폭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로,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진격이 없이는 또는 팔호즈 및 팔호즈운동의 발전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에 곡물수매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얻은 그 결정적 성공도, 이미 국가의 수중에 저축되어 질때 유용(流用)을 불허하는 그 몇千萬루드의 곡물 저장(貯藏)도 가졌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장님이라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팔호즈—팔호즈운동의 장성으로 말미암아 곡물공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오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팔호즈들 및 팔호즈들의 발전이 급한 속도로 나갈 것 같으면, 한, 두, 세년쯤 지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 1가는 농산국이 못된 다하드라도 제 1가는 농산국들중의 하나가 될 것은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팔호즈운동에서의 세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현재의 팔호즈운동에 있어서 새 것이요 또 결정적인 것은 농민들이 이전처럼 개개의 그루빠로서가 아니라 전촌(全村)적으로, 전면(全面)적으로, 전구역(全區域)적으로, 심지어 전현(全縣)적으로 팔호즈로 드러오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팔호조(八號)로 중농(中農)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곧 농업발전상에 있어 지나간 一년 동안에 쏘베트주권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 주는 근본적 전환의 기초가 있는 것이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 있어서 농민의 기본 대중을 자기 뒤에 인솔하고나 가기에 무능(無能)하다는데 대한 트로츠키주의의 멘셰비크적 「개념(概念)」은 남김없이 분쇄되고 깨트려진다. 지금에는 심지어 장남이라도 중농이 팔호조의 편으로 돌아선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공업 및 농업에 대한 五개년계획은 사회주의적 사회 건설에 대한 五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일이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五개년계획을 축하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일이다.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즉 「자유제의 신성한 원칙」이 회복될 것을 몽상하고 있는 세 계각국 자본가들의 최후의 희망은 문혀지며 터끌로 뺏겨진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의 지탄에 대한 거름(肥料)의 재료로 간주되고 있던 농민들은 그 찬양받던 「자유제」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내어던지고 집단주의의 궤도에로, 사회주의의 궤도에로 넘어서고 있다. 자본주의의 회복에 대한 최후희망은 문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분자들이 공세적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낡은 세계의 모든 힘을 이르게 세우려는 맹렬한 시도들, 제급투쟁을 첨예화시키려는 그 시도들은 특히 이것으로써도 절명되는 것이다. 자본은 사회주의에로 「변생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자본의 쇄사살에 얽매인 주구인 프트루워, 제센, 밀류교브, 케렌스끼, 단, 아브라모위츠류가 불췌비즘에 반대하여 그 영악스럽게 짓는 소리도 또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최후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 어찌 히롱할 수 있으랴.

계급적 적들의 이와 같은 광적 발악과 자본의 주구들의 이와같이 미쳐 날뛰는 것음(吠聲)은 당이 사회주의적 건설의 가장 어려운 전선에서 참으로 결정적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더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오직 공동적, 집단적, 협동적, 아르켄리적 로지정작의 우월성을 사실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보이며 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타야만, 오직 협동적, 아르켄리적 경영의 도움으로써 농민을 도와 주게 되는 경우에 타야만, 오직 그럴 때에야만 자기 손에 국가 주권을 잡고 있는 로동계급은 참으로 농민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주게 될 것이며 참으로 수백만의 농민대중을 온통하게 또는 확실하게 자기의 편으로 인입할 수 있는 것이다」(제24권 五七九페이지)。

레닌은 수百萬의 농민을 로동계급의 편으로 인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농민을 끌어들인 설의 계도에로 넘겨제우는 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이렇게 세웠다.

지나간 一년은 당이 이 임무를 실행하는 길에 있는 모든 또는 온갖 난관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 가면서 그임무를 성과있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중농층은 다만 우리가 그들 생활의 경제적 조건들을 경이케 하여 주며 또는 개선하여 주는 그때에라야만 우리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내일에 十만대의 일동가는 트랙토르를 내어 주고 그 트랙토르에 취발유를 공급하여 주고 그 트랙토르에 운전수들을 보낼 수 있다면(여러분은 아직 이것이 환상인 것을 잘 아는 바이다) 중농은 「나는 공산에 찬성하오」(즉 공산주의에 찬성하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제 부르조아지들을 승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 부르조아지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트랙토르들을 내어 주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력으로 그 트랙토르들을 공급하여 주리만치 우리의 생산능력을 높이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오직 이렇게 세우는 것만이 정당하게 될 것이다」(제二四권 一七〇페이지)。

레닌은 중농을 기술상으로 고쳐 무장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중농을 공산주의의 편으로 인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이렇게 제웠다.

지나간 一년은 당이 이 임무도 성파있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어 주었다. 닥쳐오는 一九三〇년도 봄에 가서는 우리의 전야(田野)에는 六萬대 이상의 트랙토르가 있게 될 것이며 그 뒤에 一년을 지나서는 十萬대 이상의 트랙토르가 있게 될 것이며 또 두해를 지나서는 二十五만대 이상의 트랙토르가 있게 될 것은 일반이다. 아는 바이다. 몇해전에 「환상」으로 인정되었던 그것을 지금 우리는 훨씬 초월하게 현실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농이 「공산」의 편으로 돌아선 원인은 곧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의 셋째 성파로 말하면 이러하다.

이러한 것이 지나간 一년 동안에 거둔 당의 기본적 성파들이다.

결론

우리는 대대로 나터오는 우리의 「아라사적」 락후성을 뒤에 던져버리고 전속력을 다하여 공업화의 길을 밟아 사회주의에로 나아간다.

우리나라는 금속공업의 나라로, 자동차화한 나라로, 프락포르화한 나라로 되어간다.

그리하여 쏘련을 자동차에 앞이고 농부를 프락포르에 앞이게되는 그때에는——자기의 「문명」을 가지고 전방지고 점잔은 쳐하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라와 보라고 하리라. 우리는 그때에 가서 여타 나라들중에서 어떤 나라들이 후진국들로, 어떤 나라들이 선진국들로 「규정」되게 되는가를 두고 보려한다.

一九二九년 十一月 三일。

一九二九년 十一月 七일부

「뵤라보다」 제二五九호

이·웬·쓰탈린 저작집 五문판
제一二권 一一八—一三五페이지

조선에서의 농업정책 제문제에 관하여

一九二九년 十二月 二十七일 함스주의자
농업문제 전문가 대표회에서 진술한 연설

동지들! 현모멘트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기본적 사실, 일반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곧 **팔호즈운동**이 굉장하게 장성하는 그 사실이다.

현재의 **팔호즈운동**의 특점은 총래에 있었던바와같이 빈농층의 개개의 그루빠들만이 팔호즈에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또한 중농들도 대중적으로 팔호즈로 들어오는데 있는것이 다. 이것은 팔호즈운동이 근로농민의 개개의 그루빠와 일부분의 운동으로부터 추백만농민의 기본적 대중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유력하게 자라나는 반(反) 팔라크적, 농사태와같은 성질을 띤 팔호즈운동이 그 나가는 길에서 팔라크의 반항을 쓸어던지며 팔라크층을 분쇄하여 버리며 그리하여 농촌에서 광범한 사회주의적 건설을 위한 길을 개척하는 그 막대하게 중요한 사실은 특히 이것으로써 설명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적 건설의 실천상(實踐上) 성과를 가지고 자랑할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특수적으로는 농업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리론상 사업성과에 대하여서는 그와 똑같은것을 말할수 없는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리

론적 사색이 우리의 실천상 성과를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실천상 성과와 이론적 사색의 진보와의 사이에 약간의 간극(間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론상 사업은 사실 다만 실천상 사업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실천가들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무장시켜주면서 실천사업보다 반드시 앞서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론의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겠다.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는 바이다. 이론은, 만일 그것이 진정한 이론이라면 실천가들에게 방향을 정하는 힘, 명확한 전망, 사업에 있어서의 확신, 우리사업의 승리에 대한 신념(信念)을 주는 것임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행은, 우리가 참말 이 영역에 있어서 즉 우리의 경제에 대한 문제들을 이론상으로 구명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리를 걸기 시작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사회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의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부르조아적 및 소부르조아적 이론이 아직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써 설명할가? 그 이론들, 사ibi 이론들이 지금까지도 당연한 배경을 당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써 설명할가? 부르조아적 및 소부르조아적 이론들에 대한 가장 진정한 해독제(解毒劑)가 되는 맑스—레닌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여러가지 기본적 명제(命題)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며 그것이 우리의 출판물에 널리 소개되지 않으며 그것이 웬일인지 첫 자리에 내세워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엇으로써 설명할 것인가? 맑스—레닌주의적 이론의 토

대위에서 부르조아적 리론들과 불가상용적 투쟁을 함이 없이는 계급적 적들에 대한 완전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리해하기 어려운 일이겠는가?

새 실천은 파도기의 경제의 문제들에 대한 새 취급법을 발생시킨다. 지금에는 실정 제 정책에 대한, 계급에 대한, 건설의 속도에 대한, 편후에 대한, 당의 정책에 대한 문제 가 새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천에서 떠러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지금 곧 이 문제들을 새 환경의 전지에서 구명하는데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실천가들의 머 리를 어지럽게 하는 부르조아적 리론들을 극복하여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완고한 편견으로 굳어진 그 리론들을 근절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다만 리론에 있는 부르조 아적 편견과의 투쟁에서만 맑스-레닌주의의 진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제 그 소위 리론이라는 부르조아적 편견(偏見)들 중에서 비록 몇 가지만이라도 들 어 그것을 평가하는 데로 넘어가려 하며 그 리하여 우리 건설에 대한 몇 가지 중심문제들을 밝 힘으로써 그 리론의 무능력을 들춰내 보이려고 한다.

一. 「균형」론

여러분은, 우리의 인민경제의 제부분(부문)간의 소위 「균형」론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아직까지도 유행하고 있음을 물론 알 것이다. 이 리론은 물론 맑스주의와 아무런 공통 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 이 리론 그 자신은 우경진영에 속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선전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적 부문——이것은 일종의 상자(箱子)다——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밖에 우리는 비사회주의적 부문, 즉 자본주의적 부문——이것은 다른 상자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개의 상자는 서로 다른 때——무에 놓여있으며 그리하여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서 평화를 계속으로 끌어 나간다. 기하학(幾何學)에 의하여 평행선이 서로 교합(交合)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 훌륭한 이론의 창안자들은, 그 어느 때에 이 두평행선이 교합될 것이오 그리하여 그것이 교합되는 때면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있어서 이 이론은 그 소위 「상자」뒤에는 계급들이 서있으며 그리고 이 「상자」들의 운동은 맹렬한 계급투쟁, 생사를 결단하는 투쟁, 「누가 누구를」하는 원칙에 의한 투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잊어버린다.

이 이론이 레닌주의와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못한 것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 이론이 객관적으로 개인적 농민경영의 진지를 고수하며 골라크분자들의 골호츠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새」리론적 무기로 무장하여주며 골호츠의 진지를 훼손하려는 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은 것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그 이론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출판물에서 유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우리의 리론가들의 측으로부터 상당한 배격(排擊)을, 더군다나 치명적(致命的)배격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일은 우리의 리론적 사색의 나후로써 밖에 야달리 무엇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맑스주의의 보물고에서 재생산리론(再生産理論)을 고집하여 그것을 각부분간의 균형론에 대립시켜만 놓으면 이 부분간의 균형론은 아무 자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사실

상 재생산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은, 현대사회는 년년히 축적되지 않고서는 발전될 수 없다는 것과 또 년년히 확대 재생산이 없이는 축적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또 알만한 일이다. 우리의 집중된 대규모적 사회주의 공업은 확대 재생산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해마다 그 응적으로 보아 자라나며 자체의 축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활보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규모적 공업은 인민경제의 전부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인민경제에는 아직까지도 소농경영이 우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소농경영이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 의하여 발전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소농 경영은 그의 대부분이 해마다 확대 재생산을 실현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는 심지어 단순한 재생산도 실현할 가능성을 아주 드물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확대 재생산을 하기에 무능한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의 인민경제에 있어서 우월한 세력으로 되어 있는 그 소농경영과 같은 그러한 농업토대를 가지고서 사회주의화된 우리공업을 일층 빠른 속도로써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을까? 아니다, 전진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다 소간 장구한 시기에 걸쳐 쏘베트주권 및 사회주의적 전설을 서로 다른 두 기초 즉 가장 대규모적인 통일된 사회주의적 공업의 기초와 가장 분산되고 뒤떨어진 소상품적 농민경영의 기초에 토대 둘 수 있었을까? 아니다, 토대 둘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조만간에 전인민경제의 완전한 붕괴로써 끝나게 될 것이다.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출로는, 농업을 대규모화하며 그로하여금 축적을 하기에, 확대 재생산을 하기에 능력이 있게 만들며 이와 같이 하여 인민경제의 농업토대를 개조하여 놓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대규모화할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서는 두가지 길에 있는 것이다. 한 길은 농업에 자본주의를 부식(扶植)하는 방법으로 농업을 대규모화하는데 있는 자본주의적 길이니, 이 길은 농민을 빈곤화시키며 또 농업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기업소들을 발전시키는 데로 나가게 하는 길이다. 이 길은 쏘베트경제와 병행할 수 없는 길로서 우라한데 배치되는 것이다.

다른 길은 농업에 골호즈 및 쏘호즈를 부식하는 사회주의적 길이니, 이 길은 과학 및 기술로써 무장한 대규모적 집단경영으로 소농경영을 단합시키며 또 이 집단경영은 확대 재생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본즉 문제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즉 첫째 길을 택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두번째 길을 택하겠는가, 자본주의에로의 후퇴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에로 전진하겠는가? 어떠한 다른 셋째 길은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균형」론은 셋째 길을 세워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 이론은 실로 이 셋째 길(존재하지 않는)을 타산하였기 때문에 그는 공상(空想)적 반(反)맑스주의적 이론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맑스의 재생산리론을 부문간의 「균형」론에 대립시키면 농으면 부문간의 「균형」론은 아무 자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어째서 우리의 맑스주의자—농업문제전문가들의 측으로부터 이런일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가소로운 「균형」론은 우리의 출판물에서 유행되어있고 재생산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은 과문쳐있는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二、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자연발전」론

정치경제학상의 틀째편전, 즉 부르조아적식(式)의 틀째 이론에로 넘어가자.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못한 이론이지만 우경진영에 속한 우리의 동지들이 열심히 선전하는 이론인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서의 「자연발전」론을 두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창안자들은 대략 아래와 같이 단언한다. 즉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가 있었다. 공업은 자본주의의 로대우에서 발전되었고 농촌은 자본주의적 도시의 모양과 형상대로 변형되어 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발전적으로 자본주의적 도시의 뒤를 따라갔다. 만일 자본주의에 있어서 사태가 이렇게 되어 나갔었다면 어찌서 소비트경제하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인가? 어찌서 농촌, 소농경영은 사회주의적 도시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연생장적으로 변형되어가면서 사회주의적 도시의 뒤를 자연발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겠는가? 이 이론의 창안자들은 이에 론거하여가지고 농촌은 자연발전적으로 사회주의적 도시의 뒤를 따라가리라고 단언한다. 하여튼 농촌이 사회주의적 도시의 뒤를 따라갈것인데야 우리가 팔호즈 및 콥호즈의 조직을 위하여 열중할 필요가 있을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을가? 하는 문제가 여기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어주는바,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팔호즈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들의 주중에 새무기를 내어주는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는 다른 한개의 이론인 것이다.

이 이론의 반(反) 맑스주의적 본질에 대하여서는 아무 의심할것도 없는바이다.

우리의 이론가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실천자—골초즈원들의 머리를 혼잡케 하는 이 피상한 이론을 분해하지 못한 것이야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가?

개인 소농민적 농촌에 대한 사회주의적 도지의 지도적 역할이 거대하고 무한히 가치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에 곧 농업에 대한 공업의 개조적 역할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전설사업에서 소농민적 농촌이 스스로 자연발전적으로 도지를 따라가게 하는 때는 이 요인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아니,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농촌이 자연생장적으로 도지를 따라간다는 것은 도지의 자본주의적 경제와 농민의 개인적 소상품적 경영이 그 기본에 있어서 동형(同型)의 경제인 까닭이다. 물론 소농민적 상품경제는 아직 자본주의적 경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제에 의거하는 것으로 그 기본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제와 동형이 되는 것이다. 케닌이 『과도기의 경제』라는 부하틴의 소책자에 관하여 쓴 그의 평주(評註)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추향(趨向)』과 반대로 『농민의 상품—자본주의적 추향』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천편이나 옳은 말인 것이다. 『소생산은 부단적으로, 날마다, 시각마다 자연생장적으로 또는 큰 범위로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낳는다.』(케닌)는 것은 실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그런즉 소상품적 농민경제가 그의 기본에 있어서 도지의 사회주의적 생산과 역시 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맑스주의와 인연을 끊지 않고서는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것은 명료한 일이다. 그렇지않다면, 케닌은 『우리가 아직 소농민적 나라에 사는 동안에는으로써

二、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자연발전」론

정치경제학상의 둘째편견, 즉 부르주아적식(式)의 둘째 리론에로 넘어가자.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못한 리론이지만 우경진영에 속한 우리의 동지들이 열심히 선전하는 리론인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서의 「자연발전」론을 두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이 리론의 창안자들은 대략 아래와 같이 단언한다. 즉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가 있었다. 공업은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발전되었고 농촌은 자본주의적 도시의 모양과 형상대로 변형되어 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발전적으로 자본주의적 도시의 뒤를 따라갔다. 만일 자본주의에 있어서 사태가 이렇게 되어 나갔었다면 어찌서 소베트경제하에 있어서 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인가? 어찌서 농촌, 소농경영은 사회주의적 도시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연생장적으로 변형되어가면서 사회주의적 도시의 뒤를 자연발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겠는가? 이 리론의 창안자들은 이에 묻거하여가지고 농촌은 자연발전적으로 사회주의적 도시의 뒤를 따라가리라고 단언한다. 하여튼 농촌이 사회주의적 도시의 뒤를 따라갈 것인테야 우리가 팔호즈 및 쏘호즈의 조직을 위하여 열중할 필요가 있을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을가? 하는 문제가 여기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어주는바,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팔호즈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들의 추중에 새무기를 내어주는 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는 다른 한개의 리론인 것이다.

이 리론의 반(反)맑스주의적 본질에 대하여서는 아무 의심할 것도 없는바이다.

우리의 리론가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실천자—골호즈원들의 머리를 혼잡케 하는 이 피상한 리론을 분배하지 못한 것이야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가?

개인 소농민적 농촌에 대한 사회주의적 도시의 지도적 역할이 거대하고 무한히 가치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에 골 농업에 대한 공업의 개조적 역할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서 소농민적 농촌이 스스로 자연발전적으로 도시를 따라가게 하는 데는 이 요인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아니,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농촌이 자연생장적으로 도시를 따라간다는 것은 도시의 자본주의적 경제와 농민의 개인적 소상품적 경영이 그 기본에 있어서 동형(同型)의 경제인 까닭이다. 물론 소농민적 상품경제는 아직 자본주의적 경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자유제에 의거하는 것으로 그 기본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제와 동형이 되는 것이다. 레닌이 「파도의 경제」라는 부하민의 소재자에 관하여 쓴 그의 평주(評註)에 「프로페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추향(趨向)」과 반대로 「농민의 상품—자본주의적 추향」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첫번이나 옳은 말인 것이다*。「소생산은 부단적으로, 날마다, 시각마다 자연생장적으로 또는 큰 범위로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낳는다」(레닌)는 것은 실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품적 농민경제가 그의 기본에 있어서 도시의 사회주의적 생산과 역시 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맑스주의와 인연을 끊지 않고서는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것은 명료한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레닌은 「우리가 아직 소농민적 나라에 사는 동안에는 로씨

야에서 공산주의를 위하여서보다 자본주의를 위하여서의 경제적 토대가 일층 더 튼튼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본즉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자연발전」론은 반(反) 레닌주의적인 부패한 이론이다.

그리고 본즉 소농민적 농촌이 사회주의적 도시를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것 이외에도 또한 사회주의적 도시를 선두에 세우고 농민의 기본적인 대중을 자기 뒤에 끌고 나갈 수 있는 사회주의의 토대인 싹호즈 및 싹호즈 형식의 대규모적 사회주의적 경영을 반드시 농촌에 부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즉 사회주의적 건설에 있어서의 「자연발전」론은 반(反) 맑스주의적 이론인 것이다. 사회주의적 도시는 반드시 농촌에 싹호즈 및 싹호즈들을 부식하여 농촌을 새로운 사회주의적 조자(調子)에 맞게 개조하면서 소농민적 농촌을 자기의 뒤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건설에서의 반(反) 맑스주의적인 「자연발전」론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리론가들—농업문제전문가들의 편으로부터 상당한 배격을 당하지 않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다.

三、소농민경영의 「안정성(安定性)」론

정치경제학에 있어서의 셋째 편견으로, 즉 소농민경영의 「안정성」론에로 넘어가자. 대규모적 경영이 소규모적 경영보다 우월하다는 일반이 다 아는 맑스주의의 제제에 대하여, 마치 그 제제는 다만 공업에서만 효력이 있는 듯하고 농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듯이

말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부르주아적 정치경제학의 론박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이에 이
리론을 설교하는 다비드나 게르츠 따위의 사회—민주당 리론가들은 소농민은, 전멸성이
있으며 참을성이 있으며 자기의 땅파야기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아무런 고생이라도 다
견디어 내려고 한다는, 이러하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소농민 경영은 대규모적 경영과
투쟁함에서 안정성을 발현한다는 그 사실에 「론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같은 「안정성」은 온갖 불안정성 보다도 더못한것임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
반(反)맑스주의적 리론은, 다만 소농민의 백만대중을 파산하는 자본주의제도를 찬양하며
공고히하려는 그한가지만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 리론은
실로 이러한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곧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그 리론을 그렇
게 쉽게 깨트려내었던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천, 우리의 현실은 이
리론에 반대하는 새 론중거리를 내어주는데 우리의 리론가들은 어떻게된 일인지 로동계
급의 적들에 반대하여 이 새로운 무기를 리용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리용하지 못하
고있다는데 있는것이다. 나는 로지에 대한 사유제를 없애버린 실천, 우리나라에서 로지를
국유화한 실천, 즉 소농민을 자기의 땅파야기에 대한 그의 노예적 의존심(依存心)으로
부터 해방시키며 또한 그렇게함으로써 소규모적 농민경영으로부터 대규모적 집단적 경영에
로 넘어가는것을 쉽게하여주는 실천을 넘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서구라파에서는 무엇이 소농민을 그의 소상품적 경영에 과거에도 억
매어 두었으며 현재도 억매어두고 있으며 또한 장래에도 억매어두게 될것인가? 무엇보

다도 먼저 또는 주로 자기소유의 땅피야기의 존재, 토지에 대한 사유제의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땅피야기를 사놓기 위하여 몇해물 두고 돈을 모았다. 그리하여 그는 땅을 사놓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땅피야기와 인연을 끊지 않으려고 하며 모든 또는 온갖 고생을 다 견디더라도, 미개(未開) 빈궁상태에 빠지더라도 그의 개인경영의 기본인 자기의 땅피야기를 고수하려고만 하는 것은 알만한 일일 것이다.

이 동인(動因)이 역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쏘베트제도의 조건하에서도 계속하여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토지에 대한 사유제가 없는 까닭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실로 토지에 대한 사유제가 없는 까닭에 서구에 있는 것과 같은 땅피야기에 대한 농민의 그 노예적 애착심(愛着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정은 소농경영이 플호즈의 계도로 넘어가는 것을 쉽게 하여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곧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국유화한 조건하에서 농촌의 대·규·모·적·경영, 농촌의 플호즈들이 소·규·모·적·농민경영보다 자체의 우월성을 그렇게도 쉽게 들어내 보일 수 있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곧 여기에, 절대지대(絕對地代)를 없애 버리었고 토지에 대한 사유제를 폐지하였고 토지의 국유화를 제정하여 놓은 쏘베트의 토지법령들의 거대한 혁명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부터는, 대·규·모·적·경영과 투쟁함에 있어서의 소농민적 경영의 안정성에 관한 하여 선언하는 부르조아적 경제학자들에 반대하는 새 론증거리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어찌하여서 우리의 이론가들—농업문제전문가들은 모든 또는 온갖 부르주아적 이론들에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 이 새로운 론중끼리를 충분하게 리용하지 않는가?

우리는 토지의 자유화를 실시할 때에 특히 이론적 사색의 가장 풍부한 보물고를 이루어주는 「자본론」 제3권,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이란 맑스의 유명한 저서와 레닌의 토지문제에 대한 저서들에 있는 이론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나는 일반적으로는 지대론(地代論), 특수적으로는 절대 지대론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에는 이 저서들에 있는 이론적 명제들이 도시 및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실천으로써 뚜렷하게 실증된것은 명백한것이다.

다만 리해못할것은, 어째서 차야노브 따위의 「소베트」 경제학자들의 반(反) 과학적 이론들은 우리의 출판물에서 자유롭게 유행되는 데 지대론 몇 절 대자 때문에 대한 맑스, 엥겔스, 레닌의 경제적(莫才的) 저서들은 널리 소개되지 않으며 책자리에 내세워지지 않으며 과묵히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농민문제」에 대한 엥겔스의 유명한 소책자를 아마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은 물론 엥겔스가 소농민들을 공동적 경영의 길로, 집단적 경영의 길로 넘겨세우는 문제를 어떻게 신중하게 취급하였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엥겔스의 소책자에서 해당한 문구를 인용하려고 한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소농민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소농민이 팽팽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만일 그가 공동경영에로 넘어가기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그것을 쉽게 하여 주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만일 그가 아직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에게 자기의 땅의 자기에게서 농사하면서 공동경영에로 넘어가는 데 대하여 생각하여 볼 시간을 가급적으로 많이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 방점은 나의 것 — 이 스탈린

여러분은 앵겔쏜가 개인적 농민경영을 집단주의의 궤도로 넘겨제우는 문제를 어떻게
 계 신중(慎重)하게 취급하는것을 보는바이다. 열는보기에는 과도(過度)한듯한바의 앵겔
 쏜의 이러한 신중성은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이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데로부터 출
 발하였는가? 그는 토지에 대한 사유제의 존재로부터, 농민에게는 「자기의 땅파야기」가
 있으므로 그농민이 그 땅파야기와 인연을 품기 어려우리라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한것은
 명백하다. 서구의 농민들은 그러한것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제가 있는 자본주의적 나
 라들의 농민들은 그러한것이다. 거기에 있어서 막대한 신중성이 필요한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 쓰련에도 역시 이러한 형편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니, 그렇다고 말할수
 없다. 왜그러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농민을 그의 개인경영에 맡겨 놓는 토지에 대한
 사유제가 없는 까닭이다. 왜그러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개인적 농민을 집단주의의 궤도로
 넘기는 사업을 쉽게하여주는 토지의 국유화가 있는 까닭이다.

이에 곧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플호즈운동이 그렇게도 비교적 용이하게, 급속하
 게 발전되는 원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우리의 리론가들—농업문제 전문가들이 서구의 농민형편과 우리나라의 농민형편과의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을 아직 상당히 명확하게 들어내보이기를 시도하지않은것은 섭섭
 한 일이다. 그런데 그와같은 사업은 다만 쏜베트일꾼들인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모
 든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거대한 의의를 가질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자본주의적 나라
 들에서의 프로테타리아혁명에 있어서 그곳에서 프로테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첫날부터 사회주

의를 로지국유화의 로대우에서 전설하게 되겠는가 혹은 그 로대가 없이 전설하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무관심(無關心)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전에 출판된 나의 논문(「위대한 전환의 해」)에서 대구모적 싹호즈들을 두고 말하면서 농업에 있어서 대구모적 경영이 소규모적 경영보다 우월하다는데 대하여 일반이 다 아는론증을 전개하였다. 이 모든 론증들이 대구모적 경제적 단위인 싹호즈들에게도 전체로 또는 완전히 관계되는것임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나는, 농기—드락토르의 로대를 가지고 있는 발달된 싹호즈들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또한 말하자면 싹호즈전설의 마누과두라적 시기에 처하여있는 즉 농민의 농구에 의거하여 있는 초보적 싹호즈들에 대하여서도 말하는바이다. 나는 전반적 싹호즈화된 구역들에서 지금 조직되며 또는 농민들의 생산도구를 단순히 모아 놓는때에 의거하는 그런 초보적 싹호즈들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제로 이전의 돈주(州)의 호프르구역에 있는 싹호즈들을 들어보자. 외형으로 본다면 이 싹호즈들은 기술상 전지로보아서 소규모적 농민경영과 구별되지 않는듯하다(농기가 많지 못하고 드락토르가 많지 못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싹호즈들내에서 농민의 농구를 단순히 모아 놓은것만도 우리의 실천가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러한 성과를 주었다. 그 성과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싹호즈의 계도에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파종지면적을 三〇、四〇、五〇%나 확장시키게 된에서 나타났다. 이 「현훈증」이 날만한 성과는 무엇으로 설명할것인가? 개인로동의 조건하에서는 무능력한자이던 농민들이 자기의 농구들을 모아 놓고 싹호즈에 연합함으로써 위대한 역량으로 변환된 그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농민들이 개인로동의 조건하에서는 경작하기 어려워서 내버려졌던 휴한지와 처너지(處女地)

를 생각할 가능성을 얻은 그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농민들이 처녀지를 자기의 손에 거머쥔 가능성을 얻은 그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공지(空地)、각개의 땅뻐야기、분계지(分界地) 및 기타의 모든 것을 리용할 가능성을 얻게 된 그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내버리었던 휴한지와 처녀지를 경작하는 문제는 우리의 농업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문제가 이전에 토지야에서 혁명운동의 중심(中心)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이다. 농민운동이 토지부족을 없애려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았던 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에 이 토지부족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토씨야에는 소용될만한 공지(空地)가 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에 있어서는 무엇이 판명되었는가? 소련 안에는 몇천만 헥타르의 공지가 있었고 또한 남아 있다는 것이 지금에는 명백한 바이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그 보잘것 없는 농구로써 그 토지들을 경작할 하등의 가능성이 없었다. 농민에게 처녀지와 휴한지들을 경작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참말 그렇기 때문에 농민은 「부드러운 토지」、주지주에게 속하여 있는 토지、개인로동의 조건하에서 농민의 농구를 가지고 경작하기에 편이한 토지를 찾아 간 것이다. 곧 이러한데 「토지부족」의 기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트랙토르로써 무장한 콧물트레스트는 농민이 사용하지 않는 또는 소농민적 농구를 가지고 개인적 로동으로써는 경작할 수 없다. 약 二천만 헥타르의 공지를 리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팔호즈운동의 모든 계단에 있어서 — 그의 초보적 계단에 있어서나 또는 그가 트랙토르로써 무장한 때인 일층 발달된 계단에 있어서나 — 그운동의 의의는 말하자면 농민들이 지금 와서는 휴한지와 처녀지를 리용할 가능성을 얻은 데 있는 것이다. 이에 곧 농민들이

집단적 노동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과충지의 면적이 굉장히 확장되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에 곧 개인 농민경영에 비하여 팔호즈들이 우월성을 가지게 되는 근본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 농민경영보다 팔호즈들이 우월한 것은 전반적 팔호즈화된 구역들에서 초보적 팔호즈들을 우리의 농기—트락토르정류소들과 농기—트락토르대(隊)들이 도와주게 되는 때면, 팔호즈 자체가 자기의 수중에 트락토르 및 품바인들을 집중시킬 가능성을 일찌되는 때면 더욱 논쟁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四、도시와 농촌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이 배식하는 편견 즉 소위「협상가격차(缺狀價格差)」라는 데 대한 편견이 존재하여 있으니 이 편견에 대하여서도 역시, 유감이지만 쏘베트출판물에 전과되고 있는 그 모든 다른 부르조아적 이론에 대하여서처럼 무자비한 투쟁을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마치 十月혁명은 二月혁명보다 농민에게 적게 주었다고 하는, 十月혁명은 말하자면 농민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론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편견을 한동안 「쏘베트」경제학자중 한사람이 우리의 출판물을 통하여 굉장히 선전하였다. 그가, 그 「쏘베트」경제학자가 그후에 와서 그 이론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청중석에서「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로만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트로츠키—지도비에브적 반대파의 손에 쥐어졌으며 그것이 당을 반대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런데 현시에도 이 이론이 「쏘베트」여론계에서 유행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근거가 도무지 없다.

동지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에 관한것이다. 그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성을 없애 버리는 데 대한 문제에 관한것이다. 그는 「협상가적차」에 대한 극히 절박한 문제에 관한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피상한 리론을 토구(討究)하여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十月혁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는것이 옳은가? 사실들을 들어보자.

나에게는 「곡물전선에있어서」라는 나의 논문이 발표된 유명한 통계학자 뎀치노브동의지의 일반이 다하는 통계표가 있다. 이 통계표에 의하면 혁명전 시기에있어서 지주들은 큰 六억루드의 곡물을 「생산」하였다는것이 보인다. 그리고본즉 지주들은 그때에 六억루드나 되는 곡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콜라크들은 그때에 十九억루드의 곡물을 「생산」하는것을 이 통계표가 보여준다. 이것은 그때에 콜라크들이 가지고 있었던바의 매우 큰 힘이였다.

빈농 및 중농으로 말하면 二十五억루드의 곡물을 생산하였다는것이 이 통계표가 보여준다. 이러한것이 이전 농촌, 十月혁명전 농촌의 진상이다.

十月혁명이후에는 농촌에서 어떠한 변동이 생기었는가? 이상에서 말한 그 통계표에서 수확물 른다. 해로 一九二七년을 들어보자. 그해에 지주들은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생산할수도 없었던것은 명백하다. 왜 그러냐하면 十月혁명이 지주들을 섬멸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로말미아마 농민들이 지주의 수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농민들의 형편이 훨씬 험하게 되었으리라는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농민에게 있어서 그들이 十月혁명의 결과에 얻은 큰 리익인것이다.

一九二七년에 **꿀라크**들은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十九억루드이던 대신에 六억루드의 곡물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본즉 **꿀라크**들은 十월혁명 후에 三배 이상이나 약하여졌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빈농과 중농의 형편을 열케하여주지 않을수 없었던것을 깨달을것이다.

그러면 一九二七년에 빈농과 중농은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二十五억루드이던 대신에 四十억루드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본즉 빈농 및 중농들은 十월혁명 후에 혁명이전 시기보다 곡물을 十五억루드나 더 많이 생산하게된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어주는바 빈농 및 중농들이 十월혁명에서 거대한 리득을 받았다는것을 말하여주는 사실들이다.

十월혁명은 바로 이러한것을 빈농과 중농에게 주었다.

이러한때도 어찌 十월혁명이 농민들에게 아무것도 주지않았다고 단언할수있을까?

동지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다. 十월혁명은 토지사유제를 없애버리었고 토지의 매를 없애버리었고 토지의 국유화를 확정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농민이 곡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지금은 결코 토지를 살 필요가 없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그가 토지를 사놓기 위하여 몇해를 두고 돈을 저축하였으며 부채를 질머지며 예속에 석매우면서라도 어쨌든 토지를 사려고 하였다. 토지를 사는데 지출된 비용은 물론 곡물생산의 가격(價格)에 가산(加算)되었었다. 지금은 농민이 토지를 살필요를 느끼지 않는것이다. 지금은 그가 토지를 사지않고서 곡물을 생산할수 있는것이다. 그런즉 농민들이 토지를 사는데 비용되던 수익루블라는 지금 농민의 주머니에 남아있을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형편을 열케하여주는것인가 혹은 열케하여주지않는것인가? 열케하여주는것임은 명백한 일이다.

다음에, 농민들은 최근까지도 개인적 노동으로써 옛날 농구를 가지고 토지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미 쓸모없는 옛 생산기구로써 장비한 개인적 노동은, 꽤 함께 살아가기에, 계통적으로 자기의 물질적 형편을 향상시키기에, 자기의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그리고 사회주의적 전철의 넓은 길에 나서기에 필요되는 그런 리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팔호즈운동을 힘있게 발전시킨후인 지금에 와서 농민들은 자기의 노동을 그의 이웃 사람들의 노동과 연합하며 팔호즈에 연합되며 처녀지를 개간하며 휴경지를 리용하며 기계와 트랙토르를 장만하여 놓으며 이와같이 함으로써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지배아니라면 二배는 향상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에 농민은 팔호즈에 연합한것으로 말미암아 같은로 동을 소비(消費)하고도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즉 이것은 곡물생산이 최근까지 해오던것보다 매우 험가로 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격이 고정된 조건하에 있어서 농민은 그가 곡물을 팔아서 지금까지 받던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어찌하여 十월혁명이 농민에게 리득을 주지않았다고 단언할수있을까?

이러한 허황망설(虛荒妄說)을 하는 사람들은 당과 소비트주권에 대하여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모든것으로부터는 어떠한 결론이 생기는가?

이로부터는, 「협상가격차」에 대한 문제, 「협상가격차」를 청산하는때 대한 문제까지 금에는 반드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이 생기는것이다. 이로부터는, 만일 팔호즈운동

이 지금의 속도로 자라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장래에 「협상가격차」가 없어지게 되리라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부터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새기초우에 세워진다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성이 일층 빠른속도로 없어지리라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동지들, 이사정은 우리의 건설전체를 위하여 가장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의 심리를 변경시키며 농민으로 하여금 도시에도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기반을 이루어 놓는 것이다. 이것은 「농촌에도 관심을 돌리라」는 당의 포여가 「도시에도 관심을 돌리라」는 팔호즈농민들의 포여로써 보충되게 될 기반을 일우어 놓는 것이다.

이에는 이상해할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농민은 지금에 도시로부터 기계, 트랙토르, 농학기사, 조직원들을 받으며 마지막으로는, 팔라크총과 투쟁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데 대한 직접도움을 받는 까닭이다. 도시를 랍탈자(掠奪者)처럼 보아 그에 대하여 극심한 불신임을 가지고있던 낚은 류(類)의 농민은 뒤로 물러간다. 도시로부터 현실적 생산·적원조를 받을 희망을 가지고 그 도시를 쳐다보는 새농민, 팔호즈농민이 그를 교대하여 나서는 것이다. 빈농으로 몰락될가 두려워하며 한갓 숨어가지고(선거권을 빼앗길수 있는) 아니라! — 팔라크의 처지에까지 올라서던 낚은 류(類)의 농민을 교대하여서는 새전망 즉 팔호즈에 가입하여 빈궁과 암매로부터 경제적 향상과 문화수준을 향상하는 넓은길에 나서는 새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새 농민이 나서는 것이다.

동지들, 사례는 이렇게 변천되어 가는 것이다.

동지들, 이럴수록 우리의 리론가들 — 농업문제 전문가들이十月혁명의 전취와 자라나는

팔호즈운동을 들부서어 버리려고 시도하는 모든 온갖 부르조아적 이론들을 쳐 없애며 뿌리까지 때버리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이 더욱 섭섭한 일이다.

五、팔호즈의 본질에 대하여

경제적 형(型)으로서의 팔호즈는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아무 의심할 것도 없다.

로몬자중의 한 사람은 이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팔호즈들을 중상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경제적 조직체로서의 팔호즈들은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않았다 고 말하였다. 동지들, 나는 팔호즈들에 대한 이와 같은 평정은 도무지 옳지 못한 것임을 명언(明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 평정이 실제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못한 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 것이다.

경제적 형(型)은 무엇으로써 규정되는가?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로써 규정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경제적 형(型)을 달리야 무엇으로써 규정할 수 있을까? 팔호즈 안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인 계급과 그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계급이 과연 있는가? 팔호즈 안에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과연 있는가? 팔호즈는 국가에 속한 토지에 사용되는 기본적 생산도구들을 공동화한 것이 과연 아닌가? 경제적 형(型)으로서의 팔호즈들이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중의 하나가 아니라 것을 단언할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물론 팔호즈들 안에는 모순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팔호즈들 안에는 아직까지 없어지

지 않았으나 그러나 세월이 감을 따라서, 팔호즈들이 른하여짐을 따라서, 팔호즈들이 기
제화됨을 따라서 반드시 없어질 그 개인주의적 또는 심지어 골라크적 잔재까지도 있는
것이다. 그안에 있는 여러가지 모순들과 결점(缺點)들까지 통트리닝고라도 그 전체로서의
팔호즈들은, 경제상의 사실로서의 팔호즈들은 대체로 농촌발전의 새 길인것을, 골라크적 자
본주의적 발전의 길과는 정반대로 농촌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인것을 과연 부인할수 있
는가? 팔호즈들은(나는 팔호즈들에 대하여 말하는것이지 거칠 팔호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조건하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요소들과의 맹렬한 전투속에서 자라난
농촌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토대 및 발전지가 되는것임을 과연 부인할수 있는가?

어떤 동지들이 팔호즈들을 중상시키려하며 팔호즈들을 부르조아적 경제형태라고 선포하
려고하는 사도는 아무 근거도 없는것임은 명백하지 않은가?

一九二三年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대중적 팔호즈운동이 없었다. 레닌은 「협동조합에 대
하여」라는 그의 소책자에서 협동조합의 모든 형태 즉 그의 저급형태나(공급—판매의)
최고형태나(팔호즈의 형태) 다 범두에 두었던것이다. 그때에 그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적
기업소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협동조합에 대하여」라는 레닌의 소책자에
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존제도하에서는 협동조합적 기업소들은 집단적 기업소로서 개인—자본주의적 기업소와는 다
르지만은 그러나 만일 그것이 국가에 즉 로동계급에 속한 로지와 생산수단에 기초한것이라면 사회주의적 기
업소와는 다르지 않은것이다」. (제二七권 三九六페이지)。

• 방점은 나의것 — 이 • 요한 뎀。

그리고 본즉, 레닌은 협동조합적 기업소들을 그 자체만 따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현존한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에 속한 토지에서, 생산수단이 국가에 속하여 있는 나라에서 기업소들이 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취급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기업소들을 그렇게 관찰하면서 레닌은 협동조합적 기업소들이 사회주의적 기업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언하였다.

레닌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적 기업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현시기의 팔호즈들에 대하여서는 일층 더 큰 근거를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레닌이, 우리의 조건하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단순한 장성」을 「사회주의의 장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특히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우에 말한 토론자가 팔호즈들을 중상함으로써 레닌주의에 반대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음을 보는 바이다.

이 오류로 부러는 팔호즈안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그의 다른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 토론자는 팔호즈안에서의 계급투쟁을 어떻게 해석하여 묘사하였는지 팔호즈안에서의 계급투쟁은 팔호즈밖에서의 계급투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보다는 더 그 투쟁은 팔호즈안에서 더욱 더 격렬하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 있어서 오류들을 범한 사람은 다만 이우에서 말한 토론자 하나만이 아니다. 계급투쟁에 대한 공담, 팔호즈안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지켜림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좌경」적 발성꾼들의 특징인 것이다. 그런데 이 것거림에 있어서 가장 희극적인 것은, 그 것

거리는 자들은 계급투쟁이 없거나 혹은 거의 없는 곳에서 계급투쟁을 「보고 있으되」 그것이 있으며 또한 차서 넣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플호츠안에는 계급투쟁의 요소들이 있는가? 물론 있는 것이다. 플호츠안에 아직 개인주의적, 심지어 골라크적 심리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이상, 거기에 아직 약간의 물질상태의 불평등이 있는 이상, 플호츠안에는 계급투쟁의 요소들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플호츠안에서의 계급투쟁이 플호츠 밖에서의 계급투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좌경」 공당자들의 오류는 곧 그들이 그 차이점을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플호츠 밖에서의, 플호츠들이 조직되기 전의 계급투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생산수단과 생산도구들을 소유(所有)하고 그 생산수단과 생산도구들을 리용하여 빈농층을 자체에 예속시키는 골라크와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투쟁은 생사를 걸고 하는 투쟁이다.

그런데 플호츠의 토대위에서의 계급투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편저 골라크는 박멸되었고 생산수단과 생산도구들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기본적 생산수단과 생산도구들을 공동화한 토대위에서 빈농 및 중농들이 플호츠들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문제는 플호츠원들의 사이에서의 투쟁에 대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중에서 일부의 플호츠원들은 아직 개인주의적 골라크적 잔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서 플호츠안에 있는 약간의 불평등을 자기에게 리용제 리용하려고 하며 다른 일부의 플호츠원들은 플호츠로부터 그 잔재들과 그 불평

들인 기계 및 트랙트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대규모의 경제형태인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우리의 「좌경」공당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었다.
우리의 토론자도 이것을 잊어버리었다.

六、계급적 변동과 당정책상의 전환

마지막으로, 국내 계급적 변동과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진격의 문제이다.

지난 一년 동안의 우리당 사업의 특징은 당과 소비트정권으로서의 우리가

(一)、농촌의 자본주의 요소들에 대하여 모든 전선을 통하여 전격을 전개하였던 것과,
(二)、이 진격은 다 아는바와 같이 매우 현저한 긍정적 결과들을 주었으며 또한 계속하여 주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풀라크층의 착취적 경향(傾向)을 제한하던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풀라크층을 계급으로 보아 청산하는 정책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책에서 결정적 전환층의 하나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당은 풀라크층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법장에 서 있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정책은 이미 제八차 당대회에서 선언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 정책은 신경제정책을 실시

할 때에와 우리당의 제十一차 대회에서 또 다시 선포되었던 것이다. 레닌이 바로 이 정책의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취급한, 프레오브라센스끼가 내세운 데에 대하여 보면 그의 유명한 서한은(一九二二년) 일말이 다 기억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우리당의 제十五차 대회에서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정책은 옳았는가? 그렇다, 그것은 물론 그때에 옳았었다. 五년전이나 혹은 三년 전에 우리가 골라크층에 대하여 그러한 진격을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는 그러한 진격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아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였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였다면 그것은 진격에 대한 매우 위험한 작난을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 그리냐 하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확실히 실패하였을 것이요 또 실패함으로써는 골라크층의 진지를 튼튼케 하여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어째서 그리냐 하면 우리에게는 농촌에서 골라크층에 반대하는 결정적 진격에 있어서 토대로 될만한 그러한 지주(支柱), 즉 싹호즈들 및 골호즈들의 광범한 망(網)이 없었던 까닭이요, 그때에 우리에게는 골라크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골호즈들 및 싹호즈들의 사회주의적 생산으로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없었던 까닭이다.

一九二六—一九二七년에 지노비예프—트로츠키적 반대파는 당으로 하여금 골라크층에 대한 진격의 정책을 즉시 취하라고 강경히 요구하였다. 당은 이 위험한 모험으로 나가지 않았다. 왜 그리냐 하면 신중한 사람들은 진격에 대한 작란(作亂)을 용허할 수 없는 것을 당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골라크층에 대한 진격은 중대한 일이다. 그것을 골라크층에 반대하는 재담(才談)과 혼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지노비예프—트로

뜨끼적 반대파가 당에 강경히 요구하던 폴라크층을 할퀴는 정책과 혼동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폴라크층에 대하여 진격한다는것——이것은 폴라크층을 과멸한다는것과 그를 계급으로 보아서 청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 목적을 채우지 않는 진격은 재담이오, 할퀴는 것이며, 빈소리 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다 될지언정 다만 진정한 볼셰비키적 진격만은 아닌것이다. 폴라크층에 대하여 진격한다는것——이것은 일을 상당히 준비하여가지고 폴라크를 타격하되 그가 다지는 이터서지 못하도록 그를 타격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것을 우리볼셰비키들은 진정한 진격이라고 부르는것이다. 우리가 五년전이나 혹은 三년전에 그러한 진격을 시행하여 성공을 기대할수 있었는가? 아니다, 기대할수 없었던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一九二七년에 폴라크는 六억루드 이상의 곡물을 생산하였고 이 총액중에서 농촌밖에서의 교환으로 약 一억三千만루드를 실어내었다. 이것은 해아리지 않을수 없는 매우 큰 힘이였다. 그때에 우리의 팔호즈들 및 쏘호즈들은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약 八千만루드를 생산하였는데 그중에서 약 三千五百만루드를 시장으로 실어내어갔다(상품곡물로)。그때에 우리가 폴라크의 생산과 폴라크의 상품곡물을 우리의 볼호즈들 및 쏘호즈들의 생산과 상품곡물로써 바꾸어 놓을수 있었겠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보라. 그럴수 없었던것은 명백한일이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폴라크층에 대한 결정적 진격을 시행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것은, 필연코 실패하며 폴라크의 진지들 힘있게하여줄것이며 곡물이 없이 남아있을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지노비예프——트로츠키적 반대파의 루거적 재담에 반대하여 폴라크층에 대한 결정적 진격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던것이며 또한 시행하지 않았어야 될것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사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지금은 우리에게 폴라크츠를 타격하며 그의 반항을 격파하며 그를 제압으로보아서 청산하며 그의 생산을 폴라크츠들 및 폴호즈들의 생산으로써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물질적 토대가 있는 것이다. 一九二九년에 폴호즈들과 폴호즈들이 四억루드가 못되지 않게 생산한 것은(一九二七년의 폴라크츠 경영의 총생산액보다 二억루드가 적게) 다 아는바이다. 그리고 一九二九년에 폴호즈들과 폴호즈들이 一억三千만루드 이상의 상품곡물을(다시 말하면 一九二七년에 폴라크츠들이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이) 내놓은 것도 다 아는바이다. 마지막으로, 一九三〇년에 폴호즈들 및 폴호즈들의 곡물총생산액은 九억루드가 못되지 않을 것이오(즉 一九二七년에 폴라크츠들이 생산한 총액보다 더 많이) 그들이 四억루드가 못되지 않는 상품곡물을(즉 一九二七년에 폴라크츠들이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주게 될 것은 다 아는바이다.

동지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경제에 이러한 변동이 생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는 바와 같이 폴라크츠의 생산을 폴호즈들 및 폴호즈들의 생산으로써 바꾸어 놓을 만한 물질적 토대가 있는 것이다. 참말 그렇기 때문에 폴라크츠에 대한 우리의 결정적 전격은 지금에 의심할 수 없는 성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진정한 결정적 전격에 대하여 말하려 하며 폴라크츠에 반대하는 공허한 재담으로만 국한하려 하지 않는다면 곧 이렇게 폴라크츠에 대하여 전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와서 폴라크츠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던 정책으로부터 폴라크츠를 제압으로보아서 청산하는 정책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면 꼴라크재산의 물수정책은 어찌하여야 하겠는가, 전반적 집단화 지방들에서 꼴라크의 재산물수를 용허할수 있는가? 고 각처에서 질문들한다. 우수운 질문이다! 우리가 꼴라크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결지에 서고있던 그때에는, 우리가 꼴라크층에 대한 결정적 전격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던 그때에는, 우리에게 꼴라크의 생산을 골조즈들 및 쏘호즈들의 생산으로써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아직 없던 그때에는 꼴라크재산의 물수를 용허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에는 꼴라크재산의 물수를 용허하지않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옳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에는 어떠한가? 지금에는 사태가 달라져 있는 것이다. 지금에는 우리가 꼴라크층에 대한 결정적 전격을 수행하며 그의 반항을 격파하며 그를 계급으로 보아서 청산하고 그의 생산을 골조즈들 및 쏘호즈들의 생산으로 바꾸어놓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는 전반적 집단화를 실현하는 빈농—중농대중들 자체에 의하여 꼴라크재산의 물수가 수행(遂行)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는 전반적 집단화 지방들에 있어서의 꼴라크재산의 물수는 벌써 단순한 행정상 대책만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서 지금 꼴라크재산의 물수는 골조즈들의 창설 및 발전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꼴라크재산물수에 대하여 구구히 말하는것은 우수운 일이며 신중치 못한 일인 것이다. 목을 때여놓은 다음에야 머리털이 아깝다고 울지않을 것이다.

꼴라크를 골조즈에 가입시킬수 있는가 하는 다른 질문도 그보다 못하지않게 우수운 것이다. 물론 그를 골조즈에 드릴수 없는 것이다. 그는 골조즈운동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적(敵)이기때문에 가입시킬수 없는 것이다.

七、결론

동지들, 이러한 것이 여섯가지의 중심적 문제들인바, 우리의 농업문제전문가들—맑스주의자들의 이론적 사업은 이 문제들을 제쳐놓고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들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데 있는 것이다. 즉 그 문제들에 대한 맑스주의적 구명은 어떤 때에는——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지만——우리의 동지들인 공산당원들이 전파함으로써 우리의 실천가들의 머리를 어지럽혀 놓는 그 가지각색 부르주아적 이론들을 근절하여 버릴 가능성을 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론들을 근절하여 버리는 일과 그것을 멀리 접어 내던지는 일은 벌써 하여야 할 일이었다. 왜 그러냐면 다만 그 이론들과 또한 그와 유사한 이론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에서만 농업문제전문가들—맑스주의자들의 이론적 사업이 자라날 수 있으며 건설하게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의 의의는 이 문제들이 파도기의 경제에 대하여 이전에 세워진 문제들에 새 용모를 세워준다는 데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경제정책에 대한, 제급에 대한, 팔호즈에 대한, 파도기의 경제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다.

신경제정책을 퇴각으로, 다만 퇴각으로만 이해하는자들의 오류를 발로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태닌은 이미 신경제정책을 실시할 그 때에 신경제정책은 퇴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그 정책은 그와 동시에 토지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결정적 전격을 위한 준비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신경제정책은 다만 도시와 농촌사이의 연락을 위하여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오류를 발로 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도시와 농촌사이의 어떠한 연락이든지 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여주는 그런 연락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유지해가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의 사업에 이바지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이 사회주의의 사업에 이바지하지 않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내던질 것이다. 해난은 신경제정책이 신중하게 또한 장구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경제정책이 영원히 실시되는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재생산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의 보편화에 대한 문제도 역시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민경제의 발란스(收支對照表)의 작성안(作成案)에 대한 문제를 구명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통계국에서 一九二六년에 인민경제의 발란스로 발표한 그것은 발란스가 아니라 수확을 가지고 작란하여 놓은 것이다. 인민경제의 발란스의 문제에 대한 바사로브와 그로만의 론거도 역시 실제에 드러맞는 것이 아니다. 만일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이 대체로 파도의 경제문제들을 구명하는 데 종사하고 거한다면 조선의 인민경제의 발란스의 도안은 반드시 그들이 장구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맑스주의자들—경제학자들이 파도기적 경제 문제들을 현대발전계단에 있어 새롭게 취급하여 구명할 일꾼들의 특별그루바를 선정하여 놓는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제 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청산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코라스나야·즈베즈다(붉은 별)」제十六호에 실린 「제 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의 청산」이란 논문은 대체로는 두 말할 것 없이 옳은 것이나 그 정식화에 있어서 두가지 정확치 못한 것이 있다.

나 는 그 정확치 못한 것을 정정(訂正)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一、그 논문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부흥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制限)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제 전기가 시작됨으로써 우리는 제한정책으로써부터 그들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넘어갔다」.

이 명제는 옳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 정책과 그들을 구축하는 정책은 두가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같은 정책이다.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정책, 골라크층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요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다.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제 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구축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하는 것은 소비트주의의 과세(課稅)의 억압(抑壓)을 견디어 내지 못한, 소비

페트정권의 제한하는 대책의 제도를 건너어 내지 못한 풀라크층의 개개의 부대들을 구축하는 것이오 극복하는 것이다. 풀라크층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정책,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 정책은 풀라크층의 개개의 부대들을 구축하는 데로 나가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풀라크층의 개개의 부대들을 구축하는 것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오 구성부분으로밖에 달리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다만 부흥기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재전기에서도, 우리당의 제十五차 대회(一九二七年十二月) 이후의 시기에서도, 제十六차 당큰페렌치야(一九二九年四月) 시기에서도, 또는 이 큰페렌치야 이후 一九二九年 여름 즉 우리나라에서 전반적 집단화의 시기가 다쳐온 때이며 계급으로서의 풀라크층을 청산하는 정책의 편으로의 전환기가 다쳐온 그때까지도 실시되었던 것이다.

一九二五年十二月의 제十四차 당대회로부터(중앙위원회의 결산보고에 대한 결정서를 참조하라)一九二九年四月의 제十六차 당큰페렌치야에 이르기까지의(「농업향상의 길들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참조하라)당의 중요한 문헌들을 고찰하여 보자면 「풀라크층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한다」는 혹은 「농촌에서 자본주의의 장성을 제한한다」는 때 대한 해제는 언제나 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한다」는 때 대한 해제와 병행되어 나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당시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하는 것을 풀라크층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정책,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 정책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의 제十五차 대회나 제十六차 당큰페렌치야는, 「농업부르조아지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농촌사업에 대하여」라는 제十五차 당대회의 결정서)정책의 토대위에, 「농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제한하는 새 대책을 취하는」(이상의 결정서를 참고하라)정책의 토대위에, 「폴라크의 착취적 경향을 결정적으로 제한하는」(五개년계획에 대한 제十五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참고하라)정책의 토대위에, 「폴라크와 개인경영자들을 앞으로 일층 더 계속적으로 또는 강경하게 제한하는 데로 넘어가는」의미에 있어서 「폴라크에 대하여 진격하는」(이상의 결정서를 참고하라)정책의 토대위에, 도시 및 농촌의 「개인자본주의적 경제의 요소들을」(「덕육더 결정서」로 정제적으로 돌아내는」(중앙위원회의 결산보고에 대한 제十五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참고하라)정책의 토대위에 전적으로 립각(立脚)하였다.

그리고 본즉, (1), 이상에 말한 본문의 필자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 정책과 그들을 구축하는 정책을 두개의 서로 다른 정책으로 묘사한것은 옳지 못한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제한하는 한개의 공통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의 구성부분이 되며 또 그 결과가 되는것은 폴라크층의 개개의 부대를 구축하는것이 라고 말하여준다.

그리고 본즉, (2), 이상에 말한 본문의 필자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하는것은 오직 개진기에, 제十五차 대회의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단언한것은 옳지 못한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구축하는것은 제十五차 대회전에, 부흥기에도 있었던것이오 제十五차 당대회의 이후에, 개진기에도 있는것이다. 제十五차 대회의 시기에 있어서는 한갓 새로운 보충적 대책에 의하여 폴라크층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정책이 강화되었을 따름이니, 그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폴라크층의 개개의 부대들을 구축하는것도 반드시 강화되었을것이였다.

二. 그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형성하는 정책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구축하는 정책의 세대계에서의 계속으로서 전적으로 그 구축정책에서 풀어나오는 것이다」.

이 문단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옳지 못하다. 골라크층을 계급으로 보아서 형성하는 정책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었을 것은 명료한 것이다. 그 정책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여 오면, 따라서 또한 구축하던, 지나간 전시기에 있어서 준비되었던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정책이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또는 구축하는)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정책이 마치 제한하는 정책의 계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필자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一九二九년 여름부터 농촌발전에 있어서 전환이 있는 것을 부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 동안에 농촌에 있어서 우리당의 정책에 있어서 전환을 실행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때에 프롤레타리아트 및 볼셰비키들을 부식하는 정책에 반대함에 있어서 제十四차 당대회의 결의에 매달리던 것과 같이 지금에 당의 새 정책에 반대함에 있어서 제十五차 당대회의 결의에 매달리는 우리 당내의 우경분자들을 위하여 약간의 사상적 피신처(避身處)를 만들어 놓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十五차 당대회는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또는 구축하는) 정책의 강화를 선포할 때에 어떠한에서 출발하였는가? 골라크층을 그렇게 제한함에 불구하고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은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 반드시 남아있으리라. 거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데 근거하여 제十五차 대회는 토지임차인(土地賃借人)은 그 대부분이 폴라크임을 잘 알면서도 차지법령(借地法令)을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데 근거하여 제十五차 대회는 농촌에서의 고용노동법령을, 그의 정확한 실지를 요구하면서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데 근거하여 폴라크재산의 물수를 용허할수 없음을 한번 더 선포하였던 것이다. 그 법령들과 그 결의들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또는 구속하는) 정책과 모순되는가? 물론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그 법령들과 그 결의들은 계급으로서의 폴라크층을 청산하는 정책과 모순되는가? 물론 그렇다! 그러고본즉 그 법령들과 그 결의들은 전반적 집단화가 전파되는 범위가 날마다 커갈뿐 아니라 시각마다 커가고있는 그런 구역들에서는 지금에와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벌써 전반적 집단화의 지방들에 있어서는 팔호즈운동의 그 진행 자체에 의하여 이미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폴라크층을 계급으로 보아서 청산하는 정책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또는 구속하는) 정책의 계속이라고 단언할수 있을까? 단언할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다. 이상에 말한 논문의 필자는 폴라크계급의 수중에 토지를 자유로 이용하는 권리와 함께 생산도구들을 남겨두고서는, 또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농촌에서의 고용노동법령, 차지(借地) 법령, 폴라크재산물수의 금지들을 지속(持續)하면서, 파세(課稅) 및 온갖 기타의 제한적 대책으로써는 계급으로서의 폴라크 계급을 몰아낼수 없다는것을 잊어버리었다. 필자는 폴라크층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정책하에서는 오직 폴라크층의 개개의 부대들을 구속하는것만을 기대할수 있는것이니, 이것은 어느 시기까지든 계급으로서의 폴라크층이 보전(保全)되리라는것에 모순되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예상(豫想)하는것

임을 잊어버리었다.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영영 구축하려면 이것을 위하여서는 그들 제한하며 그의 개개의 부대를 구축하는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영영 구축하려면 공개적 전투에서 그 계급의 반항을 격파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의 생존과 발전의 생산적 원천 (토지를 자유로 이용하는 것, 생산도구들, 차지, 노동을 고용하는 권리 및 기타) 들을 박탈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칭찬하는 정책에로의 전환인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구축하는 데 대한 말들은 우경주의자들에게만 리롭고 또 소용되는 빈 잡담 (雜談) 인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의 아무런 신중한 집산화, 더군다나 전 반적 집산화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골라크층을 타파하며 전반적 집합화를 실현하는 우 리 농촌의 빈농 및 중농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였다. 보건대 어떤 우리동지들은 이것을 아 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본즉 농촌에 있어서의 당의 현시 정책은 이전 정책의 계속인 것이 아니라 농 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는 (또는 구축하는) 이전 정책으로부터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칭찬하는 새 정책에로의 전환인 것이다.

一九三〇년 一월 二十一일부

「크라스나야·즈베즈다」지 제一八호.

이·웨·쓰달린 저작집 로문판

제一二권 一七八—一八三페이지

성공으로 인한 현훈증

플호즈운동의 제문제에 관하여

플호즈운동의 영역에 있어서의 소비트주권의 성공에 대하여서 지금 모두들 말하고 있다. 심지어 적들까지도 할수없이 큰 성공이 있는것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성공으로 말하면 참으로 위대한것이다.

금년 二월二十일에 이르러 전 소련을 통하여 농민경영의 五〇%가 이미 집단화된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一九三〇년 二월二十일에 이르러 우리가 집단화의 五개년 계획을 二배이상이나 넘쳐 실행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금년 二월二十八일에 이르러 플호즈들은 벌써 춘기과종을 위한 종자를 三千六百萬여 켤 트네르, 즉 계획의 九〇%이상 즉 근 二억二千萬루드나 모아낸것은 사실이다. 한갓 플호즈의 한 계통으로만 — 곡물수매계획을 성과있게 실행한 뒤에 — 二억二千萬루드의 종자를 모은것은 매우 거대한 달성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사회주의에로의 농촌의 근본적 전환은 이미 보장된것으로 간주할수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 성공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도적 역량인 전 노동계급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당 자체에 있어서 위대한 의의가 있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직접 실제적 결과들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은, 그 성공들은 당 자체의 내부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당의 교양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당에 활발한 정신과 자기역량에 대한 심념을 고취하여준다. 그것들은 우리사회의 승리예 대한 전념으로써 노동계급을 무장시켜준다. 그것들은 우리당으로 새로운 수백만의 후비군을 접근시켜준다.

여기로부터 생기는 당의 임무는 달성한 성공들을 공고히 할 것과 앞으로의 계속 전진을 위하여 그것들을 계획적으로 적용할, 그것이다.

그러나 성공들은 각각 음영(陰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특히 그것들이 비교적 「셀책」, 말하자면 「의의로」 일어지는 때에 그러하다. 그러한 성공들은 간혹 자만심(自滿心)과 자부심(自負心) 즉 「우리는 모든것을 다 할수있다!」, 「우리에게서 모든것이 다 그적먹기다!」 하는 정신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그 성공들은 흔히 사람들을 취(醉)하게 하나 나 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성공들로 말미암아 철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한도(限度)에 대한 감각(感覺)이 없어지며 현실(現實)에 대한 이해력(理解力)이 없어지며 자기의 역량은 과대평가하고 적의 역량은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사회주의적 건설의 모든 문제들 「대변에」 해결하려는 모험주의적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달성한 성공들을 공고화하며, 일층의 전진을 위하여 그것들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려는 배려(配慮)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대변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

리에까지 다라나갈수 있는데——「우리는 모든것을 다 할수있다!」, 「우리에게는 모든것이 다 그저력기다!」——그런데 우리가 달성한 성공들을 공교화 할것이야 무엇이나고 한다.

여기로부터 생기는 당의 임무는 사업을 위하여 위협하고 또 해로운 그 기분들과 결정적 투쟁을 수행할것과 그 기분을 당으로부터 내몰아던지는데 있는것이다.

사업에 위협하고 또 해로운 그 기분들이 우리당의 대렬내에서 얼마간이라도 광범히 전파되었다고는 말할수없는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기분들은 우리당내에 하여간 있는 것이니, 이에 있어서 그들이 강화되지 않으리라라고 확언할만한 근거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기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파급된다면 팔호즈운동사업이 약화되거나 이 운동이 실패될 위험이 현실화될수있는것은 의심할수 없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생기는 우리 출판물의 임무는 그 기분 및 그와 유사(類似)한 반(反)페닌주의적 기분들을 계통적으로 폭로하는데있다.

몇가지의 사실들을 들겠다.

(一), 우리의 팔호즈화정책의 성공들은 특히 그것이, 그 정책이 팔호즈화운동의 자유의사의 원칙에 의거하며 또는 소련의 각지방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의 상위(相違)를 참작함에 의거하는 그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팔호즈들을 강제로 만들어놓지는 못하는것이 다. 그렇게한다면 미련한 일이오 반동적인것이다. 팔호즈운동은 반드시 농민의 기본적인 대중적 대중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지에 의거하여야 될것이다. 발전된 지방들에서의 팔호즈건설의 모범을 발전되지 못한 지방들에로 기계적으로 옮겨놓지 못하는것이다. 그렇게한다면 미련한 일이오 반동적인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집단화의 사상을 일거에 무시하여 버릴

것이다. 팔호조건설의 속도와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조선의 각지방의 여러가지 조건들이 서로 다른것을 치밀(緻密)히 참작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팔호조운동에 있어서 목물생산지방들이 다른 지방들보다 앞서나가고있다. 왜 그런가?

왜그리나하면 첫째로, 그 지방들에서는 우리는 이미 공고히된 팔호조들 및 팔호조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바, 농민들은 그 팔호조 및 팔호조들로 말미암아 새기술의 힘과의, 새 집단적 경영조직의 힘과의의에 대하여 확신할 가능성을 가지게되었던 까닭이다. 둘째로는, 그 지방들은 목물수매 값싸니야때에 두해동안의 꿀라크와의 투쟁의 교훈을 받았는바, 그 교훈은 팔호조화운동의 사업을 용이하게하여주지 않을수 없었던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방들은 최근 몇해동안에 공업중심지들로부터 우수한 간부들을 꽤 많이 받았던 까닭이다.

특히 유리한 이 조건들이 역시 다른 지방들에다, 레하면 우리나라의 북부지역의 여러주(州)들과같은 소비구역들에도, 혹은 말하자면 두르게스탄과같이 아직도 뒤떨어진 민족들의 지방들에도 있다고 말할수 있을가?

아니 그렇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의 각지방들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의 상위(相違)를 참작하는 원칙이 자유의사의 원칙과 아울러 건전한 팔호조화운동의 매우 중대한 전제조건중의 하나가 되는것은 명백한것이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간혹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자유의사의 원칙과 지방특수성을 참작하는 원칙이 여러지방에 있어서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을가? 아

니,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제하면 골호즈들을 즉시 조직할 유리한 조건들이
이 목물생산지방에서 보다 비교적 적재있는 북방소비지대의 여러구역들에서는 골호즈들
의 조직에 대한 준비사업을 골호즈화운동에 대한 관리적(官吏的) 명령으로써, 골호즈들의
장성에 대한 지상 결정서로써, 현실에는 아직 없는것인데 그 「존재」를 자랑하는 결정서는
태산과같이 싸이어있는 그러한 지상(紙上) 골호즈의 조직으로써 흠이 바구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다 아는바이다.

혹은 골호즈들을 즉시 조직할 유리한 조건들이 북방소비지대의 제주들보다도 더 적게
있는 푸르게스탄의 몇구역들을 레로 들어보자. 푸르게스탄의 여러 구역들에서는 군력(軍
力)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골호즈로 아직 들어오기를 원치않는 농민들에게는 판개용수
(灌漑用水)를 대주지 않는 방법으로, 공업제품을 주지않는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쓰
련의 선전지방들을 「따라가며 또 앞서가려고」 시도한 일이 있음은 다 아는바이다.

이러한 브리세베에브하사(브리세베에브하사(下士)는 체호브작품에 있는, 누구의 위임도
없는 감시자(監視者)로써 결서와 도덕을 수위(守衛)하려는 악병사(惡兵士)의 인물(人
物)이다——역자) 식의 「정책」과, 골호즈전설사업에 있어서 지방특수성의 착각 또는 자
유의사에 의거하는 당의 정책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수 있는가? 그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또한 있을수도 없음은 명백한것이다.

골호즈화운동에 대한 이러한 의곡(歪曲), 이러한 관리적 명령, 농민들에게 대한 이러
한 당연치 못한 위협들은 누구에게 필요한것인가? 우리의 적들에게 밖에는 누구에게도 필
요하지 않은것이다!

이러한 의욕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적들을 유력하게 하는 데로, 팔호즈화운동의 사상의 위신을 훼손시키는데로 이르게 할 것이다.

「착의」이라고 자임(自任)하는 이러한 의욕의 창안자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경기 회주의의 물방아에 물을 대어주는것임은 명백하지 않은가?

(二)、우리당의 정치적 전략의 최대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당이 해당한 각모멘트에 있어서 운동의 기본적 고리를 선택하여낼줄 아는것이오 그리고 그 고리를 잡아쥐고서는 그 다음에 그가 암무의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채 변환을 한개의 공통한 목적에로 끄으려다니는 데 있는것이다. 당이 팔호즈건설의 체계에 있어서 팔호즈화운동의 기본적 고리를 이미 선택하여 내었다고 말할수 있는가? 물론 말할수 있으며 또는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것은, 그 기본적 고리는 어떠한데 있는가?

토지공동작조합이나 있지 않은가? 아니, 그에 있는것이 아니다. 생산수단이 아직 공동화 되지 않은 토지공동작조합은 팔호즈화운동의 이미 지나간 계단으로 되어 있는것이다.

농업쿤문이나 있지 않은가? 아니, 쿤문에 있는것이 아니다. 쿤문들은 아직 팔호즈화운동에 있어서 허소한 현상으로 되어 있는것이다. 생산뿐만이 아니라 분배까지 공유화된 우세물 가진 형태로서의 농업쿤문을 위하여서는 아직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다.

팔호즈화운동의 기본적 고리, 현모멘트에 있어서 그 운동의 가장 우세물 가진 형태며 지금에 그것을 장악하여야 할 형태는 곧 농업아르젤리가 되는것이다.

농업아르젤리에서는 기본적 생산수단들, 주로 화목재배에 필요한 기본적 생산수단들 즉 로동, 토지리용권, 기계 및 기타의 농구, 역축(役畜), 경영에 소용되는 건물등등이

공유화되었다. 거기에서는 허밭(적은 채소원(菜蔬園) 및 과원(果園)、주택、착유용(搾乳用)가 축의 일정한 부분, 가금(家禽) 및 기타는 공유화되지 않는 것이다.

아르셀리가 플호즈화운동의 기본적 고리로 되는 것은 그것이 목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당한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물문제가 전농업의 체계에 있어서 기본적 고리가 되는 것은, 그의 해결이 없이는 목축업(소가축 및 대가축)의 문제도, 공업에 기본적 원료를 주는 공예작물(工藝作物) 및 특수작물의 문제도 해결하여 별수 없기 때문이다. 실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아르셀리는 현모멘트에 있어서 플호즈화운동 체계의 기본적 고리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그 완성된 원문이 발표되는 * 플호즈 「표준 규약」은 여기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우리의 당일꾼 및 쏘베트일꾼들은 반드시 여기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인바, 그들의 여러 의무중의 하나는 곧 그 규약을 근본적으로 연구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철저히 실시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현모멘트에 있어서의 당의 방침인 것이다.

당의 이 방침이 위반 또는 의곡됨이 없이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플호즈들의 존재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기 멀었으며 아르셀리들이 아직 공고화되지 못한 쏘련내 여러 지방들에서 아르셀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즉시 농업공문제로 뛰어넘어가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아직은 아르셀리

• 一九三〇년三月二일부의 「레타보다」지에 게재되었음.

도 공교화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주력, 소가축, 가금을 벌써 「공유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유화」는 지상(紙上)——판로주의적 명령으로 변하여버린다. 왜그러냐하면 그러한 공유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아직은 목전에 없는 까닭이다. 팔호즈들에서는 벌써 곡물문제가 해결된듯이, 그 문제는 벌써 지나간 계단으로 되어진듯이, 현모멘트에 있어서의 기본적 임무는 곡물문제의 해결인것이 아니라 목축업 및 양금업(養禽業) 문제의 해결인듯이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물론, 팔호즈화운동의 여러가지 형태를 한 무더이에 장치어 혼동시키는 이 고집불통한 「사업」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미련하고도 사업에 있어 해로운 조급성(燥急性)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곡물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때에, 팔호즈의 아르젤리 형태가 아직 공교화되지 못한때에 주력, 착유용가축전체, 소소한 가축전체, 가금등을 「공유화」하는것으로써 팔호즈농민들을 격동시키는것——이러한 「정책」은 오직 우리의 불구대천의 적들에게만 리를깨하여주는 것이며 그들의 소원에 맞게 하여주는것이 될수있음은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이러한 열광적인 「공유화 실시자」들중의 한 사람은 심지어 「三일대로 매 농호에 있는 가금의 두수를 조사할것」, 계산 및 감시를 위한 전문「지휘관」의 직을 제정할것, 「아르젤리에서 지휘적(指揮的)지위들을 차지할것」, 「차지한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사회주의적 전투를 지휘할것」, 따라서——명백한 일인바——전 아르젤리를 좌우역에 잡아쥘라는것을 지지하는 명령서를 아르젤리들에 내리는때까지 나아갔다.

이것은 무엇인가——팔호즈들을 지도하는 정책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왜해시키며 그 명예를 타락시키는 정책인가?

나는 아르젤리의 조직사업을, 교당의 중을 때어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실례이지만 그런 소위 「혁명자」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도하지 않는다. 중을 때어 던지는 것——이 얼마나 기막히는 혁명성인가!

어찌되어 우리들 가운데서 「공유화」의 방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집불통(固執不通)한 노릇들, 자기자신을 뛰어넘으려는 그 웃음나는 지도들, 계급과 계급투쟁을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의 계급적 적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어 주는 그 도사들이 생기어날 수 있었던가?

그것들은 팔호조전설의 전설에서 「설계」, 「의외로」 얻어진 우리의 성공의 환경에서만 생기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당의 일부대렬에 있는——「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저먹이다!」라고 하는 고집불통한 기분의 결과에서만 생기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성공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우리동지들에게는 현훈증이 생기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지능(智能)의 명철과 견해의 명석을 잠깐 잃어버리었던 결과에서만 생기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팔호조전설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사업의 로선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기분들을 영양 없애버려야 한다.

이에 지금 당의 당면임무들중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지도의 기술이란 중대한 일이다. 운동에서 뛰어들지 말아야 할 것이니 뛰어들진다면 대중으로부터 떨어진다 것을 의미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앞으로 치내뛰지도 말아야

할것이냐 앞으로 지내면 다면 대중과의 연락을 잃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하게되는것이고 자기를
고립시킨다는것을 의미하게되는 까닭이다. 운동을 지도하며 동시에 수백만대중과의 연락을
보전하려는자는 반드시 뒤떨어지는자도 반대하며 앞으로 지내려는자도 반대하여 두 전선
으로의 투쟁을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당이 강력한 당이오 또 이겨 낼수없는 당이란것은 그가 운동을 지도하면서
동자들 및 농민들의 수백만대중과의 자기의 련계를 보전하고 중강할줄 아는 까닭이다.

一九三〇년 三月 二일부의

「보타보다」지 제六〇호。

이 • 위 • 쓰 말린 저작집 로문판

제一二권 一九一一—一九九제지

폴호즈원동지들에게 주는 대답

「성공으로 인한 원혼중」이라는 쓰팔렌의 논문과 「폴호즈운동에 있어서의 당의 선의 의곡(歪曲)과의 투쟁에 대하여」라는 일반이 아는 당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폴호즈운동의 실천자들의 대별에서 무수한 반영을 이르킨것은 신문들을 통하여 일반이 다 아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최근에 폴호즈원 동지들에게서 자기들의 편지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달라는것을 청한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다. 이 편지들에 대하여는 개개인에게 편지하여 대답하는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수없게되었다. 왜 그러냐하면 편지들의 반수이상은 편지보낸 사람들의 주소가 없는것을 받았기 때문이다(주소를 써 보내기를 잊어버리었다). 그런데 그 편지들에 언급 문제들은 우리의 모든 동지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정치적 흥미가 있는 문제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소를 써 보내기를 잊어버린 동지들에게라도 내가 회답함이 없이 그치지나가 버릴수없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폴호즈원 동지들의 편지에 대하여 그중에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취하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즉 출판물을 통하여 대답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더군다나 내가 이와같이 대답하는게 즐겨 착수하게 된것은 이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직접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질문. 농민문제에 있어서의 소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대답. 중농을 옮지 못하게 취급하는 데 있는 것이다. 중농과의 경제적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폭력을 용허한 데 있는 것이다. 중농과의 경제적 연락은 반드시 폭력적 수단에 의거하여서 아니라 중농과의 협조, 중농과의 동맹에 의거하여서 맺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철모멘트에 있어서 풀호즈 화운동의 기초는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특수적으로는 풀라크층을 반대하여 노동계급 및 빈농층이 중농과 동맹하는 것임을 지적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풀라크층에 반대하는 진격이 중농과의 유일전선으로 진행되던 그때까지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갔다. 그러나 성공에 도취(陶醉)한 일부의 우리동지들이 풀라크에 대한 진격의 길로부터 부지불식간에 탈선되어 중농과 투쟁하는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때에는, 그들이 집단화의 파센트를 높이기에 열중하여 중농에게서 선거권을 빼앗으며 그를 「풀라크로」 녀어 물수하며 또는 수탈하면서 그에게 대하여 폭력을 적용하기 시작한 때에는 진격은 의곡되게 되었고 중농과의 통일전선은 파탄되게 되었고 따라서 자연한 사실로 풀라크는 다시 이리저리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제압적 적(敵)들과 투쟁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며 유익한 것인 폭력은 우리의 동맹자인 중농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용허할 수 없는 것이며 해로운 것임을 지적하려 하였다.

군사적 성질을 띤 임무들을 해결하는 데는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 기병(騎兵)의 습격은, 더군다나 중농과의 동맹하에서만이 조직될 수 있는 풀호즈의 전설 임무들을 해결하는 데 적당치 못한 것이며 해로운 것임을 지적하려 하였다.

이에 곧 농민문제에 있어서의 오유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메닌은 중농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는 문제의 본질로 보아서 폭력적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하여 낼 수 없다는 그 진리에 무엇이든 특이 기호하여야 된 것이다. 경제적 입부가 여기에서는 전연 다르다. 여기에서는 모든 기초, 모든 건물은 그대로 두어서 문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층부(上層部)가 없는 것이다. 도시에서 자본가들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층부가 여기에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폭력으로써 행동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망치는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농파의 경제적, 판제의 방면에 있어서 폭력에 대한 생각은 가지는 것처럼 더 미련한 것은 무엇도 없는 것이다.」(제二四권 一六八페이지)。

또 계속하여 말하였다. 주

「중농파의 판제에 있어서의 폭력은 극히 해로운 것이다. 그는 무수한 수백만이 되는 층이다. 지어 구라파에 적도 즉 중농층이 어디에 서든지 그와 같은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 및 문화, 도시생활, 철도 등이 평강히 발달되어 있으며 폭력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조차 아무도, 가장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들 중의 한 사람도 중농파의 판제에 있어서 폭력적 수단을 제의하지 아니하였다.」(상동 一六七페이지)。

생각전대 명확한 듯하다.

둘째질문. 플로르츠운동에 있어서의 주되는 오류들은 어떠한 것인가?

대답. 그것들은, 그 오류들은 적어도 세가지가 있다.

(一)、플로르츠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자원성에 대한 태인적 원칙을 위반하였다. 플로르츠건설의 자원성에 대한 당의 기본적 지시와 그 자원성에 대한 농업 아르젤리의 표준적 규약을 위반하였다.

태인주의는 농민들을 집단적 경영의 궤도에 넘겨세우되, 개인경영에 비하여 공동적 집단적 경영이 우월함을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자원성에 의하여서 할것을 가르친다. 태인

주의는 집단적 정령이 우월함을 농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오직 팔호즈가 개인정영보다 나
으며 팔호즈가 개인정영보다 유익하며 팔호즈가 농민, 빈농 및 중농에게 결핍과 빈궁으
로부터 벗어나올 길을 열어주는 것을 사실에서, 경험에서 그들에게 보이며 증명하여
주게 되는 그때에야야만 될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해년주의는 이 조건들을 제쳐놓고는 팔호
즈가 현실하게될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해년주의는 폭력으로 팔호즈정영을 조직하려는 온
갖 시도에는, 팔호즈를 강제로 부식하려는 온갖 시도는 한갓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올 따름이
며 한갓 팔호즈화운동에서 농민들을 미러던질수만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하여 사실상 이 기본적 원칙이 준수되어온 그때까지는 팔호즈운동은 성공에 성
공을 거듭하여왔다. 그런데 성공에 도취(陶酔)한 일부의 우리동지들은 이 원칙을 무시
하기 시작하였으며 비상한 조급성(躁急性)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집단화의 파
센트를 높이기애 열중하였으며 강제로 팔호즈를 부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부
정적 결과가 오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된것은 이상한일이 아니다. 갑작스러히 발생되었던
팔호즈들은 그가 급속히 발생되던것과같이 또한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미 어젯날까지도
거대한 신탁을 가지고 팔호즈에 대하여 오딘 농민의 일부는 팔호즈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이에 곧 팔호즈화운동에 있어서의 첫째요 또는 주되는 오류가 있는것이다.

팔호즈건설의 자원성에 대하여 해년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일하는 토지의 공동경작에로 넘어가는것, 대규모적 공동정영에로 넘어가는것에 있다.
그러나 소비트주권의 원으로부터는 아무런 한계든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아무런 한계도 없게 하라고는 장
재하지 못한다. 농업공론은 자립적으로 চাল된다. 토지의 공동경작에로 넘어가는것은 오직 자립적으로만 될수있

는 것이요 이점에 있어서 노동정부의 편으로부터는 사소한 강제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불이 용허할수없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중에서도 누구든지 그러한 강제가 있는것을 보게된다면 어떠한 반드시 그것이 권리타용인것인줄을 알아야 할것이며 그것은 법률위반인줄을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전력을 다하여 바로잡아놓으려고 애쓰며 또는 바로 잡아놓아야 할것이다.* (제二四권 四三페이지).

또 계속하여 말하였다.

「오직 로지의 공동적, 집단적, 협동적, 아르헨티적 경작의 우월성을 사실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보이어주게되는 그러한 경우에타아만, 오직 협동적 아르헨티적 경영에 의하여 농민을 원조하여 주게되는 경우에타아만, 오직 그렇게되는 때에타아만 자기촌에 국가주권을 잡고있는 노동계급은 참으로 농민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여주게 될것이며 참으로 수百萬의 농민대중을 튼튼하게 또는 확실하게 자기의 편으로 인입할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적, 아르헨티적 농업을 조장하여주는 온갖 종류의 방법들의 의의는 막대한것이다. 우리는 공력한 농촌에 널리있고 분산되어 있는 수백만의 고립적 경영을 가지고있다. 협동적, 아르헨티적 농업으로 넘어가는것이 필요한것이며 또 가능한것임을 농민에게 가까운 경험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증명하게되는 그때에타아만, 오직 그때에타아만 우리는 로씨야와같은 이런 거대한 농업국에서 사회주의적 농업의 권을 밝아나가는데서 큰 거름이 실행되었다고 뻔뻔하게 말하게 될것이다.* (제二四권 五七九—五八〇페이지).

끝으로 해년의 저서중에는 또 이렇게 쓴것이 있다. 즉

「온갖 종류의 조합이나 또는 중농의 농업공동체를 장려하면서 쇼베트주권의 대포자들은 그 모든것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강제라도 용허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오직 농민들 자신이 그들의 자유적 발기에 의하여 건설한 단합체이오 또한 그 단합체의 유리성을 그들 자신이 실천에서 점사하여본 그런 단합체만이 가치

가 있는 것이다. 이 사업에 있어서의 과도한 조급성은 해롭다. 왜그리냐하면 그것은 심색(審式)이라는 것은 반대하는 증능의 편견을 더 강하게 하여줄 따름인 까닭이다. 농민들을 콤포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직접적인 강제 재판만 아니라 비록 간접적인 강제책이라도 채용하는 그런 쓰베트주권의 대표자들은 반드시 매우 엄격한 증명을 받아야 될 것이요 농촌사업에서 면적되어야 할 것이다」* (상동 一七四페이지)。

이로써 잘알았으리라고 본다。

당 이 배년의 이 교지들을 정확하게 실시하게 될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二)、판호조건설에 있어서 쏘련내의 여러지방의 조건들이 서로 다른것을 적용되게 참작하여야 된다는 배년적 원칙을 위반하였다. 쏘련에는 여러가지의 경제적 구조와 여러가지의 문화상 수준을 가진 각종각양의 주(州)들이 있는것을 지적버리었다. 이 여러주들 중에는 선진적인 주, 중등정도의 주, 후진적인 주들이 있는것을 지적버리었다. 극히 동일하지않은 그 여러주에 있어서 판호조화운동의 속도나 판호조건설의 방법이 동일한것이 될수없는것을 지적버리었다。

배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만일 우리가 로씨야의 모든 지방에 대하여 법령을 단순히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으로 써내면, 만일 우크라이나에서나 또는 돈에서 볼셰비크들—공산주의자들, 쓰베트일꾼들이 그 법령들을 구별없이 한결같이 다룬 지방들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류일것이다」 왜그리냐하면 「우리는 결코 같은 한가지 모양에 자기를 구속한다거나 우리의 정권, 중앙로씨야의 정권을 모든 변장지방에 전부 그대로 옮겨놓을수 있다고 절대로 단정하지 않는 까닭이다」 (제二四권 一二五—一二六페이지)。

* 방점은 나의것——이. 스탈린。

그리고 또 레닌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중앙로씨야, 우크라이나, 시비리아를 천편일률식으로 취급한다면, 어떠한 한모양에 복종시킨다면 그것은 저극히 미련한 일일것이다」(제二六卷 二四三페이지)。

마지막으로, 레닌은 잡까즈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로씨야,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정 및 조건들과는 다른 그들의 사정, 그 공화국들의 사정의 특성을 이해하며 우리의 전문을 등분하여,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 조건, 사로다름에 적응되게, 잘생각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를 이해하여야 할것이다」(상동 一九一페이지)。

이것은 명백하다고 본다。

레닌의 이 교시에 기초하여 우리당의 중앙위원회는 「집단화의 속도에 대하여」라는(一九三〇년 一월六일부의 「쁘라브다」를 참조하라) 그의 결의에 있어서 소련의 각지방들을 집단화의 속도로보아서 세그루빠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중에서 북잡까즈, 월가장, 중류지방, 월가장 하류지방은 대체로 一九三一年 봄에 집단화를 끝낼수있고 다른 목물지대(우크라이나, 중앙흑토주, 시비리아, 우랄, 까자흐스탄 및 기타)들은 그것을 대체로 一九三二년 봄에 가서 끝낼수있고 기타 지방들은 집단화를 五개년계획의 말까지 즉 一九三三年까지 완할수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부의 우리동지들은 플호즈화운동의 첫성과에 도취하여 레닌의 교시도, 중앙위원회의 결의도 무시하게도 이저버리었다. 모스크바주는 집

단화에 대한 과장적 숫자를 내놓기에 열중하여, 그는 적어도 三년이라는 기간(一九三二년 말까지)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꾼들로 하여금 一九三〇년 봄에 집단화를 끝내도록 방침을 취하게 하였다. 중앙후로 주는 「다른 주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는 적어도 두해라는 기간의 여유(一九三一년 말까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꾼들로 하여금 一九三〇년 상반기에 집단화를 끝내도록 방침을 취하게 하였다. 자깁가즈의 일꾼들과 두르게쓰란의 일꾼들도 선전지방들을 「따라가며」 또 앞서 간다」는데 열중하여서, 그들은 만四년이한 기간(一九三三년 말까지)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화를 「최단기간」에 끝낼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

집단화의 이러한 속사격식 「속도」를 취하였으므로 골호즈화운동에 적게 준비되어있는 지방들은 일층 잘 준비되어있는 지방들을 「앞서간다」는데 열중하여서, 골호즈화운동의 급속한 속도를 취하기에는 부족한 요인들을 자기자체의 행정(行政)적 열(熱)으로써 충당하려고 시도하면서 더 강경한 행정상 압력을 부득이 리용하게되었던것은 알만한 일이다. 그 결과들은 다 아는바이다. 그 여러주들에서 생기었던 혼잡, 그후 중앙위원회가 간섭하여 정돈하게 되었던 그 혼잡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이에 곧 골호즈화운동에 있어서의 둘째요유가 있는것이다.

(三)、골호즈전설에 있어 완성되지 못한 운동의 형태를 뛰어넘는것을 용허하지 않는다는 배년적 원칙을 위반하였다. 대중의 발전보다 앞서나가지 말고 대중의 운동을 법령 발표로써 내몰지 말고, 대중으로부터 떠러지지 말고 그들을 우리의 포어들에로 인입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우리의 포어들의 정당성을 확신하

도록 도화주면서 대중과함께 나가며 그들을 앞으로 전진시키라는 레닌적 원칙을 위반하였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즉

「페드로그라드의 포로페타리아트와 페드로그라드의 수비대병사들이 주권을 잡을때에 그들은 농촌 전선사업에 있어서 큰 곤난에 부딪치게된것을, 농촌에 있어서는 일종의 점차적으로 나아가야할것을, 농촌에 있어서 토지의 공동경작을 지령으로나 법률로써 실시하기를 시도한다면 이것은 심히 어리석음인것을, 이러한 공동경작에 대하여서는 극소수의 의식있는 농민이나 동의할것이요 농민의 대다수는 이 임무를 세우지 않고있음을 잘 알고있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것 즉 결코 대중의 발전보다 앞서나가지 말아야 할것이며 이 대중 자체의 경험으로부터, 이 대중 자체의 투쟁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나타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그것에 국한하였던것이다」* (제二三권 二五二페이지)。

레닌의 이 교지에서 출발하면서 중앙위원회는 「집단화의 속도에 대하여」라는 (一九三〇년 一월六일부의 「프라브다」를 참조하라) 일반이 다 아는 그 결의에 있어서 인정하기를,

(가), 천모멘트에 있어서 플호즈화운동의 주되는 형태는 농업아르셀리가 되는것이며,
(나), 그렇기 때문에 플호즈화운동의 주되는 형태인 농업아르셀리의 표준규약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될것이며,

(다), 우리의 실천적 사업에 있어서 플호즈화운동을 위로부터 「법령발표로써 대모는것」, 「집단화를 작란으로 하는것」을 용허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방점은 나의것 — 이 • 소판 권 •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에 있어서는 콤문이라도 아니라 팔호즈건설의 주되는 형태인 농업아르젤리에로 나가는 방향을 취하여야 된다는것, 농업아르젤리를 지나지않고 콤문으로 뛰어넘어 가는것을 용허하여서는 안된다는것, 팔호즈에 대한 농민들의 대중운동을 「법령발표로써」 팔호즈들을 만들려는것으로나 「팔호즈를 작란으로 하는것」으로써 바꾸어서는 안된다는것 등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명백하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팔호즈화운동의 첫성파에 도착한 일부의 우리동지들은 레닌의 교시도, 중앙위원회의 결의도 무시하게 이저버리고 말았던것이였다. 이 동지들은 농업아르젤리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조직하는 대신에 개인경영자—농민들을 바로 콤문의 규약으로 「넘겨제우기」 시작하였다. 운동의 아르젤리형태를 공고케하여놓는 대신에 강제수단으로써 소가축, 가금, 자가용의 유축, 주택들을 「공유화하기」 시작하였다.

레닌주의자로서 용허할수없는 그러한 조급성의 결과들은 지금에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통례로 전실한 콤문은 물론 설립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에 많은 농업아르젤리들을 낫쳐버리었다. 비록 「좋은」 결정서들은 남아있었으나 그러나 그 결정서들이 무슨 효과가 있었는가?

이에 곧 팔호즈화운동에 있어서의 셋째 오류가 있는것이다.

셋째질문. 이러한 오류들은 어떻게 생길수있었으며 또한 당은 반드시 어떻게 그 오류들을 수정하여야 할것인가?

대답. 그 오류들은 팔호즈화운동의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급격한 성공들에 기초하여 생겼다. 성공들은 간혹 현혹증이 나게한다. 성공들은 자주 파도의 자부심(自負心)과 자

만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주권을 잡고 있는 당의 대표자들에게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과 같이 그의 역량 및 권위가 거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당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배nin이 심히 반대하여 싸우던 그 공산주의자의 교만의 사실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법령, 결정서, 지령의 만능에 대한 신앙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당의 혁명적 대책들을 당의 일부 대표자들의 광대무변한 우리나라의 이구적 저구식에서 공허(空虛)한 판로적 지령으로 변화시켜 버릴 위험성이 충분히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나는 지방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일꾼들까지도, 또한 중앙위원회의 어떤 위원들까지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배nin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공산주의자의 고관이란 이것은 공산당 내에 있는 아직 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모든 임무를 공산주의적 법령을 발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들의 미한다」(제二十七卷 五〇—五一페이지).

즉 이러한 토대에서 골호즈화운동에 있어서의 오류, 골호즈건설의 사업에 있어서의 당의 로선의 오류(歪曲)이 생긴 것이다.

만일 그 오류들과의 꾀들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만일 그것들이 급속히 또는 혼란적 없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이 오류들과의 꾀들의 위험성은 어떠한데 있는가?

여기에서 위험성은 그것들 즉 그 오류들은 우리로 하여금 골호즈화운동의 직접 실패에로, 중농과의 불화(不和)에로, 빈농층의 와해에로, 우리대렬의 혼란에로, 우리의 전 사회주의적 건설의 약화에로, 골라크층의 회복에로 이르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오유들은 농민의 기본적 대충과의 동맹을 튼튼케하는 길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튼튼케하는 길로부터 그 대중과 결별되는 길로, 프로레타리아트독재들과 피하는 길로 우리를 밀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위험성은 벌써二月하반기에, 즉 이미 얻은 성공에 눈이 어두어진 일부 우파의 동지들이 레닌적 길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달음박질쳐 다라나던 바로 그 모멘트에 나타난 것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이 위험성을 참작하였다. 그리하여 글호즈화운동에 대한 특별문으로써 그 대비어날되는 동지들에게 경고를 주도록 쓰달린에게 위임하여 그일에 지체없이 간섭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으로 인한 현혹증」이라는 논문이 쓰달린의 개인적 의사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공담인 것이다. 우리에게서 이와같은 중대한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개인적 의사를 용허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존재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앙위원회의 심각한 탐색(探索)이었다. 그리하여 오유의 깊이와 범위가 해명된 그대에 중앙위원회는 一九三〇년 三月十五일부의 유명한 결의를 발표함으로써 지체함이 없이 자기권위의 모든 힘으로써 그 오유들에 타격을 주었다.

질책을 향하여 절주하는 사람들을 미친듯이 달려갈 때에 멈추어 세워가지고 올바른 길로 돌려세우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앙위원회는 그가 이보다 더한 난관까지도 극복할 줄 알기 때문에 레닌적 당의 중앙위원회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는 벌써 이 난관들을 대체에 있어서 극복하여 내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의 수다한 부대가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제때에 올바른 길

로 돌아서서 진행과정에서 자기의 부대들 재편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그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승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닌적 당이라고 일
컸는 것이다. 그는 벌써 이 난관들을 대체에 있어서 극복하여내었다.

여기에서 주요한 문제는 자기의 오유를 지인하는 용감성을 발현하며 그리하여 그 오
유를 최대한 기간에 청산할 힘을 자체에서 차저내는 데 있는 것이다. 최근에 얻은 성공에 도
취한 후에 자기의 오유를 지정하기를 겁내는 것, 자기비판을 겁내는 것, 오유를 급속히 또는
결정적으로 지정하기를 원치 않는 것——여기에 주요한 난관이 있는 것이다. 이 난관을 극복만
하면, 파장된 숫자적 계획들과 공무소적——판로주의적 최대량주의(最大量主義)를 내버리기
만하면, 자기의 주의를 팔호즈의 조직상 경제상 건설에 대한 임무에 돌리기만하면 그 오
유는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당이 벌써 대체에 있어서 이 위험한 난관을 극복하여
내었음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의심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지금까지 열망하여 하던 모든 혁명적 당들은 교만하였었고 자기의 힘이 어찌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 약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겁내었기 때문에 열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약점에 대하여 말
하기를 겁내지 않는 까닭에,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때워낸 것인 까닭에 열망하지 않을 것이다」* (제二七권 二
六〇—二六一페이지).

• 방점은 나의 것——이 • 쓰 • 말 • 연 •

해년의 이 말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질문. 당 로선의 의목과 투쟁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 퇴각하는 것이 아닐가?

대답. 물론 아니다! 여기에는, 오직 오유와 의목의 계속을 공세로 인정하고 오유와 투쟁을 퇴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퇴각이라고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유와 의목의 퇴적(堆積)에 탑각한 공세—이것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공세」이다:

우리는 농업아르젤리물 현 모멘트의 끌호즈화운동의 기본적 형태로써 내세우고 끌호즈 전설의 사업에 대한 지도적 방침으로서 그에 적당한 표준규약을 제정하였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퇴각하는가? 물론, 퇴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동계급 및 빈농의 중농과의 생산적 연결을 튼튼케 하는 것을 현 모멘트에 있어서 끌호즈화운동의 기초로 내세웠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퇴각하는가? 물론, 퇴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급으로서의 골라크층을 청산한다는 포어를 현 모멘트에 있어서 농촌에서의 우리의 실천적 사업의 주되는 포어로 내세웠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퇴각하는가? 물론, 퇴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一九三〇년 一월에 소련의 모든 주들을 일정한 그루파로 나누어 놓고 또 는 각개의 그루파에 대하여는 그의 각각 다른 속도를 규정하여 놓고서 소련 농업의 집단화에 대한 적당한 속도를 취하였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퇴각하는가? 물론, 퇴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에 당의 「퇴각」이 있는가?

우리는 오유와 의복을 법한 사람들이 그 오유로부터 퇴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고집불통한 사람들이 그 고집불통으로부터 퇴각하여 레닌주의의 진지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런것을 원한다. 왜그러나하면 오직 그러한 조건하에서만 우리의 계급적 적들에 대한 진정한 공세를 계속할 수 있음으로써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뒤로 물러간다는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공세를 고집불통의 작란처럼 수행하려는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세를 수행하려는것을 의미하는것일 따름이다.

다만 명당구리나, 「좌경적」 전향자들만이 당의 이러한 방침을 퇴각으로 평가할수있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퇴각이라고 지껄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가지 사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1) 그들은 공세의 법칙을 아지 못한다. 그들은 전취한 진지를 공고화 함이없이 행하는 공세는 실패의 운명을 가진 공세라는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어떤때에 군사상 영역에 있어서 어떤때에 공세가 성과를 내게될수 있는가? 사람들이 되는데로 전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전취한 진지를 공고화하며 변화된 환경에 알맞게 자기의 력량을 재척성하며 후방을 단속하며 예비대를 이끄러내기 위해 쓰는때에 성과를 얻게될수 있는것이다. 무엇때문에 이 모든것이 필요한가? 불의의 사변(不意事變)에 예비키 위하여, 어떠한 공세에 있어서든지 없을수없는 개개의 중단 없이에기 위하여,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적을 전멸시킬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 다. 一九二〇년의 파란군대의 오유는, 만일 문제의 군사상 방면만을 취하여본다면 그들이 이 법칙을 무시한때 있는것이다. 그들이 일거에 깨어보까지 되는대로 돌진하였다가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되는데로 와르사와까지 일거에 퇴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으로 제 설명되는 것이다. 一九二〇년의 조선군대의 오유도, 만일 그역시 문제의 군사상 방면만 취하여본다면, 그들이 와르사와에의 공세에 있어서 과한군이 뺄하였던 그 오유를 띄우리 한때 있는 것이다.

재급투쟁의 전선에서의 공세의 법칙들에 대하여서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말하여야 할 것이다. 전취한 전지물론. 한. 합. 이. 없. 이. 는, 자기의 력량을 재. 원. 성. 합. 이. 없. 이. 는, 예. 비. 대. 로. 세. 전. 선. 을. 보. 장. 합. 이. 없. 이. 는, 후. 방. 을. 단. 수. 하. 는. 등. 등. 이. 없. 이. 는. 계. 급. 적. 적. 들. 의. 청. 산. 을. 목. 적. 으. 로. 하. 고. 나. 가. 는. 공. 세. 를. 성. 과. 있. 게. 하. 루. 없. 는. 것. 이. 다.

모든 문제는 고집불통한 사람들이 공세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당이 그 법칙을 이해하며 또 실시하는데 있는 것이다.

(1) 그들은 공세의 재급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공세를 취한다고 고향만 지른다. 그러나 어떤 계급과 동맹하여 어떤 계급에 대하여 공세를 취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중농과 동맹하여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에게 대한 공세를 수행한다. 왜그러나하면 다만 이러한 공세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수 있는가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당의 어떤 부대들이 열중되어서 공세의 정당한 길로부러 리탈하여 그 예봉(銳鋒)을 우리의 동맹자인 중농에 향하여 돌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과연 일정한 계급과의 동맹에서의 일정한 계급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온갖 공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돈—끼호페도 역시 그가 폴락아에 향하여 돌격하면서 적에 대하여 공세한다고 상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소위 공세에서 자기의 이마를 깨트린 것은 다 아는바이다.

아마도 돈—개호태의 월계관이 우리의 「좌경적」 편향자들로 하여금 부럽게 하는 모양이다.

다섯째 질문.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성이 주되는 것인가, 우경적 위험성인가 혹은 「좌경적」 위험성인가?

대답. 지금 우리에게 주되는 위험성은 우경적 위험성이다. 우경적 위험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되는 위험성이었으며 또한 그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문단은, 「좌경적」 편향자들의 오유와 의욕이 지금에 있어서 팔호즈화운동의 주되는 방해물이 된다고한 一九三〇년 三월十五일부의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있는 일반이아는 데에 모순되지 않는가? 아니다,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팔호즈화운동의 형역에 있어서의 「좌경적」 편향자들의 오유들은, 당내에서 우경이 격화되며 공고하여지는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는 그런 오유가 되는 데 있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어째서 그러한다면 그 오유들은 당의 로선을 그릇되게 묘사하여 놓는 까닭이다—그리고 본즉 그 오유들은 당의 위신을 타락시키는 일을 쉽게 하여주는 까닭이오, 따라서 그 오유들은 당의 지도부에 반대하는 우경분자들의 투쟁을 쉽게 하여주는 까닭이다. 당의 지도부의 위신을 타락시키는 것은, 당을 반대하는 우경분자들의 투쟁에 기초를 지어주는 그 초보적 기반인 것이다. 「좌경적」 편향자들, 그들의 오유와 의욕들은 우경분자들에게 이 기반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경기회주의와 성과있게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좌경」 기회주의자들의 오유를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좌경적」 편향자들은 객관적으로 우경기회주의자들의 동맹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좌경」 기회주의와 우경 기회주의와의 특이한 연결인 것이다.

일부의 「좌경」분자들이 우경분자들과의 불려에 대하여 종종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은 실제로 이 연결로써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어젯날까지도 덮어놓고 돌격을 「수행하며」、또련을 불과 二—三주일 동안에 집단화하기를 시도하던 「좌경분자들」의 일부가 오늘에 와서는 소극적(消極的) 태도를 취하여 수수방관하여 투쟁의 무대를 우경분자들에게 내어주며 그 리함으로써 골라크층의 앞에서 참으로 퇴각하는(인용호없이의!) 로선을 취하고 있는 그 독특한 현상도 실로 이것으로써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현모멘트의 특수성은, 「좌경적」 편향자들의 오유에 대한 투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경 기회주의와의 성과있는 투쟁의 한 조건으로 되며 또 이 투쟁의 독특한 형태로 되는 데 있는 것이다.

여섯째 질문. 농민의 일부가 팔호즈로부터 물러 나가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될가?

대답. 농민의 일부가 물러 나가는 것은, 최근에 와서 전설치 못한 팔호즈들이 얼마쯤 우리에게 생겼던바 지금에 와서 그 팔호즈들은 없어질 것이오 전설한 팔호즈들은 남아있을 것이며 또 이른바 그것은, 속비인 가짜 팔호즈들은 없어질 것이오 전설한 팔호즈들은 남아있을 것이며 또 동지들은 이것을 보고 실망하며 당황하며 그리하여 겁을 내면서 집단화의 과정된 파센트를 붙잡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상패히 여기며 또 팔호즈화운동의 「실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전자나 후자나 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나 후자나 다 팔호즈화운동의 본질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해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플호즈로부터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소위 죽은 뉘(魂)들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빈자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죽은 뉘(魂)들이 요구되는가? 물론, 요구되지 않는다. 나는 복잡까지의 동지들이나 우크라이나의 동지들이 죽은 뉘들을 가지고 있는 플호즈들을 해산하여 버리고 참으로 산(生)、참으로 건실한 플호즈들을 조직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플호즈화운동은 오직 의무를 얻은 뿐이다.

물째로는, 우리 일에 바로 적대되는 이색분자들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분자들을 속히 쫓아내면 별썽록 플호즈화운동은 더 낮게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색분자라고도 할 수 없고 또는 죽은 뉘들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동요하는 분자들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즉 우리가 오늘날에는 아직도 우리 사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설복시켜내지 못하였지만 내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설복시키게 될 그런 농민들이다. 이러한 농민들이 나가는 것은 비록 일시적이거나 플호즈화운동에 있어서 중대한 손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호즈내의 동요하는 분자들을 설복하여 플호즈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은 지금에 있어서 플호즈화운동의 가장 긴급한 임무들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즉, 농민의 일부가 플호즈로부터 물러 나가는 것은 오직 나쁜 현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이렇게 물러 나가는 것은 플호즈들로부터 죽은 뉘들 및 순전한 이색분자들을 내어보내는 것인 것만큼 그것은 플호즈들을 건전케 하며 튼튼케 하는 유리한 행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달전에 우리는 무물생산지대들에 있어서 六〇% 이상이 집단화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전정한 또는 다소간 건실한 플호즈들을 두고 말한다면 지금에 이 숫자가 틀림없이 파장

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만일 플호즈화운동이 농민의 일부가 물러나 간 뒤에, 목물생산지대들에 있어서 집단화가 四〇%라는 수짜에 고정된다면——이것은 확실히 실현될 수 있는바이다——이것은 원모멘트에 있어서 플호즈화운동의 매우 위대한 성과로 될 것이다. 나는 이에 있어서 어떤 구역들은 八〇—九〇%만 수짜로서 전반적 집단화가 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목물생산 지대들에 대한 평균수짜를 취하는 것이다. 목물생산지대들에 있어서의 집단화가 四〇%만 이것은 우리가 집단화에 대한 최초의 五개년 계획안을 一九三〇년 봄에 와서 二배나 되게 실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가 감히 쓰련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사업에 있어서의 이 력·사·적·성·과·의 결·정·적·성·격을 부인할 것인가?

일곱째 질문. 동요하는 농민들이 플호즈로부터 나가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할 것인가?

대답. 아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플호즈로부터 나감으로써 자 자체의 이익에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플호즈들만이 농민들에게 빈궁 및 암매로부터 벗어나자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까닭이다. 그들은 플호즈로부터 나감으로써 자기들 더 나은 형편에 처하게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쏘베트주권이 플호즈에 내어주는 여러가지 특전(特典)과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 플호즈 안에 있는 소유들과의 싸움은 탈퇴의 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플호즈에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공동의 힘으로써 소유들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쏘베트주권이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소유와 투쟁할 것임으로 그 소유들은 보다 용이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해년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상종생산에서의 소규모적 경영제도는 대중의 빈궁 대중의 압박으로부터 인민을 구원하여낼 수 있는 것이다」(제二〇권 一二三페이지)。

테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소규모적 경영으로서는 빈궁에서 벗어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제二四권 五四〇 페이지)。

테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만일 우리가 이전대로 소규모적 경영에 머물러 앉아있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자유스러운 농민으로서 자유스러운 토지에 앉아 있더라도 마창가지로 분가되하게 될망이 우리를 위협한 것이다」(제二〇권 四一七페이지)。

테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다만 공동적, 아르젤라적, 협동적 도동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전쟁이 우리를 돌아넣은 그 절망상태로부터 벗어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제二四권 五三七페이지)。

테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대규모적 모범 경영인 공동경작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왜그러나하면「그리함이 없이는 로씨야가 처하여있는 그 와산, 그 전혀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벗어져나오지 못할것」이기때문이다 (제二〇권 四一八 페이지)。

이 모든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팔호조가 농민들로 하여금 빈궁 및 암매에서 버서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팔호조로부터 탈퇴하는 것은 옳지못하게 행동하는것임은 명백한것이다.

때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소규모적 개인 농민경영의 공동적, 집단적, 혹은 아르헨티나 경영체로의 전환을 목표로한, 이 전환을 점차적으로 방조하며 주는것을 목표로한 공문, 아르헨티나, 또는 온갖 일반 조직체에 어떻게 거대한 의의와 부여하는가를 소베트 주권의 모든 사업에 의하여 모두다 아는바이다」. (제二四권 五七九페이지).

때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소베트주권은 공문들과 조합들을 첫자리에 내세워 그들에게 참다운 우선권 (優先權)을 주었다」. (제二三권 三九九페이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것은 소베트주권이 개인농경영보다 팔호조에 특전 및 우선권을 주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소베트주권이 토지를 내어주는 점에서, 기계, 트랙토르, 종곡동등을 공급하여주는 점에서, 세금의 부과를 경감하여주는 점에서, 대부금을 내주는점에서도 팔호조에 특전을 주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 방침은 나의것——이•소말린.

어제서 쏘베트주권은 플호즈에 특전 및 우선권을 주는가?

플호즈는 농민들로 하여금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까닭이다.

플호즈에 대한 우선적 원조는 빈농 및 중농에게 내어주는 원조중의 가장 유효한 형태임으로써이다.

수일전에 쏘베트정권은 플호즈안에 공유화된 모든 축력(畜力)(말, 황소 및 기타)에 대하여서와 플호즈의 공동적 소유이거나 플호즈원의 개인적 소유의 모든 암소, 돼지, 양, 가금에 대하여서 세금 부과를 2년 동안 면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쏘베트주권은 플호즈원들에게 대부한 차금의 지불을 연말까지 연기할 것. 플호즈에 가입한 농민들에게 四월一일 이전에 부과하였던 모든 벌금 및 재판상의 징수(裁判上徵收)를 취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쏘베트주권은 금년에 五억루블의 금액의 대부를 플호즈원들에게 내주는 것을 꼭 실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특전들은 농민—플호즈원들을 원조할 것이다. 이 특전들은 플호즈에서 탈퇴에 직면하여 이른바 서있었으며 플호즈의 적들과의 투쟁속에서 단련되었으며 플호즈를 고수하였고 플호즈화운동의 위대한 기치를 자기손에 잡고있는 그런 농민—플호즈원들을 원조할 것이다. 이 특전들은 지금 우리플호즈의 기본적 핵심이 되어있으며 우리플호즈를 공고케 할 것이며 또는 이를 형성케 할 것이며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편으로 수백만의 농민을 전취하여 드릴 그런 빈농 및 중농인 플호즈원들을 원조할 것이다. 이 특전들은, 지금 플호즈의 기

본적 간부들이 되었으며 꽃호스천운동의 영웅들이라고 부를만한 공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꽃호스천동들을 원조할 것이다.

꽃호스로부터 나간 농민들은 이 특전들을 받지 못할 것이다.

꽃호스로부터 나감으로써 농민들은 오유를 빚하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꽃호스로 돌아옴으로써만 그들은 이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여덟째 질문. 콤포문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가, 그것들을 해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답. 아니다, 그것들을 해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리할 리유도 없는 것이다. 나는 지상(紙上)의 콤포문들이 아니라 진정한 콤포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소련의 여러 폭발생 산지대들에는 지지하여주고 장려하여줄 가치가 있는 여러 개의 훌륭한 콤포문들이 존재하여 있다. 나는, 여러해 동안의 시련을 견디어내었고 투쟁속에서 단련되었고 그리하여 그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증명한 오랜 콤포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콤포문들은 해산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아르젤리로 개조하여야 될 것이다.

콤포문들의 조직 및 판리는 복잡하고도 또 어려운 일이다. 대규모적이오 또 견실한 콤포문들은 오직 경험있는 간부들과 시련된 지도자들이 있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또 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아르젤리의 규약으로부터 콤포문의 규약으로 조급하게 넘겨놓는 것은 오직 농민들을 꽃호스천운동으로 부러 밀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이일에 대하여서는 조금이라도 조급해함이 없어 특히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르젤리는 일층 쉬운 일이오 또 한 광범한 농민대중이 일층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젤리는 천모멘트에 있

어서 플호즈화운동의 가장 보편화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오직 농업아르펠리가 건설하여지며
튼튼하여짐에 따라서만 콤문의 천으로 돌아서는 농민의 대중적 운동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속히 실시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플호즈화운동의 최고형태가 되는 콤문은 오
직 장래에 가서만 그 운동의 주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질문. 폴라크층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대답. 지금까지 우리는 중농에 대하여 말하였다. 중농은 로동계급의 동맹자이다. 그러
므로 중농에 관한 우리의 정책은 반드시 우의적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폴라크와의 관계
는 다른 것이다. 폴라크는 쏘베트주권의 적이다. 그와의 사이에는 평화관계가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다. 폴라크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그것을 계급으로서 청산하는 정책이다. 이것
은 물론 우리가 일거에 그것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여 가지고 청산하도록 사업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태닌은 폴라크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폴라크들이란, 다른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지주, 차리, 승려, 자본가들의 주권을 회복시켜 놓은 적이 한 무
번만이 아닌 가장 야수적인, 가장 흉악한, 가장 야만적인 착취자들이다. 폴라크들은 지주 및 자본가들 보다 더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폴라크들은 인민속에서는 소수인 것이다. 이 흙혈귀(吸血鬼)들은 전쟁당시에 인민의 공평을 리용
 하여 리득을 보았으며 그들은 곡물 및 기타 식료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수천, 수만의 돈을 뽐이었다. 이 거미
(蜘蛛)들은 전쟁때문에 멸망된 농민들을 희생시켜, 굶주리는 로동자들을 희생시켜 기를 졌다. 이 거마리(鯉)들은
 도시들에서와 공장들에서 로동자들이 퍼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더 부유하여지면서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이
 흙혈귀들은 지주들의 로지를 자기손에 전여워하였으며 또한 전여들이고 있다. 그들은 다시 또 다시 민중들을 노예화하고
 있다」(제二三권 二〇六—二〇七페이지).

우리는 이 흠혈귀들, 거미들, 거마리들의 착취적 추함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참아왔다. 그것은 꿀라크의 경영과 꿀라크의 생산을 무엇으로써 대신하여 놓을것이 없었던 까닭에 참아왔다. 지금에 우리는 우리의 꿀호즈 및 꿀호즈의 경영으로써 그들의 경영을 훨씬 우월하게 대신하여 놓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거미들, 흠혈귀들의 존재를 더 참아갈 리유가 없는것이다. 앞으로 꿀호즈들에 방화하며 꿀호즈일꾼들을 살해하며 파종에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거미들, 흠혈귀들의 존재를 더 참는다는것은 로동자 및 농민들의 이익에 배반하여 나가는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급으로서의 꿀라크층을 청산하는 정책은 반드시 오직 불셰비크들에게만 있는 그 강경성과 철저성을 다하여 실시되어야 할것이다.

열째질문. 꿀호즈의 당면한 실천적 임무는 어디에 있는가?

대답. 꿀호즈의 당면한 실천적 임무는 파종을 위한 투쟁, 파종면적을 가장많이 확장하기 위한 투쟁, 파종의 정당한 조적을 위한 투쟁등에 있는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꿀호즈내의 모든 다른 임무들은 반드시 파종에 대한 임무에 순응되어야 할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꿀호즈의 모든 다른 사업들은 반드시 파종에 대한 조직사업에 종속되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꿀호즈들 및 그의 비당원 일성자들의 전실성과 꿀호즈의 지도자들 및 그의 불셰비크적 핵심의 능력이 파대한 결성서들과 평상하고 찬란한 축사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파종을 정당하게 조직하는 산 활동에 의하여 점열되리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천적 임무를 성실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플로르스인공들의 주의를 플로르스건설의 경제문제들에, 플로르스의 내부적 건설의 문제들에 돌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플로르스인공들의 주의의 중심점은 집단화의 높은 수확을 추구하는데 있었는바, 이에 있어서 사람들은 진정한 집단화와 지상(紙上)의 집단화와의 차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와서는, 수확에 대한 열중은 반드시 멀리 버리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와서 일꾼들의 주의를 반드시 플로르스들을 공고히 하는데, 플로르스를 조직적으로 정비하여, 놓는데, 플로르스들내에서 실무적 사업을 조직하여, 놓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플로르스인공들의 주의는 대규모적 플로르스들을 조직하는데, 소위 「거대플로르스」를 조직하는데 집중되어있었는데, 이에 있어서 그 「거대플로르스」는 흔히 각촌, 각리에서 경제적 근거를 잃어버린 번문육례(繁文縟禮)를 일삼는 공무소로 변하였다. 그러므로 외면처장의 사업이 실무적 사업을 삼켜버리었다. 지금와서는 외면처장의 사업에 대한 이 열중은 반드시 멀리 버리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와서는 일꾼들의 주의는 각촌, 각리에서의 플로르스들의 조직적·경제적 사업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게 되는 때면 「거대플로르스」는 제절로 생겨나올 것이다.

최근까지도 중농들을 플로르스내의 지도적 사업에 인입하는데 대하여 적게 주의를 돌리었다. 그런데 중농들중에는 플로르스건설의 훌륭한 경제일꾼들이 될수있는 탁월한 살림꾼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와서는 우리사업에 있는 이 결점은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에는 중농들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끝호즈내의 지도적 사업에로 인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업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임무가 있다.

최근까지도 농촌부녀들속에서의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지나간 시기는 농촌부녀들 가운데서의 사업이 우리사업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이어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 결점은 결정적으로 또는 영원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여러구역에서 공산당원들은 자력만으로써 끝호즈건설의 모든 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서 출발하면서 그들은 비당원들을 끝호즈내의 책임있는 사업에 인입함에, 비당원들을 끝호즈내의 지도적 사업에 응용함에, 끝호즈내에서 광범한 비당원 열성자들을 조직함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당의 력사가 증명하였고 또 끝호즈건설의 지난 시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이어 주었다. 만일 공산당원들이 비당원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막아놓고 그 껍질속에 들어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모든 일을 망쳐놓았을 것이다. 공산당원들이 사회주의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었고 공산주의의 적들을 박멸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비당원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사업에 인입할 줄 알았기 때문이며 그들은 비당원들의 광범한 대중속에서 힘을 길러낼 줄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기당의 주위에서 광범한 비당원 열성자들을 접결시킬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에는 비당원들에 대한 우리사업의 이 결점은 결정적으로 또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업의 이 결점들을 시정하며 그것을 근절하는 것——이것은 참말 골호즈들의 경제.적. 사업을 정상적 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즉——

(一)、과종을 옮겨 조직하는 것——이것이 곧 임무인 것이요、

(二)、골호즈화운동의 정제문제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것이 곧 그 임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것이다.

一九三〇년 四月 三일부

『브라브다』지 제九二호。

이 • 위 • 쓰 말 권 저작집 二문판

제一二권 二〇二—二二八페이지

경제 일꾼들의 임무에 대하여

一九三一年 二月四일 사회주의적 공업 일꾼들의

제 1차 전원행 콘페덴치야에서 한 연설

동지들! 이 콘페덴치야의 사업은 이제 끝나게 된다. 지금 여러분은 결정서들을 채택할 것이다. 그 결정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 결정서들에서——나는 그 결정서들을 좀 알고 있는데——여러분은 一九三一年도의 공업에 대한 예정수짜를 승인하는 것이며 또는 그 수짜들을 수행(遂行)할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볼셰비크의 약속은 신중한 약속인 것이다. 볼셰비크들은 그들이 주는 약속을 실행하는데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一九三一年도의 예정수짜들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공업 생산액을 전체로 四五% 증가시키는 것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큰 임무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여러분이 다만 우리의 五개년계획을 四개년에 수행하겠다는 행서를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임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결성서도 더 요구되지 않는다——그것은 여러분이 공업의 기본되는 결정적 부문들에 있어서 그 五개년계획을 三개년에 수행하겠다는 것을 행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사업의 이 결점들을 시정하며 그것을 근절하는것——이것은 참말 팔호즈들의 경제.적. 사업을 정상적 궤도에 올려세우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즉——

(一)、파종을 옮겨 조직하는것——이것이 곧 임무인것이오、

(二)、팔호즈화운동의 경제문제들에 주의를 집중하는것——이것이 곧 그 임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것이다.

一九三〇년 四月 三일부

『쁘타브다』지 제九二호。

이 • 위 • 쓰 말 권 저작집 로 문 관

제一二권 二〇二—二二八 페이지

경제일꾼들의 임무에 대하여

一九三一년 二월四일 사회주의적 공업일꾼들의

제一차 전원맹 콘페덴치야에서 한 연설

동지들! 이 콘페덴치야의 사업은 이제 끝나게 된다. 지금 여러분은 결정서들을 채택할 것이다. 그 결정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될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 결정서들에서——나는 그 결정서들을 좀 알고 있는데——여러분은 一九三一년도의 공업에 대한 예정수짜를 승인하는 것이며 또는 그 수짜들을 수행(遂行)할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볼셰비크의 약속은 신중한 약속인 것이다. 볼셰비크들은 그들이 주는 약속을 실행하는데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一九三一년도의 예정수짜들을 수행하겠다는것을 약속하는것은 무엇의 미하는가? 이것은 공업생산액을 전체로 四五% 증가시키는것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큰 임무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와같은 맹서는 여러분이 다만 우리의 五개년계획을 四개년에 수행하겠다는 맹서를 주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그것은 그것은 이미 결정된것임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결정서도 더 요구되지 않는다——그것은 여러분이 공업의 기본되는 결정적 부문들에 있어서 그 五개년계획을 三개년에 수행하겠다는것을 맹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콘페렌치에서 一九三一年도의 계획안을 수행하겠다고, 五개년계획을 三개년에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쓰라틴 경험」에 의하여 배운 것이 있다. 우리는 약속하는 바가 언제나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다. 一九三〇년 초에도 역시 그 년도의 계획안을 수행하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공업의 생산액을 三一—三二%나 증가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한 바가 완전히 실행되지 못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一九三〇년도의 공업생산액의 증가는 二五%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금년에도 충족되지 않았느냐? 고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공업의 지도자들, 일꾼들은 지금 一九三一年도에 공업생산액을 四五%나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런데 약속이 실행되리라 하는 데 대하여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가?

예정수짜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액을 四五%나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五개년계획을 四개년에 아니라, 기본되는 결정적 부분들에 있어서 三개년에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의 기본적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다.

첫째로, 이것을 위한 현실적인 혹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가능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 가능성들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업소들을 지도하며는 의욕과 수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에게는 계획안을 완전히 수행할만한 「객관적」가능성들이 있었는가? 물론, 있었다. 전쟁할 여지가 없는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하여주는 것이다. 이 사실들은 작년

三월과 四월에 공업이 제작년에 비하여 三一%의 생산액의 증가를 주었던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문노니, 무슨 까닭으로 우리는 一개년전체의 계획안을 수행치 못하였던가? 무엇이 방해(妨害)하였던가? 무엇이 부족하였던가? 원존하여 있는 가능성들을 리용하는 수완이 부족하였다. 공장 제조소, 광산(鑛山)들을 옮겨 지도하는 수완이 부족하였다.

우리는 첫째 조건 즉 계획을 수행할만한 「객관적」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조건 즉 생산을 지도하는 수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었다. 참으로 기업소들을 지도하는 수완이 부족하였음으로 계획안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생산액의 三一—三二%의 증가를 절대선에 우리는 二五%만을 주었다.

물론, 二五%의 증가만도 큰 일이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를 물론하고 한나라도 一九三〇년에 생산액을 증가하지 못하였고, 지금에도 그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한나라도 제외함이 없이 다 생산이 격심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二五%의 증가는 큰 전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증가할 수 있었다. 더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객관적」 조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즉, 금년에는 작년의 사전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계획안이 완전히 수행되리라는, 원존하여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상당하게 리용하리라는, 여러분의 약속이 어떠한 부분에서 있어서 지상에 맹서로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가?

국가들의 력사상이나, 나라들의 력사상이나, 군대들의 력사상에는 성공을 얻은만한, 승리물 얻은만한 모든 가능성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그것을 리용할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으며 그리고 군대는 실패를 당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一九三一년도의 예정수짜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그런 가능성들은 우리에게 있다.

그 가능성들은 어디에 있으며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의 충분한 자연부원 즉 철광, 석탄, 석유, 목물, 면화가 요구된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있다. 어떠한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이 있다. 우랄만을 예로보자. 우랄은 어떤나라에서든지 차지될수 없는 그런 부원의 종합체를 이루고있다. 광석, 석탄, 석유, 목물——무엇이 우랄에 없는가! 우리나라에는 생고무 이외에는 무엇이나다 있다. 그러나 그 생고무도 一—二년후이면 우리는 자기 수중에 가지게 될것이다. 이방면, 즉 자연부원의 면으로 보아서는 우리는 완전히 보장되어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요구되는것보다 더 많이 있다.

무엇이 또 요구되는가?

인민에게 유리하게 이 거대한 자연부원을 리용하려는 의욕과 력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권의 존재가 요구되는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그와같은 정권이 있는가? 있다. 사실에 있어 자연부원을 리용하는데 대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일꾼들 사이에 의견상 충돌이 없이 언제나 다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쏘베트주권은 제2석탄야금공업기지의 건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투쟁을 하게되었다. 그런데 그 제2석

란—야금공업기지가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장애(障礙)들을 극복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얼마안되어 그 기지가 있게 될 것이다.

무엇이 또 요구되는가?

그 주권이 수천만의 노동자 및 농민대중의 지지. 받는 것이 또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은 그와 같은 지지를 받는가? 사실, 받는 것이다. 여러분은 쏘베트주권처럼 그렇게 노동자 및 농민의 지지를 받는 그와 같은 다른 주권을 전세계에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회주의 경쟁이 장성하는 사실들, 우다르니크운동이 장성하는 사실들, 호응적(呼應的) 생산—재정계획안을 위하여 투쟁하는 운동들을 인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수천만 대중의 쏘베트주권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들어내 보이는 이 모든 사실들은 일반이다. 아는바이다.

一九三一年도의 예정수짜들을 수행하며 또 초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가?

자본주의의 불치(不治)의 병들에 걸리지 않으며 자본주의에 비하여 큰 우월성을 가진 그런 제도의 존재가 또한 필요한 것이다. 공화, 실업, 탐비(浪費), 광범한 대중의 빈궁(貧窮)—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들이다. 우리의 제도는 이와 같은 병들로부터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 않나니, 그것은 주권이 우리의 수중 즉 노동계급의 수중에 있는 까닭이며 그것은 우리가 계획적 경제를 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재력을 축적(蓄積)하며 또는 그 재력을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옮겨 분배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치료할 수 없는 자본

주의의 병들에 결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차이점이 있으며 여기에 자본주의에 비하여서 우리의 결정적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공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오려고 하는가를 보라. 그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임금을 최대한도로 인하시킨다. 그들은 원료에 대한 가격을 최대한도로 저하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소비품인 공업품과 식료품에 대한 가격은 얼마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저하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기본적인 상품소비자들을 회생시켜서, 노동자들을 회생시켜서, 농민들을 회생시켜서, 근로자들을 회생시켜서 공황으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이 앓아있는 나무가지를 찍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황으로부터 나오는 대신에 그공황을 심각화(深刻化)하며 보다더 가혹(苛酷)한 새로운 공황이 닥쳐오게 하는 새 전제조건들을 조성한다.

우리의 우월성은, 우리는 파임생산(過剩生産)공황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수천만의 실업자들을 가지지 않았고 또 가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않는 거기에 있나나, 그것은 우리가 계획적 경제를 운영하고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라는 공업이 가장 집중된 나라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기술의 기초위에 우리의 공업을 건설할수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일찍 보지 못하던 노동의 생산능률과 일찍 보지못하던 축적의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파기에 있어서 우리의 약점은 이 공업이 분산된 소규모적 농민경제를 토대로 삼고있게되었던 거기에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일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벌써 없어졌다. 제일, 한 개년후이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 농업국가가 될것이다.

쥘호즈들 및 플호즈들——이들은 대규모적 경제의 형태인 것이다——은 벌써 금년에 우리의 전(全) 상품품물의 반액을 내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즉 소페트제도는 어떠한 부조요 국가를 물론하고 한나라도 몽상(夢想)할 수 없는 그런 신숙한 전진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족자세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또 요구되는가?

로동계급의 모든 우수(優秀)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목표(一目標)로 향하게 하기에는 충분히 계속되었고 또 통일된 당, 난관에 직면하여 접을 내지 않으며 또는 옳은 혁명적 불체 비크적 정책을 실생활에서 재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충분히 경험을 가진 당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당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당의 정책은 옳은가? 물론, 옳다. 왜냐하면 그의 정책이 큰 성과들을 내는 까닭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다만 로동계급의 빚들만이 아니라 또한 적들까지도 승인하는 바이다. 일반이 다 아는 「절잔은」 신사들, 즉 아메리카의 헛짜, 영국의 처칠, 불란서의 루앙카페동이 우리당을 반대하여 어떻게 고함(高喊)치며 미쳐떨비는가를 보라. 어째서 그들은 고함치며 미쳐떨비는가? 그것은 우리당의 정책이 옳으며 그정책이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는 까닭이다.

동지들, 이것이 一九三一년도에 예정수자들의 수행을 우리에게 용이하게 하여주는,五개년계획을 四개년에, 그리고 절점적 부문에 있어서는 심지어 三개년에 수행할 수 있게 하여주는 그 모든 재판적 가능성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첫째조건 즉 「재판적」 가능성들은 우리의 목적에 있는 것이다.

물째조전, 즉 이 가능성들을 리용하는 수완이 우리에게 있는가?

달리 말하면 공장, 제조소, 탄광들에 대한 좋은 지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되어 가는가?

유감이나 마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되어 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셰비크들로서 반드시 이것을 솔직히 또 공공연하게 말하여야 한다.

생산을 지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는 기업소들의 지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늘 볼셰비크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지도한다는 것은 종이상에서 서명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다. 이것은 유감이지만은 그러나 이런일이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어떤때에는 자연히 웨드틴의 소설에 있는 뽀빠두르(頑迷한官吏)들을 회상하게 된다. 뽀빠두르 부인이 젊은 뽀빠두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기억하는가? 즉 과학에 대하여 뇌를 쓰지 말고 일을 깊이 연구하지 말며 다룬사람들이나 그런때 몰두(沒頭)하라고 하여라, 이것은 녀의 일이 아니다——녀의 일은 지도하는 것이며 종이상에서 서명하는 것이다라고 한것을. 우리의 수치지만, 우리 볼셰비크들의 가운데는 종이상에서 서명하는 방법으로써 지도하는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때 일을 깊이 연구하며 기술을 습득하며 일의 주인이 되는데 있어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한다.

三차의 혁명을 수행하였고 가열한 국내전쟁에서 승리자로 나섰고 현대적 공업건설의 거대한 임무를 해결하였고 농민을 사회주의의 길에로 돌려세운 우리 볼셰비크들이 생산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종이상앞에 항복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수있었는가?

여기에 있어서 원인은 종이장에 서명하는 것이 생산을 지도하는 것보다 일층 쉽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경제일꾼들은 이 최소저항(最小抵抗)의 길로 나아갔다. 여기에 는 또한 우리의 최 즉 중앙의 최도 있는 것이다. 十년전에 아래와 같은 포어를 내놓았다. 즉 「공산당원들은 생산의 기술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경영을 관리하는 것을 더 배워야 하겠으니 이전의 기술, 기사, 전문가들에게 생산의 지도를 맡겨두고 그리고 여러분은 즉 공산당원들은 기술에는 간섭하지 말라, 그러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원전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금후로 생산의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며 일의 진정한 주인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팔장을 끼지 말고 기술을 연구하며 생산을 관리하는 과학을 연구하라」고 하였다. 그때에 포어는 이러하였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공 석의 둘째 부분을 포기(拋棄)하였다. 그것은 배우는 것이 종이장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까닭이다. 그리고 그 공석의 첫째 부분은 불간섭이라는 것을 생산기술의 연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가지고 그것을 비속화시켜 버렸다. 엉터리없는 일, 유해(有害)하고 위험한 엉터리없는 일이 생기었으니 그것을 속히 없애버리면 버릴수록 더 좋을 것이다.

실생활 자체는 이일에 있어서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두번만 우리에게 정보(警報)하지 않았다. 사르트사건은 그 첫째 경보이 있었다. 사르트사건은 당 단체들과 직업동맹들에 혁명적 경각성(警覺性)이 부족하였음을 보이어 주었다. 그 사건은, 우리의 경제일꾼들이 기술적 방면에 있어서 부끄러울만치 낙후되었던 것과 이전의 일부 기사 및 기술들은 감지가 없 이 일하고 있음으로 해독사업의 길에로 일층 쉽게 넘어간다는 것과, 더구나 외국으로부터

러 적들이 여러가지 「제의들로서」 그 전문가들을 무단적으로 총동하고 있음을 보이어 주었다.

둘째정보는 「산업당」(産業黨) 사건이다.

물론 해독사업의 기초로 되는것은 계급투쟁이다. 물론 계급적 원부들은 사회주의의 공세에 열광적으로 반항하는것이다. 그러나 해독행위가 이와같이 굉장히 왕성되는것을 설명하기에는 이 한가지만으로는 부족한것이다.

어떻게되어서 해독행위가 이와같은 광범한 범위를 가지게될수 있었는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정제를 지도하는 사업을 달리 세웠더라면, 만일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일을 연구하며 기술을 습득하는때로 훨씬 더 일찍 넘어갔더라면, 만일 우리가 경제지도에 더 자주 또는 효과있게 간섭하였더라면 해독자들은 그렇게 많이 해독을 끼치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 일의 주인이 되어야하며 기술상 지식에로 주의를 돌리도록 생활하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첫째정보도, 심지어 둘째정보까지도 반드시 있어야 할 전환을 아직도 보장하여주지 못하였다. 기술에 주의를 돌릴때는 벌써 다쳐온지 오래다. 낡은 포어, 기술에 간섭하지 말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포어를 내버려두고 자기 자신이 전문가가 되며 일에 능통(能通)한 사람이 되며 자기 자신이 일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할때가 왔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는 단일책임제(單一責任制)가 없느냐? 고 하니 물어본다. 우리가 기술을 배워내기전까지는 그것이 없었을 것이며 또한 있을수 없는것이다. 기술, 경제

몇 재정문제들을 잘 아는 사람의 수가 우리중에, 불세비크들중에 충분히 있기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단일책임제가 없을것이다. 결정자들을 얼마든지 쓰며 아무런 말로써든지 행사할수 있으나 그러나 단일 공장, 제조소, 탄광의 기술, 경제, 재정에 대하여 습득하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을것이며 단일책임제가 없을것이다.

그런즉 임무는 우리자신이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이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있다. 우리의 계획안들이 완전히 수행되고 단일책임제가 실시될때 대한 보장은 오직 여기에만 있는것이다.

이 일은 물론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극복하여낼만한 일이다. 과학, 기술상의 경험, 지식——이 모든것은 얻을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없지만 래일에는 있을수 있는것이다. 여기에 주요한것은, 기술을 습득하며 생산에 대한 과학을 습득하며는 열렬한 불세비크적 의욕을 가지는데 있다. 열렬한 의욕을 가지는 때에는 모든것을 달성할수있으며 모든것을 극복할수 있다.

때때로, 속도를 얼마쯤 프게하며 운동을 억제할수 없느냐고 물어들본다. 아니, 동자들, 그렇게하지 못한다! 속도를 프게하지 못한다! 오히려, 힘과 가능성이 있는대로 그것을 더 빠르게하여야 한다. 초현의 로동자들 및 농민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라는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전세계의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라는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속도를 프게 한다는것——이것은 뒤떨어지는것을 의미한다. 그럴때 뒤떨어진자들은 두드러 맞는것이다. 그럴때 우리는 두드러 맞는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니다, 원치 않는다! 이전 로씨야의 역사는,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부단히 두드러맞은 력사였다.

몽고의 한(汗)들이 두드렸다. 로이기의 베크들이 두드렸다. 서전(瑞典)의 봉건들이 두드렸다. 파란—리트바의 지주들이 두드렸다. 영국—불란서의 자본가들이 두드렸다. 일본의 귀족들이 두드렸다. 모두가 뒤편어졌다고 두드렸다. 군사적으로 뒤편어졌다고, 문화적으로 뒤편어졌다고, 국정상에서 뒤편어졌다고, 공업상으로 뒤편어졌고, 농업상으로 뒤편어졌기 때문에 두드렸다. 이렇게 두드린것은 리익나는 일이었다. 또한 두드린대야 무사하게 지나갔을 기때문에 두드렸다. 「어머니 무찌아여! 너는 풍부하고도 가난하다, 너는 강력하고도 무력하다」라고한 혁명전지인의 말을 기억하는가. 옛지인의 이 말을 그 양반들은 잘 배웠다. 그들은 두드리면서 「너는 풍부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베들을 치먹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두드리면서 「너는 가난하고 무력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너를 두드리고 약탈하여도 무사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랍후된자들과 약한자들을 두드리는것——이와같은것이 곧 착취자들의 법칙인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야수적 법칙인것이다. 너는 랍후되었고 너는 약한 자이다. 그러니 너는 울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를 두드릴수 있으며 노예화시킬수 있다는것이다. 너는 유력한자이다. 그러니 너는 울다. 그러므로 네게 대하여서는 조심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바로 이러한기때문에 우리는 더는 뒤편어질수 없는것이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조국이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였고 또한 주권이 우리에게 즉 인민에게 있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조국이 있는것이니 우리는 그의 독법을 고수할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조국이 격파되며 또는 우리 조국히 그의 독법을 상실하는것을 원하는가?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최단 기간에 우리 조국의 랍후성을 청산하여야 하며 또는 그의 사회주의적 경제의 건설사업에 있

어서 진정한 불해비크적 속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년은 十월혁명당시에 이렇게 말하였다—「혹은 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가고 또한 앞서가든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선진 국가들보다 五〇—一〇〇년을 뒤떨어졌다. 우리는 반드시 이 거리를 十년 동안에 달아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짓밟히워 버리든지 할 것이다.

실로 소련의 노동자 및 농민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일층 더 신중하고 일층 더 중대한 다른 의무가 또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의무이다. 그 의무는 첫째 종류의 의무와 합쳐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무를 더 높이 세운다. 소련의 노동계급은 세계 노동계급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소련 노동계급의 노력으로써만 아니라 또한 세계 노동계급의 지지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지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분배당한지 오래였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돌격부대라고 말한다. 이것은 잘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신중한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무엇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은 지지들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자본주의와의 전투에 뛰어 들었으며 우리가 제일 먼저 노동자 주권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가 제일 먼저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된 그것때문이다. 우리가 성과를 얻는 경우에는 전세계를 위적어 놓을 것이며 또 전로동계급을 해방시키게 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것때문이다. 그런데 성공을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의 약속을 청산하는 것과 건설의 높

은 불쇄비크적 속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반드시 전세계의 노동계급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것이 우리의 선봉대이다. 저것이 우리의 들켜부대이다. 저것이 우리의 로동추진이다. 저것이 우리의 조국이다. 그들은 자기의 일과 또 우리의 일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러므로——자본가들에 반대하여 그들을 지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세계혁명의 사업을 벌리 이르킬 것이다 타고 말하도록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로동계급의 기대를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실행하여야 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결국 수치를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의무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것이 우리의 국내적 및 국제적 의무들이다.

여러분은, 이 국내적 및 국제적 의무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쇄비크적 발전 속도를 취하도록 하라는 것을 보고 있다.

경제를 지도하는 방면에서 이 여러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였으며 또는 매우 많이 하였다. 우리는 공업생산액을 전쟁전에 비하여 두 배나 증가하였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농업생산을 조직하여 놓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시기 동안에 생산, 그의 기술방면, 그의 재정—경제방면을 진정하게 습득 하기에 노력하였더라면 우리는 일층 더 많이 하여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산진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략후되고 있는 그 거리를 최대한도 10년 동안에 달음질치나아가야 한다. 그를 실행하기 위하여서의 모든 「객관적」 가능성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가능성들을 참으로 리용하는 수완만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만 달린 것이다! 우리가 이 가능성들을 리용하는 것

을 배울 때가 왔다. 생산에 간섭하지 말라는 낱아빠진 견해를 없애버릴 때가 왔다. 현시기에 해당하는 다른 세 견해 즉 만사에 간섭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질 때가 왔다. 만일 배가 공장지배인이거던 모든일에 간섭하며 모든것을 깊이 연구하며 아무것도 등한히 여이지 말고 배우고 또 다시 배워야 한다. 볼셰비크들은 반드시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볼셰비크들은 자기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재건기에 있어서는 기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기술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경제일꾼—그것은 일화(逸話)의 사람이자 경제일꾼은 아닌 것이다.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들한다. 옳지 않다! 볼셰비크들이 절평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 매우 어려운 임무들을 해결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였다. 우리는 주권을 장악하였다. 우리는 가장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공업을 건설하여 놓았다. 우리는 총동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였다. 우리는 전설사업의 전지로 보아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벌써 다하여 놓았다. 우리에게는 기술 배우며 과학을 습득할 일만이 남아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하는 때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상도 할수없는 그런 속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이것을 전정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꼭 수행할 것이다!

새 환경과 경제건설의 새 과업

一九三一年 六月二十三일 경제일꾼들 협의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동지들! 협의회의의 제로는 계획완수의 전제로 보아 우리공업이 매우 다종다양한 정경(情景)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나간 五개월동안에 작년에 비하여서 四〇—五〇%의 생산액을 증가한 산업부문들이 있다. 二〇—三〇%밖에 증가하지 못한 그런 부문들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소한도의 증가 즉 六—一〇%쯤이나 또는 그보다도 더 적은 증가를 본 그런 일부의 산업부문들도 있다. 마지막에 말한 그런 부문들에는 석탄채굴업 및 흑색야금업이 속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정경은 다종다양하다.

이 다종다양한 것을 무엇으로써 설명할 것인가? 일부의 산업부문들이 뒤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일부의 산업부문들은 겨우 二〇—二五%의 증가만을 주었고, 석탄채굴업과 흑색야금업은 그보다 더 적은 증가를 주면서 다른 부문들의 뒷표리(尾)에 따라가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최근에 와서 산업발전의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지도의 새 방법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이 생겨났지만, 우리의 일부 경제일꾼들은 사업방법을 고치는 대신에

아직까지도 계속하여 낮은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즉 문제는 산업발전의 새 조건들은 새 방식으로 사업하기를 요구하겠지만, 우리의 일부 경제일꾼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는 지금에 와서는 새 방식으로 지도하여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산업의 어떤 부분들이 뒤떨어지는 원인은 뜬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산업의 발전의 새 조건들이란 무엇인가? 그 조건들은 어디에서 생겨나왔는가?

그새 조건들은 적어도 여섯가지가 있다.

이 조건들을 고찰하여 보자.

一、로 동 력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소들에 로동력을 보장하여줄때 대한 것이다. 보통 이전에는 로동자들이 스스로 공장으로, 제조소로 찾아갔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자연류동(自然流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류동은, 실업이 있었으며 농촌에 분화가 있었으며 빈궁이 있었으며 사람들을 농촌으로부터 도시에서 몰아보낸 기근(飢饉)의 공포가 있었던 데서 생겼던 것이다. 「농부가 농촌으로부터 도시에서 도주한다」라는 문구를 기억하는가? 무엇이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으로부터 도시에서 도주하게 하였는가? 기근의 공포, 실업, 농촌이 농민에게 대하여서는 계모(繼母)이었던 그 환경이 도주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열기위하여서 농촌으로부터 어디로든지 비록 아파에게라도 도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에게서는 오래지 않은 과거에 있어서까지도 형편은 이러하였으며 혹은 거의 이러하였었다.

지금에도 우리는 역시 그와 같은 정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말할지 못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지금에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환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노동력의 자연류동이 더는 없는 것이다.

실상 이 시기 동안에는 무엇이 변경되었는가? 첫째로, 우리는 실업을 청산하였으므로 제 「노동시장」을 내려누르던 그 힘을 우리는 없애버리었다. 둘째로, 우리는 농촌에서의 분화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었다. 따라서 우리는 농민을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몰아보내던 그 대중적 빈궁을 극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만대의 트랙토르와 농업기계들을 농촌에 공급하였고 팔라크를 박멸하였고 팔호즈들을 조직하였으며 또한 사람답게 살며 일할 가능성을 농민들에게 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벌써 농촌을 농민의 계모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실로 농촌을 더는 계모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농민은 농촌에 뿌리박고 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농부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도주하는 것」도, 노동력의 자연류동도 더는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전혀 새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 기업소들에 노동력을 보장하는 새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것을 보는바이다.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로부터 첫째로, 더는 노동력의 자연류동에 의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공업에 있어서 자연류동의 「정책」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정책에

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한가지 길, 즉 경제기관들이 팔호즈 및 팔호즈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길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일부의 경제기관들과 팔호즈들이 벌써 이 길에 나설것을 아는바이다. 그런데 경험은 계약체결의 실천이 팔호즈들에게나 또는 잔업기업소들에게나 다 같이 상당한 성과를 주고있다는것을 보이어주었다.

이로부터 둘째로, 가장 어려운 노동행정들의 기계화에로 즉시 넘어가서 (삼림업, 건축업, 석탄채굴업, 집 신는것—점 부리우는것, 운수업, 흑색야금업, 등등) 그것들 극력전개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물론 수공로동을 마치 내던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도리어 수공로동은 생산에 있어서 아직도 오랫동안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행정의 기계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또 결정적인 힘이 되는 까닭에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속도도, 생산의 새 범위도 감당하여낼수없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계화도, 팔호즈와의 계약체결도 「민지않는」 그런 경제일꾼들이 적지않게 있다. 이것은 새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며 새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치않으면서 노동력이 기업소들에게로 「스스로 오딘」 「옛날의 좋은 시절」을 기억하고있는 그런 경제일꾼들이나 이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일꾼들은 새 환경이 우리앞에 내세운 경제건설의 새 과업들과는 천양지간과 같은 먼 거리에 서있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노동력에 대한 곤난들은 우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노동력의 부족은 말하자면 자연발생적으로 스스로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분명하다. 동지들, 이것은 오해이다. 노동

력에 대한 곤란들은 스스로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곤란들은 오직 우리 자체의 노력의 결과로써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광호즈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써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며 노동**

을 기계화하는 것 — 이러한 것이 **파업**이다.

우리공업 발전의 첫째 새 조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둘째 조건에 대한 문제에도 넘어가자.

二、노동자들의 임금

나는 우리의 기업소들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야 된다는 것을 방금 말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것만으로써는 모든일을 다 하여 놓았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소들에 노동력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서는 노동자들을 생산에 고착시키며 또는 기업소들에서 반드시 노동인원을 다 소간 항구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의 기술을 다 소간 습득하였고 또한 새 기계장치에 습관된 노동자들의 항구적 노동 인원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하며 생산계획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노동자들을 새로 배워주게 될 것이며 시간을 생산에 리용할 대신에 그 노동자들을 배워주는 데 절반이나 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형편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기업소들의 노동인원이 다 소간 항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유감이나마 그렇다고 말할 수 없

다. 그와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소들에는 아직도 소위 노동력의 류동성(流動性)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노동력의 류동성이 없어지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자라나며 또한 심하여진다. 하여간 여러분은 노동인원의 성분이 반년이나 혹은 삼개월동안에 적어도 三〇—四〇%가 변동되지않은 그런 기업소들을 찾아내기는 어려울것이다.

이전에, 우리나라에 기술적 장치(裝置)가 복잡하지 않았었고 생산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산업부흥기에 있어서는 소위 노동력의 류동을 하여간 「참아」갈수 있었었던것이지만 지금은 사태가 달라졌다. 지금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지금, 생산의 규모가 팽창히 커졌고 기술적 장치가 극단으로 복잡하여진 확대된 재진기에 있어서는 노동력의 류동성은 우리의 기업소들을 문란케하여 생산을 방해하는 재화(災禍)로 변하여졌다. 지금에 와서 노동력의 류동성을 「참아」간다는것은 우리의 공업을 와해시키며 생산계획안의 실행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며 생산품의 질(質)의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파탄시킨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노동력의 류동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로동임금의 조적이 옳지못하게 된데 있으며 임금규정제도가 옳지못하게된데 있으며 로동임금에 대한 「과경적」 평균제(平均制)에 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소들에서 로동임금규정이 숙련(熟練)한 로동과 미숙련한 로동과의 사이에, 중로동과 정로동과의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게 제정되어있다. 평균제는 미숙련한 로동자로 하여금 숙련한 로동자로 되는데 흥미를 부치지 않게함으로써 진보의 전망을 잃어버리게하는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미숙련한 로동자는 조금 「떨어가지고는」 어디로든지 「행복을 찾아서」 다른데로

가기위하여 다만 임시적으로만 생산에서 일하는 「별장사리꾼」으로 자기를 생각한다. 평균제는 숙련한 노동자로 하여금 필경 그 숙련한 노동을 상당히 평가하여줄 그런 기업소를 찾기 위하여 이 기업소로부터 저 기업소로 넘어다니지 않을수 없게한다.

여기로부터, 이 기업소에서 저 기업소로 넘어다니는 「일반적」 이동, 노동력의 류동성이 생기는것이다.

이 악폐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평균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남은 임금제도를 타파하여야 한다. 이 악폐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숙련한 노동과 미숙련한 노동과의 사이에 있는, 중노동과 경노동과의 사이에 있는 차이를 참작하는 임금규정제도를 조직하여야 한다. 혹색야금업에서의 전철부(展鐵夫)가 소제부의 받는것과 같은 임금을 받게되는것은 옹허할수 없는일이다. 철도운수업에서의 기관수가 사자생(寫字生)이 받는것만치 받는것은 옹허할수 없는것이다. 숙련한 노동과 미숙련한 노동사이의 차이는 지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도, 계급들을 소멸한후에도 존재할것이오 다만 공산주의하에서만 이 차이가 없어질것임으로 「로동임금」은 지어 사회주의하에서도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노동에 따라서 지불되어야 할것이라고 맑스와 레닌은 말하였다. 그러나 경제일꾼들과 직업동맹 일꾼들중의 평균제 실시자들은 이에 동의하지않으며 따라서 이 차이는 우리의 쏘베트제도하에서 벌써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은가, 맑스와 레닌인가, 그렇지않으면 평균제 실시자들인가? 여기에 있어서 맑스와 레닌이 옳게 론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지금 숙련한 노동과 미숙련한 노동사이의 차이를 타산하지않고 평균제 「원칙」에 의하여 임금

규정체계를 제정하는자는 맑스주의와 인연을 끊는자이오 레닌주의와 인연을 끊는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공업의 각 부문에나 각 기업소와 각 직장에는 다소간 숙련된 노동자의 지도적 그루빠들이 있는것이다. 우리가 만일 진실로 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의 항구적 노동인원을 보장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또는 주로 그 그루빠들을 생산에 고착시켜야 할것이다.

그들—노동자들의 이 지도적 그루빠들은 생산의 기본적 고리를 이루고 있는것이다. 그들을 기업소에, 직장에 고착시킨다는것은 전 노동인원을 고착시키는것과 노동력의 류동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기업소에 고착시킬수 있는가? 그들을 동용하는것, 그들의 노동임금의 수준을 인상하는것, 일꾼의 숙련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주는 그런 노동임금을 제정하는것등의 방법으로써만 그들을 고착시킬수있는것이다.

그들을 동용하며 그들의 노동임금의 수준을 인상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것이 미숙련노동자에게 한하여는 어떤 결과를 줄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숙련한 노동자들에게 전망을 열어주어 앞으로 전진하도록, 숙련한 노동자들의 등급으로 전진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수십만 수백만의 숙련한 노동자들이 요구된다는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바이다. 그런데 숙련한 노동자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배워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숙련급에 올라가려고 할 격려와 전망을 주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길며 더욱 용감하게 들어설수록 더 좋은것이다. 그것은 여기에 노동력의 류동성을 없애버리는 기본적 수단이 있는 까닭이다. 이 일에 있어서 절약한다는것은 별죄하는것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의 이익에 반대하여 나아가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다.

로동자들을 기업소에 고용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 및 주택조건들을 더 개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로동자들의 주택건축 및 공급의 영역에 있어서 최근 몇해 동안에 적지 않은 사업을 하여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여놓은 것만으로는 급속히 자라나는 로동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아주 불충분한 것이다. 이전에는 지금보다 주택이 더 적었다는 데 빙거하여 달성된 결과들으로써 안심할 수 있다고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금보다 로동자들에게 대한 공급이 훨씬 나빴다는 데 빙거하여 현존상태로써 만족할 수 있다고 하여서도 또한 안 되는 것이다. 다만 부패하고 아주 썩어빠진 사람들만이 과거를 구실로 함으로써 위안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현재의 로동자들의 장성하는 수요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의 생활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의 로동자는 과거의 로동자가 아니다. 현재의 로동자, 우리의 쇼메트로동자는 식료품 공급의 의미에 있어서나 주택문제의 의미에 있어서나 문화 및 기차의 온갖 수요를 보장해주는 의미에 있어서 그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켜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는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 조건들을 그에게 보장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실업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지 않으며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되었으며 그들은 더는 노예가 아니고 자기일의 주인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부족하다. 그는 그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이 요구를 실행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로동자에게 대하여 로동규율, 긴장한 로동,

사회주의적 경쟁, 동경대적 사업 등의 요구들을 내세우는것을 잊지말라.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막대한 열심으로써 쏘베트주권의 이 요구들을 맞이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을 용감하게 실행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말라. 그렇기때문에 노동자들은 쏘베트주권의 요구들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쏘베트주권이 노동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형편을 일층 더 개선하는 그의 의무의 리행을 요구할것을 이상히 여기지말라.

그런즉, 노동력의 투동성을 청산하며 평 균 제를 없애버리며 노동임금을 올게 제정하며 노동자들의 생활조건들을 개선하여야 하는것——이러한것이 과업이다.

우리산업발전의 둘째 새 조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셋째 조건에 대한 문제에도 넘어가자.

三、로 동 조 직

나는 위에서 노동력의 투동성을 청산할 필요와 노동자들을 기업소들에 고착시키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고착시키는것으로만은 모든 일이 다 되는것은 아니다. 투동성을 없애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밖에 또 또한 효과있게 노동하며 생산능률을 높이며 생산품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을 노동자들에게 줄만한 그런 노동조건들을 그들에게만 들어주어야 하는것이다. 그런즉 기업소들에서 생산능률이 달마다, 매사분기(每四分期)마다 더 높아지도록 노동들을 조직하여야 하는것이다.

우리 기업소들에 있는 현하의 실제상 로동조직이 생산의 현대적 요구에 적응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유감이나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튼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로동조직이 아주 나쁘게 되어있고 사업에 있어서 결서와 일치성이 있어야 할 대신에 무결서와 혼돈이 있으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할 대신에 완전한 무책임성과 개인책임회피가 왕성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개인책임회피란 무엇인가? 개인책임회피라는 것은 위임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것이오 기계장치, 기대, 기구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개인 책임회피가 있는 데서 로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만이라도 신중하게 높인다거나 생산품의 결을 개선한다거나 기계장치, 기대, 기구들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은 환한 일이다. 여러분은 철도운수업에서의 개인책임회피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을 잘 안다. 그는 공업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업에 있어서도 그의 사업을 더 높은 계단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개인책임회피와 또는 구체적 사업에 대한 각자의 책임의 결과와 더부러 서로 좋게 점주해오던 그 옳지 못한 로동조직을 가지고 이력저력 『지별』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사태가 달라졌다. 지금에 와서는 환경이 전혀 달라졌다. 현하 거대한 생산규모와 거대(巨大)한 기업소들이 현존하고 있는 이때에 개인책임회피는 기업소들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산적 및 조직적 성과에 위험을 지어주는 산업의 재화(災禍)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소들내에 개인책임회피가 어떻게 뿌리를 박을수 있게되었는가? 그 개인책임회피는 연속조업주간제(連續操業週間制)의 비법적 동반자(同伴者)로서 기업소들에 들어온것이다. 연속조업주간제가 반드시 생산에서의 개인책임회피를 가져온다고 말하는것은 옳지못한것이다. 로동을 옳게 조직하며 각 사람마다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며 로동자들의 일정한 그루빠들을 기계장치와 기대에 고착시켜놓으며 결과 측면정도에 있어서 서로 짝지지는 않는 교대를 옳게 조직한다면——이 조건하에서 연속조업주간제는 로동의 생산능률을 굉장히 향상시킬것이며 사업의 질을 개선케할것이며 개인책임회피를 근절케 할것이다. 예를들면 지금 연속조업주간제는 있지만 개인 책임회피는 벌써 없는 철도운수업에서는 사실 그와같이 되어있다. 우리가 공업의 기업소들에서도 연속조업주간제의 그와같은 향호한 정경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있는가? 유감이나마 그렇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많은 기업소들이 적당한 조건들을 준비함이 없이, 결과 측면정도에 있어서 다소간 동등한 교대를 상당히 조직함이 없이, 각 사람마다 일정한 구체적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킴이 없이 너무도 급하게 연속조업주간제로 넘어간 데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곧 자연생장성에 맡겨둔 연속조업주간제가 개인 책임회피로 전환되는데 이르게하였다. 그 결과에 우리는 여러 기업소들에서 지상(紙上)적 생산상면속조업주간제와 비(非)지상적 현실적인 개인책임회피를 보고있다. 그결과로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며 기계장치에 대하여 등한시(等閑視)하며 기계들을 대량적으로 파손하며 또는 로동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격려가 없는것을 보고있다. 『우리는 로동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킬수있었고 사업을 개선할수있었으나 아무도 도무지 책임을

지 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로동자들이 말하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이로 보려는, 우리 동지들 중에서 어떤 자는 어떤 곳에서 연속조업주간제의 실시를 조금 하였고 그때문에 연속조업주간제를 개인책임회피로 변화시켰으며 의곡하였다는 결론이 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편을 청산하며 개인책임회피를 없애는 데는 두 가지 출로가 있는 것이다. 즉 철도운수업에서 실행한 그 모범을 받아서, 연속조업주간제가 개인책임회피로 변환되지 못하도록 그 연속조업주간제 실시에 대한 조건들을 변경하는지 혹은 지금 그와 같은 실험을 할 만한 적당한 조건들이 없는 곳에서는 얼마전에 쓰딸린 그라드 프락토르공장에서 실시한 것과 같이 지상의 연속조업주간제를 내버리고 六일주일제로 임시로 넘어가서 이후에 확실하고 비(非)지상적이오 개인책임회피가 없는 연속조업주간제로 도라가는데 대한 조건들을 준비한다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출로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일꾼들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음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무슨 까닭으로? 아마 그들은 진리(眞理)를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불췌비크들이 진리를 두려워 하게 되었는가? 여러 기업소들에서 연속조업주간제가 개인책임회피로 변화되었으며 그리하여 연속조업주간제는 극도로 의곡되었음이 과연 사실이 아닌가? 물론이, 이와 같은 연속조업주간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지상적인, 악화된 연속조업주간제의 보전의 리해관계가 옳은 로동조직의 리해관계보다 더 높으며, 로동 생산능률 발전의 리해관계보다 더 높으며, 진실한 연속조업

주간제의 리해관계보다 더 높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의 리해관계보다 더 높다고 누가 감히 말할 것인가? 지상의 연속조업주간제를 속히 매장하면 할수록 확실한, 지상적이 아닌 연속조업주간제의 조직을 더욱히 할 수 있게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일부 동지들은 저주함으로써나 강황한 연설들으로써 개인책임회피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지 나는, 개인책임회피와 투쟁함에 있어서 열렬하면 회의적상에 나서서 개인 책임회피를 저주하는 것으로써 국한하는 여러 경제일꾼들을 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연설들이 있는 후에는 개인책임회피가 반드시 저절로 자연적으로 없어지리라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일 그들이 연설과 저주함으로써 실제로 있는 개인책임회피를 진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심한 오해를 범하는 것이다. 아니다, 동지들, 개인책임회피가 스스로는 없애지지 않아서 사라진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에 의하여서만이 없앨 수 있으며 또한 없애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주권을 잡고 있으며 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개인 책임회피까지도 통트려 넣어서 모든데 대하여 책임을 지는 까닭이다. 만일 우리의 경제지도자들이 연설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을 일삼는 대신에, 이를테면 한달—두달 동안을 광갱(礦坑)이나 공장에 들어앉아서 노동조직에 대한 모든 상세한 것과 「사소한 것」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책임회피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소의 경험을 다른 기업소들에 전파하였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었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더욱더 훌륭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책임회피를 반대하는 진정한 투쟁일 것이며 옳은 불세비크적 노동조직을 위한 투쟁일 것이며 기업소들에서 역량 을 옮겨 배치하기 위한 투쟁일 것이다.

그런즉 개인책임회파를 청산하며 노동조적을 개선하며 기업소들에서 역량을 옮겨 배
치하여야 하는 것——이러한 것이 과업이다.

우리산업의 발전의 셋째 새 조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셋째 조건에 대한 문제에도 넘어가자.

四、노동계급의 생산—기술적 인헤라젠차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는 공업의 지휘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기사—기술자들에게 대
한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환경이 변경되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태가 어떻게 되어있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의 석탄 및 야금업의
거지가 우리의 전공업의 기본적 원천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남방이나 모스크바나 케닌그라
드등 우리의 모든 공업구역에 금속품을 공급하였다. 그는 또한 쏘련내의 우리 기본적 기
업소들에 석탄도 공급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우랄을 제외하는 데, 그것은 우랄의 비중은
돈바스에 비하면 크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산업의 지휘자들을 양성
하여 내는 세 기본적 중심지, 즉 남방, 모스크바, 케닌그라드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와같은 형편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그 때에 우리나라가 가졌던 그 최소량의 기사—
기술의 역량을 가지고서 이렇게나 혹은 저렇게나 지낼수 있었었던것은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바로 얼마전까지도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을 보게 된다. 지금 우리는 현하의 발전속도와 굉장한 생산규모를 보전하려면 벌써 우크라이나의 석탄 및 야금업까지 하나만을 가지고는 일해낼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의 석탄 및 금속은 그 생산이 장성함에 불구하고 벌써 우리에게 부족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아는바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석탄—야금업까지 즉 우탈—푸즈바쓰를 동쪽에 창설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아는바이다. 이 기지를 우리는 성과있게 창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바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서는 부족하다. 우리는 앞으로 장성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비리아에 야금업을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벌써 그것을 창설하고 있다. 그외에도 우리는 카자흐스탄에와 톨레스탄에 유색금속공업의 새 기지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광범한 철도부설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전체의 리해관계 즉 중앙의 리해관계와 변장 공화국들의 리해관계에 의하여 그렇게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우리는 벌써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있던바의 그 최소량의 공업기자—기수 및 지휘자들 력량만을 가지고서는 견딜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기자—기수들을 양성하여 배던 이전의 중심지들만으로서서는 벌써 부족하며 여러 새 중심지들을 우탈, 시비리아, 중앙세아에 반드시 창설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소련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계획안을 진실로 실현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공업의 기자—기수 및 지휘자들의 력량을 세배나 다섯배나 되게 더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갖·종·류·의 지휘자 및 기사—기수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로동계급의 정책을 리해할 능력을 가지며 그 정책을 파악할 능력을 가지며 그리하여 방향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자 및 기사—기수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로·동·계·급·의 생산에 있어서 지배계급의 리익으로써의 자기의 리익을 고수할만한 자기 자체의 생산—기술적 인·데·리·젠·차·들·을·만·드·시·양·성·하·여·야·된·다·는 그런 발전계단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지배계급을 물론하고 그 자체의 인·데·리·젠·차·층·이·없·이·는· 해·나·가·지· 못·하·였·다·. 소련의 로동계급도 또한 그 자체의 생산 기술적 인·데·리·젠·차·층·이·없·이·는· 해·나·갈·수· 없·는·것·은· 의심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조베트주권은 이 사세를 참작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출신의 사람들에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친 각 대학들이 개방되어 있다. 여타분은, 수만명의 로동자—농민청년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이전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학들이 양반의 자식들의 특권물이었다면 지금에 조베트제도하에서는 로동자—농민청년들이 그곳에서 지배적 역할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각 학교로부터 수천명의 새기수 및 기사들, 우리산업의 새 지휘자들을 속히 양성하여낼것은 의심할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문제의 일면일 따름이다. 문제의 다른 면은, 로동계급의 생산—기술적 인·데·리·젠·차·층·은· 다만 대학교를 마친 사람들로써만 형성될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의 기업소들의 실제적 일꾼들로써, 숙련한 로동자들로써, 공장, 제조소 및 광산에 있는 로동계급의 문화일꾼들로써도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경제의 창발자들, 돌격반의 지도

자들, 노동양양의 실제적 고무자들, 건설사업의 이런 혹은 저런 부문에 있어서의 사업조직자들——이것이 곧 노동계급의 새총 즉 고급학교를 필한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노동계급의 인테리겐 차층의 핵심, 우리산업의 지휘자들의 핵심을 일우어야 할 것이다. 과업은 창발력있는 「하층」출신인이 동지들을 위밀쳐버리지 말고 그들을 지도적 지위에 옹감스럽게 동용하며 자기의 조직자적 재능을 발휘할만한 가능성들 그들에게 주며 자기의 지식을 보충할만한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며 또는 돈을 애끼지 말고 적당한 환경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동지들중에는 비당원이 적지않게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지도적 지위에 옹감스럽게 동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실제로 그들을, 그 비당원 동지들을 특별한 주의로써 돌보아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지도적 지위에 동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은 능력있고 또 재능있는 일꾼들을 평가할 줄 안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사업에 있어서 확신하도록 할 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공장들과 제조소들의 지도적 지위에는 오직 당원 동지들만을 동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기에 근거하여서 당원이면 비록 재능이 적고 또 창발성이 없는 자일지라도 컷자리에 내세우고 재능이 있고 또 창발성이 있는 비당원 동지들은 흔히 위밀쳐 버린다. 이와같은 소위 「정책」보다 더 어리석고 더 반동적인 것이 없으리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은 「정책」으로써는 다만 당의 위신을 손상케만 할 수 있으며 당으로부터 비당원 노동자들을 위밀쳐던질 수만 있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결코 당을 문호폐색(閉塞)적인 카스트로 변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책은 당원노동자들과 비당원노동자들의 사이에 「호상간 선임」의 분위기,

「호상간 견열」의 분위기(매년)가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당이 로동계급속에서 유력한것은, 우리당이 실로 이와같은 정책을 쓰는 때문이다.

그런즉, 소련의 로동계급에게 그 자체의 생산—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이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것—이러한것이 과업이다.

우리산업 발전의 몇째 새 조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다섯째 조건에 대한 문제에도 넘어가자.

五、구(舊) 생산—기술적 인테리겐차층에서의 전환의 정후

이전의 부르조아적 생산—기술적 인테리겐차층에 대한 태도문제도 또한 다르게 서는것이다.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의 가장 숙련된 부분은 해독행위의 병에 전염되었었다. 이년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는 이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해독행위는 그때에 일종의 유행으로 되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독행위를 행하였고, 그외의 사람들은 해독자들을 엄폐하였고, 제3자들은 손을 씻고 나앉아서 중립을 취하였고, 제4자들은 소페트주권과 해독자들과의 사이에서 동요하였다. 물론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의 다수는 다소간 충실하게 계속하여 일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의 다수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의 가장 숙련한 부분에 대한 말인것이다.

해독행위의 운동은 무엇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무엇에 의하여 배양되었는가? 소련 내부에서의 계급투쟁의 첩예화,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에 대한 소페트주권의

공세적 정책, 쇼베트주권의 정책에 대한 자본주의적 분자들의 대항, 국제정세의 복잡성, 팔호즈 및 썸호즈건설상의 난관등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해독자들의 전루적 부분의 적극성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 음모와 국내의 목물 곤난에 의하여 더 강화되었다면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의 다른 부분이 적극적 해독자들의 편에로 동요한것은, 「팔호즈들 및 썸호즈들로서는 아무리한대도 아무것도 되지않을 것이다」, 「쇼베트주권은 어쨌든 변질될것이며 또는 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멸망할것이다」, 「볼셰비크들은 그의 정책으로써 자기자신이 무력간섭을 초래(招來)한다」는 등등의 트로츠키주의적—멘셰비크적 오설가(謬妄家)들의 류해답에 의하여 심하여진것이다. 그 외에 이 시기에 있어서 심지어 우경분자들에 속한 일부의 오랜 볼셰비크들까지도 이「전염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당에서 물러서서 한편으로 나아갔거던, 언제든지 볼셰비즘을 맛보지도 못한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의 어느 부분도 또한 하나님의 덕택으로 동요한것은 피이히 여길것이 없는 일이다.

이와같은 형편에 있어서 쇼베트주권은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에 대하여 다만 한 가지의 유일한 정책 즉 적극적 해독자들을 박멸하며 충립자들을 분화시키며 충실한자들은 입입하는 정책만을 쓸수밖에 없었던것은 확연한 일이다.

一—二년전 까지도 이렇게 되어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그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혀 다른 환경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들을 격파하였고 또 성과있게 그들을 극

복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자. 물론 이것은 이전의 인테리겐차층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박멸당한 자기들의 뱃들에게 애석(哀惜)의 정을 표하고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자들, 더우기 충렬자들과 동요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적극 뱃들이 잔혹하고도 또 다시 취설수 없는 실패를 당한 뒤에는 그 뱃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꼭물상 혼란들을 극복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쏘베트주권이 존재한 이래로 아직 그렇게 수출하여 보지 못하던 그런 수량의 꼭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동요하는 자들의 이「론중」도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팔호즈 및 쏘호즈 건설의 건설에 있어서 확실히 승리하였고 가장 위대한 성과를 얻은 것은 지금 심지어 장님까지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전의 인테리겐차층의 「병기창」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영영 없어지고 만 것이다. 부르조아적 인테리겐차층이 무력간섭을 기대한 것으로 말한다면 그 시대는——적어도 아직까지는——모래(沙) 위에 지어놓은 집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六개년이나 무력간섭을 약속하였지만 무력간섭을 한번도 하려고 시도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총명한 부르조아적 인테리겐차층을 그저 속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일반이 다 아는 모스크바의 재판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해독자들의 행동자체가 스스로 해독행위의 사상을 띠고 있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또한 사실상 파괴하였음에 대하여서는 나는 더 말하지 않는다.

이 새 정세들이 우리의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수 없는 것은 확연한 일이다. 새 정세는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속에서 새로운 기분을 이르

켜놓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한 사실상 이르켜 놓았다. 이전에 해독자들에게 동정하던 그 인테리겐차층의 일정한 부분이 쇼페트주권 편으로 전환하는 확연한 징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곳 이것으로써 절명되는 것이다. 이전의 인테리겐차층, 이 층(層)뿐만 아니라 심지어 확연한 작업의 해독자들, 작업의 해독자들의 현저한 부분까지도 여러공장 및 제조소들에서 로동계급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속에서 벌써 전환이 시작되었다는것을 의심할것없이 말하여준다.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해독자들이 더는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계급들이 있는때까지는, 자본주의적 포위가 있는때까지는 해독자들이 있으며, 또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이렇게나 혹은 저렇게나 해독자들에게 동정하던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의 현저한 부분이 지금에서 쇼페트주권의 편에도 돌아선것만큼 적극적인 해독자들은 많지않게 남아있으며 그들은 고립되었으며 그들은 반드시 어느 시기까지도 온 지하로 들어가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이에 상응하여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만일 해독행위가 왕성하던 시기에 있어서는 이전의 기술적 인테리겐차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주로 박멸정책에서 표현되었었다면 지금에서야 인테리겐차층이 쇼페트주권의 편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주로 그들을 인입하는 정책과 그들에 대하여 배려하는 정책에서 표현되어야 할것이다. 변경된 새 조건하에서도 이전 정책을 계속실시하는것은 옳지못한것이며 비(非)변증법적인것이다. 지금에서 이전계통의 전문가들 및 기사들의 거의 각자에 대하여 붙잡아대지못한 범죄자

로나 해독자로 관찰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일것이오 또 부당한 일일것이다. 「전문가중상(專門家中傷)」은 우리나라에서 업제든지 해로왔고 치욕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며 또 지금도 그런것으로 간주되고있다.

그런즉, 이전 계통의 기사·기술들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며 그들에 대하여 많은 주의와 배려를 표시하며 그들을 사업에 용감하게 인입하여야 하는것 — 이러한것이 과업이다.

우리산업 발전의 다섯째 새 조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마지막 조건에 대한 문제에도 넣어가자.

六、독립재산제에 대하여

만일 내가 또 한가지 새 조건을 말하지 않는다면 정경(情景)은 원만치 못할것이다. 그것은 산업을 위한, 인민경제를 위한 축적의 원천에 대한것이며 그 축적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데 대한 말이다.

축적의 전지로 보아서 우리산업의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것과 특별한것은 무엇에 있는가? 축적의 옛 원천들은 앞으로 산업을 확장시키는데 벌써 부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본즉, 우리가 만일 공업화의 불세비크적 속도를 보존하며 또 발전시키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축적의 새 원천들을 찾아내며 옛 원천들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나.

자체의 공업을 최고계단으로 향상시키기를 원한 어떤 국가치고 외방으로부터 장기금융대부와 혹은 차관을 얻어오는 형식의 보조가 없이 지내온 그러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자본주의적 나라들의 력사에서 아는바이다. 서방의 자본가들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진용대부와 차관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기어코 단절되리라 고 생각하여 진용대부와 차관을 우리나라에 주기를 전혀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오해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 나라들과 달라서 공업을 부흥시키며 또 앞으로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몇가지의 축적의 특별한 원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타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상 우리는 산업을 부흥시켰을뿐만 아니라, 농업과 운수업을 부흥시켰을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공업, 농업, 운수업을 재건할 것은 거대한 자업을 벌쳐 완전한 궤도에 들여세웠다. 우리나라에서 이일에 수백억 루블이 들었던 것은 확연한 일이다. 이 수백억 루블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경공업, 농업, 예산상의 축적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도 이렇게 사태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에 와서는 사태가 전혀 다르게 되었다. 만일 이전에는 산업 및 운수업을 재건할하기에 축적의 옛 원천들이 흡족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벌써 그것들이 확연히 부족되기 시작한다. 문제는 지금에 와서 낡은 산업을 개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랄, 시비리아, 카자흐스탄에 기술적으로 장비된 새 산업을 창설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선의 곡물, 목축 및 원료생산지방들에 새 대규모적 농업 생산을 창설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선의 동부와 서부와 사이에 새 철도망을 부설하는 데 있는 것이다. 축적의 옛 원천들이 이 거대한 사업에 흡족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일을 비경제적으로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독

법채산제의 원칙들이 우리 여러 기업소들과 경제기관들에서 전혀 파악되어 있는 그 사실은 정부하여야 한다. 여러 기업소들과 경제기관들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근거 있는 수지(收支) 대조표들을 작성하며, 계산하며, 예산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기업소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절약정책」, 「비생산적 지출의 축소」, 「생산의 합리화」 등에 대한 개념이 벌써 오래전부터 튜행들이 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 기관들은 국립은행이 「어쨌든 필요한 금액을 우리에게 지출할 것이다」라고 타산하는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와서 여러 기업소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 기업소들에는 원가를 10%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내리우라는 과업을 맡겼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 원가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원가를 내리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원가인하의 매과센트가 산업내부에 있어서 1억5천만—2억루블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원가를 올린다는 것은 산업과 또는 전 인민경제에 있어서 수익루블을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 일이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는, 한갓 정공업에 의하여서만은, 한갓 예산상 축적에 의하여서만은, 한갓 농업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서만은 되는 일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공업은 축적의 가장 풍부한 원천인 것이다. 또한 그는 지금와서 앞으로 발전할 모든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천이 무한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농업도 축적의 못하지 않은 풍부한 원천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그의 재전설 지기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상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상의 축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무한정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되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이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공업이 남아있다. 그리고 본즉 중공업도——또 무엇보다 먼저 그의 기계제조업부분이——또한 축적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주, 축적, 옛원천들을 더 강화시키며 또 확장시키면서 중공업도——또 무엇보다도 먼저 기계제조업——또한 축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의 모든 기업소들에서 비경제성을 없애버리며 산업의 내부적 원천들을 동원시키며 독립채산제를 뿌리박고 또 그것을 튼튼케 하여야 하며 하나도 제외함이 없이 산업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하며 산업내부의 축적을 더 힘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출로인 것이다.

그런즉, 독립채산제를 뿌리박게 하고 또 튼튼케 하며 산업내부의 축적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러한 것이 과업이다.

七、새 방식으로 일하며 새 방식으로 지도하라

동지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산업발전의 새 조건들이다.

이 새 조건들의 의의는, 그 조건들이 산업을 위하여 사업의 새 방식 및 지도의 새 방식들을 요구하는 새 환경을 이루어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즉——

1. 이와 같이되어 이제는 더는 옛날과 같이 노동력의 자연류동에 의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산업에 노동력을 보장하여 주려면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로동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우리사업의 속도와 우리생산의 범위에 있어서 기계화함이 없이지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바다물을 술가락으로 다 퍼낼수있다고 믿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ㄴ, 다음으로는, 산업에 있어서 노동력의 류동성을 더는 용허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악폐를 없애버리려면 새 방식으로 노동임금을 제정하여야하며 기업소들에서 노동인원을 다소간 항구적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ㄷ, 다음으로는, 생산에 있어서 개인책임회피를 더는 용허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악폐를 없애버리려면 새 방식으로 로동을 조직하여야 하며 노동자들의 각 그루빠가 작업, 기계장치, 기계, 로동의 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력량을 배치하여야 하는것이다.

ㄹ, 다음으로는, 우리가 부르조아적 로씨야에서 상속하여 받은 그 최소의 이전의 기사—기수들의 힘을 가지고 옛날과 같이 더는 지낼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산의 현재의 속도와 규모를 향상시키려면 로동계급에게 그 자체의 생산—기술적 인테리겐차층이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것이다.

ㅁ, 다음으로는, 이전 계층의 모든 전문가들과 기사—기수들을 종전과같이 한무리로 물지 않는 못한다는결론이 나온다. 변경된 환경을 타산해서는 로동계급의 편으로 확실히 돌아서는 그 전문가들과 기사 및 기수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도로 발휘하여야 하는것이다.

ㅂ, 마지막으로는, 추적의 옛원칙을 가지고 옛날과 같이 일해나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업 및 농업의 금후발전을 보장하려면 추적의 새 원칙들을 리용하며 비경제성

을 생산하며 독립채산제를 뿌리박으며 원가를 내리우며 또 산업내부의 축적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사업의 새 방법들과 경제건설을 지도하는 새 방법들을 요구하는 산업발전의 새 조건들이다.

새 방식으로의 지도를 원만케 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리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경제지도자들이 새 환경을 이해하며 산업발전의 새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그리하여 새 환경의 요구들에 따라서 자기 사업을 개조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다음으로는, 우리의 경제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공중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로 기업소들을 지도하며 매개문제를 일반적 공담의 견지로서가 아니라 엄중히 실무적으로 취급하며 지상 공문으로나 혹은 일반적 인사 및 포어들로써 국한하지 말고 사업상의 기술을 파악하며 사업의 세부분을 연구하며 「사소한 것」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에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위대한 사업이 건설되는 까닭이다.

그리하면 다음으로, 때로는 자체내에 일백—二百개의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가지고 있는 현 재의 우리의 빈잡한 연합체들을 지체하지 말고 나누어 적게 만들며 그리하여 몇개의 연합체로 잘려놓아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수백개나 또는 그 이상의 공장들을 관찰하고 있는 연합체의 위원장이 그 공장들과 그 공장들의 가능성과 그 공장들의 사업을 진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가 공장들을 알지 못하면 그 공장들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리고 본즉 공장들을 진실로 연구하며 또 지도할 만한 가능성을 연합체들의

위원장들에게 주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서 공장이 너무 많은것을 주리어야 하며 연합체를 몇개의 연합체들로 잘라놓아야 하며 그리하여 그 연합체들을 공장들과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다음으로는, 우리의 연합체들로 하여금 합의제 관리로부터 단독책임제 관리에로 넘어가도록 하는것이 요구되는것이다. 지금에는 사태가 이렇게 되어있다. 즉 연합체들의 협의부에는 十명이나 十五명이 들어앉아서 공문을 쓰며 토론을 하고있다. 동지들,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할수 없는것이다. 지상적 「지도」를 폐지하고 진실한 실무적, 불웨이크적 사업에로 넘어가야 하는것이다. 연합체의 수위에는 연합체의 위원장과 몇명의 대리인이 남아있게하라. 이것은 연합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충분할것이다. 협의부의 기타위원들은 아래에로, 공장들과 제조소들에로 내려가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위하여서나, 일을 위하여서나 매우 유익할것이다.

그리하면 다음으로는, 연합체들의 위원장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더 자주 공장들로부터 다니며 사업을 위하여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며 공장일꾼들을 더 잘 알도록하며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또한 그들에게서 배우기도 하여야 하는것이 요구되는것이다. 지금에 와서 공장들과 멀리 떨어져 사무실에 앉아서 지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미혹됨을 의미하는것이다. 공장들을 지도하려면 기업소들의 일꾼들과 더 자주 접촉하며 그들과 산련락을 맺어야 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一九三一年도의 우리의 생산계획안에 대하여 두어마더 말하려고한다. 우리의 생산장령은 현실적이 아니며 실행되지 못할것이라고 단언하는 당근방에 서있는 일부의 속인들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항상 「사고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담」을 자기의 주위에 전파

하려는 웨드턴의 저서에 있는 「너무나 영리한 소천어」와 비슷한 것이다. 우리의 생산강령은 현실적인가? 물론 그렇다! 그 강령이 현실적인것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우리나라에 현존하여 있는것으로만도 그러하다. 그 강령이 현실적인것은, 그 실행이 지금에 있어서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매우 풍부한 가능성들을 리용하는 우리의 기능 및 우리의 소원에 달린것으로만도 그러하다. 여러기업소들과 산업부문들이 벌써 계획을 넘쳐 실행한 그 사실을 달리야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기업과 산업부문들도 계획을 수행하며 초과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계획안을 숫자와 말긴 과업들을 내리해는테만 귀결되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일것이다. 사실상 생산계획안은 수백만 사람들의 활력있는 실천적 활동인것이다. 우리의 생산강령의 현실성——이것은 곧 새 생활을 창조하는 수백만의 근로자인것이다. 우리의 강령의 현실성——이것은 바로 산사람들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이며 공동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며 새방식으로 일하려는 우리의 준비성이며 계획을 실행하려는 우리의 결심인것이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결심이 있는가? 그렇다, 있다. 그리고 본즉 우리의 생산강령은 실현될수 있는것이며 또 실현되어야 할것이다. (계속되는 박수).

볼셰비즘 역사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프로테타리아혁명」잡지 편집부에 보내는 서한

정애하는 동지들!

잡지 「프로테타리아혁명」(一九三〇년, 제六호)에 「독일사회민주당의 전쟁전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의 이 당에 관한 볼셰비크들의 견해」라는 슬루츠키의 반(反)당적, 반(半)트로츠키적 문운을 토론문운으로 게재한 데 대하여 나는 단호히 항의한다.

슬루츠키는 단언하기를, 레닌(볼셰비크들)은 독일사회민주당내의 또는 일반적으로 전전(戰前)의 사회민주당내의 중간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였다고, 다시 말하면 가면을 쓴 기회주의의 위험성, 기회주의와의 융화적 태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였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슬루츠키의 단언에 의하면 레닌(볼셰비크들)은 기회주의와 단호한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된다. 왜그러나하면 중간주의에 대한 과소평가는 그 본질상으로 기회주의와의 전개한 투쟁을 거부함인것인 까닭이다. 이와같이, 레닌은 전쟁전 시기에 있어서는 아직 전정한 볼셰비크가 아니었고 오직 제국주의 전쟁당시, 혹은 그 전쟁의 결말(結末)에 와서야 비로소 전정한 볼셰비크가 되었다는 것이다.

슬루츠키는 자기문운에 이와같이 론술하였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새로운 「력사가」를 중상자로, 위조자로, 착인(烙印)적어야 할 대신에 그와 더부러 토론을 하려고 들며 그

에게 론단(論壇)을 내주고 있다. 나는 당실들의 잡지에 슬루츠키의 논문을 토론문제로 게재한것을 반대하며 항의하지 않을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레닌의 불세비즘에 대한 문제, 기회주의의 주지의 일종인 중간주의와 레닌이 원칙적 또는 단호한 투쟁을 하였는가, 안하였는가하는 문제, 레닌이 진정한 불세비크이였는가, 아니였는가하는 문제는 이를 토론문제로만 들수없는 까닭이다.

여러분은 「편집부의 명의로」十月二十일에 중앙위원회에 보낸 성명서에 슬루츠키의 본문을 토론 본문으로 게재한것은 편집부의 과오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물론 편집부의 성명이 대단히 늦기는 하였으나 좋은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편집부는 불세비크들과 전전의 제2인더내쇼날파의 호상관계와 관련된 일체문제들을 「프로레타리아혁명」 지상(紙上)에서 앞으로 더욱 구명(究明)하는것이 정치적으로 극히 적절하고 또한 필요한것으로 인정한 다」고 그 전정서에 성명함으로써 새 과오를 범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불세비즘의 공리(公理)로되는 제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람들을 이에 인입(引入)하려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리로되는 레닌의 불세비즘에 대한 문제를 「장래구명」을 요하는 문제로 변환시키려고 생각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왜? 어떠한 근거에서?

레닌주의는 서방에서의 중간주의(카우츠키)와 로씨야에서의 중간주의(트로츠키 및 기타)까지 포괄한 각종각양의 기회주의와의 무자비한 투쟁속에서 생겼으며 장성하였으며 또는 공고하여졌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이것은 심지어 불세비즘의 직접 원수들도 부인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공리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리를 「장래구명」을 요하는 문제로 변환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우리를 뒤로 끌어들인다. 왜? 어떠한 근거에서? 불

쉐비즘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가? 슬루츠키배와 맞기라 트로츠키의 제자들이 그들의 입을 트러막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부패한 자유주의로해서 그러함인가? 볼셰비즘의 혈연적 이익을 해하면서도 수행하려는 자못 파상한 자유주의이다:

슬루츠키의 논문에서 대체 무엇을 가르쳐 편집부는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一、슬루츠키는 주장하기를, 레닌(볼셰비크들)은 전쟁전시기의 독일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자들,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자들과 결별, 분열하는 로선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은 슬루츠키의 이러한 트로츠키적 해체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이에 토론될만한 것이 있는가 슬루츠키가 레닌에게 대하여, 볼셰비크들에게 대하여 단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중상에 대하여는 타인을 적어버릴것이 지 토론 문제로 변환시킬것은 아니다.

어떠한 볼셰비크든지 만일 그가 진정한 볼셰비크라 하면, 전쟁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로씨야에 볼셰비크의 그루빠가 형성되고 독일사회민주당내의 좌익이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표시하던 약 一九〇三—一九〇四년경부터 벌써 레닌은 우리, 로씨야사회민주당내의, 또는 서방 제2인터내셔널내의, 특수적으로는 독일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자들과 결별, 분열하는 로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실로 이런 까닭에 볼셰비크들은 벌써 당시(一九〇三—一九〇五)년에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자 대렬안에서 「분열자」와 「문란자」라는 명예스러운 명칭을 얻게되었던 것을 어떠한 볼셰비크든지 다 아는바이다. 그러나 제2인터내셔널 또는 무엇보다도 먼저 독일 사회민주당내의 좌익 사회민주당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때오로지적으로 단련되지 못하였고 또는 심지어 「결별」, 「분열」이란 말까지도 입밖에서 내기를 두려워하는

악하고 무능하면 그루빠이었었음에야 테닌인들 어찌하며 볼셰비크들인들 어찌할수 있었으
 락? 테닌 또는 볼셰비크들로 하여금 로찌야에 앉아서 그 좌익분자들을 대신하여 서구라
 파의 여러 당내의 분열을 조직하라고는 요구치 못할것이다.

나는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특징적인 조직적 및 사상적 약점이 오직 전쟁전 시기에만
 있었것이 아니라한것을 더 말하지 않는다. 다 아는바와같이 이 부정적 특징은 전쟁이후의 시기에
 있어서도 좌익분자들에게 존속(存續)되어 있었던것이다. 一九一六년 十月, 즉 전쟁이 시작되
 어 二년간아름 자나서 테닌이 「유니우즈의 소책자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문헌에 쓴 독일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평가는 일반이 다 아는것인바, 그 문헌에서 테닌은 독일 좌익사회민주
 주의자들의 중대한 여러가지 정치적 오류를 비판하면서 「카우즈키적 위선자(偽善者)、현학
 자적(衡學的)、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우의」등의 추악한 그물(網)로 둘러싸여 있는
 일체 독일 좌익분자들의 약점」을 말하였고 또 거기에서 그는 「유니우즈는 독일사회민주
 주의자들의 「환정」、심지어 분열을 두터워하며 혁명적 표어들을 끝까지 말하기를 두터워하는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환경」에서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였다.

당시 제二인터내셔널의 여러 그루빠중에서 오로지 로찌야 볼셰비크들만이 자기의 조직
 적 경험으로서나 사상적 단련으로 보아서 자국의 로찌야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자들과
 단호히 결별, 분열하는 의미에 있어서 어떤 신중한 방책을 능히 실행할수 있는 유일한
 그루빠이었다. 만일 슬루츠키와 같은 무리가, 테닌 및 로찌야볼셰비크들이 기회주의자들(빨

* 유니우즈는 독일사회민주당내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수명 표자(標字)이다.

테하노브, 마르토브, 단)과 분렬하며 중간파들(트로츠키 및 기타 八월 켈력의 지지자들)을 내쫓기 위하여 자체의 전능력을 다 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까지는 말고라도 단지 역적(臆測)만이라도 하였던들 레닌의 불셰비즘, 불셰비크들의 불셰비즘에 대하여 평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슬루츠키와 같은 무리는 이런 기괴한 역적은 감히 입밖에 내지도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는 것은, 로씨야 불셰비크들이 각종 각양 의 기회주의자들과의 분렬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한 것은(一九〇四—一九一二년) 일반 이 다아는 사실이오 또 이러한 역적들을 반박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다음날 인차 치욕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로씨야 불셰비크들이 제 2 인더내쇼날의 기회주의자들과 중간파들과의 결렬, 분렬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서 제국주의 전쟁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一九〇四—一九一二년)에 자기당내(黨內)의 기회주의자들과 중간파—유화주의자들과 분렬을 실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로씨야 불셰비크들이 기회주의자들과 중간파들에 대한 자기의 정책을 서구라파의 좌익분자들에게 보이어준 정책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로씨야 불셰비크들이 서구라파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 특히 독일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자기당내의 기회주의자들과 중간파들과 결렬, 분렬하도록 배방으로 충동하였던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 서구라파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이 로씨야 불셰비크들의 발자욱을 밟아가리만큼 성장되지 못하였던 것은 레닌 및 로씨야 불셰비크들의 과실이 아닌 것이다.

二, 슬루츠키는 레닌 및 불셰비크들을 비난하기를, 그들은 독일사회민주당내의 좌익을 적극적으로 또는 결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불셰비크들은 그 좌익들을 신중할 조

전부(條件附)로서만 지지하였다하며 당파적 전해가 그들로 하여금 좌익분자들을 끝까지 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한다. 여타분은 이러한 자기적(詐欺的)이오 또는 전체로 위적인 비난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상 무엇이 여기에 토론할만한 것이 있는가? 슬루츠키는 여기에서 레닌 및 볼셰비크를 반대하는 허위적 비난으로써 독일 좌익 분자들의 텃장에 있는 확실한 결합을 은폐하려고 노력하며 책동(策動)하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볼셰비크들은 로동계급 및 그의 혁명에 변절하지 않는 이상 볼셰비즘과 멘셰비즘 사이에서 결선했다면 동요하던 독일 좌익분자들을 신중한 조건부가 없이는 그들의 오유를 신중히 비판함이 없이는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기만적 책동에 대하여는 타인을 적어 버릴 것이지 토론문제로 변환시킬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볼셰비크들은 독일 좌익사회민주당의 자들의 반(半)멘셰비크적 오유를 비판하면서 오직 일정한 신중한 조건부로서만 그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것때문에는 볼셰비크들을 정관하여야 할 것이지 비난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가 있는가?

역사상에서 일만이 가장 잘 아는 사실들을 고찰하여 보자.

(1) 一九〇三년에 로씨야에서 볼셰비크들과 멘셰비크들 사이에는 당원 자격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의견상위가 있었다. 볼셰비크들은 당원 자격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규정(規定)으로써 비프로레타리아적 분자들이 당내로 물러드는 데 지지하는 조직적 제어책(制御策)을 만들려고 하였다. 로씨야 혁명이 부르조아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까닭으로 당시에 이렇게 물려들어 올 위험은 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었다. 로씨야 멘셰비크들은 비프로레타리아적 분

자들에게 당문을 널리 열어주는 반대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세계혁명운동에 대하여 로씨야 혁명의 문제가 중요하였던 관계로 서구와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일에 간섭하였다. 독일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즉 당시 좌익의 수령이던 파르부쓰, 로자·룩셈부르그도 간섭하였다. 그리하여 어찌되었는가? 그 사람들은 물이 다 불셰비크들을 반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여기에 있어서 불셰비크들을 초중상업계민주주의와 불란키적 경향을 가졌다고 비난하였다. 그 후에 이 비렬한 지정배적 인사들을 멘셰비크들이 옹거리고 전세계에 전파하였다.

(ㄴ) 一九〇五년에 로씨야에서는 불셰비크들과 멘셰비크들의 사이에 로씨야혁명의 성격에 대한 의견상위가 전개되었었다. 불셰비크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아래에서의 노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이란 사상을 고수하였다. 불셰비크들은 론중하기를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 독재에로 사업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농민의 빈농층의 지지가 보장된 아래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즉시 넘어갈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로씨야의 멘셰비크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의 사상을 배척하였으며 노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정책보다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주의의 라협정책을 정당하게 여겼으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부르조아혁명의 발전에 모순되는 불란키적 반동적 도식이라고 성명하였다. 이론쟁에 대하여 독일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 파르부쓰와 로자·룩셈부르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그들은, 노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정책에 반대한 멘셰비크의 부정적(否定的) 사상으로 일관(一貫)된 공상적(空想的), 반(半) 멘셰비크적 영수혁명의 도식(파스의 혁명적 도식을 의곡하여 그런것)을 작성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 독재에 대한

불세비크적 도식에 대립시키었다. 그후 이 반(半) 멘세비크적인 영속협명의 도식은 트로츠키 (일부분으로는 마르토프도)가 옹호하고 레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무기로 변환시켰다.

(C)、바로 전쟁전시기에 제2인터내셔널에 소속된 여러 당내에는 민족—식민지 문제, 피압박민족 및 식민지에 대한 문제, 제국주의와의 투쟁방법에 대한 문제, 제국주의의 전복방법에 대한 문제 등이 가장 절박한 문제중의 하나로 제기되었었다. 프로테라리아협명을 전개시키고 제국주의를 포위하기 위하여 불세비크들은 민족자결의 토대위에서 피압박민족 및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정책을 제의하고 선진국가들의 프로테라리아 협명과 식민지 및 피압박국가 인민들의 혁명적 해방운동과의 통일전선의 도식을 발전시키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각국의 기회주의자들, 세계각국의 사회—배의주의자들 및 사회—제국주의자들은 불세비크들을 반대하며 무기를 잡고 나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않았다. 불세비크들을 미친개와 같이 모해하였다. 당시 서구라파의 좌익사회민주당의자들은 어떠한 입장을 차지하였는가? 그들은 반(半) 멘세비크적 제국주의론을 전개하였으며 맑스주의적 견해의 민족자결의 원칙(분리하여 자주 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을 배격하였으며 식민지 및 피압박국들의 해방운동의 중대한 혁명적 의의에 대한 폐제를 거부하였으며 프로테라리아협명과 민족해방운동과의 통일전선의 가능성에 대한 폐제를 거부하였으며 그리하여 민족—식민주의문제에 대한 극단의 파소평가인이 모든 반(半) 멘세비크적 뒤죽박죽의 리론을 트로츠키가 잡아쥐고 레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무기로 리용한것은 모두 다 아는바이다. 이러한것이 모두 다 아는 독일 좌익사회민주당의자들이 범한 오류인것이다.

나는, 해년의 여러 문문에서 비판된 독일 좌익분자들의 다룬 여러가지 오유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十月혁명당시의 볼셰비크들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한 여러 오유에 대하여서도 역시 말하지 않는다.

전쟁전 시기의 역사에서 가져온바의 독일 좌익분자들의 이 오유들은, 사회민주당의 좌익이 그들의 좌익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멘셰비크적 짐을 벗지 못하였던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독일좌익 분자들에게는 중대한 오유만이 있었던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크고 중대한 혁명적 공적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나는, 국내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 부분적으로 는 선거투쟁에 대한 여러문제, 국회안에서와 국회밖에서의 투쟁에 대한 여러문제, 총파업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로씨야의 一九〇五년혁명에 대한 문제등에 있어서의 그들의 모든 혁명적 진출과 공적(功績)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실로 이 까닭으로 볼셰비크들은 그들을 좌익으로서 중요시하였으며 그들을 지지하였으며 전진하도록 추동한것이 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은 독일 좌익사회민주당의자들이 동시에 극히 중대한 정치적 또는 이론적 각종 오류를 범한것, 그들이 아직 멘셰비크적 짐을 벗지 못한것, 그때문에 볼셰비크들의 선중한 비판을 응당 받게되었던 사실을 없애는것은 아니오 또한 없앨수도 없는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해년 및 볼셰비크들이 로동계급의 이익에 배반하지 않는이상, 혁명의 이익에 배반하지 않는이상, 공산주의에 배반하지 않는이상, 선중.한.조.건.부.가.없.이, 그들의 오유를 선중.한.조.건.부.가.없.이, 서구라와 좌익사회민주당의자들을 지지할수 있었겠는가? 를 스스로 판단하라.

슬루츠키가 만일 볼셰비크였다고 하면 레닌 및 볼셰비크들을 받드시 축하하여야 할 그
 점에 있어서 도리어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그는 반(半)멘셰비크, 변장(變裝)한 트로츠키
 카주의자로서의 자기를 끝까지 폭로하는 것이 명로하지 않은가?

슬루츠키는 억척하기를 해낸 및 볼셰비크들은 서구라파의 좌익분자들을 평가함에 있
 어서 자기들의 분파적 타해관계에서 출발하였다고, 그런즉 로씨야 볼셰비크들은 자파(自
 派)의 리익을 위하여 국제혁명의 위대한 사업을 희생시키었다고 한다. 이러한 억척보다
 더 야비하고 더 비렬한 것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있을것같지 않다. 이보다 더
 야비한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심지어 멘셰비크중 용렬(庸劣)한 무리들까
 저도 로씨야혁명에 로씨야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오 도리어 그것은 전세계 로동계
 급의 사업이오 세계프로레타리아혁명의 사업이란것을 리해하기 시작하는 때문이다. 이보다
 더 비렬한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제2인터내셔널의 직업적 위방자들까지도
 볼셰비크들의 끝까지 철저한 혁명적 국제주의는 전세계 로동자에게 프로레타리아적 국제
 주의의 모범이 된다는것을 리해하기 시작하는 때문이다.

사실, 로씨야볼셰비크들은 당에 대한 문제, 맑스주의자들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에 대
 한 태도의 문제, 로동계급과 농민파의 동맹에 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해계모니에 대
 한 문제, 국회안에서와 국회밖에서의 투쟁에 대한 문제, 총파업에 대한 문제, 부르조아—민
 주주의혁명에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한 문제, 제
 국주의에 대한 문제, 민족자결에 대한 문제, 피압박민족 및 식민지의 해방운동에 대한 문
 제, 피압박민족 및 식민지 해방운동의 지지 정책에 대한 문제 등등과같은 로씨야혁명의

근본적 문제들을 첫차리에 내세웠던 것이다. 불쉐비크들은 이 모든 문제들 시금석(試金石)으로 제기하여 그것으로써 서구라와 좌익사회민주당의 자들의 혁명적 전인성을 검사하였었다. 그들은 그리할 권리를 가졌던가? 물론 그들은 그리할 권리를 가졌었다. 권리를 가졌을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것은 이 모든 문제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근본적 문제들이었는바 그들은 그 세계혁명의 임무에 불쉐비크들이 자체의 정책과 전술을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것은 이러한 여러 문제로써만 제2인터내셔널의 작분과의 혁명성을 진정히 점열하여 볼수있었기 때문이다. 물론이, 여기에 로씨야 불쉐비크들의 「분과성」이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분과적」 리해관계란 여기에 무슨관계가 있는가?

레닌은 이미 一九〇二년에 자기의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쓰기를, 「력사는 지금 우리 앞에 가장 절박한 임무를 내세웠는바, 그임무는 어떤나라를 물론하고 그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절박한 임무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인 임무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임무의 실현, 즉 구라파의 반동뿐만 아니라(이제는 우리가 말할수있다) 또한 아세아의 반동의 가장 힘있는 아성(牙城)을 파괴함은 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국제적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로 만들것이다」라고 하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책자가 출판된후 벌써 三十년이 지나갔다. 이 三十년동안에 있는 사변들이 레닌의 말을 훌륭히 확증(確證)하여준것을 아무도 감히 부인치 못할것이다. 그런데 이로부터는 로씨야혁명이 세계혁명의 중심점이었고(현재에도 그렇다) 로씨야혁명의 근본적 문제들은 동시에 세계혁명의 근본적 문제였다는(지금도 그렇다) 결론이 내리지 않는가?

이러한 근본적 문제로써만 서구라파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혁명을 진정히 검열할 수 있었던 것이 명료하지 않은가?

이 모든 문제를 「분파적」문제로 간주하는 자들은 자기가 비열한 자들이오 변절자(變節者)이라는 것을 끝까지 폭로하는 것이 명료하지 않은가?

三、슬루츠키는 주장하기를, 레닌(볼셰비크들)이 중간주의에 반대하여 적극적 또는 단호한 투쟁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 문서들을 아직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판로주의적 해제를 가지고 레닌(볼셰비크들)이 제2인터내셔널내의 중간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론증처럼 사용한다. 여러 분은 이 망언(妄言)에 반대하여 토론하려 하며 이 사기적(詐欺的) 교활(狡猾)한 수단에 대하여 토론하려 한다. 그런데 무엇이 여기에서 토론만 한 것이 있는가? 슬루츠키는 문서에 대한 이야기로써 자기의 소위 전지의 빈약성과 허위성(虛僞性)을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명료하지 않은가?

슬루츠키는 현존하여 있는 당문헌(黨文獻)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 어떠한 근거에서? 일반이 다 아는바의 제2인터내셔널에 관한 문헌이나 또는 로씨야 사회민주당에서의 당내투쟁에 관한 문헌이 기회주의자들 및 중간파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레닌 및 볼셰비크들의 혁명적 불타협성을 완전히 명료하게 들어내보이기에 과연 불충분한가? 슬루츠키는 대체로 이러한 문헌을 아는가? 그에게는 또 어떠한 문헌이 더 요구되는가? 가령, 이미 일반이 아는 문헌의에 중간주의 박멸의 필요를 한번 더 론술하는, 말하자면 볼셰비크들의 결정서와 같은 다른 문헌을 새로 한통치 얻어내었다 하자. 그러면 오직 이

지상(紙上)의 문서가 있는것만이 불쉐비크들의 진정한 혁명성과 중간주의에 대한 진정한 한 비타협성을 들어내보이기에 충분하다는것을 의미하는가? 고쳐낼수없는 판로주의자의 외에야 누가 오직 지상의 문서에만 의거하며할가? 남은 문헌들을 취처럼 파고있는 사람들이 외에야 누가 당파지도자들을 오직 그들의 성명서에 의하여서만 검열할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사업에 의하여 검열할것이라는것을 이해하지 못할가? 역사상에는 시끄러운 비판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혁명적 결정서에든지 서슴지않고 서명한 사회주의자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그들이 그 결정서를 실현하였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역사상에는, 다른 나라의 로동당에 향하여 가장 혁명적인 행동을 하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요구한 사회주의자들도 또한 적지않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자기당내에서나 자국내에서 자국의 사회주의자들, 자국의 부르주아지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혁명적 당, 류파 또는 수명들을 그들의 성명서와 결정서에 의하여 검열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업에 의하여 검열하라고 케닌이 우리를 교훈한것은 이까닭이 아닌가?

만일 출루츠키가 사실상 중간주의에 대한 케닌 및 불쉐비크들의 비타협성을 검열하려고하였다면 그는 개개의 문서와 二—三장의 개인서한을 자기 논문의 기초로 삼을것이 아니라 불쉐비크들의 사업, 그들의 역사, 행동에 의하여 그들을 검열하는것을 자기의 논문의 기초로 삼아야 할것이 명료하지 않은가? 우리 로씨야사회민주당내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중간파가 과연 없었던가? 불쉐비크들이 과연 모든 류파에 반대하여 결정적 또는 단호한 투쟁을 하지않았는가? 이 류파들은 과연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서구파와 사회주의자들 및 중간파와 연락되지 않았던가? 불쉐비크들이 사회주의자들 및 중간파

를 박멸한것처럼은 세계에서 어떠한 좌익 그루파도 해내지 못한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 모든것이 이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레닌 및 볼셰비크들이 중간주의의 위험성을 파소평가하였다고 말할수있을까? 어찌하여 슬루츠키는 볼셰비크들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의의를 가진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였는가? 어찌하여 그는 레닌 및 볼셰비크들을 그들의 사업, 행동에 의하여 검열하는 가장 믿음성있는 방법을 리용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그는 우연히 얻어진 문헌을 물쳐보는 그렇게도 믿음성이 적은 방법을 채용하였는가?

왜냐하면 볼셰비크들을 사업에 의하여 검열하는 일층 믿음성있는 방법을 채용하였더라면 슬루츠키의 모든 입장을 일순간에 뒤집어놓았을것인 때문이다.

왜냐하면 볼셰비크들을 사업에 의하여 검열한다면 볼셰비크들은 기회주의자들 및 중간파를 골까지 박멸해내고, 그들을 당으로부터 축출시킨, 세계에서 유일한 혁명적 단체임을 보이며 주었것인 때문이다.

왜냐하면 볼셰비크들의 진실한 사업과 진실한 력사를 고찰한다면, 슬루츠키의 스승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로찌야에서 중간주의를 부식(扶植)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 중간주의의 소굴(巢窟)로서의 8월혁명과 같은 특수조직체를 만들어 내었던 주요한 또는 기본적인 그루파이었던것을 보이며 주었것인 때문이다.

왜냐하면 볼셰비크들을 사업에 의하여 검열한다면 레닌 및 볼셰비크들이 중간주의의 위험성을 파소평가하였다는 중상적 비난으로써 전쟁전시기의 트로츠키주의의 중간주의를 은폐하고 시도하는 우리당력사의 위조자로서의 슬루츠키를 여지없이 폭로하였것인 때문이다.

편집원 동지들이여, 슬루츠키와 그의 문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되어있다.

여러분은, 편집부가 우리 당력사의 위조자와 토론을 개시함으로써 오류를 범한것을 보
는바이다.

무엇이 편집부로 하여금 이런 옳지 못한 길을 밟게하였는가?

지금 불셰비크들의 일부에 얼마만큼 전파되어있는 부패한 자유주의가 편집부로 하여금 이러
한 길을 밟게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부 불셰비크들은 생각하기를, 트로츠키주의는 공산
주의의 일부라고, 그것이 비록 오류를 범하며 적지않은 우행(愚行)을 하며 어떤 때에는 반
(反)쇼베트적인것에까지도 이르는하나 그래도 어쨌든 공산주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로
부터 트로츠키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적으로 사색하는자들에 대한 일종의 자유주의가 생기는것
이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대단히 그릇되고 해로운 견해임은 증명할 필요
가 있을것같지 않다. 사실에 있어서 트로츠키주의는 벌써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의 일부파
가 아닌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트로츠키주의는 공산주의를, 쇼베트주권을,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반혁명적 부르조아지의 전위대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해제, 불셰비크들이 불가피적으로 변질
(變質)하리라는 해제 등등과같은 형식으로 불셰비즘을 반대하는 정신적, 사상적 무기를 누가
반혁명적 부르조아지에게 주었는가? 트로츠키주의가 그에게 이 무기를 주었다. 쏘련에서의 모든
반쇼베트적 그루파들이 쇼베트주권과의 투쟁의 불가피성을 문중하려는 기도(企圖)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트로츠키주의의 해제, 쇼베트주권이 피치
못하고 변질하리라는 트로츠키주의의 해제, 자본주의가 필경 복구되리라는 트로츠키주의의
해제에 그들이 의거하였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쏘베트주권을 반대하여 공공연하게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형태로써 쏘련내의 반혁명적 부르조아지에게 전술적 무기를 누가 주었는가? 一九二七년 十一月七日 모스크바와 메닌그라드에 서 반쏘베트적 시위운동을 조직하려고 시도하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그 반혁명적 부르조아지에게 이 무기를 주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쏘베트적 진출이 부르조아지의 기세를 높이어 주었으며 또는 부르조아적 기술자들의 해독행위를 전개시켜 놓은 것은 사실이다.

반쏘베트적 비밀단체를 조직하려는 시도의 형태로써 그런 조직적 무기를 누가 반혁명적 부르조아지에게 주었는가? 자기들의 반(反)볼셰비크적 비밀그루빠를 조직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이 무기를 주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쏘베트적 비밀사업이 쏘련에서의 반쏘베트적 여러 그루빠의 조직적 형성을 할케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트로츠키주의는 반혁명적 부르조아지의 전위대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록 격과되었고 가장한 트로츠키주의라고 할지라도 그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자유주의는 로동계급에 대한 범죄와 범죄와 연결되어있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출판물에 가장한 트로츠키적 폐물(廢物)을 밀수입하려는 일부 「문필가」들과 「력사가」들의 시도는 반드시 볼셰비크들의 단호한 타격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트로츠키적 밀수입자들과의 출판물에서의 토론을 용허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의 저작에는, 트로츠키적 밀수입자류의 「력사가」들과 「문필가」들은 자기들의 밀수입적 사업을 아직은 두 로선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듯하다.

첫째로, 그들은 레닌이 전쟁전 시기에 있어서의 중간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였다 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경험없는 독자로 하여금 레닌이 그때에는 아직 진

정한 혁명가가 아니었고 그가 오직 전쟁이후 트로츠키의 도움을 입어 「재무장(再武裝)」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혁명가가 되었다는듯이 추척하게 한다. 이러한 종류의 밑수입자들의 전형적(典型的) 대표자로는 슬루츠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슬루츠키 및 그 동배와는 오래 시비(是非)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둘째로, 그들은 레닌이 전쟁전 시기에 있어서서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성장전화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경험없는 독자로 하여금 레닌이 당시에는 아직 진정한 볼셰비크가 아니었고 오직 그가 전쟁이후 트로츠키의 도움을 입어 「재무장」한 뒤에야 비로소 이러한 성장전화의 필요를 이해하였다는듯이 추척하게 한다. 이러한 종류의 밑수입자들의 전형적 대표자로는 「조선공산당(볼셰비크) 역사교정」의 저자인 월로세위츠가 될 것이다.

실로 레닌은 벌써 一九〇五년에 쓰기를, 「우리는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즉시 이행(移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량에 상응해서, 의식적인 또한 조직적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역량에 상응해서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기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혁명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충도에 명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실로 이와 유사(類似)한 종류의 사실과 문헌은 레닌의 저작집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월로세위츠 무리에게 레닌의 생활 및 활동의 사실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월로세위츠 무리는 볼셰비크의 밑갈로 가장하고 반(反)레닌주의적 밑수입을 일삼으며 볼셰비크들에게 매한 거짓말을 꾸미며 볼셰비크당의 역사를 위조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이다.

월로세워치무리가 슬루츠키무리와 동류의것이라는것을 여러분은 보는바이다.
트로츠키적 밀수입자들의 「길과 갈래길」은 이러한것이다.

이러한 「역사가」들에게 토론단(討論論壇)을 제공하여 그들의 밀수입적 활동을 활발하게하여 주는것이 「프로테라리아 혁명」잡지의 편집부의 사업이 아닌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리해하는바이다.

내생각결에서는 편집부의 임무는 불쉐비즘의 역사에 관한 여러 문제들 적당한 저위 에다 올려세워놓으며 우리당역사의 연구사업을 과학적 불쉐비크적 궤도에 세우며 트로츠키적 및 기타의 우리당역사의 위조자들의 가면을 계통적으로 벗겨버리면서 그들을 반대하여 주의를 날카롭게함에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것이 필요한것은 우리의 일부 역사가들까지도 — 나는 진정한 역사가, 우리의 불쉐비크적 역사가들에 대하여 말한다 — 슬루츠키무리와 월로세워치무리를 도와주는 오류를 면치못하였기 때문이다. 유감이지만 야로슬랍스키 동지도 이에 있어서 레외(例外)가 되지 못한다. 그의 소련공산당(불쉐비크)역사에 관한 여러 책중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또는 역사적 성질을 가진 여러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공산주의적 축하를 보내면서 이.쑬달린.

잡지 「프로테라리아 혁명」
一九三一年 제六호(一一三)
이.쑬.쑬달린 저작집 모음판
제一三권 八四—一〇二페이지

제 一 차 五 개 년 계획 의 총 회

一九三三년 一월 七일에 전련맹공산당(불웨이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의 합동전원회에서 진술한 보고

一、五 개 년 계획 의 국제적 의의

동지들! 五개년계획이 세상에 나타나던때에 세상사람들은 五개년계획이 큰 국제적 의의를 가질수 있으리라라고는 예상(豫想)하지못하였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五개년계획은 소련에만 한(限)한 일이라고, 일은 중요하고 또 신중하지만 어쨌든지 소련에만 한한 일국적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력사는 五개년계획의 국제적 의의가 칙량할수 없이 크다는것을 보이며 주었다. 력사는, 五개년계획이 소련에만 한한 일이 아니라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위업이라는것을 보이며 주었다.

일적 五개년계획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즉 우리가 무력간섭자들과의 투쟁을 끝내고 경제적 건설 궤도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벌써 그 시기에 있어서 레닌은 말하기를, 우리의 경제적 건설은 심각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었다고 하였고 경제적 건설의 길로 소

페트 주권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름마다 자본주의적 각국의 각종각색의 여러 사회층에서 심각한 반응(反應)을 받아가지고 세상사람들을 두진영 즉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찬동하는 자들의 진영과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의 진영으로 갈라놓는다고 하였다.

페닌은 그때에 이렇게 말하였다. 즉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국제적 혁명에 대한 자기의 주요한 영향은 우리의 경제정책으로써 주고있다. 세계각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하나도 제외없이, 또 아무 과장도 없이 모두다 소비트로써야 공화국을 쳐다보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있어서 투쟁은 전세계적 범위에도 옮겨졌다. 우리가 이 임무를 해결할것 같으면 그때에는 우리는 국제적 범위에서 확실히 또한 중국적으로 승리할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건설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건설에 있어서 우리는 천천히 점차적으로——급속하게는 못하는 것이다——그러나 꾸준한 향상과 전진으로써 반드시 승리하여야 할 것이다」(제二六권 四一〇—四一一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무력간섭자들과의 전쟁을 끝마칠 그때, 우리가 자본주의와의 군사적 투쟁으로부터 경제적 전선에서의 투쟁으로, 즉 경제적 건설기로 넘어가던 그때에 말한 것이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갔다. 그리하여 경제적 건설의 영역에 있어서 소비트주권이 밝아가는 매거름, 매년, 매四반기는 페닌동지의 이 말이 옳은것을 빛나게 실증하였다.

그러나 페닌의 말이 옳다는것을 가장 빛나게 실증한것은, 우리의 건설의 五개년계획, 그의 발상, 그의 발전 그의 실현이다. 생각컨대,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적 건설이 진행되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어느 한거름이든지 五개년계획, 그의 발전, 그의 실현에 관한 문제처럼은 구라파, 아메리카, 아제아의 자본주의 각국의 각종각색 여러 사회층에서 반응을 받은일은 없었다.

처음에는 五개년계획이 부르조아지와 그의 출판계로부터 냉소를 받았다. 「환상」(幻想)、

「첫소리」, 「공상」——이렇게 그때에 그들은 우리의 五개년계획을 가리켜 말하였다.

그후 五개년계획의 실현이 실제적 결과를 주는 것이 알려지게 되든 그때에 그들은 五개년계획이 자본주의 각국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그 계획이 실현되면 구라와 시장을 상품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며 단방(投賣)이 심하게 되며 실업이 심각화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경종(警鐘)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다음에, 쏘베트주권에 반대하여 리용하던 그 홍계가 기대하던 결과를 주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말하자면 쏘련에서 실로 무엇이 되어가는지 직접 제논으로 보려는 목적으로써 각종사회(商會), 출판기관, 여타가지 단체 등등의 여러 대표자들이 쏘련으로 건너가 여행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五개년계획이 나타나던 그 처음부터 쏘베트주권의 발기(發起)와 성공에 대하여 환희를 표현하였으며 쏘련의 로동계급을 지지하려는 결심을 나타낸 로동자대표단들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때로부터 소위 사회여론, 부르조아 출판계, 각종 부르조아단체 및 기타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어떤 자들은 단언하기를 五개년계획은 완전한 실패에 돌아갔고 불셰비크들은 멸망의 지경에 처하여 있다고 하였다. 그와반대로 다른 자들은 단언하기를, 비록 불셰비크들이 고약한 인간들이지만은 그래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그들이 정사(成事)하는 모양이오 또한 그들은 필연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리라 하고 하였다.

만일 내가 각종 부르조아적 출판기관의 비평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첫원일은 아닐 것이다. 레를 들어 아메리카신문 「뉴욕 타임즈」를 보자. 그 신문은 一九三二년 十一月 말에 아래와 같이 썼다. 즉

「조화의 감각에 도전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으며 모스크바가 자주 떠돌고있던것과 같이 「비용에 상 관하지않고」 자기의 목적으로 돌진하고있는 五개년산업계획은 사실에 있어서는 계획이라고 할것 없는것이다. 그것은 투기이다」.

그리고본즉 五개년계획은 심지어 계획까지도 아니오 빈 투기라는것이다.

그리고 영국부르조아신문 「테일리·텔레그라프」가 一九三二年 十一月말에 쓴 비평은 이러하다. 즉

「만일 그계획을 「계획 경제」에 대한 시금석(試金石)이라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계획이 완전한 실 패를 당하였다는것을 말하여야 할것이다」.

一九三二年 十一月에 쓴 「뉴욕·타임즈」의 비평은 이러하다. 즉

「정당화는 관사남게 원죄되었다. 그것은 로씨야로 하여금 거의 기근에 빠지는때 이르게하였다」.

파란 부르조아신문 「가제타·볼쓰카」가 一九三二年 여름에 쓴 비평은 이러하다. 즉

「사태는, 소비에트정부가 농촌의 정당화에 대한 그 정책으로써 미상불 궁지(窮地)에 빠져 드러났다는것을 보여준다」.

영국 부르조아신문 「피난쉬엘·타임즈」가 一九三二年 十一月에 쓴 비평은 이러하다. 즉

「쓰탈린과 그의 당은 자기정책의 결과에 五개년계획의 체계(體系)가 파산(破産)되어 이 五개년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였어야 할 모든 일수가 실패에 직면하였다」.

이태리잡지 「폴리티카」의 비평은 이러하였다. 즉

「一학六천만이나 되는 국민이 四년 동안에 실행한 사업, 본래 비효율적(非效率的) 정치와 같은 그러한 세력의 통치가 四년 동안에 초인간적(超人間的)으로 행한 경제적 및 정치적 전장이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였고, 생각한다면 망명일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것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은 무조건에 현존하고 있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뚜렷한 사실이다. 그점에 대하여서는 벗(友)들이나 적들이나 본래 비크들이나 반(反)본래 비크들이나 좌우경(左右傾)의 반대파들이나 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부르조아잡지 「케렌트·히스토리」의 비평은 다음과 같다. 즉

「이와같이 되어, 토착민의 현재 형편에 대한 관찰은, 五개년 계획의 강령이 그 선언한 목적에 있어서도 실패에 돌아갔고 그 강령의 사회적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일층 보람을 주지 않게 실패에 돌아갔다는 결론을 짓게 한다」.

이러한 것이 일부 부르조아 출판계의 비평이다.

이런 비평을 쓴 필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을 비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완고한」 인간들은 중세기(中世紀)적 진부(陳腐)한 고졸의 종류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사실이 아무 의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五개년 계획이 아무리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제 말을 고집하고 있을 것임으로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부르조아적 진영에서 나오는 출판가들의 비평을 들어 보자.

불란서에서 유명한 부르조아 신문 「란」에 一九三二년 一월에 쓴 비평은 곧 아래와 같다. 즉

「프랑스의 국가 자본의 도움이 없이 공업화를 실행하면서 첫 수부들 이기었다」.

「九三二」년 여름에 역시 그 「탄」에 쓴 비평은 이러하다. 즉

「자본주의 제도는 머린 거듭으로써 겨우 운전되고있는 그때에 공산주의는 거대한 속도로써 재건을 완수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가 개인소유자들의 사이에 끝없이 분산되어있는 불완전에 있어서는 농업을 기계화할 수 없는 것이다. 쓰베트는 농업을 공업화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내었다: 우리와 경쟁하는데 있어서는 불웨이브 같은 승리자가 되었다」.

영국 부르조아잡지 「라운드·테이블」의 비평은 이러하다. 즉

「五개년계획이 탈성한 그것은 놀랄만한 현상인것이다. 하리코브와 쓰탈린그라드의 프락트공장들, 모스크바에 있는 자동차공장 「아모」, 니스니·노보고로드에 있는 자동차공장, 드네프르의 수력발전소, 마그니토고르스크와 구스비르크에 있는 거대한 제강공장들, 쓰베트 나타에서 루르와같이 되어가는 우랄에 있는 여러 기계제조공장 및 화학공장(網)——이 모든것과 다른 여러가지의 전국에 있는 공업상 생산물들이야말로 쓰베트나타의 공업은 아무런 곤난이 있더라도 마치 물갈대인 초목과 같이 자라나며 튼튼하여지고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五개년 계획은, 장래 발전의 로대를 쌓았으며 쓰련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영국 부르조아잡지 「피난취엘·타임즈」의 비평은 이러하다. 즉

「기계제작공업에 있어서 탈성한 성공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의심할 여지도 없다. 출판물이나 연설에서 그 성공을 찬양하는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것이 아니다. 이전에 로씨야는 다만 가장 단순한 기계 및 기구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지금도 수입되는 기계 및 기구의 절대적 수가 부러가는것은 사실이치만은 쓰련 안에서 제조된 기계에 대한 수입된 기계의 비례는 간단없이 줄어간다. 쓰련은 지금 자체의 야금공업과 전기공업에 필요한 모든 설비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자기자체의 자동차공업을 창설하여내었다. 그는 가장 새밀하고 심히 정밀한 기구로부터 가장 무거운 압착기(壓榨機)까지 그 모든 각종각양의

기계 및 기구의 생산을 장려했다. 농업기계를 말하면 쓰림은 밭씨 그것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의존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소비트집부는 서탄과 철의 생산체원이 5개년계획을 4년 동안에 실행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쓰고 있다. 제로 전선원 큰 공장들이 증공업의 생산액의 천거한 장성을 보장함은 의심할 것도 없는바이다」.

오지리 부르조아신문 「바이에 · 프레이에 · 프레이」가 一九三二年初에 쓴 비평은 이러하다.

「볼셰비즘을 저주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 5개년계획——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어쨌든 지 경제적 방면에 있어서 참작(參酌)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거상(巨像)이다」.

영국 자본가요 「유나이티드 · 도미니언」 은행총재인 집쑤 · 자 — 바가 一九三二년 十月에 쓴 평론은 이러하다. 즉

「나는, 내가 공산주의자도 볼셰비크도 아닌 확실한 자본가이며 개인주의자라는 것을 우선 말해두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공장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국민중의 거의 三百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인자리를 찾고있는 그때에 토씨아는 앞으로 나가고있다. 5개년계획에 대하여 맹수하였으며 또 그것이 실패하리라 하고 예언을하였다. 그러나 여러분은, 5개년계획의 조건아래에서 계획하였던것보다 더 많이 실행된것은 의심할수없다. 인정할수있을것이다. 내가 방음(訪問)한 모든 공업도시에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여러 새 구역이 장려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길거리가 넓고 가로수(街路樹) 및 시가공원으로써 아름답게 정비되어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최신식의 가족들과 학교들과 병원들과 로동자 구락부들이 있고 그리고 또 동하는 어머니들의 어린이들을 돌보아주는 데 필요한 탁아소(托兒所)들 및 유치원들이 있다. 토씨아의 여러가지 계획을 파소경가하려고 하지 말라, 또한 소비트집부가 몰락되리라 하고 기대하면서 파소를 범하지 말라.」

출발의 로짜야는 정신과 리상(理想)을 가진 나라이다. 로짜야는 활발한 활동을 가진 나라이다. 나는 로짜야의 지방(志望)이 전진한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로짜야의 모든 청년 및 노동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적 작곡에는 유감이지마는 없는 것이면 것을 가지고 있나니 그것은 곧 희망이라는 것이다。」

아메리카 부르조아 잡지 「바이순」이 一九三二년 十一월에 쓴 비평은 이러하다. 즉

「五개년계획을 실행하는 四개년은 참으로 훌륭한 업적(業績)들을 가져왔다. 쓰련은 새 생활의 기초를 실행하는 창조적 임무에 대하여 전신과같이 그러한 강도(強度)로써 사업하여 왔다. 나라의 면모는 참으로 날아보지 못하리만치 변하여간다. 이것은 새로 아스팔트를 깐 수백의 큰거리, 시가공원, 새 건물들을 가지고있으며 새로 생겨난 여러 교외와 새 여러 공장으로써 둘러싸인 모스크바에 대하여 맞는 말이다. 이것은 좀 그만 못한 도시들에 대하여서도 맞는 말이다. 여러 새 도시가 초원(草原)과 황무지(荒蕪地)에서 생겨났는데 그것은 얼마 안되는 몇 도시인것이 아니랴 五萬명으로부터 二十五萬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적어도 五十개소가 된다. 그 모든 도시들은 최근 四년 동안에 생겨난것인데 그 각 도시는 자연부원을 개척하기 위하여 건설된 새 기업소 혹은 여러 기업소의 중심지점(中心地點)인것이다. 수백이나 되는 여러 지방의 새 발전소와 드베르소스로이와 같은 여러가들은 「사회주의는 소비트정권 몰타쓰 전기화」라는 여러 지방의 전기를 점차로 실행함에 실현하고있다. 쓰련은 로짜야가 일찌기 한번도 생산한적이 없는 그런 무한한 여러가지 물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것이 그 여러가지는 즉 트랙토르, 콤파인, 질이 고등한 장선, 인조고무 보트레아밍, 콘칩을 가진 더—젤, 五만킬로와트의 힘을 가진 라—빈, 전화선비(電話設備), 파산업에 쓰이는 전기기계,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및 수백가지의 새 기계가 그것이다. 로짜야는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많은 전기기계, 연회석(機灰石), 요드(沃度), 타산가리(炭酸加里) 및 많은 여러가지 값있는 광물을 채굴하여낸다. 소비트나라의 평원(平原)에 선 로즈로(路程標)는 이제부터는 교회당(敎會堂)의 등그런 집총과 큰 십자가(十字架)인것이 아니라 곡물저장함과 사로탑(飼料塔)인것이다. 플호즈들은 주력과 축사(畜舍)와 돈사(豚舍)를 건축한다. 전기가 농촌에 퍼져 들어가있으며 라티오와 신문이 농촌에 들어왔다. 노동자들은 최선식 기계를 가지고 노동하는것을 떠운다. 농촌청년들은 아메리카에서도 일찌기 보지못하던 일층 더크고

일출... 더 복잡한... 여러가지 농업기계를 제조하여 내역... 또 그러한 기계로써 일하고 있다. 로씨야는 『기계... 기초... 하여... 생각하기』를 시작한다. 로씨야는 목기시대(木器時代)로 부터 철, 강철, 공크리트 및 모라의 시대로 급속하게 넘어간다」.

영국의 「좌익」—개량주의적 잡지 「포트워—드」가 一九三二년 九월에 쓴 비평은 이러하다. 즉

「또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이 눈앞에 환히 보인다. 새 공장, 새 학교, 새 영화관, 새 구락부, 새 큰 건물—도처마다 새 건축물이다. 그중에서 많이는 벌써 준공되었고 남아지는 아직도 가끔(架木)에 세워있다. 최근 두해동안에 무엇이 실행되었으며 또 무엇이 앞으로 더 실행되고 있는가를 영국독자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믿기 위하여서는 그 모든것을 보아야 한다. 전쟁당시에 실현된 우리자신의 업적은 쓰련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미국사람들은, 심지어 미국의 서부제주에서 가장 급진적(急進的)의 전선열이 고조(高調)되었던 그시기에 있어서까지도 지금 쓰련에 있는 열렬한 창조적 활동과 같은것은 거기에 도무지없었다는것을 인정한다. 최근 두해동안에 쓰련에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이제로부터 한十年 후에 그나중에 무엇이 생길리라는것은 상상(想像)하여낼수 없으리만치 판다... 영국의 여러가지 신문이 쓰련에 대하여 그처럼 완강(頑強)하게 또 그처럼 우매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환상적으로 꾸며낸 그 험악한 이야기 꺼리들을 머리속에서 내버리라. 중간계급(中間階級)의 안정을 쓰고 비호적으로 눈초리로 쓰련을 보고있으나 그나나 그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조금치도 알지못하는 피상(皮相)적 지식자가 세상에 퍼놓는 물리해(沒理解)에 근거한 그 모든 인상(印象)과 증도반단적(中途半斷的)의 진상도 역시 머리속에서 내버리라... 쓰련은 전전한 원치위에서 새 사회를 건설한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험하여야 하는것이요 열성으로 사업하여야 하는것이요 지금까지 전세계가 하지못하던 그러한 정력(精力)으로 일하여야 하는것이요 이외의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광활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데 있어서 피할수없이 생기게되는 막대한 곤란과 투쟁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두해여간에 두번이나 그 나라를 방문하고 나는 그나라가 온전한 진보의 길을 밟아나아가며 제화하며 창조하며 건설하며 또 그 모든것이 그나중에 적대되는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하여 확연히 도전(挑戰)으로 될 정도의 그러한 범위에서 실행된다는 인상을 일었다」.

이러한 것이 부르조아 세계(各界)의 진형에 있는 의견상 불일치와 분렬인바, 그중의 일부는 五개년계획이 실패하였다는 뜻이 말하면서 조련을 박멸하려고 하고, 다른 일부는 보는 바에 분명코 五개년계획의 성공으로 인하여 아마도 그들이 어떠한 리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타산하면서 조련과 상업상 협동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五개년계획에 관한 문제와 조련에서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성공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자본주의 각국 로동계급의 태도여하의 문제는 특수하게 서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조련으로 오는 수많은 로동자대표단 중에서, 백이의 로동자대표단의 논평을 이에 있어서 예로 인증하는 것만으로 국한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 논평은 영국이나 불란서든지, 독일이나 미국이든지 또는 다른 여러나라의 로동자 대표단을 물론하고 모든 로동자대표단에 있어서 전형적(典型的)이 되는 논평이니 그것은 곧 이러하다. 즉

『우리가 여행하는 그 동안에 관찰한 그 거대한 건설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기뻐하게였다. 모스크바에서 나 마케옉까, 고른볼까, 하리코프, 페닌그라드에서나 우리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이나 열십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기계는 혁신적의 것이다. 공장안은 깨끗하고 공기의 통풍이 좋고 광선이 충분하였다. 우리는 조련에서 어떻게 로동자들에게 치료상, 위생상의 원조가 실시되고 있는가를 보았다. 로동자들의 주력들은 공장 가까이에 전속되어 있다. 로동자들이 사는 여러 구역에는 학교 및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대하여서는 가장 주의 깊게 돌보아 준다. 우리는 남은 여러 공장과 새로 건설된 여러 공장과의 사이의 차이, 남은 주력과 새 주력과의 사이의 차이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산당의 지도하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의 거대한 힘을 명료히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쇄외(衰頹)가 막심하고 실업이 군림(君臨)하는 그때에 조련에서 문화상의 거대한 향상)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우리는 조베르나타의 근로자들이 자기가 나아가는 길에서 어떠한 신한 문물을 당

하고 있는 것을 분수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자기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랑스러운 것을 인용 미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모든 장해를 극복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곧 여러동지들에게 말하는바의 五개년계획의 국제적 의의인 것이다. 전세계가 두진영으로 즉 취지않고 우리에게 향하여 쫓(吠)는 인간들의 진영과 五개년계획의 성공에 놀란 사람들의 진영으로 갈리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얼마안되는 二—三년 동안에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五개년계획의 첫성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족하였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우리 자체의 진영, 즉 자본주의 각국의 로동계급 진영이 있고 또 그것이 힘있게 되어간다는데 대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로동계급의 진영은 쏜련의 로동계급의 성공에 대하여 기뻐하며 전세계의 부르조아지가 전율(戰慄)하도록 쏜련의 로동계급을 지지(支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五개년계획의 국제적 의의, 그 계획의 성공 및 전과의 국제적 의의는 의심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각국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실로 그 각국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배태되어 있는 것 때문에 부르조아지는 五개년계획의 실패에서 혁명에 반대하는 새로운 (證據)을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그와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五개년계획의 성공에서 전세계의 부르조아지에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는 새로운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며 또 사실상으로 얻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五개년계획의 성공은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모든 나라의 노동계급의 혁명적력량을 동원하고 있다——이것은 다물수없는 사실이다.

五개년계획의 국제적혁명적의의가 사실상 측량할수없이 큰것임은 의심할것 없는바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五개년계획, 그계획의 내용, 그계획의 기본적 임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일층 더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그렇듯 우리는 五개년계획의 총화, 五개년계획의 실행 및 실시의 총화를 일층 더 주밀(周密)하게 분석하여야 할것이다.

二、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와 그 실현의 길

五개년계획의 본문제로 넘어가자.

五개년계획이란 무엇인가?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는 어디에 있었는가?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는 뒤떠려진, 흠이 중세기적인 기술을 가지고있던 우리나라를 새로운 현대적 기술의 궤도(軌道)에로 넘겨세우는 데 있었었던것이다.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는, 소련을 농업국이며 쇠약한 나라로부터, 자본주의 제국의 자의(恣意)에 의존하여있던 나라로부터 공업국이며 위력있는 나라이며 완전히 자립적이고 세계자본주의의 자의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었던것이다.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는 소련을 공업국으로 전환시키면서 자본주의적 분자들을 영영 다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전선을 넓히고 그리하여 소련에다 제국들을 박멸하고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構築)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는, 사회주의의 토대위에서 공업전체만을 재무장시키며 재조직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운수업과 농업도 재무장시키며 재조직할 만한 그러한 공업을 우리나라에 창설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는, 소규모적인 분산된 농업을 대규모적인 집단경영의 제도로 이전시키며 그리함으로써 농촌에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보장하고 그리하여 소련에서 자본주의가 회복될 가능성을 청산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五개년계획의 임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모든 또는 온갖 군사적 무력간섭의 시도 외부로부터의 모든 또는 온갖 군사적 공격의 시도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조직할 수 있게 하는 국방력을 최대한도로 제고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전제조건을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이다.

五개년계획의 이 기본적 임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었으며 지지하였으며 그 임무는 무엇에 근거하였던가?

그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보잘것없이 생존하게 하는 기술적—경제적 라후성을 청산하여야 할 필요로 말미암아 생기었고 또한 기술적—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시일이 갈수록 그에 따라서 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할 만한 그러한 전제조건들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할 필요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그것은, 소비트주권은 뒤떨어진 공업의 토대위에서 오래동안 유지하여갈 수 없으리라는 것과 자본주의적 나라들의 공업보다 못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시일이 감에 따라서 그것을 능가할수있는 그러한 현대적 대규모적 공업만이 소비트주권의 실체적이오 미들성있는 기초가 될수있다는 견해에서 생긴것이다.

그것은, 소비트주권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박멸하는 대규모적 사회주의적 공업과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낳는 소규모적 개인농민경영과의 두가지 대립(對立)되는 기초위에 오래동안 근거하여 있을수 없다는 견해에서 생긴것이다.

그것은, 농업에 대규모적 생산의 토대가 도입되기전에는, 소규모적 농민경영들이 대규모적 집단경영에 연합되기 전에는 소비트에서 자본주의가 회복될 위험은 모든 가능한 위험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 된다는 견해에서 생긴것이다.

때نين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즉

「혁명은 도색으로 하여금 몇달동안에 그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 선진 제국을 따라가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쟁은 사정없는것이다. 전쟁은 무자비(無慈悲)하게, 단호하게 문제를 세운다—혹은 멸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 제국을 따라가며 또한 그 여러나라를 경제적으로도 앞서나가든가 할것이다! 멸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 속력을 다하여 앞으로 돌진하든가 할것이다. 역사는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였다」(제二권 一九一제지).

때نين은 아래와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가 아직 소농민적 나라에 사는 동안은 도색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하여보다 자본주의를 위하여서의 경제 문제가 일층 더 중요한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농촌의 생활을 도시의 생활과 비

교하여서 주의하여 관찰한자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푸리들을 아조 알아버리지 못하였고 또한 내부의 적의 토대와 자반을 깨트려버리지 못한것을 아는것이이다. 내부의 적은 소규모적 경영에 의거하여있다. 그리하여 그 적을 파멸시키기 위하여서는 한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것은 곧 농업까지 포함한 국내경제를 새로운 기술적 토대에 현대식 대규모적 생산의 기술적 토대에 넘겨버리는 그것이다. 다만 나자가 전기와되고 공업, 농업, 운수업이 현대식 대규모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에 서게되는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될것이다」(제二六권 四六—四七페이지)。

바로 이러한 명제들이 **五개년계획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 계획의 기본적인 임무를 규정하게한 당의 고령의 기초가 되었었다.**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임무는 이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는것은 막치는대로, 되는대로 시작할수는 없는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계획의 기본적인 고리(環)를 찾아내어야 하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다만 그 기본적인 고리를 찾아서 그것을 잡아쥐고라야만 그계획의 모든 다른 고리들을 끌어잡아 낼수있는 까닭이다.

五개년계획의 기본 고리는 무엇이었던가?

五개년계획의 기본 고리는 기계제작업을 중심으로한 중공업이었다. 왜 그러냐하면 다만 중공업만이 공업전체도, 운수업도, 농업도 개진할수 있으며 그것을 튼튼히 세워놓을수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부러 **五개년계획의 실현을 시작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리고온족 중공업을 부흥하는것을 **五개년계획의 실현의 기초로 삼아야 할것이** 있었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서도 역시 태연의 지지를 가지고 있다. 즉

『로씨야를 구제한다는것은 다만 농민경제에서 좋은 수확을 얻는다는것만이 아니다——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또는 농민에게 소비품을 공급하여주는 경제의 좋은 상태만도 안될것이다——그것만으로도 역사가 부족하다——우리에게는 또한 중공업이 필요한것이다：중공업을 구제하여놓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부흥시켜 놓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산업도 건설하여낼수 없는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워낙 독립국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될것이다：중공업은 국가의 보조금을 요구하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보조금을 구하여 내지 못하게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국가로서——나는 미군이나 사회주의적 국가로서라고는 말하지도 않는다——존재하지 못하게 될것이다』(제二七권 三四九페이지)。

그런데 五개년계획시초의 우리나라와같이 그렇게 특히 뒤떨어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중공업을 부흥시키며 발전시키는것은 가장 어려운 사업인것이다. 왜 그리냐하면 중공업은 다아는 바와같이 거대한 재정지출과 일정한 최소한의 수의 경험있는 기술자들을 요구하는것이다. 대체로 말하면 그것이 없이는 중공업을 부흥시킬수없는 까닭이다. 당은 이것을 알았으며 그 형편을 잘 타산하였던가? 물론, 알았었다. 그리고 오직 알기만 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널리 설명하였다. 당은 영국, 독일, 미국에서 중공업이 어떤 방법으로 건설되었는지를 알았다. 당은, 그 여러나라의 중공업이 혹은 저액의 차관(借款)으로 건설되었거나 그렇지않으면 다른 여러나라를 약탈하는 방법으로 건설되었고 또 혹은 그 두방법을 동시에 리용하는 방법으로 건설되었다는것을 알았다. 당은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의 길이 막혔었다는것을 알았다. 당은 무엇에 의뢰하였던가? 당은 우리나라 자체의 힘에 의뢰하였다. 당은 쵸베트주권이 현존한 이상 그리고 토지, 공업, 운수업, 은

행, 상업은 국유화하는데 의거하여 우리는 중공업을 부흥하며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한 자금(資金)을 저축하기 위하여 엄중한 절약(節約)을 실행할 수 있다는 데 의의하였다. 당은 이 사업이 큰 회생을 요구한다는 것과 만일 목적을 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내놓고 또 의식적으로 회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였다. 당은 외국에서 노예적 크레딧트와 차관을 얻지 말고 국내의 힘으로써 이 사업을 달성하려고 타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넌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는 노동자들의 농민에 대한 지도와 그 농민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신임을 보전할 만하고 또한 최대의 절약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떠한 망비(浪費)의 흔적이든지 없애버릴 만한 그러한 국가를 건설하기 바란다. 전적으로 아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국가기관을 최대한의 절약에까지 끌고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짜리드씨아르부머, 그의 판로저—자본주의적 기관으로부터 그처럼 많이 남아있는 그 망비의 모든 흔적을 국가기관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농민적 국한성의 천하(天下)가 되지 않을까?

아니다. 만일 우리가 농민에 대한 도무제급의 지도를 보전한다면 우리는 우리국가에서 최대의 경제상 절약을 실행하는 데까지 이르러 우리의 대규모적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기화와 수압리용, 니탄채굴(水壓利用泥炭採掘)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철도보스트로이 및 기타를 완성하기 위하여 어떤 조그마한 저축까지도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것이다.

이점에, 오직 이점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오직 그때에랴만 우리는 비유해서 말한다면 한 말 (馬)으로부터 다른 말을 바꾸어 팔 수 있을 것이다. 즉 농민의 말, 농부의 말, 빈궁의 말로부터, 명락(零落)된 농업국이라는 사정을 모려한 절약의 말로부터, 프르페타리아드가 찾고 있으며 또한 찾지 않을 수 없는 말, 대모구적 기계공업, 전기화, 철도보스트로이 등등의 말을 바꾸어 팔 수 있게 될 것이다.」(제 27권 四—七페이지).

빈궁한 농부의 말(馬)로부터 대규모적 기계공업의 말을 바꾸어라는 것——바로 목재를 추궁하여 당은 五개년계획을 작성하며 또 그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극히 엄한 절약정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융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축할 것——중공업을 부흥하며 五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실로 이러한 길에 나서야 하였던 것이다.

대담한 임무이지요? 어려운 길이지요? 그러나 우리당이 태년적 당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실로 그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당의 五개년계획의 실현에 대한 확신과 로동계급의 힘에 대한 믿음이 실마나 강하였든지 당은 이 어려운 사업을 五개년계획이 요구하는 것처럼 五개년동안에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四개년동안에, 엄격히 말해서 만일 특별사분기(四分期)를 가한다면, 四년三개월 동안에 실현하려는 임무를 자체에 능히 세울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기초위에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라는 유명한 구호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하여 어찌되었는가?

그후 여러 사실은 당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러 사실은 이 대담성이 없거나 로동계급의 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 승리를 당이 획득하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三、공업 영역에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 동안에 수행한 총화

이제는 五개년계획을 실현한 총화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자.

공업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 동안에 실현한 총화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영역에 있어서 승리를 얻었는가?

물론, 승리를 얻었다. 그런데 그것을 얻었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대하던 것보다,

우리 당 안에서 가장 열렬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실행하였다. 이것은 심

지어 우리의 적들까지도 지금 와서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의 동지들은 더구나 이것을 부

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공업화하는 데 기초가 되는 흑색야금공업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것

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에는 프락또르공업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공업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작기계공업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현대적 화학공업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대적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진정한 본격적인 공업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에는 항공기 제작공업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전력(電力)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 자리에 처하였었다. 지금에는 우리가 제 一 위의 하나를 차지하였다.

석유제품과 석탄을 채굴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처하였었다. 지금에는 우리가 제 一 위의 하나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다만 하나인 석탄—야금기지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바 우리는 그것조차 어렵게 경영하여 나아갔었다. 우리는 그기지를 발전시켰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로 되어있는 새 석탄—야금기지를 동부지방에 새로 건설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다만 하나인 방적공업의 토대를 우리나라의 북부지방에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중아세아와 서부시비리아에 두개의 방적공업의 새기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여러가지 새 공업부문을 다만 창설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구라과공업을 능가할 그러한 범위와 규모에서 그것을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이 모든것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공업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단호히 구축되고 사회주의적 공업이 조선에서 공업의 유일한 형태가 되는데 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모든것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농업국이던 나라로서 공업국이 되게 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생산고에 대한 공업생산고의 비중(比重)이 五개년계획의 시작에는(一九二八년) 四八%이던것이 五개년계획의 제 四 年(一九三二년) 말에 와서는 七〇%에까지 높아진 까닭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것은 우리로 하여금 五개년계획의 제 四 年 말에 와서 五년 동안에 실현하려던 전 공업생산프로그램을 九三・七%까지 실행하여 공업생산고를 전쟁 전 수

준에 비하여서는 三배 이상, 一九二八년도 수준에 비하여서는 두배 이상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중공업에 있어서의 생산프로그램으로 말하면 우리는 五개년계획을 一〇八%나 실행하였다.

실상 우리가 五개년계획의 총프로그램을 六%나 채 수행치 못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나라들이 우리와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를 거절하였고 또한 국동정체가 복잡하게 되었던 관계로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하기 위하여 여러공장으로 하여금 현대식 국방무기를 제조하는 데로 급속하게 넘어가게 하였던 것으로 말미아마 그와같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처리로 넘어가는 것은 어떠한 준비기간을 지내야 되는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그 여러 공장으로 하여금 四개월동안이나 물품생산을 중지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一九三二년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에 대한 총생산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사업에 있어서의 빈틈을 완전무결하게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五개년계획의 생산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이다. 이와같은 주위의 사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五개년계획을 수자적으로 다 실행하였을뿐만 아니라 기필코 그것을 더 초과완수하였을 것은 아무 의심할 것도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국방력이 약하고 국방에 잘 준비되지 못하였던 나라로서 국방력의 의미에 있어서 유별한 나라, 온갖 돌연적 사변에 대하여 준비되어있는 나라, 모든 현대식 국방무기를 대량적으로 제조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외부로부터 침공이 생기는 경우에 그 무기를 자기군대에 공급할수있는 나라로 변하게 하였다.

공업형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실행한 총화는 대체로 이러하다.

모두다 이렇게된 후에야 공업형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이 『실패』되었다고 부르셔야 할 판계가 지꺼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고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 공업생산고의 장성이라는 의미에서 불배 현재 적심한 공황을 당하고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태가 어떠한가?

여기에 일반이 아는 공식적 재료가있다.

一九三二년말에 와서 소련의 공업생산고는 전쟁전수준에 비하여 三三四%에까지 자라났는데, 그동안에 북미합중국의 공업생산고는 전쟁전수준의 八四%로 떨어졌고, 영국의 그것은 七五%로, 독일의 그것은 六二%로 떨어졌다.

一九三二년 말에와서 소련의 공업생산고는 一九二八년의 수준에 비하여 二一九%에까지 자라났는데, 그동안에 북미합중국의 공업생산고는 五六%로, 영국의 그것은 八〇%로, 독일의 그것은 五五%로, 프랑스의 그것은 五四%로 떨어졌다.

이 여러가지 재료는 자본주의적 공업체제가 소비트적 공업체제와 경쟁하는 시험에서 타제하였다는것과 소비트적 공업체제가 자본주의적 공업체제에 비하여 모든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 공장이 많이 건설되었고 공업화의 모든 기초가 생긴것은 그것이 모두 다 좋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들한다. 그러나 공업화의 정책, 생산수단의 생산을 확장하는 정책을 버리든가 그렇지않으면 적어도 뒤로 밀어놓고 포목(布木), 신발, 옷 및 기타의 대중소비품을 늘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 훨씬 더 낫았을것이라고 말들한다.

대중소비품은 요구되는것보다 실로 적게 제조되어서 그것이 일정한 곤난을 조성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공업화에 대한 임무를 뒤로 미려내놓으려는 그러한 정책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을가를 알아야 할것이오 또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중공업의 장비에 지출하였던 정화(正貨)十五억루블 중에서 절반은 그것을 면화(棉花)、피혁(皮革)、모물(毛物)、고무 및 기타를 수입하는때 쓸수 있었을것이다. 그리나 그리하였더라면 우리나라에는 포복, 신발, 옷이 더 많이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였더라면 우리나라에는 트랙토르 제조공업이나 자동차 제조공업도 없었을것이오, 어느정도라도 볼만한 후색야금업도 없었을것이오, 기계를 제조하는때 쓸 금속(金屬)도 없었을것이다——그리하여 우리는 새 기술로써 무장한 자본주의적 포위에 직면하여 무장이 없이 서있게 되었을것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우리는 트랙토르와 농업기계를 농업에 공급할 가능성을 잃었을것이다——그로 인하여 우리는 곡물이 없이 앉어있었을것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자본주의적 분자들에 대하여 승리할 가능성을 잃었을것이다——그리고 본즉 우리는 자본주의의 회복에 대한 기회를 말할수없이 더 많이 만들었을것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우리는 국방용 모든 현대적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을것인바 그것이 없이는 나라가 국가로서 독립할수 없는것이오 그것이 없이는 나라가 외적(外敵)의 군사적 행동의 대상으로 변하는것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우리의 형편은, 자기의 중공업이 없고 자기의 군수품제조공업이 없음으로 어떠한자든지 게으르지 않은자는 다 물어뜯는 목하의 중국의 형편과 다소간 비슷하게 되었을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하였으면 우리는 군사적 무력간섭을 당하였을 것이요 불가침조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쟁을, 그조차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전쟁을, 대등하지 않은 피비린 전쟁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공격에 쓰는 모든 현대식 무기를 자기의 손에 가지고 있는 적의 앞에 거의 무장이 없이 나서게 되었을 것이니까 말이다.

동지들, 사정은 바로 이와같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자책을 존중하게 여기는 국가주권이나 자책을 존중하게 여기는 당은 이와같은 멸망의 전지에 설 수 없었던 것은 명료한 사실이다.

그리고 당이 이와같은 반혁명적인 방침을 배격하였던 까닭에——실로 그리하였던 까닭에

당은 공업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에서 결정적 승리를 얻은 것이다.

五개년계획을 실행하며 또한 공업전설 영역에 있어서의 승리를 조직하면서 당은 최고속도로써 공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당은 말하자면 나라를 채찍질하여 그 전진을 촉진하였다.

당은 최고속도의 정책을 수행하여 옳게 행동하였는가?

물론 옳게 행동한 것이다.

百년이나 뒤떨어졌고 또한 뒤떨어진 때문에 치명적 위험이 위협하는 그러한 나라를 막을고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와같이 하여야만 나라를 새 기술의 토대 위에서 급속히 재무장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결국 그로 하여금 넓은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날에 제국주의자들이 쏜편을 침범하여 우리의 전설사업을 중단(中斷)시키겠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기술적—경제적으로 약한

것을 리용하여서 임의의 시각에 우리를 침범할수 있었던것은 의심할것이 없었던바이다. 그러므로 당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숨돌릴 기회를 끝까지 리용하여 소련에다 위력의 토대로 될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기위하여 나라를 채찍질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당은 기다릴수 없었으며 정치적 책략을 쓰고있을수 없었음으로 그는 반드시 최고속도의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던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은, 반드시 국방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약점을 가능한 속한 기간에 없애야 될것이였다. 현시국의 정세, 자본주의적 나라들에서 무장이 자라나는것, 군비축소(軍備縮小)의 사상이 실패된것, 소련에 대하여 국제적 부르조아지가 증오하는것——이 모든것은 당으로 하여금 나라의 독립의 기초인 국방력 강화사업에 일층 더 힘쓰게 하였다.

그런데 당은 최고속도의 정책을 실행할 현실적 가능성을 가졌던가? 물론 가졌었다. 당은 그것이 속히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으로 제때에 나라를 격동시켜만 까닭으로만 그 가능성을 가지었던것이 아니라 또한 그는 광범한 새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자들 및 기술인원들에 의하여 이미 습득되었으며 그리하였기 때문에 최고속도의 발전을 실행할 가능성을 주게된 그러한 낯은 또는 갱신(更新)된 공장들과 제조소들에 의거할수 있었던 까닭에 그 가능성을 가지었던것이다.

실로 이와같은 토대위에서 우리나라에는 제一차 五개년계획동안에 새 건설사업이 급격하게 앙양(昂揚)되었으며 전개된 건설사업에 대한 정열이 자라났고 새 건설사업의 영웅 및 돌격대원(突擊隊員)들이 자라났고 대속도로써 발전되어 가는 실천이 자라난것이다.

제 2 차 五개년계획에 있어서도 역시 그와 꼭 같은 최고속도의 정책을 실행하게 되리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로, 五개년계획을 성과있게 실시한 결과로 우리는 공업, 운수업, 농업을 현대적 새 기술의 토대위에 세우는 五개년계획의 주요한 임무를 대체로 이미 실행하였다. 이렇게 된 후에도 나라를 채족결하여 물고 나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둘째로, 五개년계획을 성과있게 실행한 결과로 우리는 국방력을 벌써 상당한 수준에까지 높이고 있었다. 이렇게 된 후에도 나라를 막물고 나아가며 채족결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五개년계획을 성과있게 실행한 결과로 우리는 복잡한 새 기술로써 장비된 수십, 수백의 새 큰공장들 및 콤비나트(綜合工場)들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 1 차 五개년계획의 공업생산고에 있어서는 제 1 차 五개년계획의 시기에 있는바와 같이 기술을 이미 습득한 낡은 공장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놀게 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것을 습득하여야 할 그 새 공장들이 그 역할을 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 기업소들과 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이미 기술을 습득한 낡은 또는 갱신(更新)된 공장들 및 제조소들을 리용하는 것보다 매우 더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들과 기사-기술인원의 숙련정도를 높이며 새 기술을 완전히 리용하는데에 대한 새 숙련(熟練)을 얻게하기 위하여 일층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된

이 후에야 우리가 비록 원한다고 하더라도 제 2차 5개년 계획의 기간에 있어서는, 특히 제 2차 5개년 계획의 처음 2—3년 동안에 있어서는 최고 속도의 발전의 정책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실로 그러므로 나는 제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업생산고의 증가에 대하여 좀 더딘 속도를 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제 1차 5개년 계획 동안에 있어서는 공업생산고의 매년증가는 평균 22%이었다. 나는, 제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공업생산고의 매년증가가 최소한으로 평균 13—14%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적 각국에 있어서는 공업생산고가 이와같은 속도로 증가된다는 것은 도저히 달성(達成)할 수 없는 이상(理想)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업생산고의 증가의 이와같은 속도는 고사하고 매년 평균 5%의 증가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본주의적 나라들인 것이다. 쏘베트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쏘베트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경제제도에 있어서 우리는 매년 최소한도로 13—14%의 생산고 증가를 실현할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 동안에 있어서 우리는 새 건설 사업에 대한 열성과 열정을 환기하여 내었고 그리하여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지금와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업을 새 공장들 및 새 기술들을 습득하려는 열성과 열정으로써, 노동의 생산능률(能率)을 훨씬 향상시키는 것과 생산 원가(原價)를 훨씬 저하시키는 것으로써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一九二五년에 비하여서는 六배가 되는것이오 또한 우리가 二六% 이상의 증가를 가졌던
一九二八년에 비하여서는 二배가 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모든것은, 생산고의 증가의 속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오직 증가분의 총계를 연구함에만 골쳐서는 안되는것이오 또한 증가의 매 파센트에 무엇이 숨겨있으며 생산고의 매년증가의 총액은 얼마만한것인가 함을 알아야한다 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一九三三년에 一六%의 증가 즉 一九二五년에 비하여 四배나 적은 파센트를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一九三三년에 생산고의 증가도 역시 四배나 적게 되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一九二五년에는 생산고의 증가가 절대적 숫자로 三十억루블이 넘었었고, 매파센트는 四천五백만루블이 되었었다. 一九三三년에는 생산고의 증가가 一六%인데 그 절대적 숫자로 는 적어도 五十억루블이 되리라는것을 의심할 아무 근거도 없다. 다시 말하면 一九二五년에 비하여 거의 二배나 더 될것이오 증가의 매 파센트는 적어도 三억二천만—三억四천만루블, 즉 一九二五년에 증가된 매파센트보다 적어도 七배나 되는 액수가 되리라는것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것이다.

동지들, 만일 증가의 속도와 파센트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취급한다면 사실은 이와같이 전변되고있는것이다.

공업령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실행한 총화는 이러하다.

四、농업경영에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

농업경영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실현한 총화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자.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五개년계획은 집단화의 五개년계획이다. 집단화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은 무엇보다도 출발하였는가?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업화 이외에도 또한 소규모적 개인농민경영으로부터 프락토 및 현대적 농업기계로 장비된 대규모적 집단적 농업——농촌에 있어서 쇼베트주권의 유일하게 튼튼한 기초가 되는——에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출발하였다.

당은, 집단화를 실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건설하는 광활한 길로 나서게 할 수 없으며 루백만의 근로농민을 빈궁과 무지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소규모적 경영으로서는 빈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제二四권 五四〇페이지 참조)。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판일, 우리가 옛날대로 소규모적 경영에 몰려있어 있게 된다면 비록 자유스러운 공민으로서 자유스러운 토지 할터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쳐 못할 멸망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제二〇권 四一七페이지 참조)。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다만 공동적, 아르첸리적, 협동적 토동에 의하여서만 제국주의 전쟁이 우리들 모타넨은 막다른 골목으로 부터 빠져나올수 있는 것이다」(제二四권 五三七페이지 참조)。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대규모적인 모범적 경영안에서 공동으로 경작(耕作)하는 데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이 없이는 토사가 처하여있는 그 파멸, 그 절망적인 상태로 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제二〇권 四一八페이지 참조)。

여기로부터 출발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결론을 지었다. 즉

「오직 토지의 공동적, 집단적, 협동적, 아르첸리적 경작의 우월성을 사실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보이여주게 되는 경우에 타야만, 오직 협동적, 아르첸리경영에 의하여 농민을 원조하여주게 되는 경우에 타야만, 오직 그렇게 되는 때에 타야만 자기손에 국가주권을 잡고있는 토동계급은 참으로 농민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여주게 될 것이며 참으로 수천만의 농민대중을 든든하게 또는 확실하게 자기의 원으로 고우터드리게 될 것이다」(제二四권 五七九페이지 참조)。

농업 집단화의 프로그램 즉 농업령역에 있어서의五개년계획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은 레닌의 이 명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 농업에 있어서의五개년계획의 임무는 프락토르 및 현대적 농업기계를 리용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분산적이오 소규모적인 개인농민의 경영을 고도로 발달

한 농업의 모든 현대적 농구로써 장비된 대규모적 집단경영에 편입시키고 이여의 공지(空地)에는 모범적 국가경영 즉 싹호즈들의 땅을 퍼놓으려는데 있는것이다.

농업에 있어서의 五개년계획의 임무는 쓰련을 소농적인 락후한 나라로부터 집단적으로 동의 로대위에 조직되고 또 가장 많은 상품곡물을 내는 대규모적 농업의 나라로 전환 하려는 데 있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의 프로그램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함으로써 당은 무엇을 달성하였는가? 당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였는가?

당은 약 三개년동안에 二〇만 이상의 싹호즈와 五천에 가까운 립곡 싹호즈 및 목축 싹호즈를 조직하였고 그와 동시에 그는 四년동안에 二천一백만 헥타르의 파종지면적을 확장하여 내었다.

당은 지금에 모든 농민경작지의 七〇% 이상을 가지고있는 농민경영의 六〇% 이상을 싹호즈에 편입시키었으니 그것은 五개년계획을 三배나 초과 완수하였음을 의미하는것이다.

당은 농민의 개인경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에는 상품곡물을 五억—六억루드를 수매하던 대신에 지금에 있어서는 해마다 十二억—十四억루드의 상품곡물을 수매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당은 풀라크츨이 비록 아직도 끝까지 박멸되지는 않았지만은 계급으로는 파멸되게 하였으며 근로농민이 풀라크적 예속 및 착취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농촌에서 튼튼한 경제적 토대 즉 집단경영의 로대가 소비트주권하에 있게하였다.

당은 쓰련을 벌써 소농경영의 나라로부터 세계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적 경영의 농업국으로 전화시키는것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것이 대체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5개년계획을 4개년동안에 실행한 총화이다. 이제 는 모두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집단화가 「파탄」되었고,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5개년 계획이 「실패」되었다고 하는 부르조아 출판계의 요설이 무슨 가치를 가졌는가 함은 스스로 판단하라.

그런데 지금 적심한 농업공화국을 당하고 있는 자본주의 각국에 있어서는 농업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에 일반이 아는 공식적 자료가 있다.

곡물을 생산하는 주요한 여러 나라에 있어서 파종지면적이 八—一〇%가 축소되었다. 면화의 파종지면적이 북미합중국에서 一五%가 축소되었으며, 사탕무의 파종지면적이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二二—三〇%가 축소되었고 아마(亞麻)의 파종지면적이 리트와와 라트비아에서 二五—三〇%가 축소되었다.

미국 농업성의 자료에 의하면 북미합중국에서는 농업의 총생산량 가격이 一九二九년에는 一百十억 달러이던 것이 一九三二년에 와서는 五十억 달러에까지 떨어졌다. 곡물에 있어서는 그곳에서 총생산량의 가격이 一九二九년에는 十二억 八千八百만 달러이던 것이 一九三二년에 와서는 三억 九千一百만 달러에까지 떨어졌다. 면화에 있어서는 그곳에서 一九二九년에는 十三억 八千九百만 달러이던 것이 一九三二년에 와서는 三억 九千七百만 달러에까지 떨어졌다.

이 모든 사실은 소비트적 농업체제가 자본주의적 농업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사실은 플호즈가 개인적 및 자본주의적 경영보다 일종 더 생활력이 강한 경영형태(形態)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사람들은 팔호즈 및 쏘호즈는 전연 수익성(收益性)이 없다느니, 그것은 한량 없이 자금을 탕비한다느니, 그와 같은 기업소를 유지하여갈 아무 이유가 없다느니, 그중에서 다만 수익성이 있는것만을 남겨두고 그 이외의것은 해산하는것이 맞당할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만 인민경제의 문제, 경제학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자들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이다. 몇해전에는 방직업기업소의 절반이상이 수익성이 없었다. 일부의 우리동지들은 그때에 그 기업소들을 폐쇄하라고 우리에게 제의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 일은 어떻게 되었을가? 우리는 나라와 로동계급에 대하여 막대한 죄를 범하였을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우리는 그리함으로써 향상하여 가는 우리의 공업을 병타시켰을것인 까닭이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였던가? 우리는 연이상을 기다려 가지고서 모든 방직공업이 수익성이 있게되도록하였다. 그런데 고리까지에 있는 우리의 자동차공장은 어찌할가? 그도 역시 아직은 수익성이 없는것이다. 그것을 폐쇄하라고 하신타인가? 또는 역시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는 흑색야금공업은 어찌할가? 동지들, 그것을 폐쇄할 것인가? 만일 수익성에 대하여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많은 수익을 주는 몇개의 공업 부문만을——레를 들면 제과업(制菓業)、제분업(製粉業)、화장품제조업、메리야쓰제조업、조아완구(小兒玩具) 제조업 등등만을 발전시켜야 할것이였다. 나는 물론이 여러가지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그 여러가지 공업도 반드시 발전되어야 할것이다. 왜그러나하면 그여러가지 공업도 또한 주민에게 필요할것인 까닭이다. 그러나 첫째로, 그여러가지 공업은 중공업이 그들에게 주는 설비와 연료가 없이는 발전될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그여러가지 공업은 공업화의 토대를 이룰수 없는것이다. 동지들, 사태는 실로 이러하다.

수익성에 대하여 장사꾼식으로 임시적 전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익성에 대하여는 몇해동안을 예상하여 가지고 일반 국민경제의 전지로 보아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전지만을 진정한 케인주의적 전지로 진정한 탐스주의적 전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하여 이와 같은 전지는 공업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층더한 정도로 팔호즈 및 쏘호즈에 대하여서도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은, 약 三년동안에 우리가 二十만 이상의 팔호즈와 五천에 가까운 쏘호즈를 창설한 것, 즉 우리가 대공장 및 제조소가 공업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의의와 같은 역시 그러한 의의를 농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대규모적 인 전혀 새로운 여러 기업을 창설한 것을 생각만 하여 보라. 三년동안에 대규모적 새 기업소 二十만 五천은 그만두고라도 비록 그와 같은 기업소 二만 五천이라도 창설하여만 나라는 지적하여 보라. 여러분은 그를 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그와 같은 나라는 없으며 또 없었던 까닭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농업에 있어서 새 기업소 二十만 五천을 창설하였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기업소들이 추지에 수익성이 있는 기업소가 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만일 그 기업소들이 추지에 수익성이 있는 기업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파헤치며 해산하기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헤로스트라트의 월계관(月桂冠)이 이 이상한 사람들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팔호즈들 및 쏘호즈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이 모두 수익성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벌써 큰 수익을 내는 팔호즈와 쏘호즈가 있다는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수익성이 있는 수천의 팔호즈와 수십의 쏘호즈가 있다. 이 팔호즈들 및 쏘호즈들은 우

리당의 자랑꺼리가 되는것이오 소베트주권의 자랑꺼리가 되는것이다. 플호즈와 쉘호즈는 물론 어디에서나 모두다 같은것은 아니다. 플호즈와 쉘호즈중에는 오랜것도 있으며 새것도 있고 또한 아주 어린것도 있다. 그것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아직 약한 경제적 유기체(有機體)인것이다. 그들은 그 자체의 조직상 전설사업에 있어서 一九二〇—一九二一年에 우리의 공장들 및 제조소들이 당하고있던바와 같은 그런 시기를 당하고있다. 그 다수가 아직 수익성이 있게될수 없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一九二一年 이후에 우리의 공장들 및 제조소들이 수익성이 있게될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二—三년동안에 수익성이 있게될것은 조금도 의심할것 없는바이다. 그것들 전부가 다 지금 당장 수익성이 있는것이 아니라 하고 하여서 그것을 원조, 지지하지않으려는것은 로동계급 및 농민에 대하여 커다란 죄를 범하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다만 인민의 적과 반혁명 분자들만이 플호즈와 쉘호즈가 필요치 않다는 문제를 내세울수 있는것이다.

농업의 五개년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은 급속도로써 집단화를 실시하였다. 당이 집단화에 대하여 급속도를 취한 정책을 실시한것이 옳았는가? 그렇다, 비록 이에 있어서 다소간 열중하는 폐단도 없지는 않았지만 당은 두말할것 없이 옳았었다. 플라크츠를 계급으로보아서 칭찬하는 정책을 수행하며 골라크적 소굴의 뿌리를 때버리면서 당은 중도에 정지할수 없었던것이다——그는 반드시 이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로, 한편으로는 프락토르와 농업기계를 가졌고, 다른 편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없는것(토지국유화!)을 리용하면서 당은 농업집단화를 촉진할 모든 가능성을 가졌

었다. 그리하여 당은 이 평역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성공을 얻었다. 왜그리냐하면 집 단화에 대한 五개년계획의 프로그램을 三배나 더 넘쳐 실행한 까닭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2차 五개년계획동안에 있어서도 집단화에 대하여 반드시 빠른 속도를 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선의 주요한 구역들에 있어 집단화를 대체로는 벌써 종결하였다는데있다. 그리고본즉 우리는 이 평역에 있어서 기대할수 있었던것보다 더 많이 실행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집단화를 대체로 필하기만한것이 아니라, 농민의 대다수에게 골호즈는 가장 적당한 경영형태라는것을 인식시킬수가 있었다. 동지들, 이것은 거대한 성과인것이다. 이렇게 된후에도 집단화의 급속한 속도에 대해서 꺾침을 세우고 떠들어댈 필요가 있는가? 그리할 필요가 없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문제되는것은 집단화의 속도를 속하게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골호즈가 존재하여야 할것인가 또는 존재아니하여야 할것인가 하는데 대한것도 더욱 아니다. 이 문제는 벌써 긍정적(肯定的)으로 해결되었다. 골호즈들은 튼튼히 자리잡혔으니 이전의 개인경영으로 가는 길은 영영 막혀졌다. 지금에 있어서의 임무는 골호즈들을 조직적으로 튼튼케하며 그로부터 해독분자들을 내쫓으며 골호즈를 위하여 진정하고 검열된 불웨이크적 인재들을 선택하여 내세우며 그리하여 골호즈들을 참으로 불웨이크적 골호즈로 만들어놓는데 있는것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요한것이다.

농업평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함에 관한 문제는 이러하다.

五、로동자들 및 농민들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시키는

형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 동안에 수행한 총화

나는 이 위에서 소련의 공업 및 농업형역에 있어서의 성과에 대하여, 공업 및 농업의 향상에 대하여 말하였다. 로동자들 및 농민들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하는 전지로 보아서 이 여러가지 성과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가? 근로자들의 물질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지로 보아서 공업 및 농업형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한 기본적인 결과들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그 결과로는 실업을 없앴으며, 로동자들에게 있는 명일(明日)에 대한 불안을 청산한 데 있는 것이다.

둘째로, 그 결과로는 폴호즈 전설에다 빈농민의 거의 전부를 망라하였으며, 그 기초위에 서 농민이 폴라크와 빈농민으로 분화(分化)되는 것을 없앴고 그와 관련하여서 농촌에서의 빈궁과 빈곤화를 없앴에 있는 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거대한 성과인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부르조아국가로서는 하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소련에서는 로동자들이 실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지 벌써 오래였다. 한 三년 전에는 우리는 약 一百五十만명의 실업자를 가지고 있었다. 벌써 우리는 실업을 없애버린지 두 해가 되었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벌써 그동안에 실업과 그것의 고통, 그것의 참혹을 이제 버리었다. 자본주의적 각국을 살펴 보라, 그곳에서는 실업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포

를 느끼고 있는가고. 그 작곡에는 지금 적어도 三천만—四천만명의 실업자가 있다. 그들은 어떠한 인간들인가? 보통 그들에게 대하여 『불장을 다 본 사람』이라고 말할한다.

그들은 매일 일을 얻으려고 애쓰며 일터를 구하며 거의 어떠한 노동조건을 막론하고 일하려고하나 그러나 그들을 일에 받지 않는다. 왜그러냐하면 그들은 『여분의』 사람들이 거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팔자 좋은 자본가 및 지주의 자식들이 제멋대로 오락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상품과 생산물이 낭비되고있는 그때에 그렇게 되는것이다.

실업자들은 식량이 없는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식량값을 갚을수없는 까닭이오, 그들은 잡자리가 없는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밥세를 물수 없는 까닭이다. 그들은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서 사는가? 그들은 양반들의 밥상에서 떨어져는 부스레기와 쓰레기통을 헤쳐서 거기에 서 얻어내는 썩은 밥찌끼를 먹고 살며 대도시의 더러운 빈민굴에서 살며 그들의 대다수는 껌껌과 나무껍질로써 그 실업자들이 되는대로 속히 지은 교외(郊外)의 더러운 오막사리에서 살고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다. 실업으로 말미아마 고통을 받는것은 오직 실업자들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노동자들도 역시 실업으로 말미아마 고통을 받고있다. 왜그러냐하면 많은 실업자가 존재하여있는것이 노동하는자들의 공장에서의 지위를 흔든치 못하게하며 그들로 하여금 명일(明日)에 대한 불안울 느끼게하는 까닭이다. 오늘날은 기업소에서 일하고있지마는 매일아침에 잠을 깨면 그들이 벌써 해고(解雇)되어있는지도 모르는것이다.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실행한 기본적인 성과중의 하나는 곧 우리가 실업을 근절하고 그리하여 조선의 노동자들을 실업에서 생기는 참혹으로부터 구하여낸데 있는것이다.

농민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도 역시, 농민들이 풀라크와 빈농민으로 분화되는 것, 풀라크가 빈농민을 착취하는 것, 해마다 몇십만 몇백만의 빈농민이 거지로 되게 하는 파산(破産) 등을 잊어버렸다. 三—四년전에는 우리나라에 적어도 농촌주민전체의 三〇%가 빈농민이었다. 그것은 약 二천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었다. 그리고 보다 더 이전 즉 十월혁명전에는 빈농은 적어도 농촌주민의 六〇%를 이루었다. 빈농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보통 농작에 필요한 종자가 없거나, 말이 없거나, 농구가 없거나, 또는 그 모든 것이 다 없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빈농이란 것은, 절반을 굶고 살았으며 또 상례로 풀라크의 예속하에 있었고 더구나 혁명전에는 풀라크에게도 지주에게도 예속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오래지 않은 얼마전에도 거의 二百여만이나 되는 빈농들이 해마다 돈버리를 위해서 남방으로——북잡까지와 우크라이나로 떠나 풀라크에게 머슴사리하러, 또 그전에는 풀라크와 지주에게 머슴사리하러 갔었던 것이다.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들의 대렬을 채우면서 해마다 공장문앞으로 왔었다. 그런데 빈농민만이 이와 같은 처참한 형편에 처하여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농민의 절반 이상도 빈농민들과 같이 이와 같은 가난과 고생을 당하였었다. 농민들은 이 모든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다.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실행한 것은 빈농민들과 중농민의 하층부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것은 계급으로서의 풀라크층을 라도하고 또한 박멸하고서 빈농민과 반수이상의 중농민을 풀라크의 예속으로부터 해방하였다. 그것은 그들을 팔호즈로 고으리드렸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튼튼한 처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그리함으로써 농민이 착취자인 풀라크와 피착취자인 빈농민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제거하였으며 농촌에 있어서의 빈궁을 근절하였

다. 그것은 빈농민과 중농민의 하층을 골호즈에서 생활이 보장된 인간의 처지에까지 향상시켰으며 그리하여 농민의 명락 및 빈궁화의 과정을 없애 버렸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는 수백만의 농민이 해마다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떠나서 먼 지방으로 돈버러하러가는 그러한 일이 없다. 지금에는 농민을 자기의 골호즈외의 어떠한 일터로 대려가려면 골호즈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더군다나 또한 골호즈원에게 철도의 무료승차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지금은 수십만, 수백만의 농민이 명락되어서 공장과 제조소의 문이 메게하는 그러한 일이 벌써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전에는 그일이 있었으나 그것이 벌써 없어진지 오래다. 지금에와서는 농민은 생활이 보장된 주인이요 프락토르, 농업기계, 종자폰드, 예비폰드 등등을 자기관리하에 가지고있는 골호즈원이다.

이것이 곧 **五개년계획**이 빈농들과 및 중농의 하층에게 준것이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하는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이 얻은 기본적 성과의 본질은 실로 이에 있는것이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기본적 성과의 결과로 우리는 제 一차 **五개년계획**기간에 아래와같은 것을 획득하였다. 즉

(1) 대규모적 공업에서 일하는 로동자들 및 사무원들의 수가 一九二八년에 비하여 **二배가** 증가되었으니 그것은 **五개년계획을 五七%나 초과완수한것**이다.

(2) 국민 소득이 증가 — 따라서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 — 는 一九三二년에는 **四배五十一억**루블에 달하였으니 그것은 一九二八년에 비하여 **八五%가** 증가된 것이다.

(ㄷ)、대규모적 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및 사무원들의 년평균 임금이 一九二八년에 비하여 六七%가 증가되었으니 그것은 五개년계획을 一八%나 초과완수한것이다。

(ㄹ)、사회보험폰드가 一九二八년에 비하여 二九二%가 증가되었으니(一九二八년에는 十억五천만루블이던것이 一九三二년에는 四十一億二천만 루블이다) 그것은 五개년계획을 一一%나 초과완수한것이다。

(ㄱ)、공동식당이 증가되어서 중요한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七〇% 이상을 포괄하였으니 그것은 五개년계획을 六배나 초과완수한것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완전하는 보장하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가까운 몇해동안에는 그것을 달성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적 상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마다 개선되어가도록 하였다는것은 의심없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만 쏘베트주권의 가장 훌륭한 적들이나 그렇지않으면 이 모스크바에 있는 부르조아출판물 대표의 일부까지 포함한 부르조아 신문의 어떤 대표자들이나 의심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각민족의 경제와 근로자들의 상태에 대하여서는 말하자면 아비씨니야의 왕이 고등수학(高等數學)을 리해하는것보다 더 잘 리해하겠는지는 분명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에 대한 공식적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본주의적 나라들에서 실업자들의 수는 파국적(破局的)으로 자라났다.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미합중국에서는 다만 한 가공업(加工業)에서만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一九二八년

에 八백五十만명이던것이 一九三二년에는 五백五十만명에 까지 감소되었고, 미국로동동맹의 자료에 의하면 미합중국에서는 一九三二년말에 와서 실업자의 수가 산업전체를 통하여 一천一백만명에까지 달하였다. 공식적 통계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 있어서는 실업자의 수가 一九二八년에는 一백二十九만명이던것이 一九三二년에는 二백八十만명에까지 차라났다.

독일에 있어서는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의 수가 一九二八년에는 一백三十七萬六千 명이던것이 一九三二년에는 五백五十萬에까지 차라났다. 역시 이와같은 情狀(情況)은 모든 자본주의적 나라들에서 볼수있는것인데 공식적 통계는 보통, 실업자에 관한 통계를 주리고 있으나 자본주의국가들의 실업자 수는 三천五백萬명으로부터 四천萬명 사이를 오르내리고있다.

로동자들의 로동임금을 인하하는것은 계통적으로 실시되고있다.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임금이 나뉜것이 一九二八년의 임금에 비하여 미합중국에서는 三五%, 영국에서는 一五%, 독일에서는 五〇%에까지 달하였다. 미국로동동맹의 계산에 의하면 임금을 인하한 결과로 미국로동자들이 一九三〇—三一年에 손실을 당한것이 三백五十萬달러 이상이다.

그렇지않아도 얼마되지않던 로동자들에 대한 보험폰드는 영국과 독일에서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미합중국과 볼란서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보험을 물론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험이라고는 전혀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것이니 그러한 까닭에 집이 없는 로동자들과 고아들의 수효는 특히 미합중국에서 평장히 증가하고있다.

자본주의적 작국에 있어서의 농민대중도 그러한 형편에 있는것이니 거기에서는 농업공황이 농민경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있으며 그리하여 수백만의 헐락된 농민과 페르메르(農莊主)를 거지로 만들어 놓는다.

이러한 것이 소련의 근로자들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하는 령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 동안에 실행한 총화이다.

六、도시와 농촌사이의 상품류통 령역에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 동안에 수행한 총화

이제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상품류통이 장성하는 령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 동안에 수행한 총화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자.

공업생산고와 농업생산고가 거대하게 자라난것, 공업이나 농업에 있어서 다 같이 여유 상품이 자라난것, 마지막으로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수요(需要)가 자라난것——이 모든 것은 도시와 농촌사이의 상품류통을 융성케하며 확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사실상 그러하였었다.

도시와 농촌사이의 생산적 력은 력의 기본적 형태이다. 그러나 다만 생산적 력 하나만으로는 부족한것이다. 도시와 농촌사이의 력이 튼튼하게 되며 끌어질 수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 생산적 력을 상품적 력으로써 보충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만 소베트상업을 전개하는 방법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는것이다. 소베트상업을 전개하는것을 어떠한 한가지 길만 거쳐서, 예를들면 협동조합만을 거쳐서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일것이다. 소베트상업을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길 즉 협동조합망(網)도, 국가상업망도, 골호즈상업도 다 이용하여야 할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쏘베트상업을 전개하는것은, 특히 골호즈상업을 전개하는것은 신경제정책의 첫단계로 돌아가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혀 옳지않다.

골호즈상업까지 통트러넣은 쏘베트상업과 신경제정책의 첫단계의 상업과의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것이다.

신경제정책의 첫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소생을 용허하였으며 개인적 상품류통과 개인상업가, 자본가, 투기업자들의 『활동』을 용허하였었다.

그것은 다만 국가의 조절역할로써만 제한될 따름이었던 다소간 자유로운 상업이었었다. 그때에는 국내의 상품류통에 있어서 개인자본주의적 부분이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였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처럼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사업하며 농업생산물과도 시제조품의 거대한 예비저축을 국가의 처분하에 맡기는 그러한 발달된 공업도 없었으며 골호즈나 골호즈도 없었던것은 나는 더 말치 않는다.

지금에도 우리는 그와같은 상태를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이다.

첫째로, 쏘베트상업은 그것을 신경제정책 첫단계의 상업——비록 국가가 조절하는것이 있을지라도——과 같은 자리에 세울수 없는것이다. 만일 신경제정책 첫단계의 상업은 자본주의의 소생을, 상품의 류통에 있어서의 개인자본주의적 부분의 활동을 용허하였다면 쏘베트상업은 그두가지가 다 거부되고 없어진데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쏘베트상업이란 무엇인가? 쏘베트상업이란 자본가——소자본가나 대자본가나——없는 상업이오 투기업자——소투기업자나 대투기업자나——없는 상업이다.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상업이니 그것은 지금까

지 력사가 알지못한 것이요 그리고 다만 우리 불세비크들만이 소비트적 발전의 환경하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 소비트사업을 전개시킬 농업상품 및 공업상품의 거대한 예비저축을 국가에 보장하여주는 상당히 발전한 국영공업과 팔호즈 및 쏘호즈의 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경제정책 첫단계의 조건하에서는 없었던 것이요 또한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최근에 와서 상품의 유통계로부터 각종의 개인상인, 사업가, 중개업자들, 영업 내쫓았다. 물론 이것은 개인 상인들과 투기업자들이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팔호즈사업을 리용하여서 격세유전(隔世遺傳)의 법칙에 의하여 상품유통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호즈원 그 자신들도 종종 투기업에 빠지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그들에게 영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전치 못한 현상에 대처하여서 투기업을 없애며 투기업자들을 처벌하는 대책에 관하여 얼마전에 발표된 소비트주권의 법령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은 물론 그 법령이 특히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물론 신경제정책의 첫단계의 조건하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법령이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을 알 것이다.

모두다 이렇게 된 후에도 신경제정책 첫단계의 사업으로 도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비트경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전혀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는 바이다.

사업이 비록 소비트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견실한 화폐경제와 견실한 본위화폐가 없이는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고, 무엇보다도 먼저 화폐경제와 또는 아무가치도 마지 없

는듯이 녀이는 우리의 쏘베트분위화폐를 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자본주의적 나라들의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이와같이 말한다. 나는 이 집안은 경제학자들이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아는것이, 마치 켄터베리의 대승정(大僧正)이 반종교 선전에 대하여 이해하는것 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쏘베트의 본위화폐가 아무가치도 가지지 못한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할수 있을까? 이 본위 화폐로써 우리가 마그니토스트로이, 트네프로스트로이, 푸즈네르크스트로이, 쓰팔턴그라트 프락도르공장, 하리코브 프락도르공장, 고리끼시(市) 자동차공장, 모스크바 자동차공장과 수십만의 팔호즈 및 수천의 쏘호즈를 건설한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그 신사님들은 이 모든 기업소가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있는 실체적 재로로써 건설된것이 아니라 쵸(蕎)이나 또는 흙으로써 건설되었다고 생각하지나 않는가? 만일 나라의 상품류통에 있어서 다만 종속적 의의밖에 가지지못하는 비조직적 시장을 전제로하지 말고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있는 조직적 시장을 전제로 한다면 쏘베트의 본위화폐의 현실성은 무엇으로써 보장되는가? 물론 다만 금(金)의 저장(貯藏)에 의해서만 되는것은 아니다. 쏘베트의 본위화폐의 현실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고정가격(固定價格)에 의하여 상품류통에 내놓는 대량의 상품이 국가의 손에 있는것으로써 보장되는것이다. 다만 쏘련에만 있는 이와같은 보장은 본위화폐의 현실성을 어떠한 금(金)의 저장보다도 일층 더 현실적으로 보장하여 주는것임을 경제학자중에서 누가 능히 부인할수 있을까? 자본주의적 나라들의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본위화폐의 현실성의 「유일」한 보장으로 아는 금저장론(金貯藏論)에 있어서 영영 착란(錯亂)된것을 언제나 리해할때가 있을런지?

소매트산업의 전개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것은 이와 같다.

우리는 소매트산업을 전개하는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실행한 결과로 무엇을 달성하였는가?

五개년계획의 총화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달성하였다. 즉,

(1)、정공업의 생산고가 증가되어 一九二八년에 비하여 一八七%에까지 제고되었다.

(2)、협동조합——국가경영의 소매(小賣) 상품류통이 자라나서 지금까지는 一九三二년의 가격으로서 三백九十六억루블이 된다. 다시 말하면 소매상업에 있어서 그 상품이 一九二八년에 비하여 一七五%에까지 증가되었다.

(3)、국영—협동조합의 상업망(網)이 장성하여 一九二九년보다 十五만八천의 대소상점이 증가되었다.

(4)、개개의 국가기관 및 협동조합기관의 농산물수매와 팔호즈산업이 더욱더 광범히 전개되어간다.

이와같은것이 사실들이다.

자본주의 제국가내의 상품류통의 상태는 전혀 다른 정경을 가지고있는바, 거기에서는 공황으로 말미암아 상업이 파탄적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기업소들이 폐장이 폐쇄(閉鎖)되었으며 중、소 사업가들이 행락되었으며 대 무역상회들이 파산을 당하였고 그리고 근로대중의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상업기관들의 재하(在荷)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것이 상품의 류통을 발전시키는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이다.

七、적대계급들의 잔재와 투쟁하는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四개년동안에 수행한 총화

공업、농업、상업의 각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실현한 결과로 우리는 인민경제의 모든 방면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내쫓고 그 모든 방면에서 사회주의의 원칙을 튼튼히 세웠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어더로 이르게 함 것이었으며 또 사실에 있어서 어더로 이르게 하였는가?

이것은, 죽어가는 계급들의 최후잔재 즉 개인산업가들과 그들의 종복들, 개인상업가들과 그의 하인들, 이전의 귀족들과, 승려들, 골라크들과, 골라크 옹호자들, 이전의 백계장교들과 하사관들, 이전의 경찰배와 헌병들, 배외애국주의적 경향을 가진 각종의 부르주아적 인테리들과 기타 모든 반쏘베트분자들이 생활궤도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데로 이르게 하였다.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인 그들은 생활궤도로부터 쫓겨나서 전 쏘련에 흩어져가지고 우리의 공장 및 제조소, 우리의 기관 및 상업조직, 철도운수기관 및 수상운수 기관에 기여어들었고 그리고 주로 여러 팔호즈 및 쏘호즈에 기여어들었다. 그들은 「로동자」와 「농민」의 가면을 쓰고 거기에 기여어들어가서 숨어있는데, 그들중에서 어떤자들은 심지어 당에까지 기여어들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거기로 기여어들어왔는가? 물론 쏘베트주권에 대한 증오감과 새로운 형태의 경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흉악한 적개심(敵愾心)을 가지고 거기로 기여어들어왔다.

그 진사들에게는 벌써 쏘베트주권을 반대하여 공공연하게 물격할만한 힘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계급들은 벌써 여러번 그러한 물격을 단행하였지만은 그들은 매번 적과 되었으며 박멸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로동자들에게, 팔호즈원들에게, 쏘베트주권에, 당에 훼손과 해독을 끼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밀하게 파괴하면서 할수있는 온갖 해독을 끼친다. 창고를 불사르며 기계를 마른다. 태업(怠業)을 조직한다. 팔호즈들과 쏘호즈들에서 해독사업을 조직하여 그들중의 어떤자들은——그들중에는 어떤 박사들도 있다——자기들의 해독적 악행에 있어서 팔호즈와 쏘호즈의 가족에게 흑사병(黑死病)、탄저열병(炭疽熱病)의 병균을 주사하며 말(馬)과 기타의 가축에게 뇌막염(腦膜炎)을 전파시키는 등등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주되는것은 이에 있는것이 아니다. 이 지나간시대의 인간들의 「활동」에 있어서 주되는것은, 그들이 국가의 재산, 협동조합의 재산, 팔호즈의 소유물을 대량적으로 질취략탈하는 일을 조직하고있는 거기에 있다. 공장과 제조소에서의 질취 및 락탈, 철도화물의 질취 및 락탈, 창고와 상입기판에서의 질취 및 락탈——특히 쏘호즈 및 팔호즈에서의 질취 및 락탈——이러한것이 이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의 「활동」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들은, 공동 소유가 쏘베트경제의 기초이라는것과 쏘베트주권을 해하기 위하여서는 실로 이 기초를 동요시켜야 한다는것을 계급적 본능으로써 느끼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실상 대량적으로 질취, 락탈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소유를 동요시키려고 애쓴다.

락탈조직을 위하여 그들은, 어제는 개인농민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팔호즈성원인 그 팔호즈원들의 개인소유의 습성과 잔재를 리용하고있다. 맑스주의자인 여러분들은, 사람의 의식은 그

자체의 발전에 있어서 그들의 실제적 상태보다 뒤떨어지는것을 받드시 알것이다. 골호즈
 원들은 그들의 처지로 보아서 별찌 개인농이 아니라 집단경영자이지만은 그들의 의식
 은 아직 이전의것 즉 개인소유자적 의식인것이다. 그러므로 착취계급의 대렬에 속하였
 던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은, 공유물을 도적질하며 그리함으로써 쏘베트제도의 기초인 사회
 적 소유물 동요시키기 위하여 골호즈원들의 개인소유자적 습관을 리용하고 있는것이다.
 많은 우리동지들은, 대량적으로 절취 및 약탈하는 그 사실의 본의와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와같은 현상을 무관심하게 보고있다. 그들은 『거기에는 아무런 별일도 없다』
 고 생각하면서 소경처럼 그런 사실을 간과(看過)하고있다. 그러나 그 동지들은 심히 오
 해하고있다. 자본주의의 기초가 사회적소유이라면 우리제도의 기초는 사회적 소유이다. 만일 자
 본가들이 당시에 자본주의제도를 충분히 하면서 사유재산을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것
 으로 선포하였다면,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더우기 사회적 소유를 신성불가침이라고 선포함으
 로써 모든 생산 및 상업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의 형태를 충분히 하여
 야 할것이다. 사회적 소유의 절취 및 약탈을 용허하며——국가의 재산에 대하여서든지 또
 는 협동조합이나 골호즈의 재산에 대하여서든지——막론하고——그리고 이와같은 반혁명적
 추악한 행위를 못본체하고 지나가는것은, 사회적 소유를 자체의 토대로하여 그에 의거하고
 있는 쏘베트제도를 파괴하려는것을 도와주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 쏘베트정부는 얼
 마전에 사회적 소유주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때에 이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 법령은
 목하에 있어서 혁명적 법령의 기초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엄중하게 실시하는것은 매 공
 산주의자, 매 노동자, 매 골호즈원의 가장 주되는 의무인것이다.

사람들은, 현하의 혁명적 법률이 신경제정책 첫단계의 혁명적 법률과 조금도 다름이 없느니 현하의 혁명적 법률은 신경제정책 첫단계의 혁명적 법률로 돌아가는 것이라느니 하고 말할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신경제정책 첫단계의 혁명적 법률은 주로 전시공산주의의 극단성에 반대하여, 「비법적」 물수 및 가세(苛稅)에 반대하여 그예봉(銳鋒)을 들렸던 것이다. 그것은 개인경영자, 개인농, 자본가들에게 그들이 쏘베트법률을 엄격하게 직하는 조건 하에서 그들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보장하여 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혁명적 법률에 대한 문제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현하의 혁명적 법률은 벌써 세상에서 없어진지 오랜 그 전시공산주의의 극단성에 반대하여 그예봉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경영에서의 도적, 해독 분자, 불량자 및 사회적 소유의 절취자를 반대하여 그 예봉을 들리고 있다. 그런즉 현하의 혁명적 법률의 기본적 관심점(關心點)은 사회적 소유를 수호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로 그러한 까닭에 사회적 소유의 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 쏘베트주권의 법률들이 우리의 처분하에 맡겨주는 모든 대책과 모든 방법을 다하여 투쟁하는 것이 당의 기본업무 중의 하나인 것이다.

강력하고 위력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계급들의 마지막 잔재를 일소하며 그들의 절취제책을 타파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계급들을 없애며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국가의 사멸에 관한 문제를 대면과 무관심(無關心)의 변명거리로 삼으며 또한 계급투쟁이 소멸될 것이요 국가의 권력이 약하게 될 것이라는 반혁명적 이론의 변명거리로 리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은 우리당과 아무런 공통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변절자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리부동한 자들이니, 그들을 당으로부터 쫓아내어야 할 것이다. 계급을 없애는 것은, 계급투쟁이 소멸되는 것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국가의 사멸은, 국가의 권력이 약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계급들의 잔재를 아조 박멸하기 위하여 또는 아직까지 없어질 날이 멀었고 또 속히 없어지게 되지 않을 자본주의적 포위에 반대하여 국방을 조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권력을 최대한도로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될 것이다.

五개년계획을 실현한 결과로 우리는 결국 적대계급들의 마지막 잔재를 그들의 생산적 전지로부터 총국적으로 구축하고, 골라크층을 격파하며 그층을 박멸할 기반을 준비하여 놓았다. 이와 같은 것이 부르주아지의 마지막 대렬들과 투쟁하는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수행한 총화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무는 그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을 우리의 자신의 기업소들 및 기관들로부터 내쫓아서 그들이 영영 해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이 해독적, 절도적 총계로써 조선의 현한 상태에 있어서의 그 무엇을 변동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쏘베트주권의 정책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또 무력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동지들이 혁명적 경각성으로써 무장하지 않거나 사회적 소유를 절취하며 략탈하는 사실에 대한 지정배적—무관심한 태도를 실천에서 버리지 않는다면 그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은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소베트 국가의 위력이 자라나는 것은 죽어가는 계급들의 마지막 잔재들로 하여금 그 반항을 더욱 강화시키리라는 것을 명념하여야 한다. 실로 그들은 죽어가며 또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임으로 그들은 주민중 뒤떨어진 층에 대하여 호소하며 소베트주권에 반대하여 그 층을 동원하면서 공격의 한 형식으로부터 보다 더 격렬한 다른 형식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지나간 시대의 인간들은 소베트주권에 대하여 악행이란 악행은 다 할 것이며 비방이란 비방은 다 할 것이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뒤떨어진 분자들을 동원시키려고 시도함을 마지 않을 것이다. 이 지반위에서 에세르, 멘셰비크, 중앙 및 변방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이전의 반혁명적 여러 정당의 깨트리진 여러 그루빠가 소생하여 무물거릴 수 있을 것이오, 트로츠키파와 우경파에 속하였던 반혁명적 반대파분자들의 저깨기들이 소생하여 준동(蠢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물론 무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특별한 희생이 없이 그분자들을 속히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실로 그러므로 혁명적 경각성은 지금 볼셰비크들에게 특히 필요한 특질로 되는 것이다.

八、일반적 결론

이러한 것이 공업 및 농업의 영역, 근로자들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며 상품의 유통을 발전시키는 영역, 소베트주권을 튼튼히 하며 죽어가는 계급들의 잔재와 여습을 박대하는 계급투쟁을 전개하는 영역에 있어서 五개년계획을 실현한 기본적 총화이다.

최근 四년 동안의 소베트주권의 성과 및 전과는 이러한 것이다.

이 성과의 기초위에서 우리에게는 모든것이 다 무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일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서 아직 모든것이 다 무사한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업에는 결점과 오류가 많다. 경영할줄 모르며 일할줄 모르는것이 아직도 우리의 실천에 있는 사실이다. 유감이지만은 나는 지금 그 여러가지 결점과 오류에 머무를수가 없다. 왜그러냐하면 나에게 맡긴 총경보고의 범위가 그것을 말할 여유를 주지않는 까닭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중에서 아무도 부인하지않는 그 여러가지 결점과 오류가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전 세계의 노동계급의 환희(歡喜)를 환기(喚起)하는 그러한 중대한 성공을 달성하였으며 우리는 참으로 전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지고있는 그러한 승리를 달성한데 있는것이다.

여러가지 오류와 결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당이 5개년계획을 4개년동안에 실행한 사업에서 어쨌든지 결정적 성공을 달성한데 있어서는 무엇이 주되는 역할을 행할수 있었으며 또 사실상 그 역할을 행하였는가?

무엇에 기인하였는지간에 우리에게 이 역사적 승리를 보장한 그기본적力量은 어디 있는가?

그 기본적力量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사-기술자들과 함께 사회주의적 경쟁 및 돌격대운동을 전개한데 있어서 거대한 정력을 발휘한 수천만의 노동자 및 골호즈원의 적극성 및 희생성, 열성 및 창발성이었다. 이와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수 없었을것이오 한결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을것은 의심할것도 없는바이다.

물체로, 그 기본적인 량은 대중을 앞으로 불러내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정에 있는 온갖 난관을 극복한 당과 정부의 확고한 지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기본적인 량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거대한 가능성을 그 자체에 품고있는 조베트 경제제도의 특수한 장점과 우월성이었다.

이러한것이 조련의 역사적 승리를 결정한 세가지 기본적인 량이다.

일반적 결론

(一)、五개년계획의 총화는, 五개년계획이란 공상이오 잡끄대이며 실현될수 없는 환상이라고하던 부르조아적 및 사회민주주의적 활동가들의 단언을 반박하여 깨트려버렸다. 五개년계획의 총화는 五개년계획이 벌써 실현되었다는것을 표시하였다.

(二)、五개년계획의 총화는, 로동계급은 새것을 건설할줄은 모르고 다만 낡은것을 파괴할줄만 안다고하는 일반이 아는 부르조아적 「신조(信條)」를 깨트려버렸다. 五개년계획의 총화는, 로동계급은 낡은것을 파괴하는것처럼 새것도 역시 잘 건설할줄 안다는것을 표시하였다.

(三)、五개년계획의 총화는, 단독으로 한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폐재를 깨트려버렸다. 五개년계획의 총화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것을 표시하였다. 왜그러냐하면 그러한 사회의 경제적 기초는 조련에서 벌써 건설된 까닭이다.

(四)、五개년계획의 총화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가 가장 우량한 제도이오 그외의 온갖 경제제도는 경제적 발전의 여려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전다어내지 못하는 건고치못한

제·도·라·고·하·던· 부·르·쥬·아·경·제·학·자·들·의· 단·언·을· 반·박·하·여· 깨·트·려·버·렸·다·。 五·개·년·계·획·의· 총·화·는·, 자
본·주·의·적· 경·제·제·도·가· 무·능·력·하·고· 또· 전·고·치· 못·하·다·는·것·을· 표·시·하·였·으·며·, 자·본·주·의·적· 경·제
제·도·는· 별·책· 자·기·일·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는·터·임·으·로· 그·가· 차·지·하·였·던· 지·위·를· 다·른· 최·고
경·제·제·도·인· 소·베·트·적·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에· 반·드·시· 양·도·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는·것·을· 표
시·하·였·고·, 자·본·주·의·로·서·는· 해·결·할·수· 없·는· 경·제·적· 공·황·(恐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본
주·의·로·서·는· 해·결·할·수· 없·는· 난·관·을· 극·복·하·여· 별·만·한· 유·일·한· 경·제·제·도·는· 곧· 소·베·트·적· 경·제
제·도·라·는·것·을· 표·시·하·였·다·。

(五)、마·지·막·으·로·, 五·개·년·계·획·의· 총·화·는·, 공·산·당·이· 만·일· 사·업·을· 어·디·로· 인·도·할·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는· 패·배·하·는·일·이· 없·다·는·것·과· 또·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을· 표·시·하·였·다·。

(폭·풍·우·갈·은·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하·다·가· 환·호·로· 변·하·였·고· 만·장·이· 이·려·나·서· 쓰·달·린· 동·
지·를· 추·하·하·였·다·)·。

농촌사업에 대하여

一九三三년十一月十一일 전원맹 공산당(불셰비크)중앙
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의 합동전원회의에서의 연설

동지들! 나는 여러 토론자들이 농촌에서의 당사업의 상태, 그 사업의 결점들, 그 사업의 장점들을 옮겨 말하였으며 특히 그 사업의 결점들을 옮겨 말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생각에는 토론자들은 우리농촌사업의 결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 결점들의 근원을 밝히지 않은것같다. 그런데 이 방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로 되고있는 점이다. 그럼으로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말하려한다. 그런데 불셰비크들의 고유한 성격대로 아주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지난해 즉一九三二년도의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주되는 결점은 어디에 있는가? 주되는 결점은,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목물수매가 전년보다 즉一九三一년보다 더 심한 난관속에서 진행된데 있는것이다.

이것을 수확의 좋지 못한 상태로써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수확이 작년보다 못한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럽고한때문이다. 또

련의 동북지대의 주요한 五개지방에 있었던 한재(旱災)가 국내의 物產總수확량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던 一九三二년부터 一九三三년에는 物產의 총수확량이 더 많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一九三二년도에 구반과 제베크에서와 또는 우크라이나의 몇몇 지방에서 불쌍한 기후관계로 말미암아 수확의 다소간 손실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손실이 一九三一年에 소련의 동북지방에 있었던 한재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비하여서는 그 반분도 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본즉 一九三二년에는 一九三一年보다 더 많은 物產수확을 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형편에도 불구하고 一九三二년에 우리나라에서는 物產수매가 작년보다 더 심한 난관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사업의 이 결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불일치를 무엇으로써 설명할 것인가?

(一)、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에 있는 우리농민들, 우리농촌일꾼들이 物產에 대한 팔호즈상업을 실행함으로써 인하여 농촌에 생긴 새환경을 참작하지 못한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그들이 새환경을 참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문에 그들은 새환경에 적합하게 상업을 새방식으로 개조하지 못하였다. 物產에 대한 팔호즈상업이 없었을 때에는, 物產에 대한 두가지 가격 즉 國定가격과 시장가격이 없었을 때에는 농촌에 일정한 환경이 있었고 物產에 대한 팔호즈상업이 실행됨에 따라서 환경은 급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팔호즈상업의 실행은 物產에 대하여 國定된 國定가격보다 더욱 높은 시장가격의 공인을 의미하는 것인 까닭이다. 이 사정이 농민들로 하여금 物產을 국가에 바치는 일에 얼마만큼 지체하도록 하였을 것은 증명할 것도 없는 것이다. 농민은 다

음과같이 타산하는 것이다. 즉 「곡물에 대한 플호즈사업이 실행되었으리」 시장가격이 공인 되었은즉 나는 동일한 수량의 곡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나가면 바치는것보다 더 많이 받을수 있는것이다. 그리고본즉 만일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나는 반드시 곡물을 좀 남겨두고 보아야지, 곡물을 국가에는 적게 바치고 플호즈사업에 더 많이 내가도록 할터이며 그와같이하여 동일한 수량의 곡물을 팔아서 더많은 수입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라 한다.

가장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論理)이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불행은 우리의 농촌일꾼들이, 어쨌든 그들중에서 많은 일꾼들이 이와같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있는것이다. 쏘베트주권이 말건 과제를 과한시키지않기 위하여서는 공산당원들은 이 새 환경하에서 반드시 추수 초기부터 즉 벌써 一九三二년七月에 온갖 대책을 다하여 곡물수매사업을 강화하며 또 촉진시켜야 할 것이었다. 환경은 그렇게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들은 곡물수매를 촉진시키는데 대신에 팔호즈에서 각종 폰드를 만드는것을 촉진시키기 시작함으로써 곡물받치는자들이 국가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는 경향을 강화시켰던것이다. 그러한 새환경을 이해하지못하였던 관계로 그들은 곡물납부에 있어서 농민의 주저가 곡물수매에 지장을 줄것이라는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농민들이 곡물을 좀 남겨두었다가 후에 그것을 팔호즈사업계통의 시장에 반출할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곡물전부를 다 싣다가 무렵에 반출가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달리말하면 농촌에 있는 우리 공산당원들은, 적어도 그들의 다수는 다만 팔호즈사업의

공정적. 면만을 깨닫고 또는 그것을 이해하였으며 해독하였으나 그의 부정적. 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해독하지 못하였다. 즉 그들, 공산당원들이 만일 추수 초기로부터 곡물수매 운동을 전적으로 추진시키지 시작하지 않는다면 팔호즈상업의 부정적. 면은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오류는 다만 팔호즈일꾼들만이 범한 것이 아니다. 그 오류는 국가에 반출 곡물을 범죄적으로 몰수하였었다가 그 곡물을 일층 고등한 가격으로 외방에 팔기 시작한 썬호즈지배인들도 범하였다.

인민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는, 팔호즈상업의 전개에 대한 그 일만이 다아는 결정에서 곡물에 대한 팔호즈상업과 관련하여서 생겨진 이 새 환경을 참작하였던가? 물론, 참작하였다. 이 결정에는, 곡물에 대한 팔호즈상업은 오직 곡물수매계획이 전체로 또 완전히 실행되고 총곡이 저장된 뒤에라야만 개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적되어 있다. 그 결정에는 오직 一九三三年 一월十五일 즈음에 가서만 즉 곡물수매와 총곡저장이 끝난 뒤에라야, 오직 이 조건들을 리행한 후에라야 곡물에 대한 팔호즈상업을 개지할 수 있다고 바로 서술되어 있다. 인민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는 이 결정으로써 우리의 농촌일꾼들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 셈이다. 즉 온갖 종류의 폰드 및 저장에만 관심을 돌리지 말 것이며 주요한 입무에서 물러서지 말 것이며 추수의 첫날부터 곡물수매를 전개할 것이며 또 그것을 추진시킬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 계율(戒律)은 곡물수매 계획안을 실행하는 것이오, 둘째 계율은 총곡을 저장하는 것이니 오직 이 조건들을 실행한 뒤에라야 곡물에 대한 팔호즈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또 전개할 수 있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인민위원회의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제의 이 방면을 충분히 강경하게 강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플호즈상업에 잠재(潛任)하여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의 농촌일꾼들에게 충분히 소리높게 경고하여주지 못한 거기에 있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위험성들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며 또 충분히 명확하게 경고하였던것은 아무 의심할것이 없는것이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구역일꾼들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주(州) 일꾼들까지 합쳐서 우리의 지방일꾼들의 해년적 훈련 및 동찰력(洞察力)을 얼마간 과대평가하였던것을 시인하여야 할것이다.

곡물에 대한 플호즈상업을 선포할 필요가 없었던것이 아닐까? 특히 플호즈상업에는 장점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단점도 있는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잘못이었던것이 아닐까?

아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어떤 혁명적 대책이든지 만일 그가 옳지않게 실시된다면, 약간의 단점이 없을수없는것이다. 곡물에 대한 플호즈상업에 있어서도 역시 그와 같이 말하여야 하는것이다. 플호즈상업은 농촌에나 도시에 대해서도 로동계급에게나 농민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며 또 유리(有利)한것이다. 이렇듯 그상업이 유리하기때문에 그것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다.

인민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는 곡물에 대한 플호즈상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부터 출발하였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의 상품류통의 토대를 확장시켜 로동자들에 대한 농산물의 공급과 농민들에 대한 도시제품의 공급을 개선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하였

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한갓 국가적 및 협동조합적 상업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상품류통의 이 계통들을 새로운 계통의 상품류통 즉 팔호즈상업으로써 보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팔호즈상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계통들을 보충하였다.

다음으로 인민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는 곡물에 대한 팔호즈상업에 의하여 팔호즈원에게 보충수입원천을 지어주며 그의 경제적 행편을 공고히 하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민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는 팔호즈상업을 실시함으로써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이나 수확방면에서 팔호즈사업을 개선하는 데 새 충동을 주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인민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의의 모든 고려가 최근에 와서 팔호즈들의 실생활에서 나온 사실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완전히 확증된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다. 팔호즈들을 공고케 하는 과정이 힘있게 되는 것, 팔호즈에서 물러나 가는 것이 중지되는 것, 개인농민들이 팔호즈로 들어오려는 유인력(誘引力)이 자라나는 것, 팔호즈원들이 신입회원들을 심하게 선택하여 받으려는 것——이 모든 것과 또 많은 그와 유사한 것은, 팔호즈상업이 팔호즈들의 행편을 약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강화하였으며 공고화 하였다는 것을 의심없이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본즉,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은 팔호즈상업의 탓인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실지가 어느때나 다듬게 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환경을 참작할 줄 몰랐으며 또 곡물에 대한 팔호즈상업을 선포함으로써 생겨진 새 환경에 적합하게 자기 대별을 재편성할 줄 몰랐던 탓인 것이다.

(二)、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의 둘째원인은, 지방의 우리동지들이——또는 그 동지들뿐만이 아니지만——주요한 곡물생산지방들에서 팔호즈들의 지배적 지위가 확립됨과

관련하여 생겨난 농촌에서의 우리 사업조건들의 변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골호즈적 경영형태가 우리의 목물생산지방들에 있어서 지배적 형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다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농업에 발전시키는 사업에 있어서의 우리의 배려와 책임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혹은 저런 구역에서, 이런 혹은 저런 주(州)에서 七〇%나 혹은 八〇%의 집단화가 달성되었으니까 이것은 벌써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집단화가 스스로 자기일을 실행할 것이며 스스로 농업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을 사물의 자연적 발전에 맡겨둘 수 있으며 일을 제멋대로의 진행에 맡겨둘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지들, 이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사실상, 우세를 가진 경영형태인 집단적 경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농업에 대한 우리의 배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이며 농업을 향상시키는 일에 공산당원들의 지도적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연적 발전은 지금에 와서 농업에 발전시키는 일에 어느 때 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 자연적 발전은 지금에 와서 모든 일을 망칠 수 있는 것이다.

농촌에서 개인경영농민이 대다수이던 그때에는, 당은 농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그가 간섭하는 것을 개개의 보조, 권고, 경고의 행위로서 국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는 개인경영농민이 반드시 자신으로 자기의 경영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 개인적 지을 사람이 없었으며 자기 자신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의뢰할 사람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때에는 개인경영농민이 만일 그가 양식이 없이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고 또 기아의 회생

(犧牲)이 되기를 원치않았다면 자기 자신이 파종에 대하여, 수확에 대하여 또는 일반적 으로 농업 노동의 모든 파정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할 것이었다. 집단적 경영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사정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플호즈는 개인적 경영이 아니다. 플호즈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 즉 「플호즈는 내 것이기도 하며 또 내 것이 아니기도 하다. 플호즈는 내 것이다. 그와 함께 그는 이완, 필리프, 미하일 및 다른 플호즈원들에게 소속되어 있다. 플호즈는 공동의 것이다」라고 한다. 작일(昨日)의 개인경영 농민이고 금일의 집단경영 농민인 플호즈원은 지금에 와서 플호즈가 그를 향식이 없이 남겨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다른 플호즈원들에게 책임을 넘겨줄 수 있으며 또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플호즈원에게는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때보다 배려가 적어졌으니, 그것은 살림 사리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 지금에 와서는 모든 플호즈원들에게 분담되어있는 까닭이다.

여기로부터 무슨 결론이 나오는가? 여기로부터 지금에 와서는 경영운영에 대한 책임의 중심(中心)이 각개의 농민들로부터 플호즈의 지도부에, 플호즈의 지도적 핵심으로 옮기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농민들은 경영에 대하여 배려하며 사업을 합리적 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플호즈의 지도부에 혹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보다 플호즈의 지도부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당이 지금에 와서는 농업발전 파정에 다만 개별적 행 위들로써 간섭하는 데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은 지금에 와서는 반드시 플호즈에 대한 지도를 자기수중에 틀어쥐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며 팔호즈원들로 하여금 현대의 과학 및 기술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기의 경영을 전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다. 팔호즈는 대규모적 경영이다. 그런데 대규모적 경영은 계획이 없이는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백, 때로는 수천의 농호를 포괄(包括)하는 농업의 대규모적 경영은 오직 계획적 지도에 의하여서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그 경영은 반드시 파멸될 것이며 몰락될 것이다. 이것이 개인적 소규모 경영을 영위하는 조건들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팔호즈제도의 또 한가지 새 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영의 운영을 소위 사물의 자연적 과정, 자연발전에 맡겨둘 수 있겠는가? 그리하지 못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와 같은 경영을 운영하려면 경영을 계획할 만한, 또는 그 경영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만한 재능있는 초보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최소수나마 팔호즈에 보장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팔호즈전설사업에 대한 쏘베트주권의 계통적 간섭이 없이는, 쏘베트주권의 계통적 보조가 없이는 이와 같은 경영을 정돈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확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여기로부터는, 팔호즈제도가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면에 있어서 당 및 정부의 배려와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로부터는, 당이 만일 팔호즈운동을 지도하기를 원한다면 팔호즈생활과 팔호즈지도의 모든 상세한 일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로부터는, 당은 팔호즈들과의 연락을 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튼튼히 해야 하며, 당은 팔호즈내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다 알므로써 팔호즈를 제때에 도와주어 팔호즈를 위협하는 위험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있어서 무엇을 보는가? 실제로 있어서 우리는 많은 구역기관들 및 주기판들이 팔호즈들의 실생활 및 그들의 요구들과 떠나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들은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자기만족하여 폐끝을 놀리면서 팔호즈발전이 판로주의적 사무실을 피하여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팔호즈들과 어떻게도 떠나져 있었는지 변경되는 것들의 일부 위원들은 그 변경에 있는 팔호즈내의 사정들을 그 구역기관들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에 있는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에게서 알게 되는 형편에 있다. 동지들, 이것은 한심한 일 이기는 하나 사실이다. 개인적 경영으로부터 팔호즈에로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농촌에 있는 공산당원들의 지도의 강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 행은 공산당원들로 하여금 집단화의 높은 파센트를 들고 자택하면서 안심하게 하였으며 또는 일을 자연발전에 맡겨두게 하였으며 일을 사물의 자연적 과정에 맡겨두게 하였다. 팔호즈경영을 계획적으로 지도하는 문제는 반드시 팔호즈내에서의 공산당원들의 지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공산당원들이 유아무야하게 되었고 그리고 팔호즈들에서는 과거의 백계장교들과 과거의 빼들유라파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로동자 농민들의 적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들의 둘째원인은 이렇게 되어 있다.

(三)、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들의 셋째원인은, 많은 우리동지들이 새 형태의 경영으로서의 팔호즈들을 과대평가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팔호즈들을 성상(聖像)으로 변화시킨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경영형태로서의 팔호즈들이 건설되었으니 그것으로써 벌써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러므로써 팔호즈사업을 옳게 운

영하는것, 플호즈경영을 옮겨 계획하는것, 플호즈들을 모범적 사회주의적 경영으로 변환시키는것이 벌써 보장된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플호즈들이 그 조직적 구조의 의미에 있어서 아직 약한것임으로 그 플호즈들에 검열된 불웨이크적 인쇄들을 파견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플호즈사업들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당의 신중한 보조를 요구하고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오 또 심지어 주되는것까지도 아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요한 결점은, 많은 우리동지들이 농업의 새조직형태인 플호즈 자체의 역량 및 가능성을 과대평가한데 있는것이다. 그들은, 플호즈가 사회주의적 경영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서는 아직 온갖 종류의 위험성을 극복하기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며 또는 플호즈의 지도부에 온갖 종류의 반혁명적 분자들이 기어들지 못할만큼 보장될때는 아직도 덜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반소베트적 분자들로하여금 플호즈를 자기들의 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방지해내기까지에는 아직 덜었다는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소베트가 정치적 조직의 사회주의적 형태인것과같이 플호즈는 경제적 조직의 사회주의적 형태인것이다. 플호즈들이나 소베트들이나 다 우리혁명의 가장 위대한 전과(戰果)이며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전과이다. 그러나 플호즈들과 소베트들은 조직의 형태일 따름이다. 물론 사회주의적이기는하나 어쨌든 조직의 형태인것이다. 모든것은 이 형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것인가에 달린것이다.

우리는, 로동자 및 병사대의원 소베트들이 그어느시기에 있어서는 혁명에 반대하고 반혁명을 지지한 일이 있는것을 아는바이다. 레컨대 우리 소련에서 一九一七년七월에 사태가 그렇게 되었었는바 그때에 소베트는 멘셰비크와 에세르의 지도하에 있었으며 소베트는

혁명을 반대하고 반혁명을 은폐하여주었다. 一九一八年말에 독일에서도 사태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에 쏘베트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있었으며 그 쏘베트는 혁명을 반대하고 반혁명을 은폐하여 주었다. 따라서 문제는 비단 조직의 형태——비록 이 형태 자체는 혁명의 가장 위대한 전파이기는 할 것이라도——인 쏘베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쏘베트사업의 내용에 있는 것이며, 쏘베트사업의 성질에 있는 것이며, 실로 누가——혁명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혁명가들이나——그 쏘베트들을 지도하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반혁명자들이 언제나 다 쏘베트를 반대하여 나서는 것은 아닌 그 사실은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로씨야의 반혁명의 두목인 밀류코프가 크론스타트 폭동당시에 쏘베트를 찬성하여 공산당원들이 없는 쏘베트를 찬성한다고 말한 것은 일반이다. 아는 것이다. 「공산당원들이 없는 쏘베트」——이와 같은 것이 로씨야 반혁명의 두목인 밀류코프의 그때의 표어이었다. 반혁명자들은, 문제가 쏘베트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그 쏘베트들을 지도하게 되겠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폴호즈들에 대하여서도 그와같이 말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형태의 경제조직인 폴호즈들은, 만일 그들의 수위에 진정한 혁명가들, 볼셰비크들, 공산당원들이 서고 있다면 경제건설에 있어서 기적(奇蹟)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와반대로 만일 폴호즈들에서 에세르들과 멘셰비크들, 빼들류라파의 장교들과 기타의 백파, 이전의 제니건과 폴차코파 등이 지배하게 된다면 그 폴호즈들은 얼마만한 기간은 온갖 종류의 반혁명적 행위의 업적물로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조직의 형태인 폴호즈들은 반쏘베트적 분자들이 기어들이 못하게 할 것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초기(初期)에 있

여서는 반혁명분자들이 그 팔호즈들을 립서로 리용하기에 얼마만큼 편이하게 까지도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개인정영을 실시하던 그 때에는 그 농민들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또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반쑈베트적 분자들의 반혁명적 총동은 농민들중에서 큰 효과를 낼수 없었다. 농민들이 팔호즈적 정영으로 넘어가는 때에 있어서 는 전혀 다른상태가 생겨진다. 여기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벌써 팔호즈라는 기성(既成)된 형태의 대중적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 반쑈베트적 분자들이 팔호즈에로 기어들어오는 것과 또 그들의 반쑈베트적 활동은 훨씬 큰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다. 반쑈베트적 분자들은 이 모든것을 타산하고 있음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레를들면 북캅카스에서 는 반혁명자들의 한부분이 자진하여 어떤 팔호즈비대한것을 조직하기에 애쓰며 그 팔호즈들을 자기들의 지하조직의 합법적 심폐물로 리용하려고 한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반쑈베트적 분자들이 아직 폭로되지 않았고 또 박멸되지 않은 여러지방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팔호즈들내부에 반혁명적 사업의 소굴을 조직하기 위하여 그 팔호즈들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팔호즈들을 찬양하는것까지도 또한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반쑈베트적 분자들의 한부분이 지금에 스스로 팔호즈를 찬성하여 말하면서 그 팔호즈들에서 공산당원들이 없게 하자는것을 말하고 있음도 또한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공산당원들이 없는 팔호즈들」——이와같은것이 지금 반쑈베트적 분자들중에서 나오는 표어인것이다. 그리고본즉 문제는 다만 사회주의적 조직형태인 팔호즈자체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이 형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되는가 하는 거기에 있는것이다——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팔호즈들의 수위에 서있으며 또 누가 그 팔호즈들을 지도하는가 하는데에 있는것이다.

배민주의의 견지로 보아서 조직의 형태로서의 골호즈들은 쏘베트의 마찰가지로 곧 무기이오 오직 무기일 따름이다. 이 무기는 어떤 조건하에서는 혁명을 반대하여 들려질 수도 있으며 또 그와 반대로 그 무기는 반혁명을 반대하여 들려질 수도 있다. 그 무기는 로동계급 및 농민에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그와 반대로 그 무기는 어떤 조건하에서 로동계급 및 농민들의 적들에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이 무기가 누구의 손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누구를 반대하여 들려지게 되는가에 있는 것이다.

계급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로동자 및 농민의 적들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유감이나마 일부의 우리 공산당원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실로 일부의 우리 공산당원들이 이 단순한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였음으로 — 실로 이리므로 지금 여러 골호즈들에서 잘가장한 반쏘베트적 분자들이 일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거기에서 해독사업 및 해업(怠業)을 조직하는 진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四)、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들의 빚채원인은, 지방의 많은 우리 동지들이 골라크츠과의 투쟁 전선을 재편성할 줄을 모르며, 최근에 와서 계급적 원주의 면모가 변하였고 농촌에서의 계급적 원주의 전술이 변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이에 적응하여 자기의 전술을 변경하여야 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적은 변경된 정세를 이해하였고 농촌에서의 세제도의 세력과 위력을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적은 그것을 이해한 후 대열을 재편성하였으며 자기의 전술을 변경하였다. 즉 골호즈들을 반대하는 직접 공격으로부터 은밀하게 해독행위를 실시하는 데로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새

정세를 고찰하지 못하고 계급적 원썩아 이미 없어진 곳에서 그적을 계속하여 찾으려
 라크충파의 단순한 낙은 투쟁 전술, 벌써 오래전부터 남아진 전술을 계속쓰고있다.

계급적 원수를 팔호즈밖에서 찾으려하며, 야수적 외모와 큰 니빨과 뚱뚱한 목덜미를 가지었으며 손에는 총을 든 그런 사람들을 찾고있다. 우리가 만화에서 보고있는 그런 팔호즈를 찾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팔호즈는 벌써 오래전에 표면에서 없어졌다. 현하의 팔호즈들 및 팔라크지자들, 농촌에있는 현하의 반쵸베트적 분자들—이들은 대부분 「온순한」, 「호인」, 거의 「성인같은」 인간들이다. 그들을 멀리, 팔호즈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것이다. 그들은 팔호즈안에 들어앉아서 거기에서 창고주임, 경리부장, 회계원, 서기 및 기타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그들은 「팔호즈를 라도하라」고는 언젠든지 공개적으로 말하지않을것이다. 그들은 「팔호즈를 차지하고있다. 그들은 팔호즈를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팔호즈내부에서 태업적 및 해독적 행위를 함으로써 팔호즈를 불전전하게 만들고있는것이다. 그들은 「곡물수매를 없애라」고는 언젠든지 공개적으로 말하지않을것이다. 그들은 곡물수매를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메마고기적(惡質傳) 행위만하며, 팔호즈에서 목축업을 위하여 폰트를 조직하되 그 사업에 필요한것 보다 그 량으로 보아서 세배나 더되게 조직할것과, 팔호즈에서 보험폰트를 형성하되 그 사업에 필요한것 보다 그 량으로 보아서 세배나 더되게 형성할것과, 팔호즈에서 한일꾼에게 하루에 여섯폰트로부터 내지 열폰트의 빵을 공동식사에 내주라는것 등등을 요구하고있다. 이와같은 「폰트」들을 조직하며 또 이와같이 공동식사에 내주고나면 즉 이와같은 사기적 메마고기가 실행되면 팔호즈의 경제력이 반드시 파괴될것이며 곡물수매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것은 명백한일이다.

이와 같은 교활한 적을 살피찾아내며 또 데마고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적에게서 가면을 벗기고 그 적의 실지의 반혁명적 면모를 팔호즈원들에게 보이여주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질(素質)을 가진 공산당원들이 우리 농촌에 많이 있는가? 공산당원들은 이와 같은 계급적 적들을 폭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자신들이 그 적들의 사기적 데마고기에 빠지며 그들의 꼬리를 따라가는 일이 많이 있다.

새로운 가면을 쓰고 있는 계급적 적을 보지 못하며 또 그의 사기적 흥계를 폭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일부동지들은, 마치 꿀라크들이 벌써 세상에 없다는 것, 꿀라크층을 계급으로 보아서 청산하는 정책의 결과에 농촌의 반쏘베트적 분자들이 벌써 없어졌다는 것, 따라서 불셰비크적 팔호즈도 아니오 반쏘베트적 팔호즈도 아닌 말하자면 그 자신이 자연생장적으로 쏘베트주권의 편으로 넘어오게 될 그런 「중립적」 팔호즈들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자기들 안심시키고 있다. 동지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해인 것이다. 꿀라크들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도 완전히 전멸되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공산당원들이 꿀라크들은, 말하자면 그의 자연생장적 발전행정에 의하여 스스로 무덤속으로 들어 가리라고 생각하면서 등한히 알고 무사태평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꿀라크들은 그리 쉽게 전멸되지 않을 것이다. 「중립적」 팔호즈들로 말하면, 그런 팔호즈들은 대체로 세상에 없는 것이며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립적」 팔호즈들이란 이것은 눈은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상인 것이다. 지금 우리 쏘베트나라에 있는 그와 같은 날카로운 계급투쟁의 조건하에서는 「중립적」 팔호즈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정세하에 있어서는 팔호즈들은 불셰비크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쏘베트적이거나, 양자간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

리가 이런 혹은 저런 팔호즈들을 지도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이것은 반쏘베트적 분자들이 그 팔호즈들을 지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은 아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五)、마지막으로,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들의 원인이 또 하나가 있다. 그 원인은, 팔호즈결설사업에 있어서의 공산당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파소핑가하는 데, 목물수매사업에 있어서의 공산당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파소핑가하는 데 있는 것이다. 공산당원들은 목물수매상 곤난에 대하여 말할 때에 모두 다 농민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흠이 책임을 농민들에게 넘겨쳐주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하며 따라서 물론 정당치 못한 것이다. 농민들은 이에 있어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만일 책임과 허물에 대하여 말한다면, 책임은 전제로 공산당원들에게 있는 것이요 또한 이에 있어서 잘못은 모두다 오직 우리에게만, 공산당원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 소비트주권과 같이 그렇게 유력하고 또 권위있는 주권은 세상에 없으며 또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당, 공산당과 같이 그렇게 유력하고 또 권위있는 당은 세상에 없으며 또 없었던 것이다. 팔호즈들의 리해관계와 국가의 리해관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팔호즈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누구든지 방해하지 않으며 또한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팔호즈사업을 운영하는데 레닌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항상 그렇게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자면 우리가 만일 목물수매방면에 있어서 심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 이에 있어서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목물에 대한 팔호즈사업의 단점을 살피지 못하고 매우 심한 오류들을 많이 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여러 당단체들이 팔호즈들과 머려졌으며 다 승리한체하고 안심하고있으며 자
연생장발전전에 내맡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이, 문제가 형태 자체에 있는것보다도 팔호즈에 대한 지도권을 자기수중에
장악하고 그 팔호즈의 지도로부터 반쏘베트적 분자들을 쫓아내는 데 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
하면서 아직까지도 대중단체 형태로서의 팔호즈들을 계속 파대평가하는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새 정세를 살펴보지 못하고 비밀과 피공작을 하고있는 계급적 원수의 새 전술을 해명하지
못한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문노니, 농민들이 이에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여러 그루빠의 팔호즈들이 발전되어가고 또 번영하여가며 국가의 의무를 착실히 실행
하며 경제방면에 있어서 날마다 튼튼하여 가는것을 알고있다. 다른 방면으로 나는, 위에 말
한 팔호즈들과 이웃에 있으며 그 팔호즈들과 동일한 수확을 가졌고 그 팔호즈들과 동일
한 객관적 조건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쇠퇴하여가며 와해되어가는 그런 팔호즈들도 있다
는것을 알고있다. 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첫째 그루빠의 팔호즈들은 진정한 공산
당원들이 지도하고 있고 둘째 그루빠의 팔호즈들은 바보들이, 실상 당중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바보들인 사람들이 지도하고 있다는데 있는것이다.

문노니, 농민들이 이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공산당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파소평가하는 결과로써 생기는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우
리사업의 결점들의 원인을 훑이 찾아야할 곳에서 그것을 찾지않는것이다. 그러므로 결점
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꼭 물수매에 있어서의 난판의 원인은 농민들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 자신, 우리 자체의 대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국가의 모든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팔호즈들을 지도할 사명을 가진 것이니 우리가 맛당히 농촌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것이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사업의 결점들을 알려주는 주되는 원인들이다.

내가 너무도 음울한 정경을 묘사하였다고 해서 농촌에 있어서의 우리 모든 사업에는 한갓 결점들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옳지 못한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농촌에서의 우리 사업은 이 결점들과 아울러 극히 중대하고도 또 결정적인 많은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언급한 것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임무는 우리의 성과들을 특징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농촌에서의 우리사업의 결점들에 대하여서만 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결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물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결점들을 가까이 장래에 바로잡을 것인가? 물론 바로 잡을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농기 - 프락토르점류소 및 품호즈들의 정치부들은 이 모든 결점들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제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 수단들중 하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배 계속되는 폭풍우같은 박수.)

꼴호즈원 — 돌격대원들의 제 1차 전련맹 대회에서의 연설

一九三三년 二월十九일

남녀꼴호즈원 동지들! 나는 이 대회에서 연설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 리유(理由)는 말하여야 할 모든것을 이미 내 앞서 말한 토론자들이 정확하게 잘 말한 까닭이다. 그래도 더 연설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꼭 말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또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것이기때문에(계속되는 박수) 나는 부족하지 않을수 없다.

몇개의 문제에 대하여 몇마더 말하려한다.

一、꼴호즈의 길은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첫째문제 — 꼴호즈 농민이 들어선 그 길은 옳은 길인가, 꼴호즈의 길은 옳은 길인가? 이 문제는 공연한 문제가 아니다. 꼴호즈의 돌격대원들인 여러분은 꼴호즈들이 옳은 길에 서있다는것을 응당 의심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쓸데없는 문제 제로 보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아니다. 농민들 중에는 그리고 꼴호즈원들 중에서도 아직도 꼴호즈의 길이 옳은가들의 심하는 사람들이 아직 적지않게 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몇백년동안 넷날식으로 살아왔으며 낡은 길을 밟아왔으며 골라크들이 파 지주들, 고리대금업자들과 루기업자들의 앞에서 허리를 굽여왔었다. 이 낡은 자본주의적 길 이 농민들의 찬성을 받았다 고 말할수 없다. 그러나 이 낡은 길은 걸어본 길이었으며 습 판된 길이었으며 또 아무도 아직은 어떻게해서 달리 더 잘 살수 있다는것을 사실에 있 어서 증명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모든 부르조아적 나라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넷 날식으로 살고있다. 그런데 돌연히 이 낡은 지저분한 생활에 불쾌비크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폭풍우같이 달려들어서 말하기를, 낡은 길을 배버릴때가 되었다. 새방식, 골호조의 방식으로 생활하기를 시작할때가 되었다. 모든 부르조아적 나라들에서 사는것처럼 살것이 아 니라 새방식, 아르젤리의 방식으로 살기를 시작할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새 생활 이 딱것이 어떠한것인지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것이 이전의 생활보다 못하게 되거나 않 겠는지. 어쨌든 새 길은 습관화되지 못한 길이며 걸어보지 못한 길이며 아직 그다지 케 험해보지 못한 길이다. 낡은 길에 머물러있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새길, 골호조의 길로 넘어가기를 좀 지켜해보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모험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근로농민의 일부는 실로 이러한 의문에 사로잡혀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여러가지 의문을 풀어주어야 될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이 여러가지 의문을 세상에 들어내놓고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될것이 아 니가?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리고본즉 위에 제기된 문제는 그것을 쓸데없는 문제라고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그렇다면, 골호조농민이 들어선 그길은 옳은 길인가?

어떤 동지들은 우리나라에서 새길 즉 팔호즈의 길로 넘어가는것을 三년전에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부분적으로만 옳은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팔호즈를 대중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三년전에 시작되었다. 이 새길로 넘어가는 일은 일반이다. 아는바와같이 골라크츄를 파멸함과함께 빈농 및 중농의 여러 백만대중이 팔호즈의 편으로 넘어서는 운동으로써 표시되었다. 이 모든것은 다 옳다. 그런데 이와같이 대중적으로 팔호즈로 넘어가는것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예비조건을 가지고있어야 될것이었다. 그 예비조건이 없이는 대체로 말하면 대중적 팔호즈운동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까지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쏘베트주권을 가졌어야 될것이었는바, 그주권은 농민들이 팔호즈의 길에 들어서는것을 도왔으며 또 계속하여 도와주고있다.

둘째로는, 자주들과 자본가들을 내쫓고 그들이 가지고있던 공장과 토지를 수탈하여 그것을 인민의 소유로 전포하여야 될것이다.

셋째로는, 골라크츄를 제어하고 그들이 가지고있던 농기와 트랙토르를 빼앗아야 될것이었다.

넷째로는, 팔호즈에 단합된 빈농민들과 중농민들만이 농기와 트랙토르를 리용할수있다는것을 전포하여야 될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팔호즈농민에게 농기와 트랙토르를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나라를 공업화하여 새로운 트랙토르 제조공업을 설치하며 농업기계를 제작하는 여러 새 공장을 건축하여야 될것이었다.

이 여러가지 예비조건이 없이는 三년전에 시작된 골호즈의 길로의 대중적으로 넘어가는 일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본즉 골호즈의 길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十월혁명을 수행하고, 자본가들과 지주들을 전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공장들을 빼앗고 또 새 공업을 건설하여야 될 것이었다.

十월혁명때부터 새길 즉 골호즈의 길로 넘어가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 새 길로의 이행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서 전개된 것은 겨우 약 三년전의 일이다. 그것은 오직 그때에 일으려서야만 국내공업화를 앞으로 전진시켜내었던 까닭이다.

인민들의 역사에는 혁명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 혁명들은 모두 다 일면적(一面的)이었던 것으로서 十월혁명과 다른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한창취 형태가 다른 착취 형태로 바꾸이었으나 착취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한종류의 착취자들과 압박자들이 다른종류의 착취자들과 압박자들로 바꾸이었으나 착취자 및 압박자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오직 十월혁명만이 온갖 착취를 없애버리며 모든 온갖 착취자들과 압박자들을 청산하여 버리는 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았다.

노예들의 혁명은 노예소유자들을 청산하여 버리고 근로자들을 착취하던 노예소유자적 착취형태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그 혁명은 노예소유자와 노예소유자적 착취형태대신에 농노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농노주적 착취형태를 설치하였다. 한종류의 착취자들이 다른종류의 착취자들로 바꾸이었다. 노예제도하에서는 「법률」은 노예소유자가 노예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였다. 농노제도의 당시에 있어서는 「법률」은 「다만」 농노주가 농노를 파는것만을 허용하였다.

농노들의 혁명은 농노주들을 청산하여 버리고 농노주적 착취형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그 혁명은 농노주들의 대신에 자본가들과 지주들을 내놓았으며 자본주의적 및 지주적 형태로써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착취형태를 설치하였다. 한 종류의 착취자들이 다른 종류의 착취자들로 바꾸이었다. 농노제도의 당시에 있어서는 「법률」은 농노들을 파는것을 허용하였다. 자본주의제도에 있어서는 「법률」은 「다만」 근로자들이 실업, 빈궁, 병약과 아사(餓死)의 운명을 지는것만을 허용한다.

오직 우리 조베트혁명만이, 오직 우리 十月혁명만이 문제를 이렇게 세웠다. 즉 한 종류의 착취자들을 다른 종류의 착취자들로 바꾸거나 한가지 착취형태를 다른 착취형태로 바꿀것이 아니라 온갖 착취를 뿌리채 빼버리며 모든 또는 온갖 낡은 착취자나 새 착취자나 할것없이 모든 또는 온갖 낡은 부자 및 압박자나 새 부자나 및 압박자들을 다 뿌리채 빼버리도록 문제를 세웠다.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그러기때문에 十月혁명은 농민들이 새로운 골호즈의 질로 넘어가는데 대한 예비조건이며 필요한 전제조건인것이다.

농민들은 十月혁명을 지지함으로써 옮겨 행동하였는가? 그렇다 그들은 옮겨 행동하였다. 그들은 옮겨 행동한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十月혁명은 지주들과 자본가들, 고리대금업자들과 골라크들, 상인들과 루기업자들을 쳐 없애는데 그들을 도와주었던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문제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압박자들을 쫓아내며 지주들과 자본가들을 쫓아내며 골라크들과 투기업자들을 제어하는 것——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전의 속박으로부터 영영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착취자들을 처 없애는 것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새 생활을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근로농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해마다 향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새제도 즉 골라크제도를 세워놓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골라크 문제의 다른 일면이 있는 것이다.

남은 제도는 새제도, 골라크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남은 제도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제각기 혼자 일하였으며 선조들이 쓰던 이전 방법으로써 이전에 쓰던 도구를 가지고 일하였으며 지주들과 자본가들, 골라크들과 투기업자들을 위하여 일하였고 절반 값으로만 다른자들을 부자로 만드려주면서 일하였다. 새제도, 골라크 제도에 있어서는 농민들은 공동적으로, 아르첼리적으로 일하며 새농구 즉 프락토르와 여러가지 농업기계를 가지고 일하며 자신과 자기 골라크를 위하여 일하며 자본가들과 지주들, 골라크들과 투기업자들이 없이 살며 자기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상태를 날마다 개선하여가기 위하여 일한다. 저기 즉 남은 제도에 있어서는 정부가 부르조아지의 것이니 그 정부는 근로농민들을 반대하고 부자들을 지지한다. 여기 즉 새제도, 골라크제도에 있어서는 정부가 로동자——농민의 것이니 그 정부는 모든 또는 온갖 부자들을 반대하고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지지한다. 남은 제도는 자본주의에 이르게 하고 새제도는 사회주의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가지 결 즉 자본주의적 결과 사회주의적 결이다. 즉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의 결과 자본주의에로의 후퇴의 결인것이다.

어떤 셋째길에 나설수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골호즈의 결이 옳다는것을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동요하는 일부의 동지들은 아무도 알지못하는 이 셋째 길을 택하기를 특히 즐겨한다. 그들은 우리가 낡은 제도에로, 개인경영에로 돌아가되 자본가들과 지주들이 없이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경제제도의 합법적 현상으로서 「다만」 골라크들과 기타의 소자본가들만을 용허하기를 원한다. 사실상 그것은 셋째길인것이 아니라 들째길—자본주의로 가는 길인것이다. 원래 개인경영에로 돌아가며 골라크층을 다시 회복시킨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것은 골라크적 예속을 다시 회복시키며 골라크층이 농민을 착취하는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골라크에게 주권을 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골라크층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와동시에 쏘베트주권을 보전할수있을가? 아니다, 그리할수는 없는것이다. 골라크층이 다시 회복되는것은 반드시 골라크의 주권을 세워놓는데 이로게 할것이며 쏘베트주권을 청산하는데 이로게 할것이다. 그리고 고본즉 그것은 반드시 부르조아정부들 성립하는것은 따라서 반드시 지주들과 자본가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자본주의가 다시 회복되게하는 데 이로게 할것이다. 소위 셋째길이라하는것은 사실상 들째길 즉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길인것이다. 골라크적 예속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본주의로 돌아가며 쏘베트주권을 청산하고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는것을 원하는가? 고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근로농민들의 다수가 어떠한 길을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인정하는가함을 알수있을것이다.

그리고 본즉 다만 두 길에 있을 따름이다. 즉 혹은 앞으로 전진, 변형——새로운 팔호즈 제도
 에로의 길, 혹은 퇴각, 몰락——낡은 제도, 폴라크적—자본주의적 제도에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셋째 길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근로농민은 자본주의적 길을 배버리고 팔호즈를 전설하는 길에 들어섬으로써 옮겨 행
 동한 것이다.

팔호즈의 길은 좋은 길이나 그러나 어려운 길이라고 말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옳은 것이다. 물론 이 길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좋은 생활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
 다. 그러나 문제는, 주되는 어려운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며 지금 당선들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는 신중하게 이야기 할만한 것도 못된다는 것이다. 대관절 10년—15년전에 로동
 자들이 체험하던 그러한 난관에 비하면, 팔호즈원 동지들, 여러분의 현재의 난관은 어떤애들의
 장난끼리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로론자들은 여기에서 연설할때에 레닌그라드, 모스크
 바, 하리코프, 돈바쓰의 로동자들에게는 말하기를, 저들, 로동자들에게는 달성
 된 것이 많으나 당신들, 팔호즈원들에게는 달성된 것이 그보다 훨씬 적다고 하였다. 그로론자들이
 말한 그속에는 약간의 동지적 부러움 즉 만일 우리팔호즈원—동민들에게도 레닌그라드, 모스크
 바, 돈바쓰, 하리코프의 로동자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달성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
 면서 동지적으로 부러워하는 어떠한 것까지도 일관(一貫)되어 있다고 나에게 생각된다.

이것은 모두 다 좋다. 그런데 여러분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로동자들이 결국 이
 여러가지 달성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회생을 당하였으며 그들이 이 여러가지 달성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고생을 체험하였는지 아는가? 나는 1918년의 로동자들의 생

활동에서 몇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할수있다. 즉 그때에는 고기(肉)나 기타의 식품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노동자들에게 몇주일동안씩 빵 한조각도 내주지 못한적이 있었다. 그때에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노동자들에게 하루에 지게미가 절반이나 섞이운 검은 빵 五十二그램씩 내주게되는 그러한 날이면 아주 좋은 날이라고 인정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몇달도 아니오 반년도 아니오 완전히 두해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참았으며 걱정하지 않았다. 왜그러냐하면 그들은 좋은때가 오리라는 것과 결정적 성공을 얻으리라라는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노동자들이 이해하지 않았던것을 보고있는것이다. 여러분의 곤난과 고생을 노동자들이 체험한 곤난과 고생에 비교하여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곤난과 고생에 대하여서는 심지어 진중하게 이야기 할만한것도 못되는것을 발견할것이다.

플호즈운동을 앞으로 더 나아가게하며 플호즈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렇게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플호즈에 경작할만한 토지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야한다. 그런토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물론 있다. 좋은 토지가 모두다 플호즈에 넘어갔으며 또한 그 토지가 확실히 플호즈에 고착(固着)되어 있는것은 일반이다. 아는바이다. 그리고본즉 플호즈원들은 그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가 넘여함이없이 그 토지를 마음대로 경작하며 개량할수 있는것이다.

둘째로, 그렇게하기 위하여서는 플호즈원들이 트랙토르와 여러가지 기계를 리용할수있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물론 있다. 우리의 트랙토르공장들과 농업기계

제조공장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또 주로 골호즈들을 위하여 작업함으로써 모든 현대식 기구를 골호즈들에 공급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전력을 다하여 일꾼과 재정으로써 골호즈 농민들을 지지하여야 하며 또 적대계급들의 최후의 잔존분자가 골호즈들을 와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정부가 있는가? 물론 있다. 그 정부는 노동자—농민의 쏜베르정부라고 칭한다. 어떤 나라에서 정부가 자본가들과 지주들, 꿀라크들과 기타의 부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근로농민들을 지지하는가? 그러한 나라가 있거던 나에게 증명하라. 그러한 나라는 세상에 없으며 또 있은 적도 없었다. 다만 우리 쏜베르국가에서만 모든 부자들과 착취자들을 반대하고 노동자들과 농민—골호즈원들을, 도시 및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을 엄연(嚴然)히 옹호하고 있는 그러한 정부가 존재하여 있는 것이다.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본즉, 여러분에게는 골호즈건설을 전개하며 남은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서 요구된다—정직하게 노동하며 골호즈의 수입을 노동에 의하여 분배하며 골호즈의 재산을 잘 간수하며 프락토르와 여러가지 기계를 잘 간수하며 말(馬)을 잘 사육(飼育)하며 여러분의 노동자—농민국가가 맡기는 과업을 실행하며 골호즈를 튼튼케하고 그리고 골호즈에로 기여들어온 꿀라크들과 꿀라크옹호자들을 그 골호즈로부터 내쫓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여러가지 곤난을 극복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노동하며 골호즈의 재산을 잘 간수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나의 말에 응당 동의할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여려분이 부자들을 위하여 일하거나 착취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팔호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여려분은, 팔호즈의 길 즉 사회주의의 길이 근로농민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二、우리의 당면임무는 모든 팔호즈

원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문제—우리는 새길 즉 우라의 팔호즈의 길에서 무엇을 달성하였으며 또 가까운 장래의 二—三년 동안에 무엇을 달성하려고 생각하는가?

사회주의—이것은 좋은 일이다. 행복스러운 사회주의적 생활—이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래의 일이다. 지금 주되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현재에 벌써 달성하였는가를 아는 것이다. 농민은 팔호즈의 길에 나섰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농민은 그 길에서 무엇을 달성하였는가? 우리가 팔호즈의 길을 밟아 감으로써 뚜렷하게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빈농의 여려백만대중을 도와주어 팔호즈로 들어가게 한 것을 달성하였다. 우리는 빈농민의 여려백만대중이 팔호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훌륭한 토지와 훌륭한 생산기구를 이용하면서 그들이 중농민의 수준에까지 향상된 것을 달성하였다. 우리는, 이전에는 반굼어 살

던 빈농민의 백만대중이 지금에는 골호즈에서 중농민이 되었으며 생활이 보장된 사람들로 된것을 달성하였다. 우리는 농민들이 빈농민층과 골라크층으로 분화되는것을 없애버렸으며 골라크들을 따려부지였으며 그리하여 빈농민들로 하여금 골호즈안에 있어서 자기로동의 주인으로 되며 중농으로 되도록 도아준것을 달성하였다.

골호즈전설을 전개하기전 약 四년전에 있어서는 사태가 어떻게 되었던가? 골라크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었다. 빈농민들은 골라크들의 예속에 빠지면서 가난하여지며 평락되었었다. 중농들은 골라크지위로 겨우 기어오르다가도 빈민이 아래로 밀려떨어져 골라크들이 좋아하도록 빈농민들의 대렬을 채웠다. 모든 이러한 혼란속에서는 다만 골라크들만이 또는 부요한 농민층의 어떤 자들이나 리득을 취한것은 취할수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농가 때 때호중에서 골라크 四호나 후 五호, 부요한 농민 八호 혹은 十호, 중농민 四五—五〇호, 빈농민 三五호를 셀수있었다. 그리고본즉 골라크적 예속의 명예를 얻을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빈농민은 가장 적은 경우에라야 전 농호중의 三五%이었었다. 나는, 전 중농민층의 절반이 넘는 경제력이 약한 중농층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도하지않거니와 그 중농민층은 자체의 상해로보아서 빈농민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골라크들에게 적절 예속되어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골호즈전설을 전개하여가지고 그 혼란과 불공정을 없애버렸으며 골라크적 예속을 깨트려버렸으며 그 모든 빈농대중을 골호즈에 고으려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보장된 생활을 하게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골호즈의 로지와 골호즈에 부여된 특전(特典), 또 락 토르와 여러가지 농업기계를 리용할수있는 중농들의 수준에까지 향상되게 한것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적어도 二천만이나 되는 농촌주민. 즉 二천만이나 되는 빈농민들을 빈궁과 멸락에서 구하여내었으며 그들을 골라크적 예속에서 구하여내어서 팔호즈로 말미암아 생활이 보장된 사람들로 변환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큰 성과이다. 이것은 세계에 이 때까지 없었고 세계의 어떠한 국가도 아직까지 달성한 적이 없는 그러한 성과이다.

이것이 곧 팔호즈의 건설사업의 실지적,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이며 농민이 팔호즈의 길에 나설 때서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팔호즈건설의 길에서의 우리의 첫 결음일 따름이며 첫 성과일 따름이다. 우리가 이 첫거름에, 이 첫성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일 것이다. 아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 첫성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며 팔호즈를 결정적으로 튼튼케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둘째 결음을 걸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새 성과를 달성하여야 될 것이다. 이 둘째 결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팔호즈원들 즉 이전의 빈농들이나 이전의 중농들을 모두 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팔호즈원들을 부요하게 만듦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렇다, 동지들, 유족하게 만드는데 있다.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우리는 빈농들이 팔호즈로 말미암아 중농들의 수준에까지 향상된 것을 달성하였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한 결음을 더 나아가서 모든 팔호즈원, 즉 이전의 빈농들이나 이전의 중농들이 다 부요한 농민들의 수준에까지 향상되도록 그들을 도아주는 것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며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꼭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박수가 계속된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목적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의 기계와 트랙트르들은 지금 잘 리용되지 못한다. 우리의 토지는 그다지 잘 경작되지 못한다. 오직 기계와 트랙트르들을 리용하는 것을 개선만 한다면, 오직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개량만 한다면——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산물의 수량을 二배, 三배나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팔호조원을 팔호조의 전야(田野)에서 일하는 부요한 근로자들로만 돌기에 완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전에는 부요한 농민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었는가? 부요한 농민이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이웃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그들을 좀 착취하며 그들에게 팔기는 비싸게 팔고 그들에게서 사기는 싸게 사며, 머슴꾼들을 고용하며 그 머슴꾼들을 좀 특특이 착취하며 약간의 금전을 저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서 튼튼하여져 가지고는 그다음에 풀라크지위로 기어올라섰다. 이전에 개인정영이 있던 때에 부요한 농민들이 빈농들과 중농들의 불신임과 증오(憎惡)를 받은 것은, 말하자면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지금에는 사태가 달라져서 있는 것이다. 지금에는 조건들도 다른 것이다. 부요한 팔호조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에는 자기의 이웃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착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우기 지금에 있어서는 누구를 착취하기가 쉽지 않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에는 토지의 사유나 소작제(小作制)가 이미 없고 기계와 트랙트르들은 국가에 속하여있고,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호조에 있어서 행세하는 인물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런 사람들이 행세하는 인물로 되어있던 때도 있었으나 그 시기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부요한 팔호조

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위하여서는 지금에는 다만 한가지만 요구된다. 팔호즈에 있어서 정직하게 일하며 기계와 트랙토르들을 바로 리용하며 역축(役畜)을 바로 리용하며 토지를 바로 경작하며 팔호즈의 소유재산을 잘 간수하는 것만이 요구된다.

간혹 말하기를, 만일 사회주의라면 무슨 까닭에 또 로동하여야 할가? 라고 한다. 이전에 로동하였고 지금에도 로동하고 있으니—이제는 로동하는 것을 그만둘 때가 아닐까? 라고 한 다. 동지들, 이러한 말은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것은 게으른자들의 철학(哲學)이지 정직한 근로자들의 철학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결코 로동을 부정(否定)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회주의는 로동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로동은 서로 잘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선생인 레닌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레닌의 말은 누구를 반대하여 하신 것인가? 착취자들에 반대하여, 즉 자기는 로동하지 않고 남을 로동하게 하여서 남의 등에 부자가 되는 그러한 자들에 반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에 반대하여서 말한 것인가? 자기는 로동에 게을러가지고 남의 등에 붙어 살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반대하여 말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로동에 게으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들파 착취자들인 남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로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일 정직하게 로동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팔호즈를 위하여 로동한다면 우리는 얼마안되는 二—三년 동안에 모든 팔호즈원들, 즉 이전의 빈농민들이나 이전의 중농민들을 모두다 부요한 농민들의 수준에까지, 산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완전히 문화적으로 생활하여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준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달성할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곧 여기에 우리의 당면임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그것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박수갈채가 계속된다.)

三、벗개의 주의사항

이제는 몇가지의 주의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대한 것이다. 여러분중에는 당원도 있으나 비당원이 더 많다. 당원들보다 비당원들이 더 많이 대회에 모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왜그러냐하면 실로 비당원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사업에 끌어넣어야 하는 까닭이다. 비당원인 한호조원들을 볼때 비크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공산당원들도 있다. 그러나 자가 당원이라는것으로써 거만한 태도를 부리며 비당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며 또 해로운 일이다. 볼셰비크들의 힘, 공산당원들의 힘은 그들이 수천만의 비당원 열성자들로써 우리당을 둘러쌀줄을 아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 볼셰비크들은 만일 수백만의 비당원 노동자들 및 농민들의 신임을 당의 편으로 전취할줄을 몰랐다면 우리가 지금 가져고 있는 그러한 성공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이 비당원들과 따로 떼려지지 말고, 당원들이 자기의 당적 각(黨的殼) 속에 들어앉아 있지 말고, 그들이 자기가 당원이라는것으로써 거만한 태도를 부리지 말고 비당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비당원들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그 비당원들에게서 배워야 하는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당원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그들 자신이 어느 때에는 비당원이었던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는 비당원이지만은래일에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상 거기에 거만한 태도를 부릴 것이 무엇인가? 로숙한 볼셰비크들인 우리 중에는 二十년—三十년 동안 당에서 일한 그러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자신도 어느 때에는 역시 비당원이었던 것이다. 만일 약 二十년—三十년 전에 그때의 당원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꺼리는 태도를 취하고 우리를 당에 접근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여러해 동안 당과 격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지들, 로숙한 볼셰비크들인 우리는 아마 소용없는 사람들을 아니지요? (회석에 활기가 돌고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실로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은, 때때로 비당원들 앞에서 코를 추켜드는 그러한 근래의 젊은 당원들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야 하며 거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볼셰비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를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이제는 여성들에 대하여, 여성 팔호즈원들에 대하여 몇 마디 말하려고 한다. 동지들, 여성 문제는 팔호즈들에 있어서 큰 문제인 것이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과소평가하며 또한 심지어 그들에 대하여 맹소까지 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지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에 문제는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팔호즈 운동이 훌륭하고 또 능력있는 여러 여성들을 지도적 지위에 내세운 데 있는 것이다. 이 대회, 이 대회의 구성원들을 보라——그러면 여러분은 여성들이 오래전에 뒤따라진 자로부터 벌써 선진자로 전진한 것을 볼 것이다. 여성들은 팔호즈들에 있어서 큰 힘을 이

루고 있다. 그 힘을 파묻어두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는 팔호즈들에서 녀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며 그 힘으로 하여금 사업에 봉사하게 하는 데 있다.

사실 쏘베트 주권도 바로 얼마전에 녀성팔호즈원들에 대한 조그마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젖소(乳搾牛)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젖소에 대한 문제는 정돈되었고 그리하여 오해는 없어졌다. (박수갈채가 계속된다.) 우리는 대다수의 팔호즈원들에게 벌써 매호마다 젖소 한머리씩 있을 것을 달성하였다. 이제 한두해 더 지나가면 여려분은 자기의 젖소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팔호즈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불셰비크들인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팔호즈원들이 다 젖소 한머리씩은 가지고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수갈채가 계속된다.)

녀성팔호즈원 그들로 말하면 그들은 팔호즈가 녀성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힘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팔호즈에 있어서만 그들이 남자와 동등한 처지에 설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팔호즈가 없이는 평등이 없으며 팔호즈에 있어서만 권리 평등인 것이다. 녀성팔호즈원 동지들은 이것을 기억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팔호즈제도를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지킬 것이다. (박수갈채가 계속된다.)

팔호즈에 있는 남녀공청동맹원들에게 대하여 두어마디 말하려 한다. 동지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청년들은 우리 늙은사람들을 교대하여야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기치를 최후승리에까지 들고나아가야 될 것이다. 농민들중에는 낡은 여승에 둘러있고 낡은 생활의 습관과 그에 대한 추억에 둘러있는 그러한 늙은이들이 적지않게 있다. 그들이 항상 당파 쏘베트주권의 제방침을 인차 인식하고 실행할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낯은 여습에서 벗어졌고 또한 그들은 누구보다도 쉽게 레닌의 유훈을 체득(體得)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로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레닌의 유훈을 체득하는 까닭에, 실로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뒤떨어지는, 동요하는 자들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은 배울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에는 없다 해도 래일에는 있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무는, 레닌주의를 배우고 또 배우는데 있다. 남녀 공청동맹원 동지들! 불췌비즘을 배우라, 그리고 동요하는 자들을 앞으로 인도하라! 좀더 빨리 일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일은 필연코 잘되어갈 것이다. (박수갈채).

개인경영농민들에게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한다. 여기에서 개인경영농민들에게 대하여는 적게 말하하였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더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경영농민들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계산에서 빼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그리나하면 그들은 래일의 우리 팔호즈원들인 까닭이다. 나는, 개인경영농민들의 일부가 경영 타락되어서 투기업에 빠져들어간것을 안다. 우리의 팔호즈원들이 개인경영농민들을 팔호즈의 정원으로 받아들이릴때에 심하게 선택하고 또한 어떤때에는 그들을 전혀 받지않는것은 응당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옳은 일이며 그에 대하여 반대할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경영농민의 다른 많은 부분이 있는바, 그들은 투기사업을 하지않고 그리고 정직한 로동으로써 자기의 양식을 얻는다. 이 개인경영농민들에게는 팔호즈에 가입(加入)하려는 생각도 없지않아 있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팔호즈의 길이 옳은가하는데 대하여 동요하는것과 다른면으로는

지금 팔호즈원들중에는 개인경영 농민들에게 대한 가혹한 태도가 있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팔호즈원들을 향하여 주어야 하며 그들의 처지를 알아주어야 한다. 이 몇해동안 그들은 개인경영 농민들의 모욕과 조소(嘲笑)를 적지않게 견뎌어 왔다. 그러나 모욕과 조소가 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져서는 안된다. 모욕을 잊어버릴줄을 물으며 자기의 감정을 팔호즈사업의 이익보다 더 높게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는 좋지 못한 지도자이다. 만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고 할진대 반드시 개개의 개인경영 농민들에게서 여러분이 당하였던 그 모욕을 잊어버릴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二年前에 월가강연안 지방에 사는 한 농민과 파부에 가서 편지를 받았었다. 그 농민은, 자기를 팔호즈에 맡겨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내가 후원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나는 팔호즈에 알아보았다. 그 팔호즈에서 나에게 대답하기를, 그 농민은 팔호즈의 회의를 모욕하였은즉, 그를 팔호즈에 받을수 없다고 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물어본즉, 팔호즈원들이 개인경영 농민들에게 대하여 팔호즈에 틀라고 권유하던 그 농민들의 회의석상에서 바로 그 파부는 권유에 대한 대답으로 치마차락을 들고, 엳다, 이제나 팔호즈에 받으라고 한 일이 있었다(유쾌한 활기가 돌며 웃음소리가 난다). 그 농민이 옳지 못하게 행동하였고 회의를 모욕한것은 의심없는 일이다. 그러나 一년을 지나서 그 농민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그 농민이 팔호즈에 들려는것을 거절할수 있을까? 나는 그 농민에게 거절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팔호즈에 편지를 썼다. 그 파부를 팔호즈에 받았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그 농민은 팔호즈에서 마지막 대렬에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첫째 대렬에서 일하고 있다. (박수갈채).

이것이, 만일 지도자들이 진정한 지도자로 되어 있으려고 한다면 사업의 리익이 요구하는

때에는 모욕을 잊어버릴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주는 또 한가지의 실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경영농민들에게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팔호즈에 심의하여 받아들이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무 심의도 없이 모

든 개인경영농민들에게 대하여 팔호즈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려는데 반대한다. 그것은 우

리의 정책이 아니며 불체비크적 정책이 아니다. 팔호즈원들은 그들 자신이 얼마전까지도

개인경영농민들이었던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센추크의 팔호즈원들의 편지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한다. 그 편지는 출

판물에 게재되었으니 여러분은 응당 그 편지를 읽었을것이다. 그 편지는 두말할것도 없

이 좋은 편지이다. 그 편지는 우리 팔호즈원들중에는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로되는 경험있

고 의식있는 팔호즈사업의 조직자들 및 선전자들이 적지않게 있다는것을 증명한다. 그런

데 그 편지에는 아무리하여도 찬동할수없는 옳지못한 한구절이 있다. 문제는, 베센추크의

동지들은 팔호즈에서 일하는 자기들의 로동으로 말하면 사소하고 거의 보잘것없는 로동

이라고 서술(敍述)하고 그리고 가끔 장황하게 연설하는 연사들 및 수령들의 로동을 위

대하고 또 창조적인 로동이라고 서술한 그것이다. 이에 찬동할수 있는가? 아니다, 동지

들, 아무리하여도 이에 찬동할수 없는것이다. 베센추크의 동지들은 이에서 과오를 범하였

다. 그들은 겸손한 까닭에 그와같은 과오를 범하였을수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서 과오

가 과오로 되지않는것은 아니다. 수령들이 유일한 력사의 창조자이라고 간주되고 로동자

들과 농민들은 고려(考慮)에 들지않던 때는 지나갔다. 지금에 있어서는 인민들과 국가

들의 운명은 다만 수형들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도 먼저 또
는 주로 근로자들의 여러 백만대중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제조소들과 공장들, 광갱들
과 철도들, 팔호즈들과 쏘호즈들을 말없이, 떠들어대지 않고 전설하며 생활의 모든 부리를
만들어내며 전세계를 먹여주며 입혀주는 노동자들과 농민들——그들이야말로 새 생활의 진
정한 용사들이며 창조자들인 것이다. 보전대 우리의 페센추크의 동지들은 이것을 잊은 모
양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또한 자기가 공로를 끼쳤노라고 코를 추
겨들기 시작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그것은 거만에 이르케 하는 것이니 거만은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사소하
고」 「미미한」 로동이 사실상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하고 또 창조적인 로동임
을 보지 못하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한 일이다.

나는, 페센추크의 동지들이 그들의 편지에 대한 나의 조그마한 이 수정에 찬동하
기를 바란다.

동지들, 나는 이것으로써 고치기로 한다.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계속하다가 환호로 변하였고 전부가 이어서 쏘팔뚝들을
하한다. 「우라」를 부른다. 장내에서, 「쏘팔뚝 동지만세! 우라! 선진팔호즈원 만세! 우
리의 수형 쏘팔뚝 동지 만세!」를 부른다.)

전련맹공산당(볼셰비크) 제十七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총결보고

一九三四년 一월二十六일

一、세계 자본주의의 계속되어 가는 공황과 소련의 대외정세

동지들! 제十六차 대회 이래 三개년 이상이 지나갔다. 그 지기는 그다지 장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지기는 다른 어떠한 지기보다도 일층 풍부한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최근 十년 동안의 여러 시기 중에서 어느 한 시기도 이 시기와 같이 그렇게 풍부한 사변을 가진 것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제·령역에 있어서 이 몇해 동안은 세계경제공황이 계속되어나가는 몇해이었다. 공황은 다만 공업뿐만 아니라 또한 농업까지도 전체로 포괄하였다. 공황은 생산 및 상업의 령역(領域)에서만 풍미(風靡)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용관계 및 화폐(貨幣)·유통의 령역에도 넘어가서 여러나라 사이에 설정(設定)되어있는 신용관계 및 통화(通貨)·판매를 뒤집어 놓았다. 만일 이전에는 세계경제공황이 있더니 없더니 하는 것이 여기 저기에서 논쟁되어 있었다면 지금에는 공황이 현존하여 있을 뿐더러 그의 파국적 작용이 너무도 명확함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논쟁을 하지 않는다. 지금에는 벌써 다른 것

즉 공황에서 벗어나서 나갈수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갈길이 없는가하는 것과 또한 나갈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을 얻게될가하는 데 대하여 논쟁한다.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이 몇해동안은 자본주의 제국간의 여러가지 관계나 또한 그 나라들의 내부적 관계가 다같이 계속하여 더 날카로워진 몇해이었다. 극동에 있어서는 판세를 날카로워지게한바의 중국을 반대한 일본의 전쟁과 만주점령, 구라파에 있어서는 판세를 날카로워지게한바의 독일에서와 파시즘의 승리와 복수(復讐)사상의 개전(凱旋)、제국주의전쟁을 준비하는때와 군비를 확장하는데 새로운 충동을 준바의 일본 및 독일의 국제연맹으로 부터의 탈퇴、혁명적 위기(危機)가 성숙하여가며 파시즘이 그다지 영구한 것이 못된다는것을 더 한번 가르치는바의 서반아에서의 파시즘의 패배(敗北)——이러한 것이 이 보고기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다. 부르조아적 평화주의가 립종(臨終)에 다달았고 그리고 군비(軍備)를 축소(縮小)한다던 추세(趨勢)가 공공연하게 로골적으로 무장하며 또한 완비(完備)하게 무장하는 추세로 바꾸어지는것은 이상하게 여길것이 아니다.

또런은, 이러한 경제적 진동(震動)과 군사—정치적 파국(破局)의 모진 파도(波濤) 속에서 사회와같이 옷독속아 따로 서서 사회주의를 전설하여가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기의 사업을 계속하고있다. 만일, 저쪽, 자본주의 여러나라에는 아직도 경제공황의 모진 바람이 불고있다면 쓰련에서는 공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농업의 영역에 있어서는나 향상이 계속되고있다. 만일, 저쪽, 자본주의 여러나라에서는 세계와 세력범위를 새로 재분할하려는 새 전쟁을 열광적(熱狂的)으로 준비하여가지고 있다면 쓰련은 전쟁의 위

힘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꾸준한 계통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면에 있어서 소련이 정력을 다하여 온것이 아무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였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것이 현국면에 있어서 국제정세의 일반적 정경(情景)이다.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상태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적 사실을 고찰하는때로 넘어가자.

(1)、자본주의 여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공황의 행정

자본주의 여러나라에 있어서의 현하의 경제공황이 그와 유사한 모든 공황보다 다른 점은 취중 그는 가장 계속적이며 또한 가장 지구(持久)적인 그것이다. 이전의 공황들은 한 해나 두해동안으로 끝났다면 현하의 공황은 해마다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경제를 황폐케하면서 또한 그경제에서 지나간 여러해동안에 저축된 기름(脂肪)을 빠라내면서 그것이 벌써 다섯해동안이나 계속되어간다. 이 공황이 모든 공황중에서 제일 심한 공황인 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다.

현재의 공업공황의 일적 보지못하던 이 지구성(持久性)을 무엇으로써 설명할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공황이 자본주의적 여러나라를 하나도 제외하지않고 모두 다 포괄하였음으로 한편의 몇개 나라가 다른편의 몇개나라를 희생시켜서 채동할수가 없게 만든것으로써 설명된다.

둘째로, 이것은 공업공황이 농업국 및 반(半) 농업국을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다 포괄한 농업공황과 열키어 그것이 공업공황을 더 복잡하게 하며 또한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설명된다.

셋째로, 이것은 그동안에 농업공황이 강화되었으며 농업의 모든 부문을, 그중에는 목축업(牧畜業)도 합쳐서, 모조리 포괄하였고 그리하여 농업을 퇴화(退化)에까지 즉 기계를 사용하던 것으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는 데로 넘어가기에까지, 또 락도르를 말(馬)로 바꾸어 농기에까지, 인조비료(人造肥料)의 사용을 꽤 많이 축소하거나 혹은 영영 사용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 함으로 그것이 공업공황을 한층 더 지구(持久)하게 한 것으로서 설명된다.

넷째로, 이것은 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독점(獨占)적 카르텔들이 상품의 고등(高騰)한 가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으로서 설명되나니, 이것은 공황을 특히 격심하게 만들며 또한 재고품(在庫品)이 팔리지 못하게 하는 자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 그런데 이것은 주되는 것이다 — 자본주의가 주요한 여러나라에 있어서나 또한 여러 식민지 및 애국에 있어서 전쟁전과 十月혁명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실력과 전고성을 이미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가질 수도 없게 된 때이며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공업이 제국주의 전쟁의 유산(遺産)으로서 기업소의 만성적 조업 부족(操業不足)과 수백만의 실업군을 받았는바 이미 그 형편에서 벗어나날 수 없는 때인 자본주의의 일련적 위기의 환경 아래에서 공업공황이 터진 그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원하의 공업공황의 심각한 지구성을 규정한 여러가지 정세인 것이다.

공황이 생산 및 상업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용대부의 채제와 위체(爲替)와 채권채무(債權債務) 및 기타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각나라사이에나 또한 각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적 그루빠들사이에나 전통(傳統)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 사실도 역시 이러한 사정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상품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놀았다. 독점적 카르텔들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의 하락은 자연성장적 세력으로 심하여졌는데 이에 있어서는 조직되지 못한 상품소유자들인 농민, 수공업자, 소자본가들의 상품 가격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더 떨어졌으며 그리고 조직된 상품소유자들인 카르텔에 연합된 자본가들의 상품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또는 비교적 적은 정도로 떨어졌을 따름이었다. 가격의 하락은, 채무자(공업자, 수공업자, 농민 및 기타)들에게는 전대어벌수없는 처지를 만들어 놓았으며 그와 반대로 채권자들은 도리어 전례없는 특권적 지위를 가지게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당연히 여러회사와 개개의 기업가들로 하여금 막대한 파산을 당하게 하지않을수 없었으며 또 사실상 파산(破産)시켜버렸다. 거기에 기인(基因)하여서 최근 三개년 동안에 미국, 독일, 영국, 불란서에서 수만의 주식회사(株式會社)가 파산되었다. 주식회사들이 파산당하는것을 위따라서 위체시제가 폭락(暴落)되었다. 그것은 채무자들의 처지를 얼마쯤 완화(緩和)시키었다. 위체시제가 폭락되는데 위따라서 대외 및 대내의 부채(負債)를 감지않는것을 국가에서 합법화 시켜버렸다. 독일의 다름쾨트트은행 및 드레스덴 은행과 오지리의 크레디트-안스탈트 은행과같은 그러한 여러은행이 파산당한것과 서전의 크

때이거로 문제론과 미국의 인술—문제론들과 같은 그러한 문제론들이 과산당한것은 일반이다. 아는바이다.

신용대부제제의 기초를 흔들어놓은 이러한 현상에 뒤이어서 신용대부 및 대외 차관에 대한 지불(支拂)을 정지하는것, 동맹국사이의 부채에 대한 지불을 정지하는것, 자본의 수출(輸出)을 정지하는것, 대외무역이 새로 더 축소되는것, 상품의 수출이 새로 더 축소되는것, 국외시장을 열기위한 투쟁이 강화되는것, 여러나라 사이의 상업전쟁과 단빙(投賣)이 당연히 생기게되었던것이며 또 사실상 생긴것은 가히 리해할만한 일이다. 동지들, 참으로 단빙을 한다. 내가 말하는것은, 방금 얼마전까지도 구라파 빛 아메리카의 고귀(高貴)한 여러국회에서 고귀한 대의사들이 목이 쉬기까지 떠드려내던 가공적(架空的)인 쏘베트 단빙에 대한 말이 아니다. 나는 모든 「문명한」국가들이 지금 거의 다 실행하고있는 진정한 단빙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단빙에 대하여서는 용감(勇敢)하고도 고귀한 그 대의사들은 지혜스럽게도 침묵(沈默)을 지키고있는것이다.

생산 영역의 밖에서 터져서 공업공황과 동반하여가는 이 파괴적 현상들은 따라서 공업공황을 심각하게하며 복잡하게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공황의 진행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않을수없는것도 또한 가히 리해할만한 일이다.

이러한것이 공업공황의 행정의 일반적 전상이다.

아래와같은 공식 재료중의 약간의 숫자는 보고기간에 있어서의 공업공황의 행정들도 해(圖解)하여 주는것이다.

一九二九년에 비한 공업생산고의 백분율(%)

	一九二九년	一九三〇년	一九三一년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쓰런	一〇〇	一二九・七	一六一・九	一八四・七	二〇一・六
미국	一〇〇	八〇・七	六八・一	五三・八	六四・九
영국	一〇〇	九二・四	八三・八	八三・八	八六・一
독일	一〇〇	八八・三	七一・七	五九・八	六六・八
불란서	一〇〇	一〇〇・七	八九・二	六九・一	七七・四

보는바와같이 이 일람표는 정세를 명료히 말하여준다.

주요한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공업은 一九二九년의 수준에 비하여 해마다 떨어져오다가 겨우 一九三三년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 회복하기 시작하지마는 그래도 一九二九년의 수준에 달하기는 아직도 멀고있는데에 쓰런의 공업은 끊임없이 향상되는 행정을 지나면서 해마다 자라나고있었다.

주요한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공업은 一九三三년말에 이르러 그의 생산고가 一九二九년의 수준에 비하여 평균 二五% 또 그이상 축소된것을 보고있는데에 쓰런의 공업은 그 동안에 두배이상, 즉 一〇〇%이상이나 더 자라났다. (박수).

이 일람표에 의하여보면 자본주의적 네(四)나라중에서 영국이 가장 나은 형편에 처하여있는듯이 보일런지도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것이 아니다. 만일 이 여러나

라의 공업을 들어 그의 전쟁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본다면 상해는 얼마쯤 달라지는 것이다.

그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다.

전쟁전 수준에 비한 공업생산고의 배분률(%)

	1913년	1929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소련	100	194.3	252.1	314.7	359.0	391.9
미국	100	170.2	137.3	115.9	91.4	110.2
영국	100	99.1	91.5	83.0	82.5	85.2
독일	100	113.0	99.8	81.0	67.6	75.4
불란서	100	139.0	140.0	124.0	96.1	107.6

보는바와같이 영국 및 독일의 공업은 아직까지도 전쟁전의 수준에 달하지 못하였으나 미국 및 불란서는 전쟁전의 수준보다 몇퍼센트를 높이고, 소련은 그동안에 자국의 공업생산고를 전쟁전의 수준에 비하여 290% 이상을 더 향상시키고 증가시켰다. (박수).

그런데 이 일람표에 의하여서는 또 한가지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주요한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공업은 1930년부터, 특히 1931년부터 시작하여 1932년에 그 최저점에 이르기까지 항상 떨어져 왔던데 1933년에 와서는 그것이

얼마쯤 회복되며 또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一九三二년과 一九三三년의 매월 통계를 들 어본다면 그는 이 결론을 더욱 더 확증(立證)하여 준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통계들은 그 여러나라의 공업이 一九三三년 동안에 그 생산고에 고저(高底)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저가 一九三二년 여름에 있었던 최저수준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추세(趨勢)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보전대 주요한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공업은 이미 최저점을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업은 一九三三년 동안에 더는 그 최저점에로 다시 내려간 일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전적으로 전지(戰時) 인플레이경기(景氣)와 같은 여러 가지 인위(人爲)적 동인(動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이에 있어서 전지인플레이경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행하는 것은 의심없는바이다. 이것은, 인위적 동인이 약간의 공업부분 주로 군수품공업부분에 있어서의 얼마쯤한 활기의 주되는 또한 결정적 힘이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특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전지인플레이경기로써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일 것이다. 내가 특징적(特徵的)으로 지정한바의 공업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동은 개별적으로 되는 또 우연히 취한 구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혹은 거의 모든 공업국가에서, 그중에는 통화가 안정되어 있는 여러나라에서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설명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전지인플레이경기와 아울러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내부적 경제력도 또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강도(強度)를 더 증대(增大)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착취를 더 강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노동자들을 회생시킴으로써, 자작농들의 노동의 생산물의 가격 즉 식료품 및 부분적으로는 원료(原料)의 가격을 최저한도로 내주는 정책을 실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작농들을 회생시킴으로써, 식민지와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의 농민들의 노동의 생산물, 주로 원료와 그 다음에는 식료품의 가격을 더욱 심하게 떨어트리는 방법에 의하여 식민지와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의 농민들을 회생시킴으로써, 농업의 상태를 얼마큼 완화시키어내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은 공황이 보통있는 테프레이손 즉 농업의 새로운 향상과 번영(繁榮)을 위하라 이르는 테프레이손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당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일까?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어쨌든 현재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에 있어서 농업의 향상이 다쳐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표시할만한 그러한 재료는 없다. 그러할뿐만 아니라, 모든것을 본다면 그러한 재료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있을수없는것이 다. 왜 있을수없는가하면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농업으로 하여금 다소간이라도 신중하게 상충하지 못하게하는 그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계속작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계속되어가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그정세하에서 경제공황이 진행되어가는 그 일반적 위기에 대하여, 여러기업소의 만성적 조업부족에 대하여, 만성적인 대중적 실업에 대하여, 농업공황과 농업공황이 일으켜진때 대하여, 보통 향상이 다쳐올것을 예고(預告)하는바의 기본자본의 다소간이라도 그렇다고할만한 갱신(更新)의 경향이 전혀 없는것 등등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공업의 최저점으로부터, 공업공황의 최심각점(最深刻點)으로부터 데프레이손에로, 그러나 보통있는 데프레이손이 아니라 공업의 새로운 향상과 번영을 이룩키지도 못할지언정 그 공업을 최저점으로 떨어트리지도 않는 그러한 특수한 종류의 데프레이손에로 넘어가는 상태를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일이다.

(2)、자본주의 여러나라에 있어서의 정치정세의 첩예화

지구적(持久的)인 경제공황의 결과로는 자본주의 여러나라의 정치정세가 그 나라들의 내부에서나 또 그들의 호상간에 있어서나 일적이 없던 정도로 첩예화된 그것이다. 국외시장들을 얻기위한 투쟁이 강화되는것, 자유무역을 최후잔재까지 없애는것, 금지적 관세(禁止的關稅)、상업전쟁、위체(爲替)전쟁、단방(投賣)및 이에 유사한바의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극단의 민족주의를 표명하는 기타 많은 대책은 여러나라사이의 관계를 극단으로 첩예하게 하였으며 군사적 충돌의 지반을 만들어 주었으며 또는 보다더 강한 국가에 유리하도록 세계와 세력범위를 새로 재분할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일정(日程)에 내세웠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만주점령、국제련맹으로 부터의 일본의 탈퇴、일본의 북부 중국에로의 진출(進出) 등은 정세를 더욱 더 날카롭게 하였다. 태평양에 대한 정패전이 강화되는것과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에 있어서의 해군의 군비가 확장되는것은 이 첩예화의 결과인것이다.

국제연맹으로부터의 독일의 탈퇴와 복수의 환상(復讐의幻想)은 구라파의 정세를 날카롭게 하는데 군비를 확장하는데 새충동을 주었다.

부르조아적 평화주의의가 지금에는 가련(可憐)한 존재를 간신히 유지하고있으며 그리고 군비를 축소하는데 대한 공담은 무장한다는것과 완비(完備)하게 무장한다는데 대한 「실무적(實務的)」 담화로 바꾸어지는것은 이상히 여길것이 없는일이다.

또다시 一九一四년과같이 호전적(好戰的) 제국주의의 정당들, 전쟁 및 복수를 하려는 정당들이 전면에 나서고있는것이다.

사태는 확연하게 새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의 내부적 형세도 역시 그 여러가지 동인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날카롭게 되어간다. 공업공황의 四개년은 로동계급을 피폐(疲弊)케하였으며 그리하여 질망에까지 이르게하였다. 농업공황의 四개년은 주요한 자본주의적 여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특히 예속국 및 식민지 나라들에서도 무산농민층을 여지없이 파산시켜버렸다. 실업자들의 수효를 주려 발표하려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온갖 통계상의 홍계(凶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 기관들의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들의 수효는 구라파의 다룬 나라들에 대하여는 이미 말하지않더라도 영국에 있어서는 三백만, 독일에 있어서는 五백만, 미국에 있어서는 一천만에 달하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에 수천만이상의 수효가되는 부분적 실업자까지를 첨가(添加)하고 파산된 수백만의 농민대중을, 첨가한다면 여러분은 근로자대중의 궁핍 및 질망의 상태의 대개의 전상을 볼것이다. 인민대중은 자본주의를 전격하러 나아가게까지는 아직 되지않았으나 그러나 전격

하더라도 자상이 대중의 의식(意識) 속에서 성숙되고 있다는 것——여기에 대하여서는 의심할 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하여서는 과시즘의 통치물 전복하여 버린 서반아의 혁명, 중국 부르조아지와 외국 부르조아지의 연합된 반혁명이 중지시켜 내지 못하는 중국에 있어서의 여러 소비에트구역의 장성과 같은 이러한 사실만 하여도 웅변적(雄辯的)으로 말하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여러 나라의 지배계급들은 압박자들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에 있어서 로동계급이 리용할 수 있는 국회제도(國會制度) 및 부르조아적 민주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애써 없애 버리거나 혹은 유야무야하게 만들며 공산당을 지하로 몰아넣으며 그리하여 자 그들의 독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테로 방법을 취하여 가는 그 사실은 말하자면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대외정책의 기본적 요소로서의 배외주의 및 전쟁준비, 장래의 전선의 후방을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쓰는 국내정책의 영역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에 대한 진압(鎮壓)과 테로——이와 같은 데 대하여 지금에 있어서 현대의 제국주의적 정치가들은 특히 몰루(沒頭)하고 있다.

과시즘이 지금에 있어서 호전적 부르조아 정치가들의 사이에 가장 유행되는 상품이 된 것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는 바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과시즘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독일식의 과시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과시즘을 민족사회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왜 그리나 하면 아무런 치밀(緻密)하게 분석하여 보아도 거기에서는 심지어 사회주의의 원자 하나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의 파시즘의 승리는 노동계급의 약한 정조와 또는 파시즘에 길을 닦아준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 변절(變節)한 결과로만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승리는 또한 부르조아지의 약한 정조로, 부르조아지가 이미 국제제도 및 부르조아적 민주주의의 낡은 방법으로써는 통치하여 낼 수 없게 된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국내정책에 있어서 때로 적 통치방법을 이용하게 된 정조로, 부르조아지가 평화적 대외정책의 토대위에서는 현하의 정세로부터 벗어날 길을 더는 찾아낼 수 없게 된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전쟁의 정책을 이용하게 된 정조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정세는 이와 같이 되어있다.

보는바와 같이 사태는 현하의 정세로부터 벗어어나갈 출로로서의 새 제국주의 전쟁에 나아가고 있다.

물론, 전쟁이 진정한 출로를 출수있으리라고 예상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도리어 전쟁은 반드시 정세를 더욱더 혼란시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은 제 1차 제국주의 전쟁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와 같이 반드시 여러나라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며 그리하여 그 여러나라에서는 자본주의의 존재 그것을 의문(疑問)에 부쳐놓을 것이다. 그런데 제 1차 제국주의 전쟁에 서 얻은 경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 정치가들은 그래도 물에 빠지는 자가 겹오라기라도 끌어잡는 것과 같이 전쟁을 끌어잡는다면 이것은 그들이 영영 혼란(混亂)에 빠진 것이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며 쓴살처럼 심연에 빠져드러가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부르조아적 정치가들의 사이에서 책동되는 전쟁의 계획안들을 간단하게 고찰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때에서는 대강국중의 한나라에 반대하여 전쟁을 조직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한때강국을 여지없이 참패(慘敗)시키고 그리하여 그를 회생시킴으로써 자기들의 형편을 바로잡으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와같은 전쟁을 조직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무엇이 생길것인가?

일반이 아는바와 같이 제1차 제국주의전쟁 당시에도 역시 대강국중의 한나라 즉 독일은 박멸하고 그덕에 살아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는 무엇이 생겼는가? 그들은 독일을 박멸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전승국들에 대한 어찌도 심각한 증오심을 독일에 부식시켰으며, 복수에 대한 어찌도 풍부한 지반을 만들어주어 지금까지도 그들 자신이 저지려놓은 그 구역중이나는 지저분한 일들을 없애버리지 못하였으며 또는 아마도 그리 속히 없애버리지 못할것같다. 그러나 그대신에 그들은 로찌야에서의 자본주의의 파멸을 얻었으며 로찌야에서의 프로테타리아혁명의 승리를 얻었으며 따라서 — 당연한 귀결로서 — 쏘련을 얻었다. 제2차 제국주의전쟁이 그들에게 제1차 전쟁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 있는가? 정반대되는것을 예상하는것이 더 옳지않을까?

다른 한때에서는 군사적 면에 있어서는 약하나 그러나 시장이라는 점에서 는 광대한 나라중의 하나에 대하여 — 제하면 중국과같은 즉 그들의 전지로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라고 칭할수없고 한갓 「비조직적 영토(非組織的領土)」임으로 강한 국가들이 그것을 점령하는것을 요구하고있다는 그런 나라에 반대하여 전쟁을 조직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마도 그나라를 끝까지 분할하고 그리하여 그물 회생하여가지고 자기들의 형편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들이 이와같은 전쟁을 조직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무엇이 생길것인가?

十九세기

초엽에

지금 중국에

대하여

판찰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태리와 독

일에 대하여

판찰하였던 것이니

다시 말하면

그 나라들을

국가로 간주하지 않고

「비

조직적 행동들」로

간주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나라들을

노예화하려하였던 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그런데

그로부터는

무엇이

생겼는가?

그로부터는

바와같이

독일 및

이태리의

독립을

위한

전쟁과

결성이

생겼던 것이다.

이로부터는

그 나라들의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키가게하였는바

그 증오심의

결과들은

지금까지도

아직

는

아마

속한기간에

청산되지

못할 것이다.

물노니

파에

있어서

역시

그와같은것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에

받대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슬라브족에

반대하여

다만

이와같은

전쟁만이

현하의

정세로부터

벗어져날

러나

하면

「고급인종」은

「하급인종」을

계발(啓發)하며

통치할

이라고

한다.

하늘이

땅에서

먼저

과학과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이

피상한

리론을

실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아는바이다. 그런데——우리들끼리니 말이지——옛적 로마는 그리할 약간의 근거를 가지었거니와 현재의 「고급인종」의 대표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렇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우. 외. 같은 박. 수.)。 그런데 그로부터는 무엇이 생기었는가? 비로마인들 즉 모든 「야만들」이 공통적 적(敵)에 반대하여 연합되어가지고 벽력(霹靂)치듯이 로마를 들어쳐엮은 그것이 생겼다. 물거니와 현재의 「고급인종」의 대표자들의 참망(僭望)이 그와같은 비참한 결과에 이르지않게되리라라는 담보는 어디에 있는가? 백립에있는 파시스트문필가이며 정치가들이 옛적의 로마의 시련된 정복자들보다 더 행복스러우리라는 담보는 어디에 있는가? 정반대되는것을 예상하는것이 옳지않을까?

마지막으로 넷째 패들은 소련에 반대하여 전쟁을 조직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련을 박멸하고 그의 형로를 분할하고 그리하여 그를 희생하여 가지고 리득을 보려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어떤 군벌측들만이 이렇게 생각한다 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구라파의 어떤 국가들의 정치적 지도자들측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을 짚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이다. 이 선사들이 말로부터 실행에 넘어갔다고 가정하자. 이로부터는 무엇이 생길수 있는가?

그 전쟁이 부르조아에게 대하여 가장 위험한 전쟁이 되게 될 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 전쟁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될 것은 소련의 제인민이 죽기를 무릅쓰고 혁명의 전위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인 까닭만이 아니다. 그 전쟁이 부르조아에게 대하여 가장 위험한 것이 될 것은 또한 그 전쟁은 전선(戰線)에서 뿐만 아니라 적(敵)의 후방에 서도 진행될 것인 까닭이다. 부르조아지는, 구라파 및 아세아에 있는 소련의 로동계급의 무수한 벗들이 전세계 로동계급의 조국에 반대하여 범퍼적 전쟁을 안출(案出)하여 낸 자기

나라의 압박자들의 배후를 습격하기에 노력하게 될것은 의심할바가 없을것이다. 그리하여 부르조아 신사배들은, 만일 이와같은 전쟁의 그 이튿날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현재에 무사하게 지배하고있는 몇개의 그들에게 가까운 정부의 수효가 주러지게된다하더라도 우리를 원망하지말라고 하여라. (회상같은 박수).

회상(回想)하여 본다면 쏘련에 반대하는 이와같은 전쟁이 十五년전에 이미 하다가 있었던것이다. 일반이 아는바와같이 극히 존경받는 처칠은 그때에 이전쟁을 「十四개 국가의 출정」이라고 지적(詩的)으로 표현하였던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그 전쟁이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모든 힘을 다하여 자기의 로농조국(勞農祖國)을 외적으로부터 수호(守護)한 헌신적 투사들의 통일된 진영으로 단결하게 한것을 기억하는것이다. 여러분은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다는것을 아는바이다. 그 전쟁은, 우리나라로부러 무장간섭자들을 내쫓았고 구라파에서 혁명적 「행동위원회(行動委員會)」들이 조직된것으로써 끝났던것이다. 쏘련에 반대하는 제2차 전쟁은 그 침범자들로하여금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게할것이며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게할것이며, 그 나라들의 부르조아—지주적 정부들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할것은 의심할것도 없는바이다.

이와같은것이 혼란에 빠진 부르조아정치가들의 전쟁계획이다.

보는바와같이 그 계획들은 지해롭지도, 용기롭지도 못한것이다. (박수).

그런데 만일 부르조아지가 전쟁의 길을 취하고있다면 四개년동안의 공황과 실업으로 말미암아 절망적 상태에 이르게한 자본주의적 나라들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길에 나서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혁명적 위기가 성숙하여가며 또는 계속 성숙하게되려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리하여 부르조아지가 그들의 군사적 기도에 있어서 더 착종(錯綜)될수록, 그들이 로동계급 및 근로농민들에 반대하여 투쟁하는데 테로적 방법을 더욱 자주 쓰게 될수록 혁명적 위기는 더욱 추하게 장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이미 혁명적 위기가 도래(到來)하였으므로 부르조아지는 출로없는 형편에 반드시 빠질 것이며 그리고본즉 그의 말로(末路)는 이미 예정된 것이며 혁명의 승리는 그것으로써 벌써 보장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은 다만 부르조아지가 몰락되는 것을 기대하고만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승리적 결정서를 작성할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심한 오해이다. 혁명의 승리는 언제든지 저절로 오는 법이 없다. 그 승리를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전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며 또 전취할 능력은 오직 힘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에만 있는 것이다. 정세는 혁명적이며 부르조아지의 주권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혁명의 승리는 오지 않는 모멘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중을 평술하고 그리하여 주권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掌握)할 만큼 충분히 힘있고 권위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이 목하에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치 못한 생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산당의 제2차 콩그레쓰에서 혁명적 위기에 대하여 레닌이 말한 그의 예언적인 말씀들을 상기하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혁명적 행동의 기초인 혁명적 위기에 대한 문제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어서는 멀리 떨어진 두가지 요인을 무시보라도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르조아적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별

국가사람들의 미묘(美妙)한 표현에 의하여 단순한 「불안(不安)」이라고 묘사(描寫)한다. 다른면으로는 간혹 혁명가들은 위기가 절대로 벗어어나갈 길이 없는 것이라고 증명하기에 애를 쓰고있다. 이것은 오탁이다. 절대로 벗어 나갈길이 없는 상태라고는 없는 법이다. 부르조아지는 포악한, 미친 야수(野獸) 모양으로 행동한다. 그는 어리 석은 행동을 거듭하면서 정세를 침에화(尖銳化)시키며 자체의 멸망을 촉진시키고있다. 이것은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부르조아지가 피착취자들의 어떠한 소수에게 어떠한 소소한 양보를 하며주는 것으로써 그들을 마취시키지 못한다면 나그가 피압박자들 및 피착취자들의 어떠한 부분의 어떠한 운동 혹은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리라고는, 아무런 가능성도 절대로 없다고는 「증명」하지 못하는것이다. 「절대적으로」 벗어어나갈길이 없다는것을 미리 다만 실천(實踐) 시도하는것은 공허한 현학적(衡學的) 행위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념과 말에 대한 착란일것이다. 전세계에서 매우 거대한 혁명적 위기를 체험하고있다. 지금에 있어서는 성과있게 승리적으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위기를 리용할만하게 충분한 자각성, 조직성, 결단성, 능력, 피착취적 대중과의 연락(聯絡) 등이 혁명적 당들에게 있다는것을 그 혁명적 당들의 실천으로써 「증명」하여야 할것이다」(제二五권 三四〇—三四一페이지)。

(3)、조선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이처럼 군사적 기도의 독소(毒素)로 중독된 이 분위기(霧圍氣)속에서 조선이 자체의 평화정책을 실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는 쉽게 리해할수있는것이다。

여러나라를 망라(網羅)한 미처나달리는 이 전쟁직전(戰爭直前)의 정세에서 조선은 전쟁의 위험과 투쟁하면서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어쨌든 평화의 유지를 찬성하는 나라들과 호응하여 나아가면서, 전쟁을 준비하며 그것을 선동(煽動)하는자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평화적 진지에 른른하게 또한 동요함이 없이 서고있었다。

조선은 평화를 위한 이 노력고도 또한 복잡한 투쟁에 있어서 무엇에 의거하였는가?

(1)、자체의 창성하여가는 경제적 및 정치적 세력에 의거하였으며、

(2)、평화를 보전하는 데 대하여 혈육(血肉)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

라의 로동계급의 수백만대중의 정신적 지지에 의거하였으며、

(3)、그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 평화의 파괴를 리익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조선과 같

은 이러한 정직한 상대방자와 무역관계(貿易關係)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현

명(賢明)에 의거하였으며、

(4)、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하여 나라를 방어하기에 준비되고있는 우

리의 영예스러운 군대에 의거하였다.

민접(隣接)한 국가들과의 불가침조약, 칠락자 규정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기위한 우리

의 잠빠니야는 이 토대우에서 생겼었다. 여러분은 이 잠빠니야가 성과를 얻은것을 다 아

는바이다. 일반이 아는바와같이 불가침조약은 분란과 파란까지 넣어서 서방(西方)과 남

방에 있는 우리의 민접국가들의 대다수만이 아니라 또한 불란서와 이태리와같은 그러한

나라들과도 체결되었으며 칠락자 규정에 대한 조약은 소(小)련합국들까지 합쳐서 이상에

떨거한 우리의 민접국가들과 체결되었다.

역시 이 토대우에서 조선과 토이기사이의 친선관계가 튼튼하여졌으며 조선과 이

태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고 또한 물론 만측하게되었으며 불란서와 파란과 및 기타

발틱해안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며 미국, 중국 및 기타와의 관계가 회복

되었다.

조선의 평화정책의 성과물을 반영(反映)하는 여러 사실중에서 물론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두가지 사실을 지적하여 따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一)、첫째로, 나는 조선과 과란과의, 조선과 불란서와의 사이의 관계가 최근에 와서 좋은 편으로 전환된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반이 아는바와같이 우리와 과란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였던것이다. 과란에서는 우리국가의 대표자들을 여러번 살해하였다. 과란은 그 자체를 조선에 반대하는 서양제국가의 아성(牙城)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또한 온갖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하여 무력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과란을 선봉대로 할것을 타산하고있었다. 조선과 불란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태가 더 나지 못하였다. 조선과 불란서와의 호상관계에 대한 진상을 회상하기 위하여서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해독분자(害毒分者) 람진의 그루빠에 대한 재판의 역사중의 사실을 상기만하여도 충분할것이다. 그런데 이 좋지 못한 관계들은 차츰 차츰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 관계들은 친근하여지는 관계라고밖에 이름할수없는 별개의 관계들로 바꾸어진다.

비록 조약자체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이 나라들과 불가결조약을 체결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호상간의 불신심으로 물들었던 분위기가 풀여지기 시작하는때 있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 보이는바 친근되어지는 과정을, 사태의 최후의 성공을 보장하리만치 충분히 토론한 과정이라고 관찰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정책의 돌연성(突然性)과 굴곡성(屈曲性)은 해를들면 반(反)조베트적 기분이 아직도 심한 과란에 있어서는 도저히 제거(除去)된것으로 간주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의 그의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가지 관계가 나아지는 데로 전환하여가

는 것은 평화의 사업이 개선되는데 대한 동인(動因)으로 그것을 지적하며 앞에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한개의 사실이다.

이 전환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동기로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쏘련의 실력과 위력이 장성하는 것을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약한 자들과는 대등지(對等視)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다만 강한 자들과만 대등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일에 있어서 북수적 및 제국주의적 기분의 증장을 반영하는 독일 정책에서 생긴 몇가지 변동들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독일 정치가들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쏘련이 지금에 와서는 불란서와 파란에 의거하는 방향을 정한다고 하며 쏘련은 웰사이유조약의 반대자이던 것이 그의 찬성자가 되었다고 하며 이 변동을 독일에 있어서 파시스트적 통치가 수립된 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물론 우리는 독일에서의 파시스트적 통치를 환희(歡喜)하기까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러나 레를들면 비록 이래리에서의 파시즘이 쏘련이 그나라와 최선의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지 않았던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에 있어서 문제는 파시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역시 웰사이유조약에 대한 우리 태도의 그 가상적(假想的)인 변동에 있는 것도 아니다. 브레스트강화의 수치를 체험하여본 우리가 웰사이유조약을 찬미할 리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 조약 때문에 세계가 대전쟁의 심연(深淵)에 빠지게 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따름이다. 쏘련의 그 가상적인 방향 전환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독일편으로 방향을 정한 일도 없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파란과 불란서에 의거하는 편으로 방향을 정하는 일도 없

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도 쏘련, 오직 쏘련에만 의거하는 편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갔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쏘련, 오직 쏘련에만 의거하는 편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우뢰같은 박수갈채). 그리하여 만일 쏘련의 리해관계가, 평화의 파괴를 요망(要望)하지 않는 이 나라들이나 혹은 저 나라들과 접근할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니다, 문제는 이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독일의 정책이 변동된데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현재의 독일정치가들이 주권을 잡기전과 특히 그들이 주권을 잡은후에 독일에 있어서는 정치적 두(二)계선 사이에 즉 쏘련과 독일과의 일반이 아는 조약에서 반영을 얻은 이전 정책과, 또한 한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발티해안의 나라들을 출정의 책원지(策源地)로 변환시켜가지고 케닌그라드를 습격하였던 이왕의 독일 카이제르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새」정책과의 사이에 루쟁이 시작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정책은 분명히 이전 정책을 이기어나간다. 「새」정책의 인물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세(優勢)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책의 찬성자들이 인망(人望)을 잃은 자들로 된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간주할수 없는것이다. 또한 론돈에서 한 후견베르그의 일반이 아는 연설도 우연한것이 아니며 그보다 못하지않게 세상이 아는바의 독일의 통치당들의 대외정책의 지도자인 로젠베르그의 성명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연한것이 아니다. 동지들, 설상인즉 문제는 이에 있는것이다.

(二)、물제로, 나는 쏘련과 미국과의 정상적(正常的) 관계가 회복된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이 국제관계의 전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은 의

심할것이 없는바이다. 문제는, 이 사실이 평화보전의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며 두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며 두나라 사이의 무역관계를 튼튼케하며 호상협동의 로대를 만들어 주는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여러나라에서 미국을 온갖 반(反)쑤베트 경향의 아성(牙城)으로 간주하던때의 옛것과 두나라에 서로 유익하게 그 아성이 자발적(自發的)으로 앞질에서 제거된때의 새것과의 사이에 이 사실이 분기점(分岐點)을 지어놓는데 있는것이다.

이와같은것이 쑤베트 평화정책의 성공을 반영하여주는 두개의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보고기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것은 옳지못한것이다.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것은 도무지 아니다.

영국이 우리의 수출품에 대하여 금지책을 쓴것, 우리의 국내정책에 간섭하여 이에 서 우리를 주물러보려던 시도도 그리하여 우리의 대항력을 시험하여 보여던것등의 그 영국의 강압적 행동만이라도 상기하여보라. 사실, 그 시도로부터 아무것도 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그 금지는 그후에 제거되었으나 그러나 이 습격에서 생긴 아픔답지못한 여독(餘毒)은 통상조약에 대한 교섭까지도 통트러넣어서 영국과 쑤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에서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있다. 그런데 쑤련에 대한 습격은 우연한것으로 간주할수 없는것이다. 영국보수당의 일부가 이와같은 습격을 일으키지 않고는 살수없는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그리하여 실로 그 습격이 우연한것이 아닌 까닭에 앞으로 쑤련에 대하여 습격하게 될것이며, 각종의 위협을 지어내게 될것이며 쑤련에 해를 주게될것등이라는것을 우리는 반드시 라산하여야 할것이다.

소련과 일본과의 관계도 역시 년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인바 그 관계는 선중한 개
 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련보다 못하지 않게 일본에도 필요한 불가침 조약의 체결을 일본이 거
 절한 것은 호상관계에 있어서 다 좋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한번 더 지적하는 것이
 다. 중동철도(中東鐵道)에 대한 교섭이 중단(中斷)된 것——이것은 소련의 허물에 의하여
 서가 아니다——또한 일본의 앞잡이들이 중동철도선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중동철도선에서 일하는 소비에트인 사무원들을 무법하게 점거하는 것 및 기타에 관하여서 도
 그와 같은 것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군벌중의 일부가 다른 일부의 명확한 찬동하에
 서 소련과의 전쟁 및 연해주 점령의 필요를 출판물에서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일
 본 정부는 전쟁의 방화자들에게 경계할 대신에 그런 행위는 정부에 관계되지 않는 것인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나는 이미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세가 불안(不安)
 과 불신(不信)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평화정책을 꾸준히 실행할 것이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성
 취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관계들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와 동시에 우리나라를 의외의 사건으로부터 막으며 또한 우리나라를 공격으로부터 수호(守
 護)하기에 준비되어 있도록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익결은 박수.)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평화정책의 성공과 함께 여러가지 부정적 현상도 가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소련의 대외정세이다.

우리의 대외정책은 명백한 것이다.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며 또한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를 더 힘있게 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소련은 누구에게 대하여든지 위협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침공하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평화를 옹호하며 또한 평화의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한 전쟁 방화자들의 공격에 대하여는 공격으로써 대답하기에 준비되고 있다. (우.외.같은 박수). 평화를 원하며 우리의 실무적(實務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는 언제든지 우리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앞으로 그 왜지의 주동이를 우리의 조베트채원(菜園)으로 드리미지 못하리만큼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외.같은 박수).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대외정책이다. (우.외.같은 박수).

임무는 앞으로 이 정책을 아주 현실성 있게 또는 철저하게 실시하여 가는 데 있는 것이다.

二、소련인민경제의 계속되어 가는 향상과 국내정세

소련의 국내정세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다.

소련의 국내정세의 전지로 보아서 보고기간은 인민경제의 형역에 있어서나 또한 문화의 형역에 있어서나 다 일층 더 전개되어 가는 향상의 정경(情景)을 나타내고 있다.

이 향상은 다만 려량의 단순한 량적 추적만이 아니었다. 이 향상은 그것이 소련의 구조(構造)를 원칙적으로 변경하였으며 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써 현저한 것이다.

조선은 이 시기 동안에, 뒤떨어졌고 또 중세기(中世紀)적이던 외모를 내버리고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그는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되었다. 그는 소규모적 개인경영의 농업국으로부터 대규모적이며 기계화된 집단적 농업국이 되었다. 그는 몽매(矇昧)하고 문맹(文盲)하고 또한 문명치못하던 나라로부터 조선의 각 민족의 말로써 교육하는 평창히 많은 데, 중, 소학교망(網)으로 덮이운 유식하고 또한 문명한 나라가 되었다——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나라로 되어간다.

새 생산부문들이 조성되었다. 즉 공작기계제조공업, 자동차공업, 트랙터공업, 화학공업, 발동기(發動機)제조공업, 비행기제조공업, 고무인제조공업, 강력(強力)한 다방 및 발전기(發電機)생산, 고급장철생산, 합금제조업(合金製造業), 합성(合成)고무제조업, 질소(窒素)생산, 인조섬유(人造纖維)생산 등등이 그것이다.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된다.)

이 시기 동안에 완전히 혁신적으로 된 수천의 새 공업기업소들이 건설되었으며 또 취업되었다. 즉 드네프로스트로이, 마그니토스트로이, 푸즈넛스크스트로이, 첼랴브스크스트로이, 보브리끼, 우랄마스트로이, 크람마스트로이 같은 대기업소들이 그것이다. 수천의 구식(舊式)기업소들은 새 기술을 토대로하여서 개조되었다. 조선여러 민족공화국과 여러번강지방 즉 백로짜야, 우크라이나, 북캅카스, 후캅카스, 중앙아제아, 카자흐스탄, 부랴트-몽고, 따타리아, 바스끼리아, 우랄, 동부 및 서부시비리, 극동등등에는 여러 새 기업소가 건설되었으며 또 공업의 근원지(根源地)들이 조성되었다.

二十만 이상의 팔호즈와 五천의 팔호즈가 조력되었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여러 새 구역 중심지 및 공업지와 아울러 설치되었다.

거의 황무지(荒蕪地)이던 자리에 수다한 주민이 사는 새 큰 도시들이 건설되었다.

남은 도시들 및 남은 공업지점들은 대단히 크게 자라났다.

꾸즈네즈크의 해탄용(骸炭用) 석탄과 우랄의 철광을 연결시키는 우랄—꾸즈네즈크 품비나트의 기차가 건설되었다. 이와 같이 되어 동부지방에 제철업의 새 근거지(根據地)를 만든다던 숙망(宿望)은 현실화(現實化)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우랄산맥의 서부와 남부의 지방에 있는 우랄주, 바스끼리아, 까자흐스탄에는 유력한 새 원유산지(原油產地)의 기초가 설치되었다.

보고기간에 국가에서 六백억루블 이상이 되는 거대한 기본자금을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투자(投資)한 것은 무위(無爲)로 돌아간 것이 아니며 벌써 그 결과를 나라 내기 시작하는 것은 확연한 일이다.

이 모든 성과로 말미암아 소련의 인민수입(收入)은 一九二九년에는 二백九十억루블이 되었던 것이 一九三三년에 와서는 五백억루블에 달하였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에 자본주의적 모든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인민수입이 심히 주저앉았다.

이 모든 성과와 이 모든 향상이 소련의 국내정세로 하여금 당연히 계속하여 튼튼하여지게 하여야 할 것이었음은——또 사실상으로 튼튼하여지게 하였음은——가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뒤떨어진 기술과 뒤떨어진 문화들 가진 광대한 국가의 지역 안에서 열매되지 않는 三—四개년 동안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천이 생길 수 있었는가? 이것이 기적이지 아닌가? 이것은, 발전이 만일 자본주의 및 소규모적 개인경영의 토대위에서 진행되었다면 기적이었

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이 전개되는 토대위에서 진행된것을 고려한다면 기적이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이 거대한 향상은,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의 토대위에서만, 수천만인의 공동적 로동의 토대위에서만, 자본주의적 및 개인농의 경제체제보다 우월(優越)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토대위에서만 전개될수있었던것임은 가히 리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보고기간에있은 소련의 경제 및 문화의 거대한 향상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청산하며, 개인농민경영을 뒤로 밀어내는것을 의미하는것임은 이상히 여길바가 없는것이다. 지금 공업형역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비중은 九九%가 되고 또 한 농업형역에 있어서는, 만일 립목과종면적을 말한다면 개인농민경영의 몫이는 전 부로 一五・五%가 되는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비중은 八四・五%가 되는것이 사실이다.

그러한즉 소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제는 벌써 청산되었으며 그리고 농촌의 개인농민경영 부분은 제이의적(第二義的)지위에 내밀리운것이다.

해닌은 신경제정책을 실시할때에 우리나라에는 다섯가지 사회—경제적 제도(制度)가 있다고 말하였다. 즉 (一)족장(族長)적 경제(대체로 거의 자연경제), (二)소규모적 상품생산(무물을 판매하는 농민의 대다수), (三)개인경영 자본주의, (四)국가자본주의, (五)사회주의가 그것이다. 해닌은 이 모든 제도 가운데에서 필경에는 사회주의적 제도가 당연히 우세를 점할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지금 첫째와 셋째 및 넷째의 사회—경제적 제도는 벌써 없어졌다고 말할수 있으며 둘째의 사회—경제적 제도는 제2의

적(第二義的)지위에 배밀리워갔고 다섯째의 사회—경제적 제도인 사회주의적 제도는 전 인민경제에 있어서 단독히 지배하는 또 유일하게 지휘하는 힘이 된다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최성갈은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된다.)

이러한것이 총결이다.

이 총결에 곧 조선의 국내정세의 전고성의 기초가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포위의 환경에 있어서 그의 전선(前線)과 후방(後方)의 강고(強固)성의 기초가 있는 것이다.

조선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정세의 개개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재로들을 고찰하는 데로 넘어가자.

(1)、공업의 향상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중에서 공업이 제일 빠르게 자라났다. 보고기간에, 다시 말하면 一九三〇년으로부터 공업은 우리나라에서 두배이상 즉 一〇一・六%가 더 자라났으며 그리고 전쟁전의 수준에 비하면 거의 배배나 즉 二九一・九%나 더 자라났다. 이것은 공업화가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업화가 급속히 자라난것은, 전 인민경제의 총생산액에서 공업생산액이 최상위(最上位)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은 것이다.

인민경제의 총생산액에 있어서의 공업의 배분률(一九二六—二七년 가적으로)

	一九二三年	一九二九年	一九三〇年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一、공업(소공업을 제외하고)	四二・一	五四・五	六一・六	六六・七	七〇・七	七〇・四
二、농업	五七・九	四五・五	三八・四	三三・三	二九・三	二九・六
총계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고하게 또 중국(終局)적으로 공업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업화의 사업에 있어서는 공업발전의 총범위중에서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의 생산이 장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산기간의 재료는 공업의 총범위중에서 이 항목(項目)의 비중이 우위(優位)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준다.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다.

대규모적 공업부문들의 기본적 두그루짜의 생산액 비중(一九二六—二七년 가적으로)

총생산액 (단위는 十億루블)

비중 (%)	그중에서		모든 대규모적 공업					
	총계	A 그루파. 생산도구와 생산수단 B 그루파. 수용품	A 그루파. 생산도구와 생산수단 B 그루파. 수용품	一九二九년	一九三〇년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一〇〇・〇	四八・五	一〇・二	二一・〇	二七・五	三三・九	三八・五	四一・九
	五一・五	五二・六	一四・五	一三・〇	一五・一	一六・五	二二・〇	二四・三
	一〇〇・〇	四七・四	一八・八	一〇〇・〇	四四・六	四三・〇	四二・〇	四二・〇
	一〇〇・〇	五五・四	一五・一	一〇〇・〇	四四・六	四三・〇	四二・〇	四二・〇
	一〇〇・〇	五七・〇	一六・五	一〇〇・〇	四三・〇	四二・〇	四二・〇	四二・〇
	一〇〇・〇	五八・〇	一七・六	一〇〇・〇	四二・〇	四二・〇	四二・〇	四二・〇

보는바와같이 일람표는 해석을 요하지 않는다.

기술적 방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어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공업은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업은 새 기술의 토대위에서 오직 그 자체만을, 오직 경공업, 식료품(食料品) 공업, 삼림업(森林業) 까지 합쳐서 공업의 모든 부문만을 개조할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형태의 운수, 농업의 모든 부문도 또한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업은 오직 인민경제를 개조하는 기본적 공간(楨杆)인 기계제조공업이 그 공업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기간의 여러가지 재료는 기계제조 공업이 우리나라 공업의 총범위에서 지도적(指導的) 역할을 전취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준다.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다.

공기업의 총 생산액의 총계에 대한 각개 부문의 비중의 배분률

[illegible]

이것은 우리의 공업이 전전한 토대위에서 발전되고 있으며 그리고 개전사업에 열쇠(鍵)가 되는 기계제조공업이 전체로 우리의 수중(手中)에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필요한것은 오직 그 공업이 능난하게 또 합리적으로 리용되도록 하는것이다.

보고 기간에 공업의 발전은 사회적 부문별로 갈라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은 것이다.

사회적 부문의 본 대규모적 공업의 총생산액

(一九二六—二七年 가격으로) (총생산액—단위는 百萬루블)

그 중에서		총생산액.....	一、사회화한공업.....	二、개인공업.....
그 중	一、국영공업..... 二、협동조합공업.....			
一、사회화한공업.....	一九二九 二一〇二五	二七四七七	三三三九〇三	三八四六四
二、개인공업.....	一〇〇九一	二七四〇二	재료가 없음	三八四三六
一、국영공업..... 二、협동조합공업.....	一九一四三 一七四八	二四九八九 二四一三	재료가 없음 재료가 없음	三五五八七 二八四九
二、개인공업.....	一三四	七五	재료가 없음	二八

그 중에서		총생산액.....	一、사회화한공업.....	二、개인공업.....
그 중	一、국영공업..... 二、협동조합공업.....			
一、사회화한공업.....	一九二九 二一〇二五	二七四七七	三三三九〇三	三八四六四
二、개인공업.....	一〇〇九一	二七四〇二	재료가 없음	三八四三六
一、국영공업..... 二、협동조합공업.....	一九一四三 一七四八	二四九八九 二四一三	재료가 없음 재료가 없음	三五五八七 二八四九
二、개인공업.....	一三四	七五	재료가 없음	二八

그 중에서		총생산액.....	一、사회화한공업.....	二、개인공업.....
그 중	一、국영공업..... 二、협동조합공업.....			
一、사회화한공업.....	一九二九 二一〇二五	二七四七七	三三三九〇三	三八四六四
二、개인공업.....	一〇〇九一	二七四〇二	재료가 없음	三八四三六
一、국영공업..... 二、협동조합공업.....	一九一四三 一七四八	二四九八九 二四一三	재료가 없음 재료가 없음	三五五八七 二八四九
二、개인공업.....	一三四	七五	재료가 없음	二八

이 일람표에서는, 우리의 공업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이미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사회주의적 경제체계가 우리공업의 유일하고 또 독점적인 체계라는 것이 보인다. (박수).

그런데 결산기간에 공업이 전취한 모든 성공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이라고 간주하여야 할 것은, 공업이 그동안에 수천의 새 일꾼들과 공업을 지도할만한 수천의 새 지도자들을 즉 새기술을 습득하였으며 또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을 앞으로 추진시키는 새 기술사(技師)、기술(技手)들의 여러층(層) 및 수십만의 젊은 숙련로동자들을 교양하여 내었으며 또 단련시켜낸 그 사실이다. 그사람들이 없이는 공업이 지금 가지고있는 또는 그것으로써 그가 당당하게 자랑할만한 그 성과들을 가질수 없었을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통계제로는, 결산기간에 공업은 적공학교들로부터 다 소간 기술을 배워온 약 八만명의 로동자들을 생산에 채용하게하였으며 그리고 기술대학, 대학, 전문학교들로부터 十萬명이상의 기술들과 기술자들을 생산에 채용하게하였다는것을 말한다. 만일 인제문제가 우리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는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공업이 이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取扱)하기 시작한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하는것이다.

이러한것이 우리 공업의 기본되는 여러가지 성과인것이다.

그러나 공업이 한갓 성과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것은 옳지않을것이다. 아니다, 공업에는 그의 부족점도 있으니 그중에서 중요한것은 아래와 같은것이다, 즉

(1)、흑색야금공업이 계속하여 뒤떨어지는것,
(2)、유색야금공업이 정리되지 못한것,

(ㄷ)、전국의 원료(燃料)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지방탄(地方炭)(모쓰크바 부근 지방, 잡까즈, 우랄, 까라칸다, 중앙아제아, 저비리, 극동, 북방변강 및 기타)의 채굴(採掘)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을 파소평가하는 것,

(ㄹ)、우랄, 바스끼리야, 엠바구역들에서 새 원유기지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가 없는 것,

(ㅁ)、경공업과 식료품공업이나 또는 립산업에서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전개하는데 대하여 심중한 배려가 없는 것,

(ㅂ)、지방공업을 전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가 없는 것,

(ㅅ)、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주 용서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 (ㅇ)、로동생산능률을 향상시키며 원가(原價)를 내리우며 독립채산제를 수립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뒤떨어지는 것,

(스)、아직까지도 로동 및 로동임금을 잘 조직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은 것, 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책임의 회피가 있는 것, 로동임금제에 있어서 균등제(均等制)가 있는 것,

(ㅈ)、경공업 및 식료품공업의 인민위원회부들까지 합쳐서 경제사업에 관한 인민위원회 부들과 또는 그의 여러 기관들에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사무실(事務室)——관료주의적 지도 방법인 있는 것 등등이다.

이 모든 결점을 시급하게 청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더 해설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일반히 아는 바와 같이 흑색야금 공업과 유색야금공업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체의 계획안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공업들은 또한 제2차 5개년 계획의 첫째에도 그의 계획안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 공업들이 앞으로 뒤떨어진다면 전체공업을 정제시킬수있으며 또 공업의 중절(中絶)의 원인이 될수있는것이 다. 석탄 및 원유공업의 새 기자를 놓는것에 관하여서는, 이 절박한 임무들을 실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공업이나 운수업을 여울에 올려앉일수가 있음을 리해가가 곤난하지 않은것이다. 일용품생산에 대한 문제, 지방공업의 발전에대한 문제도 또한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원가를 내리우며 또 독립채산제를 수립하는데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해결을 요하지않는것이다. 로동 및 로동임금제를 잘 조직하지 못하는것과 또 사무실(事務室)적—관료주의적 지도방법에 관하여서는, 돈바쓰의 사건이나,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의 기업소들의 사건이 보여준바와같이 이 위험한 병(病)은 공업의 모든 부문에 자리잡혀서 그들의 발전을 방해하고있다. 만일 이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공업은 전체로 절름발이 걸음을 걸을것이다.

당면과업들은 아래와같은것이다.

- (一)、공업체제에 있어서 기계제조공업이 현재에 가지고있는 그지도적 역할을 보전할것、
- (二)、흑색야금공업이 뒤떨어지는것을 청산할것、
- (三)、유색야금공업을 정리하여놓을것、
- (四)、이미 발견된 모든 구역에서 지방단(地方族)을 채굴하는것을 전력을 다하여 전개하며 새 구역들에서(예하면 극동에있는 부랴야 구역과 같은데서)석탄을 채굴하는 사업을 조직하며 꾸스바쓰를 둘째 돈바쓰로 변화시킬것、(박수갈채가 계속된다)、

(五)、우탈산맥의 서부와 남부의 지방에 있는 여러 구역에 원유기지를 조직하는 사업에
진중히 착수할것、

(六)、경제부문을 지도하고 있는 일체인민위원부들은 일용품의 생산을 전개할것、

(七)、지방의 소비트공업을 광범히 발전시키며 그 공업이 일용품을 생산하는데 있
어서 개발력을 나타낼수있게하며 원료와 자금으로써 그 공업을 될수있는대로 도와
출것、

(八)、생산하여내는 상품들의 품질을 개선하며 불완전 생산품을 내어놓는일이 없게
하며 생산품의 품질과 완전품에 대한 소비트주권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동
지들을 면책을 가리지 말고 다 처벌할것、

(九)、로동생산능률을 계속적으로 높이며 원가를 내리우며 독립채산제를 수립하는 일
을 성취할것、

(一〇)、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책임의 회피와 로동임금제에 있어서의 균등제를 영영
없애버릴것、

(一一)、하부기관들이 지도기관들의 결정과 지시를 실행하는것을 계통적으로 검열
하면서 경제부문을 지도하고 있는 인민위원부들의 모든 기관에서 사무실—관료주의적 지
도방법을 청산하여 버릴것등등이다。

(2)、농업의 향상

농업의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은 얼마쯤 다르게 진행되었다. 보고기간에 농업의 기본적 부분들의 향상은 공업에 있어서보다는 여러배나 더더게 진행되었으나 그래도 개인경영이 다수이었던 그 시기보다는 더 빠르게 자라났다. 그리고 목축업에 있어서 우리는 심지어 그와 반대의 과정(過程)을 가지게까지 되었다. 즉 가축의 두수(頭數)가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다만 一九三三년에 와서야 향상의 징후(徵候)가 나타났으나 그것도 오직 양돈업(養豚業)의 한부분에 있어서만 그리하였다.

분산된 소규모적 농민경영들을 팔호즈에 연합시키는 일의 거대한 곤난, 거의 행행 빈자리에 수많은 대규모적 곡물(穀物)경영 및 축산경영(畜産經營)을 조직하는 어려운 사업,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농업을 새로히 팔호즈의 제도에 넘겨세우며 재편성하는 시기로서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재조직기——이 모든 동인들은 부득이 농업의 향상의 더딘 속도나 또는 가축의 두수를 증가시키기에 있어서 비교적 장구한 침체(沈衰)의 시기를 필연적으로 예정하였던것은 명백한 일이다.

사실상 보고기간은 농업에 있어서는 급속한 향상과 또는 유력한 전개의 시기라기보다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향상과 또 그와 같은 전개에 대한 전제(前提) 조건들을 만들어놓은 시기였던것이다.

모든 농작물(農作物)、그리고 특히 공예작물의 파종면적의 확장에 대한 재료를 본다면 보고 기간에 있어서의 농업의 발전이 다음과같이 표현된다.

조선의 모든 농작물의 과충면적

그중에서		총과중면적	
ㄱ, 밭작물	ㄴ, 공배작물	ㄷ, 채원작물 (爪類)	ㄹ, 사료작물
九四・四	四・五	三・八	二・一
九六・〇	八・八	七・六	五・〇
一〇一・八	一〇・五	八・〇	六・五
一〇四・四	一四・〇	九・一	八・八
九九・七	一四・九	九・二	一〇・六
一〇一・五	一一・〇	八・六	七・三

조선의 공예작물의 파종면적

		(단위는 百만헥타르)					
면화 : : : : : 야마 (長莖種) 사탕무 : : : : : 채유용 (採油用) 작물 : : : : :	一九一三년	一九二九년	一九三〇년	一九三一년	一九三二년	一九三三年	
	○・六九	一・〇六	一・五八	二・一四	二・一七	二・〇五	
	一・〇二	一・六三	一・七五	二・三九	二・五一	二・四〇	
	○・六五	○・七七	一・〇四	一・三九	一・五四	一・二一	
	二・〇〇	五・二〇	五・二二	七・五五	七・九八	五・七九	

이 일람표들은 농업에 있어서의 두가지 기본적 로선을 반영하여준다. 즉

(一)、골호즈가 수만개씩 건설되었으며 그 골호즈들이 골라크들을 토지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쥐면, 농업의 재조직이 격렬하게 되어가던 그시기에 있어서 파종면적을 배방으로 확장한 로선을 반영하여주며,

(二)、파종면적을 일괄적으로 확장하는것을 버리는 로선, 즉 일괄적으로 파종면적을 확장하는것으로부터 토지의 경작을 개선하는데로, 울은 룬작(輪作)법과 휴경법(休耕法)을 실시하는데로, 수확고를 높이는데로, 또 만일 실천이 요구한다면 현재의 파종면적을 립지로 축소하는데로 넘어가는 로선을 반영하여준다.

일반이 다 아는바와같이 농업에 있어서 유일하게 울은길인 이 들췌 로선은 농업의 재조직기가 거의 끝나게되고 수확물을 높이는 문제가 농업의 향상의 기본적 문제중의 하나가 되었던때인 一九三二년에 선포된것이다.

그러나 파종면적이 자라는데 대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농업발전을 아주 충분히 표시하는것이라고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파종면적은 자라나나 생산고는 자라나지 않거나 혹은 도리어 주러드는때도 있으니 그것은 토지 경작을 잘하지 못하고 따라서 일정한 면적에서 나는 수확이 주러든 때문인것이다. 그러므로 파종면적에 대한 재료는 반드시 총생산액에 대한 재료로써 보충되어야 하는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은것이다.

조선의 립곡작물 및 공예작물의 총생산액

(단위는 百만원트베르)					
	一九一三年	一九二九年	一九三〇年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립곡작물...	八〇一・〇	七一七・四	八三五・四	六九四・八	六九八・七
면화(原棉)...	七・四	八・六	一一・一	一二・九	一二・七
아마(섬유)	三・三	三・六	四・四	五・五	五・〇
사탕무...	一〇九・〇	六二・五	一四〇・二	一二〇・五	六五・六
채유용(採油用)작물...	二一・五	三五・八	三六・二	五一・〇	四五・五
					四六・〇

이 일람표에서는, 농업을 가장 격렬하게 재조직하던 때인 一九三一年과 一九三二年이 곡물생산액을 가장 적게낸 해(年)들이었던 것이 보인다.

그리고 또 이 일람표에서는, 농업을 재조직하는 것이 비교적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던 아마(亞麻) 및 면화(綿花)의 산지에서는 아마 및 면화가 그의 발전의 높은 수준을 보전하여가면서 거의 전혀 손실(損失)을 당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다소간 평탄(平坦)하게 또한 꾸준하게 향상된 것을 볼 것이다.

셋째로, 이 일람표에서는 채유용 작물들은 전쟁전 수준에 비하여 자채발전의 높은 수준을 보전하면서 다만 얼마만한 고저(高低)가 있었을 뿐이었으나 사탕무는 그의 산지에

서 농업을 재조직하는 것이 가장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고 또한 마지막으로 재조직시기에 들어섰는것인바 농업을 재조직하는 마지막해인 一九三二년에 와서는 제일 심한 저락을 보이어 전채전 수준이하로 생산액을 산출한것을 보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일람표에서는 농업을 재조직하는 시기가 끝난뒤의 첫해인 一九三三년 이 립목작물 및 공예작물의 발전에 있어서 전환(轉換)의 해인것을 볼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립목작물, 그리고 그위를 따라서는 공예작물이 이제부터는 현실하게 또 확신있게 유력한 향상에로 나아가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재조직 시기를 가장 괴롭게 전이어온것은 농촌경영의 목축업 부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은것이다.

또련의 가축의 두수(단위는 백만두)

	一九一六년	一九二九년	一九三〇년	一九三一년	一九三二년	一九三三년
1. 말(馬) 2. 돼유각가축 3. 면양(綿羊) 4. 양(羊)과 염소 5. 돼지	三五・一 五八・九 一一五・二 二〇・三	三四・〇 六八・一 一四七・二 二〇・九	三〇・二 五二・五 一〇八・八 一三・六	二六・二 四七・九 七七・七 一四・四	一九・六 四〇・七 五二・一 一一・六	一六・六 三八・六 五〇・六 二二・二

이 일람표에서는, 보고기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의 두수가 자라난것이 아니라 전쟁전 수준에 비하여 아직도 계속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것이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大)꿀라크 분자들이 농업의 목적업부문에 제일 많이 들어차 있었던것과 다른편으로는 농업을 재조직하는 시기에 있어서 가축을 잡아죽이라는 맹렬한 꿀라크적 선동(煽動)이 그때에 좋은 지반을 차지했던것이 이 일람표에 반영되어 있음은 명백한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일람표에서는, 가축의 두수가 주터드는것은 농업의 재조직의 첫째(一九三〇년)로부터 시작되어서 一九三三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는바, 이에 있어서 가축의 두수가 주터드는것은 첫三개년동안에 제일 심한 정도에 달하였고 그리고 립곡작물이 향상하기 시작된 즉 농업을 재조직하는 시기가 끝난이후의 첫째인 一九三三년에 와서는 그 줄어드는 범위가 최소한도에 이르렀음을 볼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일람표에서는, 양돈(養豚)업에 있어서는 벌써 그와반대의 과정(過程)이 시작되었으며 그리하여 一九三三년에 와서는 벌써 그것이 바로 향상되어가는 징조를 나타내었음을 볼것이다.

이것은 一九三四년이 전(全) 목적업에 있어서 향상으로 전환하는 해(年)가 되어야하며 또한 될수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보고기간에 우리나라에서 농민경영의 질단화는 어떻게 발전되어왔는가?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은것이다.

집단화

	一九二九년	一九三〇년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팔호즈 수 (단위는 千)	五七・〇	八五・九	二一一・一	二一一・〇五	二二四・五
팔호즈에 가입한 호수 (단위는 百만)	一・〇	六・〇	一三・〇	一四・九	一五・二
집단화된 호수의 백분율	三・九	二三・六	五二・七	六一・五	六五・〇

그런데 각 부문(섹토르)에 있어서의 곡물과종면적은 어떻게 변동되어왔는가?
이에 해당하는 일람표는 아래와 같은 것이다.

립곡작물 과종면적의 부문별

부문 (섹토르)	립곡작물의 과종면적 (단위는 百만헥타르)				
	一九二九년	一九三〇년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一、팔호즈	一・五	二・九	八・一	九・三	一〇・六
二、팔호즈	三・四	二九・七	六一・〇	六九・一	七三・九
三、개입정형농	九一・一	六九・二	三五・三	二一・三	一五・五
쓰면의 립곡작물의 과종면적	九六・〇	一〇一・八	一〇四・四	九九・七	一〇一・五
의 과종면적					一〇〇・〇

이 일람표들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이 일람표들은, 팔호즈의 수와 팔호즈원의 수가 급속한 속도로 자라나는 농업의 재조직 시기는 벌써 끝났다는 것, 즉 벌써 一九三二년에 와서 끝났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집단화의 장래과정은 개인농민경영의 잔재를 점차로 팔호즈에 고으려들이며 또 그들을 재교양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팔호즈들이 종국적으로 또한 영원히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생같은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된다.)

그리고 또 이 일람표들은 팔호즈와 팔호즈들이 함께 조선의 전(全) 곡물경작면적의 八四・五%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팔호즈와 팔호즈들이 함께 전농업 및 그의 모든 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실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일람표들은 전(全) 농촌인구의 三五%가 되는, 개인농민경영대로 있는 모든 경영은 겨우 모든 립곡작물과종면적의 一五・五%를 차지하고 있는 때에 팔호즈에 연합된 六五%의 농민경영은 모든 립곡작물과종면적의 七三・九%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여준다.

만일 一九二九—一九三〇년도에 있어서는 개인경영농민들이 七億八千萬루드의 곡물을 국가에 받쳤고 팔호즈들이 겨우 一億二千萬루드를 국가에 받쳤는데, 一九三三년도에 와서는 팔호즈들이 모든 형식으로 국가에 받친 곡물은 十億루드 이상이 되며 계획의 一〇〇%를 다 실행한 개인경영농민들이 국가에 받친 곡물은 다만 一億三千万루드가량이냐. 이 사실을 여기에 첨부한다면 보고기간에 팔호즈들의 역할과 개인경영농민들의 역할이 완전히 서로

바꾸어진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된다. 이에 있어서 팔호즈들은 그동안에 농업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고 개인경영농민들은 팔호즈의 제도에 복종하며 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이차적(二次的) 세력이 되어 버렸다.

근로농민, 우리의 쏘베트농민은 종국적으로 또 경영 사회주의의 불은기 발밑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된다.)

에세르—멘셰비크적 또 부르주아—트로츠키적 요설가(饒舌家)들은, 농민은 그 본성(本性)으로 보아 반(反)혁명적이며 농민은 쏘련에서 자본주의를 회복시킬 사명을 가졌으며 농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동맹자가 될 수 없으며 쏘련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에 부족하다 하리라. 사실들은, 그 신사들이 쏘련에 대하여서도, 쏘베트농민에 대하여서도 다 비방(誹謗)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실들은, 우리 쏘베트농민이 자본주의의 언덕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으며 그리하여 로동계급과 동맹하여 앞으로—사회주의에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한다. 사실들은, 우리가 벌써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적 사회의 기초를 축성(築成)하여 놓았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적 사회의 기초를 건설하는 것보다 의심없이 훨씬 쉬운 사업 즉 그 기초위에 상부구조(上部構造)를 완성할 것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팔호즈 및 쏘호즈의 실력은 한갓 그들의 파종면적 및 생산액이 자라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실력은 또한 그들의 트랙트르대수가 자라는 것과 그들의 기계화가 자라나는 데서도 반영되는 것이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팔호즈 및 쏘호즈들이 앞으로 멀리 나간 것은 의심할 것 없는 일이다.

그리고 보니 二十萬四千대의 트랙토르와 그의 三百十萬마력이 팔호즈와 쓸호즈를 위하여 일한다. 이것은 보는바와같이 농촌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온갖 또는 모든 근저(根底)를 빼어버릴만한 적지않은 실력인것이다. 이것은 레닌이 당시에 먼 장래의 전망(展望)으로 말하였던 그 트랙토르의 수효를 두배나 더 지나가는 실력인 것이다.

기계—트락토르 정류소와 쓸호즈 인민위원부의 계통의 쓸호즈들에 소속되어있는 농업 기계들에 관한 자료는 다음 일람표들에 있다.

기계—트락토르 정류소에 소속되어 있는것

	一九三〇年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팔하인 (단위 千대)	단 七대	〇・一	二・二	一一・五
발동기와 이동기관차 (단위 千대)	〇・一	四・九	六・二	一七・六
복잡한 타곡기와 반(半)복잡한 타곡기 (단위 千대)	二・九	二七・八	三七・〇	五〇・〇
타곡용 전기기계	一六八	二六八	五五一	一二八三
기계—트락토르 정류소에 소속된 수천소의 수	一〇四	七七〇	一二二〇	一九三三
화물 자동차 (단위 千대)	〇・二	一・〇	六・〇	一三・五
승용자동차 (단위 千대)	一七	一九一	二四五	二八〇〇

쑹호즈인민위원회 계통의 쑹호즈에 소속되어 있는 것

	一九三〇년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쑹바인 (단위 千대)	一・七	六・三	一一・九	一三・五
발동기와 이동기관차 (단위 千대)	〇・三	〇・七	一・二	二・五
복잡한 타곡기와 반 (半) 복잡한 타곡기 (단위 千대)	一・四	四・二	七・一	八・〇
전기기계	四二	一一二	一六四	二二二
기, 대수선소	七二	一三三	二〇八	三〇二
기, 보물수선소	七五	一六〇	二一五	四七六
수선소 (修繕所)	二〇五	三二〇	五七八	一一六六
화물자동차 (단위 千대)	二・一	三・七	六・二	一〇・九
승용자동차 (단위 千대)	一一八	三八五	六二五	一八九〇

나는 이 재료들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향상에 대하여서는 역시 기계—트랙토르 정류소 및 쑹호즈들에 정치부를 조
 직한 것과 자격있는 일꾼들을 농업으로 파견한 것이 적지 않은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쑹호
 즈와 쑹호즈의 사업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치부 일꾼들이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시인하는바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보고기간에 농업의 간부들을 강화하게 하기 위하여 二萬三千명 이상의 당원들을 농촌에 파견하였는데 그중에서 토지국 일꾼들이 三千명 이상이고 콤폰트일꾼들이 二千명 이상이고 기계-트랙토르 정류소의 정처부일꾼들이 一萬三千명이상이며 또 콤폰트즈의 정처부일꾼들이 五千명 이상이 되는것은 일반이다.

플로즈와 콤폰트즈들에 기사-기수 및 농업전문가들을 새로 파견한데 대하여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말하여야 할것이다. 보고기간에 이 그루빠의 일꾼들이 十一萬一千명 이상이 농촌에 파견된것은 일반이다.

보고기간에 트랙토르운전수, 품바인운전수, 발동기 기판수, 자동차운전수들을 양성하여 농업인민위원부의 한계통에만 파견된것이 一百九十萬명 이상이 된다.

또한 이 시기동안에 콤폰트즈집행부 회장들과 그 부원(部員)들, 농작업반장들, 목축업반장들, 회계원들을 一百六十萬명 이상이나 양성하였으며 또한 재양성(養成)해내었다.

이것이 우리의 농업을 위하여서는 물론 적은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가량은 되는 것이다.

보는바와같이 국가는 콤폰트즈와 플호즈의 건설사업을 지도하는 농업인민위원부와 플호즈인민위원부 기관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능한것은 모두 다 하여 놓았다.

이 모든 가능성을 적당하게 리용하였다고 말할수 있을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말할수는 없는것이다.

이 인민위원부들은 다름 인민위원부들보다 한층더 판로주의—사무실적으로 일을 취급하는 병(病)에 전염되어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문제들을 결정은 하되 그러나 실행되는것을 검열한다는지, 지도기관들의 지시와 명령을 위반하는자들을 정벌한다는지, 정직하고 또 성실한 실행자들을 앞으로 내세운다는지 하는일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대수의 프락트와 기계들이 현존하여 있는것은, 생각컨대 농업기관들로 하여금 이 값 많은 기계들을 옮겨 보전하며 제때에 그 기계들을 수선하며 그것을 일에 다소간 합리적으로 사용하게할것이였다. 그들은 이 방면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감이지만 대단히 적게 일하고있다. 프락트와 기계들을 보관하는것이 불충분하다. 수선하는것도 역시 불충분하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도 아직 수선의 기본은 대수선인것이 아니라 응급수선과 보통수선인것을 리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이다. 프락트와 기계들을 리용하는 데 관하여서는 이 사업의 불충분한 상태는 증명할 필요도 없으리만치 그렇게 명백한것이며 또 일반이 다 아는바인것이다.

농업의 당면과업중의 하나는 좋은 문작법(輪作法)을 실시하며 충분한 휴간지(休墾地)를 확장하며 농업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종자를 개량하는일인것이다. 이 방면에 있어서 무엇이 실행되고 있는가? 유감이나마 아직은 대단히 적게 실행되고 있다. 곡물 및 면화의 종자에 관한 일은 어떻게나 허트리졌는지 그것을 정돈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공예작물의 수확률을 높이는 실제적 방법중의 하나는 비료를 공급하는데 있다. 이 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실시되어가는가? 아직도 대단히 적게 실시되고있다. 비료는 있

으나 그러나 농업인민위원부의 기관들은 그것을 받아 처분할줄 모르며 또한 그것을 받아가지고서도 그것을 제때에 제자리로 보낼것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할것에 배려하지 않는다.

쏟호즈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아직도 자체의 사업들을 실행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우리 쏘호즈들의 거대한 혁명화적 역할에 대하여 파소핑가하려는 것은 도무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쏘호즈사업에 대한 국가의 거대한 투자액과 현재의 쏘호즈사업의 실제적 결과들과를 대조하여 본다면 거기에는 적당한 효과와 내지못한다는 크다란 불합치(不合致)를 보게될것이다. 이 불합치의 주되는 원인은 우리의 목물쏘호즈들이 너무나 광대한것, 그 지배인들이 그 광대한 쏘호즈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것, 쏘호즈 자체들이 너무나 전문적(專門的)인것, 문학과 휴간지가 없는것, 자체의 구성부분에 목축업의 요소가 없는것등 사태가 그것이다. 쏘호즈들을 나누어서 적게 만들며 또 그들이 극도로 전문적인것을 없앨 필요가 있는것은 명확한 일이다. 쏘호즈인민위원부가 제때에 이문제를 제했으며 그리하여 그의 해결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인증하는것은 옳지않다. 그문제는 쏘호즈인민위원부와 아무관계도 가지지않은 사람들의 발기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또한 해결되었던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목축업에대한 문제이다. 나는 이미 목축업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보고하였다. 우리의 농업기관들이 목축업의 위기를 없애려고 열렬한 활동을 하며 그들이 경종(警鐘)을 울리며 일꾼을 동원하며 그리하여 목축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맹렬하게 착수한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것이다. 유감이나마 그와같은 일은 전혀 진행되지도 않

있으며 또 진행되고있지도 않다. 그들은 목축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대하여 경중을 울리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를 목과하려고 애쓰며 어떤 때에는 그들의 보기에 있어서 심지어 국내의 사회적 여론의 면전(面前)에서 목축업의 실제적 상태를 가리워 덮어두려고까지 기도하고있는데 이것은 불세비크들에게는 도무지 용허할수없는 일인것이다. 이렇게된 뒤에도 농업기관들이 목축업을 옳은길에 내세우며 상당히게 향상시켜 내리라고 기대하는것은 모래우에 집을 짓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목축업문제가 지금에 있어서는 작일에 벌써 성과있게 해결된 곡물문제와 같이 그렇게 첫순서에 나서는 문제로 되어있는것을 념두에 두면서 전당(全黨)、우리의 모든 당원 및 비(非)당원 일꾼들이 반드시 목축업을 제손에 잡아쥐어야 할것이다. 목적에 향하여 나가는 길에서 큰 장애를 극복하여 나간적이 한 두번만이 아닌 소비에트국가의 사람들이 이 장애도 또한 극복하여내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외성·갈은·박수·갈·채)。

이와같은것이 우리가 없애버려야할 결점들의 간단하고 또 매우 원만치못한 열거이며 또한 가장 가까운 시일안에 해결하여야할 임무들의 열거인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임무들에서 그치고마는것은 아니다. 농업에 대한 다른 임무들이 또 있으니 그에 대하여 몇마디 말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가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로 이전에는 나누어졌던것이 인제는 공업지대에 없이된것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곡물과 육류(肉類)와 채소를 리에게는 의방으로부터, 다른지대로부터 필요한 모든 식료품을 받을것을 기대하여야할 순전한

공업지대도 인제는 없는것이다. 우리의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방이 다 다소간 공업지대로 되어가며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지방은 더 공업지대로 되어가게될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농업지대이던 우크라이나, 북갑까즈, 중앙흑토지대(中央黑土地帶) 및 기타의 농업구역들은 그들이 이전에 공업중심지들로 보내던것만한, 그만한 식료품을 인제는 더 보낼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지대들은 그 자체의 도식들과 장차 더 자라게될 그 자체의 노동자들에게 식료를 공급하여야 하겠기때문이다. 그러니 각지방은 만일 그 어려운 형편에 빠지려고 원치않는다면 자기지방의 채소와 감자와 자기지방의 기름과 자기지방의 우유와 또한 어느정도까지는 자기지방의 곡물과 자기지방의 육류를 가지고있게되도록 자기지방의 농업토대를 반드시 구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생기는것이다. 이 사업은 완전히 실현될수 있는것이며 따라서 그 사업은 지금에 벌써 실시되어가는것을 여러분은 아는바이다.

임무는, 이 사업을 어찌하든지 끝까지 수행하는데 있는것이다.

다음에는, 다아는바의 우리나라의 여러주가 생산지대와 소비지대로 확정되어 있던것도 역시 그 특수적 성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모스크바주와 고리끼주와같은 그러한 「소비」주들이 금년에 와서는 약 八千萬루브의 곡물을 국가에 주었다. 물론 이것은 다소한것이 아니다. 이른바 소비지대에는 관목(灌木)들로 덮인 미간지가 근 五千萬헥타르나 있는것이다. 이 지대에는 기후가 나쁘지 않으며 우량(雨量)이 적지 않으며 가물(旱)이 들지않는것은 일반이 다아는바이다. 만일 이 땅들에서 관목들을 쳐버리고 여러가지의 조직적 성질을 띤 대책을 실행할것같으면 이 지방에서 수확이 통상

적으로 잘 되는 형편에 있어서는 지금에 월가강의 하류지대나 혹은 중류지대에서 얻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상품목물을 얻을 수 있는 거대한 립목작물의 지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부공업 중심지들을 위하여 큰 방조가 될 것이다.

임무는, 소비지대의 구역들에 큰 립목작물의 토대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월가강 좌안 지대에 있어서 한재와 투쟁하는 문제이다. 월가강 좌안 지대의 동부구역에 조림(造林)하며 보수림(保守林) 지대를 만드는 일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비록 그것이 충분한 강도(強度)로 실시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벌써 실시되어 가는 중이다. 월가강 좌안 지대에 수리사업(水利事業)을 하는 것으로 말하면——그런데 이것은 한재와 투쟁하는 전지로서 봐야 주되는 것이다——이 사업을 오래 체연(滯延)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실상 그 사업은 힘과 물자를 많이 드린 몇가지의 외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정체(停滯)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에는 그것을 더 연기할 리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월가강 지대에 있어서 해마다 약二억루드의 상품목물을 내는 중대한 아주 안정한, 기후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목물생산의 토대가 없이는 지내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월가강 지대에서 도시들이 장성하는 것과 다른편으로는 국제판계의 영역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온갖 분규(紛糾)를 참작한다면 절대로 필요 한 것이다.

임무는, 월가강 좌안 지대에서 수리사업을 실시하는 중대한 일에 착수하는데 있는 것이다. (박수갈채).

(3)、근로자들의 물질상태 및 문화의 향상

이와같이 우리는 우리의 공업 및 농업의 상태, 보고기간에 있어서의 그들의 발전, 또한 현모멘트에 있어서의 그들의 현상을 론술하였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같은것을 보게된다. 즉

(1)、공업영역이나 또는 농업의 기본적 부문영역에 있어서 생산이 힘있게 향상된것.

(2)、이 향상의 토대우에서 공업에 있어서나 또한 농업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제제가 자본주의적 체제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승리한것, 사회주의적 체제가 전(全)인민경제의 유일한 체제로 전환된것, 인민경제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배제한것.

(3)、개인농민경영의 대다수가 소상품적 개인적 경영으로부터 경영 물러나온것, 그들로 하여금 공동적 토동의 토대우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의 토대우에서 집단적 경영에로 연합하게한것, 집단적 경영이 소상품적 개인경영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한것.

(4)、개인농민경영이 줄어들고 그대신 팔호즈가 앞으로 더 확장되는 과정이 장성하며 따라서 개인농민경영의 수효는 달이갈수록 줄어들고 또 그것은 실상 팔호즈와 팔호즈에 대한 보조적 힘으로 전환되는것.

착취자들에게 대한 이력사적 승리가 근로자들의 물질적 상태와 그들의 모든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하지않을수 없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기생적(寄生的) 계급들을 청산한것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것을 없애지게 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로동은 착취로부러 해방되었다. 착취자들이 인민의 로동에서 짜내던 수입은 지금에 와서는 그 근로자들의 수중에 남아있어서 그 한부분은 생산을 확장하며 근로자들의 새 대렬을 생산에로 끄으려드리는데 리용되며 또 다른 한부분은 바로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데 리용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고질(痼疾)인 실업은 없어졌다. 부르조아 국가들에서는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일터가 없어서 곤난을 겪으며 또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터가 없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로동자들이 더는 없는것이다.

콜라크에게 예측되는것이 없어졌음에 따라서 농촌에서 빈궁이 없어졌다. 어떤 농민이든지, 즉 어떤 팔호즈원이든지 또는 개인경영의 농민이든지 만일 그가 게으르지않고 때 도라다니지않고 또한 팔호즈의 재산을 도적질하지않고 오직 성실하게 일하려고만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사람답게 살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착취가 없어졌고, 도시에서 실업이 없어졌고, 농촌에서 빈궁이 없어진것—— 이것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상태에 있어서의 역사적 성과로서 이에 대하여서는 아무 리 「민주주의적」 부르조아적 나라들의 로동자들과 농민들이라도 몽상할수도 없는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공업중심지들의 면모는 변하여졌다. 부르조아적 나라들의 대도시의 피쳐 못할 특징(特徵)은 도시의 일각(一角)에있는 캄캄하고 음습하고 대부분이 지하실이며 절반이나 무너진 집들이 빈적하여 뽕뽕히있는 소위 로동자들이 사는 구역이라는 빈

빈굴(貧民窟)인바 그곳에서 무산자들이 어지러운 골방속에서 구물거리며 또 운명을 저주하면서 보통 살아가는 것이다. 소련에서의 혁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빈민굴을 없애버리었다. 그런 빈민굴들은 새로 건축된 훌륭한 노동자 구역들로써 바뀌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자구역들은 도시의 중앙보다도 더 훌륭한 양상(樣相)을 띠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면모가 더욱 크게 변하여졌다. 가장 보기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었고 앞줄에는 농촌경관과 신부와 골라크의 좋은집들이 있고 뒷골목에는 절반이나 무너진 농민들의 오막살이가 있던 낡은 농촌은 없어지기 시작한다. 낡은 농촌을 대신하여는 사회—경제기관의 건물, 구락부, 라디오, 영화관, 학교, 도서관, 탁아소(托兒所), 프락토르, 폼바인, 타목기, 자동차들을 가지고 있는 새 농촌이 나서는 것이다. 옛날의 고귀한 사람들이던 골라크—착취자, 고리대금업자—흡혈귀(吸血鬼), 장사꾼—투기업자, 농촌경관—나리들은 없어졌다. 지금에 있어서는 골호즈 및 쏘호즈의 활동가, 학교 및 구락부의 활동가, 프락토르 및 폼바인의 운전수대장들, 농업 및 목축업반(班)장들, 골호즈농장의 우수한 남녀 돌격대원들이 고귀한 사람들인 것이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있는 대립성이 없어진다. 도시는 농민들에게 있어 그들에 대한 착취의 중심지로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련류의 실마리(糸)가 더욱더 튼튼하여진다. 지금에 농촌은 도시 및 그의 공업으로부터 프락토르, 농업기계, 자동차, 인쇄, 물자들의 보조를 받는다. 그리고 또 농촌 자체도 지금에 있어서는 기계—프락토르 정류소, 수선소, 골호즈의 각종의 산업기업소, 크지않은 발전소 등과 같은 자

채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 차이의 심연(深淵)은 매우 거간다.

이러한 것이 근로자들의 물질적 상태와 생활과 문화를 개선하는 방면에 있어서의 그들의 기본적인 성과인 것이다.

우리는 이 성과의 기초 위에서 보고가 간에 다음과 같은 것을 얻었다. 즉

(1)、인민수입이 一九三〇년에는 三百五十億루블이던 것이 一九三三年에는 五百億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그런데 인민수입에 있어서 리권소유자(利權所有者)들까지 통틀어 넣어서 자본주의적 분자들의 수입부분은 현재에 와서 반(半)과 센트이하이므로 인민수입의 거의 전부가 노동자들과 사무원들과 근로농민들과 협동조합들과 국가와의 사이에 분배되고 있다.

(2)、조선의 인구가 一九三〇년 말에는 一億六千五十萬명이던 것이 一九三三年 말에는 一億六千八百萬명에게까지 증가되었다.

(3)、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총수가 一九三〇년에는 一千四百五十三萬명이던 것이 一九三三年에는 二千一百八十八萬三千명에게까지 증가되었다. 그런데 육체로동자의 수효는 그 동안에 九百四十八萬九千명으로부터 一千三百七十九萬七千명에게까지 증가되었고, 운수기관으로 동자까지 합쳐서 대공업로동자의 수효는 五百七萬九千명으로부터 六百八十八萬二千명에게까지 증가되었고, 농업로동자의 수효는 一百四十二萬六千명으로부터 二百五十一萬九千명에게까지 증가되었고, 상업계의 로동자와 사무원의 수효는 八十一萬四千명으로부터 一百四十九萬七千명에게까지 증가되었다.

(二)、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로동임금의 기금(基金)이 一九三〇년에는 一百三十五億九千七百萬루블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三百四十二億八千萬 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口)、공업로동자들의 一년동안의 평균 로동임금이 一九三〇년에는 九百九十一루블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一千五百十九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日)、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사회보험거금이 一九三〇년에는 十八億一千萬루블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四十六億一千萬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八)、저상(地上)에서 일하는 모든 공업에서의 七년간로동제를 실시하였다.

(九)、국가가 농민들을 위하여 二十億루블을 투자하여 二千八百六十개소의 가계—프락토르 정육소를 설치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었다.

(十)、국가가 十六億루블의 거액을 팔호즈에 대부함으로써 농민들을 도와주었다.

(十一)、국가가 보고기간에 종자와 식료를 대부함으로써 농민들을 도와주었는바 그 곡물의 총량은 二億六千二百萬루브가 된다.

(十二)、국가가 세금과 보험료에 대하여 특전(特典)을 줌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농민들을 도와주었는바 그 금액은 三億七千萬루블이 된다.

국내의 문화발전에 관하여서는 보고기간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얻었다.

(一)、전(全)조련에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글아는자들의 파센트를 一九三〇년 말의 六七%로부터 一九三三년말에는 九〇%까지 올리었다.

(二)、소, 중, 대학교의 학생의 총수가 一九二九년에는 一千四百三十五萬八千명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二千六百四十一萬九千명에까지 증가되었으며 그중에서 소학교생도는

一千一百六十九萬七千명으로부터 一千九百十六萬三千명에까지 증가되었고 중·학교 학생은 二百四十五萬三千명으로부터 六百六十七萬四千명에까지 증가되었고, 대학교 학생은 二十萬七千명으로부터 四十九萬一千명에까지 증가되었다.

(丁)、학령미만(學齡未滿) 아동 교육제에 말라핀 아동수호가 一九二九년에는 八十三萬八千명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五百九十一萬七千명에까지 증가되었다.

(二)、일반적 및 전문적 대학교의 총수가 一九一四년에는 九一개소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六百개소에까지 증가되었다.

(口)、과학연구소의 총수가 一九二九년에는 四百개소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八百四十개소에까지 증가되었다.

(日)、구락부식 시설의 총수가 一九二九년에는 三萬二千개소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五萬四千개소에까지 증가되었다.

(八)、영화관, 구락부의 영화장치(裝置)、이동(移動)영화기의 총수가 一九二九년에는 九千八百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二萬九千二百에까지 증가되었다.

(〇)、여러가지 전문의 매일 총발행부수가 一九二九년에는 一千二百五十萬부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三千六百五十萬부에까지 증가되었다.

레하면 독일에서는 一九三一—一九三三년 학년도에 있어서 대학생중에서 노동자들의 비중이 다만 三・二%였고 소농민들의 비중이 다만 二・四%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생중에서 노동자들의 비중이 五一・四%가 되고 근로농민의 비중이 一六・五%가 되는 것을 지적하여 두는것이 아마도 무의미하지 않을것이다.

농촌에서의 문화정도가 자라나는 상징인 기쁜 사실로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사회—조직자적 사업방면에 있어서 여성 플호즈원들의 열성이 자라나는 그것이다. 레하면 현재에 있어서 여성 플호즈원으로서는 플호즈의 회장이 근 六千명이며, 플호즈 집행부원이 六萬명이상이며, 농작업반장이 二萬八千명이며, 분조장이 十萬명이며, 플호즈의 목축업 페르마주임이 九千명이며, 트랙토르운전수가 七千명인 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이 재료가 충분한 것이 못됨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료에 있는 많지 못한 그 숫자들도 농촌에서 문화정도가 크게 자라났다는 것을 충분히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동지들, 이 사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들이 우리나라 주민의 반수가 되며 그들은 거대한 로동군이요 또한 그들은 우리의 아동들, 우리의 후에 (後裔) 들, 즉 우리의 후생들을 교양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까닭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대한 로동군이 무식하고 몽매 (蒙昧)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부녀들의 사회적 열성이 자라나는 것과 그들이 지도적 지위에 동등되는 것을 우리의 문화정도가 자라난다는 의심없는 징조 (徵兆) 로서 반드시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실을 더 지적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 (否定的) 성질을 가진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사범 (師範) 학부들과 의과 (醫科) 학부들이 아직까지도 경시 (輕視) 를 당하고 있는 그 용서할 수 없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리의를 위반하는 것에 가까운 큰 결점인 것이다. 이 결점을 반드시 없애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속히 없애 버릴수록 더욱 좋을 것이다.

(4) 상품류통의 제고와 운수업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즉

(7)、일용품까지 통트리넣어서 공업생산품이 증가되는것、

(8)、농산품이 증가되는것、

(9)、도시 및 농촌의 근로대중의 농산물 및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자라는 것 등등이다.

이 조건들을 한데 결합시키며 그리하여 소비자대중이 필요한 상품과 식료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더 요구되는가?

어떤 동지들은, 국내의 경제생활을 통성(隆盛)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조건들만이 있는 것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크다란 오해이다. 이 조건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더라도 만일 상품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경제생활은 통성치 못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근저(根底)까지 문란케 될 것이며 또한 해이케 될 것이다. 상품은 결국에 생산을 위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위하여 생산되는 것임을 리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상품과 식료품이 적지 않게 있었으나 그러나 그 상품과 식료품이 소비자들에게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결어 두고 소위 상품수송망(輸送網)이라 하는 판로주의적 물류에서 몇해를 두고 돌아다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공업과 농업은 생산을 확장케 하는 자극을 조금도 받지 못하였으며 상품수송망에는 상품이 가득 쌓여 있으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상품과 식료품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실

은 가히 알만한 일이다. 그 결과로 상품과 식료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제생활은 문란하여진 것이다. 국내의 경제생활을 융성시키는 위하여서는, 또한 공업과 농업이 그 생산품의 계속장성에 대한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한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 즉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에, 국내의 여러구역과 여러주(州)와의 사이에, 인민경제의 여러가지 부문사이에 전개되어가는 상품유통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 상품도매소(都賣所)들, 상점들, 소매점들의 망(網)이 반드시 조밀(稠密)하게 퍼져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상품도매소, 상점, 소매점들의 통로를 걸쳐서 상품이 생산지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지체없이 반드시 유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영상업망이나 협동조합의 상업망이나 지방공업이나 골초즈나 개인경영의 농민들이나 다 반드시 이 사업에로 인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발달된 소비트적(消費的) 상업, 자본가들이 없는 상업, 간상업자들이 없는 상업이라고 이른다.

보는바와같이 소비트적(消費的) 상업은 전개시키는것은 긴급한 임무이며, 그것을 해결함이 없는 앞으로 더 나아갈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 진리가 이처럼 아주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당은 보고기간에 있어서 소비트적(消費的) 상업의 전개시키는 길에서 여러가지 장애물들(阻礙物)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 장애물들은 소비트적(消費的) 상업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부 공산당원들이 착각(錯覺)을 일으킨 결과라고 간단하게 규정할수 있을것이다.

공산당원들의 일부 대렬에는 일반적으로 상업, 부분적으로는 소비트적(消費的) 상업에 대하여 멀리하는 거만한 태도가 아직도 지배(支配)하고있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소위 공산

당원들은, 쏘베트적 상업은 이차적, 가치없는 사업으로 간주하며 또한 상업일꾼들은 여망(餘望) 없는 사람들로 간주한다. 이 사람들은, 쏘베트 상업에 대하여 그들이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것은 불셰비크적 견해를 표현하는것이 아니라 큰 자존심은 가지고 있으나 온갖 행장(行裝) 끼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령락(零落)한 귀족들의 견해를 표현하는것임을 아마 리해하지 못하는것이다. (박수). 이 사람들은, 쏘베트상업은 우리의 혈연적 불셰비크적 사업이며 상업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 통틀어넣어서 상업일꾼들은, 만일 그들이 진실하게만 일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적 불셰비크적 사업의 실행자가 되는것임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이다. (박수). 당이 이 소위 공산당원들을 단단히 두드리었고 그들의 귀족적 편견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던것은 명백한 일이다.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된다).

다음에는 다른종류의 편견들을 극복하게 되었던것이다. 이것은 쏘베트상업은 지나간 계단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물품 직접교환을 개시하여야 하며 화폐가 단순한 회계상의 표현(票現)으로 변하여졌으므로 그것이 속히 폐지될것이라고 말하며 물품직접교환이 박도하였는데 무슨 까닭에 상업을 발전시킬것이나고 말하는 우리의 일부 일꾼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좌경적 잡담들이다. 쏘베트 상업의 전개를 파란하라고 노력하는 자본주의적 분자들을 도와주는 이 좌경적—소부르조아적 잡담은 일부의 『적색교수』들 사이에만 돌아다니는것이 아니라 또한 일부의 상업일꾼들 사이에도 돌아다니는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쏘베트 상업의 아주 단순한 사업도 바로잡아놓을 능력이없는 이 사람들이 일층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물품직접교환을 개시하려고 떠드는것은 물론 우습고도 망척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돈·끼호레류(類)를 돈·끼호레류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실생활상에 대한 보통적 감

까지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역시 맑스주의와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공산주의의 첫째 계단——사회주의적 발전계단이 완성될 때까지 아직 오래있게 될 것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화폐가 부르조아적 경제의 도구(道具)이나 쏘베트주권이 쏘베트 상업을 전반적으로 전개시키며 그리함으로써 물품직접 교환에 대한 조건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기 수중에 잡아쥐고 사회주의의 이익에 순응(順應)시켰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물품교환은 아주 잘 정돈된 쏘베트 상업을 거쳐서만, 또 그의 결과로서만 성숙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속히 있어지지 못할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은 전개된 쏘베트적 상업을 조직하여야 이 「좌경적」 천치(天痴)들도 격파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소부르조아적 잡담을 바람에 날려버려야 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에는 상품을 기계적으로 분배하는데 대한 상업일꾼들의 전전치 못한 습관(習慣)을 극복하며 상품의 품종에 관한 요구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청산하며 상품을 기계적으로 발송하는 것과 상업에 있어서 개인책임회피를 청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주(州) 및 구역연합적 상품도매소들이 열리었고 수많은 개소의 새 상점과 소매점들이 열리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시장에서의 협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청산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인민위원부들로부터 자기의 상품으로써 상업을 개시하게 하였고 또 공급 인민위원부로 하여금 농산품의 광범한 비배급적 상업을 확장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한편

으로는 경쟁의 형식으로서 협동조합의 상업을 개선케 하였고 다른편으로는 시장에서 물가를 낮추며 또 시장을 전전케 하였다.

낮은 가격으로 식료를 공급하는 광범한 식당망(食堂網)(『공동식당』)을 전개하였으며 공장과 관계없는 분자들을 공장공급에서 떼고 공장 및 제조소에 노동자공급부(供給部)(『오르쓰』)들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충공업 인민위원부의 계통에서만도 五十萬명이상의 공장과 관계없는 분자들을 공장공급에서 떼게 되었다.

단기대부를 주는 중앙집권제로 통일된 은행인 국립은행——상업상 거래에 자금을 융통하여줄 능력이있는 二千二百개소의 구역지점을 지방에 둔 국립은행을 정돈(整頓)하였다.

이 여러가지 대책의 결과로 우리는 보고기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즉 (一)、상점 및 소매점망이 一九三〇년에는 十八萬四千六百六十二개소이던것이 一九三三年에는 二十七萬七千九百七十四개소에까지 증가되었다.

(二)、一千十一개소의 주(州)상품도매소가 새로 조직되었고 八百六十四개소의 구역연합 상품도매소가 새로 조직되었다.

(三)、一千六百개소의 로동자 공급부망(網)이 새로 조직되었다.

(四)、빵을 파는 무배급적 상점망이 증가되어서 현재에 있어서는 三百三十개의 도시를 망라하고 있다.

(五)、공동식당망이 증가되어서 현재에 와서는 一千九百八十萬명의 수용자를 망라하고 있다.

(B)、공동식당까지 합쳐서 국가적 및 협동조합적 방면에 있어서의 상품류통이 一九三〇년에는 一、百八十九億루블이던것이 一九三三년에는 四百九十億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쏘베트적 상업의 이러한 발전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상품류통의 현하의 상태가 우리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는것은 지금에 있어서 어느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임무는, 쏘베트적 상업을 앞으로 더 전개시키며 이 사업에 지방공업을 참가시키며 플호즈—농민의 상업을 보다 더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쏘베트적 상업을 향상시키는 방면에 있어서 새로운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쏘베트적 상업을 발전시키는 그것만으로 국한할수 없다는것을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이 상품류통의 발전과 쏘베트적 상업의 발전에 의거한다면 따라서 쏘베트적 상업의 발전은 우리의 철도운수업 및 수상운수업과 자동차운수업의 발전에 의거하는것이다. 상품도 있고 상품류통을 전개할 완전한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나 운수기관이 상품류통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며 그리하여 하물운송(荷物運送)을 못하게될수도 있을것이다. 일반이 다 아는바와같이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자주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운수업은 우리의 전경제 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상품류통을 저해할수있는, 또는 벌써 저해하고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부문이 되고있다. 사실 철도운수업은 그 하물운송이 一九三〇년에는 一千三百三十九億톤—절로메타이던것을 一九三三년에는 一千七百二十億톤—절로메타에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제에는 적은것이며 너무도 적은것이다.

수상운수업은 그 하물운송이 一九三〇년에는 四百五十六億톤—킬로메타이던것을 一九三三年에는 五百九十九億톤—킬로메타이던것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는 적은것이며 너무도 적은것이다.

나는 一九一三年에는 자동차(하물차 및 승용차)가 八千八百대(臺)이던것이 一九三三年에는 十一萬七千八百대까지 증가된 자동차운수기관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인민경제에 있어서는 말하기도 부끄러울만큼 적은것이다.

만일 운수업기관들이 일반이 다 아는 사무실적—관료주의적 지도방법이라고하는 병(病)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형태의 운수업이 훨씬나게 일할수있었을것은 의심할것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임무는, 일꾼들과 물자로서 운수업을 도와주어야 할 그 외에도 운수기관에서 일에 대한 관료주의적—사무실적 태도를 근절하여 버리며 그 기관들을 일층 실무적(實務的)기관으로 만들어 놓는데 있는것이다.

동지들! 우리는 공업의 기본문제들을 옮겨 해결하여 내었다. 그리하여 지금 공업은 튼튼히 서고있다. 우리는 농업의 기본문제들도 역시 옮겨 해결하여 내었다. 그리하여 농업도 역시 지금에 튼튼히 서고있다고 바로 솔직하게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상품류통이 민활(敏活)하게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운수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障礙物)이 되게된다면 우리는 그 성과들을 잃어버릴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상품류통을 전개시키며 운수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임무는 당면의 긴절한 임무로서 그것을 해결함이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수 없는것이다.

三、당(黨)

당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다.

이번대회는 레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기쁨날에서, 반(反) 레닌주의적 그루빠들의 잔재들을 청산한 기쁨날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反) 레닌주의적 트로츠키파들의 그루빠는 깨트려져서 흩어졌다. 그 그루빠의 조직자들은 지금, 국외(國外)에서 부르조아정당들의 뒷문에서 배회(徘徊)하고 있다.

반(反) 레닌주의적 우경파들의 그루빠도 깨트려져서 흩어졌다. 그루빠의 조직자들은 자기의 견해를 이미 내어버린지 오래이며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당의 앞에서 자기들의 죄파를 써치버려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있다.

민족주의적 경향의 그루빠들도 깨트려져서 흩어졌다. 그 그루빠들의 조직자들은 혹은 무장간첩과의 망명객들과 영영 결합되었거나 혹은 자기의 죄파를 자백하고말았다.

이 반혁명적 여러그루빠에 소속된자들의 대다수는 어쩔수없이 당의 로선이 옳은것을 승인하게되었으며 그리하여 당의 앞에 항복하였다.

만일 제十五차 대회에서는 당의 로선이 옳다는것을 아직도 증명하여가며 일정한 반레닌주의적 그루빠들과 투쟁을 하게되었고 제十六차 대회에서는 그러한 그루빠들의 최후 심부름자들을 마저 쳐없애게 되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증명하여 줄 여지도 없을뿐더러 때려칠 사람도 아마 없는것같다. 당의 로선이 승리하였음은 모두다 보는바이다. (퇴성같은 박수).

나라를 공업화하는 정책은 승리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 누구에게나 다 명백하다. 이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

콜라크총을 생산하는 것과 전반적으로 집단화하는 정책은 승리하였다. 그 결과도 또한 누구에게든지 다 명백하다. 이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험에 의하여 단독으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성공과 또는 무엇보다도 먼저 五개년계획의 승리는 온갖 또는 모든 반(反)레닌주의적 그루빠들을 종결적으로 혼란케 하였고 그리하여 여지없이 깨트려 버린 것이 명백하다. **당은** 지금에 있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통일결속되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끝지지 않는 폭풍우 같은 박수)**.

(1) 사상적—정치적 지도의 제문제

그러나 이것은 투쟁이 끝났으며 또한 사회주의의 금후의 진격은 쓸데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당내에는 만사가 다 잘 되어 가며 그안에는 아무런 경향도 더는 없을 것이니——그러므로——지금에는 승리자로서安然자약(安然自若)할 수 있다 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의 적들, 모든 색채의 기회주의자들, 모든 종류의 민족주의적 경향분자들을 분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때올로기의 찬재는 아직도 일부 당원들의 머릿속에 살아있으며 또한 잇다금 그 본색을 나타내고 있다. 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격리(隔離)되어있는 그 어떠한것으로 관찰할 수 없는것이다. 당은 그를 둘러싸고있는 주위 환경속에서 살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는것이다. 전전치못한 기분이 흔히 외부로부터 당내에 들어오는것은 이상한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분을 배양하는 환경을 이루고있는 어떤 중간층의 주민이 도처에나 농촌에나 존재하여있는 그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러한 기분이 생기게하는 치반은 의심없이 우리나라에 있는것이다.

우리당 제十七차 대표회의는, 제二次五개년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기본적 정치적 임무 중의 하나는 「경제와 사람의 의식에 있는 자본주의의 여습을 극복함에」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전혀 옳은 사상이다. 그런데 경제에있는 자본주의의 모든 여습을 우리는 벌써 극복하였다고 말할수가 있을가? 아니다, 그렇다고 말할수가 없는것이다. 더구나 사람의 의식에있는 자본주의의 여습을 우리가 극복하였다고 말할수가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말할수 없는것은 사람들의 의식은 그 발전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 상태보다 뒤떨어지는것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주의적 포위(包圍)가 아직까지도 존재하여 있기때문이다. 그 자본주의적 포위는 조선에서의 경제와 사람의 의식에 있어서 자본주의 여습을 소생시키며 지지하려고 애쓰고 있으므로 우리 불쇄비크들은 그에 대하여 언제나 늘 옹의주도하게 명심하고 있어야 할것이다.

이 여습들이, 이미 깨트려진 반레닌주의적 그루빠들의 이때올로기를 우리당의 일부 당원들의 머릿속에서 소생시키는데 좋은 치반이 되지않을수가 없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

기이다. 우리 당원의 다수의 이론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것, 당기판들의 미약한 이해를 로기적 사업, 우리 당 일꾼들이 순전히 실지사업에 몰두하여 자기들의 이론적 지식을 보충시킬 가능성을 잃고 있는 사실등을 첨부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출판물에 자조 나타나며 또는 깨트려진 반(反) 레닌주의적 그루빠들의 이해올로기의 잔재의 소생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일부 당원들의 머리속에서의 레닌주의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혼란이 어더로부더 생기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투쟁이 끝났다고, 또는 사회주의 진격정책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깨트려진 반레닌주의적 그루빠들의 이해올로기의 잔재가 일부당원들중에서 아직도 얼마나 생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 레닌주의의 여러문제에서 레를 들어서 그것으로써 비일수있다. 계급없는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레를들어보자. 제十七차 당대 포회의는 우리가 계급없는 사회주의적 사회를 창설하는 데로 향하여 나간다고 말하였다. 계급없는 사회가 말하자면 적절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것은 모든 근로대중의 노력(努力)으로써 즉 국내와 또는 국외의 적들과의 투쟁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기관을 더 강력하게 하며 계급투쟁을 전개하며 계급들을 멸절하며 자본주의적 계급들의 잔재들을 청산함으로써 전취하며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명백한 듯하다.

그러나 레닌주의의 이렇게 명백하고 또한 초보적인 레제의 선포(宣佈)가 일부당원들의 머리속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고 전전치 못한 기분을 일으킨 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가 아닌가? 포어로 내놓은 계급없는 사회로 우리가 전진한다는 레제를 그들은 자연생장적 과정으로 리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급없는 사회라고 했으니 계급투쟁을 완화(緩和)시킬수 있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미약하게할수 있는 것이며 또 일반적으로 가까운장래에 필연적으로 조락(凋落)될 국가를 없애버릴수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속히 아무런 계급도 없게될것인즉 계급투쟁도 없을 것이며, 그렇기때문에 근심도 적정도 없게될것이며 그렇기때문에 무기를 던지고 계급이 없는 사회가 올것을 기대하면서 안심하여 잠잘수있다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황홀속에 취한것이다. (만장대소).

머리속에있는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기분이, 낯은것은 저절로 새것으로 변생될것이며 그리하여 그어느 날에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 사회에 슬그머니 들어서게 되리라는 우경분자들의 일반이 다아는 결핵과 조금도 틀리지않고 류사한것은 의심할바가 없는 것이다.

보는바와같이 과멸된 반레닌주의적 그루빠들의 이때올로기의 잔재들은 심분소생활수 있는 것이며 아직도 자체의 생활력을 잃기에는 먼것이다.

이러한 혼란한 견해(見解)와 비(非)불셰비키적 기분이 우리당의 다수를 차지하였더라면 당은 동원해제(動員解除)와 무장해제(解除)의 상태에 빠졌을것은 명백한일이다.

버금으로 농업아르젤리와 농업کمونه 대한 문제들 들어보자.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아르젤리가 폴호즈운동의 유일한 좋은 형태라는것을 지금에는 모두다 인정한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데 의하여 전혀 명백한것이다. 즉 (1)、아르젤리는 폴호즈원들의 개인적 생활상 리익을 그들의 사회상 리익과 옮겨 결합시키는 것이며, (2)、아르젤리는 개인적 생활상

리익을 사회상 리익에 알맞게 적용시키는 것이니, 그리함으로써 작업의 개인경영농민을 집단주의의 정신으로 교양시키는 것을 쉽게 하여 주는 것이다.

다만 생산수단만 공동화된 아르젤리와는 달라서 콤론에서는 최근까지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또한 콤론회원의 각 개인의 생활상태까지도 공동화 되었었다. 다시 말하면 콤론의 회원들은 아르젤리의 회원들과 달라서 가금(家禽), 소소한 가축(家畜), 젖짜는 소, 곡물, 더전을 개인소유물로 가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콤론에서는 그 회원들의 개인적 생활상의 리익이 고려되었고 사회상 리익과 결합되었다고 보기도 오히려 그것이 소부르조아적 평균제(平均制)에 유리하도록 사회상 리익에 질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정이 콤론의 가장 약점이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콤론이 크게 보급되지 못하고 몇개식이나 수십개식만 있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역시 그 원인에 의하여 콤론들은 자체의 존재를 유지(維持)하고 와해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개인 살림사리의 공동화를 포기(拋棄)하게 되었으며 표준노동일제(標準勞動日制)로 일하기를 시작하며 곡물을 회원에게 내어주며 가금, 소소한 가축, 젖짜는 소, 기타의 개인소유물(所有物)을 허락하고 있으니 이로부터 콤론들은 사실상 아르젤리의 처지로 넘어갔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아무런 나쁜 것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적 플호즈운동의 전전한 발전이 그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물론 콤론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가 그가 앞으로는 플호즈운동의 최고형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콤론은 필요한 것이며 또한 그는 물론 플호즈운동의 최고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발달되지 못한 기술과 생산물이 부족한

토대우에서 생기었고 또 그 자체가 아르젤리 처지로 넘어가는 현하의 콤문이 아니라 일층 더 발달된 기술과 생산물이 풍족한 토대우에서 생기게 될 장래의 콤문인 것이다. 현하의 농업 콤문은 적게 발달된 기술과 생산물이 부족한 기초우에서 생기어났다. 그가 평 균 제를 실시하였고 또한 자기 회원들의 개인적 생활상 이익에 대하여 고려함이 적었던 것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에 와서는 플호즈원들의 개인적 이익과 공동 이익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아르젤리의 처지로 부득이 넘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장래의 콤문은 발달되고 또한 풍족하게 된 아르젤리로부터 자라나오게 될 것이다. 장래의 농업 콤문은 아르젤리의 전야(田野) 및 페르마의 목물, 가축, 금, 채소 기타 모든 생산물이 풍족하게 되고 아르젤리에 기계화된 세탁소(洗濯所)와 현대식의 주방(廚房) - 식당과 빵 공장등이 일하게 되고, 플호즈원이 자기의 것 짚는 소와 소소한 가축을 사양(飼養)하는 것 보다 페르마로부터 우유와 육류를 받는 편이 그에게 유리한 것을 깨닫게 되며, 플호즈너성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과 빵 공장에서 빵을 타오는 것과 공동 세탁소에서 빨래한 내의를 찾아오는 것이 자 기준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에게 유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대에 생길 것이다. 장래의 콤문은 일층 발달된 기술과 일층 발달된 아르젤리의 토대우에서 생산물이 풍족한 토대우에서 생길 것이다. 어느 때에 이렇게 될 것인가? 물론 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될 것이다. 아르젤리가 장래의 콤문으로 성장전화하는 과정을 인위적(人爲的)으로 추진한다면 범죄일 것이다. 그리하는 것은 모든 계획을 수로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의 적들의 일을 쉽게 하게 하여 줄 것이다. 아르젤리가 장래에 콤문으로 성장전화하는 과정은 모든 플호즈원들이 이렇게 자라 넘어가는데 대한 필요를 확신하게 되는 데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아르젤리 및 콤포넬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문제는 명백한 것이며 또한 거의 초보적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당원들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는 것이다. 아르젤리를 팔호즈 운동의 기본형태로 선언함으로써 당은 사회주의에서 물러섰으며, 콤포넬로부터 즉 팔호즈 운동의 높은 형태로부터 낮은 형태로 퇴각하였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고 묻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아르젤리에는 그 회원들의 주요에 있어서와 개인생활에 있어서 차이가 보존되어 있음으로 평등이 없는 것이며 콤포넬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첫째로, 우리나라에는 주요 및 개인생활의 방면에 있어서 평균화(平均化)、평균제가 있는 그러한 콤포넬이 인제는 더는 없는 것이다. 실천은, 콤포넬이 평균제를 포기하지 않고 또 사실상으로 아르젤리의 처지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기필코 과멸되었으리라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원체 세상에 없는 것을 들어 논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주요 및 개인생활의 방면에 있어서의 평균제는 원시적(原始的) 금욕(禁慾)주의자들의 어떤 종파(宗派)에는 합당할 지언정 팔호즈의적으로 조직된 사회주의적 사회에는 합당치 않은 반동적인 소부르조아적 허망(虛妄)인것은 어떤 레닌주의자들지——만일 그가 진정한 레닌주의자라면——다 아는 바이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주요와 취미(趣味)가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생활에 있어서 꼭 한 모양으로 살기를 요구할 수 없는 까닭이다. 또한 마지막으로서 노동자들 중에는 주요에 있어서나 그들의 개인생활에 있어서 차이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은 노동자들이 농업콤포넬의 회원들보다 사회주의에서 일층 멀리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아마 사회주의는 사회성원들의 주요 및 개인생활의 평균제, 균일화, 평등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추상(推想)은 맑스주의, 레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음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맑스주의는 평등이라는 것을 개인수요 및 생활방면의 평균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들의 멸절로 이해한다. 즉 (1)、자본가들이 전복되고 수탈(收奪)된 후에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에서 동일하게 해방된 것、(2)、생산수단들이 전 사회의 소유로 넘어간 뒤에 그에 대한 사유(私有)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폐지된 것、(3)、모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노동하는 동일 한 의무와 그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 노동에 따라서 받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 (사회주의 사회)、(4)、모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노동하는 동일한 의무와 그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의 수유에 따라서 받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이에 있어서 맑스주의는, 사람들의 취미와 수유는 사회주의의 시기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의 시기에 있어서도 결(質)로나 또는 량(量)으로나 동일과 평균이 없으며 또한 있을 수 없으리라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곧 평등에 대한 맑스주의적 전제인 것이다.

이외에 아무런 평등도 맑스주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가 사회성원들의 주요의 평균제, 균일화, 평등과 그들의 취미 및 개인생활의 평등화를 요구하며, 맑스주의자들의 계획에 의하면 모두다 한가지의 복을 입고 다니며 한가지 음식을 동일한 분량으로 먹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천박(淺薄)하는 것을 말함이며 맑스주의를 왜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맑스주의는 평균제의 적(敵)이라는것을 깨달을때가 되었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원시적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그것이 「전반적 금욕주의와 소박한 평균제」를 설교한다고하여 그것을 반동적이라 하면서 공박하였다. 엥겔스는 그의 「반(反) 유링론」에서, 유링이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제기한 「급진적 평균제적 사회주의」를 공박하여 비판하는데 한장(一章)을 서술하였다. 엥겔스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즉

「평등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적 요구의 현실적 내용은 계급들을 멸절하는데 대한 요구에 이상 더 지나가는 평등에 대한 요구는 불가피적으로 허망에 이르게하는것이다」.

레닌도 역시 이와같은것을 말하였다. 즉

「엥겔스가, 계급들의 멸절을 내놓은 평등의 개념(概念)은 극히 무지하고 또한 망측한 선견이라고 쓴것은 천변이나 옳은것이다. 부르조아적 교수들은, 우리가 한사람을 다른 한사람과 동일하게 만들려고하는듯이, 평등이란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론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 자신이 꾸며낸, 이 무의미한것을 가지고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비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또한 실제로 현대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설자인 맑스와 엥겔스는——만일 평등을 계급들의 멸절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빈사라고 말한것을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계급들을 멸절하려고한다. 이 판계에 있어서 우리는 평등을 주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서로 동일하게 만들려고 참망한다는것은, 인테리겐차의 편편한 빈소리며 어리석은 허구인것이다」(「자유와 평등이라는 표어로써 민중을 기만하는데 대하여」란 레닌의 연설, 제二四권 二九三—二九四페이지)。

생각컨대 명백한듯하다.

부르조아적 작가들은 맑스주의적 사회주의는 모든것을 평균제의 「원칙」에 종속(從屬)시키던 옛날 짜리시대의 병영(兵營)인것처럼 묘사하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조아적 작가들의 무지와 우둔(愚鈍)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없는것이다.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에 관한 일부 당원들의 혼란된 이 견해와 또한 농업공민들의 평균제적 경향(傾向)에 유혹된것이 우리의 좌익적 고집불통한자들의 소부르조아적 견해와 서로 꼭 같은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이 좌익적 고집불통한자들에게 있어서 농업공민의 리상화(理想化)는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들은 한때에는 공민을 우리의 공장과 제조소에 까지 부식하려고 시도(試圖)하는때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숙련노동자와 비(非)숙련 노동자들이 각각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일하면서 임금을 한주머니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그것을 한결같이 논아가지게 되었던것이다. 이 「좌익적」 고집불통한자들의 이러한 어련애의 착란과같은 평균주의적 연습(練習)이 우리의 공업에 어떠한 해독을 주었는가 는 다 아는바이다.

모든바와같이 분해된 반(反)당적 그루빠들의 이데올로기의 잔재들은 상당히 큰 생명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만일 이러한 좌익적 견해가 당내에서 승리를 얻었다면 당은 맑스주의적 당이 되지못하게 되었을것이며 팔호즈운동은 전연 문란케 되었을것은 명백한 일이다.

혹은 페로 「모든 팔호즈원들을 부요하게 만들자」는 포어에 대한 문제를들어보자. 이 포어는 다만 팔호즈원들에게만 관계되는것이 아니다. 이 포어는 더욱더 노동자들에게 관

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부요하게 충분히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명확한 듯 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부요하게 사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一九一七年十月에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과 또 여러해 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빈한과 궁핍(窮乏)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빈한과 궁핍을 없애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하여 부요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명백하며 또 문제의 본질로 보아 초보적인 포어는 일부 당원들중에서 수 다한 의혹, 착란, 흥미를 일으켰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포어는 당에서 패격한 낱은 포어——「치부(致富)하게 되어라」는 포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고 한다. 그들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모두다 부요하게 되고 빈농층이 없게 된다면 우리 불쉐비크들은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누구에게 의거할 것인가? 빈농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여 갈 것인가? 고 한다.

이것이 우수한 일일런지 모르나 이러한 소박(素朴)한 반(反)레닌주의적 견해가 일부 당원들중에 있는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니 그것을 무시(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마 「치부하게 되어라」는 포어와 「모든 골호즈원들을 부요하게 만들자」는 포어와의 사이에 큰 심연이 놓여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첫째로, 치부하게 되는 것은 오직 개별적 사람들이나 또는 그루빠만이 될 수 있는 것이나 부요한 생활에 대한 포어는 개별적 사람이나 또는 그루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골호즈원들에게 관한 것이다. 둘째로, 개별적 사람이나 또는 그루빠들이 치부하게 되는 것은 그 남아지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며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나, 골호즈에서 생산수단이 공동화되어있는 조건하에서의 모든

팔호즈원들의 부요한 생활에 대한 포어는 한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의 온갖 가능성을 제외(除外)하는 것이다. 셋째로, 「치부하게되이라」하는 포어는 자본주의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며 풀라크들이 유력하였으며 국내에 개인 농민경영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었고 팔호즈경영은 맹아상태(萌芽狀態)에 처하여 있던때인 신경제정책의 초계단의 시기에 내 놓았던 것이나 「모든 팔호즈원들을 부요하게 만들자」는 포어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공업에서 박멸되었으며 풀라크들이 농촌에서 와멸되었으며 개인적 농민경영이 뒷자리로 물러갔고 팔호즈가 농업의 지배적 형태로 전환된때인 신경제정책의 마지막계단에 와서 내어 놓은 것이다. 나는, 「모든 팔호즈원들을 부요하게 만들자」는 포어는 고립적으로 제기(提起)된 것이 아니라 「팔호즈들을 불셰비크적으로 만들자」는 포어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제기된것은 이미 말하지도 않는다.

「치부하게되이라」는 포어는 실상 자본주의를 회복시키려는 불으짓음이었지만, 「모든 팔호즈원들을 부요하게 만들자」는 포어는 팔호즈들의 경제력을 더 강하게하며 모든 팔호즈원들을 풍족한 근로자(勤勞者)들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최후잔재들을 마저 때려부서려는 불으짓음인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울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가 난다.)

이 두 포어의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또한 있을수도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울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가 난다.)

빈농층의 존재가 없이는 불셰비크적 사업도, 사회주의도 가능할수 없는듯이 생각하는 것은 말하기도 참피한 어리석은 일이다. 자본주의적 분자들이 있으며 자본가들에게 착취받는 빈농층이 있는때에 레닌주의자들은 빈농층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분자들이

이 타파되고 빈농층이 착취로부터 해방될 때에는 레닌주의자들의 임무는, 그 존재의 존재 조건이 이미 없어진 빈공 및 빈농층을 영구화(永久化)시키며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공을 없애고 또한 빈농층을 부요한 생활에까지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빈공과 궁핍의 토대 위에서, 개인적 수요를 충족하는 토대에서와——비록 빈농층 자체가 더는 빈농층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부요한 생활에로 뛰어올라 가지만——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빈농층의 생활수준에까지 낮추는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이따위 거짓 사회주의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것은 사회주의의 인정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만화(漫畵)일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생산력이 급격하게 장성하는 토대 위에서만, 생산물 및 상품이 풍족한 토대 위에서만, 근로대중의 부요한 생활의 토대 위에서만, 문화가 급격하게 장성하는 토대에서만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리냐 하면 사회주의, 맑스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달된 근로자들의 모든 수요를 바탕으로 또한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일부의 당원들에게 있는바의 빈농층과 부요한 생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착란된 견해는, 빈농층을 모든 또는 온갖 조건하에 있어서 불체비층의 영원한 지주(支柱)로 이상화하며 또한 끝호즈를 혹독한 계급투쟁의 무대로 간주하는 고집불통한자들의 견해가 반영(反映)된 것임은 의심할 것이 없는 바이다.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개트러진 반당적 그루빠들의 이때올로기의 잔재들은 아직도 자체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집불통한자들의 전해가 우리당내에서 승리를 얻었더라면 끝호즈들은 최근량년에 일은바와같은 그러한 성공을 얻지못하였을것이오 또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붕괴(崩壞)되었을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 레닌대 민족문제를 들어보자. 여기에서도 즉 민족문제의 영역(領域)에 있어서도 다른문제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당원들중에는 어떤정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착란된 전해가 있는것이다. 나는 자본주의의 여습의 생명력에 대하여 말하였다.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는 다른 영역에서 보다도 민족문제의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한층 생명력을 가지고있음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그 여습이 한층 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것은 민족적 의복으로써 잘 변장(變裝)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는 까닭이다. 여러 사람들은 스크리브니크의 죄과는 특수한 경우이요 상해에서 벗어나지는 레외의것이라고 생각들한다. 이것은 옳지못하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스크리브니크 및 그의 그루빠의 죄과는 레외의것이 아니다. 그러한 탈선은 다른 여러 민족공화국에서도 어떤 동지들에게서 보게된다.

대로써야적 민족주의의 경향이나 혹은 지방적 민족주의의 경향이나 다 같이 민족주의의 경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민족주의의 경향은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 정책을 부르조아지의 민족주의적 정책에 순응시키는것이다. 민족주의로의 경향은 쏘베트제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회복시키려는 「자국의」、「민족적」 부르조아지의 시도의 반영인것이다. 보는바와같이 두경향의 원천은 공통한것이다. 이것은 레닌주의적 국제주의에서 물러가는것이다. 만일 두경향을 다 공격하려면 지방적 민족주의의 경향이나 대로써야적 민족주의의

경향이냐를 물론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원칙을 취부서야 할 것이며 즉 국제주의에서 물러가는 자들을 취부서야 할 것이다. (퇴성 같은 박수.)

어떠한 경향이 주되는 위험성이 되는가, 대로써야 적 민족주의에로의 경향인가 혹은 지방적 민족주의에로의 경향인가? 하는 데 대하여 논쟁을 한다. 현하의 조건하에 있어서 이것은 형식적 논쟁이며 또 그러므로 공허한 논쟁인 것이다. 모든 시기와 모든 조건에 전 부합도록, 주되는 위험 및 주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기성된 처방(處方)을 낸다는 것은 어 리석은 일일것이다. 이러한 처방은 대체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기를 중지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경향이 국가적 위험이 되기까지 자라나게 된 그런 경향이 곧 주 되는 위험이 되는 것이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우크라이나에서는 바로 얼마전까지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경향이 주되는 위험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와 투쟁하기를 중지하였고 그리하여 그가 무장간첩찬동자들과 결탁되기까지 자라나게 된 그 때에 와서는 그 경향이 주되는 위험으로 된 것이다. 민족문제의 영역에 있어서의 주되는 위험에 대한 문제는, 공허한 형식적 논쟁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 모멘트에 있어서의 사태를 맑스주의적으로 분석(分析)하며 그 영역에 있어서 범한 오류들을 연구하는 데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다.

일반적 정책의 영역에 있어서의 우경 및 「좌」경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 같이 말하여야 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영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우리 당원들중에는 적지 않은 착란된 견해가 있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우경에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좌」경에 대하여 그것이 위험스럽지 않다거나 또는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그와의 투쟁을 끊지며 그와의 투쟁을

약하게 한다. 이것은 중대하고도 위험한 오류인 것이다. 이것은 당원으로서 용허할수 없는 「좌」에 대하여 양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좌」경분자들이 우경분자들의 립장에론 영영 넘어갔으며 본질상 후자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까닭에 더욱이 용허될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좌」경분자들이라는 것은 좌경적 연사로써 자기들의 우경성을 가장(假莊)하는 그 우경분자들이라고 할상 설명하였다. 지금에는 「좌」경분자들 자체가 우리의 이 설명을 실증하여 준다. 트로츠키파들의 「회보(會報)」의 작년호들을 들어보라. 거기에서 트로츠키파 진사들은 무엇을 요구하였으며 무엇에 대하여 썼으며 또한 그들의 「좌」경적 강령은 어떠한 것인가? 그들은, 리익을 내지 못한다하여 썬호츠의 해산, 실속이 없다하여 대부분의 팔호츠의 해산, 콜라크를 청산하는 정책의 거부, 리권(利權) 정책에 돌아가라는 것을, 리익을 내지 못한다하여 우리의 여타공업기업소들을 리권으로 추락하는 것 등등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여타분에게 보이는바의 밑살스러운 비점자(卑怯者)들과 투항자(投降者)들의

장명, 소련에서의 자본주의의 회복에 대한 반혁명적 장령인 것이다!
이것은 극단의 우경분자들의 장령과 무엇이 다른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좌」경분자들은 우경분자들과 별력을 지으며 그리하여 당에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우경분자들의 반혁명적 장령에 공공연하게 연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된후에도 「좌」경이 위험치않다거나 혹은 그리 위험치않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겠는가? 이따위 허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레닌주의의 극악한 적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며 준다는것이 명로하지 않은가?

보는바와같이 여기에서도, 즉 당의 로선에서 벗어나는 여러가지 경향의 방면에서도

일반적 정책에 있어서의 경향이거나 혹은 민족문제에 있어서의 경향이거나 간에——사람들의 의식속에 있는, 그 중에는 일부의 당원들의 의식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여습은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상—정치적 사업의 중대하고도 절박(切迫)한 문제의 몇가지이며 여기에 있어서 당의 일부층에 분명치 못한 견해, 착란, 그렇지 않으면 레닌주의로부터의 직접적인 리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이 일부의 당원들의 견해에 있는 착란을 표시하는 문제들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후에도 우리당내에는 모두다 무사태평하다고 말할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하지 못할것은 명백하다.

사상—정치적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임무들은 아래와 같다. 즉

(一)、당의 리론적 수준을 상당한 정도에까지 제고시킬것,

(二)、당의 모든 부분에서 이데올로기적 사업을 힘써할것,

(三)、당 대열내에서 레닌주의를 꾸준히 선전할것,

(四)、당 단체들과 그들을 둘러싸고있는 비당원 열성자들을 레닌주의적 국제주의 정

신으로 교양할것,

(五)、일부 동지들이 맑스—레닌주의에서 물러가는것을 퇴어두지 말고 용감하게

비판할것,

(六)、레닌주의에 적대되는 조류(潮流)들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잔재들을 계속적으로 폭로시킬것 등등이다.

(2) 조직 지도의 제문제

나는 우리의 성공에 대하여 말하였다. 당의 로선이 인민경제와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나 또한 당내의 반레닌주의적 그루빠들을 극복하는 영역에 있어서 승리한 때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우리의 승리의 전세계사적 의의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서나 모든 점에서 다 승리하였으며 또 모든 문제가 벌써 다 해결되었다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성공들과 승리들은 대체로 세상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및 결점들이 아직도 적지않게 남아있다. 우리의 앞길에는 해결을 요하는 임무들이 가득 쌓여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여러가지 긴급한 당면임무들의 많은 부분이 이미 성과있게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런 의미에서 우리당이 위대한 승리를 얻었음은 아무 의심할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문제되는 것은, 이 승리는 어떻게 달성되었는가, 이 승리는 사실에 있어서 어떻게, 어떠한 투쟁으로, 어떠한 노력으로써 얻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이 좋은 로선을 작성하며 그것을 일반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일반적 배제 및 결정서의 형식으로 진술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일차 가결로 결의하기만 하면 승리가 저절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큰 오해인 것이다. 오직 고쳐낼수 없는 관료주의자들과 사부설적 일꾼들만이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이 여러가지 성공과 승리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당의 로선의 실시를 위한 격렬한 투쟁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승리는 언제든지 저절로 오는 법이 없고 그것은 언제나 힘을 들여서 얻는 것이다. 당의 총로선에 대한 좋은 결정서들과 선포문들은 이것이 다만 사업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승리하려는 지망(志望)만을 표시하는 것이며, 승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로선을 내세운 후에는, 문제의 좋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사업이 성공되고 못되는 것은 조직사업의 여하에 달리는 것이며 당의 로선을 실시하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달리는 것이며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달리는 것이며 지도적 기관들의 결의를 실행하는 것을 점열하는데 달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는 당의 좋은 로선과 좋은 결의라고 하더라도 큰 손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좋은 정치적 로선이 나선다음에는 조직적 사업의 여하가 모든 것을——그 중에는 그 정치적 로선 자체의 운명까지도 즉 그의 실행이나 혹은 실패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승리는, 당의 로선을 실행하는 길에서 온갖 종류의 난관과 계통적으로 격렬하게 투쟁함으로써, 그 난관들을 극복함으로써, 난관들을 극복하는데로 당과 로동계급을 동원시킴으로써,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쓰지 못할 일꾼은 잡아내고 난관들과 투쟁하는데 능력있는 좋은 일꾼을 채용(採用)함으로써 달성된 것이며 전취된 것이다.

그 난관들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 난관들은 우리의 조직사업의 난관들이며 우리의 조직적 지도의 난관들이다. 그 난관들은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지도적 일꾼들에게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여러

조직체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당기관, 쏘베트기관, 정제기관, 직업동맹기관, 공청동맹기관, 기타 온갖 기관에 있는 것이다.

우리당 및 쏘베트, 경제 및 기타의 여러 기관과 그 기관 지도자들의 힘과 권위는 전에 없던 정도에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그들의 힘과 권위가 전에 없던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혹은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사업 여하에 달리는 것이다. 이른바 객관적 조건을 구실(口實)로 변명하는 것은 옹지못한 것이다. 당의 정치적 로선이 옳다는 것은 여러해 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증명되었고 또 로동자 및 농민이 그 로선을 지지하리라는 것이 더 의심할바 없게 된 이후로는 이른바 객관적 조건이란 것의 역할은 최소한도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우리의 조직체들과 그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러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결합 및 부족점에 대한 책임이 이제 부러는 열에 아홉은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다만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내에 二百萬 이상의 당원 및 후보당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공산청년동맹에 四百萬 이상의 공청맹원 및 후보맹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三百萬 이상의 로동통신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오쏘아비아힘(국방 및 항공—화학건설사업 후원회)에는 一千二百萬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직업동맹에는 一千七百萬 이상의 맹원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성공을 얻어낸 것은 그 여러 단체의 덕택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성공의 달성률도와 주는 그러한 단체들과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족점과 적지 않은 수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의 탓은 다만 우리에게, 우리의 조직적 사업에, 우리의 조직적 지도가 완전치 못한 데 있는 것이다.

판리기관(管理機關)에 판로주의와 사무실적 행동이 있는 것, 구체적인 산(活) 지도에 선에 「일반적인 지도」에 대하여 떠드는 것, 조직체가 직능별(職能別)로 조직되었고 개인적 책임이 없는 것, 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적 책임의 회피가 있고 임금이 있어서 평균제가 있는 것, 실행을 제동적으로 점열함이 없는 것, 자기비판을 두려워하는 것 등에 우리의 여러 가지 난관의 원인이 있는 것이며 이에 지금 우리의 난관들이 있는 것이다.

이 난관들을 결정서나 결의를 내리는 것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판로주의자들과 사무실적 일꾼들은, 말로서는 당과 정부의 모든 결정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 결정을 그냥 내버려두는 데 이미 오래전부터 잘 숙달되어 온 것이다. 이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직적 사업이 당의 정치적으로 선의 요구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청산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조직적 지도의 수준을 정치적 지도의 수준에까지 높이어야 할 것이었으며 우리의 조직적 사업이 당의 정치적 포어와 결의의 실천적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 난관들을 극복하고 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이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그 투쟁에로 노동자 및 농민대중을 인입시켜야 할 것이었으며 당 자체를 동원시켜야 할 것이었으며 당 및 경제 기관들에서 믿음성 없고 전설치 못하고 변질된 분자들을 청결하여 내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었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조직하여야 할것이였다. 즉

(一)、자기비판을 전개하며 또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부족점을 적발하는것、
(二)、당、소베트、경제、직업동맹 및 공청동맹의 단체들을 남관들과 투쟁하는데로
동원시키는것、

(三)、당 및 정부의 포어들과 결정들을 실시하기위한 투쟁에로 노동자 및 농민대
중을 동원하는것、

(四)、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경쟁과 들격작업 운동을 전개하는것、

(五)、기계—트랙토르정류소 및 콤팩트스의 정치부들을 널리 설치하며 당 및 소베트
의 지도를 농촌에로 더 접근시키는것、

(六)、인민위원부들、총판리국들、트렉스트들을 나누어서 재조직하는것과 경제적 지도를
기업소에로 더 접근시키는것、

(七)、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적 책임의 회피와 임금제에 있어서의 평균제를 없애는것、

(八)、「직능별제」를 없애버리며 개인적 책임을 강화하고 골짜기야를 없애버리는
방침을 취하는것、

(九)、결정실행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며 결정집행에 대한 검열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
도록 중앙통제위원회 및 로농검열위원회를 재조직하는 방침을 취하는것、

(十)、숙련된 일꾼들을 사무실로부터 생산에로 가까이 이동시키는것、

(十一)、고쳐빌수없는 판료주의자들과 사무실적 일꾼들을 폭로시키며 판리기관으로부터
추출하는것、

(十二)、당 및 정부의 결정을 위반하는자들, 사기꾼들, 공담꾼들을 퇴직시키고 그 자리에 새 사람들을 즉 위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며 당 및 쏘베트의 규률을 튼튼케 하는것을 보장할 능력있는 일꾼들을 등용하는것、

(十三)、쏘베트—경제기관들을 청결하며 그 기관들의 정원(定員)을 주리는것、

(十四)、마지막으로、당으로부터 믿음성없는, 변질된 분자들을 청결하여 내는것등이다。

이러한것이 주로、난관들을 극복하여 우리의 조직사업의 수준을 정치적 지도의 수준에까지 높이며 그리하여 당의 로선의 실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이 응당 제기하게되었던 수단들이었다。

여러분은 우리당의 중앙위원회가 보고기간에 있어서 자체의 조직적 사업을 실제로 그렇게 수행하였던것을 아는바이다。

이에 있어서 중앙위원회는、조직사업에 있어서 주되는것은 인.재.의 선택과 결정집행에 대한 점열이라는 해년의 천재적 사상을 지도적 방침으로 취하여왔다。

인재를 선택하는것과 또한 자기가 무능하다는것을 본인자들을 퇴직시키는 방면에 관하여 나는 몇마디 말하려고 한다。

고쳐낼수없는 판로주의자와 사무실적 일꾼들을 파면하는때 관하여서는 우리중에 아무런 의견상위가 없지만은 그런 일꾼들의 이외에도 또한 우리의 사업에 장애를 주는 우리 사업에 방해를 끼치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못하게 하는 두가지 종류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있는것이다。

첫째종류의 일꾼들로 말하면、그들은 과거에 높은 공로가 있는 인물들、즉 고관(高官)이 되어가지고 당 및 쏘베트의 법령은 그들에 대하여 써놓은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

람들에 대하여 채놓은 것으로 인정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실상 당 및 정부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지 않으며 그리하여 당적 및 국가적 규율의 원칙을 깨트리는 그따위 인물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당 및 쏘베트 법령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믿는가? 그들은 쏘베트주권이 그들의 과거의 공로때문에 그들을 전파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거만하게 된 이 고관들은, 자기들이 없으면 안될 인물들이라고, 지도적 기관들의 결의들을 위반하여도 별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꾼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가? 그들의 과거공로를 상관하지 말고 주저함이 없이 그들을 지도적 지위로부터 퇴직시켜야 할 것이다. (「출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가 난다.) 그들을 낮은 지위로 내려보내며 또한 그런 사실들 신문에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출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가 난다.) 이것은 거만하게 된 그 고관—관료주의자들의 자만심을 없애버리고 또한 그들을 적당한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당 및 쏘베트의 규율을 튼튼케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다. (「출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가 난다, 박수.)

그리고 이제 는 둘째 종류의 일꾼들을 보자. 나는 공담꾼들, 말하자면 정직한 공담꾼들 (웃음소리), 정직하고 쏘베트 주권에 대하여 현실적이지만은 그러나 지도할 능력이 없으며 아무것도 조직할 능력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작년에 나는 그런 한 동지와 담화한 일이 있다. 그는 매우 경애할만한 동지이다. 그러나 어떠한 실지사업 이든지 공담으로써 망쳐버릴수있는 그런 고쳐낼수없는 공담꾼이었다. 그담화는 아래와 같 은 것이었다. 즉

나 — 당신들의 파종사업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 — 쓰 딸 린 동지, 파종 말입니까? 우리는 동원되었습니다. (웃음소리).

나 — 그 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 우리는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웃음소리).

나 — 그 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 쓰 딸 린 동지, 우리에게는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이 멀지 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웃음소리).

소리).

나 — 그 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 우리에게는 변동되어 가는 것이 보입니다. (웃음소리).

나 — 그런 데 그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의 파종사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 쓰 딸 린 동지, 우리에게 있어서 파종사업이 아직은 도무지 되어 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대소한다).

공답꾼의 모험은 이러한 것이다. 그들은 동원되었었고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였고, 그들에게는 전환도 있고 변동되어 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업은 전진되지 않는 것이다.

얼마전에 우크라이나의 한 로동자에게 대하여 어느 한 단체의 방침의 유무를 질문하였을 때에 그가 그 단체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 「여하간 방침이야 : 방침

이야 물론이지요만은 다만 사업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고 한 것과 꼭 같은 것이다. (만장에 웃음소리). 그 단체에도 정직한 공답꾼들이 들어앉아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담꾼들을 실무적 사업에서 좀 멀리하고 퇴직시키면, 그들은, 「어째서 우리를 퇴직시키는가? 우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실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들려대원들의 회합을 소집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들려대원들의 협의회에서 당 및 정부의 표어를 선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의 위원전부를 명에 주석단에 선거하지 않았는가, (민정에 웃음소리), 쓰팔린 동지에게 축하를 보내지 않았는가, 그밖에 또 무엇들을 우리에게서 요구하는가?」하면서 팔을 벌리며 어쩔일인가 한다. (모두다 양친대소한다.)

이러한 고쳐낼수없는 공담꾼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가? 그들을 실무적 사업에 그냥 앉혀두게된다면 그들은 어떠한 실지사업이든지 내용이 없고 골이 없는 공담의 창해(滄海)에 침몰(沈沒)시킬수 있는것이다. 오친대 그들을 지도적 지위에서 퇴직시키고 다른 비(非)실무적 사업을 맡겨야 할것이다. 실무적 사업은 공담꾼들이 앉어있을 자리가 아닌것이다. (『을습니다!』 웨친다, 박수.)

중앙위원회가 쏘베트 및 경제 기관들에 있어서 일꾼들을 선택하는 사업을 어떻게 지도하였다는것과 또한 그가 결정집행에 대한 점열을 강화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여왔다는 데 대하여 나는 이미 간단하게 말하였다. 더 자세한것은 까가노위츠 동지가 대회순서의 셋째문제에서 여러분에게 말할것이다.

집행에 대한 점열사업을 장차 강화할데 대하여 나는 몇마디 말하고자한다.

집행에 대한 점열을 옮겨 조직하는것은 판로주의 및 사무실적 행동과 투쟁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지도적 기관들의 결정을 실행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판로주의자들과 사무실적 일꾼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들이 옮겨실행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곡(歪曲)하는가? 기관들이 진실하게 또한 불췌비크적으로 사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떠들기만 하는가——이 모든것은 다만 잘 조직하여놓은 바의 실행에 대한 검열을 통하여서만 제때에 알수있는것이다. 잘 조직하여놓은 결정집행에 대한 검열——이것은 기관들의 사업상태를 아무때라도 알아낼수 있게하여주며 판로주의자들과 사무실적 일꾼들을 세상에 폭로하여주는 탐조등인것이다. 우리의 실행과 결함들의 열에 아홉은 옳게 조직하여놓은 결정집행에 대한 검열이 없는것으로써 설명된다고 단언할수있다. 결정집행에대한 그러한 검열이 있었다면 여러가지 실행과 여러가지 결함들이 확실히 예방(預防)되었을것은 의심할것 없는 일이다.

그런데 결정집행에 대한 검열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두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이다. 즉 첫째로는 집행에 대한 검열이 에피소드적으로 되지말고 계통적으로 되어야 하는것이며, 둘째로는 당—소베트 및 경제기관의 모든 기관에서의 집행에 대한 검열 사업의 지도지위에는 이류적(二流的)일꾼들이 나설것이 아니라 상당히 권위있는 사람들 즉 기관의 지도자들 자신이 나서야 하는것이다.

집행에대한 검열의 옳은 조직은 여러 중앙지도기관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것이다. 로농감독국은 그 조직상으로 보아 집행에 대한 잘 조직된 검열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없는것이다. 몇해전에 우리의 경제적 사업이 일층 단순하였고 또한 그렇게 변변치 못하던 때에는, 그리고 모든 인민위원부 및 모든 경제기관의 사업을 감독할수있음을 기대할수있었던 그 때에는 로농감독국은 적합한 조직체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사업이 자라났고 또한 복잡다단(複雜多端)하여진 때이며 또한 그 사업을 한개의 중앙에서 감

독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게된 때인 지금에 있어서는 로동감독국은 반드시 재조직되어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감독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중앙의 결정의 집행에 대한 검열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중앙 결정의 집행에 대한 통제사업이 필요한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것을 통트려다 감독하는 총괄적 목적을 세우지 말고 소비트주권의 중앙기관들의 결정을 집행하는데 대한 통제사업, 집행할 수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필요한것이다. 그와같은 조직체로서는, 다만 소련 인민위원회의에 직속되어 그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며 각 지방에는 그 지방기관에 종속되지않는 자체의 대표자들을 가지고있는 소비트통제위원회가 될수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충분한 권위를 가지게하기 위하여서는 소비트통제위원회의 위원회 될 후보자들은 반드시 당대회에서 지정되어야하며 그리고 소련 인민위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할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직체만이 소비트통제와 소비트구들을 튼튼히 할수 있으리라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앙통제위원회로 말하면 다 아는바와같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또 주로 당내의 분별을 예방하기위하여 조직되었던것이다. 한때에 우리에게는 분별의 위험성이 사실상으로 있었었던것을 여러분은 아는바이다. 중앙통제위원회 및 그의 기관들은 분별의 위험성을 예방하여 내었던것을 여러분은 아는바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분별의 위험성이 더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그대신에 지금 우리에게는 당 및 그의 중앙위원회의 결정들을 실행하는것을 검열하는 사업에 자기의 주되는 주의를 집중할수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있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생기었다. 이러한 조직체로서는 다만 전면맹 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서 당 및 그의 중앙위원회의 지명에 의하여 활동하며 각 지방에는 그 지방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자기대표자들을 가지고 있는 당통제위원회가 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 책임적 조직체가 반드시 큰 권위를 가져야할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런데 그가 충분한 권위를 가지도록하기 위하여서는, 파오(過誤)를 범하는 어떠한 책임일꾼이든지(중앙위원회위원까지도) 처단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위원들은 오직 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에서만 선거하며 연임(免任)시켜야 할것이다. 이러한 조직체가 당중앙기관의 결정집행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보장하며 당규율을 튼튼케할수 있게될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조직적 지도의 여러문제에 대한것은 이와같이 되어있다.

조직사업의 방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임무들은 아래와 같은것이다. 즉

- (一)、앞으로도 우리의 조직사업을 당의 정치적 로선의 요구에 적응(適應)시켜갈것、
- (二)、조직지도를 정치지도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킬것、
- (三)、조직지도가 당의 정치표어 및 결정들의 실시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할것이다.

* * *

동지들, 나는 총결보고를 끝맺는다.

총결보고에서 생기는 결론들은 어떠한것인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성공들이 위대한것이며 평범한 성공들이 아닌것임은 이미 일반이 다 승인하는바이다. 소련은 비교적 짧은기간에 공업화 및 집단화의 궤도에 들어

했다. 제 一차 오개년계획은 성과있게 실현되었다. 이것은 우리일꾼들로 하여금 당연히 자부심(自負心)이 생기게 하며 자기 역량에 대한 자신을 강하게 한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성공에는 간혹 자체의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 성공들은 간혹 약간의 위험성을 발생시키는바, 만일 그 위험성을 발전시켜 내버려둔다면 사업전체를 못쓰게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의 우리동지들에게는 이러한 성공들로 말미암아 현훈증(眩暈症)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중에서 어떤 동지들은 성공에 취하여 아주 거만하게 되며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는 하늘이 돈앞만하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등의 자만스러운 노래로 자위(自慰)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동지들, 이런 것이 전혀 없으리라 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기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러한 하면 그러한 기분은 당을 무장해제시키며 당의 대열을 해이케 하는 까닭이다. 만일 우리당내에 그러한 기분이 우세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공을 실패에 돌려보낼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제 一차 오개년계획을 성과있게 실행한 것은 물론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동지들, 그렇지 만 일은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끝날 수 없는 것이다. 앞에는 제 二차 오개년계획이 있으며 그것도 역시 실행하여야 하며 역시 성과있게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계획들은 여러가지 난관과 투쟁하는 데서, 그 난관들을 극복하여 가는 행정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그런즉 난관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 난관들과의 투쟁도 있을 것이다. 물론 또 보 동지와 꾸이희세브 동지는 제 二차 오개년계획안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들의 보고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경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큰 난관들

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 2차 오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당안에 경각성을 높이여야 할 것이며, 당으로 하여금 잠자게 할 것이 아니라 그가 늘 전투(戰鬪)준비의 상태에 처하여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무장을 해제(解除)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로부더 나오는 첫째 결론은, 달성하여낸 여러가지 성공에 현혹(眩惑)되지 말며,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의 옳은 지도적 로선이 있었으며 또한 이 로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중을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한 조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한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옳은 로선을 세웠고 또한 그것을 실시하여 내는 것은 지배당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드문 일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나라들을 살펴 보라. 여러분은 거기에서 옳은 로선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실시하는 지배당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가? 고. 실상 그러한 정당들은 지금 세계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전망이 없이 살아가며 공황의 혼돈(混沌)속에서 해매이며 전방구령에서 벗어나올만한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직 우리당만이 일을 어둠으로 인도할 것을 알며 또한 그것을 성과있게 전진시키는 것이다. 우리당이 이러한 자체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우리당은 맑스주의적 당이며 태닌주의적 당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당은 자체의 사업에 있어서

팍스, 엔겔쓰, 레닌의 하설을 지도적 방책으로 삼는 때문이다. 우리가 이 하설에 충실한 대로 남아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 라침(羅針)을 잡고 나아가는 때까지는 자체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를 얻게 될 것은 의심할바가 없는 것이다.

서방 몇 개의 국가에서는 팍스주의가 벌써 박멸되었다고 말한다. 파시즘이라고 이르는 부르조아—민족주의적 조류가 팍스주의를 없애버린듯이 말한다. 이것은 물론 공당에서 넘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팍스주의는 노동계급의 근본적 이익의 과학적 표현인 것이다. 팍스주의를 없애버리면 노동계급을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팍스주의가 무대에 나선 이래로 八十年이 지나갔다. 그동안에 수十 또는 수百의 부르조아 정부들은 팍스주의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부르조아 정부들은 생겨났다가도 사라졌지만은 팍스주의는 남아있다. (폭풍우 같은 박수소리)。그 보다는 더 팍스주의는 지구의 六分지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어내었다. 더욱이 팍스주의가 아주 없어졌다고 하던 바로 그 나라에서 승리를 달성하였다. (폭풍우 같은 박수소리)。파시즘의 나라들까지 통트러놓아서 모든 다른 나라들에서 벌써 四년 동안이나 공황 및 실업이 군림하고 있는 때에, 팍스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달성한 나라가 전세계에 있어서 공황 및 실업을 모르는 유일한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다, 동지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계속되는 박수갈채)。

동지들, 사실 우리가 여러가지 성공을 얻은 것은 팍스, 엔겔쓰, 레닌의 기치 밑에서 사업하였으며 투쟁한 때문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둘째 결론은, 맑스, 엥겔스, 레닌의 위대한 기치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

조선의 로동계급이 힘있는것은 그에게 전투에서 지련된 레닌적 당이 있음으로써만 아니다. 또한 그가 힘있는것은, 그가 수백萬 근로농민대중의 후원을 받는것으로써만이 아니다. 그가 힘있는것은 역시 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가 그를 지지하여주며 도와주기때문이다. 조선의 로동계급은 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일부이며 그의 전위대이며 우리의 공화국은 세계의 후원이 없었다면 우리로동계급은 주권을 자기의 손에 유지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사회주의 전설에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보장하여내지 못하였을것이며 — 따라서 지금 우리로동계급이 가지고있는 그 여러가지 성과가 없었을것은 의심할것이 없는 일이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자본주의적 국가들의 로동자들과의 국제적 편결, 조선의 로동자들과 모든 나라들의 로동자들과의 형제적 동맹 — 이것이 곧 소비에트공화국의 세력 및 위력의 초석(礎石)중의 하나인 것이다. 서방의 로동자들은 조선의 로동계급을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돌격대라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것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앞으로 조선의 로동계급을 힘이 미치는데까지, 할수있는데까지 지지하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무를 지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사업으로써 모든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들의들과 대라는 영예스러운 칭호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함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와 전세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 잘 사업하여야 하며 더 잘 투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는것이다.

아. 의. 이. 로. 부. 터. 나. 오. 는. 셋. 째. 결. 론. 은. 프. 로. 레. 타. 리. 아. 적. 국. 제. 주. 의. 의. 사. 업. 에. 전. 세. 계. 프. 로. 레. 타. 리.

결론들은 이러한 것이다.

내. 오. 람. 에. 대. 한. 위. 대. 한. 백. 전. 백. 승. 의. 기. 치. 만. 세. ! (폭. 풍. 우. 갈. 은. 만. 장. 의. 박. 수. 소. 리. 가. 내. 소. 날.) 노. 래. 가. 끝. 나. 자. 환. 란. 동. 지. 에. 계. 환. 호. 를. 보. 낸. 다. 「인. 터. 내. 소. 날.」 노. 래. 를. 부. 른. 다. 「인. 터. 세. !」 「당. 중. 앙. 위. 원. 회. 만. 세. !」 소. 리. 가. 난. 다.) 제. 속. 된. 다. 「쓰. 딸. 띤. 우. 라. !」 「쓰. 딸. 띤. 만.

이. 위. 쓰. 딸. 띤. 저. 작. 집. 로. 문. 판
제. 一三권 二八二—三七九페이지

결론대신

一九三四년 一월 三十一일

동지들! 이 대회에서의 토론들은 우리당의 지도자들의 전해가, 말하자면 당정책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일치한것을 보이었다. 아는바와같이 총결보고에 대한 반박이라고는 도 무지 없었다. 그런즉 우리당 대렬이 사상—정치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비상이 단결되었음이 이에 나타났다. (박수). 물론, 이렇게 된뒤에도 결론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결론을 그만두기를 허락하라. (폭풍우 같은 환호소리, 전대회는 일어서었다. 우뢰같은 「우라」소리와 「쓰말린 만세!」의 우렁찬 환호가 진동한다. 대회는 일어서서 「인터내쇼날」을 부른다. 「인터내쇼날」노래가 끝난뒤 환호가 다시 일어난다. 「우라!」, 「쓰말린 만세!」, 「중앙위원회 만세!」를 부르는다.)

크레플리 궁전에서 거행된 불은

군대 대학졸업식에서의 연설

一九三五년 五月四日

동지들! 우리가 최근에 와서 전설면에서나 판리면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얻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공로, 수형들의 공로에 대하여 너무도 많이 말들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든 전취가 거기 다 그들의 공로인 듯이 말한다. 이것은 물론 옳지 못한 일이며 정당치 못한 일이다. 문제는 다만 수형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재(人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불은군대의 인재에 대하여 몇 마디 말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기술상으로 뒤떨어졌고 반결인(半乞人)적 상태에 있는, 파산된 나라를 옛 시대로부터 유산(遺産)으로 받았다. 四년 동안의 제국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산되었고 三년 동안의 국내전쟁으로 말미암아 거듭 파산된, 반문맹적 인민을 가졌고 기술이 라후한, 극소농민 형태의 바다속에 잠겨버린 몇 개의 공업 오아지쓰(沙漠中の沃地)들을 가진, 그런 나라를 우리가 전대(前代)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다. 이 나라를 중세

기와 암흑의 계도에서 현대적 공업과 기계화한 농업의 계도으로 옮겨놓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었다. 보는바와같이 이것은 중대하고도 어려운 임무이었다. 우리가 극히 짧은 기간에 이 임무를 해결하여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튼튼히 하여놓게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나라가 — 기술상으로 약하고 문화상으로 암흑한 — 자기의 독립성을 잃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놀음의 대상물이 되어버리게 되든가 — 문제는 그렇게 서있었다.

우리나라는 그때에 기술형역에서 심혹한 기근(飢饉)의 시기를 체험하고 있었다. 공업에 쓸 기계들이 부족되었었고 농업에 쓸 기계들이 없었으며 운수업에 쓸 기계들이 없었다. 나라를 공업적으로 개혁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그 초보적 기술적 토대가 없었다. 다만 그러한 토대를 지을만한 일부의 전제조건들만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일등가는 공업을 창설하여야 될 것이었다. 이 공업으로 하여금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까지도, 우리의 철도운수까지도 기술상으로 개조할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회생과 모든데 있어서 엄격한 절약(節約)을 하여야 될 것이었다. 학교에서도, 직물(織物)에서도 다 절약하고 공업창설에 필요한 자금(資金)을 저축하여야 될 것이었다. 기술형역에서의 기근을 퇴치할만한 다룬길은 더 없었다. 해년은 이와같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해년의 발자취를 밟아나아왔다.

이와같은 크고도 어려운일에 있어서 현속적인 또는 급속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몇해를 지내서야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튼튼한 신경(神經)、불세비크적 건실성、강인한 인내성(忍耐性)으로

무장하고 자기 대렬에서 동요와 회의(懷疑)를 용허하지 않으면서 첫실패들을 극복하며 위대한 목적에로 향하여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했었다.

여러분이 아는바와같이 우리는 이 일을 꼭 이와같은 모양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우리동지들에게 신경, 결실성, 인내성이 다 충분하게 있던것은 아니다. 우리 동지들 가운데는 첫난관들을 당하자 곧 퇴각하기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었다. 「옛 일을 회상하는 사람에게서는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는 말이있다. 이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기억력(記憶力)이라는 것이 있는것이니 우리사업의 결산을 짓는때면 자연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된다. (장내에 유쾌한 활기가 돈다.) 그와같이 우리에게는 난관에 놀래어 당을 퇴각하라고 부르짖은 동지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공업화요, 집단화요, 기계요, 흑색야금업이요, 트랙트르요, 펌바인이요, 자동차요 하는것이 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물을 뿔수있는대로 많이 내놓으며 일용품생산(日用品生産)을 위한 원료를 뿔수있는대로 많이 사들이며 사람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즐겁게하는 모든 세세한 물품을 뿔수있는대로 많이 만들어 주민에게 공급하는것이 낫지 않은가? 우리처럼 라후된 형편에 있어서 공업을 창설한다는것은, 더욱이 일등의 공업을 창설한다는것은 위험한 공상이다」라고.

물론, 우리는 엄격한 절약으로써 얻은 우리공업창설에 지출된 三十億루블의 금화를 원로의 수입 및 일용품생산 확장에 쓸수있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계획」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의하여서는 우리에게서 야금업도, 기계제조업도, 트랙트르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땅크도 다 없게되었을것이다. 우리는 무장하지 못한채로 외적(外敵)

을 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의 기초를 파괴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국내 및 국외의 부르조아에게 포로(捕虜)로 되었을 것이다.

두가지의 계획, 즉 사회주의의 패망(敗亡)에로 인도했을 것이며 또한 인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퇴각의 계획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도 인도하였고 또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미 그 승리에로 인도해드린 진공의 계획과의 사이에서 그 어느것을 선택 하여야 될 것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진공의 계획을 택하여 자기의 코뎀에는 더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가까운 장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장래는 내다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인 이 동지들을 뒤로 물리치고 레닌의 길을 밝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이 동지들은 언제나 다 비판과 소극적(消極的) 반향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중앙위원회에 반대하여 당내에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우리를 위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운데의 몇사람에게 대하여 탄환으로써 위협하였다. 짐작컨대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놀래게 하여 레닌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 불셰비크들은 특수한 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마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들은, 불셰비크들을 난판으로써도, 위협으로써도 놀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투쟁에 있어서 공포(恐怖)란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시인하지도 않은 우리의 수형, 우리의 선생, 우리의 아버지인 위대한 레닌이 우리를 단련시킨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적들이 광포(狂暴)하게 되면 될수록, 당내의 반대자들이 히스데리하게 되면 될수록 불셰비크들은 새 투쟁을 위하여 더욱 긴장하며 더욱 급속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태년의 길에서 물려서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길에 튼튼히 텅각하고서, 도상(途上)에 가로놓여있는 모든 또한 온갖 장애를 무찔러 버리면서 한층 더 급속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 전진에 있어서 동지들이 온대의 몇사람을 특특히 타격하여 능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나도 역시 손을 부치게 되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려 한다. (폭풍우같은 박수, 「우라」소리)。

사실, 동지들,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집단화의 길을 밟아 확신있게 또는 급속하게 나아갔다. 인제는 이 길을 이미 지나온길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금에는 이 길에서 우리가 거대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지인한다. 지금에는 우리에게 유려한 일등의 공업, 유려한 기계화한 농업, 전개되어가고 상승(上昇)하는 운수업, 조직이 짜우고 훌륭히 무장한 붉은군대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지인한다.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기술령역에 있어서의 기근의 시기를 이미 극복하여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령역에 있어서의 기근의 시기를 극복한후 우리는 새 시기 즉 기술을 운용하며 그것을 앞으로 전진시킬줄 아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재들에 대한 기근, 일꾼들에게 대한 기근의 시기라고 말할 그런 시기에 들어섰다. 우리에게는 제조소, 공장, 플호즈, 플호즈, 운수, 군대가 있고 따라 이에 대한 기술은 있지마는 그러나 그 기술로부터 취할 것을 최대한도로 취함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있는 사람들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기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말하였다. 이 포어는, 우리로하여

금 기술명역에 있어서의 기근을 퇴치하고 모든 활동 부문에 있어서의 가장 광대한 기술적 토대를 정어 놓으며 우리 사람들을 일등가는 기술로써 무장시킬 수 있게 한 그 방면에서 우리에게 방조를 주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만족하게 되기까지에는 아주 멀다. 기술을 운용하며 그것을 끝까지 이용하려 하면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며 그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쓸데있게 이용할 능력을 가진 인재가 있어야 야 된다.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없이는 그 기술은 무용한 것이 된다.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로한 기술은 기적(奇蹟)을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행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일등가는 공장과 제조소들에, 우리의 싹호즈와 싹호즈들과 우리의 운수업과 우리의 붉은군대에 이 기술을 운용할만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충분하면 주효로 있게 된다. 우리가 나라는 지금보다 三배, 四배나 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인재에, 일꾼들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명역에서의 기근에 빠져있던 이미 지나간 시기를 반영한 『기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이전 포어는 지금 새 포어로써, 즉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포어로써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주(主)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일꾼들이 이 새 포어의 위대한 의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각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실제로 있어서 자주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인재들에 대한, 일꾼들에 대한 그런 무리한 태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포어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일꾼들에게 — 그들이 「큰」 일꾼이든, 「적은」 일꾼이든지간에, 그들이 어느 부문에서 사업하

든지간에——가장 두터운 배터로써 그들을 잘 교양하며 그들이 원조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첫 성과를 보이는 때에는 그들을 장려하며 그들을 응용(登用)하는 등등을 요구한다. 그런때 사실 많은경우에 있어서 일꾼들에 대한 냉혹(冷酷)한 관료주의적 태도, 아주 무리한 대우의 현상들을 보게된다. 사람을 잘알아보고 또 다만 알아본 뒤에 그에게 책임을 맡기어야 할 대신에 사람을 창기졸 다루듯하는 일이 드물지않는것은 곧 그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기계를 귀중히 여기며 우리의 공장이나 제조소에 기술이 얼마나 있다는것을 보고할줄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기간에 얼마나 인재들을 교양하였고 또 인재들이 사업에서 장성되며 단련되게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다는때 대하여서도 그렇게 보고하기를 즐겨하는 사실이 있었다는것은 나는 하나도 알지못한다. 이것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이것은 아직도 사람들을 중히 여길줄을, 간부를 중히 여길줄을, 일꾼들을 중히 여길줄을 배우지못한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전에 유형생활을 하고있던 시비리에서 있는 사건 하나를 회상한다. 이것은 어느봄에 장물이 뿔을때에 생긴일이다. 막 뒤번저지는듯한 홍수진 강(江)에 떠나려오는 나무를 전져내리고 사람 한 三十명이나 강으로 나갔다. 저녁에 그들이 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중에서 한사람이 없었다. 한사람은 어디있느냐고 무르니 그들은 냉정하게 「저기 떨어졌소」하고 대답하였다. 「어떻게되어서 떠러져 있단말이오?」하고 내가 또 물은즉 그들이 이 그냥 냉정하게 「몰어볼것이 있소? 물에 빠져 죽었다단 말이지요」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중에 한사람은 「말을 몰먹여야 되겠군」하면서 어디로 황황히 가려하였다. 나는 그들

이 짐승을 사람보다 더 살들히 여긴다고 꾸짖었더니 그중에 한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아까워해서는 무엇하우? 사람은 아무때라도 만들어낼수 있는것이지만 어디 : 말을 만들자고 해보우』라고 (장내 전체가 어수선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하는 표정하에서, 대답하였다. 여려분, 이것은 의미가 적은 일인듯하나 그러나 특정한 한 사실이다. 나는, 우리의 어떤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재에 대하여 범연한 태도를 가지며 사람들을 충분히 여길줄을 모르는것은 내가 방금 이야기한 먼 지비리에서 생겼던 에피소드에서 표시된 그 이상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의 유습(遺習)이라고 생각한다.

그런즉 동지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기준을 성과있게 퇴치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전진시키며 기술을 운용할만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을 귀중히 여길줄을, 인재를 충분히 여길줄을, 우리의 공동한 사업에 유익을 줄만한 능력을 가진 각개의 일꾼을 충분히 여길줄을 배워야 될것이다. 나중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값있는 자본가운데에 사람이, 인재가 가장 값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본이란것을 깨달아야 될것이다. 우리의 현시조건에 있어서는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깨달아야 될것이다. 우리의 공업에, 농업에, 운수업에, 군대에 훌륭한 수많은 인재가 있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무적(無敵)의 나라가 될것이다. 그런 인재가 우리에게 없게 된다면 두다리를 다 절개될것이다.

연설을 끝마치면서 우리의 붉은군대 대학졸업생들의 건강과 장래성공을 위하여 축배(祝杯)를 들려고한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조직과 지도사업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동지들! 동지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였다. 동지들은 거기에서 첫 단련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는 다만 준비계단이 될 따름이다. 인재의 진정한 단련은 실제사업에서, 학교 밖에서, 난관과 투쟁하는 데서, 난관을 극복하는 데서 받는 것이다. 동지들, 기억하라! 다만 난관을 겁내지 않는, 난관에서 도파(逃避)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난관을 극복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그 난관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인재들이라야 좋은 인재들이라는 것을, 오직 난관과 투쟁하는 데서 라야 진정한 인재가 길러나오는 것이다. 만일 우리 군대에 참으로 단련된 인재가 충분히 있게 된다면 우리 군대는 무적의 군대가 될 것이다.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만장에는 폭풍우 같은 박수. 모두 일어선. 「우라」를 높이 부르면서 쓰팔턴 동지를 축하한다.)

제 一 차 쓰련 쓰따하노브 운동자 회의에서의 연설

一九三五년 十一月 十七日

一、 쓰따하노브 운동의 의의

동지들! 쓰따하노브 운동자들에 대하여 여기 이 회의에서 대단히 많이 또는 대단히 훌륭히 말들을 하였음으로 정작 나에게서는 말할것이 얼마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를 연단에 불러내온 이상에는 몇마디 말을 하지 않을수 없다.

쓰따하노브 운동을 남녀 노동자들의 보통적 운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쓰따하노브 운동은,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페이지의 하나로서 기록될 그런 남녀 노동자의 운동이다.

쓰따하노브 운동의 의의는 무엇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운동이 사회주의적 경쟁의 새로운 양상, 사회주의적 경쟁의 새로운, 더한층 높은 계단을 표현함에 있는것이다. 어째서 그것은 새로운 계단이며 어째서 더한층 높은 계단인가? 왜 그리냐하면 그 쓰따하노브 운동은 사회주의적 경쟁의 표현

으로 사회주의적 경쟁의 낮은 계단보다 훨씬뛰어나기 때문이다. 과거, 약 三년전 사회주의적 경쟁의 첫 계단의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경쟁이 새 기술과 반드시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실상 새 기술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와 반대로 사회주의적 경쟁의 현지의 계단, 즉 쓰파하노보 운동은 새 기술과 반드시 연결된 것이다. 새롭고 더 높은 기술이 없이는 쓰파하노보 운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여러분의 앞에는, 쓰파하노보, 부쓰진, 스메따닌, 크리워노프, 프로닌, 위노그라도바 자매의 동지들 및 기타 많은 사람들, 새 사람들, 제일에 대한 전문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그 기술을 구사(驅使)하여 앞으로 취진시킨 남녀 노동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 三년전에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거나, 거의 없었다. 이들은 새로운 특별한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쓰파하노보 운동은 현지의 기술적 정량(定量)의 돌파, 재래의 예정생산능력의 돌파, 재래의 생산계획 및 발판쓰의 돌파를 자체의 목적으로 세우는 그런 남녀 노동자의 운동이다. 돌파한다는 것은, 그 정량이 벌써 오늘날로서 우리의 새 사람들에게는 넘어진 것이 되어버린 때문이다. 이 운동은 기술에 대한 낮은 견해들을 타파하며 낮은 기술적 정량, 낮은 예정능력, 낮은 생산계획들을 타파하면서 새롭고 일층 더 높은 기술적 정량, 예정능력, 생산계획들을 창조해내는 것을 요구한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킬 사명을 떠었다. 실로 그렇기 때문에 그 쓰파하노보 운동은 그 기본에 있어서 극히 혁명적인 운동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벌써, 쓰파하노보 운동은 새롭고 일층 더 높은 기술적 정량의 표현으로 새, 그 자체가 자본주의로서는 출수없고 다만 사회주의로서만 출수있는 그런 높은 노동

생산능력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것은 과연 옳은 말이다. 어찌서 자본주의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그것을 극복하였는가? 그것은 그가 일층 더 높은 노동생산능력의 정량을 지어 놓았고 봉건제도하에서보다 비할수없이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수있는 가능성을 사회에 준 때문이며 그것은 그가 사회를 일층 더 부요하게 만들어 놓은 때문이다. 어찌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능히, 반드시, 또는 기어히 승리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보다 일층 더 높은 노동의 표본, 일층 더 높은 노동생산능력을 출수있는 때문이며 그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보다 생산물을 사회에 더 많이 줄수있고 사회를 더 부요하게 만들어 놓을수있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은 빈민생활(貧民生活)을 기초로하여 사람들을 열마끔 물질적으로 균등화(均等化)하는 방법으로써 사회주의를 공고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소부르조아적 관념이다. 사실상으로 사회주의는 다만 높은 노동생산능률, 자본주의하에서보다 더 높은 노동생산능률을 기초로 하여야만, 식료품과 각종생활필수품을 풍족히하는 기초에서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부요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기초로 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자체의 이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의 쓰베트 사회를 가장 부요하게 만들수있게하기 위하여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생산능률을 뒤흔들(凌駕)하는 그런 노동생산능률이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될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식료품과 각종 생활필수품의 풍족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할수없다. 쓰파하노브 운동의 의의는, 그 운동이 남은 기술적 정량을 불충분한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타파하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생산능률을 뒤흔들며 또 그리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앞으로 더 공고하여질 실질적 가능성, 우리나라가 가장 부요한 국가로 변하여질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운동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쓰마하노브 운동의 의의의 전부라고는 할수없다. 그 운동의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원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고 또 소비품을 을 자기의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사회를 위하여 하여놓은 노동에 따라서 받는다 는데 있는것이다. 이는, 노동계급의 문화기술적 수준이 아직도 높지못하고 정신적 노동과 육 체적 노동과의 사이의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노동생산능률이 아직도 소비품의 풍족을 보장하여 주지만큼 것처럼 높지못하므로, 사회는 소비품을 사회성원들의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를 위하여 하여놓은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공산주의는 일층 더 높은 발전계단이다. 공산주의의 원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고 소비품은 그가 하여놓은 노동에 따라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달된 사람으로서의 그의 수요에 따라서 받는다는데 있는것이다. 이는 노동계급의 문화적 기술적 수준이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과의 사이의 대립의 기초를 파괴할만큼 충분히 높아졌고,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과의 사이의 대립이 벌써 없어졌고, 노동생산능률은 소비품의 완전한 풍족을 보장하여 주지만큼 것처럼 높은 계단으로 향상되었으므로 사회는 그 물품들을 그의 성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분배할수있는 가능성을 가지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흑자들은, 기사와 기사들, 정신적 노동일꾼들의 문화 기술적 수준을 증대, 수련

로동자들의 수준에까지, 저하(低下)시킴을 기초로하여 정신적 및 육체적 로동의 일꾼들을 얼마
 쯤 문화-기술적으로 균등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정신적 로동과 육체적 로동과의 사이의
 대립을 없애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주 옳지않다. 다만 소부르조아적 허언잡담
 끈들만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사실상으로 정신적 로동과 육
 체적 로동과의 사이의 대립은 다만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기술적 로동의 일꾼
 들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림을 기초로하여서만 없애버릴수 있는것이다. 그처럼 끌어올리는 일이
 실현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일것이다. 그것은, 국내의 생산력이 자본주의의 속
 박에서 해방되고, 로동이 착취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또 로동계
 급의 젊은 세대들이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자체에 모장할수있는 온갖 가능성을 가지고 있
 는 곳인 소비에트제도의 조건하에서는 완전히 실현될수 있는 일이다. 다만 로동계급의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 향상만이 정신적 로동과 육체적 로동과의 사이의 대립의 기초를 없애버릴수
 있으리라하는것, 다만 그것만이 사회주의로 부러 공산주의에로 넘어감에 필요한 그 높은 로동
 생산능률과 그 소비품의 풍족을 보장할수 있으리라하는것은 의심할 근거가 도무지 없는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소비에트 연방은 우리나라의 로동계급의 그러한 문화적 기술적 향
 상의 첫 단서를 아직 약한것이지만 그래도 단서를 그 자체에 포함하고있는 점으로 보
 아서 특히 의의가 있는것이다.

사실상 소비에트 연방과 동지들을 살펴 보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주
 로 청년 혹은 중년의 남녀로동자들로서 문화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훈련된, 작
 업에 있어서 정확성 및 정밀성의 모범으로 되는, 작업에 있어서 시간이란 요인을 충분히

여기걸어는, 그리하여 시간을 다만 분(分)으로 썰뿐만 아니라 초(秒)로 썰까지 계산할 줄을 배워낸 사람들이다. 그들중의 대다수는 소위 기술적 기초지식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으로 자기의 기술적 지식을 보충하여간다. 그들은 일부의 기사, 기술 및 경리일꾼들에게 있는 보수주의(保守主義) 및 정체성(停滯性)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남아진 기술적 정량을 깨트려버리며 새롭고 일층 더 높은 기술적 정량을 창조해내면서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은 우리의 산업지도자들이 제정한 예정능력 및 경제계획들을 개정하며 그들은 흔히 기사와 기술들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또 수정하며 그들은 자주 기사와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추진시키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일에 대한 전문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또 기술로 부터 차별수 있는것을 최대한도로 차별출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아직 쓰파하노브 운동자들이 적지만 그러나 래일에 가서는 그들이十倍나 더 많으리라는것을 누가 의심할수 있는가? 쓰파하노브 운동자들이 우리의 산업에 있어서 혁신자(革新者)들로 되며, 쓰파하노브 운동이 우리공업의 미래를 대표하며, 그것이 로동계급의 장래의 문화적 기술적 향상의 종자를 자체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로 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감에 필요한 또는 정신적 로동과 육체적 로동과의 사이의 대립을 없이함에 필요한 그런 극히 높은 로동생산능률의 표지를 달성하여낼수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개척하여줌이 명백하지않은가?

동지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쓰파하노브 운동의 의의는 이러하다.

쓰파하노브와 부끄진은, 그들이 낳은 기술적 정량들을 깨트려버리기에 착수할때에 쓰파하노브 운동의 이 위대한 의의를 깨달았는가? 물론 깨달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그

들 자신의 근심이 있었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소들을 구출하며 경제계획을 넘쳐 실행하려고 힘썼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쓰는 동안에 낡은 기술적 정량들을 타파하며 선진 자본주의적 국가들을 뒹가한 높은 노동생산능률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사정이 쓰파하노브 운동자들의 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의의를 얼마쯤이라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一九〇五년에 노동자대의원 소비트들을 처음으로 조직한 그 노동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물론 노동자대의원 소비트들이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로 되리라고는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노동자대의원 소비트들을 창립함으로써 다만 짜리즘으로 부터, 부르조아지로 부터 자기를 방위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사정은 一九〇五년에 레닌그라드 및 모스크바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대의원 소비트들을 위하여 시작한 운동이 결국 세계의六분지一에서의 자본주의의 파멸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이르게 한 그 확실한 사실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二、쓰파하노브 운동의 근원

우리는 지금 쓰파하노브 운동의 요람(搖籃)、기점(基點)에 서고 있다. 이에 쓰파하노브 운동의 몇가지 특징되는 점을 지적하여 두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운동은 미상불 저절로, 거의 자연생장적으로, 우리 기업소들의 관리자 층으로 부터 조금도 충동함이 없이 아래로 부터 시작된 그 사실이 매우

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 기업소 관리자들의 의지에 거역하여, 심지어 그 관리자들과의 투쟁속에서 발생되었고 또 전개되었다. 물론 모든 동지는 이 미 동지들에게 아로한젤스크의 제재공(製材工) 무선쓰끼 동지가 경영기관 물래 비밀히, 검사원들 물래 비밀히 일층 더 높은 새 기술적 정량을 연구완성함에 어떤 고동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쓰따하노브 자신의 운명도 그보다 낮지 못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도 그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관리자측의 일부의 관료배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혁신사업」으로 해서 그를 조소하고 공격한 일부의 노동자들로 부터도 망위하게 되었던 때 문이다. 부쓰긴으로 말하면, 그가 자기의 「혁신사업」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뻔 하였다가 비로소 직장장 쓰플린쓰끼 동지가 간섭하여 그를 공장에 그냥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바이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기업소들내 관리자측으로부터 어떠한 반작용이 설혹 있었다면 그 반작용은 쓰따하노브 운동을 환영하여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그런즉 쓰따하노브 운동은 아래로부터 일어난 운동으로써 발생되었고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실로 그 운동이 저절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실로 그 운동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운동은 현대의 가장 생명력이 있으며 극복될수 없는 운동으로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쓰따하노브 운동의 또 한가지 특징되는 점에 대하여 말해야 할 것이다. 그 특징되는 점은, 쓰따하노브 운동이 우리 소련의 전폭에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미증유한 속도로 폭풍같이 퍼져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일이 시작되었는가? 쓰따하노브가 석탄채굴의 기술적 정량을 적어도 다섯배 또는 여섯배로 높이었다. 부쓰긴과 쓰메

따닌도——첫 사람은 기계제조업 방면에서, 둘째 사람은 제화공업 방면에서——역시 그렇게 하였다. 신문들은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래서 어느덧 쓰파하노브 운동의 화염(火焰)은 전국에 덮이게 되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혹 쓰파하노브 운동이 그렇게 팔리진과 된것은 무슨 까닭인가? 혹 쓰파하노브나 부쓰킨은 쏘련의 각주 및 각구역(區域)과 대대적으로 연결을 맺고있는 우수한 조직자들로써 그들 자체가 이일을 조직한것이냐 아닌가? 물론 아니다! 혹 쓰파하노브나 부쓰킨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려는 욕망을 품고 그들 자체가 쓰파하노브 운동의 불꽃을 전국에 뿌려놓은것이냐 아닌가? 이것도 또한 옳지 않다. 동지들은 여기에서 쓰파하노브와 부쓰킨을 보았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들은, 전쏘련범위의 인물로서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어떠한 욕망이라든가 품은 바 없는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나보기에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기대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 넓히 퍼진 운동의 그 발전규모에 얼마쯤 당황해 하는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파하노브와 부쓰킨이 던진 화염이 이 모든 사업의 불길을 일으킴에 충분하였다면 그것은 쓰파하노브 운동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완전히 성숙되었고 또 충동만 있으면 타터져 나갈수있게끔된 운동만이, 다만 그런 운동만이 이렇게 급속히 전파될수있고 또 굴리면 커지는 눈(雪)덩이처럼 커질수 있는것이다.

쓰파하노브 운동이 완전히 성숙된 운동이라하는것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그것이 그렇게 급속히 전파되게된 그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쓰파하노브 운동의 근원은 어떠한것인가?

그 원인들은 대개 네가지다.

(一)、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들의 물질적 형편의 근본적 개선이 쓰파하노브 운동의 기초로 되었다. 동지들! 생활이 일층 좋게 되었다, 생활이 일층 즐겁게 되었다. 살아가기가 즐거우면 일에 능률이 나는 것이다. 이에서 작업의 높은 정량이 생기고, 이에서 남녀 노동영웅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에 쓰파하노브 운동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공황이 있었다면, 만일 우리나라에 노동계급의 화환(禍患)인 질병이 있었다면, 만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살기가 좋지 못하고 아픔답지 못하며 즐겁지 못하였다면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쓰파하노브 운동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수). 우리나라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자기의 정치적 성과뿐만 아니라 물질적 성과까지 인민에게 보이어준 세계에서 유일한 혁명이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혁명중에서 겨우 주권을 성취한 혁명을 다만 하나만 안다. 그것은 파리코뮌이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하였다. 그는 과연 자본주의 절목을 타파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절목을 미처 타파하지 못하였을뿐더러 더구나 혁명의 좋은 물질적 성과를 인민에게 미처 보여주지 못하였다. 우리의 혁명은, 자본주의의 절목을 타파하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었을뿐만 아니라 또한 인민에게 부요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까지 준 유일한 혁명이다. 여기에 우리 혁명의 힘과 불패성이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을 내쫓고 지주들을 내쫓고 찌리의 도당들을 내쫓고 주권을 잡고 자유를 가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유감이지만은 자유한가지만으로는 아직 만족하기에는 먼 것이다. 만약 빵이 부족하고 기름과 지방이 부족하고 적목이 부족하고 주택이 좋지 못하다면 한가지 자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동지들! 단지 한가지 자유만으로는 살기가 매우 어렵다. (찬동하는 함성, 박수). 잘살고 즐겁게

살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치적 자유의 복리에 물질적 복리가 첨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혁명의 특수성은 그것이 인민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복리까지, 부요한 또는 문화적인 생활의 가능성까지 준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즐겁게 되었고 또 그러한 토대 위에서 쪼파하노브 운동이 생장하게 되었다.

(二)、쪼파하노브 운동의 둘째 원천은 곧 우리나라에 착취가 없는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착취자들을 위하거나 기생자들을 치부케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계급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우수한 인물들이 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자기의 쪼베트적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그것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로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이 사사로운 개인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많이 일했으면 많이 받아라, 그리하여 너대로 살라는 것이다. 아무도 너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너는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그들을 치부케하여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달리야 될 수가 있는냐? 네가 착취자들을 치부케 만들어 주라고 그들은 너를 고용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하기를 불공(不貢)한다면 실업자들의 대렬에 가서 제멋대로 살아 보아라, 일층 온순한 다른 사람을 얻을 터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람의 로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 하에서는 쪼파하노브 운동이 있을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쪼베트제도의 조건 하에서는 사태가 전혀 다르다. 여기에서는 로동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착취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계급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일한다. 여기에서는 로동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고독감을 느낄수가 없다. 도리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기나라의 자유로운 공민, 일종의 사회적 활동가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만약 일을 잘하고 또 그가 사회에 출수있는것을 사회에 준다면 그는 노동의 영웅이요 그는 명예에 빛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조건하에서만 쓰따하노보 운동이 발생될수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

(三)、쓰따하노보 운동의 셋째 원천으로 인정해야 될것은 우리나라에 새 기술이 있다는것이다. 쓰따하노보 운동은 새 기술과 유기적으로 관련된것이다. 새 기술이 없고, 새 공장 및 제조소들이 없고, 새 설비가 없었다면 쓰따하노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될수 없었을것이다. 새 기술이 없이는 기술적 정량을 한배 두배바끼는 데는 높일수 없다.

쓰따하노보 운동자들이 기술적 정량을 다섯배 또는 여섯배로 높였다면,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새 기술에 의거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공업화, 우리의 공장 및 제조소들의 재건, 새 기술 및 새설비의 존재는 쓰따하노보 운동을 산출한 원인들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이다.

(四)、그러나 한갓 새 기술만으로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것이다. 일등가는 기술, 일등가는 공장 및 제조소들을 가지었다라고 만약 그 기술을 구사(驅使)할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면 그 기술은 다만 남아있을것이다. 새 기술이 효과를 줄수있도록 하자면 또한 기술의 선두에 서서 그 기술을 전진시킬수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남녀 노동자들의 인제가 있어야 된다. 쓰따하노보 운동의 발생 및 장성은 우리나라에 벌써 그런 인재들이 남여 노동자들속에서 생겼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가 새 공장 및 제조소들을 건설하고 또 우리의 기업소들에 새 설비를 하여놓으므로써

다만 사업을 절반만 한 것이라고 당은 약二년전에 지적하였다. 당은 그때에, 새 공장들을 건설하는 열성은 공장들을 통달하는 열성으로써 보충되어야 된다고, 다만 그런 방법으로 제만 일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필경 이 두해동안에 이 새 기술의 습득과 새 인제가 출현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재들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런 인재들이 없이, 이러한 새 사람들이 없이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쓰따하노브운동도 있지 못하였을 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새 기술을 습득한 남녀 노동자들 새 사람들이 곧 쓰따하노브 운동을 발생시키고 전진시킨 그 힘이 된 것이다.

쓰따하노브 운동을 산출케 하고 또 앞으로 추진시킨 조건들은 이러하다.

三、새 사람—새 기술적 정량

나는, 쓰따하노브 운동이 점진성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떤 제방(堤防)을 터치고 나가는 폭발의 기세로 발전되었음을 말하였다. 필경 그 운동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었었던 것이다. 어떤자는 그것을 방해하였고 어떤자는 그것을 내버려뒀지만 쓰따하노브 운동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장애물을 터치고 전국에 넘쳐 흘렀다.

그것은 웬일이며 그것을 방해한자는 설로 누구인가?

남은 기술적 정량과 또 그 정량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였다. 몇해전에 우리의 거자—기술 및 경제일꾼들이 우리의 남녀 노동자들의 기술적 락후성에 적응케 일정한 기술적 정량들을 제정하였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나갔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자

왔고 기술상으로 훈련되었다. 그런데 기술적 정량들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정량들이 인제는 우리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낯은 것으로 되었음은 명백한 일이다. 이제 는 모두 다 현존 기술적 정량들을 나무낸다. 그러나 그 정량들은 하늘에서 떨어 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결코 이 기술적 정량들이 그 당시에 낮은 정 량으로써 제정되었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정량들이 이미 낯 은 것으로 된 지금에 와서 그것을 현실에 적당한 정량으로써 고수하려고 시도함에 있는 것이 다. 우리의 남녀 노동자들의 기술적 라후성에 매여달려 그 라후성에 의존하며 그 라후 성으로 부터 출발하며, 그리하여 사례는 끝으로, 라후성 노리를 시작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그 라후성이 과거에로 물러간다면 어찌야 하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라후성에 굴복 하여 그것을 성상, 우상으로 만들 것인가? 만약 남녀 노동자들이 벌써 숙련되었고 기술 상으로 훈련되었다면 어찌야 하겠는가? 만약 남녀 노동자들이 벌써 숙련되었고 기술 우리의 남녀 노동자들이 벌써 사실상으로 낯은 기술적 정량을 다섯배, 열배나 초과하고 있다면 어찌야 하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라후성을 고수하리라는 서약을 언제 하였던가? 동지들!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런일이 없었지요? (만장의 웃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남 녀 노동자들이 영원히 그냥 라후된대로 머물러 있으리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는가? 아마도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것 같지는 않은 듯싶은데? (만장의 웃음). 그러면 일은 무엇에 있는가? 아무리한들 우리의 일부의 기사 및 기술들의 보수주의를 타파하여 버리고 낯은 전통 및 낯은 정량을 타파하여 버리고 로동계급의 새로운 역량에 활동자유의 광활한 무대를 주는 용단성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인가?

과학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과학의 론거, 기술적 참고서류 및 지형서들의 론거는 세
롭고 일층 더 높은 기술적 정량들에 대한 쓰따하노브 운동자들의 요구에 모순된다고 말
들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과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가? 과학의 론거는 항상 실
천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실천 및 경험과 편견을 끊은 과학이야 그무슨 과학이
겠는가? 만약 과학이 우리의 어떤 보수주의적 동지들이 표상(表象)하는것같은 그런 파
학으로 되었다면 그 과학은 인류사회에 있어서는 멸망된지 오래되었것이다. 과학은 그
이 우상(偶像)을 시인하지않고 조락되는 낡은것에 타격을 주기를 무시하지않고 경험,
실천의 소리에 민감히 귀를 기울이는 때문에 과학이라고 부르는것이다. 만일 일이 그렇
게 되지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과학이 없었을것이다. 레하면 천문학이 없었을것
이니,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프톨로메이의 낡아빠진 천문학에 만족해하였을것이오,
우리에게 생물학이 없었을것이니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간창조설에 대한 전설로써
만족하였을것이오, 우리에게 화학이 없었을것이니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연금술사(鍊
金術師)들의 신화에 만족해 하였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미 쓰따하노브 운동으로부터 췌 뢰떨어진 우리의 기사-기수 및
경제일꾼들은 낡은 기술적 정량에 매여달리지말고 진정하게 과학적으로, 새 쓰따하노브 방
식으로 자신을 개조한다면 좋았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좋다고 우리에게 말할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적 정량에 대하여서는 어
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산업에 있어 요구되는가 그렇지않으면 전혀 어떤 정량이든지 없
이 할수있겠는가? 라고 말들한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아무 기술적 정량도 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지들!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미련한 말이다. 기술적 정량이 없이는 계획적 경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 밖에도 또한, 기술적 정량은 뒤떨어진 대중을 앞선 대중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기술적 정량은 생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의 주위에 광대한 로동자 군중을 조직하는 큰 조절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기술적 정량이 요구되며 그러나 지금 있는 정량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정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다른 편에서는 말하기를, 기술적 정량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에 쓰따하노브, 부쓰긴, 위노그라도프 등이 성취한 그 정량에까지 올려야 되리라고 한다. 이것도 또한 옳지 않은 말이다. 그런 정량은 현실에 있어서는 현실적이 못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쓰따하노브와 부쓰긴 등 보다 기술상으로 훈련되지 못한 남녀 로동자들로서는 그런 정량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 현실의 기술적 정량과 또 쓰따하노브 및 부쓰긴 등이 달성한 그 정량과의 그 어느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적 정량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히 다 아는 사항우 五百센트네르 생산자 마리아·뎬첸코를 예로들어보자. 그녀자는 사항무를 매 헥타르에서 五百센트네르 내지 그 이상을 수확하였다. 그가 달성한 바를 가령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전 사항무농작에 대한 수확물의 정량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마리아·뎬첸코는 한 헥타르에서 五百센트네르 내지 그 이상되는 수확을 달성했지만, 사항무의 평균 수확량은, 때하면 금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매 헥타르에 一三〇—一三二센트네르가 된다. 차이는 보나와 같이 적지 않다. 사항무의 수확물 정량을 四百 혹은 三百센트네르로 정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한 전문가들은 다 말하기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필경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一九三六년도의 맥헨파르의 수확물 정량을 二〇〇—二五〇센트네르로 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량도 적은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一九三五년도 보다 우리에게 사람을 두 배나 더 출수 있기 때문이다. 공업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쓰파하노브는 현재의 기술적 정량을 아마도 열 배 내지 그 이상을 롱가(凌駕)하였다. 이 달성을 채탄기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의 새 기술적 정량으로 선언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현재의 기술적 정량과 쓰파하노브 동지가 달성한 정량의 그 어느 중간에서 해당하는 정량을 정해야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한 가지만은 어쨌든 명백하다. 즉 현재의 기술적 정량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타후된 것이어서 우리의 공업의 장애물로 변하였으니 우리의 공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새롭고 일층 더 높은 기술적 정량으로써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새 사람, 새 시기에는 새 기술적 정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四、당면과업

쓰파하노브 운동들 계속 발전하기 위한 우리의 당면과업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두 개의 당면과업으로 귀착시키자.

첫째, 과업은 쓰파하노브 운동자들로 하여금 쓰파하노브 운동을 더 전개시키어 소련의 모든 주 및 구역들에 패방으로 널리 전파시키도록 도와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편의 임무이다. 그리고 다른점으로는, 경제일꾼 및 기사—기수일꾼들중에서 낮은것을 고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며 쓰파하노브 운동의 전개를 계속적으로 장애하는 그럴 모든 분자들을 억제하여야 될것이다. 쓰파하노브 운동을 우리 국가의 도처에 강력하게 전파시키자면, 그렇게 하는데는 한갓 쓰파하노브 운동자들만으로는 물론 부족할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당단체들이 이 일에 들어서서 쓰파하노브 운동자들로 하여금 운동을 끝까지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도네츠크주(州) 당단체가 확실히 큰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모스크바 및 레닌그라드주 당단체들이 일을 잘한다. 다른 주들은 어떠한가? 다른 주들은 아마 아직까지도 「준비하고있는」 모양이다. 레하면 우랄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지방이 다아는바와 같이 거대한 공업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아직 들리지않거나 혹은 아주 적게 들린다. 보는바 아직까지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모양인 서지비리, 구즈바쓰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여야 될것이다. 하여간 우리의 당단체들이 이 일에 착수하여 쓰파하노브 운동자들로 하여금 난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것은 의심할수 없는것이다. 이 일의 다른 방면, 즉 경제일꾼 및 기사—기수 일꾼들중의 완전한 보수주의자들을 억제하는데 관해서 말하면 여기에서는 일이 얼마쯤 더 복잡하게 될것이다. 첫차페로는, 쓰파하노브 운동이 진보적임과 또 쓰파하노브 방식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것을 그공업방면의 보수주의적 분자들에게 설복하여 참을성있게 또는 동지적으로 설복하여야 될것이다. 그러나 만약 설복방법이 효력을 주지않는때는 좀 더 결정적인 방책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페로 교통인민위원부를 가지고 보자. 그 인민위원부의 중앙기관에는 박사, 기수 및 기타 전문가의 한 그루빠——그중에는 공산당원

들도——있었는데 그 그루빠는, 화차운전(貨車運轉)속력은 한시간에 一三—一四키로메터가 그 한정이라고하며 「운수공학(運輸工學)」에 모순되지 않으려면 그 한정에서 더 나가지 못한 다고, 더 나갈수 없다고 누구에게나 증명하였다. 이 그루빠는 자기의 견해를 말로, 출판물로 선전 하며 교통인민위원회내의 각 해당하는 기관들에 지령들을 주는 자못 권위있는 그루빠이었고 또 일반적으로 철도운영 일꾼들중에서 「사상적 지배자들」로 되어있었다. 우리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철도사업의 여러 실제일꾼들의 제의에 근거하여, 一三—一四키로메터가 한정으로 될 수없음과 일을 잘조작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을 넘힐수있음을 그 위신있는 박사들에게 증명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 그루빠는 경험과 실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에 대한 자기네의 태도를 고쳐야 할대신에 철도업의 진보적 분자들과의 투쟁에 나섰고 자기네의 보수주의적 견해에 대한 선전을 더 힘있게하였다. 우리는 그 존경할만한 사람들을 좀 후려갈기고 교통인민위원부의 중앙기관에서 그들을 점잖게 모셔어 내보내게 되었던것은 한 일이다.(박수).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화차운전속력이 한시간에 一八—一九키로메터가 될을 보고있다.(박수). 동지들! 만약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 쓰파하노브 운동을 계속방해하여 수레바퀴에 몽둥이를 끼여넣는다면 절대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우리의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에게도 그런 방법을 채용하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둘째, 과업은 쓰파하노브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지않는, 그 운동에 동정은 하면서도 아직 개변되지 못하고 아직 쓰파하노브 운동의 선두에 나서지 못한 그런 경제일꾼 기사 및 기사들로 하여금 개변되고 또 쓰파하노브 운동의 선두에 나서도록 도와줌에 있는것이다. 동지들! 나는 그런 경제일꾼 기사 및 기사들이 우리나라에 적지않게 있다는것을 말하

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동지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러한 동지들이 우리나라에는 물론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만약 우리가 이 과업들을 실행한다면 쓰파하노브 운동은 힘차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주 구역들을 휩쓸것이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 성과의 기적을 보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五、두어마디말

이 회의에 대하여, 그 회의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고자 한다. 레닌은 가르치기를, 노동자 및 농민들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서 배울줄을 아는 그런 지도자들만이 진정한 지도자—볼셰비크가 될수있다고 하였다. 볼셰비크들중에서 어떤자들에게는 레닌의 이 말이 마음에 들지않았다. 그러나 렉사는, 레닌이 이 방면에 있어서도 백과센트로 다 옳았다는것을 보이어준다. 실상 수백만의 근로자, 노동자 및 농민들이 로려하고 생활하며 투쟁하고있다. 이 사람들이 공연히 살지않는다는것과 이 사람들이 생활하며 투쟁하면서 지대한 실천적 경험을 쌓고있다는것을 누가 의심할수 있는가? 이 경험을 등한시하는 지도자들이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될수없음을 의심할바가 있겠는가? 그런즉 우리, 당 및 정부의 지도자들은, 다만 노동자들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지도자들에게서 무엇을 좀 배웠으리라는것을 나는 부인하려 하지않는다. 그러나 우리도, 정부의 지도자들도, 여러분에게서, 쓰파하노브 운

동자들에게서, 이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많은것을 배웠다는 그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
다. 그러므로 동지들! 감사를 드린다. 가르쳐준데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린다! (폭풍우
같은 박수)。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어떻게 기념하여야 되겠는가함에 두어마디 말하려한다. 우리가
여기 주석단 사이에서 상의하고 결정하기를 정부지도자들과 쓰따하노브 운동의 지도자들
과의 이 협의회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특히 기념하여야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
리는 여러분중에서 一〇〇명—一二〇명에게 가장 높은 포상을 수여하도록 제의하여야 되
리라는 결정에 이르렀다。

회중——음다。(폭풍우 같은 박수)。

쓰팔린——동지들! 만일 동지들이 찬성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실행하겠다。

(쓰따하노브 운동자회의 참석자들이 폭풍우 같이 흥분된 환호로 쓰팔린동지들을
환다. 박수갈채소리 우렁찬 「우라」 소리에 회장이 떨친다. 회장으로 부러 당수령
령. 동지들 환영하는 환호소리가 무수히 들린다. 박수갈채는 「인더내쇼날」을 우렁차게
래하는것으로 변하여 회의 참석자 三千명이 프로레타리아노래를 부른다)。

조베르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헌법초안에 대하여

제八차 전련맹 조베르트 비상대회에서
一九三六년 十一月二十五일에 한 보고

쓰팔린 동지가 연단에 나타나자 만장의 회중은 오래 계속되는 폭풍우 같은 박수 갈채로써 환영한다. 만장의 화중이 가립한다. 장내로부터 환호소리가 일어난다. 『쓰팔린 동지 우라!』, 『쓰팔린 동지 만세!』, 『위대한 쓰팔린 만세!』, 『위대한 천재인 쓰팔린 동지 우라!』, 『위와트!』, 『롯데 프론트!』, 『쓰팔린 동지에게 영광이 있소라!』

一、헌법기초 위원회의 형성과 그의 임무

동지들!

지금 이 대회의 심의에 헌법초안을 제출한 헌법기초 위원회는 다 아는바와 같이 조베르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 제七차 조베르트대회의 특별결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 결정은 一九三五년 二月六일에 채택되었는데 그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一、쓰베르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헌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것. 즉

(一) 완전한 평등권이 아닌 선거제를 평등적인 선거제로, 간접선거제를 직접선거제로, 비밀 선거제로 바꾸는 의미에서 선거제를 앞으로 더 민주주의화할 것.

(二) 헌법을 쓰련의 현시 계급적 세력관계에(재 사회주의적 공업의 창설, 폴라크들의 격파, 팔로즈제도의 승리, 쓰베르사회의 기본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확립, 기타 등등) 적합케 하는 의미에서 헌법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더 명확히 할 것.

二、쓰련 중앙집행위원회에 헌법기초위원회를 선정하고 그 헌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본결정 제一항에 지시한 기초위에서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서 쓰련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위임할 것.

三、쓰련에서의 쓰베르주권기관들의 금주의 정기선거는 재 선거제의 기초위에서 실시할 것.」

이것은 一九三五년 二월六일에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을 채택한 그 다음날, 즉 一九三五년 二월七일에 쓰베르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중앙집행위원회 제一차 회의가 열리어 쓰련 제七차 쓰베르대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원 三十一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선정하였다. 그 회의는 헌법기초위원회에 쓰련헌법의 개정안을 작성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것이 정식적 근거이었고 쓰련최고기관의 지시이었다. 이 토대위에서 헌법기초위원회는 반드시 그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헌법기초위원회는 一九二四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르는 그 기간에 쓰련의 실생활에 있어서 사회주의 방향으로 일어난 변동을 참작하면서 一九二四년에 채택된 헌법헌법을 개정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二、一九二四년부터 一九三六년까지 이르는

기간에 쏘련의 실생활에서 생긴 변천

一九二四년 이래로 一九三六년까지 이르는 기간에 쏘련의 실생활에서 생긴 변천들、
주 헌법기초위원회가 그의 헌법초안에 반드시 반영시키어야 할 그 변천들은 어떠한 것
인가?

그 변천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

一九二四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한 것인가?

그때는 신경제정책의 첫시기가었다. 그때는 쏘베트주권이 사회주의를 백방으로 발전시키
는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의 얼마쯤 활기를 띠었다고 용인하였고、그때는 쏘베트주권이 자본주의
적 경제체제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의 두 경제체제의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체제가 자본주의적 체제보다 우월하도록 만들것을 예기한때이었다. 임무는、이 경쟁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진지를 공고케 하고、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청산하고、인민경제의
기본적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적 체제의 승리를 완성하는데 있었다.

우리의 공업、특히 중공업은 그때에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 조금씩 부흥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그의 생산량이 전쟁전 수준에까지 이르기에는 멀었던것이다. 우
리공업은 남고 휘떨어지고 또 빈약한 기술에 의거하여 있었었던것이다. 그가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발전되었던것은 물론이다. 그 때에 우리공업의 사회주의적 부분의 비중은 약 八〇%를 차지하였
다.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의 부분은 공업에 있어서 二〇%이하는 차지하지 않았었던것이다.

우리의 농업은 더욱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었다. 지주계급이 이미 청산된것은 사실이

지만 그러나 농업자본가들의 계급, 즉 골라크 계급은 아직도 꽤 현저한 력량을 이루고 있었다.

전체로 보아서 그때의 농업은 타후된 중세기적 기술을 가진 소규모적 개인농민경영의 무연한 대

양(大洋)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 대양중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적은 점들처럼, 적은 섬들처럼

팔호즈와 썬호즈들이 존재하여 있었다. 그것들은 기실 아직 우리의 인민경제에 있어서 하

등의 중대한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팔호즈와 썬호즈들은 미약하였고 골라크는 아직 세

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때에 골라크를 청산할것에 대하여 말할수없게 되었고 그

를 제한함에 대하여 말할수있었다.

국내의 상품류통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 같이 말하여야 될것이다. 상품류통에 있어

사회주의적 부분은 겨우 五〇—六〇%가 넘지 못하였고 그외의 부분은 상인, 투기업자

및 기타 개인 영업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一九二四년에는 우리의 경제상태가 이러하였다.

지금 一九三六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때에는 신경제정책의 첫시기, 신경제정책의 시초, 자본주의가 얼마쯤 활

기를 띠게되던 시기에 있었다고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신경제정책의 최후시기, 신경제정책

의 말기, 인민경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완전한 청산기에 있는것이다.

우선 우리의 공업이 그동안에 위대한 력량으로 장성한것으로 부러 말하여보자. 지금

은 벌써 그것을 빈약한 공업이라거나 또는 기술상으로 잘 설비되지 못한 공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도리어 그는 지금 비상히 발전된 중공업과 또는 일층 더 발전된 기계제조업

을 가진 풍부한 현대적인 새로운 기술에 립각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우리의 공업령역에서 전부 구축되었고 사회주의적 생산형태가 지금 우리의 공업방면에서 유일무이(惟一無二)한 지배적 체제로 된 그것이다. 우리의 현시 사회주의적 공업이 생산품 수량의 전지로 보아서 전쟁전 공업보다 七배 이상을 초과한 이 사실은 사소한 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농업방면에 있어서는 빈약한 기술을 가지고 폴락크가 압도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소규모의 개인농민경영의 대양(大洋)대선에 지금 우리는 끝호즈 및 쏘호즈의 전반적 체제의 형태로써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기계화된, 새 기술로 무장한 생산을 경영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 폴락크층이 청산된 것과 라후된 중세기적 기술을 가진 소규모의 개인농민경영의 부분이 지금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파종면적으로 보아서 농업에서의 그 개인농민경영의 비중이 二—三%에 불과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지금 끝호즈들이 五百七十만 마력을 가진 三十一만六千대의 트랙토르를 가지고 있고 이에 쏘호즈것들을 합하면 七百五十八만 마력을 가진 四十만대 이상의 트랙토르를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상품류통에 대해서 말한다면 상인들과 투기업자들은 이 령역에서 전부 구축되었다. 상품류통은 지금 전체로 국가, 협동조합 및 끝호즈들의 수중에 있다. 투기업자들이 없는 상업, 자본가들이 없는 상업인 새로운 소비트상업이 발생되었고 또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인민경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체제가 완전히 승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졌고 생산되었다는 것과 생산 도구 및 생산 수단
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우리의 소비에트 사회의 확고부동의 기초로서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조련의 인민경제령역에서 생긴 이 모든 변천의 결과에 우리는 지금 공황과 실업이
없고, 빈궁과 과실이 없는, 그리고 부요한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모든 가능성을 공민들에
게 주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를 가지고 있다.

一九二四년 이래로 一九三六년까지 이르는 기간에 우리의 경제령역에서 생긴 변천은
대개 이러한 것이다.

조련의 경제방면에서 생긴 이 변천들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계급적 구성도 변경되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주계급은 국내전쟁이 승리적으로 종결된 결과에 이미 청산되었고 그
의 다른 착취계급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도 역시 지주계급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공업방면에서 자본가계급이 없어졌다. 농업방면에서 폴락크계급이 없어졌다. 상품류등방면에서
상인들과 투기업자들이 없어졌다. 이와같이 모든 착취계급들은 청산되었다.

로동계급이 남아있다.

농민계급이 남아있다.

인테리겐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그루빠들이 이 시기 동안에 아무런 변천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면 자
본주의 시기에서와 같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레오, 소련의 로동계급을 들어보자. 그를 옛관습대로 흔히 프로레타리아트라고 칭한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트란 무엇인가? 프로레타리아트는,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속하고 자본가계급이 프로레타리아트를 착취하는 그런 경제체제하에서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을 못가진 계급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곧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다 아는바와 같이 이미 자본가계급이 청산되었으며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은 자본가들에게서 빼앗아 로동계급을 령도적 세력으로 하고있는 국가의 수중에 넘어갔다. 따라서 로동계급을 착취할수있는 자본계급은 이미 없는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로동계급은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을 못가지기는 커녕 도리어 그는 전인민과 함께 그 것을 평유하고있다. 그가 그것을 평유하고있는 이상, 자본계급이 청산된 이상 로동계급을 착취할만한 온갖 가능성이 배제(排除)된것이다. 이런다음에도 우리의 로동계급을 프로레타리아트라고 칭할수있겠는가? 그렇게 부를수없음은 명백하다. 맑스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자체를 해방하려면 그가 반드시 자본가계급을 박멸하고 자본가들에게서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을 빼앗아내고 프로레타리아트를 산출(產出)하는 생산조건을 없애야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소련의 로동계급이 자체해방의 이 조건들을 이미 실현하였다고 말할수있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말할수있으며 또 반드시 말하여야할것이다. 그러면 이는 무엇일 것, 즉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없애고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확립하고 소비에트사회를 공산주의의 길로 인도하는 소비에트 로동계급으로 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쏘련의 노동제급은 곧 착취에서 해방된, 인류의 역사에서 류테(類例)를 볼수 없는, 전혀 새로운 노동제급인 것이다.

이제는 농민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보자. 농민은 소생산자제급이라고 말한다. 즉 농민은 그 성원들이 세분화되고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타후된 기술로써 자기의 소규모적 경영에서 제각기 때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사유재산제도의 노예로서 지주, 골라크, 상인, 투기업자, 고리대금업자등에게 기린없는 착취를 받는 소생산자 제급이라고 보통 말한다. 과연 그렇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농민은 그의 기본대중을 가지고 본다면 실로 그런 제급인 것이다. 우리의 현시농민, 쏘베트농민대중을 그와같은 농민이라고 말할수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 농민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없는 것이다. 우리의 쏘베트 농민은 전혀 새로운 농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농민을 착취할수있는 지주와 골라크, 상인과 고리대금업자들이 이미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민은 착취에서 해방된 농민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쏘베트 농민은 그의 압도적(壓倒的) 다수가 팔호즈 농민이다. 즉 쏘베트 농민은 그의 노동과 그의 재산 개인적 노동과 타후된 기술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동과 현대적 기술에 의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농민의 경제기초는 사유제가 아니라 집단적 노동의 토대위에서 성장한 집단적 소유제인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쏘베트 농민은 곧 인류의 역사에서 그 류테를 볼수없는 전혀 새로운 농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테리겐차에 대한 문제, 기사—기술등, 문화전선 일꾼들, 일반 사무원등등에 대한 문제에도 넘어가보자. 인테리겐차도 역시 지나간 시기동안에 많이 변화되었다.

그것은 벌써 인테리겐차가 자기자신을 계급을 초월한 자리에 놓으려고 시도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지구와 자본가들에게 봉사하던 그런 낡은 완명한 인테리겐차가 아닌 것이다. 우리의 쏘베트인테리겐차는 모든 근간에 있어서 노동계급 및 농민과 연결된 전혀 새로운 인테리겐차인 것이다. 첫째로 인테리겐차의 성분이 변경되었다. 우리의 쏘베트인테리겐차 총에는 귀족 및 부르주아지의 출신의 파센트가 극히 적다. 쏘베트인테리겐차의 八〇—九〇%는 곧 노동계급, 농민 및 기타 근로자층의 출신이다. 그리고 인테리겐차의 활동의 성질 그 자체도 변경되었다. 그전에 그들은 부요계급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 그러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출로가 없었던 까닭이다. 지금에는 그는 인민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 그러냐하면 착취자계급들이 이미 없어진 까닭이다. 실로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겐차는 지금 쏘베트사회의 동등권을 가진 성원인 것이며 이 사회에서 노동자 및 농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하여 계급없는 새 사회주의적 사회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는 지구상 어느 한나라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없는 전혀 새로운 근로적 인테리겐차인 것이다.

이런 것이 쏘베트사회의 계급적 구성방면에서 지나간 시기에 생긴 변천들이다.

이 변천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변천들은 첫째로 노동계급과 농민과의 사이의 계선 그리고 이 두계급과 인테리겐차와의 사이의 계선이 마멸(磨滅)되어가고 낡은 계급적 특권이 없어져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이 사회적 그루빠들사이의 거리가 점점 적어져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변천들은 둘째로 이 사회적 그루빠들 사이의 경제적 모순들이 조락되며 마멸되어감을 말하는 것이다.

그 변천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사이의 정치적 모순들도 또한 조락되며 마멸되어감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의 계급적, 구상방면에서 생긴 변천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다.

조선의 사회적 생활에서 생긴 변천의 진상은, 만일 다른 한방면에서 생긴 변천에 대하여 몇 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조선에서의 민족적, 호상관계 방면에 대하여 말하려 하는 것이다. 조선에는 다 아는바와 같이 약六十의 민족, 민족 그루빠 및 소민족들이 가입되어있다. 소베트국가는 다민족적(多民族的) 국가이다. 조선의 각 민족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는 문제임은 명백한 일이다.

소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은 다 아는바와 같이 一九二二년에 조선 제一차 소베트대회에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각 민족의 평등 및 자유의사의 원칙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현행헌법은 一九二四년에 채택된 조선의 첫 헌법인 것이다. 그때는 각 민족사이의 관계가 아직 충분한 정도로 원만하지 못하였고 대로써야 민족에게 대한 불신임의 잔재가 아직 소멸되지 못하였고 원심력(遠心力)적 작용이 아직 그대로 계속하던 시기였다. 이런 환경에서 각 민족을 일개의 다민족적 련맹국가에 편합하여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호상원조의 토대위에서의 형제적 협동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었다. 소베트주권은 이 사업에 대한 난관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여러 부르조아나라에서의 다민족적 국가에 대

한 실패의 경험들을 보았다. 그는 실패된 구(舊) 오레리—항가리의 경험을 보았다. 그렇지만 소베트주권은 다민족적 국가의 창설에 대한 실험에 착수하였다. 왜 그리냐하면 사회주의의 기초위에서 발생되는 다민족적 국가는 모든 또는 온갖 시련을 이기어 내리라는 것을 소베트주권은 알았던 까닭이다.

그때로부터 十四개년이 지나갔다. 이 시기는 실험의 결과를 점열하기에 충분한 시기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지나간 시기는 사회주의의 토대위에서 창설된 다민족적 국가의 형성의 실험이 완전히 성공되었다는 것을 의심없이 보이며 주었다. 이는 레닌주의적 민족정책의 의심없는 승리인 것이다. (오래 계속하는 박수).

무엇으로써 이 승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각 민족사이의 호상쟁투의 기본적 조직자들인 착취계급들이 없었던 것, 민족의 호상간불진임을 배양하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하는 착취제가 없었던 것, 온갖 예속제에 대하여 적이 되고 국제주의적 사상의 충실한 소지자(所持者)인 노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것,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각 민족의 호상원조가 확실히 실현된 것, 마지막 으로 행해지는 민족적이오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소련 각 민족의 민족적 문화가 융성(隆盛)하는 것——이 모든 또는 이와 유사한 동인(動因)은 소련 각 민족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고, 그들에게 있어서 호상간 불신임의 감정을 없애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호상간 친목의 감정을 발전시켰으며 그리함으로써 통일 련맹국가의 체제내에서 각 민족의 진정한 형제적 협동을 달성케 하였던 것이다.

이런 결과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형성되고 또 모든 시련을 감당해 낸 다. 극적 사

회주의적 국가를 가지고 있다. 이 국가의 공공성이야말로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민족의 국가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폭풍우 같은 박수)。

이런 것이 지나간 시기에 쓰련의 민족적 호상판계의 면에서 생긴 변천들이다.

이런 것이 一九二四년이래로 一九三六년까지 이르는 기간에 쓰련의 경제적 뒷사회적·정치적 생활력에서 생긴 변천의 일반적 총화인 것이다。

三、헌법초안의 기본적 특성

쓰련의 실생활에서의 이 모든 변천들이 새 헌법초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말리 말하면 이 대화의 심의에 제출된 헌법초안의 기본적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一九二四년에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라는 것을 헌법기초위원회에 위임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작업의 결과로 쓰련 새 헌법조문 즉 새헌법초안이 나왔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새 헌법초안을 작성할 때에 헌법을 강령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데로 부러 출발하였다. 이것은 강령과 헌법과의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령은 아직 없는 것, 장차 달성하고 전취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헌법은 그와 반대로 이미 있는 것, 지금 이미 달성하였고 전취한 것에 대하여 말하여야 되는 것이다. 강령은 주로 장래에 관여(關與)하는 것이오 헌법은 현재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두가지 실례를 들겠다。

우리의 소비트사회는 이미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제도를 창

전하였다. 즉 맑스주의자들이 다른 말로서 공산주의의 첫째단 혹은 낮은 계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현하였다. 그런즉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의 첫째단, 즉 사회주의가 이미 실현된 것이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공산주의의 이 첫째단의 기본적 원칙은 다 아는바와 같이 「각자에게서는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의 노동에 따라」란 공식인 것이다. 우리의 헌법이 이 사실, 즉 사회주의를 전취한 사실을 반영하여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 전취에 의거하여야 될 것인가? 물론 그리하여야 한다. 왜 그러나 하면 소련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가 이미 달성된 것이며 전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베트사회는, 그가 장래에 공산주의의 최고계단의 실현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세우는 것이지만, 아직 「각자에게서는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의 수요에 따라」라는 공식이 지배적 원칙으로 되는 그 공산주의의 최고계단을 실현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헌법이, 아직 없는 것인, 장차 전취하여야 될 것인, 그 공산주의의 최고계단에 기초를 둘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공산주의의 최고계단은 소련에 있어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이므로 장래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강력 혹은 장래에 전취해야 할 것에 대한 선언서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시력사적 모멘트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의 한계(限界)는 이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 헌법초안은 지나온 행정의 총화이며 이미 달성한 전취의 총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상으로 이미 달성하고 전취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며 립법적으로 고정화하는 것이다. (폭풍우 같은 박수).

여기에 소련의 새 헌법초안의 첫째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말하면, 부르조아 국가들의 헌법은 보통 자본주의 제도의 확고불변에 대한 신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헌법들의 주되는 기초는 자본주의의 원칙,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곧 토지, 삼림, 제조소, 공장 및 기타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과 또 착취자와 피착취자들이 있는 것, 사회의 한극(極)에서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생활이 보장되지 못한 채로 있고 다른 한극에서는 노동은 하지않으나 생활이 보장된 소수의 호사(豪奢)가 있는 것,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 헌법들은 이런 또는 이와 유사한 자본주의의 토대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 헌법들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오 그 헌법들은 그것을 법법적으로 고정화하는 것이다.

소련의 새 헌법초안은 그 헌법들과는 달라서 소련에서 자본주의 제도가 청산된 그 사실,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그 사실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소련의 새 헌법초안의 주되는 기초는 사회주의 원칙, 이미 전취되었고 실현된 그의 기본적인 토대——곧 토지, 삼림, 제조소, 공장 및 기타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제, 착취와 및 착취자계급들이 청산된 것, 다수의 빈궁 및 소수의 호사가 청산된 것, 실업이 청산된 것,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노동능력 있는 각 공민의 영에스러운 본분이 되고 의무가 된 것, 노동에 대한 권리, 즉 각 공민이 취업의 보장을 받는 권리, 휴식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그밖에 여러가지이다. 새 헌법초안은 이런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주의의 토대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 헌법초안은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초안은 이것을 법법적으로 고정화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새 헌법 초안의 둘째 특성인 것이다.

그다음으로 말하면, 부르조아 헌법들은, 사회는 적대적 계급들로써 즉 부(富)를 평유한 계급들과 부를 평유하지 못한 계급들로써 구성된다는 것, 어떠한 당이 주권을 잡게 되든 지간에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권(독재)은 부르조아에게 장악되어야 한다는 것, 헌법은 유산 계급들에게 마땅하고 유리한 사회적 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으로부터 무언중(無言中) 출발하는 것이다.

쑨씨의 새 헌법 초안은 부르조아 헌법들과는 달라서 사회에는 적대적 계급들이 이미 없다는 것, 사회는 호상 친선적인 두 계급 즉 노동자들과 농민들로써 구성되었다는 것, 주권을 실로 이 근로자 계급들이 잡았다는 것,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권(독재)이 사회의 선진 계급인 노동 계급의 수중에 속하였다는 것, 헌법은 근로대중에게 마땅하고 유리한 사회적 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새 헌법 초안의 셋째 특성인 것이다.

그다음으로 말하면, 부르조아 헌법들은 각 민족들과 각 인종들이 평등권적이 될 수 없다는 것, 완전한 권리를 가진 민족들과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셋째 등압의 민족 혹은 인종들이, 배하면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보다도 일층 더 권리가 적은 식민지의 민족 혹은 인종들이 있다는 전제조건으로부터 무언중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헌법들은, 그 기초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헌법임을, 즉 지배적 민족들의 헌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쑨씨의 새 헌법 초안은 그 헌법들과는 달라서, 그와는 반대로, 심각하게 국제주의적인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들과 인종들의 평등권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는 살빛(皮

膚色)과 언어의 차이, 문화의 수준과 국가발전의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 또는 민족 및 인종들 사이의 기차의 다른 여러가지의 차이가 민족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데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 및 인종들이 그들의 과거 및 현재의 처지를 불관하고, 그들의 강약을 불관하고,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향유(享有)하여야 될것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이런것이 새 헌법초안의 넷째 특성인것이다.

새 헌법초안의 다섯째 특성은 그의 철저하고 지중일관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견지로 본다면 부르조아지의 헌법들을 두 종류로 분류할수 있는것이다. 한종류의 헌법들은 공민들의 권리평등과 및 민주주의적 자유를 직접 부정하거나 혹은 실제로 있어서 유아무야(有耶無耶)에 돌리고 마는것이다. 다른 종류의 헌법들은 즐겨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용인하며 표방까지도하나 그러나 그리면서 온갖 제한과 조건부로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아주 기형적으로 깎아먹어버리는것이다. 그 헌법들은 일반 공민에게 대한 평등선거권을 운운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거주제한(居住年限), 교육정도와 심지어 재산 자격으로써 그 권리를 제한한다. 그 헌법들은 공민들의 평등권을 운운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것은 너자들에게는 관제되지 않는것이라거나 혹은 그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관제된다는것을 조건부로 하는것이다.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쏜련의 새 헌법초안의 특성은 이 초안이 그런 종류의 조건부 및 제한을 세우지 않는것이다. 이 초안에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공민의 차별이 없고 이 초안에는 모든 공민이 다 적극적 공민으로 되는것이다. 그는 남자와 여자, 「정주자(定住者)」와 「비정

주자」, 유산자와 무산자, 유식자와 무식자와의 사이에 권리상 차이를 지인하지 않는다. 이 초안에는 모든 공민이 그의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회에서 공민의 지위를 결정하여 주는 것은 재산지위도 아니오, 민족별도 아니오, 성별도 아니오, 직무상 지위도 아니오 그 각개 공민의 개인적 능력과 개인적 토동인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헌법초안의 또 한가지 특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부르주아지의 헌법들은 보통으로 공민들의 형식적 권리를 성문(成文)하는에만 국한하는것이오 그 권리의 실현조건, 그의 실현의 가능성, 그의 실현의 수단에 대하여는 관심하지 않는다. 공민들의 평등을 운운한다. 그러나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사이에는, 지주와 농민과의 사이에는, 일단 전자(前者)들에게는 부(富)가있고 또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後者)들에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박탈되고있는 이상, 전자들은 착취자들이고 후자들은 피착취자들인 이상, 그들사이에 진정한 평등이 있을수없다는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또 언론, 집회, 출판자유를 운운한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가 노동계급에게는 그가 자기의 처분하에 집회에 마땅한 참소, 좋은 인쇄소, 충분한 수량의 출판용 종이 및 기타 동등을 가결 가능성이 박탈된 이상 그것은 유명무실한것으로 되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을 잊어버린다.

새 헌법초안의 특성은, 그것이 공민들의 형식적 권리를 성문하는에만 국한하지않고 그 권리의 보장문제, 그 권리의 실현수단에 대한 문제에 중심(重心)을 두는 그것이다. 그 초안은 한갓 공민들의 권리평등을 선포만하는것이 아니라 착취제도가 청산된 사실, 공민들이 온갖 착취에서 해방된 사실을 립법적으로 고정화함으로써 그 평등을 보장하여준

다. 그 초안은 한갓 노동에 대한 권리를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베트사회에서 공황이 없어진 사실, 실업이 청산된 사실을 입법적으로 고정화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장하여 준다. 그 초안은 한갓 민주주의적 자유를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의하여 일정한 물질적 수단으로써 그 자유를 보장하여 준다. 그러므로 새 헌법 초안의 민주주의는 「보통적」 또한 「공인된」 민주주의 일반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 것이 명백하다.

이런 것이 소련의 새 헌법 초안의 기본적 특징들인 것이다.

새 헌법 초안에는, 一九二四년이래로 一九三六년까지 이르는 기간에 소련의 경제적 및 사회적—정치적 생활에서 생긴 변동 및 변천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四、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조아적 비판

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조아적 비판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고자 한다.

외국 부르조아지의 언론계에서 헌법 초안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두말할 것 없이 얼마쯤 흥미를 이르는 문제이다. 외국 언론계는 부르조아나라의 각종 주민의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그 언론계가 헌법 초안에 반대하여 전개한 그 비판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헌법 초안에 대한 외국 언론계의 반응(反應)의 첫째 징후(徵候)는 일정한 추향(趨向)、즉 헌법 초안에 대하여 묵과하려는 추향에서 표현되었다. 이것은 내가 가장 반동적인

뜻소적 언론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그루빠의 비판가들은 헌법초안에 대하여 그저 묵과하는 것으로써, 그런 초안이 없었던 것처럼 또는 그런 것이 도무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맹들어버리는 것이 정책(上策)이라고 생각하였다. 묵과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 묵과하는 방법은 무시해버리는 일종의 특수수단으로서 역시 비판의 형태인 것이다. 비록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오 가소로운 것이지만 그래도 비판의 형태인 것이다. (만장대소, 박수)。그러나 그들은 묵과하는 방법으로써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에게는 꼭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들은 할 수 없이 말문을 열어서 그래도 소련의 헌법초안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있는 그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에 악독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실로 이 형제밖에 탈리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그래도 세상에 는 여론, 사실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과 산사람들이 있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오랫동안 기만속에 몰매여 갈만한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던 까닭이다. 기만으로써야 얼마 오래 전되어나 가랴 :

둘째, 그루빠의 비판가들은 헌법초안이 사실상으로 세상에 있다는 것을 지인한다. 그러나 그 그루빠는 헌법초안이 큰 흥미를 끌만한 것은 못된다고 한다. 왜 그러나 하면 그 초안은 본질상 헌법초안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책동(策動)을 꾸미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빈종이장이며 빈 약속인 까닭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에 첨가하여 말하기를, 소련이 그보다 더 나은 헌법초안은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소련은 그 자체가 국가인 것이 아니라 극상해야 지리학상 개념에 불과한 까닭이라고 한다 (만장대소)。그것이 국가가 아

난이상 그의 현법이 진정한 현법이 될수없는것이라고한다. 이 그루빠의 비판가의 전형적 대표자는 괴상한것같지만은 독일의 반(半)판보인 「데이체·지블로마찌스—펠리저제·고레스본덴즈」인것이다. 그 잡지에서는, 쏘련의 현법초안은 빈 약속, 기만, 「뽀쭈건의 농촌」이라고 들어내놓고 말하였다. 그 잡지에서는, 쏘련은 국가가 아니오 쏘련은 「다른것이 아니라 정확히 규정할수있는 지리학상 개념이다」(만장대소)라고, 그렇기때문에 쏘련의 현법은 진정한 현법으로 인정될수 없다고 주장함이없이 증명하고있다.

이따위 소위 비판가라고하는자들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로찌야의 대문호 셰프틴은 그의 한 옛이야기중에서 대단히 현렬하고 우둔한데다가 자부심을(自負心)이 극히 많고 또 텀비기를 좋아하는, 완고(頑固)한 판로주의자의 형(型)을 보여주었다. 이 판로주의자는 그에게 「위임된」 지방에서 수천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수십개소의 도시를 불질음으로써 「절서와 안정」을 정돈하여 놓고는 그는 좌우를 돌려 살펴보다가 저 수평선저쪽에 아메리카가 있는것을 보게되었는데 물론 그 나라로 말하면 세상에 잘 알려지지못한 나라로서 민중을 위충충하게하는 어떤 자유라는것이 있는 나라이며 다른 방법으로써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임을 알게되었다. 그 판로주의자는 아메리카를 보고서 격분하여서——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나라이냐,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 나라는 도대체 누가 있으며서있는 나라이냐?(만장대소, 박수)。물론 그 나라는 몇세기전에 우연히 발견된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만 자취도없이 다시 물어버릴수가 없단말이나? 하였다. (만장대소)。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아메리카를 다시 물어버리라!」는 분부를 내리었다. (만장대소)。

대생각 같아서는 「대이체・지벨로마적스—펠리제・교레스본덴즈」의 신사배들은 웨 드틴이 그러면 판로주의자와 쌍둥이처럼 꼭 방불한것같다. (만장대소, 찬성하는 박수). 쏘련은 벌써 그 신사제군들의 눈에 가시처럼 된지가 오래다. 十九년이나 쏘련은 동대처럼 서서 해방의 정신을 전세계로동계급에게 도입시키며 또한 로동계급의 적(敵)들에게 발광증(發狂症)을 일으키게하고 있다. 이 쏘련은 또한 그저 존재만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자라나기까지하며, 자라나기만하는것이 아니라 또한 계속 융성하여가기까지하며, 융성하고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새 헌법초안을 곧 피압박계급들의 정신을 격동시키며 그들에게 새 희망을 넣어주는 헌법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하고있다. (박수). 이렇게 되는데야 어찌 독일의 반(半) 판보의 신사제군들이 격분해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는 도대체 누가 있으래서 있는 나라이냐 (만장대소), 만일 그것을 一九一七년 十月에 발걸하였다면 어찌서 그것을 자취도없이 다 물어버리지는 못한다 말을냐? 고 그들은 노발대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들은 쏘련을 다시 물어버리기로 하였으며 쏘련은 국가로서 존재하여 있지않고 쏘련은 다룬것이 아니라 한갓 지리학상 개념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이다. (만장대소).

웨 드틴이 그러면 판로주의자는 아메리카를 다시 물어버리라는 분부를 내리면서 그가 그렇게 우둔한 우인이지만도 그래도 현실을 리해하는 기미를 보였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혼자말로 「그러나 이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수없는가 보다」라고하였다. (유쾌한 만장대소가 터진다, 폭풍우 같은 박수). 독일의 반판보의 신사제군들은 물론 지상(紙上)으로서는 이 국가나 혹은 저 국가를 「문어버릴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말한다면 「이것을 그들의 힘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채릴만한 지해가 저들에게 있을런지 나는 모르겠다. (유쾌한 만장대소가 터진다. 폭풍우 같은 박수.)

조선의 현범은 마치 빈 약속, 「뽕잠간의 농촌」 등등과 같은것이라고 운운하는데 대하여 나는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말하여주는 여러가지의 확정된 사실을 인증하려고 한다.

一九一七년에 조선의 인민들은 부르조아들을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립하고 쏘베트주권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사실인것이며 약속이 아니다.

그리고 쏘베트주권은 지주계급을 청산하고 一억五千萬헥타르 이상이나되는 이전의 지주, 관청, 사원(寺院)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농민들에게 있던 토지이외에 더 받은것이다. 이것은 사실인것이며 약속이 아니다.

그리고 쏘베트주권은 자본가계급을 수탈하였으며 그들에게서 은행, 공장, 철도 및 기타의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을 빼앗았고 그 모든것을 사회주의적 소유로 선포하고서 동계급중의 우수한 인물들로 하여금 그 기업소들을 지도하게하였다. 이것은 사실인것이며 약속이 아니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그리고 쏘베트주권은 사회주의적 새 원칙위에서 새 기술적 토대를 가진 공업과 농업을 창설하여 현재 조선에서의 농업은 전쟁전시기보다 한배반이나 더되는 생산물을 내며 공업은 전쟁전시기보다 일곱배나 더되는 생산물을 산출하며 인민수입으로 말하면 전쟁전시기에 비하여 네배나 더 자라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모든것은 사실인것이며 약속이 아니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그리고 쓰베르주권은 실업을 없애버렸으며 노동에 대한 권리, 휴식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실생활에서 실현하였으며 노동자, 농민, 인테리겐차에게 보다 더 나은 물질적 및 문화적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비밀투표에 의한 공민들의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선거권을 실생활에서 실시하도록 보장하여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인 것이며 약속이 아니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마지막으로, 쓰베르는 새헌법초안을 내놓았으니 그것은 약속인 것이 아니라 일반이 다 아는 이상의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며 또 립법상으로 확보된 것이며 이미 달성되었고 전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며 또 립법상으로 확보된 것이다.

물노니 모든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독일의 반관보의 심사제군들이 『뽀쾀건의 농촌』이라고 운운하고 지꺼리는 것은 그들이 쓰베르의 실정을 민중으로 하여금 못보도록 하며 민중으로 하여금 꼭해케하며 그 민중을 기만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들은 이러하다. 그런데 사실들은 세상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극복해낼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그 자체에 더 불리할 것이라고 독일의 반관보의 심사제군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장대소). 그러나 그렇다면 일반이 다 아는 『명령구리에게는 법령이 소용없다』는 로쾀야속담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가 있다. (유쾌한 만장대소, 오래 계속되는 박수).

셋째. 그루빠의 비관가들은 헌법초안에 대하여 얼마쯤 가치있는 점이 있다고 지인하기를 마지막으려고 한다. 이 그루빠는 이 헌법초안을 긍정적 현상이라고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보라. 그 그루빠는 헌법초안에 있는 여러가지 장목이 실시될 수 있는가함에 대하여 매우의

아(疑訝)해한다. 왜 그러냐하면 그 그루빠는 그 장목들이 도무지 실현될수 없는것이며 따라서 지상공문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까닭이다. 부드럽게 말한다 면 이 사람들은 회의론자(懷疑論者)들이다. 이런 회의론자들은 모든 나라에 다있는것이다.

실상인즉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처음 보는것이 아니다. 一九一七년에 볼셰비크들이 주권을 잡았을때에 회의론자들은 말하기를, 볼셰비크들이 미상불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권을 유지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들은 실패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랬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볼셰비크들이 실패한것이 아니라 회의론자들이 실패하고 말았다.

국내전쟁과 외국무력간섭이 있던 그 당시에 도 이 회의론자 그루빠는 말하기를, 쏘베트 주권은 물론 나쁜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니킨 및 골차코와 외국사람들과의 결탁은 아마도 쏘베트주권을 정복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랬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회의론자들이 오산(誤算)하였던것이다.

쏘베트주권이 제一차 오개년계획을 공포하였을때에도 회의론자들이 또다시 무대에 나서서 말하기를, 오개년계획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것같지 않다. 볼셰비크들이 오개년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랬으나 사실들은 또다시 회의론자들이 실패한것을 보이어 주었다——오개년계획안은 四개년동안에 실현되었다.

새 헌법초안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비판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헌법초안을 공포하자마자 이 그루빠의 비판가들은 헌법의 몇가지 장목의 실현성여부에 대하여 철술한 회의심과 의아를 품고 또다시 무대에 나섰다. 이번에도 회의론자들이

실패하게 될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이 과거에 여러번 실패를 당하였던 것처럼 또 한 실패하게 될것은 아주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넷째. 그루파의 비판가들은 새 헌법초안을 공격하면서 이 헌법초안은 『우경화』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포기』요, 『불셰비크적 통치의 청산』이라고 평가한다. 『불셰비크들은 우경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그들은 가지각색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 방면에 있어서 특히 열성을 내고 있는것은 약간의 과판신문들과 일부의 아메리카 신문들이다.

이따위 소위 비판가라는 자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수가 있을까?

만일 로동계급독재의 토대를 확장하는것, 그 독재를 일층 더 신축성있는 독재로, 즉 독재를 사회에 대한 일층 더 유력한 국가적 지도의 체제로 변환하는것을 가리켜 이것은 로동계급독재가 강화되는것이 아니오 도리어 약하여지는것으로나 심지어 그 독재를 포기하는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면 물론이, 도대체 이 신사제군들은 로동계급의 독재란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있는가?

만일 사회주의의 승리를 립법적으로 고정화하는것, 공업화, 집단화, 민주주의화의 성과를 립법적으로 고정화하는것을 그들은 『우경화』라고 한다면, 물론이, 도대체 그 신사제군들은 좌편과 우편이 어떻게 구별된다는것을 알고나 있는가? (만장대소, 박수.)

이 신사제군들은 헌법초안을 비판함에 있어서 도무지 잡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을 뒤섞어 놓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고골리의 「유령(幽靈)」에 있는 「계집애 중」 뽀라게야를 현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골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계집애 중」은 한번 치치코프의 말모리꾼인 셸리판에게 길을 가리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길의 좌우편을 가릴 줄을 몰라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졌던 것이다. 파란 신문의 비평가들도 그들에게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더라도 「유령」에 있는 「계집애 중」 뽀라게야의 리해력보다 더 낫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박수). 여러분도 기억하셨지만 말모리꾼 셸리판이 뽀라게야더러 좌우를 뒤섞는다고 「애, 이 촌독이야 : 너 어느 쪽이 오른 쪽이오 어느 쪽이 왼 쪽인 지도 분간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책망하였던 것이다. 내생각 같에서는 우리의 운수사나 운 비평가들에게도 그처럼 책망하여 주어야 될 것이다. 애, 이 가련한 비평가들 : 어느 쪽이 오른 쪽이오 어느 쪽이 왼 쪽인 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구려. (오래 계속되는 박수).

마지막으로 또 한 그루빠의 비평가들이 있다. 방금 위에서 말한 그루빠가 헌법초안은 로동계급의 독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함에 반(反)하여 이 그루빠는, 헌법초안은 쏘련의 현재 상태를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 것이오, 로동계급의 독재를 다치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것이오 여러정당(政黨)의 자유를 용허하지 않는 것이오 또 쏘련에 있어서 공산당의 현재의 지도적 지위를 그대로 보전하여 두는 것이라고 하여 그 헌법초안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이 그루빠의 비평가들은 쏘련에 여러정당의 자유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표정이라고 인정한다.

나는 새 헌법초안은 사실상으로 로동계급의 독재의 제도를 그대로 보전하며 또한 쏘련의 공산당의 현재의 지도적 지위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보전하여 둔다는 것을 반드시

지안하여야 하겠다. (폭풍우 같은 박수). 만일 이 비판가어른들이 이것을 헌법초안의 단점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로밖에는 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불세비크들은 설로 이것은 헌법초안의 장점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폭풍우 같은 박수).

각종 정당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말하면 우리는 이에 있어서 다소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당은 계급의 일부분이며 그 계급의 선봉적 부분인 것이다. 몇 개의 정당, 오직 대 여러 정당의 자유는 다만 적대적이며 또한 불가상용적인 리해판계를 가진 적대적 계급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 말하자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과, 지주들과 농민들, 골라크들과 빈농들, 및 기타 동등이 있는 그런 사회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쏘련에는 벌써 그러한 계급들, 즉 자본가들, 지주들, 골라크들 및 기타가 이미 없는 것이다. 쏘련에는 오직 두 계급만, 노동자들과 농민들만이 있는데 그 두 계급의 리해판계는 적대적이긴 고 사하고 도리어 우의적이다. 따라서 쏘련에는 몇 개의 정당이 존재할 토대, 오히려 여러 정당의 자유가 있어야 할 토대가 없는 것이다. 쏘련에는 다만 한 당만, 공산당만이 존재할 토대가 있는 것이다. 쏘련에는 오직 한 당만 즉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리해를 용감하게 또는 끝까지 옹호하여주는 공산당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계급들의 리익을 잘 옹호함에 대하여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폭풍우 같은 박수).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것은 무엇인가? 적대적 계급들이 있는 자본주의적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는 결국, 장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소수의 유산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와 반대로 쏘련에서의 민주주의는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의 위

판은 조선의 새 헌법초안에 있는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의 헌법들에 있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의 헌법은 전제제에서 현저히 민주주의적인 유일한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의 새 헌법초안에 대한 부르조아의 비판에 관한 문제는 이와같이 되어있다.

五、헌법초안에 관한 수정안과 보충안

헌법초안을 전인민이 토의할때에 공민들이 그 초안에 제의한 수정안과 보충안에 관한 문제에도 넘어가려한다.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 토의는 일반이 아는바와 같이 자못 많은 수정안과 보충안을 주었다. 그 모든것은 소비트진문지상에 발표되었다. 그 수정안들이 매우 다종다양하고 또 그들의 가치가 한결같지 않음으로 나는 그것들을 세가지 부류로 나누는것이 좋을것로 생각한다.

첫째 부류의 수정안들의 특징은, 그 수정안들이 헌법의 문제들을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될 립법기관들의 일상 립법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있는것이다. 보충에 대한 각개의 문제들, 골조조건설에 대한 약간의 문제들, 공업건설에 대한 약간의 문제들, 재정방면에 대한 문제들——이와같은것이 그 수정안들의 주제(主題)들이다. 보전때이 수정의 제안자(提案者)들은 헌법문제들과 일상 립법의 문제들과의 차이에있는 리해하지못한 모양이다. 실로 그러므로 그들은 헌법에 될수있는대로 법령을 많이 집어넣음으로써 헌법을 일종의 법령집(法令集)으로 변화하려는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법령집이

아니다. 헌법은 근본법이다. 오직 근본법일 따름이다. 헌법은 장차 있게 될 법률기관들의 일상 법률사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은 그러한 기관들의 장래에 있게 될 법률적 사업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지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수정안들과 보충안들은 헌법에 대하여서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만치 내생각에는 반드시 장래에 있게 될 국가 법률기관에 보내야 될 것 같다.

둘째 부류의 수정안들과 보충안들은 역사적 참고재료가 되는 성질을 가진 것이거나 혹은 소비트주권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 또는 그가 반드시 장차 달성하여야 할 것에 대한 선언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헌법에 가입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여러해 동안을 내려오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당과 노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이 어떠한 난관들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헌법에 지적하는 것, 소비트운동의 최후목적 즉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헌법에 지시하는 것——이와 같은 것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증부한 것이 그 수정안들의 주제들이다. 나는, 이러한 수정안들과 보충안들도 역시 헌법에 대하여서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만치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이미 달성한 또 보장된 그 성과들을 등록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고정화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헌법의 이 기본적인 성질을 의곡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참고재료가 되는 것이나 혹은 소련의 근로자들의 장래전투에 대한 선언이 되는 것으로써 그 헌법의 내용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 다른 방법과 다른 문헌들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류의 수정안들과 보충안들은 헌법 초안에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 부류의 수정안들의 대부분은 문구수정적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이 대회에서 선거되어 세 헌법위원의 최종편찬을 할 위임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 본대회의 편찬위원회에 넘겨주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셋째 부류의 그 남아지의 수정안들로 말하면, 그 수정안들은 일층 본질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수정안들에 대하여 여기에서 몇마더 말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一)、무엇보다도 먼저 헌법초안의 제一조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것이다. 네가지 수정안이 있다. 첫째 수정안은, 「로동자 및 농민들의 국가」란 말대신에 「근로자들의 국가」라고 하라고 제의한다. 둘째 수정안은, 「로동자 및 농민들의 국가」란 말에다가 「및 근로적 인테리겐차」란 말을 첨가하라고 제의한다. 셋째 수정안은, 「로동자 및 농민들의 국가」란 말대신에 「조선의 강토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종과 민족들의 국가」라고 하라고 제의한다. 넷째 수정안은 「농민들」이란 말을 「골호즈원들」이란 말로나 혹은 「사회주의적 농업의 근로자들」이란 말로 바꾸라고 제의한다.

이 수정안들을 채택하여야 되겠는가? 나는 채택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헌법초안의 제一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소비트사회의 계급적 성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이 헌법에서 우리사회의 계급적 성분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고 지나갈수가 있는가? 아니다, 그리할수가 없는 것이다. 소비트사회는 아바와 같이 두계급으로써, 곧 로동자와 농민으로써 구성되어있다. 헌법초안의 제一조는 실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초안의 제一조는 우리사회의 계급적 성분을 옳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

러면 근로인테리겐차는 어떻게 할려이나? 고 물을수가 있다. 인테리겐차는 언제든지 계급이 편적이 없었으며 또한 계급이 될수 없는것이다——그는 자체의 성원들을 사회의 모든 계급들중에서 모집하여내는 충이었으며 또한 그런층이 되고있는것이다. 이전에는 인테리겐차가 자체의 성원을 귀족, 부르조아지중에서, 부분적으로는 농민들중에서 모집하였고, 그리고 극히 미소한 수효를 노동자들중에서 모집하였다. 우리쓰베르스대에 와서는 인테리겐차는 자체의 성원을 주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중에서 모집하고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모집되는 기간에 또는 그가 어떠한 성질을 떠는기간에 어쨌든 인테리겐차는 충이지 계급은 아니다.

이 사정은 근로적 인테리겐차의 권리를 감축(減縮)시키지않는가? 결코 그렇지않다! 헌법초안의 제一조는 쓰베르사회의 각종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는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계급적 성분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근로적 인테리겐차의 권리에 대한것까지 통틀어넣어서 쓰베르사회의 각종의 권리에 대한것은 주로 헌법초안의 제十장과 제十一장에 규정되어있다. 그장들을 보면 노동자, 농민, 근로적 인테리겐차가 국내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연 동등한것이 확연하다. 그리고본즉 근로적 인테리겐차의 권리의 감축이란것은 문제도되지 않는다.

쓰련의 구성내에 있는 민족들과 인종들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같이 말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초안의 제二장에는 쓰련은 평등권을 가진 민족들의 자유로운 련맹이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것이다. 쓰베르사회의 민족적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계급적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헌법초안 제一조에다가 그 문구를 중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할 필요가 없는것은 명백하다. 조선의 구성내에 있는 민족들과 인종들의 권리로 말하면, 그것은 헌법초안의 제2장, 제10장 및 제11장에 규정되어 있는것이다. 그장들을 본다면, 조선의 민족들과 인종들은 국내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享有)하고 있는것이 확연하다. 그리고본즉 민족들의 권리의 감축이란것은 문제도 되지않는것이다.

「농민」이란 말을 「팔호즈원」이란 말로나 혹은 「사회주의적 농업의 근로자」라는 말로 바꾼다는것도 역시 옳지않을것이다. 첫째로, 농민들중에는 팔호즈원들 이외에도 팔호즈원이 아닌 사람들의 농호가 아직도 백여만호가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그 농민들을 계산밖에 두려고 생각지나 않는가? 그렇게하는것은 타당치못한 일일것이다. 둘째로, 비록 농민의 다수가 팔호즈적 경영을 영위하기로 하였더라도, 이것은 그가 지금은 농민이 아니라는것, 그에게는 자기의 개인적 경영도, 개인적 농호도 및 기타도 이미 없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로동자」라는 말도 「사회주의적 농업의 근로자」라는 말로 바꾸어야 될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것은 제의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으로, 참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계급과 농민계급이 벌써 없어졌는가? 만일 그 계급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 대하여 정해진 명칭들을 어휘(語彙)에서 없애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보전대 그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현재사회를 두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계급들이 없게되고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단일한 공산주의사회의 근로자들로 변환되게될 장래사회를 두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리고본즉 그들은 분명코 지나쳐 앞서나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

법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장래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이미 있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은 지나쳐 앞서 나갈 수 없으며 또 그 래서는 안 된다.

(二)、다음에는 헌법초안의 제十七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가맹공화국들에 쏘련으로 부터 자유로 탈퇴하는 권리를 보전하여 줌에 대하여 규정한 제十七조를 헌법초안에서 아주 삭제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이 제의는 옳지 않은 제의이다. 그러므로 대회에서 이 제의가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쏘련은 평등권을 가진 가맹공화국들의 자발적 편입인 것이다. 쏘련에서 자유로 탈퇴하는 권리에 대한 조문을 헌법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그 편입의 자발적 성질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보조(步調)를 취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보조를 취할 수 없으며 또한 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쏘련에는 쏘련의 구성에서 나가려고 할 공화국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므로 제十七조는 실제적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쏘련의 구성으로부터 탈퇴하려고 할 공화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맹공화국들이 쏘련으로부터 자유로 탈퇴하는 권리를 헌법에 기입(記入)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쏘련에는 다른 가맹공화국을 억압하려고 할 그런 가맹공화국도 역시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맹공화국들의 권리의 평등을 규정하는 조문을 쏘련의 헌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三)、다음에는, 헌법초안의 제二장에 새 조문을 보충하라는 제의가 있다. 그 제의의 내용은, 쏘베트사회주의 자치공화국들이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적당한 발전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때에는 쏘베트사회주의 가맹공화국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데로 귀착되는 것이다. 이

제의를 채택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제의를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 내용으로만 옳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리유상으로도 옳지 못한 것이다. 자치공화국들을 가맹공화국의 지위로 넘기는 리유를 그 자치공화국들의 경제 및 문화정도의 성숙에 의하여 설명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이 공화국이나 저 공화국을 자치공화국의 명단속에 남겨두는 리유도 그 자치공화국들의 경제 및 문화정도의 낙후성에 의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레닌주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레하면 따따르공화국은 자치공화국으로 그냥 남아있고 까자흐공화국은 가맹공화국으로 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까자흐공화국이 문화적 및 경제적 발전의 견지로 보아서 따따르공화국보다 이상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닌 것이다. 사례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 레하면 월가장연안의 독일인 자치공화국과 끼르기즈가맹공화국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같이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중에서 첫째 공화국은 문화적 및 경제적 방면에 있어서 둘째 공화국보다 높은 정도에 처하고 있지만은 자치공화국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다.

자치공화국을 가맹공화국의 지위에 넘기는 근거로 되는 그 특징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 특징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빈방에 있는 공화국으로서 사위(四圍)가 전부 소련의 령토로 둘러싸이지 않은 공화국이라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다른 리유가 아니라, 만일 가맹공화국이 소련에서 탈퇴하는 권리를 보전하고 있을것 같으면, 가맹공화국이 된 그 공화국은 소련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논리상으로 또는 실제상으로 세울 가능성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말하자면 어떤 의국과 접경(接境)하고 있는, 곧 사위가 전부 조련의 명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공화국만이 세울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조련에서 탈퇴할 문제를 사실상으로 세우게 될 그런 공화국은 없다. 그러나 일단 조련으로부터 탈퇴하는 권리를 가맹공화국이 가지게 된 이상 그 권리가 무의미한 빈종이장이 되지 말도록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레로 바스끼르공화국이나 따따르공화국을 들어보자. 이 자치공화국들을 가맹공화국의 지위로 넘기었다고 하자. 그 공화국들이 조련에서 탈퇴할 문제를 논리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세울수 있겠는가? 아니다, 세울수 없다. 왜 그런가? 다 른 리유가 아니라, 그 공화국들은 四면八방으로 조베르공화국들과 주(州)들로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련의 성분내에서 나갈데가 없는 까닭이다. (만장대소, 박수)。그러므로 이러한 공화국들을 가맹공화국들의 지위로 넘기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는, 어떤 민족의 이름을 띤 조베르공화국의 민족은 그 공화국에서 다소간 밀집(密集)하여 모여사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라야 될 것이다. 레로 크림자치공화국을 들어보자. 그 공화국은 변방에 있는 공화국이다. 그러나 크림따따르들은 그 공화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즉 크림공화국을 가맹공화국의 지위로 넘겨놓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며 또 비(非)론리적인 일 것이다.

셋째로, 공화국은 그 인구수로 보아서 그리 적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공화국의 인구는 요컨대 적어도 백만이상이라야 되지 그보다 적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다른 리유가 아니라, 가장 소수의 인구와 얼마 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저그마한 조베르공화

국이 독립적 국가로 존재하여 나가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옳지못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야수배들이 냉큼 그 나라를 제손에 움켜쥐어버리게 될것은 그다지 의심할것까지도 없는 일이다.

나는, 이러한 세가지의 객관적 특징이 현존함이 없이는 현(現)력사적 모멘트에 있어서 이 자치공화국이나 저 자치공화국을 가맹공화국의 지위로 넘기는 문제를 세우는것은 옳지못할것이라고 생각한다.

(四)、다음으로는, 제二十二조、제二十三조、제二十四조、제二十五조、제二十六조、제二十七조、제二十八조、제二十九조에서 가맹공화국들을 행정—지역적 구분으로 변경들 및 주들로 나누는것을 세밀하게 멸거한것을 빼버리려고 제의하는것이다. 나는 이 제의도 또한 채택할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쏘련에는 변경들과 주들을 뜯어고치려고 애쓰며 그렇게함을 매우 즐겨함으로써 사업의 착잡(錯雜)을 이르고 사업상 불확신(不確信)을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조안은 그런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워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좋은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여러 방면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우리에게는 확신의 분위가 있어야 되는것이며 확고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까닭이다.

(五)、다섯째 수정안은 제三十三조에 관한것이다. 양원제(兩院制)의 설치를 부적당한것이라고 인정하여 민족소베트를 없애라고 제의하였다. 나는 이 수정안도 역시 옳지못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쏘련이 단일 민족국가로 되었다면 일원제(一院制)가 양원제보다 나을것이다. 그러나 쏘련은 단일 민족국가 아니다. 쏘련은 다아는바와 같이 다민족적 국가이다. 우리나라에는 민족별에 불관하고 쏘련의 모든 근로자들의 공동한 이익을 대표

하는 최고기관이 있다. 그것은 연방소베트이다. 그러나 소련의 민족들에게는 공통한 이익 외에도 그들의 민족적 특성과 관련된 자체의 특별한 특수적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 특수적 이익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특수적 이익을 반영하여야 할 특별한 최고기관이 필요한가? 물론 필요하다. 이런 기관이 없이는 소련과 같은 이런 다민족적 국가를 관리하기가 불가능할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이런 기관은 제 2원, 즉 소련의 민족소베트가 되는 것이다.

제1하는 사람들은 구라파와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국가의 국회제도의 역사를 인용으로 하여 그 나라들에서의 양원제는 한갓 부정적 결과만을 낳게 하였으며, 제2원은 보통으로 반동의 중심으로와 전진 운동을 제지하는 제동기(制動機)로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국가들의 양원사이에 평등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제2원에는 흔히 제1원보다 권리가 일층 더 부여되는 것이오 또 통례로 제2원은 비(非)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흔히 그의 의원들을 위로부터 임명하는 방법으로 조직되는 것이다. 만일 양원사이에 평등을 실시하고 또 제2원도 제1원과 같이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한다면 이런 결점들이 없을 것은 의심없는 일이다.

(六)、그다음에는 양원의 의원수를 동수(同數)로 하자고 헌법초안에 보충안을 제출하였다. 이 제의는 채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제의는 내생각에는 양원 평등을 강조하는 것임으로 정치적으로 꼭 유리한 점이 된다.

(七)、그다음으로 헌법초안에 대한 보충안은 민족소베트에도 연방소베트와 같이 직접적 선거방법으로 대의원을 선거하라고 제의하는 것이다. 이 제의도 역시 채택할 만한 것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일이 선거시에 얼마쯤 기술상 불편을 줄수있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신 그는 많은 정치적 리익을 가져올것이다. 왜 그리냐하면 그는 민족소베트에 권위를 높일것이기 때문이다.

(八)、그다음으로는 제四十조에 대한 보충안이다. 이 보충안에 의하면 최고소베트상임위원회에 립시법령을 발표할 권리를 부여하라는것이다. 이 보충안은 옳지못한것이다. 그러므로 대회는 채택하지말아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일개의 기관이 아니오 여러기관들이 립법하는 이런 상태를 인제는 폐지하여야 할것이다. 이런 상태는 법령확고성의 원칙에 모순되는것이다. 그런데 법령의 확고성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때보다도 더욱 필요한것이다. 소련에서의 립법권은 다만 일개의 기관, 즉 소련최고소베트에 의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할것이다.

(九)、그다음으로는 헌법초안 제四十八조에 대하여 보충안을 제의하는것이다. 그 보충안은, 소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련 최고소베트에 의하여 선거되지 말고 국내의 전주민에 의하여 선거되기를 요구하는것이다. 나는 이 보충안이 옳지못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리냐하면 이 보충안은 우리의 헌법정신에 부합되지않는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체제로는 소련에는 최고소베트와 마찬가지로 전주민이 선거하며 또 자기를 최고소베트에 대립시킬수있는 일명의 대통령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소련의 대통령은 합 의제적 대통령이나 그는 곧 전주민에 의하여 선거되지않고 최고소베트에 의하여 선거 되어 최고소베트에 복종하는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포괄한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인것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최고기관조직의 이러한 체제는 국가로 하여금 좋지않은 우연발생의 사건을 피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민주주의적 조직이라는것을 보이어준다.

(十)、그다음것도 제四十八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은 쏘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원수를 十一인으로 증가시키어 각 가맹공화국으로 부터 부위원장 일인씩 들어오도록 하기를 제의하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채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정안은 사태를 개선하는 것이오 또 쏘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더 공고케 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十一)、그다음으로는 제七十七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은 한 개의 새 천편매적 인민위원회, 즉 국방공업인민위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수정안도 채택하는 것이 좋으리라 고 나는 생각한다. (박수).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국방공업을 분립시키어 적당한 인민위원부의 형태를 가추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국방사업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十二)、그다음으로는 헌법초안 제一百二十四조에 대한 수정안이다. 그것은 종교적의식(儀式)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우리의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좋으리라 고 나는 생각한다.

(十三)、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다소간 중요한 성질을 가진 수정안이 있다. 나는 헌법초안 제一百三十五조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교회의 직원들, 이전 패위군(白衛軍)들, 모든 이전에 권세를 가졌던자들, 사회에 유익한 로동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 부류에 속한 자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여 다만 선거권만 주고 피선거권은 주지 말라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 수

정안도 역시 물리쳐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소비트주권은 비(非)근로분자들이나 착취분자들에게서 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일정한 시기까지 박탈하였던 것이다. 이 분자들이 인민을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전쟁을 하였고 소비트법령에 항거하던 때가 있었다. 그들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하라는 소비트법령은 그들의 항거에 대한 소비트주권의 대답이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적지 않게 흘러갔다. 지나간 시기 동안에 우리는 착취계급을 박멸하였고 소비트주권을 필층의 위력으로 변화시키었다. 이 법령을 개정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나는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 백위군, 골라크, 승려 및 기타층에서 소비트주권에 적대되는 어떤 분자들이 국가의 최고기관에 기여들어갈 수 있는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늑대가 무서워서 산으로 못간단 말인가. (장내에는 유쾌한 활기가 돌며, 폭풍우 같은 박수가 터진다.) 첫째로 이전 골라크, 백위군, 혹은 승려들이라고 다 소비트주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혹시 민중이 어떤 곳에서 적대적인 물을 선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전사업을 대단히 잘못 조직하였으니 수치를 마땅히 당하지만 만큼 처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또 우리의 선전사업이 불웨비크적으로 전개된다면 민중은 그의 최고기관에 적대적 인물들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올상을 하여가고 불평해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폭풍우 같은 박수.) 모든 일이 행정적 명령에 의하여 거성품(既成品)으로 제공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해년은 이미 一九一九년에 소비트주권이 아무 제한없는 일반적 선거제를 실시하는 것을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아무 제한없는 것이라는 이 말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해닌은 외국의 무력 간섭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우리의 공업과 농업이 절망적 상태에 있던 때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로 부터 이미 十七개년이 지나갔다. 동지들, 해닌의 지시를 리행(履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해닌은 一九一九년에 그의 저서 「로씨야공산당(불셰비크)강령초안」에 이렇게 쓰었다.

지금 그것을 읽겠다.

「로씨야공산당은, 일상적, 역사적 필요성을 용지못하게 개판화(概括化)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트공화국에서 일부의 공민들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결코 대다수의 부르조아-민주주의 공화국들에서처럼 일평생 무권리한자로 선거를 받는 일정한 공민들에게만 개판되는 것이 아니타 다만 착취자들과, 다만 사회주의 소비트 공화국의 기본법령에 따라(對峙)하여 자체의 착취자적 처지를 고수하고 자본주의적 관계를 보전하려고 고집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판재된다는 것을 반드시 근로대중에게 설명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트공화국에서는, 한편으로는 날마다 사회주의가 공고하여갈수록, 또 착취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자 혹은 자본주의적 관계를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재판적으로 가진 자들의 수가 감축되어갈수록 선거권 상실자의 파센트가 자연히 감소될 것이다. 지금으로써이 과센트는 二—三파센트에 불과할 것이다. 다른 변으로는 가장 멀리있는 강태에 외부적 침범이 정지되고 수탈자들에 대한 수탈이 끝남을 따라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프로레타리아적 국가주권이 착취자들의 반발을 진압할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채용하게 되고 또 아무 제한없는 일반적 선거제를 실시하게 될 그런 정세를 자어줄 수 있을 것이다. (레닌 제二十四권 九四페이지)。

이것은 명백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소련의 헌법초안에 대한 수정안 및 보충안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 방점은 나의 것 — 이 • 쓰달린.

六、쏘련 새 헌법의 의의

약 五개월에 걸친 전인민적 토의의 결과로 보아 헌법초안이 본대회에서 승인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폭풍우 같은 비수가 환호성으로 번지면서 만장회중이 일어서었다.)

며칠후이면 쏘련은 충분히 전개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우에서 제정된 사회주의적 새 헌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사실, 쏘련의 근로대중이 자본주의적 노예제에서 해방된 사실, 쏘련에서 충분히 전개되고 칠두칠미한 민주주의가 승리한 사실들에 대하여 평이한 명(平易簡明)한 거의 회의록식으로 서술된 역사적 문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수백만의 정직한 사람들이 동경(憧憬)하였고 또 동경하기를 마지않는 그것이 쏘련에서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시(證示)하는 문헌이 될 것이다. (폭풍우 같은 박수.)

이것은 쏘련에서 실현된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임을 증시하는 문헌이 될 것이다. (폭풍우 같은 박수.)

그러므로 쏘련의 새 헌법의 국제적 의의는 무한위대(無限偉大)한 것이다.

지금 파쇼의 타한 물결(濁浪)이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운동을 더럽히고 문명세계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갈망을 전구령에 처버리는 이때에 쏘련의 새 헌법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무적(無敵)을 선언하는 파시즘에 대한 기소장으로 될 것이다.

(박수)。 소련의 새 헌법은 지금 왓소적 야만적 행동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지지와 뒷 현실적 방조가 될 것이다。(폭풍우 같은 박수)。

소련의 새 헌법이 소련의 인민들에게는 일층 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소련의 헌법이 자본주의 국가의 인민들에게는 행동장령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소련의 인민들에게는 그들의 투쟁의 총화, 인류해방 전선에서의 일은 그들의 승리의 총화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투쟁과 역경(逆境)의 길을 걸어온 결과에 우리의 승리의 열매를 기록한 자기의 헌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즐겁고도 기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웠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사적 승리를 얻었는가를 아는 것이 즐겁고도 기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없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고 그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즐겁고도 기쁜 일이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이는 우리의 로동계급, 우리의 농민, 우리의 근로적 인테리겐차를 정신적으로 무장시키어 준다。 이는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정당한 자부심(自負心)을 높여 준다。 이는 자체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견고케 하며 공산주의의 새 승리를 전취하기 위한 새 투쟁으로 동원케 하는 것이다。(폭풍우 같은 박수갈채, 장내전원이 일어서서 다. 외성 같은 「우라!」, 장내전원의 환호 「뜨팔린 동지 만세!」 장내전원이 일어서서 「인테리엔날」을 부른다。 「인테리엔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다시 일어난다。 환호 「우라!」, 「우리의 수명 뜨팔린 동지 만세!」)。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一九三八년 九월

변증법적 유물론은 맑스—레닌주의적 당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취급,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연구방법, 이 현상에 대한 그의 인식(認識)방법이 변증법적인 까닭이며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해석,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이해(理解), 그의 이론이 유물론적인 까닭이다.

력사적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명제를 사회생활현구에 확장한 것이며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명제를 사회생활의 현상들에, 사회의 연구에, 사회사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의 변증법적 방법을 특징지으면서 통례로 헤겔을 변증법의 기본특징을 규정한 철학가로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변증법이 헤겔의 변증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맑스와 엥겔스는 변증법에 현대적인 과학적 형태를 주려고 헤겔의 변증법에서 『합리적 알맹이』만을 취하고 헤겔의 관념론적 껍질을 벗겨 버리고 변증법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

말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그 기초에 있어서 해전의 변증법적 방법과 다른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이다. 해전에겐 한하여는 그가 리념(理念)이라는 명칭에서 심지어 독립적 주체(主體)로까지 변화시키는 그 사유과정(思惟過程)이 현실세계(現實世界)의 데미우르코스(造物主)이니 이 현실세계는 오직 사유과정의 외부적 표현일 따름이다. 이와 반대로 나에게겐 한하여는 판넬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에 이식(移植)되어 거기에서 변조된 물질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칸·말스의 저서 「자본론」 제1권, 독일문 제2판 발문)。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의 유물론을 특징지으면서 동시에 포이엘박하를 유물론의 권위를 회복시킨 철학가로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유물론이 포이엘박하의 유물론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맑스와 엥겔스가 포이엘박하의 유물론에서 그의 「기본적 알맹이」를 취하고 그것을 유물론의 과학적·철학적 리론으로 일층 더 발전시키고 또 그의 판넬론적 및 종교-윤리(倫理)적 외각(外殼)을 없애버렸다. 아다실이 포이엘박하가 근본적으로는 유물론자였지만 유물론이라는 명칭은 반대하였던 것이다. 포이엘박하가 「유물론적 기초에 립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판넬론적 기반(羈絆)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과 「포이엘박하의 확실한 판넬론은 우리가 그의 윤리학(倫理學)과 종교철학과 접목하게 될 때면 즉시에 외면에 나타난다」(칸·말스와 엥겔스의 전집 제14권 六五二—六五四페이지)고 엥겔스는 여러번 말하였다.

변증법(더알레리카)이란 말은 원래 「더알레고」란 회람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회화와 본질을 의미한다. 고대에는 상대방의 추론(推論)에서 모순을 폭로하며 이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진리를 얻는 기교를 변증법이라고 알았던 것이다. 고대에 어떤 철학가들은 사유

(思惟)에 있어서의 모순의 폭로와 대립된 견해의 충돌이 전리의 발전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자연현상에 확장된 이 변증법적 사유(思惟)방식은 자연을 인식하는 변증법적 방법으로 변하였는바 이 방법은 자연현상을 영원히 운동하며 또 변천하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자연의 발전은 자연에 있어서의 모순 발전의 결과로 자연에 있어서의 대립된 힘들의 호상작용의 결과로 관찰하였다.

변증법은 그 기초에 있어서 형이상학(形而上學)과 정반대이다.

(一)、합·스·주·의·적·변·증·법·적·방·법·의·기·본·특·징·은·다·음·과·같·다·.

(一) 변증법은 형이상학과 정반대로 자연을 서로 분리되고 서로 고립되고 또 서로 의존되어 있지않는 사물과 현상의 우연한 집적(集積)으로 보지않고 도리어 사물과 현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서로 의존되어 있으며 또 서로 제약(制約)되어있는 그러한 연관관적이며 통일적인 전체(全體)로 본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방법은 자연의 어떠한 현상이든지 만약 그것을 고립하여있는 형태로, 주위현상과의 관련없이 취급한다면 이해될수 없다고 인정한다. 왜 그러냐하면 자연계의 어떠한 분야의 어떠한 현상이든지 그것을 주위조건들과 관련없이, 그 조건들에서 분리하여 관찰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것으로 되고말것이며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떠한 현상이든지 만약 그것을 주위현상과의 불가분리적인 관련에서, 또 그 주위현상에 의하여 제약된것으로 관찰한다면 이해할수있는것이며 또 론증할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二) 변증법은 형이상학과 정반대로 자연을 정지(停止)와 부동(不動)、정체(停滯)와 불변(不變)의 상태로 보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운동과 변천, 끊임없는 갱신(更新)과

발전의 상태로 보는바, 거기에서는 항상 그 무엇인가 발생하고 또 발전하며 그 무엇인가 파괴되고 또 쇠퇴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방법은 현상들을 그들의 호상관련과 제약성의 견지에서만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동, 그들의 변천, 그들의 발전의 견지에서, 그들의 발생과 쇠퇴(衰滅)의 견지에서 관찰할 것을 요구한다.

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모멘트에는 튼튼한듯하나 그러나 벌써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모멘트에는 비록 튼튼치 못한듯이 보이며라도 발생하며 또 발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는 발생하고 발전하는 것만이 극복될 수 없는 때문이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전체자연은 그 가장 작은 분자를 비롯하여 가장 큰 물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비롯하여 태양에 이르기까지, 원생생물(原生生物)(원생세포——이.스.탈린)을 비롯하여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원무궁한 발생과 소멸의 상태에, 끊임없는 류동(流動), 꾸준한 운동과 변화의 상태에 처하여 있다」(상동 四八四페이지)。

그러므로 변증법은 「사물과 그의 지적(智的) 반영을 주로 그들의 호상관련중에서, 그들의 현세중에서, 그들의 운동에서, 그들의 발생과 소멸에서 파악하는 것이다」(칼. 맑스 와. 에프. 엥겔스의 전집 제十四권 二三페이지)라고 엥겔스는 말하였다.

(二) 변증법은 형이상학과 정반대로 발전과정을 양적(量的) 변화가 질적(質的) 변화물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장성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그마한 층은 양적 변화

로부터 로물적 변화로, 근본적 변화로, 질적 변화로 넘어가는 그러한 발전으로 보는바 이에서 질적 변화가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신속히, 돌연히, 한 상태로부터 다른 한 상태로 비약적(飛躍的)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써 일어나며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법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점진적인 양적 변화의 축적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방법은 발전과정을 순환(循環)운동으로, 이미 지난것의 단순한 반복으로가 아니라 전진운동으로, 상승운동으로, 낡은 질적 상태로부터 새질적 상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단순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으로, 저급으로부터 고급으로의 발전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고 인정한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자연은 변증법의 시금석(試金石)이다. 그리고 이 시험에 비유히 풍부하고 날마다 더 증가되는 재료를 제공(提供)한 현대 자연과학은 그리함으로써 자연계에서는 결국 모든것이 형이상학적으로가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과 자연계가 영원히 한가지 모양으로, 항상 다시 반복되는 등그림미만에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진실한 역사를 경과한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현대의 전 유기체, 즉 식물과 동물, 따라서 인류도 수백만년을 지나온 발전과정의 산물이라는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에 아주 힘있는 타격을 준 다윈을 지적하여야 한다」(상동 二三페이지)。

변증법적 발전이란것은 양적 변화로부터 질적 변화로 넘어감이라고 특징지어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리학에 있어서: 각종의 변화는 량이 결코 넘어가는것인데 그것은 물체에 내속(內屬)한, 혹은 그에 전연(轉連)된 어떤 형태의 운동량이 량적으로 변한 결과이다. 가령 폐를 들면, 물의 온도가 차이에 물

의 물방울—액체상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액상(液狀)의 물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춤에 따라 이 응집상태(凝集狀態)가 변하여 물이 한 경우에는 증기로 변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얼음으로 변하는 때가 약치는다. 그리고 백금선(白金線)이 빛(光)을 내게할 때는 전력(電力)의 일정한 최저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속마다 각각 자기의 용해열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일정한 압력하에서 각종 액체는 그 일정한 빙점(冰點)과 비등점(沸騰點)을—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단에 의해서 해당한 온도를 줄수있는 한(限)—가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체는 적당한 압력과 냉각을 주는 때에는 액체상태로 전화(轉化)할수있는 그러한 임계점(臨界點)을 가지고 있다. 물리학상에서 소위 상수(常數)(한 상태로부터 다른 한 상태로 넘어가는 점—이.스탈린)란것은 대부분 다른것이 아니라 운동의 양적(變化的) 증가 또는 감소가 해당한 물체의 상태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며 따라서 많이 질로 넘어가는 그런 결절점(結節點)에 불과하다」(상동 五二七—五二八페이지)。

다음으로 엥겔스는 화학으로 넘어가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말하였다。

「화학은 양적 성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물체의 질적 변화에 관한 과학이라고 말할수있다. 이것은 해산자성도 아마 알고있었다. 산소를 메르 붙여보자. 만약 분자에 보통으로 두개의 원자(原子)를 결합시키지 않고 세개의 원자를 결합시킨다면 우리는 새로운 온도를 얻는다. 온도는 그의 법칙과 작용상으로 보아 보통 산소보다도 확실히 다른 물체이다. 그러면 산소가 질소와 혹은 루튬과 여러가지 비례로 화합되면서 각각 질적으로 서로 다른 물체를 산출하고있는 그 여러가지 비례에 대하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상동 五二八페이지)。

마지막으로, 헤겔은 막 꾸짖으면서도 곧 슬그머니 헤겔에게서 그 유명한 명제, 즉 무감각계(無感覺界)에서 감각계에로, 무기계(無機界)에서 유기계에로 넘어가는것이 새상태에로의 비약(飛躍)이라고한 그 명제를 좀더내어 쓴 뒤를을 비판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참말 해결의 분량관계(分量關係)의 결결선(結節線)이니 이 선에서는 순전한 양적 증대 또는 감소가 인정한 결결점에 있어서 질적 비약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물을 덥히거나 식이는 경우에 있어서 비동점과 빙점이——정상적 압력하에서——재 응정상태로 비약하는 그러한 결결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많이 걸트 넘어가는 것이다」(상동 四五—四六페이지)。

(己) 변증법은 형이상학과 정반대로 자연의 사물과 자연의 현상에는 원래 내재적(內在的)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모두다 자체의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 자체의 과거와 미래, 자체의 쇄멸하는 것과 발전하는 것을 가진 까닭이다——이 대립성(對立性)의 투쟁, 낡은 것과 새것사이의 투쟁, 쇄멸하는 것과 발생하는 것사이의 투쟁, 쇄멸하는 것과 발전하는 것사이의 투쟁이 발전과정의 내용,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진화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방법은 인정하기를,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의 발전과정은 현상의 조화(調化)적 전개(전개)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현상에 내재(內在)한 모순의 개현(開顯) 형식으로, 이 모순의 기초위에서 작용하는 대립적 경향들의 「투쟁」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변증법이란 그 본의로 보면 사물·의·본질·그·자체·에·있는·모순을 연구하는 그것이다」(때년 「철학원리」 二六三페이지)。

그 다음——

「발전이란 대립성의 「투쟁」이다」(때년 제十三권 三〇一페이지)。

맑스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의 기본적인 특징은 대략 이러하다.

변증법적 방법의 명제를 사회생활의 연구에, 사회사(社會史)의 연구에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었으며 그 명제를 사회사에, 프로테라리아트당의 실지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었는가 하는 데 대하여는 리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세계에 고립(孤立)된 현상이 없으며 모든 현상이 서로 관련되고 서로 제약(制約)된 이상, 역사상에서의 각 사회제도와 각 사회운동은 이것을 역사가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영원한 공정(公正)」의 전지로서나 혹은 그 어떤 다른 선입관념(先入觀念)의 전지로부터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그 사회운동을 발생시키고 또 그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들의 전지로부터 평가하여야 할 것은 명백하다.

노예제도가 현대조건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며 부자연한 어리석은 것이다. 왜해되던 원시공유제도의 조건하에서는 노예제도가 심분 리해할 수 있고 합법칙적인 현상이었다. 왜 그리냐하면 그것은 원시공유제도에 비하면 한결음 더 전진한것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요컨대 一九〇五년의 로씨야에 있어서 짜리즘과 부르조아사회가 존재한 조건하에서는 부르조아민주주의적 공화국이라는 요구가 심분 당연하고 정당한 또 혁명적인 요구이었다. 왜 그리냐하면 부르조아공화국은 그때조건에 있어서는 한결음 전진한것을 의미하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조선의 조건하에서는 부르조아민주주의적 공화국이라는 요구가 무의미하고 반(反)혁명적인 요구이다. 왜 그리냐하면 부르조아공화국은 쏘베트공화국에 비하여 일보퇴각인 까닭이다.

모든것은 조건과 장소와 시간에 달렸다.

사회현상에 대한 이러한 력·사·적·취급이 없이는 력사에 관한 과학의 존재와 발전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오로지 이러한 취급만이 력사와학을 우연적 사건의 혼돈과 가장 미숙한 오유의 퇴적(堆積)에로의 전락(轉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세계가 끊임없는 운동과 발전에 있으며 남은것의 조락(凋落)과 새것의 장성이 발전의 법칙인 이상, 「고정불변(固定不變)」하는 사회질서, 사유재산과 착취의 「영원한 원칙」, 농민들은 지구에게,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복종한다는 「영원한 사상」이라는 것이 더는 있을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즉 자본주의제도가 한때에 봉건제도를 교대(交代)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주의제도로써 역시 교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즉 현실에는 비록 우월한 세력이기는 하더라도 더는 발전하지 않는 그런 사회층에 랍각(立脚)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는 비록 우월한 세력이 되지 못하더라도 발전하며 또는 장래성을 가진 그런 사회층에 랍각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八十年대, 맑스주의자들이 인민과 투쟁하던 시기에는 로씨야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이룬 개인경영의 농민과 프로테타리아트를 비교한다면 후자가 보잘것없는 소수이었다. 그러나 계급으로서의 농민이 와해되는 반면에 계급으로서의 프로테타리아트는 발전되어가고있었다. 설로 프로테타리아트가 계급으로서 발전하여 나갔기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프로테타리아트에 랍각했던 것이다. 참말 그들이 오유를 범하지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는바와 같이 그후에 프로테타리아트야말로 미미한 세력으로부터 제일급의 력사적 및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했기때문이다.

그런즉 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뒤를 돌아다볼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서한 량적 변화가 급격하고 돌연적(突然的)인 질적 변화로 넘어가는 것이 발전의 법칙을 이루는 이상, 피압박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적 변혁(變革)이야말로 아주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즉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것과 자본주의적 압박으로부터 노동계급을 해방하는 것은 서서한 변화의 방식으로, 개량적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본주의제도를 질적으로 변혁하는 방식으로, 혁명의 방식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즉 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개량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내재적 모순을 개현(開顯)하는 형식으로,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모순의 지반위에서 대립적 세력들이 충돌하는 형식으로 발전이 진행되는 이상, 프로레타리아트의 재급투쟁이야말로 전혀 자연적이며 또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즉 자본주의 결사의 모순을 미봉(彌縫)할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폭로하고 전개하여야 하며 재급투쟁을 소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즉 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리해판계를 조화(調和)시키려는 개량주의적 정책을 실현한다든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변생(變生)」한다는 타협주의적 정책을 실시한다든가 할 것이 아니라 화해(和解) 없는 계급적 프로레타리아 정책을 실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만일 맑스주의 변증법적 방법을 사회생활에 적용하고 또 사회력사에 적용하여 본다면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이러 한 것이다.

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에 관하여 논의한다면 그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철학적 관념론과 정반대이다.

(二) 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의 기본특징은 다음과 같다.

(一) 세계를 「질대리념」, 「세계정신」, 「의식」의 체현(體現)이라고 인정하는 관념론과는 정반대로 맑스의 철학적 유물론은 세계는 그 본질상으로 보아 물질적이고 세계에서의 다종다양한 현상은 운동하는 물질의 각종 형태이며 변증법적 방법으로 해명되는 현상의 호상관련 및 호상제약은 운동하는 물질의 발전의 합법칙성이며 세계는 물질운동법칙에 의하여 발전하고 어떠한 「세계정신」이든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유물론적 세계관은 어떠한 외부적 보충도 없이 자연계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맑스·엔겔스의 저작 제十四권 六五一페이지).

「모든 것의 통일체인 세계는 어느 신(神)이나 어느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합법칙적으로 나오며 합법칙적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있는 불멸이로 있었고, 있으며 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고대철학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적 견해에 관하여 레닌은 말하기를,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리를 아주 훌륭하게 써 놓았다」(레닌 「철학필기장」三一八페이지)고 하였다.

(二) 우리의 의식(意識)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질세계, 실재, 자연은 오직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감각, 관념, 개념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관념론과 정반대로 맑스

주의 철학적 유물론은, 물질, 자연, 실재가 의식밖에 또는 의식에 종속되지 않고 있는 객관적 현실이며 물질은 그것이 감각, 판단, 의식의 원인이기 때문에 일차적(一次的)이고 의식은 그것이 물질의 반영이오 실재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차적(二次的)이오 파생적(派生的)이며 사유(思惟)는 물질이 그 발전에 있어서 고도(高度)의 완전성을 도달한 그 물질의 산물, 즉 뇌수의 산물이며 그리고 뇌수는 사유의 기관이며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사유를 물질에서 분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모든 철학의 최고문제는 실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 철학자들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두 큰 진영(陣營)으로 나누어졌었다. 정신이 자연보다 먼저 존재하였다 ∴ 고 주장한 자들은 관념론적 진영을 이루었고 자연을 근본기원(起原)이라고 주장한 자들은 유물론의 여러가지 학파(學派)에 속하였다』(관·판스 선집 제1권 三三九페이지)。

그 다음——

『우리 자신이 속해있는 그 감각적으로 지각(知覺)되는 물질적인 세계는 유일한 현실적 세계이다 ∴ 우리의 의식과 사유는 그것이 아무리 초감각적(超感知的)인 듯이 보일지라도 물질적, 육체적 기관, 즉 뇌수의 산물이다. 물질이 정신의 산물인 것이 아니라 정신 자체가 물질의 최고산물일 따름이다』(상동 三三二페이지)。

물질과 사유문제에 관하여 밝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유하는 그 물질에서 사유를 분리하지 못한다. 물질은 모든 변화의 주체(主體)이다』(상동 三〇二페이지)。

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을 특징지어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물론은 대개 : 의식, 감각, 경험 등등에 종속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있는 현실적 실재(물질)를 인정한다. : 의식은 : 오직 실재의 반영이며, 한껏해야 대략 옳은(상당한, 리상적으로 정확한) 실재의 반영이다」
레닌 제十三권 二六六—二六七페이지。

그 다음—

—「물질은 우리의 감각에 작용하여 감각을 일으키는 그것이다. 물질은 우리의 감각에 전해진 객관적 현실이다 : 물질, 자연, 실재, 육체적인것은 일차적이고 정신, 의식, 감각, 심리적인것은 이차적이다」(상동 九—一二〇페이지)。

—「세계의 정경(情景)은 어떻게 물질이 운동하며 또 어떻게 『물질이 사유하는가』의 그 정경이다」(상동 二八八페이지)。

—「뇌수는 사유의 기관이다」(상동 一二五페이지)。

(C) 세계와 그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우리의 지식의 정확성을 믿지 아니하며 객관적 진리를 부인하며 그리고 세계는 언젠든지 과학으로써 인식할 수 없는 「물자체(物自體)」로 충만되었다고 인정하는 관념론과 정반대로 맑스주의철학적 유물론은 세계와 그의 합법칙성은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경험과 실천에 의하여 검열된 자연법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객관적 진리의 의의를 가진 정확한 지식이며 세계에는 인식하지 못할 사물이라고는 없고 다만 아직 인식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장차 과학과 실천의 힘에 의해서 발견될것이요 또 인식될 그러한 사물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또는 인식하여 별수없는 「물자체」라고 말한 칸트와 기타 관념론자들의 명제를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정확하다고 말하는 유물론의 유명한 명제를 옹호하면서 엥겔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것이나 또는 기타 일체 철학적 망상(妄想)에 대한 가장 단호한 반박은 실천, 즉 실험과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천히 자연현상을 자아내며 그가 생긴만한 조건들을 가지고서 그 현상을 일으키며 더욱더 그 현상을 우리의 목적에 봉사케 하므로써 소여의 자연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理解)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칸트가 말한바의 종합을 수없는 「물자체」는 종말을 고했게 될 것이다. 동식물의 체내에서 생기는 화학물질을 유기화학이 그 물질들을 얻어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이러한 「물자체」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라하 「물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진 물체로 변하였다. 가령 비를 들면, 우리는 꼭두선(薺草)의 열로 인 할리자발을 이겨는 재배장에서 재배하는 꼭두선의 뿌리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값싸고 쉽게 서란유(코르라트)에서 얻어낸다. 코페르니크스의 태양계설(太陽系說)은 三百년 동안 가설로, 아주 그 멀듯한 가설이었으나 이것은 가설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케플러에가 이 태양계설의 재료들에 근거하여 그 당시까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다른 한개의 특성(特性)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산에 의하여 천공(天空)에서 그 특성이 작적하고 있는 위치까지도 알아내었으며 그리고 그 후에 할배가 과연 그 특성을 발견했을 때에 와서는 코페르니크스의 태양계설이 확증되었던 것이다」(관. 랍스 선집 제 1권 三三〇페이지)。

레닌은 보그다노프, 바자로프, 유스께위츠 및 기타의 마하의 찬동자들을 신상철학(新상)을 과학보다 중히 여기는 반동적 이론(理論)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자연계에서의 합법적성의 새 패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정확하며 과학의 법칙들이 객관적 진리이라고 하는 유물론의 유명한 명제를 고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신앙철학은 과학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과학의 『지나친 참망』만을, 즉 객관적 진리에 대한 참망만을 거부한다.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며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과학이 외계(外界)를 인간의 『경험』중에 반영하면서 그 하나만이 우리에게 객관적 진리를 줄 능력을 가진 한(限),은 갖 신앙철학은 두말없이 배척을 당하는 것이다」(매년 제十三권 一〇二페이지)。

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의 특징들은 간단히 이러하다.

철학적 유물론의 제명제를 사회생활의 연구에, 사회사의 연구에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또 이 제명제를 사회사와 프로테타리아트 당의 실지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쉽게 리해할만한 일이다.

자연현상의 호상 관련과 이 현상의 호상 제약(制約)이 자연계 발전의 합법적성이 되는 이상, 이로부터는 사회생활현상의 호상 관련과 호상 제약도 역시 우연한 일인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합법적성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사회생활, 사회사는 「우연적 사건」의 퇴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사는 사회의 합법적적 발전으로 되며 사회사의 연구는 과학으로 변하는 때문이다.

그런즉 프로테타리아트 당의 실지활동은 「특출한 위인」의 선량한 지망(志望)이나 「리성(理性)」이나 「보편적 도덕」등의 요구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발전의 합법적성과 이 합법적성의 연구에 근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가 인식될 수 있으며 또 자연의 발전법칙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객관적 진리의 의의를 가진 정확한 지식인 이상, 이것으로부터는 사회생활과 사회발전도 또한 인

식할수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재로는 객관적 진리의 의의를 가진 정확한 재료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되는것이다.

그런즉 사회사에 대한 과학은 사회생활현상이 아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법칙을, 말하자면 생물학에서처럼 실천적 목적에 리용할수있는 정확한 과학이 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런즉 프롤레타리아트당은 그실지 활동에 있어서 어떤 우연적 동기를 지도로 삼을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법칙, 즉 이 법칙에서 나오는 실지 결론을 지도로 삼아야된다는것이다.

그런즉 사회주의는 인류의 훌륭한 미래에 관한 몽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된다는것이다.

그런즉 과학과 실지 활동과의 관련, 리론과 실천과의 관련, 그것들의 통일은 프롤레타리아트당의 향도성(嚮導星)이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자연, 실재, 물질적 세계가 일차적이고 의식, 사유는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이상, 물질적 세계가 사람들의 의식에 종속되지않고있는 객관적 현실이고 의식은 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인 이상, 이것으로부터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과 그의 실재도 역시 일차적이고 사회의 정신적 생활은 이차적이고 파생적이며 사회의 물질적 생활은 지(意志)에 종속되지않고있는 객관적 현실이고 사회의 정신적 생활은 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며 실재의 반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되는것이다.

그런즉 사회의 정신적 생활을 형성하는 원천, 사회적 사상, 사회적 리론,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의 발생원천을 사상, 리론, 견해, 정치적 기관 자체가운데서 찾을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조건가운데서, 이 사상, 리론, 견해등등이 그반영인 사회적 실재가운데서 찾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런즉 사회사의 서로 다른 시기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사상, 이론, 견해, 정치적 기관을 보게되는 이상, 노예 제도하에서는 한가지의 사회적 사상, 이론, 견해, 정치적 기관을 보게 되고 봉건제도하에서는 다른것을 보게되고 또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또 다른것을 보게되는 이상, 이것은 사상, 이론, 견해, 정치적 기관자체의 「본질」로나 「성격」으로써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서로 다른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의 서로 다른 물질적 생활조건으로써 설명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질재의 여하에 따라서,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의 여하에 따라서 사회의 사상, 이론,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도 응당 그와같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의 의식이 그들의 실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실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卷・맑스·엔겔 제1권 二六九페이지)。

그런즉 정치에서 오류를 범하지 말며 헛된 공상가의 처지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는 프로테라리아트당은 자기의 활동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간리성(人間理性)의 제 원리」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결정적 동력(動力)이 되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구체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위인(偉人)」의 선량한 지망으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상가들——인민과, 무정부주의자, 에세르들을 포함해서의 공상가들의 몰락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사회발전에서 있어서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의 우선적(優先的) 역할을 부인하

고 관념론에 따지면서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의 요구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요구와는 관계함이 없이 또 이에 반(反)하여 자기의 실지 활동을 세웠으며 사회의 현실적 생활로부터 떨어진 「이상적 계획」 및 「전반적 계획」에 근거해서 세웠다는 것으로서 설명된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력과 활력(活力)은 그가 자기의 실지 활동에 있어서 언제나 사회의 현실적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실로 사회의 물질적 생활발전의 요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맑스의 말로부터, 사회적 사상, 이론,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이 사회생활에서의 의의를 가지지 못하며 또 이것들은 사회적 실재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을 발전함에 도루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사회적 사상, 이론, 견해, 정치적 기관의 가원에 대하여서, 그들의 발생에 대하여서 말하였던 것이었기이다. 사회적 사상, 이론, 견해, 정치적 기관의 의의, 력사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관해서는 역사적 유물론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역사에 있어서 그것들이 중요한 역할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사상과 이론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마 자기의 차대를 다 살고 사회의 쇄멸하는 세력의 타락에 봉사하는 낡은 사상과 이론이 있다. 그것들의 의의는 그것들이 사회의 발전과 그의 진보를 방해하는 데 있다. 사회의 진보적 세력의 타락에 봉사하는 새로운 진보적 사상과 이론이 있다. 그것들의 의의는 그것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쉽게 하는 데 있으

며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물질적 생활발전의 요구를 더 정확히 반영할수록 더욱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사회적 사상과 이론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이 사회앞에 새 임무를 내세운후에 따라야만 발생된다. 그러나 발생된뒤에는 그것이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이 내세운 새 임무의 수행을 쉽게하여주며 또 사회의 진보를 쉽게해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된다. 여기에 바로 새 사상, 새 이론, 새 정치적 견해, 새 정치적 기관의 가장 위대한 조직적, 동원적(動員的), 혁신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사상과 이론이 발생하는것은 우선 그것이 사회에 필요하기때문이며 그것의 조직적, 동원적 및 혁신적 작용이 없이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발전의 당면한 임무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까닭이다. 새 사회적 사상 및 이론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에 의하여 제기된 새 임무의 토대위에서 발생된후 자기의 길을 닦으며 인민대중의 향유물로 되며 희망하여가는 사회의 세력을 반대하여 인민대중을 동원하며 그들을 조직하며 또 이렇게하므로써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회의 적렬적 세력의 전복을 용이하게한다.

이렇게 사회적 사상, 이론, 정치적 기관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과 사회적 실재의 발전상 긴밀한 임무를 토대로하고 발생한 다음에는 그 자체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긴밀한 임무를 끝까지 수행케하며 그 물질적 생활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수 있게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사회적 실재에, 사회의 물질적 생활에 도루 영향을 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하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이론은 그것이 대중을 파악하자마자 물질적 힘으로 된다」(칸·말스하·에프·엔겔스 전집 제 一 권 四〇六 페이지)。

그런즉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들에 영향을 주며 그 조건들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그 조건들의 개선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얻기위하여서는 프로테라리아트 당이, 반드시 사회의 물질적 생활발전의 요구를 옮겨 반영하며 또 이렇기때문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운동시킬 능력을 가지었고, 그들을 동원하며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사회의 진보적 세력의 길을 개척할 용의(用意)를 가진 프로테라리아트당의 대군단(大軍團)을 인민대중가운데서 편성할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회적 리론, 그러한 사회적 사상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주의자들」과 멘셰비크들의 몰락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진보적 리론과 진보적 사상의 동원적, 조직적, 혁신적 역할을 부인하였으며 또 속학적(俗學的) 유물론에 빠져서 이진보적 리론과 진보적 사상의 역할을 거의 허무로 돌아가게하며 따라서 당을 소극성에, 빈사(瀕死)의 경에 빠지게한 그것으로써 설명된다.

맑스-레닌주의 위력과 활동은, 그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의 요구를 옮겨 반영하는 진보적 리론에 의거하고있으며 리론을 그의 해당한 수준으로 제고(提高)시키며 그 리론의 동원적, 조직적 및 혁신적 력량을 끝까지 리용할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는데 있는것이다.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적 실재와 사회적 의식과의 관계,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 조건들과 정신생활의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三) 역사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의 전제로 보아 사회의 상모(相貌), 그의 사상, 견해, 정치적 기관등등을 결국 결정하는 「사회적 물질적 생활조건」이란 무엇인가를 밝힐 이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에 있어 「사회적 물질적 생활조건」이란 무엇이며 또 그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물론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이란 개념가운데는 우선 사회를 둘러싸고있는 자연계 즉 사회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하고 항구적인 조건중 하나이며 또 물론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환경이 포함되는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지리적 환경의 역할은 어떠한가? 지리적 환경이 사회의 상모, 인류사회제도의 성격, 한 제도로부터 다른 제도로 넘어감을 결정하는 그러한 주동력이 되지않는가?

력사적 유물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지리적 환경은 논쟁할것도 없이 사회발전의 항구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중의 하나이며 그것이 물론 사회발전에 영향을 준다. 즉 그는 사회발전의 진보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지체시킨다. 그러나 지리적 환경의 영향이 결정적 영향으로는 못된다. 그것은 사회의 발전과 발전이 지리적 환경의 변천과 발전보다 비할수없이 더 급속하게 진행되는 까닭이다. 三千年 동안에 구라파에서는 세가지 사회제도——원시공유제도, 노예제도, 봉건제도——가 바꾸이였으며 그리고 동부구라파, 즉 소련에서는 심지어 네가지 사회제도가 바꾸이기까지하였다. 그 럽에 불구하고 이 기간에 구라파의 지리적 조건은 혹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어쩌나 적게 변하였든지 이에 대하여 지리학은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알만한 일이다. 인류사회제도가 아주 확연히 변하려면 수백년이나 혹은 一, 二천년이면 녀녀하나 지리적 환경이 다소간 확연히 변하려면 수백만년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로부터 지리적 환경이 사회발전의 주되는 원인, 결정적 원인이 될수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그러냐하면 수만년 동안이나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수백년 동안에 근본적 변천을 겪고있는 그 발전의 주되는 원인이 될수없는 까닭이다.

다음으로, 인구의 증식(增殖)、인구의 각종밀도도 또한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조건」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들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필요한 요소이며 그리고 사람들의 일정한 최저수(最低數)가 없다면 사회의 어떠한 물질적 생활이든지 있을수 없는 까닭이다. 인구의 증식이 인류사회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되는 힘이 아닌가?

역사적 유물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물론 인구의 증식이 사회발전에 영향을 주며 사회발전을 쉽게하거나 혹은 더디게 하지만 그러나 인구의 증식이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주되는 힘이 될수없으며 또 그의 영향이 사회발전의 결정적 영향으로 될수없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의 증식 그것만은, 어찌서 본(本) 사회제도가 그 어떤 다른 제도로서가 아니라 꼭 이러한 사회제도로써 바뀌며 어찌서 원시공유제도가 어떤 다른 제도로서 바뀌이지 아니하고 꼭 노예제도로써 바뀌고 노예제도는 봉건제도로써, 봉건제도는 부르주아제도로써 바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열쇠를 주지 못하는 때문이다.

만일 인구의 증식이 사회발전의 결정적 힘이 된다면 보다 높은 인구밀도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게 보다 높은 형(型)의 사회제도를 산출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을 볼수없는것이다. 중국의 인구밀도는 미국의 인구밀도보다도 네배나 더 높으나 사회발전상으로 보아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높은 계단에 있다. 왜 그러냐하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반(半)봉건적 제도가 우세인때에 미국은 벌써 오래전에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계단에 도달한 까닭이다. 백이의(白耳義)의 인구밀도는 미국보다는十九배나,

쏘련보다는 二十六배나 더 높으나 그러나 사회발전상으로 보아서는 미국이 백이의보다 더 높으며 그리고 백이의는 쏘련에 비하여서는 역사적 한지대를 뒤떨어져있다. 왜 그러냐하면 백이의에서는, 자본주의제도가 지배하고 있으나 쏘련에서는 벌써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까닭이다.

그런즉 이로부터 인구의 증식이 사회제도의 성격, 사회의 상모를 결정하는 사회발전의 주되는 힘이 되지 않으며 또 될 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7) 그러면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의 체계에 있어서 주되는 힘, 즉 사회의 상모, 사회제도의 성격, 한 사회제도로부터 다른 사회제도로로의 발전을 결정하는 주되는 힘은 무엇에 있는가?

역사적 유물론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획득방식, 즉 사회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부(富), 즉 식료, 의복, 신발, 주택, 연료, 생산도구 등의 생산방식이 이러한 힘이라고 인정한다.

생활하기 위해서는 식료, 의복, 신발, 주택, 연료등등이 있어야 하며 이 물질적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생산해야 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료, 의복, 신발, 주택, 연료등등을 사람들이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그런 생산도구가 있어야 하며 이 생산도구를 생산할 줄 알아야 하며 이 생산도구를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물질적 부를 생산함에 소용되는 생산도구와 일정한 생산경험과 노동관습에 의하여 그 생산도구를 운용하며 또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것이 사회의 생산력을 구성한다.

그러나 생산력은, 물질적 부의 생산에 리용되는 대상물과 자연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만 생산의 한면을, 생산방식의 한면(面)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생산의 다른면, 생산방식의 다른면은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호상관계, 즉 사람들의 생산관계를 이룬다. 사람들은 호상고립(孤立)되고 호상분리된 개개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협동적으로, 집단적으로, 공동적으로 자연과 투쟁하며 또 물질적 부의 생산을 위하여 자연을 리용한다. 그러므로 생산은 언제나 연제든지 또는 어떤 조건하에서든지 사회적 생산인 것이다. 사람들은 물질적 부의 생산을 수행하면서 생산내부에서 호상간에 이러한 혹은 저러한 호상관계, 이러한 혹은 저러한 생산관계를 이룬다. 이 관계는 착취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호상협력과 호상원조의 관계로도 될수있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도 될수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생산관계의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로의 과도적 관계로도 될수있다. 그러나 생산관계는 어떠한 성질을 띠고있는지간에 그는——연제든지 또는 어떤 제도하에서든지——사회의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앞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생산에서 사람은 다만 자연에 대해서만 영향을 줄뿐 아니라 그대의 호상간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들은 공동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의 활동을 호상 교환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결합되지 않으면서 생산할수없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일정한 연락과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다만 이러한 사회적 연락과 관계를 절제치만 자연에 대한 사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생산이 있게되는 것이다」(칼·맑스와 엥겔스, 전집 제5권 四二九페이지)。

그러므로 생산, 생산방식은 사회의 생산력과 사람들의 생산관계를 포괄하였으며 이리하여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통일인 체현이 된다.

(ㄴ) 생산의 제 1 특성은 생산이 언제든지 한점에 장기간 머물러있지 아니하고 항상 변

경과 발전의 상태에 처하여있으며 그리고 생산방식의 변경은 불가피적으로 모든 사회적 토, 사회적 사상,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의 변경을 일으키어 모든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재건설을 일으키는 그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생산방식을 리용한다. 혹은 좀 더 평범하게 말하자면, 여러가지 양식으로 생활한다. 원시공유제도 이에 한가지 생산방식이 있다면 노예제도시에는 다른 생산방식이 있으며 봉건제도시에는 또 다른 생산방식등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회제도, 그들의 정신생활, 그들의 견해, 그들의 정치적 기관도 역시 서로 다른것이다.

사회의 생산방식 이하에 따라서 대체로 그 사회자체도 달라지며, 사회의 사상 및 이론, 정치적 견해 및 기관도 달라진다.

혹은 좀 더 평범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활양식 이하에 따라서 그들의 사유(思惟) 양식도 달라진다.

이것은 사회발전의 력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발전의 력사이며 여러세기동안 서로 바꾸어고있는 생산방식의 력사이며 생산력과 사람들의 생산관계 발전의 력사임을 의미한다. 그런즉 사회발전의 력사는 동시에 물질적 부의 생산자들 자체의 력사이며 또 생산과정의 기본적인 힘이고 사회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근로대중의 력사인것이다.

그런즉 만약 력사과학이 진정한 과학이 되려면 사회발전의 력사를 더는 왕(王)이나 명장(領將)의 행동, 국가들의 「침략자」와 「정복자」의 행동으로 볼수없으며 무엇보다도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자들의 력사, 근로대중의 력사, 인민들의 력사를 연구하여야만 된다.

그런즉 사회력사의 법칙을 연구하는데 대한 열쇠를 사람의 두뇌속에서, 사회의 전체 및 사상가운데서 찾아낼것이 아니라 매개의 해당하는 역사적 시기에 사회가 실천하는 생산방식에서, 즉 사회의 경제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그런즉 역사과학의 전제 임무는 생산법칙,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발전법칙, 사회의 경제발전 법칙을 연구하며 천명(闡明)하는데 있다.

그런즉 프로테라라아트 당이 만약 그가 진정한 당으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생산발전 법칙에 대한 지식, 사회의 경제발전 법칙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

그런즉 프로테라라아트 당이 정치에 있어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강령을 작성함에 있어서든지, 자기의 실지 활동에 있어서든지 무엇보다도 생산발전 법칙으로부터, 사회의 경제발전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된다.

(二) 생산의 제 2 특성은 생산의 변경과 발전이 항상 생산력의 변경과 발전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도구의 변경과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기에 있다. 그런즉 생산력은 생산의 가장 가동적(可動的)이며 혁명적인 요소이다. 처음에는 사회의 생산력이 변경하고 발전하며 그다음에는 이 변경에 따라서 또 그에 상응하여 사람들의 생산관계, 사람들의 경제관계가 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는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 후자가 전자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면서 동시에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혹은 더디게 하면서도 무 그 발전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장성보다 너무 오랫동안 뒤떨어지고 또는 그것과 모순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

만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질과 상태에 적응하며 생산력의 발전에 자유를 주는 그런 경우 에라야만 생산력이 원만히 발전할수있는 까닭이다. 이렇기때문에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보다 아무리 뒤떨어졌다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조만간에 생산력 발전의 수준에, 생산력 성질에 적응하여야하며 또 실제로 적응하여지는것이다.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체계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통일적 근본적 파괴, 생산전체의 파멸, 생산의 공황, 생산력의 파괴를 볼수있을것이다.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질에 적응치 못한 실례, 또 그들 호상간에 충돌이 생기는 실례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보는 경제공황이니 여기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유제가 생산과정의 사회적 성질과 생산력의 성질에 극히 적응치 못하다. 생산력의 파괴에 이르게하는 경제공황이야말로 이 불적응성의 결과인바 불적응성 이것은 현재의 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생산력의 성질에 적응한 새 생산관계를 창조하려는 사명을 가진 사회혁명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있다.

이와반대로,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질에 완전히 적응한 그 실례는 소련내의 사회적 의적 인민경제이니 소련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생산과정의 사회적 성질에 전적으로 적응하며 또 이렇기때문에 소련에는 경제공황도, 생산력의 파괴도 없다.

그러므로 생산력은 생산의 가장 가동적이고 혁명적인 요소일뿐만 아니다. 동시에 그것은 생산발전의 결정적 요소인것이다.

생산력 여하에 따라서 생산관계도 응당 그렇게 되어야하는것이다.

만일 생산력의 상태가, 어떠한 생산도구로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부

를 생산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한다면 생산관계의 상태는 벌써 다른 문제에, 즉 생산수단(토지, 삼림, 하천(河川)、지하자원(地下資源)、원료, 생산도구, 생산전물(建物)、교통통신채로 및 기타)이 누구의 소유인가, 생산수단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는가, 전 사회의 관리하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 그루빠, 계급을 착취함에 이 생산수단을 리용하는 일부의 개인, 그루빠, 계급의 관리하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한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생산력 발전을 보여주는 개관은 다음과 같다. 조졸(粗拙)한 석기(石器)로부터 활과 활살로 넘어갔으며 또 이와 관련하여 수렵생활양식으로부터 동물의 순육(馴育)과 원시적 목축업으로 넘어갔으며, 석기로부터 철제도구(쇠도끼, 쇠보습을 마춘 장기등)로 넘어갔으며 또 이에 따라서 식물재배와 농업으로 넘어갔으며, 원료를 가공(加工)하는 철제도구를 더 개선하였으며 대장간 플무에로 넘어갔으며, 도기(陶器)생산으로 넘어갔으며 또 이에 따라서 수공업이 발전되었고, 수공업이 농업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독립적 수공업생산과 그리고 마누팍뚜라(공장제 수공업)생산이 발전되었고, 수공업적 생산도구로부터 기계에로 넘어갔으며 수공업적 마누팍뚜라 생산이 기계산업으로 전화(轉化)되었으며, 기계제도로 넘어가서 근대적인 대규모적 기계산업이 생기게 되었다——물론 분화(分化)되었으며, 기계제도로 넘어가서 근대적인 대규모적 기계산업이 생기리함에 있어서 물론, 생산도구의 발전과 개선은,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지 않고 생산과 관계된 그런사람들에 의하여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도구의 변경 및 발전과 함께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인 사람도 변하고 발전되었으며 그들의 생산경험, 그들의 노동관습, 생산도구의 사용에 대한 그들의 기능도 변하고 발전되었다.

력사를 통하여 사회의 생산력이 변하고 발전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의 생산관계, 그들의 경제관계도 변하고 발전되었다.

력사에 있어서는 생산관계의 다섯가지 기본적 유형(類型)을 볼수있다. 즉 원시공유제도, 노예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제도 및 사회주의제도가 그것이다.

원시공유제도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적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로되었다. 이것은 대체로 이 시기의 생산력의 성질에 적응한 것이었다. 석기와 그다음에 생긴 활과 활살은 자연력(自然力)과 맹수(猛獸)를 단독적으로 대항하여 투쟁할만한 가능성을 주지 못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으려거나 맹수 혹은 이웃 무리의 침해로 희생되지 않기 위하여 삼림에서 과실을 주으며 물에서 고기를 잡아내며 어떠한 주택을 건축하려면 사람들이 반드시 협동적으로 일하지 않을수 없었다. 협동로동은 생산수단에 대하여서나 또 생산물에 대하여서나 다 한가지로 공유제(共有制)에 이르러하였다. 만약 맹수의 침해를 방어하는 무기로되는 약간의 생산수구에 대한 개인소유를 제외한다면 여기에서는 아직 생산수단의 사유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착취도 없고 계급도 없었다.

노예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과 생산자인 노예에 대한 노예소유자의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로 되었는데 노예소유자는 노예를 가축처럼 매매할수있었으며 죽일수있었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이 시대의 생산력 상태에 대체로 적응되었던 것이다. 이제 는 사람들이 석기대신에 자기의 관리하에 칠제도구를 가지었으며 목축업과 농업을 알지못하던 빈궁하고 원시적인 수렵대신에 목축업, 농업, 수공업이 생기었고 이런 생산부문사이에 로동의 분업(分業)이 생겼으며 개인과 개인사이와 사회와 사회사이에 산물을 교환할만한 가능성과 몇

사람의 수중에 부원을 축적(蓄積)할만한 가능성이 생겼으며 소수자의 수중에 생산수단의 실제적 축적이 생겼으며 소수자가 다수자를 억속시키며 또 다수의 사람들을 노예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여기에서는 벌써 생산과정에 있어서 사회전원(全員)의 협동로동과 자유로동이 없었다. 즉 여기에서는 일하지않는 노예소유자에게 착취를 당하는 노예들의 강제로동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생산물에 대하여서나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도 없었다. 사유재산이 그것을 대신하였다. 여기에서는 노예소유자가 첫째가는, 그리고 기본적인 완전한 소유주이었다. 부자와 빈한한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무한권제자(無限權勢者)와 무권리자, 그들간의 혹독한 계급투쟁——이러한것이 노예제도의 진상이다.

봉건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봉건령주의 소유와 또 생산자인 농노(農奴)에 대한 불완전한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로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봉건령주가 농노를 매매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벌써 그를 주일수는 없었던것이다. 봉건적 소유와 병존하여 개인적로동을 기초로한 자기의 개인경리와 생산도구에 대한 농민과 수공업자의 개인소유가 있었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이 시대의 생산력에 대체로 적응하였다. 철(鐵)의 용해와 가공이 일층 개량되었으며, 석장기와 방직기(紡織機)가 보급되었으며, 농업, 채원(菜園), 주조(酒造), 착유업(搾油業)이 일층 발전되었으며, 수공업 공작소와 함께 마누과뚜라적 기업소가 생긴 이것이 그 생산력 상태의 특징이었다.

새로운 생산력은 일꾼들이 생산에서 어떠한 창발성, 로동에 대한 대항, 관심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이렇기때문에 봉건령주는 로동에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았으며 전혀 창발성이 없는 일꾼인 노예를 내어버리고 자기의 경리와 자기의 생산도구를 가지었으

며 또는 토지를 경작하며 자기의 수확중에서 봉건령주에게 현물(現物)로 납부함에 필요한
로동에 대한 약간의 관심을 가진 농노를 더 낫게 여겼던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재산제는 일층 더 발전되었다. 착취는 노예제도하에서와 거진 비슷하게 가
혹하였으나 오직 그것이 얼마쯤 완화되었을 따름이었다. 착취자와 피착취자사이의 계급투쟁
은 봉건제도의 기본특징을 이룬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생산자인 고용로동자를 개인소유로 하지않은 생산수단에 대한 자
본주의적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로 되어서 자본가는 고용로동자를 죽이거나 팔수는없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은 인격상으로는 예속에서 해방된까닭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굶어죽지않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자본가에게 자기의 로동력을 팔게
되며 따라서 착취의 명을 물에 매게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와 아울러
농노제의 예속에서 해방된 농민과 수공업자의 개인로동에 근거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
가 병존하며 이것이 초기에는 널리 보급되어있었다. 수공업 공작소와 마누파투라적 기
업소 대신에 기계를 장비(裝備)한 대규모적 공장과 제조소가 생겼다. 유치한 생산농구
로써 경작하던 귀족령지(領地) 대신에 농업기술에 근거하여 경영하며 농업기계를 배치한
대규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이 생겼다.

새로운 생산력은 생산자가 미개하고 몽매한 농노보다 더 문명하고 경리해야할것을 요
구하며 그리고 기계를 리해하고 그것을 옮겨 운전할 기능을 가지어야할것을 요구한다. 이
령기때문에 자본가들은, 농노제의 속박에서 풀려나왔고 기계를 옮겨 운전하리만큼 충분히
문명한 고용로동자를 더 낫게 여기는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거대한 범위로 발전시키고서 자기로써는 해결하지 못할 모순에 빠졌다. 자본주의는 상품을 더욱 더 많이 생산하면서 또 물가를 낮추면서 경쟁을 첨예화하며 중소(中小) 개인소유자 대중을 파산시키며 그들을 프로레타리아로 전락시키며 또 그들의 구매력(購買力)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생산한 상품을 판매(販賣)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확장하면서 또 대규모적 공장파 제조소에 수백만명의 노동자를 집중하면서 생산과정에 사회적 성질을 부여하며 또 이렇게하므로써 자기 자체의 지반(地盤)을 문어트린다. 왜 그러냐하면 생산과정의 사회적 성질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요구하는데, 그런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생산과정의 사회적 성질과 상충(相容)하지 못할 자본주의적 사유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성질과 생산관계 사이의 이 화해치 못할 모순은 과잉생산의 주기적 공황에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자본가들이 친히 인민대중을 파산시키기 때문에 지불능력(支拂能力) 있는 수요(需要)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생산품을 불지르며 완성된 상품을 없애버리며 생산을 정지하며 생산력을 파괴하게 되는 때에와 또 수백만명의 인민은 상품이 부족한 탓으로가 아니라 상품을 너무 많이 생산한 탓으로 실업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때에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사회의 생산력 상태에 벌써 적응하지 않으며 그와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현재의 자본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로써 바꾸어 놓을 사명을 가진 그런 혁명이 자본주의내에 배태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에 있는 가장 날카로운 계급투쟁이 자본주의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은 다만 소련에서만 실현된 사회주의제도에 대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가 된다. 여기에는 벌써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없다. 생산물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말라」라는 원칙하에서 공동에 의하여 분배된다. 여기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의 호상관계가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사회주의적 호상방조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특징된다. 여기에서는 생산관계가 생산력 상태에 전적으로 적응된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과정의 사회적 성질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은 파임생산의 주기적 공황과 또 그와 관련된 불상사(不祥事)를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생산력이 가속도로써 발전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력에 적응된 생산관계는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생산력에 충분한 활로(活路)를 주는 까닭이다.

인류력사상에서 보게되는바 사람들의 생산관계 발전의 진상은 이러하다.

생산관계의 발전은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 무엇보다도 생산도구의 발전과 이렇게 관련되나 이 관련으로 말미암아 생산력의 변경과 발전은 조만간에 그에 적응한 생산관계의 변경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노동수단」의 사용과 제작은 비록 혹종의 동물에게도 배태적(胚胎的)의 형식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동과정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따스로 사람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

• 「노동수단」이라는 것은 따스가 주로 생산도구들 범두에 둔것임——이 • 쓰 말 린.

고로 당클린은 규정하였다. 절멸된 각종의 동물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유물(遺物)의 구조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된 사회제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로동수단의 유물(遺物)이 중요한 것이다. 각 경제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생산하는 것으로써 아니라 어떻게 생산하는 것으로써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로동수단은 인간의 로동력 발전의 척도일 뿐 아니라 로동이 수행되는 그 사회적 관계의 지표(指標)가 된다」(관·립스 저서「자본론」一九三五년판 제一卷 二二一페이지)。

그다음 —

「사회관계는 생산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재 생산력을 획득하면서 자기의 생산방식을 변경하며 그리고 생산방식, 자기의 생활보장방식을 변경함과 함께 그들은 자기의 일체 사회관계를 변경한다. 철구(臼)는 여러분에게 유쾌한(봉전령주) 이(스윙관)을 수기로 한 사회를 보이며 증기제분기(蒸氣製粉機)는 산업자본가를 수위로 한 사회를 보인다」(관·립스와 에프·엔겔스 전집 제5권 三六四페이지)。

「생산력 장성의 운동, 사회관계의 파괴, 사상의 발생 등은 부단히 실현된다. 오직 운동의 추상(抽象)만이 부동하고 있을 뿐이다」(동상 二六四페이지)。

「공산당선언」에 쓰인 역사적 유물론을 특징지어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의의 역사적 시대의 경제적 생산과 그에서 불가피적으로 발생되는 사회구조는 그 시대의 정치적 및 정신적 역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적당하게 현시공유제적 토지소유제가 왜해진 이래로 전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 즉 사회발전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 사이의 투쟁의 역사이다. 현금에 이 투쟁은 피착취, 피압박계급(프로레타리아트)이 자기의 태방과 함께 전 사회를 취, 압박 및 계급투쟁으로부터 영영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착취하고 압박하는 계급(부르조아지)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달하였다.」(「공산당선언」 독일판에 관한 엥겔스의 서언)。

(二) 생산의 제三 특성은 새로운 생산력과 그에 적응한 생산관계가 구(舊) 제도로

부터 분리되어서 가 아니라, 구제도가 없어진후가 아니라 구제도의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며 사람들의 예정적(豫定的)、의식적 활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서 생긴다는 거기에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람들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서 생긴다.

첫째로, 사람들은 이러한 혹은 저러한 생산방식을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하면 각개의 세 세대는 생활을 시작할때에 전세대(前世代)의 활동의 결과인 이미 기성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갖게 되며 그런 까닭에 현세대가 물질적 부를 생산할 가능성을 얻기 위하여서 초기에는 생산형역에서 기성된 그 모든것을 그대로 갖게 되며 또는 그에 적응하여야 되는 까닭이다.

둘째로, 사람들은 이러한 혹은 저러한 생산도구와 이러한 혹은 저러한 생산력 요소들 개선(改善)할때에 이 개선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리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자 못하며 오로지 자기의 일상적 리익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기의 로동을 험하게 하며 또 자신에게 그 어떤 현저한 직접리익을 얻자고 하는 데 대해서만 생각하는 까닭이다.

원시공유사회의 어떤 성원들이 적기로부터 철제도구로 점차적으로 암중모색(暗中摸索)적으로 넘어갈때에 그들은 이 혁신(革新)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 데 대하여는 물론 알지도 못하였고 또는 생각조차 못하였으며 그들은 철제도구로 넘어감에 생산에 있어서의 변혁을 의피하며 이것이 결국 노예제도로 넘어가게 하리라는 것에 대하여는 리해하지도 못하

였으며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의 로동을 헐하게 하며 목전의 현저한 이익을 얻고저 원하였으며 그들의 의식적 활동은 개인의 이 일상적 이익의 협소한 범위내에만 국한되었던 것이다.

봉건제도시기의 구라파의 신흥(新興) 부르주아지가 소규모적 동업조합적 공작소와 아울러 대규모적인 마누팩투라적 기업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사회의 생산력을 진보시켰을때에 그 신흥부르주아지는 이 혁신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물론 알지도 못하였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이 「사소한」 혁신이 그가 왕권의 은총(恩寵)을 비상이 높이 평가하고있던 그 왕권에도 반대되며 그의 우수한 대포자들이 귀족 대렬중에 들어갈것을 자조 꿈꾸고있던 그 귀족에게도 반대되는 그러한 혁명으로 반드시 끝나게되 어야 할 사회적 세력의 체편성을 일으킨다는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리해도 못하였다. 부르주아지는 단순히 상품생산을 값싸게하며 아세아와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의 시장에 일층 더 많이 상품을 수출하며 리윤(利潤)을 더 많이 얻을것을 바랐던것이다. 부르주아지의 의식적 활동은 이 일상적 실천의 협소한 범위내에서만 국한되었던 것이다.

로씨야 자본가들이 외국자본가와함께 짜리듬에는 손을 대지않고 또는 농민들을 지주가 뜰어먹으라고 밀어넣으면서 로씨야에 근대적인 대규모적 기계공업열심을 지시할 때에 그들은 물론 생산력의 이 중대한 장성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또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회의 생산력 영역에서의 이 중대한 비약(飛躍)이 사회적력량의 재편성을 가져오며 이 재편성은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그가 농민과 단결하여 승리적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수 있게 하리라는것을 인

식하지 못하였으며 또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공업생산을 최대로 확장하며 막대한 국내시장을 차지하며 독점자(獨占者)로 되며 또 인민경제에서 될수있는대로 더 많은 리윤을 뽑아내려고 원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의식적 활동은 그들의 일상적인 협소한 실세적 리해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은 자기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즉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부를 생산함에 있어서) 이 • 쓰팔린(그들의 의지에 종속되지 아니한, 일정한 필연적인 관계에,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된 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 (칼 • 맑스 헌집 제 1권 二六九페이지) .

그러나 이것은 생산관계의 변경과 또는 낡은 생산관계로부터 새 생산관계로 넘어감이 순탄하게, 충돌없이 진동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이와반대로 이러한 전이(轉移)는 보통 낡은 생산관계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방법에 의하여와 새 생산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어떤 일정한 시기까지는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방면에서의 변경이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일정한 모멘트까지 그러하다. 즉 발생하여가지고 발전하는 생산력이 충분히 성숙하여질 그 모멘트까지 그러하다. 새 생산력이 성숙되었고 현존한 생산관계와 그의 소지자(所持者)인 지배계급이 「극복할수없는」 장애물로 변화하는 것이며 이 장애물은 오직 신중계급들의 의식적 활동의 방법으로써, 이 계급들의 폭력적(暴力的) 행동의 방법으로써, 혁명적

방법으로써만 그 길에서 쓸어없일수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으로써 없애치을 사명을 가진 그러한 새 사회적 사상, 새 정치적 기관, 새 정치주권의 위대한 역 할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새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와의 충돌의 기초위에서, 사회의 새 경제적 요구의 기초위에서 새 사회적 사상이 발생한다. 이 새 사상은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이 대중은 새 정치적 대군(大軍)으로 단결되며 새 혁명적 정권을 수립하며 그리고는 생산관계의 영역에서 낡은 질서를 폭력적으로 철폐하고 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정권을 리용한다. 자연발생적 발전과정은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에, 평화적 발전은 폭력적 변혁(變革)에, 진화는 혁명에 자리를 양보하는것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테라리아트는 부르조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반드시 계급으로 단결되며: 그는 혁명적 방법으로 새 자기를 지배계급으로 변하며 그리하여 지배계급으로서의 그는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한다」(「공산당선언」一九三八년판 五二페이지)。

그 다음——

「프로테라리아트는 부르조아지에게서 전 자본을 착취 착취 때앗아내기 위하여,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된 프로테라리아트의 수중에 집중하기 위하여, 또는 가급적으로 속히 생산력의 총량(總量)을 증가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리용할것이다」(상동 五二페이지)。

「폭력은 새로운것을 배태하고있는 모든 낡은 사회의 산파(產婆)이다」(맑스의 저서 『자본론』一九三五년판 제一卷 六〇三페이지)。

아래에 서술된것은 역사적 유물론의 정수(精髓)에 대한 천재적 정의인데 이 정의는 一八五九년에 맑스가 그의 유명한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의 역사적인 「서문」에 기록한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그들의 의지에 종속되지 아니한 일정한 필연적인 관계에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현실적 토대를 이루나니 이 위에서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축성되며 또 사회적 의식의
 일정한 형식이 적용케 되는 것이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일생활과정들을 제약(制
 約)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그들의 실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실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자기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이때까지 그 생산력이 그 내부에서 발전
 되고 있던 현존한 생산관계와 혹은 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 모순되게 된다. 이 관계는 생
 산력의 발전형식으로부터 그것의 절곡(桎梏)으로 변한다. 그때면 사회혁명의 시대가 닥쳐온다. 경제
 적 기초의 변경과 함께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에서는 다소간 급속한 변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을
 요할 때에 생산의 경제적 조건에서 자연과학상으로 정화하게 론증하는 물질적 변혁을 여러가지 법률적, 정
 치적, 종교적, 예술적 혹은 철학적 형식과 반드시 항상 분간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한다면—사람들이 이 총들을
 인식하며 따라서 그와 투쟁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형식과 항상 분간하여야 한다. 어떠한 개인이 자기 자신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기초하여 그 개인을 판단하여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변혁시대를
 그 시대의 의식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그와 반대로, 이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으로써,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현존한 충돌로써 설명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회형태든지 그것이 생산력에 충분한 활로
 를 주어 일체의 생산력이 다 발전하기 전에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한층 높은 새로운 생산관계는 그것
 이 낡은 사회자체의 안에서 그의 존재의 물질적 조건이 성숙하기 전에는 인제든지 출현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까
 닭에 인류는 인제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만을 자기앞에 내세운다. 왜 그러냐 하면 더욱 엄밀히
 고찰할진대, 임무 자체는 그것을 해결할 물질적 조건이 벌써 존재하여있든지, 혹은 적어도 생성되는 과정에 있
 는 때에 따라야만 인제든지 발생하는 것인 까닭이다』(칼·맑스선집 제1권 二六九—二七〇페이지)。

맑스주의적 유물론을 사회생활에 적용하며 사회력사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것이다.
 변증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의 기본적 특징들은 이러하다.

제十八차 당대회에서 진술한 전련맹 공산당 (볼셰비크)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一九三九年三月 十日

一、조련의 국제정세

동지들! 제十七차 당대회 이래 五년이라는 시일이 지나갔다. 여러분이 보느바와 같이, 이것은 적은 기간은 아니다. 그동안에 세계는 많은변천을 체험(體驗)하였다. 모든 국가와 나라, 그들사이의 관계는 여러가지 방면에 있어서 전연 다르게되었다.

이 시기에 국제환경에 있어서 질로 어떠한 변천이 생기었는가? 우리나라의 대외정세와 국내정세에 있어서는 질로 무엇이 변천되었는가?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경제방면에 있어서는 또는 정치방면에 있어서 이 시기가 가장 심각한 격변(激變)의 시기였다. 경제방면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불경기(不景氣)의 시기였으며 그다음으로, 一九三七년 하반기부터는 새 경제공황의 시기, 미합중국, 영국, 볼란서에서 공업이 새로 저락되던 시기였다. 즉 이 시기는 새로운 경제적 착란기(錯亂期)였다. 정치적 방면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심각한 정치적 충돌 및 격변의 시

기였다. 상해로부터 지브랄탈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연출되어 五億명이상의 인구를 포괄한 새 제국주의 정책은 벌써 두해째 진행되고 있다. 구라파, 아프리카, 아세아의 지도 (地圖)는 폭력에 의하여 개제 (改製) 되고 있고 전쟁 이후의, 소위 평화제도의 그 전 (全) 체계가 근저까지 진동되었다.

그와반대로, 소련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그의 장성 및 번영기였으며 그의 경제와 문화의 계속 양양기였으며 그의 정치적 또 군사적 세력이 더욱 장성되어가는 시기였으며 그가 전세계에서 평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쟁한 시기였다.

이러한것이 총괄적 정경이다.

이제 국제환경에서의 모든 변천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 재료를 고찰해보자.

(一)、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새 경제공황. 판매시장과 원료 원천을 위한, 세계의 새 재분할을 위한 투쟁의 첨예화

一九二九년 하반기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은 一九三三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그뒤에 공황은 불경기 (不景氣)로 넘어갔으며 다음에는 산업의 약간의 활기, 그 의 약간의 향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산업의 향상은 회복기에 보통있는 경우와 같이 산업의 번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그와 반대로, 一九三七년 하반기에 새 경제공황이 시작되었는데 이 공황은 위선 미합중국을 포괄하였고 그 뒤를 따라 영국 불란서 및 기타 여러나라를 포괄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은 얼마전 경제공황의 타격의 상처가 미처 회복되기전에 새 경제공황에 직면(直面)하였다.

이 정형은 필연적으로 실업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실업자 수효는 一九三三년에 三千萬명으로부터 一九三七년에 一千四百萬명에까지 감소되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새 공황의 결과로 다시 一千八百萬명에까지 올라갔다.

새 공황의 특징은 이 공황이 전번공황보다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 면으로가 아니라 나쁜 면으로 차이가 있는것이다.

첫째로, 새 공황은 一九二九년에 있던바와 같이 산업의 번영이 있은후에 시작된것이 아니라 불경기와 약간의 회복이 있은 다음에——그러나 번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시작되었다. 이것은 현시의 공황이 전번공황보다 더 격렬한것으로 될것이며 그리고 그와의 투쟁은 보다 더 어려워리라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다음으로, 현시의 공황은 평화시기에서가 아니라 제二次 제국주의전쟁이 이미 시작된 그때에 발생되었다. 즉 일본은 벌써 두차례 중국과 전쟁하면서 광대한 중국시장을 와해시키고 라국상품을 거이나 들어올수없게하는 그때에, 이태리와 독일은 자기의 국민경제를 전서경제의 궤도위에 옮겨놓고 그들의 원료와 정화(正貨)의 저축을 이 사업에 탕진(蕩盡)하는때, 기타 모든 자본주의 열강들도 전쟁수요(需要)에 적합하게 자체를 재조적하기 시작한 그때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현시의 공황으로 부터의 정상적 출로를 위한 자원(資源)이 전번 공황기에 있어서 보다 대단히 적으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시의 공황은 전번공황보다 달라서 전반적이 아니오 지금까지는 전서적

제의 제도에 아직 넘어가지 않은, 주로 경제적으로 힘있는 나라들을 포괄한 공황이다. 자기의 경제를 벌써 전쟁수요에 재조직한 일본, 독일 및 이태리같은 침략국가들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군수산업을 강력(強力)히 발전시키면서 과잉생산(過剩生産)의 공황에 접근하여가나 아직 이 공황의 상태를 체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강한 비침략국가들이 공황의 국면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그 때에 침략국가들은 전쟁의 열병속에서 자기의 금(金)과 원료의 저장을 탕진하고서 가장 가혹한 공황의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공포(公表)된 금저장의 현존량(現存量)에 대한 자료로써도 넉넉히 설명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제국의 공표된 금저장량(단위 — 구화페로 백만금 딸라)

	一九三六년 말	一九三八년 九월		一九三六년 말	一九三八년 九월
총계	一二九八〇	一四三〇一	백이의	三七三	三一八
미국	六六四九	八一二六	서서	三八七	四〇七
영국	二〇二九	二二九六	독일	一六	一七
불란서	一七六九	一四三五	이태리	一二三	一二四
화란	二八九	五九五	일본	二七三	九七

이 일람표에서 독일, 이태리 및 일본의 금 저장량을 모두 종합하여도 서서 한나라의 금 저장량보다 적은것을 보게 된다.

최근 五개년간에 있어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공업공황의 상태와 조선에서의 공업
 양상의 동태(動態)를 설명하는 몇가지 수학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一九二九년에 비교한 공업생산량의 백분비(一九二九년을 一〇〇으로 함)

	一九三四년	一九三五년	一九三六年	一九三七년	一九三八년
미국 : : : : :	六六・四	七五・六	八八・一	九二・二	七二・〇
영국 : : : : :	九八・八	一〇五・八	一一五・九	一二三・七	一一二・〇
불란서 : : : : :	七一・〇	六七・四	七九・三	八二・八	七〇・〇
이태리 : : : : :	八〇・〇	九三・八	八七・五	九九・六	九六・〇
독일 : : : : :	七九・八	九四・〇	一〇六・三	一一七・二	一二五・〇
일본 : : : : :	一一八・七	一四一・八	一五一・一	一七〇・八	一六五・〇
조선 : : : : :	二三・三	二九三・四	三八二・三	四二四・〇	四七七・〇

이 일람표에서 조선은 공황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공업은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세계
 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보게된다.

다음으로, 이 일람표에서 미국, 영국 및 불란서에서는 벌써 심각한 경제공황이 시작되
 었고 또한 발전되는 것을 보게된다.

그 다음으로, 이 일람표에서 독일보다 먼저 자기의 국민경제를 전시장제의 궤도에 올려놓으
 이태리와 일본에서는 벌써 一九三八년에 공업적하의 동태(動態)시기가 시작된것을 보게된다.

마지막으로, 이 일람표에서 이태리와 일본보다 늦게 자기의 경제를 전쟁수요에 재조직한 독일이 있어서는, 최근까지 일본과 이태리에 있는바와같이 공업의 약간한, 물론 코지않은, 그러나 어쨌든 향상되는 동태에 처하고 있는것을 보게된다.

만약 예견치못한 그 무엇이 생기지않는 경우에는, 독일공업도 일본과 이태리가 벌써 당하고있는 그 저하동태의 길에 반드시 들어서게 될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나라의 경제를 전시경제의 궤도에로 재편성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것은 산업을 일면적 발전, 군사적 발전방향을 주는것이며, 주민의 수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생산을 백방으로 확장시키는것이오, 주민의 필수품생산을 특히 그의 시장수출을 백방으로 협소케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니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수요를 축소시키며 나라를 경제공황에 나르게 하는것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새 경제공황에 대한 동태의 구체적인 정경은 이러한것이다.

이와같이 경제사태의 불리한 전환은 멸강간의 관계를 침해화시키지 않을수없는것은 확연한 일이다. 전번공황은 벌써 전국면(全局面)을 착란케 하였고 판매시장과 원료원천을 위한 투쟁을 첨예화시켰다. 일본이 만주와 북중국을 점령한것과 이태리가 아비씨니야를 점령한것——이것은 모두 멸강간의 투쟁의 첨예성(尖銳性)을 반영하는것이다. 새 경제공황은 반드시 제국주의적 투쟁의 계속침에화를 초래할것이며 또한 사실에 있어서 초래하는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 상업전쟁, 팽팽은 지금에는 벌써 문제가 되지않는것이다. 이러한 투쟁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불충분한것으로 인정되었다. 지금문제로 되는것은 군사적 행동에 의한 세계와 세력범위 및 식민지의 새로운 재분할이다.

일본은 자기의 침략적 행동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영국과 불란서는 거대한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으며서도 중국을 히생하여 일본의 령토확장을 시인치 않았고 九개협정의 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분배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리는 제 一차 제국주의 전쟁 이후 전리품(戰利品) 분배 당시에 그를 돌려놓고 분배한 것을 기억하고 영국과 불란서의 세력범위의 회생으로써 반드시 자체를 보상(補償)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 一차 제국주의 전쟁과 웰사유강화의 결과로 심중한 손해를 당한 독일은 일본과 이태리와 결탁하여 가지고 구라파에서 자기의 령토를 확장함과 제 一차 제국주의 전쟁 당시에 전승국들이 그에게서 탈취한 식민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三개 침략국의 빨려이 구성되게 되었다.

(2) 국제정치정세의 침예화, 전후 평화조약 체계의 붕괴, 제국주의 전쟁의 개시

결산기간에 제국주의 전쟁의 개시를 표시한 중대한 사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一九三五年에 이태리는 아비씨니야에 침공하여 그를 점령하였다. 一九三六년 여름에 독일과 이태리가 서반아에서 무장간섭을 조직하였는바 독일은 북부 서반아와 서반아령 마로코에 반거(盤據)하였고 이태리는 남부 서반아와 발레아르군도에 반거하였다. 일본은 만주를 점령한후 一九三七년에 중국 북부와 중부에 침입하여 북경, 천진, 상해를 점령하

였고 그가 점령한 지대로부터 자기의 외국정쟁자들을 배제(排除)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一九三八년 초에 오지리를 점령하였고 一九三八년 가을에 와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부제트주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一九三八년 말에 광둥을 점령하였고 一九三九년 초에 와서는 해남도(海南島)를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그렇게도 은근히 각 민족에게 기어든 이 전쟁은, 천진, 상해 및 광둥으로부터 아비씨니야를 거쳐 지브랄타르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영토에 자기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면서 五億이상의 주민을 자기의 궤도안에 끌어 넣었다.

제一차 제국주의전쟁 이후 전승국가들, 주로 영국, 불란서 및 미국은 모든 나라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 제도, 즉 전쟁후 평화제도를 수립하였다. 이 제도의 주되는 기초는 국동에 있어서 九개국의 조약과 구라파에 있어서 웰사유조약 및 기타 각종 조약들이었다. 국제련맹은 이 제도의 범위내에서 모든 국가의 연합전선에 기초하여 국가들의 협동적 안전보장에 기초하여 각 나라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사명을 가졌다. 그러나 삼개침략국과 또는 그들이 시작한 새 제국주의전쟁은 이 전후 평화제도의 전체계를 원동 뒤집어 놓고 말았다. 일본은 九개렬강조약을 파탄시켰고 독일과 이태리는 웰사유조약을 파탄시켰다. 이 세 국가는 자기 마음대로하기 위하여 국제련맹에서 모두 탈퇴하였다.

새 제국주의전쟁은 사실로 되었다.

오늘에 있어서는 각종조약을 무시하며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면서 단번에 철쇄를 끊고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가 그리 험지않은 것이다. 볼주아 정치가들은 이것을 잘 알고있다. 이것은 팻쇼두령들도 역시 잘 알고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팻쇼두령들은 전쟁에 뛰어들

기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여론을 위조하려고 즉 그 여론 유혹(誘惑)에 빠지게 하며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라파에 있어서 영국과 불란서의 리익을 반대하는 독일과 이태리의 군사블력이 있
다고? 천만에, 이것이 무슨 블력이란 말인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군사블력도 없다.
「우리에게」는 무해(無害)한 「백림」로마의 추축(樞軸)이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
면, 추축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 공식이 있을 따름이다. (우슴).

극동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 및 불란서의 리익을 반대하는 독일, 이태리 및 일본의
군사블력이 있다고? 꿈같은 말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군사블력도 없다. 「우리에게」는
무해한 「백림」로마-동경 삼각형이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기하학에 좀 취미를 부친
것뿐이란 말이다. (만장대소).

영국, 불란서, 미국의 리익을 반대하는 전쟁? 천만에! 「우리는」 이 국가들을 반대하
는 것이 아니라 콤인테른을 반대하여 전쟁하는 것이다. 만일 만지않거던 이태리, 독일 및 일
본 사이에 체결된 「반(反) 콤인테른조약」을 읽어 보라.

철학자 진사배들은 이렇게 사회적 여론을 위조하려고 들었으나 그 가면을 쓴 졸렬(拙
劣)한 그 연기(演技)는 너무도 표면에 나타나므로 그것을 알아내기 어렵은 것이 아니었다.
왜 그러냐하면 몽고의 사막, 아비찌니야 산악, 서반아령 마로코의 밀림(密林)에서 콤인테른
의 「근원지」를 찾는 것은 우수운 일인 까닭이다. (우슴).

그런데 전쟁은 사정없는 것이다. 그를 어떠한 업호물(掩護物)로든지 은폐할수 없는 것이
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의 일본의 중국의 거대한 명토를 점령한 사실, 이태리가 아비찌

니야를 점령한 사실, 독일이 오지리와 루제트주를 점령한 사실, 독일과 이태리가 협력하여 서반아를 점령한 사실——이 모든 비침략국가들의 이익에 거슬리는 사실은 어떠한 「추측」이나 「삼각형」 및 「반(反) 콤인테른 조약」으로든지 은폐해낼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전쟁은 전쟁으로, 침략가들의 군사빨력은 군사빨력으로, 침략자들은 침략자들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새 제국주의 전쟁의 특징은, 그것이 아직 전반적 세계전쟁으로 되지않은 거기에 있다. 침략국들은 비침략국들, 우선 영국, 불란서, 미국의 이익에 백방으로 가해하면서 전쟁을 진행하고 있으나, 후자들은 침략자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뒤으로 물러서며 퇴각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비침략국들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항에 대한 지도도 없이, 심지어 그들의 약간의 묵인(默認) 하에서, 비침략국들의 이익의 희생으로써 세계와 세력집위는 우리의 목전에서 공공연하게 재분할되고있다.

괴이한듯 하지만 사실이다.

새 제국주의 전쟁의 이러한 일면적이며 괴이한 특징은 무엇으로써 설명할수 있는가? 어떻게되어서 막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침략국들이 그렇게도 쉽게 또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침략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자기의 진지와 자기의 의무를 방기(放棄)하지 되는가?

이것은 비침략국들이 약한 탓으로써 설명되는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것이 아니다! 비침략적 민주주의적 국가들을 합해놓고 보면 경제적 방면으로나 군사적 방면에 있어서 물론 패소국가들보다 장대한것이다.

그렇다면 이 국가들이 침략자들에게 계통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를테면 만일 비침략국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전쟁이 세계적 성질을 띠게 될것임으로 폭발될수있는 혁명에 대한 공포감으로써 설명할수있을것이다. 부르주아정가들은 제一차 세계제국주의전쟁이 제일큰 나라중 한나라에 혁명의 승리를 가져오게한것을 물론 알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제二차 세계제국주의전쟁도 역시 한나라에서나 혹은 몇나라에서 혁명을 승리게 하지않을가 두려워 하는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심지어 주되는 원인도 되지 않는것이다. 주되는 원인은 대다수의 비침략국들 우선 영국과 불란서가 협동적 안전보장정책과 침략자들에게 대한 협동적 대항정책을 거절하고 불간섭 립장으로, 『중립적』 립장으로 넘어가는데있다.

불간섭정책을 형식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있다. 즉 『각 나라들은 제 마음대로 또는 자기 힘있는대로 침략자들로부터 방어하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 며 우리는 침략자들과 또는 그의 희생자들과 장사나 할것이다』. 그러나 불간섭 정책이 사실에 있어서는 침략을 묵인하는것이오 전쟁을 전개하는것이다——때문에 전쟁을 세계 전쟁으로 전환시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불간섭 정책에는 침략자들이 흉악한 일을 감행하는데 방해를 끼치지말며 말하자면 일본이 중국과, 그보다 더 좋기는 소련과의 전쟁에 열키게 되는데 방해하지말며, 말하자면, 독일이 구라파 사건에 물누하여 소련과의 전쟁에 열키게 되는데 방해하지말며 참전국(參戰國) 전부를 전쟁의 진구렁에 깊이 빠지도록하며 이렇게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은근히 장려(獎勵)할것이며 저히끼리 싸워서 쇠

약해지고 피폐(疲弊)케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몹시 쇠약해진 그때에 새 역량으로 무대에 나서서, 물론 「평화의 편으로」 나서서 쇠약해진 참전국들에게 자기의 요구조건을 강요하려는 지향과 욕망이 일관(一貫)된 것이다.

그야말로 일거양득(一舉兩得)이다.

일본을 레로 들어보자. 특정한것은 일본이 북부중국에 침입하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볼란서와 영국의 권위있는 신문들은 일체로 중국의 약점과 그의 대항력이 없는데 대하여, 일본은 자기의 군대로써 二—三개월 동안이면 중국을 정복하리라는데 대하여 굉장하게 떠들었다. 그런뒤에 구미(歐米) 정치가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방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전개한 그때에 와서는 중국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중심지인 상해를 그에게 양도하였고 남부중국에 있어서 영국의 독점적 세력의 근원지인 광동을 양도하였으며 해남도를 양도하였고 향항(香港)을 포위케 하였다. 이 모든것이, 말하자면 전쟁에 갇혀 들어가라, 그 다음에 두고 보자하면서 침략가를 장려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 옳지 않을가.

혹은 레로 독일을 들어보자. 오지리의 독립을 옹호할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독일이 양도하였고 부제트주를 독일에 양도하였으며 각종의 의무를 모두 위반하면서 체코슬로와키야를 운명에 맡겼고 그다음에는 독일사람들을 동방으로 떠나가라고 충동하면서, 쉽게 리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또는 「당신들이 불세비크들과 전쟁만 시작하면 다 음일은 모두 홀로하게 되어나갈 것이다」라고 꾀속말을 하면서, 출판물에다 「로씨야군대의 약점」에 대하여, 「로씨야항공대의 와해」에 대하여, 소련의 「혼돈」에 대하여 높은 목소

리로 거짓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침략국을 충동하며 그들을 장려하는 것과 흡사한 것으로 시인해야 될 것이다.

영국—불란서 및 북아메리카의 출판물이 쏘베트 우크라이나에 판하여 분주히 떠든 그것은 특정적이다. 이 출판물의 활동가들은 독일사람들이 쏘베트 우크라이나에로 출동한다 고, 독일사람들의 수중에 지금 七十萬인구가 거주하는 소위 카르빠트—우크라이나가 있다고 또 독일사람들은 三千여萬인구가 거주하는 쏘베트 우크라이나를 늦어야 금년봄이대로 소위 카르빠트—우크라이나에 병합시키게 될 것이라고 목이 쉬도록 소리친 것이다. 이 피이한 소란은 독일을 반대하는 쏘련의 분노를 니르키며 분위기를 중독(中毒)시키어 확실한 근거가 없이 쏘련과 독일과의 충돌을 선동하려는 것을 목격한 것과 흡사한 것이다.

코키리틀, 즉 쏘베트 우크라이나를 딱정벌레에 즉 소위 카르빠트—우크라이나에 병합시키려고 환상(幻想)하는 정신병자들이 물론 독일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거기에 이러한 미치광이들이 실로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병자들에게 필요한 수의 광인구속용의복(狂人拘束用衣服)을 얻어낼 수 있는 데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폭풍같은 박수)。그러나 정신병자들은 내놓고 진전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한다면 쏘베트 우크라이나를 소위 카르빠트—우크라이나라 하는 것에 병합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우습고 미욱한 일이 명백치 않은가? 다만 생각만이라도 해보라. 딱정벌레가 코키리틀을 차지와서 허리에 손을 집고 하는 말이——「여보, 형님, 나는 당신이 어찌나 불쌍한지! 당신은 지주도 없이, 자본가도 없이, 민족적 압박도 없이, 왓쇼적 지배자도 없이 살고있으니——이것이 다 무슨 생활이란 말이오! 나는 당신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소——당신은 나에게 병합되는 것 밖에 다

튼 도리가 없다는 말이요: (일동의 웃음)。별수있나, 그러면 그렇게지, 크지않은 너의 평토를 광대한 나의 평토에 병합할것을 허락한다:」。(만장의 웃음과 박수)。

보다 더 특징적인것은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어떤 정치가와 출판계 일꾼들은 『쑨베트 우크라이나에 대한 출동』을 기다리다못해 그들자체가 불간섭정책의 흑막(黑幕)의 진면목을 발로하기 시작하는것이다. 그들은 독일사람들에 대하여 몹시『실망(失望)』하게 되었다고 로물적으로 말하며 또 명백하게 서술한다. 왜 그리냐하면 독일사람들은 쑨편을 반대하여 동쪽으로 더 진출할 대신에 보는바와같이 서쪽에 돌아져서 식민지를 요구하는 까닭이다. 쑨편과 전쟁을 개지하겠다는 서약의 대가로 체코슬로와키야에 부속된 평토를 독일사람들에게 준것인데 지금와서 독일사람들은 그들을 도라보지도 않으며 수형(手形)지불을 거절한다고 생각할수있는것이다。

나는, 불간섭정책에 관하여 도덕적 해석을 내리며 변질, 반역등등에 대하여 말하려는 생각은 추호만치도 없는것이다. 인류의 도덕을 시인하지않는 인간들에게 도덕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미옥한 일이다. 간계무쌍(奸計無雙)한 옛날 부르쥔아 외교가들이 말한바와같이 정책은 정책인것이다. 그러나 불간섭정책의 찬동자들이 시작한 크고도 위험한 정치적 작란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실패로 끝날수 있는것을 반드시 지적해야될것이다。

현지에 우세를 가지고 있는 불간섭정책의 진상은 이러한것이다。
자본주의제국(諸國)에서의 정치적 정세는 이러한것이다。

(3)、조련과 자본주의제국(諸國)

전쟁은 여러나라 사이의 관계에 새 환경을 지어 놓았다. 전쟁은 이 관계에 혼란과 불안의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쟁은 전쟁후 평화적 제도의 기초를 파탄시키고 국제공법의 초보적 개념을 뒤엎어 놓음으로써 국제조약과 국제적 의무의 진가(眞價)에 의문부를 찍어 놓았다. 평화주의와 군비철폐안(案)은 무덤속에 매장되었고 열광적 군비확장이 그를 대체하였다. 대소국을 물론하고 모두다 그중에는 위선 불간섭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까지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침략자들에 대한 문헌 양보와 문헌협정이 마치 새 「평화」시대의 시초가 되는 듯한 감언리설은 벌써 누구든지 믿지 않는 것이다. 문헌협정의 참가자인 영국과 불란서자 제도 역시 그것을 믿지 않고 남만 못하지 않게 자국무장에 열중하기 시작하였다.

조련이 이 모든 위협적 사변에 대하여 도외시(度外視)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침략자들이 세계의 어느 먼 변방에서든지 이르킨 전쟁은 일체로, 심지어 크지 않은 전쟁까지도, 평화를 애호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위협이 될것은 의심할바가 아니다. 더욱기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과의 인구 五億이상을 벌써 자기의 궤도에 끌어넣은 새 제국주의전쟁은 보다 더 큰 위협이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나라는 평화유지의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불은군대, 우리불은함대의 전투적 준비를 강화하는데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와 동시에 조련은 자기의 국제적 입장의 강화를 위하여 몇가지 다른 방도로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연맹이 약(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침략

자들을 폭로하는 장소로 보아 또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발생을 방지할수있는 약간의 평화의 무기로 보아 필요하리라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一九三四년 말에 그에 가맹하였다. 소련은 이와같은 혼란시기에 있어서 지어 국제련맹과 같이 약한 그러한 국제적 기관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침략국들측으로부터의 있을수있는 공격을 반대하여 一九三五년 五월에 불란서와 소련사이에는 호상원조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체코슬로와키야와도 그와상사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一九三六년 三월에 소련은 몽고인민공화국과 호상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一九三七년 八월에는 소련과 중화민국 사이에 호상불가침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국제적 조건하에서 소련은 평화유지의 사업을 고수하면서 자체의 대외정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대외정책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것이다. 즉

一、우리는 평화 및 모든 나라들과의 사업상 연락의 공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이 앞으로 소련과 이와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 또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侵害)하려고 시도치 않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립장에 서있는 것이요 또한 앞으로 서있을 것이다.

二、우리는 소련과 공동적 국경을 가지고있는 모든 립접국과의 친선적이며 평화적인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 나라들이 소련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한 그들이 직접으로나 혹은 간접으로 소비트국가의 국경의 보전과 불가침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시도치 않는 한 우리는 이 립장에 서있는 것이요 또한 앞으로 서있을 것이다.

三、우리는 침략의 희생자로 되었고 자기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들의 원조를 주장하는 입장에 서있다.

四、우리는 침략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비트국경을 침범하려고 시도하는 전쟁범죄자들의 타격에 二배의 타격을 줄 준비가 되고있다.

조선의 대외정책은 이러한것이다. (폭.풍.우.의.세.로.계.속.되.는.박.수.)

조선은 자기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다음과같은 점에 의거하고있다. 즉

一、장성되는 자기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위력、

二、우리 소비트사회의 사상적 정치적 통일、

三、우리 나라의 제민족의 친선、

四、자기의 불은 군대와 불은 해군、

五、자기의 평화정책、

六、평화의 보전을 철연적으로 원하고 있는 만국군로자들의 정신적 지지、

七、이런 혹은 저런 리유로 말미암아 평화의 침해를 원치않는 나라들의 정당한 리

해(理解)。

대외정책령역에 있어서의 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一、평화정책과 또한 모든 나라들과의 사업상 연락을 강화하는 정책을 앞으로 도 실행할 것、

二、경각성을 높이며 그리하여 엄치없이 남의 노력을 자기의 이익에 사용하기에 관습된 전쟁선동자들이 우리 나라를 총들에 인입하지 못하게 할 것、

三、우리 붉은 군대와 붉은해군의 전투력량을 백방으로 공고케 할 것、

四、민족들 사이의 평화와 친선을 원하는 만국 근로자들과의 친선의 국제적 연결을 튼튼케 할 것이다.

二、조선의 국내정세

우리 나라의 내부정세로 넘어가자.

조선의 국내정세의 전지로 보아 이 사업총결기간을 전국민정제의 계속 발전、문화의 장성、나라의 정치적 위력의 공고에 대한 정경(情景)을 표시하는 것이다.

결산기 동안의 국민경제발전 령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 인정하여야 될 것은 새로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공업 및 농업의 재건이 완성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벌써 새로운 기술을 가진 낡은 공장 및 해고적 설비를 가진 낡은 농민경영이 더는 없으며 혹은 거이나 없다. 이제는 새로운 현대적 기술이 우리 공업과 농업의 기초로 된다. 생산기술의 전지로 나 공업과 농업에 새 기술이 접투된 정도로 보아서 낡은 시설이 생산의 구속물로 되며 새

기술의 보급을 장려하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가장 선진적 국가라고 과장함이 없이 말할 수 있다.

국내의 사회정치적 발전의 영역에서 보고기간의 가장 중요한 전취로는 착취계급의 잔재의 완전한 청산, 노동자, 농민 및 인테리겐차가 전일적(全一的)로 동전선에 결속된 것, 쏘베트 사회의 사상 정치적 통일, 공고, 우리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긴밀화, 또는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 국내의 정치적 생활의 완전한 민주주의화, 새 헌법이 제정된 것을 지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것, 또는 쏘련의 최고 쏘베트 선거와 이와 마찬가지로 가맹공화국 최고 쏘베트 선거의 결과 가장 큰 실증(實證)인 것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감히 논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결과로 우리는 내부정세의 완전한 확고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어떤 정부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의 견고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고찰해보자.

(1)、공업과 농업의 계속 양양

(1) 공업. 사업총결기간의 우리 공업의 동태는 꾸준한 양양의 정경을 표시하고 있다. 이 양양은 일반적으로 생산고의 장성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 한 방면으로는 사회주의적 공업의 번영과 다른 방면으로는 사영공업의 파멸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 적당한 일람표는 아래와 같다.

一九三四—一九三八년간의 조선의 공업장성

一九三三년에 비한 一九三八년의 파 센트	전년에 비한 퍼센트					一九三八年	一九三七年	一九三六年	一九三五年	一九三四年	1926—27년 가격으로 백만루블 단위	총생산액					그중에서		
	一九三八年	一九三七年	一九三六年	一九三五年	一九三四年														
												二三八・八	一一一・三	一一一・四	一三〇・二	一二三・一			一〇〇三七五
二三八・九	一一一・三	一一一・四	一三〇・二	一二三・一	一〇〇三四九	九〇一三八	八〇八九八	六二一一四	五〇四四三	四二〇〇二	二八	三四	二三	三一	二八	사회주 의공업	사업공업		
九二・九	九二・九	九〇・三	一三四・八	六七・六	二六	二八	三一	二三	三四	二八	백분비	총생산액					그중에서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九九・九三	一九九・九三	一九九・九六	一九九・九六	一九九・九七	사회주 의공업			사업공업
						九九・九七	九九・九七	九九・九六	九九・九三	九九・九三	〇・〇七	〇・〇七	〇・〇四	〇・〇四	〇・〇三	사회주 의공업			사업공업

우리는 이 일람표에서 보고기간에 우리공업이 두배 이상으로 장성된것을 보게된다.
그런데 이 생산액 장성은 그 전제가 사회주의적 생산액으로써 된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일람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체계가 쓰련에 있어서 산업의 유일한 체계로되어 있는것을 보게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람표에서 사업공업의 완전한 과멸은 지금와서 심지어 장님 까지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 되어있는것을 보게된다.

사업공업의 과멸은 우연한것이라고할수 없는것이다. 사업공업이 과멸된것은 우선 사회주의적 경제체계가 자본주의적 경제체계보다 고상한 체제인 까닭이다. 둘째로, 사업공업이 과멸된것은 사회주의적 경제체계가 우리로 하여금 몇해동안에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 전부를 현대최진 기술의 기초우에서 재장비할 가능을 우리에게 준까닭이다. 자본주의적 경제체계는 이와같은 가능을 주지못하며 또한 줄수도 없는것이다. 생산기술의 전지로나 공업생산에 새 기술이 침투된 정도의 전지로 보아서 우리공업이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실이다.

만일 우리공업의 장성속도를 전쟁전 공업수준에 비한 파센트로 보아서 그속도를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업의 장성속도와 비교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정경을 보게된다.

一九一三—一九三八년간에
쑤련과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업장성

불탄서	一〇〇・〇	一〇七・〇	九九・〇	九四・〇	九八・〇	一〇一・二	九三・二
독일	一〇〇・〇	七五・四	九〇・四	一〇五・九	一一八・一	一二九・三	一一三・六
영국	一〇〇・〇	八七・〇	九七・一	一〇四・〇	一一四・二	一二一・九	一一三・三
미국	一〇〇・〇	一〇八・七	一一二・九	一二八・六	一四九・八	一五六・九	一二〇・〇
조선	一〇〇・〇	三八〇・五	四五七・〇	五六二・六	七三二・七	八一六・四	九〇八・八
	一九一三年	一九三三年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一九三六年	一九三七年	一九三八年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업은 전쟁전 수준에서 겨우 二〇—三〇%밖에 더는 하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그냥 답보하고 있는 때에 우리공업은 전쟁전 수준에 비하여 九배 이상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이 일람표에서 보게된다.

이것은 발전속도에 있어서 우리사회주의적 공업이 세계에서 첫자리에 서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생산기술과 우리공업의 경쟁속도에 있어서 벌써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라잡고 앞선것으로 되었다.

우리는 어느 점에서 떨어져는가? 우리는 아직도 경제방면에 있어서, 즉 매인당(每人當) 우리공업 생산량에 있어서 떨어져는 것이다. 一九三八년도에 우리는 약 一千五百萬 돈의 선철을 생산하였고 영국에서는 七백萬돈을 생산하였다.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사태가 좋은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만일 이 선철생산량을 인구수에 배분하여 놓는다면 一九三八년도에 영국에 있어서는 매인당 선철 一四五킬로그램씩 배당되었으나 소련에 있어서는 전부 八七킬로그램씩 배당되는 것이다. 다른 실태를 들면 一九三八년도에 영국은 一千八十八萬돈의 강철과 약 二百九十억 킬로와트—시(전력생산)를 생산하였고 소련은 一千八百萬돈의 강철과 三百九十億 이상의 킬로와트—시를 생산하였다.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사태가 낫게 된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만일 이 강철생산량과 전력(電力)생산량을 인구수에 배분하여 놓는다면 一九三八년도에 영국에 있어서는 매인당 강철 二二六킬로그램과 전력 六二〇킬로와트—시가 배당되었으나 소련에 있어서는 매인당 전부 一〇七킬로그램의 강철과 전력 二二三킬로와트—시가 배당되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영국의 인구보다 몇배 이상으로 더 많은 까닭에 수요양도 영국보다 더 많게 되는데 있는 것이다. 즉 소련에는 一억七千萬의 인구가 있고 영국에는 四천六백만 밖에 더 되지않는 것이나. 공업의 경제적 위력은 국내인구수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공업생산량의 범위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인구에 대한 이 산물의 소비량과 직접 관계된 그 공업생산량의 범위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인구 일인당에 배당되는 공업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더 커지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매인구에게 배당되는 생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라의 공업의 경제적 위

력이 더 적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나라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품 수요가 더 많게 되는 것이니 이런 나라의 공업생산의 범위는 반드시 더 커야 할 것이다.

선철생산을 레로 들어보자. 一九三八년도에 七百萬돈의 선철을 생산한 영국을 선철 생산량면에서 경제적으로 앞서려면 우리는 매년 선철생산량을 二千五百萬돈에 이르게 하여야 될 것이다. 一九三八년도에 전부 一千八百萬돈의 선철을 생산한 독일을 경제적으로 앞서려면 우리는 매년 선철생산량을 四千萬—四千五百萬돈에 이르게 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체로 一千八百八十萬돈의 선철을 생산한 공황기였던 一九三八년도의 수준은 내놓고 미국에 있어서 공업의 양양기였고 그가 약 四千三百萬돈의 선철을 생산한 一九二九년도의 수준을 취급하여 그를 경제적으로 앞서려면 우리는 반드시 매년 선철생산량을 五千萬—六千萬돈에 이르게 하여야 될 것이다.

강철, 전철(展鉄) 생산에 대하여서나, 기계 제조업 및 기타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렇게 말할 여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이 모든 공업부문도 다른 공업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선철생산에 달린 까닭이다.

공업의 생산기술과 발전속도의 의미에서 우리는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앞섰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앞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앞서는 경우에 라야 우리 나라에 소비품이 완전히 풍족하게 될 것이고 우리 나라에 생산물이 풍족하게 될 것을 예기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공산주의 첫계단으로부터 그의 둘째계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앞서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선 앞으로 나가려는 전진하고 강인한 의욕과 또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을 백방으로 확장하기 위한 회생적 준비가 요구되며 백방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막대한 기금 투자(投資)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조건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생산의 높은 기술과 공업발전의 높은 속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조건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결국 시간이 요구된다. 동지들! 실로 시간이 요구된다. 새 공장들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공업에 리용할 새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는 시간이 요구되며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二—三년간에 경제적으로 앞서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우에 말한 선철과 그 생산을 레로 들어보자. 열마동안이면 선철생산 방면에서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앞서 나갈수 있는가? 국가계획부의 남은 성원중 어떤 일꾼들은 제2차 오개년계획 작성당시에 선철생산이 제2차 오개년계획말에 이르러서는 六千萬돈이 되도록 계획을 작성하자고 제의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선철생산량을 매년 평균 一千萬돈의 범위로 증산시킬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만일 환상보다 더 나쁜것이 아니다. 그들은 레하면 제2차 오개년계획동안에 소련에서 매년 증가되는 인구수가 반드시 三—四百萬명이나 혹은 그 이상에 달하리라고까지 인정하였다. 이것도 역시 만일 환상보다 더 나쁜것이 아니라면 곧 환상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환상가들을 제거하고 현실적

지반에 립자한다면 현재의 선철용해 기술상태에 있어 매년 평균 二百萬—二百五十萬돈의 선철생산량의 증가물은 아주 가능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업사(史)나 또는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업사는 이와 같은 매년 증가물이 긴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나 녀녀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앞서기 위하여는 시간이,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높아갈수록, 우리의 생산기술이 완성되어 갈수록 이 중요한 경제적 임무를 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으며 이 임무실행의 기간을 더욱 줄여 줄 수 있는 것이다.

(2) 농업. 보고기간의 농업발전도 역시 공업발전과 마찬가지로 양양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양양은 농산물 장성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위선——한 방면으로는 사회주의적 농업의 장성과 공교에서, 다른 방면으로는 개인농경영의 파멸에서 또한 표현되는 것이다. 플호츠의 립목과종면적은 一九三三년의 七千五百萬헥타르로부터 一九三八년의 九千二百萬헥타르에까지 장성되는 동시에 개인농의 립목과종면적은 동기간에 一千五百七十萬헥타르로부터 六十만헥타르까지, 즉 전립목과종면적의 〇・六%까지 축소되었다. 나는 개인농경영의 역할이 전부 없는 공예용작물 파종면적에 대하여는 더 말치도 않는다. 이 밖에도 어업플호츠와 수공업 플호츠는 제거하고라도 一千八百八十萬 농호가 즉 전농호의 九三・五%가 플호츠에 단합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이것은 플호츠들이 완전히 확립되었고 공교히 되었으며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체계가 지금 우리 농업의 유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면 만일 보고기간의 모든 작물의 과종면적의 동태를 혁명전 시기의 과종면적에 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경을 보게된다.

조선의 각종 농작물의 과종면적

그중에서				전과종면적		단위 백만헥타르					
(가) 밭작물	(나) 콩·벼작물	(다) 채원작물	(라) 과류(瓜類)	(리) 사료작물		一九一三年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一九三六年	一九三七년	一九三八년
九四・四	一〇四・七	一〇三・四	一〇二・四	一〇四・四	一〇二・四	一三六・九	一三〇・四	一九一三年에 비한 一九三八년의 백분비			
四・五	一〇・七	一〇・六	一〇・八	一一・二	一一・〇	二四四・四					
三・八	八・八	九・九	九・八	九・〇	九・四	二四七・四					
二・一	七・一	八・六	一〇・六	一〇・六	一四・一	六七一・四					

이 일람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의 농작물 과종면적이 증장된것을 보게되는때 사료작물, 공예용작물 및 채원작물 및 과류방면에서 위선 과종면적이 증장된것을 보게된다.

이것은 우리 농업이 보다 더 고상한 기술적 농업으로 보다 더 생산적 농업으로 진전되어 가며 좋은 룰작법 실시가 실제적 지반위에 서게 될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고 기간에 프락토르 품바인 기타 기계들로써의 우리 팔호즈와 쏘호즈의 장비상대는 어떻게 장성되었는가 하는 데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람표가 대답해 주는 것이다.

一、쏘련 농업에 사용되는 프락토르의 대수

1. 프락토르 수 (단위는 천대)

그중에서	프락토르 총대수						
		一、농기-프락토르 정류소에 있는 프락토르	二、샹호즈와 보조 농업기업소에 있는 프락토르				
		一九三三년	一九三四年	一九三五년	一九三六年	一九三七년	一九三八년
	二一〇・九	二七六・四	三六〇・三	四二二・七	四五四・五	四八三・五	二二九・三
	一二三・二	一七七・三	二五四・七	三二八・五	三六五・八	三九四・〇	三一九・八
	八三・二	九五・五	一〇二・一	八八・五	八四・五	八五・〇	一〇二・二

一九三三년에 비한 一九三八년의 백분비

1. 동력 (단위는 千마력)

그중에서				전 트 라 트 로 의 총 동 력
一、농기—트 라트르정류소 에 있는 트라 트로	二、참호트와 보조적 농업 기업소에 있는 트라트로	三、참호트와 보조적 농업 기업소에 있는 트라트로	四、참호트와 보조적 농업 기업소에 있는 트라트로	
一七五八・一	一四〇一・七	一六六九・五	一八六一・四	三二〇九・二
二七五三・九				四四六二・八
四二八一・六				六一八四・〇
五八五六・〇				七六七二・四
六六七九・二				八三八五・〇
七四三七・〇				九二五六・二
四二三・〇				二八八・四

만일 이 추저에다 보고기간에 농기—트라트르정류소의 수가 우리에게 있어 一九三四년의 二九〇〇개소로부터 一九三八년의 六三五〇개소까지 증대된 이 사실을 첨가한다면 이 모든 재료에 근거하여 새 현대적 기술의 기초위에서의 우리 농업의 재건은 벌써 대체로 완성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런즉 우리 농업은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는 기계화된 농업인 때문에 가장 많은 상품을 줄수 있는 농업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나라의 농업보다도 더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된 농업인 것이다.

二、조련농업에 사용되는 품바인 및 기라기제의 총대수(總台數)

(단위—천대, 년말표준)

위 위 (대)	승용자동차 (단)	하물자동차	복잡한 타곡기와 반복잡한 타곡기	내연발동기와 증기발동기	품바인	
三九九一	二六・六	一一〇・三	四八・〇	二五・四	一九三三년	一九三三년에 비한 一九三 八년의 백 분비
五五三三	四〇・三	一一一・九	六〇・九	三二・三	一九三四년	
七五五五	六三・七	一一〇・一	六九・一	五〇・三	一九三五년	
七六三〇	九六・二	一一三・七	七二・四	八七・八	一九三六년	
八一五六	一四四・五	一二六・一	七七・九	一二八・八	一九三七년	
九五九四	一九五・八	一三〇・八	八三・八	一五三・五	一九三八년	
二四〇・四	七三六・一	一〇八・七	一七四・六	六〇四・三		

만일 보고기간의 립목작물 및 공예용작물의 생산액 증가의 동태를 혁명전시기에 비교하여 보면 그 재료는 다음과 같은 전상을 보여준다.

전조선의 립목작물 및 공예용작물의 총생산량

(단위—百만원트메트)

작목작물	一九一三년	一九三四년	一九三五년	一九三六년	一九三七년	一九三八년	一九一三년에 비한一九三八년의 백분리
면화 (原綿)	七・四	一一・八	一七・二	二三・九	二五・八	二六・九	三六三・五
아마 (섬유)	三・三	五・三	五・五	五・八	五・七	五・四六	一六五・五
사탕 무	一〇九・〇	一一三・六	一六二・一	一六八・三	二一八・六	一六六・八	一五三・〇
채유용 작물	二一・五	三六・九	四二・七	四二・三	五一・一	四六・六	二一六・七
림목작물	八〇一・〇	八九四・〇	九〇一・〇	八二七・三	一二〇二・九	九四九・九	一一八・六

一九三六년과 一九三八년도에 동부 및 동남부 구역에 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一九一三년에는 미증유의 풍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기간에 우리나라의 립곡작물과 공예용작물의 매년 총산액은 一九一三년도 수준에 비하여 꾸준히 장성된것을 이 일람표에서 보게된다.

특히 플호즈—쑤호즈의 곡물생산의 상품률에 대한 문제가 흥미를 끌고있다. 전쟁전시기의 매년 곡물총산액 五十억루트에서 겨우 十三억루트 가량이나 상품곡물로 시장에 수출된것을, 즉 당시의 곡물생산의 二六%가 상품으로 수출된것을 유명한 통계학자 뎀치노브동지는 계산하여 냈다. 대규모적 생산으로서의 플호즈와 쑤호즈생산의 상품률이 一九二六—一九二七년도에 있어 총산액의 四七%가량으로 계산되었다면 개인농경영의 상품률이 약 一二%가량이나 되었다고 뎀치노브동지는 인정한다. 만일 문제를 더 신중하게 취급하여 一九三八년도 플호즈—쑤호즈생산의 상품률을 총산액의 四〇%로 가정한다면 우리사회주의적 곡물농업은 약 二十三억루트의 상품곡물—즉 전쟁전 곡물생산보다 十억루트의 상품곡물을 외부로 더 수출할수 있는것이며 또는 금년도에 사실상 그렇게 수출한것이다.

그러므로 쑤호즈—플호즈생산의 높은 상품률은 중요한 특성으로 되었고 우리나라 식량공급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곡물문제, 크나큰 나라를 상품곡물로써 충분히 공급할문제를 그렇게도 용이하고 빠르게 해결하게된 그 비밀은 실로 플호즈와 쑤호즈의 이와같은 특성에 있는 것이다.

최근 三년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목물수매량이 十六억루트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때로는 레하면 一九三七년도에는 十八억루트에까지 상승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매년 수매하는 二억루트가량의 목물과 그리고 팔호즈에 의하여 직접 시장에서 수매하는 수억루트의 목물량을 여기에 가산한다면 총괄적으로 팔호즈와 쏘호즈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그 상품목물의 상술된 그 총량을 얻을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三년간에 상품목물의 근원지가 이전에 우리나라의 목창으로 인정하던 우크라이나로부터 북부와 동부, 즉 로씨야사회주의 연방소비에트공화국에 그 위치를 옮기게 된 것을 지적하는것이 흥미있는 일이다. 다아는바와같이 최근 二—三년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매년 겨우 四억루트 가량의 목물을 수매하였으나 그 동안에 로씨야사회주의연방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매년 十一억—十二억루트의 상품목물을 수매한것이다.

목물생산에 대한 형편은 이렇게 되어 있다.

목축업으로 말하면, 가장 락후된 이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최근 몇해동안에 상당한 성과가 있게 되었다. 사실 마필수(馬匹數)와 목양업(牧羊業)에 있어서는 아직도 혁명 전 수준보다 떨어져있으나 우류(牛類) 및 양돈업(養豚業)에 있어서는 우리가 벌써 혁명 전 수준을 초과하였다.

이에 대한 재료는 아래와 같은것이다(九九〇페이지를 보라)。

양마업(養馬業)과 목양업 방면에 있는 락후성을 가장 짧은 기간내에 되치게 될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조선의 가축의 두수 (단위 백만두)

의 파 센 트 一九三八년	매년七월 표준							말 (馬)	소 (牛類)	양과 염소	돼지	
	一九一六년 조사 자료에 비하여	一九三三년에 비하여	一九三六년	一九三七년	一九三五년	一九三四년	一九三三년					一九一六년조사 자료에 의하여
一〇五・四	一六四・六	二〇四・二	二五二・九	四八・九	一〇四・三	八四・六	一四六・四	三五・八	六〇・六	一一一・二	二〇・九	
一七・五	五七・〇	八一・三	二二・八	一六・七	五六・七	七三・七	三〇・五	一五・七	四二・四	五一・九	一七・四	
一五・九	四九・二	六一・一	二二・五	一六・六	五一・九	五〇・二	一二・一	一五・七	三八・四	五〇・二	一二・一	
一九三五년	一九三四년	一九三三년	一九三六년	一九三七년	一九三八년	一九一六년	一九三三년에 비하여	一九一六년조사 자료에 의하여	一九三三년	一九三四년	一九三五년	一九三六년

(二) 상품류동, 운수업, 공업과 농업의 양양과 함께 우리나라의 상품류동도 증가되었다. 국영상업 및 협동조합
 상업의 소매상품류동은 一七八%가 증가되었다. 팔호즈 시장상업 류동은 一一二%로 증가되었다.
 다음의 일람표는 이 실정에 해당한 것이다.

상품류통

一九三三년에 비한 一九三八 년의 파생도	一九三三년 一九三四년 一九三五년 一九三六년 一九三七년 一九三八년	二八五三五五 二八六二三六 二六八七一三 二八九四七三 三二七三六一 三五六九三〇	一、 국가상업과 협동 조합상업의 소매망 (상점과 소매점) — 년말표준	二、 국가상업과 협동조합상업의 소매상품류통 (공동식사까지 포함하여) — 단 위 배만부분.	三、 팔로즈시장 의 상품류통 — 단위배만부분	四、 식료품공업 인민 위원회, 경공업인민위 원부, 중공업인민위원 부, 립업인민위원회, 각 가맹공화국 지방공 업인민위원부의 판매 사업을 위한 자주상 업기지 — 년말표준.
二七五・一	二七八・三	二二二・二	一一五〇〇・〇 一四〇〇〇・〇 一四五〇〇・〇 一五六〇七・二 一七七九九・七 二四三九九・二	四九七八九・二 六一八一四・七 八一七一二・一 一〇六七六〇・九 一二五九四三・二 一三八五七四・三	七一八 八三六 一一四一 一七九八 一九一二 一九九四	二七七・七

화물 수송의 일정한 장성이 없이는 국내의 상품류 등이 이렇게 전개되지 못하였을것은 명백한 일이다. 실로 결산기간에 각종 운수업에 있어서 특히 철도운수업과 항공운수업에 있어서 수송량이 증가되었다. 수상운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수송량이 증가되었으나 이 장성은 많은 고저(高低)가 있었다. 그리하여 一九三八년에 와서 수상운수업의 수송량은 유감이지만 전년에 비하여 약간의 감소를 가져왔다.

다음의 일람표는 이 실정에 해당한 것이다.

화물수송

	一九三三年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一九三六年	一九三七年	一九三八年	一九三三年에 비한 一九三八 년의 퍼센트
철도수송 (단위— 십억 톤킬로메터)	一六九・五	二〇五・七	二五八・一	三二三・四	三五四・八	三六九・一	二一七・七
하해수송 (단위— 십억 톤킬로메터)	五〇・二	五六・五	六八・三	七二・三	七〇・一	六六・〇	一三一・五

(2)、인민의 물질적 형편과 문화적 상태의 가일층 향상

공업과 농업의 계속향상은 인민의 물질적 형편과 문화적 상태의 새로운 장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 사실 초래하였다.

착취를 근절하고 국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체제를 공고케한것, 실업과 또 이와 관련된 빈궁이 도지와 농촌에서 근절된것, 공업의 거대한 확장과 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장성된것, 노동자들과 팔호즈원들의 노동생산 능률이 장성된것, 팔호즈에 토지를 영구히 고착시켰으며 최고급의 트랙토르와 농업기계를 거대한 수로 팔호즈에 공급한것——이 모든것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적 형편의 계속 장성을 위한 현실적 조건을 지어주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적 형편의 개선은 인데리겐차 즉 우리나라의 큰힘으로 되어있으며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인데리겐차의 물질적 형편의 개선을 응당 초래한것이다.

이제는 실업자들과 또는 농촌을 떠나 기아의 공포속에서 이락할곳없이 방황하는 농민들을 어떻게나 공업에 끌어들이며 그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일에 받아드릴데 대하여는 벌써 문제도 되지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농민들이 없어진지 벌써 오래다. 이것은 우리농촌의 부요한 살림을 증명하는것이니 물론 훌륭한 일이다. 이제는, 장성되는 우리의 공업을 위하여 팔호즈가 우리의 청탁을 들어 해마다 젊은 팔호즈원 一百五十萬명 가량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달라는것을 팔호즈에 제의할데 대하여서만 말할수 있는것이다. 이미 부요하게된 팔호즈들은, 그들로부터 이러한 방조가 없이는 우리공업을 앞으로 확장시키기 매우 어려운것과 또는 공업을 확장시키지 않고는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장성되어가는

농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킬수 없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팔호즈들은 우리의 이런 요구를 만족시킬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팔호즈들이 가지고있는 풍족한 기술은 일부의 일꾼들을 농촌으로부터 나오게할수 있는것이며 이 일꾼들은 공업에 이전되어 우리의 전인민경제에 막대한 유익을 줄수있는것이다.

결국, 우리는 보고기간에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상 형편의 개선에 대한 다음과같은 지표(指標)를 가지고있다.

一、인민소득은 一九三三년도의 四百八十五億루블로부터 一九三八년도에는 一千五十億루블로 증가되었다.

二、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수는 一九三三년도의 二千二百여만명으로부터 一九三八년도의 二千八百萬명으로 증가되었다.

三、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의 노동임금의 기금년액(基金年額)은 三百四十九億五千三百萬루블로부터 九百六十四億二千五百萬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四、공업노동자들의 년평균 노동임금은 一九三三년도의 一千五百十三루블로부터 一九三八년도의 三千四百四十七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五、팔호즈들의 총현금수입은 一九三三년도의 五十六億六千一百九十萬루블로부터 一九三七년도의 一百四十一億八千十萬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六、곡물구역에서 매 팔호즈 농호에 분급된 평균곡물량은 一九三三년도의 六十一뿌드로부터 一九三七년도의 一百四十四뿌드에까지 증가되었는데 그중에는 종곡, 종곡보험폰드, 공동가축의 사료폰드, 국가에 공급하는 곡물, 농기—트락토르 정류소의 작업에 대한 현물보상액을 계산하지않은것이다.

七、 사회—문화시설을 위한 국가예산안의 지출액은 一九三三년도 五十八億三千九百九十萬루블로부터 一九三八년도의 三百五十二億二百五十萬루블에까지 증가되었다.

인민의 문화상태에 관하여 말하면, 인민의 물질적 형편의 향상에 따라 그도 향상된 것이다. 인민의 문화발전의 걸지로 보아, 보고기간은 그야말로 참말 문화혁명의 시기였다. 소련 내의 각 민족의 언어로써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의 실시, 각급학교와 학생수의 증가, 고급학교를 졸업한 전문가 수의 증가, 소매트적 새 인테리겐차의 양성 및 강화—이것이 인민의 문화향상의 총괄적 진상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一、인민의 문화수준 향상

그중에서				단위	一九三三—三四년도	一九三八—三九년도	一九三三—三四년도에 비한 一九三八—三九 년도의 퍼센트
각급학교의 학생총수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일반교육과 전문교육부문)	고등교육부문				
천명	천명	천명	천명	一九三三—三四년도	一九三八—三九년도	一九三三—三四년도에 비한 一九三八—三九 년도의 퍼센트	
二二八一四	一七八七三・五	五四八二・二	四五八・三	三三九六五・四	二二一八八・四	一一九・一	一四二・六
					一一〇七六・〇	二二〇・三	
					六〇一・〇	一三一・一	

그 중에 서										포시	단위	一九三三—三四년도	一九三八—三九년도	一九三三—三四년도 에 비한 一九三八— 三九년도의 퍼센트
신규 년발행 총부수	그중 발성영화기 수	능준에 있는 영화기수 (소 목필림 영화기는 제외하고)	그중 발성영화기 수	영화기수 (소목필림 영화기는 제외하고)	극장 수	구락부 시설 수	군중도시 관내의 서적의 부수	군중도시 관수	쓰립의 취학자 총수 (일체의 학습 방식을 포괄하여)	고등교육 부문	중등교육 부문 (일반교육 과 전문교육 부문)	초등교육 부문	각급학교의 학생총수	
백만부	단수	단수	단수	단수	단수	일천개소	백만부	일천개소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천명	
四九八四・六	二四	一七四七〇	四九八	二七四六七	五八七	六・一	八六・〇	四〇・三	—	四五八・三	五四八・二	一七八七三・五	二三八一四	
七〇九二・四	六六七〇	一八九九一	一五二〇二	三〇四六一	七九〇	九五・六	一二六・六	七〇・〇	四七四四二・一	六〇一・〇	一二〇七六・〇	二一二八八・四	三三九六五・四	
一四二・三	二七八배 증가	一〇八・七	三一배 증가	一一〇・九	一三四・六	一五六・五	一四七・二	一七三・七	—	一三一・一	二二〇・三	一一九・一	一四二・六	

二、一九三三—一九三八년간에 쓰려에 건설된 학교 수

년도	학교 수		
	도시와 시형부락	농촌지방에	총계
一九三三—一九三八년의 총계	四二五四	一六三五三	二〇六〇七
一九三八년	五八三	一二四六	一八二九
一九三七년	七三〇	一三二三	二〇五三
一九三六년	一五〇五	四二〇六	五七一
一九三五년	五三三	二八二九	三三六二
一九三四년	五七七	三四四八	四〇六五
一九三三年	三二六	三二六一	三五八七

三、一九三三—一九三八년간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전문가 수 (단위—천명)

	一九三三년	一九三四년	一九三五년	一九三六년	一九三七년	一九三八년
전소련에서 (군사전문가는 제외하고)	三四・六	四九・二	八三・七	九七・六	一〇四・八	一〇六・七
(一) 농업과 전축업기사	六・一	一四・九	二九・六	二九・二	二七・六	二五・二
(二) 운수업과 통신업기사	一・八	四・〇	七・六	六・六	七・〇	六・一
(三) 농업기계화에 대한 기사, 농업전문가, 수의 (獸醫) 및 동물전문가	四・八	六・三	八・八	一〇・四	一一・三	一〇・六
(四) 정제학자와 법률가	二・五	二・五	五・〇	六・四	五・〇	五・七
(五) 중등학교, 로동학원, 전문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일꾼 (예술일꾼까지 포함하여)	一〇・五	七・九	一一・五	二一・六	三一・七	三五・七
(六) 의사, 약제사 및 체육일꾼	四・六	二・五	七・五	九・二	一二・三	一三・六
(七) 기타전문가	四・三	一一・一	一二・七	一四・二	九・九	九・八

이 모든 거대한 문화사업의 결과로 우리나라에는 수다한 소비트적 새 인테리겐차가 탄생되었고 형성되었다. 이 인테리겐차는 로동자와 농민 및 소비트사무원의 출신이며 우

리의 인민과 혈육적으로 상련된 인테리겐차이다. 이 인테리겐차는 착취의 명예를 모르며 착취자들을 증오하며 쏘련의 인민들에게 충실한 신념과 진심으로써 봉사하기에 준비된 인테리겐차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인민적, 사회주의적 인테리겐차의 탄생은 우리나라에서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결과중 하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 쏘베트제도의 계속공고화

보고기간의 가장 중요한 결과중 하나는 그것이 국내형편을 계속공고화하였으며 쏘베트제도를 계속공고케한데 있는것이다.

다르게는 될수없었다. 인민경제의 각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체계의 확립, 공업과 농업의 향상, 근로자들의 물질상 형편의 향상, 인민대중의 문화정도의 향상, 그들의 정치적 열성의 향상——쏘베트주의의 지도하에서 실현된 이 모든것은 쏘베트제도를 계속공고케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일반 자본주의적 사회와 현시 쏘베트사회가 구별되는 특수성은, 쏘베트사회에는 반목 결시하며 적대지하는 계급들이 이미 없으며 착취계급이 청산되었으며 쏘베트사회를 구성하는 로동자, 농민 및 인테리겐차가 우의적 합작의 기초위에서 살며 일하는 거기에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로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농민들과 지주들 사이에 조화될수없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분열되며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내부의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 착취

의 기반에서 해방된 쏘베트사회는 이와같은 모순들을 알지 못하며 계급적 충돌이 없으며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차의 우의적 합작의 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공동성의 기초 위에서 쏘베트사회의 사상—정치적 통일, 쏘련의 모든 인민의 친목, 쏘베트적 애국주의와 같은 그런 동력이 역시 전개된 것이다. 또한 이 기초위에서 一九三六년 十一月에 채택된 쏘련의 헌법과 국가 최고 기관의 선거에서의 완전한 민주주의화도 또한 발생되었다.

국가 최고 기관의 선거로 말하면, 이 선거는 우리나라 내부정세의 특성을 구성하는 쏘베트사회의 통일과 쏘련의 모든 민족의 친목에 대한 영광스러운 시위로 되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一九三七년 十二月에 진행된 쏘련 최고 쏘베트 선거당시에 약 九千만명의 선거자가, 즉 선거에 참가한 총수의 九八・六%가 공산당원과 비당원의 별력을 찬성하여 투표하였으며, 一九三八년 六月에 진행된 각 가맹공화국의 최고 쏘베트 선거에 있어서는 九千二百萬의 선거자 즉 선거에 참가한 총수의 九九・四%가 공산당원과 비당원의 별력을 찬성하여 투표하였다.

쏘베트제도의 전고성의 기초가 여기에 있고 쏘베트주권의 무궁한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전쟁이 폭발되는 경우에 있어 우리군대의 후방과 전선은 그의 동결성과 내부적 통일로 인하여 어느나라 보다도 더 튼튼할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외국의 호전가(好戰家)들은 이에 대하여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국출판계의 어떤 자들은 트로츠키, 지노비예프, 까메네프, 야끼르, 푸하첵스키, 로센폴리츠, 부하틴 및 기타의 악한들과 같은 정탐꾼, 살인배 및 해독자들을 쏘베트 조직체로부터 소탕

한 것이 마치 쇼베트제도를 「동요」케 하였고 또는 「와해」지킨드지 짓거리고 있다. 이와 같이 비렬한 잡담은 열지를 받기에 가당한 것이다. 해독적 분자와 적대적 분자들을 쇼베트조직체로 부터 소탕하는 것이 어떻게 쇼베트제도를 동요시키며 와해시킬수 있겠는가? 외국의 면전에서 열렬하며 각개의 외국 판로배 앞에서 아첨대는 노예적 근성으로써 일판되었고 또는 그들의 정탐으로 근무하려고 나서기에 준비된 트로츠키—부하된적 정탐배, 살인배, 및 해독자의 무리—자본의 철새에서 해방된 보통 쇼베트공민도 자본주의적 노예의 명에를 절멸시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외국 판원들보다 더 고상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한 이런 인간들—이 매수된 노예들의 보잘것없는 도당이 누구에게 요구되며 이 도당이 인민에게 대하여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또 누구를 「와해」시킬수 있겠는가? 一九三七년에 두하썬쓰끼, 야끼르, 우보레위츠 및 기타 악한들을 총살에 처하였다. 그뒤에 쏘련최고쇼베트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선거는 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九八・六%가 쇼베트주권에 찬성투표하였다. 一九三八년초에 로센폴리츠, 피코브, 부하틴 및 기타 악한들을 총살에 처하였다. 그뒤에 각 가맹공화국 최고쇼베트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선거는 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九九・四%가 쇼베트주권에 찬성투표하였다. 물론노니, 여기에 있어서 「와해」의 증조가 어디 있으며 어찌서 이 「와해」가 선거의 결과에는 표현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외국 말공부쟁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만일 간첩배, 살인배와 해독자들을 자유로 방임하고 또는 그들이 해독사업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첩하는것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쇼베트의 조직체가 아주 더 튼튼하여지었고 견실하여지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지을수있는것같다. (웃음). 이렇듯 무례하게 간첩배, 살인배, 해독자를 옹호하는 이 양반들이 넘어나 일찍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발로시키는것이 아닌가?

쏘베트조직체로부터 간첩배, 살인배, 해독자를 소탕한것이 그 조직체를 더욱 공고케 할 것이었고 또는 실상 공고케 하였다고 말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테하면, 하싼호사건(張鼓峯事件)은, 쏘베트조직체로부터 간첩배와 해독자를 소탕한것이 그 조직체를 공고케하는데 있어서 가장 옳은 수단이였음을 말하여주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 *

내부정책방면에서의 당의 임무는 즉,

一、생산기술 및 공업의 장성속도 방면에서 주되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이미 앞선이후 그들을 가까운 一〇—一五년간에 경제적으로도 역시 앞서기 위하여서는, 우리공업의 향상, 노동생산물의 장성, 생산기술의 완성을 계속 전개할것이다.

二、가까운 三—四년간에 배해따르에서 一二—一三센트네르의 평균 수확률로써 매년 八〇억루브의 곡물을 생산하며, 공예용작물 생산을 평균 三〇—三五%로 증가시키며, 면양과 돼지수를 두배로 증가시키며, 대각가축의 수를 四〇%, 말의 수를 三五%로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업과 목축업을 계속 향상시킬것이다.

三、로동자와 농민 및 인테리겐차의 물질상 형편과 문화상태의 개선을 더욱 계속전개할것이다.

四、우리의 사회주의적 헌법을 생활화에서 꾸준히 실시하며, 국내의 정치적 생활의 민주주의화를 끝까지 실현하며, 소비트 사회의 사상——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농민, 인테리겐차의 우의적 협력을 공고케 하며, 소비트의 제민족의 친선을 백방으로 공고케 하며 소비트애국주의를 발전시키고 배양할 것이다.

五、자본주의 포위에 대하여 잊지 말며 외국 정탐기관에서 정탐꾼, 살인배, 해독자를 우리나라에 파송하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주의적 정보기관을 강화하며 인민의 원수를 진멸시키고 근절함에 있어서 그를 체계적으로 도울 것이다.

三、전련맹공산당(볼셰비크)의 가일층의 공고화

정치적 로선과 일상적 실지사업의 견지로 보아 결산기는 우리당의 총로선의 완전한 승리의 시기였다. (폭풍우의 세로 계속되는 파수)。

전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체계의 확립, 새 기술의 기초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개조의 완성, 공업에 있어서의 제2차 오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 매년 무물생산의 七十億루드의 수준에까지의 향상, 빈궁과 실업의 퇴치 및 인민의 물질적 형편과 문화정도의 향상——이것이 우리당의 정책의 정당성과 그의 지도의 정당성을 시위하는 기본적인 성과들이다。 이와같이 거대한 성과의 면전에서 우리는 우리당의 총로선에 적대되는자들인 각종의 「좌경」 및 「우경」적 사조, 온갖 트로츠키—파파코브적 및 부하틴—되코브적 변절자들은 할수없이 자신(自身)을 감추게 되었고, 자기들의 남아빠진 「정강」을 감추게 되었으며 지하로

거어들게 되었다. 인민의 의사에 순종할 용기가 없는 그들은 멘셰비크, 에세르, 파시스트들과 합류되어 외국정당기관에 봉사하며, 정탐꾼으로 고용되며 소련의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분열케 하여 우리나라에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를 다시 수립하도록 돕는것을 나은것으로 여기는것이였다.

우리당 로선의 적들의 치욕스러운 말로(末路)는 이런것이니 이적들은 추후에 인민의 원수로 되고 말았다.

인민의 원수들을 격파하고 당과 쏘베트의 조직체로부터 변절자들을 소탕함으로써 당은 그 정치적 및 조직적 사업에서 더욱더 통일되었으며 당은 자기 중앙위원회의 주위에 더욱더 결속되었다. (폭풍우같은 박수, 대표일동은 일어서 보고자를 축하한다. 『쏘말린동지 우라! 쏘말린동지 만세! 우리당 중앙위원회 만세! 우라!』의 환호).

결산기간의 당내부생활의 발전, 그의 조직사업 및 선전사업에 대한 구체적 재료를 고찰하여보자.

(I)、당성분의 개선방침. 조직체의 세분.

하부사업에로의 지도적 기관의 접근

결산기간에 있어서 당과 그 지도적 기관의 공고는 우선 두 방향으로 실현되였다. 당의 성분을 조절하며, 미들성없는자들을 제거하고 우수한자들을 선발하는 방향과 또는 조직체의 세분, 그의 범위의 축소, 지도적 기관을 하급, 실무적, 구체적 사업에 접근케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

제十七차 당대회는 一百八十七萬四千四百八十八명의 당원을 대표하였었다. 만일 이 숫자를 전(前) 제十六차 당대회가 대표한 당원수와 비교하면 제十六차 당대회로부터 제十七차 당대회에 이르는 동안에 六十萬명이 새로 입당되었다. 당은, 一九三〇—一九三三年 환경에서 이렇게 대량적으로 당에 들어온것은 그의 성분상 불건전한 또는 탈감지 못한 증가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당은, 그의 대렬에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들만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당의 기치를 그들의 개인적 목적에 리용하려고 애쓰는 우연한 인간과 출세주의자들도 들어온다는것을 알았다. 당은 그가 자기 당원들의 수로써만 강한것이 아니라 우선 당원들의 결에 의해서 강하다는것을 알지 못할리는 없었다. 이에 관련하여 당성분의 조직문제가 나서게 되었다. 이미 一九三三년도에 시작된 당원과 후보당원의 청결을 앞으로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 청결은 실로 一九三五년五月까지 계속되었다. 다음으로는, 입당문제를 정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실로 一九三六年 九月까지 입당을 정치하였다. 그런데 一九三六년 十一月一日에야 입당을 허하였다. 다음으로, 당내에 의심스러운 분자들이 적지않게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준 기로브동지의 훌륭한 살해와 관련하여 당중 검열과 교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두가지사업은 다 一九三六년九月에 이르러서야 끝났다. 이렇게한뒤에야 비로소 당원 및 후보당원을 당에 새로 받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방침의 결과에 당은 가장 튼튼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선발하면서 그가 자기 대렬로부터 우연한 분자, 소극적 분자, 출세주의자 또는 직접 적대되는 분자들을 축출시켰다. 청결행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는 말할수 없다. 유감스럽지만 오류는 예상하던것보다 더 많았다. 물론 우리는 더는 대중적 청결 방법을 리용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九三三—一九三六년 청결은 어쨌든 불가피적이었고 그것이 대체로는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이번 제十八차 대회는 약 一百六十萬명의 당원, 즉 제十七차 대회보다 二十七萬명이나 적은 당원을 대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당은 자체로부터 추악한 분자를 청결하여 버림으로써 공고케 되는 까닭이다. 지금 우리당은 그 당원수로는 좀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대신 질적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거대한 성과이다.

당의 일상적 지도를 하급사업에 접근케 하고 그 지도를 한층더 구체화시키는 의미로서 그 지도를 개선하는데 대하여 당은, 조직체를 세분하며 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조직체에 대한 당기관의 지도를 용이케 하며 그 지도가 구체적, 활동적, 실무적이 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르게 되었다. 세분하는 사업은 각인민위원부의 제 통으로와 또는 각 행정구역적 조직의 계통으로, 즉 가맹공화국, 변경, 주, 구역 등등의 계통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채용한 모든 대책의 결과로 지금와서는 七개의 가맹공화국 대신에 十一개의 가맹공화국, 十四개의 조선인민위원부 대신에 三十四개의 인민위원부, 七十개의 변경 및 주 대신 一百十개의 변경 및 주, 二千五百五十九개의 도시 및 농촌구역 대신 三千八百十五개의 도시 및 농촌구역을 소유하고있다. 이에 상응하여 당의 지도적 기관의 체계에는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를 수위로한 十一개의 중앙위원회가 지금 있으며, 六개의 변경위원회, 一百四개의 주위원회, 三十개의 현위원회, 二百十二개의 전지(全市)위원회, 三百三十六개의 지구위원회, 三千四百七十九개의 농촌구역위원회 및 十一萬三千六十개의 초급당 조직체들이 있다.

조직체의 세분사업이 끝났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세분사업은 필연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여하간 그 세분은 사업의 일상적 지도를 개선하는 방면에 있어서나 또는 그 지도를 구체적 하급사업에 접근케 하는 방면에 있어서 별써 그의 양호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조직체를 세분함으로써 몇百, 몇千의 새 일꾼들을 지도적 사업에 등용할 수 있을 일계된데 대하여서는 더 말치 않는다.

이것도 역시 거대한 성과이다.

(2) 간부의 선발, 그들의 등용, 그들의 배치

당의 성분을 조절하며 지도적 기관을 구체적 하급사업에 접근케 하는 것은 당과 그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고 또한 유일한 수단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결산기간에 당을 강화하는 다른 수단은 간부에 대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며 간부의 선발, 그의 등용, 그의 배치, 사업행정에서의 그의 검열 사업을 개선하는데 있었다.

당의 간부——이것은 당의 지휘적 성분이며 또는 우리당이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국가지도기관의 지휘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에서 검열된 정당한 정치로선을 작성한 다음에는 당의 간부들이 당적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역량으로 되어 있다. 정당한 정치로선을 가지는 것——이것은 물론 첫째로 가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 정당한 정치적 로선은 선언하기 위하여

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정치적 로선을 실천하려면 당의 정치적 로선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로선으로써 파악하며, 그것을 실천하려는 결심이 있고 그것을 실제에서 실현할 줄 알며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것을 옹호하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기에 유능한 간부가 요구되며 그런 인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것이 없이는 정당한 정치적 로선이 지상공문으로 남아있을 위험이 없다.

설로 여기에서 간부의 좋은 선발, 간부의 양성, 새사람들의 동용, 간부의 정당한 배치, 이미 실행한 사업에 의해서 그들을 검열할 문제가 또한 나서는 것이다.

간부를 옮겨 선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간부를 정당하게 선발한다는 이것은 자기의 주위에 수다한 대리자와 보조자를 모집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거기로부터 각종 지시를 발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웃음). 이것은 또한 자기의 권리를 람용하여 몇十、몇百명의 사람들을 한곳에서 다룬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끝없는 「제조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웃음).

간부를 정당하게 선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첫째로, 간부를 당과 국가의 보물과 같이 귀중히 여기며 그를 애호하며 그를 존경할 것이다.

둘째로, 간부를 잘 알아야 하며, 매개 간부일꾼의 장점과 단점을 세밀하게 연구하며 일꾼의 기능이 어떤 직위에서 보다 쉽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간부를 성심으로 배양하며, 자라나는 각 일꾼들을 향상승진(向上昇進)하도록 도와주며 이런 일꾼들에 대하여 꾸준히 「세밀한 주의를 돌릴 것이며」 그들의 장성을 촉진하기애 시간을 아끼지 말것이다.

넷째로, 새로운 어린 간부들이 한자리에 그냥 머물러있어서 그들로하여금 나타나 이르게 하지말며 그들을 제때에 또한 주저없이 등용하여야 할것이다.

다섯째로, 일꾼들을 각 직무에 배치하되 각 일꾼마다 그가 감당할만한 책임적 직무에나 선것을 깨닫도록, 각 일꾼마다 그의 소결에 의하여 우리의 공동한 사업에 제공할수 있는것을 최대한도로 공헌할수있도록, 간부 배치의 일반적 방침이 이 배치사업이 목적하는 정치적 로선의 요구에 전적으로 합치되도록 배치할것이다.

새로운 어린간부를 주저없이 또는 제때에 등용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일꾼들중에는 이 문제가 아직도 완전명료하게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후자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주로 로련(老鍊)한 간부에 의거하여야 된다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와반대로, 주로 어린간부에 의거할것을 생각하고있다. 나는, 전자나 후자나 모두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로련한 간부는 물론 당파 국가에 대부원으로 되어있다. 그들에게는 어린간부에게 있는것이 있으니, 즉 지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적 단련, 사리(事理)에 대한 지식, 방향결정의 능력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로련한 간부는 항상 많지않아서 요구되는것보다 적은것이 며 우주의 자연법칙에 의하여 이미 부분적으로 대오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둘째로, 로련한 간부의 일부에는 과거를 너무 고집스럽게 회고하며 과거에 침식되어 있으며 남은것에

잠겨 있으며 또는 실생활에서의 새것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때때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새 것에 대한 감정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결점이다. 어떤 간부들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물론 로런한 간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험, 단련, 사리(事理)에 대한 지식, 방향결정의 능력이 없다. 그러나 첫째로, 어떤 간부는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오 둘째로, 그들은 나이 어린 까닭에 아직 대렬에서 나올 위험이 없는 것이오 셋째로, 그들에게는 매개의 불세비크적 일꾼의 귀중한 소절인 새것에 대한 감정이 충만되어 있으며 넷째로, 그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고 빨리 개발되며 또는 얼마나 급격하게 향상승진되는지 멀지 않은 장래에 늙은이들을 팔아가서 그들과 나란히 서서 나갈 것이오 그들의 자격있는 교대자가 될 것이다. 그런즉 임무는 로런한 간부들에게나 혹은 새로운 간부에 의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런한 간부와 어린 간부를 당과 국가의 지도적 사업의 한개의 합주단(合奏團)에 배합시키며 련합시키는 방침을 취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박수)。

실로 이렇게 때문에 어떤 간부를 반드시 제때에 또는 주저없이 지도적 직위에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이 결산기간에 달성한 거대한 성과중 하나는 그가 간부들을 선발하는 방면에서 로런한 일꾼들과 젊은 일꾼들을 결합시키는 이 방침을 실로 아래로부터 우에까지 성과있게 실시한 여기에 있다.

당중앙위원회에는, 당이 결산기간에 국가기관과 당기관을 통하여 지도적 직위에 五十萬 명 이상의 당원과 당에 접근한 젊은 불세비크를 등용하였는데 그중에 二〇% 이상의 나자가 있음을 증시하는 재료가 있다.

이제는 임무가 어디에 있는가?

임무는, 아래로부터 위에까지의 간부 선발사업을 전체로 한손에 잡아쥐고 그것을 상
당한, 과학적, 불셰비크적 수준에 올려세우는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에 대한 연구, 응용 및 선발사업을 각부와 각지부에 갈
라놓는 일을 없이하고 그것을 한 장소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소로서는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내의 간부사업국과, 각공화국, 변경
및 주당단체내의 해당한 간부부가 반드시 될 것이다.

(3) 당선전사업. 당원과 당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

결산기간에 당과 그의 지도적 기관을 강화시킨 또 한가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책
임적인 당사업방면이 있다. 이것은 구두상 및 출판물으로써의 당 선전 및 선동사업, 당원과
당간부들을 맑스-레닌주의적 사상으로써 교양하는 사업, 당과 그 일꾼들의 정치적 및 리
론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사업이었다.

당 선전사업과 우리 일꾼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사업의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는
누누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당기관의 일꾼만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
니다. 나는 역시 공청, 직업동맹, 상업협동조합, 경제, 쇼베트, 교육, 군사 및 기타 단체
의 일꾼들까지 념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당의 성분을 조절하며 지도적 기관을 하급사업에
접근케 하는 사업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며 간부응용, 그의 선발, 그의 배치사업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일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당 선전사업이 다리를 절제

되거나 만일 우리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사업이 미약해지거나 만일 그 간부들의 정치 및 이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우리사업이 쇠약하게 되고 이로부터 간부 그 자체가 우리 전진운동의 전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우리사업의 정당성을 모르게 되며 상부기관의 지지를 맹목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전망을 잃은 사무주의자로 변한다면——불피코 우리국가 및 당사업도 쇠약해질 것이다. 국가 및 당사업의 어떤부분의 일꾼이든지 물론하고 그들의 정치수준과 맑스—레닌주의적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자체가 더 나을 것이오 효과가 많으며 사업의 성과가 보다 더 클 것이오 그와 반대로 일꾼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스—레닌주의적 의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에서의 과탄과 실패가 있기에 우며 일꾼 자체가 필연코 보잘것없이 되어 틈새한 안전이익(眼前利益)에 분망한 사무주의자로 변하기 쉬운 것이며 그들의 변태가 필연으로 생길 것을 공리와 같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 사업부분의 간부를 사상적으로 준비시키었고 국내 및 국제정세에 있어 그들이 자유롭게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단련시키었다면 만일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국가령도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성숙된 맑스—레닌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면 벌써 우리의 모든 문제의 十分지九는 해결되었다고 인정할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으리라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업은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이 과업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보통으로 과학과 기술의 각부분에 따라, 즉 전문기술에 따라 어탄간부들을 배양하며 편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고 적당한 일이다. 의학전문가가 동시에 물리학 혹은

식물학에 대한 전문가로 되거나 또는 그와반대로 후자가 전자의 전문가로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볼셰비크들이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가지 과학부문이 있나니 이것은 즉 사회에 대한, 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발전법칙에 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법칙에 대한,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말스—레닌주의적 과학이다. 왜 그러냐 하면 레닌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자기의 전문기술에 국한되어, 말하자면 수학, 식물학 혹은 화학에 국한되어 자기의 전문기술밖에는 아무것도 더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진실한 레닌주의자라고 인정할수 없는 까닭이다. 레닌주의자는 그가 애호하는 과학부문의 전문가로만 될수 없다. 그는 동시에 자기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하며 사회의 발전법칙을 알며 그법칙을 리용할줄 알며 국내의 정치적 지도의 적극적 참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정치가—사회활동가가 되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물론 볼셰비크 전문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철부적 부담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은 리로운 결과를 가져올 부담이다.

당선전사업의 임무, 간부의 말스—레닌주의적 교양의 임무는 모든 사업부문에 있는 우리간부들에게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말스—레닌주의적 과학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있는것이다.

선전사업과 간부의 말스—레닌주의적 교양사업의 개선방침에 대한 문제는 쏘련공산당(볼셰비크) 중앙위원회에서 여러번 토의하게 되었는데 그 토의는 각지방 주당 단체의 선전원들의 참가하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一九三八年九月에 「쏘련공산당(볼셰비크)력사 간략독본」이 출판된것을 타산하였다. 「쏘련공산당(볼셰비크)력사 간략독본」의 출

판은 우리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선전사업의 새로운 발전의 단서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의 사업결과는, 『조련공산당(불셰비크) 역사 간략 목록』의 출판과 관련하여 당선전사업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그의 주지의 결정에 발표되었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또는 『당사업의 결정에 대하여』라는 一九三七년三月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 주지의 결정들을 고려하여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는 당선전사업 방면에서의 결정을 퇴치하며 당원과 당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사업의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주요방침을 지적하였다.

一、당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한곳에 집중시키며 선전 선동부와 출판사업부는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내의 유일한 선전 선동국에 편합시키며 동시에 각공화국, 변경 및 주당단체내에 해당하는 선전 선동부를 조직할것.

二、코루소크적(班組的) 선전제에 편중하는것을 중지않은것으로 시인하며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맑스-레닌주의의 기초를 연구하는 방법이 더 적당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출판물의 선전과 장연식 선전의 조직에 당의 주목을 집중할것.

三、우리의 하급간부를 위하여 각 주 중심지에 一년제 재교양강습소를 조직할것.

四、우리의 중급간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여러중심지에 二년제 레닌주의 학교를 조직할것.

五、당의 자격있는 리론간부의 양성을 위하여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 지속 三년제 맑스-레닌주의 고급학교를 조직할것.

六、선전원과 신문일꾼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중심지에 一년제 강습소를 설립할것.

七、대학의 맑스-레닌주의 강사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고급학교내에 六개월 강습소를 조직할것.

별책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정도로 실현되지 않은 이 모든 방침이 실현되면 즉시로 향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하는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다.

(4)、몇가지 리론문제

중대한 실제적 의의가 있는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우리동지들 사이에 완전한 명확확성이 없는것과 이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착란이 있는것을 역시 우리의 선전 및 사상적 사업의 결점들로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 사회주의적 국가에 대한 문제와 또는 우리 소비에트연방연차에 대한 문제를 범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착취계급이 청산되었고 국내에 적대계급이 이미 없으며 진압해야 할 사람들이 없는이상 국가에 대한 필요가 이미 없는것이며 그가 반드시 조락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주의적 국가의 조락을 방조하지 않는가? 어찌서 우리가 그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가, 국제의 이 폐물을 원통 멀리 집어던질때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혹은 이렇게도 묻는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착취계급이 이미 청산되었고 사회주의가 대체로 건설되었으며 우리는 공산주의에로 나아간다. 그런데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적 학설은 공산주의에 가서는 반드시 아무런 국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어째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주의적 국가의 조락을 방조하지 않는가? 국가를 고물 박물관에 넘겨줄 때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 모든 질문은 그 질문자들이 국가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학설의 개별적 명제를 진심으로 암송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질문은, 이 동지들이 그학설의 본질을 이해치 못하였고 그학설의 개별적 명제가 어떠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규정된 것을 해독치 못하였으며 그리고 특히 현대적 국제환경을 이해치 못하였으며 자본주의적 포위의 사실과 여기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주의나라에 대한 위협성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는 자본주의적 포위의 사실에 대한 과소평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역시 탐정관, 살인배 및 해독자를 우리나라에 파송하며 그리고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진공할 기회를 얻어내고 애쓰는 부르주아 국가들과 그 기관들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과소평가도 나타나고 동지회 의제의 청공으로부터 사회주의나라를 옹호하기에 필요한 우리의 사회주의적 국가, 그의 군사기관, 정벌기관 및 정탐기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과소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소평가에 대하여는 이상에 지적인 동지들만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블레비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체로 파오를 범한 것을 시인하여야 될 것이다. 재료에서 보는바와같이 트로츠키파와 부하딘파의 상층부가 벌써 十月혁명 초기로부터 외국정탐부의 탐정관으로 되어가지고 음모사업을 진행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양반들의 탐정과 음모에 대하여 다만 최근에 와서, 一九三七—一九三八년에야 알게 된 것이 과연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되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 실책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통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즉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락(下落)되리라 고는 추측할 수 없었다고. 그러나 이것은 설명이 아니며 더구나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책한 사실이 사실 그대로 남아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실책은 무엇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실책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정탐망에 걸리게 하고 그들로써 소베트국가의 기관을 포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약점, 그들의 허영심, 그들의 타악성을 리용하려고 애쓰는 부르조아 국가 기구와 그 정탐기관의 기구의 역량과 의의에 대한 파소평가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이 실책은, 우리 사회주의적 국가 기구 및 그의 정찰기관의 역활과 의의에 대한 파소평가로써, 소베트국가에서 정찰기관은 사소한 것이며 쓸데없는 것이라고, 소베트정찰기관은 소베트국가 자체와 마찬가지로 속히 고물박물판에 넘겨주게 되리라 고 떠드는 소베트정찰기관에 대한 파소평가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어떠한 지반위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파소평가가 생겨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학설의 몇가지 일반적 명제의 불완전한 연구와 불충분한 지반위에서 발생되었다. 그것이 전파된 것은 우리에게 리론적 총화에 대한 풍부한 재료를 주는 二十년간 국가사업의 실제적 경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고저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리론적 결합을 성과있게 보충할 만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의 모든 리론문제에 용리할 수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였던 까닭이다. 우리

는 맑스주의의 이론을 앞으로 더 장구할 사명을 가진 로씨야 맑스주의자들의 이론상의 무에 대한 레닌의 극히 중요한 지지를 잊었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전연 맑스의 이론을 종결적인 것이며 불가침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이 이론은 사회주의자들이, 만일 그들이 실생활에서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각방으로 진전시켜야 할 그 과학적 기초만 설정하였다는 것을 확신한다. 로씨야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맑스 이론의 자립적 강구가 특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론이 특수적으로 영국에서는 불완전에서 보다 다르게, 불완전에서는 독일에서 보다 다르게, 독일에서는 로씨야에서 보다 다르게 적용되는 일반적 지도적 명제만 주는 까닭이다」(레닌전집 제二권 四九二페이지)。

실제로, 엥겔스가 규정한 사회주의적 국가 발전에 대한 이론의 전형적 공식들을 어보자.

「북중시켜야 될 사회적 계급들이 없어지고 한계급에 대한 다른 계급의 지배와 또는 현대생산의 무정부상태에 근거한 생존경쟁이 없게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충돌과 폭력이 제거되는 그때에라야 진압하고 제어할 사람이 이미 없게 될 것이요 그때에라야 지금 이 직능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주권에 대한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국가가 전 사회의 진정한 대표자로 출현하는 최초의 행동——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로의 전환——은 국가로서의 그 최후의 자립적 동작일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국가주권의 간섭은 점차 무용한 것으로 되어 스스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관리대신에 사물에 대한 관리와 생산행정에 대한 지도가 대체될 것이다. 국가는 『폐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조락되는 것이다」(에프. 엥겔스 『반(反) 유티론』, 당출판사 발행, 一九三三년판 二〇二페이지)。

엥겔스의 이 명제는 옳은가?

물론, 옳은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중에서 하나인 때에만 옳은 것이다. 즉(1)、만일 고찰의 원리를 위하여 나라와 국가를 국제환경에서 고립시켜 국제적 동인으로 부터 미리 격리시켜 놓고 나라의 내부발전의 전지로만 사회주의적 국가에 대한 연구를 리행하거나 혹은、(2)、만일 사회주의가 벌써 세계각국에서 승리되었거나 혹은 대다수 국가에서 승리되었고 자본주의적 포위 대신에 사회주의적 포위가 현존하며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대한 위험이 이미 없고 군대와 국가를 강화할 필요가 더없다고 가정하는 때에만 이 명제가 옳은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단독적으로 한나라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조건에서 아무리해도 격리되기가 불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앵겔스의 공식이 대답을 주지않았다. 본래 앵겔스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앞에 제기하지않았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그에게 있을수 없었던 것이다. 앵겔스는, 사회주의가 이미 세계각국에서나 혹은 대다수 국가에서 어느정도까지 동시에 승리되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때문에 앵겔스는 여기에서 어떠한 개별적 나라의 어떠한 구체적 사회주의 국가를 고찰한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된 사실의 존재를 가정하고—「사회주의가 대다수 국가에서 승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물론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적 국가가 어떠한 변동을 반드시 당하게되겠는가」하는 공식에 의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을 일반적으로 고찰한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문제의 고찰에 있어서 앵겔스가 국제적 조건, 국제적 환경같은 그런 동인으로 부터 전혀 떨어져진 사실이 다만 문제의 이러한 일반적, 추상적 성질로써 설명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여기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사회주의 국가의 운명에 대한 앵겔스의 일반적 공식을 사회주의가 단독적으로 한나라에서 승리된 개별적, 구체적 경우에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는 그 주위에 자본주의적 포위가 있으며 이 나라는 외부의 군사적 침공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때문에 이 나라는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떨어져질 수 없으며 이 나라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전취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지기 위하여 잘 훈련된 군대와 잘 조직된 정별기관과 강력한 경찰기관이 반드시 자기 관활하에 있어야 될 것이니, 즉 십분 강력한 자기의 국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시대로부터 四十五年—五十五年 시기로써 격리된 맑스주의의 대가(大家)들에게서 긴장대에 개별적 국가에서 발생된 각종 각양의 역사적 굴곡의 예견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맑스주의의 대가들이 우리를 위하여 五〇—一〇〇년 후에 개별적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각양의 이론적 문제의 완성된 답안(答案)을 작성하여 맑스주의의 대가들의 후손인 우리로 하여금 화로옆에 평안히 앉아 완성된 답안을 반추(反芻)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수운 일일 것이다. (일동의 웃음). 그러나 우리는 우리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서 그들이 맑스주의의 개개의 일반적 명제를 암송하는데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이 맑스주의의 본질을 깊이 연구하며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二十년 동안이나 존재한 경험을 고려할 줄 알며 나중으로는, 그들이 이 경험에 의거하고 맑스주의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맑스주의의 개별적 일반 명제를 구체화시키며,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개선을 시키는 일을 배워야 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요구하여야 될 것이다. 레닌은 一九一七년 八월에, 즉 十月혁명과 소비에트 국가의 창설의 몇 달 전에 그의 명저 「국가

와 혁명」을 썼다. 레닌은 맑스 및 엥겔스의 국가에 대한 학설을 사회주의자들의 의곡과 비속화로부터 옹호하는것을 이 저서의 주되는 임무로 삼았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의 제2편을 쓰려고 하였는데 그는 거기에서 一九〇五年 및 一九一七年 로씨야 혁명의 경험의 주요한 총화를 서술하려고 예상하였다. 레닌은 그의 저서 제2편에서 우리나라에 쏘베트주권이 존재한 경험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한 이론을 한층 더 심오하게 강구하며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하였던것은 의심할바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레닌의 별세는 그로 하여금 이 임무를 실현할수 없게하였다. 그러나 레닌이 마저 해놓지 못한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반드시 해놓아야 될것이다. (폭풍우같은 박수).

국가는 사회가 적대적 계급으로 분열된 기초위에서 발생되었으며 소수자인 착취자를 위하여 다수자인 피착취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발생된것이다. 국가주권의 기구는 주로 군대, 정변기관, 정당기관, 관속들에 집중되었다. 두가지 기본적 직능이 국가활동의 특징을 표현하는것이다. 즉 대내적(주되는것) 직능은 다수인 피착취자를 억제하기 위한것이오, 대외적(주되지않는것) 직능은 다른 국가의 평토를 약탈하여 자기의, 지배계급의 지역을 확장하거나 혹은 다른 국가의 침공으로부터 자국의 평토를 보호하는것이다. 노예소유제도와 봉건제도 당시에는 사태가 이러하였던것이며 자본주의 제도에 있어서도 역시 사태가 이렇게되어있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서는 다만 부르조아지를 주권에서 축출하고 또 자본가들 수탈만 할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지의 국가기구를 전혀 즉 그의 낡은 군대, 그의 판로주의적 판리배, 그의 경찰을 분쇄하고 그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프로레타리아트적 국제,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가를 수립하는것이 필요하였다. 다 아는바와같이 볼셰비크들은 실로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로부터 프로테타리아트 국가의 요구에 적절하게 변환된 낡은 국가의 어떠한 기능이 새 프로테타리아트 국가에 보존될 수 없다는 결론은 도무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가 반드시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우리 국가의 모든 최초의 기능이 앞으로 전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 국가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외부환경의 변천에 따라서 변경되며 또는 변경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해년의 말은 완전히 옳은 것이다.

『부르조아지의 국가 형태는 극히 다종다양한 것이나 그 본질은 하나이다. 즉 이 모든 국가는 어쨌든 결국에는 부르조아지의 독재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과도기에 있어서도 다종다양한 정치 형태가 있게 될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서 그 본질은 불가피적으로 하나일 것이니 그것은 즉 프로테타리아트의 독재다』 (레닌 전집 제 21권 三九三 페이지)。

十月혁명 이후로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는 그 발전에 있어서 두 개의 주되는 계단을 경과하였다.

첫 계단은 十月혁명으로부터 착취계급을 청산하는데까지 이르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기본적인 임무는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외국 무력 간섭에 대항하여 국방을 조직하며 공업과 농업을 부흥시키며 자본주의적 분자의 청산을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데 있었다. 우리 국가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에 적합한 두 개의 기본적인 기능을 실현하였다. 첫째 적들은 국내의 전복된 계급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 국가가 외형상으로는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진압하는 직능을 리행하던 종래의 국가들과 상사하였으나 그러나 종래의 국가들은 소수인 착취자의 리익을 위하여 다수인 피착취자를 진압한 그 대신에 우리 국가는 다수인 근로자의 리익을 위하여 소수인 착취자를 진압한 원칙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직능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도 역시 그가의 형상으로는 무력으로 자기나라를 옹호하던 종래의 국가들과 상사하였으나 그러나 종래의 국가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수인 착취자의 부원과 특권을 옹호하는 그 대신에 우리 국가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다수인 근로자의 전취물을 보호한 그런 원칙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셋째 직능도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가 각기판의 경제적 조직자적 활동과 문화—교양적 사업인데 그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의 맹아를 발육시키며 사람들을 사회주의적 정신으로 재교양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 직능은 그 시기에 있어서 중대한 발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둘째 재단은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분자를 청산하는 시기로부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완전한 승리와 새 헌법체제에까지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기본적 임무는 전국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경제를 조직하며 자본주의적 분자의 최후의 잔재를 청산하며 문화혁명을 조직하며 국방을 위하여 아주 현매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었다. 우리 사회주의적 국가의 직능도 이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 국내에서의 군사적 진압의 직능은 평락 조락되었다. 그것은 착취가 청산되었고 착취자들이 이미 없으며 진압해야 할 사람이 없는 까닭이었다. 국가의 진압적 직능은 인민의 부(富)의 회형과 도적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소유물을 보호하는 직능으로 대체되었다.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군사적으로 보

위하는 직능은 전적으로 보존되었다. 그런즉 붉은 룩해군이 보존된 것이오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과송하는 정탐꾼, 살인배, 해독자들을 잡아내고 정벌하기에 필요한 경비기관과 경찰기관이 보존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제적—조직자적 활동과 문화—교양적 사업의 직능이 보존되었으며 또는 원만하게 발전되었다. 지금 국내에서의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평화적 경제—조직자적 활동과 문화—교양적 사업에 있다. 우리군대, 경비기관 및 경찰기관에 대하여 말하면 벌써 그의 예봉(銳鋒)은 국내에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외부에, 외계의 적들을 반대하여 향하고 있는 것이다.

보느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아직 보지 못하였으며 또는 그 형태와 직능으로 보아서 사회주의 첫계단의 국가보다 현저하게 차이나는 전연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발전은 여기에서 끝낼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하여 앞으로, 공산주의에로 향하여 나가고 있다. 공산주의 시대에 가서도 역시 우리에게 보존되었는가?

그렇다, 만일 자본주의적 포위가 청산되지 않고 만일 외계의 군사적 침공의 위험이 퇴치되지 않는다면 물론 국가가 보존된 것이다. 이에 있어서 내부적 및 외부적 환경의 변천을 따라 우리 국가의 형태가 다시 변경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아니다, 만일 자본주의적 포위가 청산되며 만일 그것이 사회주의적 포위로써 대체된다면 물론 국가가 보존되지 않고 사멸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국가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둘째 문제——이것은 쏘베트인헤리겐차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국가에 대한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내에는 다소의 모호한 견해와 혼란이 있다.

쑸베트인테리겐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의 립장이 완전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내에는 지금도 쑸베트인테리겐차에 적대되는 또는 당의 립장과 부합될수없는 견해가 류행되고있다. 아는바와 같이 이처럼 그릇된 견해의 소지자들은 쑸베트인테리겐차를 노동계급과 농민에게 대한 이분자적 또는 심지어 적대적 역량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하여 멸시와 모욕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말 인테리겐차는 쑸베트의 발전 기간에 인민과 접근하며 또 인민과 더부러 충실하게 합작하면서 그 성분으로나 그 처지에 있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으니 이것으로써 그는 남은 부르조아적 인테리겐차보다 원칙적으로 차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지들은 보전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하지않는 모양이다. 그들은 인테리겐차가 지주와 자본가에게 복무하던 남은 시대에 적당한 그 견해와 그 태도를 옮지않게 쑸베트인테리겐차에게 대하여 쓰면서 남은 피리(笛)를 계속하여 불고있다.

혁명전 남은 시대에는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인테리겐차가 우선 유산계급——귀족, 공업가, 상업가, 골라크 및 기타의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인테리겐차의 대렬에는 역시 소시민과 소판리의 출신, 심지어 농민과 노동자의 출신도 있었으나 그들은 거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할수도 없었던것이다. 당시의 인테리겐차는 전체로 유산계급에게서 먹고살았으며 유산계급에게 봉사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나라의 혁명적 분자들과 우선 노동자들이 인테리겐차에 대하여 흔히는 증오심으로 넘어간 불신임을 품고 있는것은 명백

한 일이었다. 물론 낡은 인테리겐차는 로동계급의 립장에 나서서 자신의 운명을 끝까지 로동계급의 운명과 련결시킨 용감한 혁명자 수十명의 개별적 인물들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인테리겐차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던 까닭에 그들은 전체 인테리겐차의 면모를 변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十月혁명 이후에, 외국의 무력적 간섭을 박멸한 뒤에, 특히 공업화와 농업집단화가 승리한 뒤에 착취의 제도를 퇴치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가 확립되어 나라에 세 령 법을 주게 되고 그것을 실생활에 실현할 현실적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때에 와서는 인테리겐차에 대한 사태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가장 세력있고 숙련한 낡은 인테리겐차의 부분은 벌써 十月혁명의 첫치기에 인테리겐차의 남아지대다수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소비트주권에 대하여 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해업분자로 나섰다. 그들은 이 대가로 상당한 정벌을 당하였다. 그들은 소비트주권기관에 의하여 박멸되었고 소탕되었다. 그 후에 그들중에서 보전되어있은 그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원부들에게 해독자, 람점꾼으로 정모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를 인테리겐차의 대오에서 제거하였다. 숙련정도는 낮으나 수가 많은 낡은 인테리겐차의 다룬 부분은 「좋은 시절」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설자리에서 담보하다가 다음에는 아마도 할수없음을 알고 근무인으로 되기를 결정하였고 소비트주권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 그루빠의 낡은 인테리겐차의 대부분은 벌써 로쇠하여 대렬에서 나가기 시작하였다. 낡은 인테리겐차의 셋째부분, 주로 인테리겐차의 하층부분, 상술한 부분의 인테리겐차 보다 적게 기술을 소유한 부분은 인민과 결합되어 소비트주권을 딸아왔다. 그는 자기의 지식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었고 실상 그는 우

리대학에서 학습을 보충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은 인테리겐차의 이 고등스러운 분해 및 와해과정과 병행하여 세 인테리겐차의 력량의 형성, 동원 및 결합의 격렬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로동계급, 농민, 근로인테리겐차 대렬의 출신인 청년 수십萬명이 대학과 전문학교에 들어갔으며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회박해진 인테리겐차의 대렬을 보충하였다. 그들은 인테리겐차 대렬에 새로운 활기를 주입시켜서 그들을 새롭게, 쏘베트적으로 재생시키었다. 그들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테리겐차의 전 면목을 근본적으로 변형하여놓았다. 남은 인테리겐차의 잔재는 새로운, 쏘베트적, 인민적 인테리겐차 대렬속에서 용해되었다. 그리하여, 인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그의 절대다수가 신념과 진심으로써 인민에게 복무하려는 새로운, 쏘베트적 인테리겐차가 조성되었다.

그 결과에 우리는 지금 그 성분상으로나 또 그 사회-정치적 면모로 보아 남은 부르주아적 인테리겐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많은 새로운, 인민적, 사회주의적 인테리겐차를 소유하고있다.

인테리겐차에 대한 불신임과 그와의 투쟁의 필요를 지적하는 남은 리론은 지주와 자본가에게 봉사하던 혁명전 남은 인테리겐차에게 대하여는 아주 적절하였다. 지금와서 이 리론은 낡아빠진것이 되었고 벌써 우리의 새로운 쏘베트인테리겐차에게는 적당치 않다. 새 인테리겐차에게 대하여는, 그에 대한 친선적 관계, 그에 대한 배려, 그에 대한 존경,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의를 위하여 그와의 합작의 필요를 지적하는 새 리론이 요구된다. 이만하면 명백한듯싶다.

인테리겐차의 처지가 이와같이 근본적으로 모두 변동된 뒤에도 우리당내에는 아직까지 부르주아적 인테리겐차를 반대하는 남은 리론을 그 기본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인테리

겐차인 우리의 새로운 소비트인텔리겐차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은 더우기 기이하며 피상한 일이다. 이 사람들은, 얼마전까지 공장과 골호즈에서 쫓따하노브 적으로 일하던 로동자와 농민들이 그후에 지식을 얻기 위하여 대학에 파견될것 같으면 그때문에 그들이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二류의 사람으로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지식이란 것은 해롭고 위험한 것으로 된다. (웃음). 우리는 모든 로동자와 모든 농민들을 문화적이고 유식하게 만들려고 원하며 또 우리는 앞으로 점차 이것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 피상한 동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시도는 자체에 거대한 위험을 포함한 것으로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로동자와 농민들이 문화적이고 지식있는 사람으로 된 뒤에는 그들이 제二류의 사람의 대렬에 편입될 위험에 직면할수 있는 까닭이다. (일동의 웃음). 잘못하면 이 피이한 동지들은 앞으로 라후, 몽매, 암흑, 암매를 찬송하는데까지 전락될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리론상 탈선은 언제든지 좋은 일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텔리겐차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되어있다.

* *

당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면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즉

一、당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며 개별적 선택의 절차로써 다만 검열된 또는 공산주의의 대열에 충실한 동지들만을 당대렬에 받으면서 당성분을 계통적으로 개선시킬것.

二、지도기관들을 하부사업에 접근케 함으로써 그들의 지도적 사업이 한층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되게 하며 회의식과 사무실적 방식을 한층 더 적게 할것.

三、간부들의 선발사업을 중앙집권화시키며 간부들을 배려하여 양성하며 일꾼들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연구하며 젊은 일꾼들을 주저없이 등용하며 간부들의 선발 및 배치사업을 당의 정치적路線의 요구에 적응케 할것.

四、당선전 및 선동사업을 중앙집권화시키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선전을 확장하며 우리간부들의 리론적 수준과 정치적 훈련을 제고시킬것.

동지들! 나는 지금 나의 총결보고를 끝맺으려고 한다.

나는 우리당이 결산기간에 지나온 길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기간의 당과 그의 중앙위원회사업의 결과는 모두 아는것이다. 우리에게는 결점과 오류도 없지않았다. 당과 그의 중앙위원회는 이 결점과 오류를 은폐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거대한 성과와 거대한 달성도 있었는바 그것은 우리 머리에 현존증을 이르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되는 총화는 우리나라의 로동계급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시킴으로써 자기사업의 정당성을 전세계에 확충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주되는 총화가 있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로동계급의 힘과 그의 중국적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을 공고케하여주는 까닭이다.

세계각국의 부르조아지는 자본가와 지주가 없이는, 상업가와 골라크가 없이는 인민이 살
아나갈수 없다고 지껄이고있다. 우리나라의 로동계급은, 인민은 착취자가 없이 훌륭히 살
아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제에서 증명하였다.

세계각국의 부르조아지는 로동계급이 낡은 부르조아적 제도를 파괴한뒤에 낡은것 대신에
무엇이나 새것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고 지껄이고있다. 우리나라의 로동계급은 그가 낡은 제
도를 파괴하기에만 능한것이 아니라 또한 새롭고 훌륭한 사회주의적 제도, 말하자면 공
황도 실업도 다 모르는 그런 제도를 건설하기에도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
제에서 증명하였다.

세계각국의 부르조아지는 농민은 사회주의 길에 나설 능력이 없다고 지껄이고있다. 우
리나라의 골호즈농민은 그가 성과있게 사회주의 길에 나설수있다는것을 실제에서 증명하였다.

세계각국의 부르조아지와 그의 개량주의적 미행자들이 특히 회독하려고 애쓰는 주요점
은, 로동계급내에서 그의 역량에 대한 신념을 근절하고 그의 승리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
한 신념을 근절하며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를 영원히 보전하려는 그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만일 자본주의가 아직 전복되지않었고 그가 아직까지 계속존재한
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질이 좋은 까닭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아직도 자
기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신념이 없는 까닭임을 부르조아지는 알고있기때문이
다. 이 방면에서의 부르조아지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는 말할수없는것이다. 부르조
아지와 로동계급내에 있는 그의 주구들은 의혹과 불신임의 독소(毒素)로써 어느정도까
지 로동계급의 정신을 중독시키었다는것을 시인하여야 될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로동계급

의 성과가, 만일 그의 투쟁과 승리가 각자 본주의 국가의 로동계급의 의기를 높여주고 그 자체의 역량에 대한 신념과 자기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공고케 한다면 우리 당은 자체의 사업을 무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은 아무의 심할바도 없는 것이다. (폭풍우같이 계속되는 박수)。

우리의 승리적 로동계급 만세! (박수)。

우리의 승리적 팔호농민 만세! (박수)。

우리의 사회주의적 인테리겐차 만세! (박수)。

우리나라 제민족의 위대한 친선만세! (박수)。

조선 불쇄비크 공산당 만세! (박수)。

(모든 대표들은 일어서서 쓰팔틴 동지들 축하하며)

박수갈채를 보낸다. 「우라! 쓰팔틴 동지 만세! 위대한 그에게 쓰팔틴 오랫동안 계속되는 우리의 경

애하는 쓰팔틴 우라!」하는 환호소리)。